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호 1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 호 (239)
1964년 1월 (상)

차 례

—문 답 학 습—

김 일성 수상의 신년사

친애하는 동지들!

친애하는 동포 형제 자매들!

우리 인민이 더 큰 승리를 달성하며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희망찬 새해--1964년을 맞이하여 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인민은 지난 1963년에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빛나는 업적을 자랑하면서 더욱 광명한 앞날에 대한 신심을 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1963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초과 완수하였습니다. 나라의 경제 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공업 생산은 계속 급속히 장성하고 공업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3년에 공업 총 생산액은 그 전해에 비하여 108%로 장성하였습니다.

채취 공업을 선행시키며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여 우리의 중공업은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더 잘 복무하게 되였습니다. 모든 중공업 부문들에서 공장 설비들이 정비 보강되였으며 생산이 더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였습니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 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비상한 열성과 재능을 발휘하여 인민 경제의 발전과 기술 혁명의 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 경리에 더 많은 기계 설비들을 생산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종류의 새로운 대형 기계들과 정밀 기계들을 훌륭히 생산하였습니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는 중앙 경공업 공장들과 지방 산업 공장들의 기술 장비가 개선되고 경공업의 원료 기지가 확대 공고화되였으며 제품의 질이 현저히 제고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공업은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 공업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토대로 되었

습니다.

나는 공업, 운수, 건설 등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운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농촌 경리 분야에서 또다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당의 부름에 따라 수 많은 청장년들이 농촌에 진출하고 농업에 대한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의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농촌 진지는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일층 공고화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도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 논 면적을 확장하였으며 토지와 농작물을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962년 영농기에 우리 나라의 전체 논 면적이 54만 정보였는데 지난 봄에는 그것이 58만 정보로 늘어 나고 지금에 와서는 벌써 64만 정보에 달하였습니다.

농촌에서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도 급속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1963년 한 해 동안에만도 4,000 여 대의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를 비롯하여 각종 농기계들이 다량으로 농촌에 공급되였습니다. 지난해에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그 전해에 비하여 106%로 장성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농촌 리의 93.3%, 전체 농가의 71%에 이미 전기가 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3 년 내에 전기가 들어 가지 않은 농촌이나 농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로력적 열성이 제고됨으로써 농촌에서 선진 영농 기술이 더 광범히 보급되였으며 모든 영농 작업이 제때에 훌륭히 수행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도 기후 조건은 매우 불리하였으나 농업 생산에서 류례 없는 대풍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곡 총 수확고가 장성하고 특히 벼의 생산이 대대적으로 증대된 결과 우리는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해마다 계속되는 풍작은 우리의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가 자기의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면서 계속 확고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정확한 농업 정책과 우리 농민들의 헌신적 로력 투쟁이 가져 온 빛나는 결실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가 달성한 가장 큰 승리의 하나입니다.

나는 당의 농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부단한 앙양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근면한 협동 농민들과 농기계 작업소, 국영 농장 로동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문화 혁명의 수행에서도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과학, 교육, 보건, 문학, 예술, 체육 등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붉은 과학자들은 대담하고 인내성 있는 노력으로 의학과 생물학의 발전에서 일대 전변으로 되는 경락 계통의 발견을 비롯하여 많은 훌륭한 연구 성과들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더욱 찬란히 꽃 피고 있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구한 문화 전통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는 데서 찬란한 업적을 쌓아 올린 과학자, 교육자,

로젠 일'군, 작가, 예술인들과 문화 전선의 모든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류례 없는 민족적 번영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지혜와 재능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만발하고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고도로 앙양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자랑하며 보람찬 사회주의 새 생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전투적 기개와 혁명적 락관주의로 충만되여 있습니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 훌륭한 앞날을 위하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켰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물질적 정신적 준비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나는 불굴의 의지와 무비의 정열을 가지고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 자기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며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고 있는 전체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있는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과 경비대원, 사회 안전원, 로농 적위대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포 형제 자매들!

우리는 금년에도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남조선 형제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지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기만 술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최근 미제와 그 주구들은 《민정 이양》의 간판 밑에 선거극을 연출하고 마치도 《새 정권》이 남조선의 파국 상태를 수습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위하여 그 무엇을 할 수 있는듯이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술책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남조선 인민들은 결코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없으며 우리 조국은 통일될 수 없습니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은 남북 동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조국 통일의 기본 장애입니다.

박 정희를 두목으로 하는 남조선 통치배들은 입으로는 《자주, 자립》을 떠들고 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미국 군대의 남조선 강점을 비호하며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굴종하면서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 먹고 있으며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 정희 도당은 그의 모든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미 제국주의의 충실한 주구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남조선에 일본 군국주의 세력까지 끌어 들이려고 온갖 굴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 도구에 불과한 현 남조선 정권에 대하여 인민들이 기대할 것이란 아무 것

도 없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결정적인 반미 구국 투쟁을 전개하여 미국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괴뢰 정권을 타도함으로써만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주, 자립을 위해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 내부의 힘과 자원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농업 지대와 북조선의 공업 지대를 결합시키고 남북 조선 인민들의 힘을 합하여 국내의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우리는 짧은 기간에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부강한 통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학생, 기업가, 상인들과 모든 애국적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용감히 떨쳐 나서야 합니다.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남북의 합작과 경제 문화의 교류를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북반부 인민들은 언제나 남조선 인민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남녘 동포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지지 성원할 것입니다.

남북 조선 인민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쫓겨날 것이며 전 민족의 일치한 념원인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동포들에게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전체 북반부 인민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성원을 보내며 새해에 그들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60만 재일 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공민들에게 새해의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총련의 지도 밑에 재일 동포들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와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할 것을 축원합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 정세는 인민들의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력량은 부단히 장성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 대중의 혁명 력량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수정주의자들의 정체는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인민들의 심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혁명 동지들과 벗들이 계속 늘어 가고 있으며 그들은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 전선에 련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도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진리를 가릴 수 없으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완강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나는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에게,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그리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새해에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여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아름답게 꾸리려는 전체 인민의 혁명적 열정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금년도 인민 경제 발전의 기본 방향은 우리의 중공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면서 이미 축성된 중공업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는 것입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온갖 착취와 압박,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이미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에서 활짝 꽃피게 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인민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성숙된 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절실한 념원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하며 이 부문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방직 공업을 계속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색갈과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각종 직물들을 더 많이 짜 내며 직물 생산에서 고급 직물과 겨울용 직물의 비중을 훨씬 높여야 하겠습니다. 금속 제품, 전기용품, 목제품, 수지 제품을 비롯하여 각종 일용 필수품과 문화용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편리하게 문화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식료품 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장, 기름, 두부를 풍족하게 생산하며 우리 나라에 풍부한 실과, 채소, 수산물, 산채와 산열매 등을 더 잘 가공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며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대규모 경공업 공장, 지방 산업 공장, 생활 필수품 직장들에서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다 동원하여 소비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소비품 생산 부문에서 연구 사업과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며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책임성을 부단히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인민 생활에 필요한 다종 다양한 상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며 짧은 기간 내에 제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농촌 경리의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며 온갖 자연 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리화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논밭에 관수 체계를 수립하며 그 중 논 면적을 1～2 년 내에 70만 정보에 달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치산 치수 사업 특히 중소 하천 정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농경지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토지를 부단히 개량하고 정리하며 토지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곳에서 2모작을 광범히 도입하여 밭농사에서 예비를 남김 없이 동원하여야 하며 고원 지대의 농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수리화와 함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은 농촌 기술 혁명의 수행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로선입니다. 금년에 국가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농기계와 화학 비료, 농약을 농촌에 공급할 것이며 농촌 전기화에 계속 힘 쓸 것입니다. 협동 농장들과 농기계 작업소들에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의 리용률을 높이며 화학 비료를 더 효과적으로 시비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 영농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고 집약적인 영농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단위 당 수확고를 훨씬 높여야 하겠습니다. 종자를 개량하고 자급 비료를 더 많이 내며 밭갈이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각종 영농 작업을 제때에 잘 하여야 합니다.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은 영농 기술에 대한 연구 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우리 나라의 밭농사에 더 적합한 종자를 얻기 위하여 종자 개량 사업과 채종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협동 농장들에서, 모든 논밭에서 정보 당 알곡을 500 키로그람 이상 증수하기 위한 군중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곡 수확고를 높이고 벼의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켜 나아간다면 우리는 알곡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게 될 것이며 전체 인민이 다 이밥을 먹도록 하기 위한 전투적 과업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업을 발전시켜 육류를 더 많이 생산하며 공예 작물 생산도 계속 증대시켜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업의 튼튼한 기초가 축성된 조건 하에서 우리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와 방조,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만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 사업의 모든 령역에서 더욱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농촌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 없앨 수 있으며 로동자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접근시킬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농촌에서의 당 사업을 강화하고 농촌에 더 많은 방조를 주어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까지 협동 농장들에서 자체로 진행하던 기본 건설 사업을 앞으로는 국가에서 담당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에 대한 협동 농장들의 채무를 완전히 면제하며 농업 현물세를 점차적으로 철폐하는 등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들을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할 것입니다.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금년에 중공업 부문에서의 중심 과업은 이미 축성된 중공업 기지에 계속 살을 붙이고 공장들을 더욱 정비 보강하여 우리의 중공업으로 하여금 자체의 위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며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 더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중공업 기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선행시켜 철광석을 비롯한 각종 광물과 석탄 채굴량을 훨씬 더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현재 신설 중에 있는 대규모의 발전

소 건설 공사들을 추진시키고 중 소 발전소 건설 사업을 계속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중공업 공장들에서 설비를 개선하고 보강하며 설비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기계 제작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기술 혁명의 수행을 적극 추진시킬 것이며 철도의 전기화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천리마의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거대한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1964년을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해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과 자립 경제 건설의 로선을 계속 확고하게 견지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며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 철저히 수립하여 우리 제도의 우월성과 인민 대중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 대중 속에서 계급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전면적으로 수립하며 부화와 안일, 권태증을 배격하고 계속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고 명랑하게 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당 주위에 쉬석 같이 단결하여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것이며 우리의 혁명 기지를 철옹성 같이 다질 것입니다.

나는 새해에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또다시 빛나는 공훈을 세우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남녀 로소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생활에서 더욱 큰 행복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전환의 해, 1964년!

7개년 계획의 네 번째 해, 1964년의 전투는 시작되였다.

철의 기지 송림과 강선의 용해공들, 평양과 구성, 신의주와 개성의 방직공들, 숙천과 문덕의 협동 농민들… 당이 제시한 10대 과업을 관철하여 지난해 계획 수행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우리 근로자들은 지금 가는 곳마다에서 결의도 새롭게 새해의 첫 전투에 들어섰다.

지난해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과 관리, 생활과 사상 의식의 전 전선에서 참으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우람찬 진군 속에서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중공업은 더욱 정비 보강되였으며 경공업 기지도 더욱 튼튼하게 되였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 나라 공업 총 생산액은 그 전해에 비하여 또다시 108%로 장성하였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농사도 잘 되였다. 우리의 농촌 진지는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전국의 도처에서 그 전해에 비하여 농업 생산 특히 벼 생산과 그 정당 수확고가 훨씬 증대되였다.

새 체계, 새 방법은 대오의 전진에서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고 1963년을 가르쳐 주는 해로 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지도 일'군들의 관리 운영 수준과 지휘 능력은 한층 더 제고되였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 앙양이 일어 났으며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사업이 더욱 발전되고 과학 연구 사업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지난해 우리 나라 과학자들에 의한 경락 계통의 위대한 발견은 현대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개척하였으며 우리 당 과학 정책의 정당성을 온 세상에 유감 없이 과시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만 사람의 심장을 틀어 잡았으며 당과 인민은 깨뜨릴 수 없는 하나의 전일체로 단합되였다.

100% 참가, 100% 찬성! 지난해 지방 주권 기관 선거에서 달성한 이 력사적 승리는 우리 인민의 정치 생활에서 찬연히 빛날 또 하나의 기념비적 사변이였으며 우리 제도와 정권의 강화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 형편은 좋으며, 그것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

1964년! 이 해는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가.

이 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질 좋고 다종 다양한 인민 소비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사회주의 조국의 정치 경제적 위력은 더한층 강화될 것이다.

1964년! 이 해의 투쟁은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을 두고 꿈꾸어 오던 간절한 념원,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살아 보자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사회주의의 더 높은 고지에로의 우리의 전진 운동을 추진하는 장엄한 투쟁이다.

*　　*

1964년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의 해, 7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전진의 해, 천리마의 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다시 한 번 대고조를 불러 일으키는 비약의 해이다.

그것은 금년에 우리가 해결하려는 인민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과 전망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으며 그의 비상히 높은 발전 속도에서 뚜렷이 증시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금년에 우리 당은 한편으로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축성해 놓은 중공업을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려고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금년에 《…우리가 내세운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은 우리의 중공업 기지를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면서 이미 축성된 중공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그것을 경공업과 농촌 경리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 인민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내며 인민 생활을 지금보다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우려는 데 있다.》 (《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이 과업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재 형편과 장래 전망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한 것이며 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7 개년 계획의 력사적 과업 수행에서 거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나라의 경제를 계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전망 계획의 총적 방향을 옳게 설정하는 것과 함께 개별적 시기의 생산력 발전 수준과 조성된 정세에 적응하게 해당 시기 경제 발전의 구체적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장기적인 전망 계획의 총적 방향과 개별적 시기의 구체적인 경제 발전 방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때에만이 매 시기 각이한 경제 부문들 간의 합리적이며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의 비상히 높은 발전 속도를 부단히 보장할 수 있으며 해당 시기에 축성한 경제 토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 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은 바로 7 개년 계획의 전망적 과업에 확고히 의거한 것이며 그의 첫 3 년간에 달성한 성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일치한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한 고지를 점령하고 그 진지를 공고히 한 토대 우에서 새로운 더욱 높은 고지에로의 진군을 개시하는 그러한 단계에 처하여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쌓아 올린 자립 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대담하게 밀고 나갈 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의 중공업 기지는 더욱 보충되고 완비되였으며 자체의 원료 기지에 확고히 의거한 경공업 기지와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가일층 강화되였다.

특히 당과 인민이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푼전을 아껴 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전 고투하여 이룩하여 놓은 중공업의 토대는 자기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밑천으로 되였다.

이제 와서 우리는 제힘으로 생산한 연료, 동력, 자재 및 기계 설비들로 민족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주로 자체의 중공업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중공업은 이미 형성된 공간에 살을 계속 붙이고 기존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철, 강재를 비롯한 중공업 제품의 증대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위력하고 현대적인 것으로 되였다.

가시키면서도 중공업, 그 중에서도 특히 채취 공업, 전력 공업, 철도의 전기화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훨씬 더 제고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대될 것이다.

기본 건설 투자의 이러한 방향은 중공업의 장래 발전을 예견성 있게 준비하면서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 하며 인민 생활과 경제 건설에서 다 같이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금년도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7 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금후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될 것이다.

공업과 기본 건설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국가 축적과 인민 생활 향상의 원천으로 되는 국민 소득의 높은 장성 속도가 또한 달성될 것이다. 금년에 국민 소득은 지난해에 비하여 121%로 장성될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수입은 108%, 농민들의 실질 수입은 114%로 장성하게 된다.

우리의 중공업이 경공업과 농업에 잘 복무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은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이 올라 감으로써 인민들은 각가지 전기 철제 일용품들과 보기 좋고 맵시 있고 쓸모 있는 목제품들, 아름답고 질 좋은 도자기와 유리 제품들, 각가지 문화용품과 모든 필수품들을 더 많이 공급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보다 윤택하고 부유하여 질 것이다.

실로 금년도 계획은 공업과 농촌 경리, 기본 건설 등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비약을 예견하는 혁신과 전진의 계획이며 혁명적 대고조의 계획이다.

이 계획의 실현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전반적으로 촉진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총체적으로 7 개년 계획의 강령적 과업 수행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게 할 것이다.

* *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인민 경제 발전의 휘황한 전망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한히 흥분시키고 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로력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우리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달리고 또 달려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며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결정적 담보는 모든 부문에서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경험은 대중이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집행에 의식적으로 동원될 때 해결 못 할 그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급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은 무엇보다 먼저 근로자들 속에서 금년도 계획 실행을 위한 사상 동원 사업과 조직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계획 실행에 한결 같이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 조직들이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키잡이'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당 정책 집행에서 중심 고리의 장악과 전반적 장악을 옳게 결합하는 것이다.

사업에서 중심 고리의 원칙에 기초한 전반적 장악은 매 시기 제기되는 중심적 과업을 틀어 쥐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업을 다 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당적 령도의 형식이며 금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 담보이다.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은 자기 부문의

모든 사업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키잡이를 옳게 보장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고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나아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지도와 기업 관리 운영에서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지도 일'군들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의 우월성이 확증된 공업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리 체계에 상응하게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하고 제시된 과업 수행을 위한 방도를 대중과 토론하며 실천에서 걸리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착수한 일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관철하여 나아가는 혁명가적 사업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혁명하는 사람에게는 강의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난관 앞에 주저앉아 시작한 일을 중도반단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혁명가의 품성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곤난에 부닥치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뚫고 나아가며 백 번, 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 이기는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편지에서)

당은 지금 모든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살며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획—이것은 인민 경제 매개 부문, 단위들에서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계획 규률을 일층 강화하고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 규격별로 어김 없이 수행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계획 실행에서 기관 본위주의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련대적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들을 동원하여 자기에게 부과된 계획 특히 협동 생산 과제를 책임적으로 리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 다른 기업소들의 계획 수행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계획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하며 모든 자재를 아래에 내려다 주는 자재 공급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은 소비품 생산에서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근로자들의 장성하는 수요에 적응하게 품종을 확대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제품의 질 제고, 품종의 확대—이것은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예견한 금년도 계획 수행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이 사업을 전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제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케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 개의 제품을 만들어도 거기에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솜씨와 자기 자신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바쳐진 고매한 정신이 깃들게 하여야 한다.

금년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여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가까운 년간에 2 배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조직 전개하는 것이다.

기계와 기술이 없이는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도 없다. 사실 금년도 계획에 예견된 생산 계획과 방대한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로력이 요구된다.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비상적으로 높이는 것은 로력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고리이다.

기술 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농촌 경

리의 기계화와 채취 공업 및 지방 공업의 기계화를 비롯하여 힘 드는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기계화를 추진시키는 것이며 이런 것이 모든 부문에서 새 기술 공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전면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전 당이 이에 달라붙어야 하며 기술 혁신 운동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술 혁신 운동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가일층 [illegible]시키는 것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의 [illegible] 도처에서 기[illegible], [illegible] 기술이 [illegible]다.

기술 [illegible] 중요하다. [illegible] 사회주의 [illegible]어야 한다.

[illegible] 사람과의 [illegible] 일'군들은 이 사업에 [illegible] 기쁨, 민첩[illegible]야 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illegible] 부족품을 [illegible] 확립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은 [illegible]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을 [illegible] 애호하고 자 [illegible] 불량 개소를 제때에 퇴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은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할 것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애호 관리하며 절약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된 근로자들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인민 경제 매개 부문 기업소들에서는 전기를 절약하며 한 그람의 철, 한 오리의 실, 한 장의 종이라도 아껴 쓰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에 한 사람 같이 동원되여야 한다. 그와 함께 일'군들 속에서 부화와 안일을 반대하고 검박하게 살며 근면하게 일하는 건전한 생활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1964년을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해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다.》(김 일성 수상의 신년사에서) 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모든 부문에서 관철하여야 한다.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우리가 일으키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는 조국 통일의 위업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 특히 현대 수정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모든 부문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고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더 빨리, 더 좋게, 더 잘 건설함으로써 내외의 원쑤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적 성과로써 위압하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단결된 위력을 다시 한 번 시위하자.

1964년 인민 경제 계획과 채취 공업

조 창 덕

당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1964년도에 채취 공업을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선행시킬 것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채취 공업을 다른 부문에 선행시키는 것은 당이 제시한 1964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하며 나아가서는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함에 있어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지난 시기 공업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선행시키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여 왔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의 자체의 공고한 원료, 연료 기지를 축성하기 위하여 당은 채취 공업 부문에 막대한 자금과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채취 공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조치로 하여 1956년에 비하여 1962년에 석탄 생산은 338%로 장성하였으며 철광석 생산도 그보다 높은 비률로 장성하였다.

특히 작년에 당은 채취 공업에 력량을 집중하는 것을 1963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의 중요한 부문으로 규정하고 이 부문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석탄과 광석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의 생산을 계속 증대시켰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 하였거나 적게 생산되던 광석들을 대대적으로 캐여 낼 수 있는 막대한 원천들을 탐구하고 지금 그의 채굴을 위한 준비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척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 채취 공업 부문에서 달성한 성과는 실로 거대하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미 달성한 성과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중공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중공업에 살을 붙이고 인민 소비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냄으로써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우며 자립적 민족 경제를 일층 공고히 하여야 할 력사적인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4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은 앞으로 우리의 중공업 기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면서 이미 축성된 중공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그것을 경공업과 농촌 경리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 인민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내며 인민 생활을 지금보다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우려는 데 있다.

채취 공업을 선행시킴으로써만 앞으로 중공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 사업도, 이미 축성된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업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 인민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높이 올려 세우는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중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중공업을 한 계단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석탄 공업과 광업을 선행시킴으로써 원료, 연료 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제철, 제강 공업, 기계 공업, 화학 공업, 전력 공업 등 기간적인 중공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들에 필

요한 광석, 석탄들을 먼저 충분히 생산하여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채취 공업을 선행시켜 광석과 석탄을 충분히 생산하게 된다면 앞으로 중공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광석이 풍부하여지고 연료와 동력이 풍부하여지면 앞으로 금속 공장을 하나 새로 꾸려 놓는 것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러한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하지 않는다면 중공업 건설과 같은 복잡한 과업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다.》(《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채취 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켜 석탄과 광석을 더 많이 캐 내는 것은 중공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준비 사업 뿐만 아니라 당면한 생산의 장성과 인민 생활의 향상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광석과 석탄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식량》이다.

바로 이와 같은 공업의 《식량》을 담당하고 있는 석탄 공업과 광업을 선행시킴이 없이는 대규모화되고 급속히 발전하여 나아가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제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으며 생산의 높은 장성 템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당면하게 철도를 전기화하자면 더 많은 철과 세멘트, 석탄이 있어야 하며 농촌 경리의 화학화를 위한 각종 비료와 농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도 많은 류화철, 린회석, 카리, 석회석 그리고 석탄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인민 소비품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도 비날론, 염화 비닐을 비롯한 각종 수지 제품의 대량 생산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거의 모두가 석탄을 주원료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취 공업의 선행은 현 시기 당면한 생산 장성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채취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은 외화 획득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공업에 살을 붙이며 경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기계 설비들이 요구되는바 물론 그의 대부분은 자체로 생산 보장될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생산하지 못 하고 있거나 우리에게 부족되는 일부 기계 설비들과 원유, 생고무, 콕스탄 등을 비롯한 일부 원료들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입하여 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 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외화가 요구된다.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 수준에서 외화 획득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는 유색 금속들이다.

이와 같이 채취 공업을 선행시키는 것은 그것이 공업의 첫 공정이라는 일반적 사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채취 공업을 선행시킴으로써만 인민 경제 발전의 현재 수요와 전망적 수요를 동시에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금년에 채취 공업 발전에 력량을 집중하여 이 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움으로써 석탄과 광석에 대한 인민 경제의 장성하는 당면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그 생산을 계속 급속히 장성시킬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출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채취 공업이 비교적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건 하에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전투적 과업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당과 김 일성 동지의 배려를 받는 우리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무엇이나 다 해 내겠다는 혁명적 열의에 불타고 있으며 채취 공업 부문에 이미 꾸려진 확고한 물질 기술적 토대와 현대적 기계 공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의 강력한 지원이 있다.

일'군들이 이악하게 달라 붙어 사업을 하고 든다면 우리 나라의 땅 속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을 충분한 만큼 캐어 낼 수 있으며 당이 채취 공업 부문 앞에 제기한 과업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

* *

채취 공업을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결정적으로 앞세우기 위하여 제기되고 있는 과업은 무엇보다도 우선 지질 탐사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채취 공업의 발전은 지질 탐사 사업의 강화 발전에 크게 의존한다. 채취 공업이란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자연 부원을 캐 내는 것이니 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 얼마 만큼 어디에 얼마나 깊이 묻혀 있는가를 알아 내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금, 은, 동, 연, 아연, 석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하 부원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다. 우리 나라 전 면적의 80% 이상이 유용 광물 분포 지대로 되어 있으며 금, 은, 주석, 마그네사이트, 흑연을 비롯한 일련의 광종들은 그 매장량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손 꼽히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정확히 탐사하여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탐사 부문에서는 우선 현 가행 광산, 탄광들의 주변 및 심부에서의 탐사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 매장량과 지질 조건, 광맥과 탄맥의 상태를 세밀히 조사 장악하여 적어도 10년 분 이상의 매장량 및 광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처녀지들에 대한 탐사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량강도와 자강도 일대에서의 탐사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함남도 북부 일대에 대한 탐사 사업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있어서 탐사를 하자면, 광종별로 세부화된 탐사 계획 밑에 탐사 력량을 집중적으로 조직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광산들의 전망을 개척하며 채굴 조건이 유리한 지대에 광량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시기 지질 탐사 사업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여 우리 나라의 지질 조건에 맞는 새로운 기계 기술과 선진 탐사 방법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다. 시추기를 비롯한 탐사 설비 및 지질 조사 용구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는 동시에 탐사 기계, 부속품 생산 및 수리 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현존 기계 설비들을 능률적으로 리용하며 지구 화학 탐사 및 물리 탐사 방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탐사 방법을 일반화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 탐사 효과 및 탐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술 발전 계획을 과학적인 토대 우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과학자, 기술자 및 로동자들 간의 기술적 협조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안,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지질 탐사 현대화에 필요한 탐사 기계와 기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질 탐사 사업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지질 탐사 사업에 광범한 군중들을 인입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의하여 조직된 군중 탐사반들의 탐사에 의하여 수 많은 광상들이 새로 등록된 사실들은 그것을 잘 말해 준다.

채취 공업을 다른 부문에 선행시키기 위해서는 채취 공업 자체 내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 나야 한다.

채취 공업 부문에서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과업은 전망성이 풍부한 대규모 탄광 및 광산들에 투자를 집중하는 동시에 중소 규모의 탄광, 광산들을 변진시키며 새로운 후보지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석탄과 철광석 및 금, 은, 동, 아연, 연 등 유색 금속 광물들과 합금 원소 광물들의 생산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채취 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이와 같은 전투적인 과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선결적 문제의 하나는 갱 건설과 굴진 및 박토를 선행시키는 것이다.

갱 건설과 굴진 및 박토를 선행시킴이 없이는 광석 및 석탄 생산량을 계통적으로 증대시킬 수 없다. 굴진을 진행하는 행정은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생산 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고리이다. 건설을 떠난 채굴이란 있을 수 없다.

특히 심부 채굴 대상이 늘어 가고 있는 조건 하에서 영구갱과 수직갱 건설을 선행시키는 것이 긴급한 문제로 제기된다.

채취 공업에서 갱 건설과 굴진 및 박토의 선행은 하나의 법칙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천에서는 박토를 선행시키고 지하 채굴에서는 굴진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은 마치 수박을 먹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선 쪼개야 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석탄 공업과 광업 부문에서 굴진을 선행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갱 건설과 굴진을 선행시키기 위하여 당은 로력, 자재, 자금, 설비 등의 배정함에 있어서 굴진과 채굴의 비률을 5 대 5로 보장하며 갱 건설을 선망성 있게 진행함으로써 확보 탄량과 광량을 부단히 증대시키는 한편 예비 채탄 및 채굴장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당이 제시한 이와 같은 대책은 굴진을 선행시키고 석탄과 광석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조치이다.

경험은 당의 이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는 기업소들에서는 많은 성과를 달성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의 정상화와 그의 부단한 장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안주 탄광, 무산 광산, 덕현 광산을 비롯한 일련의 기업소들에서는 당의 이 요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것을 부단히 장성시켰다.

그러나 일부 탄광, 광산들에서는 굴진의 선행에 대하여 말로는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에서는 의연히 목전의 생산량에만 치중하여 굴진 부문의 로력과 설비들을 채굴 부문에 류용하는 현상들이 아직도 존속되고 있다. 그러한 결과에 굴진이 채굴에 충분히 선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갱 건설과 굴진을 선행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집체적 토의와 비준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매장량 분포 속성을 정확히 해명하고 진환 광량을 많이 확보하도록 갱 건설과 굴진 방향을 옳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헛굴진을 없애고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된다.

이와 함께 굴진 속도를 일층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광물과 석탄 생산의 증대는 채굴 및 채탄장 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는데 이것은 결국 채굴 작업의 속도보다 갱 건설과 굴진의 속도를 더 앞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굴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속도 굴진 운동을 강화하고 그에서 얻은 선진 경험들을 일반화하며 특히는 굴진의 선행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매개 일'군들에게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의 책임성과 자각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 기본 굴진은 3 년 분, 준비 굴진은 6 개월 분 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갱 건설과 함께 우기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것은 강우량이 많고 장마 기간이 긴 우리 나라 기후 조건에서 탄광들의 생산을 파동성이 없이 부단히 장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모든 탄광들에서 년초부터 갱 건설과 병행하여 우수 통로를 굴설하고 배수 체계를 확립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채취 공업 발전을 선행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탄광, 광산들에서 설비 리용률을 백방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예비 부속품을 3 개월 분 이상 확보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 설비들을 애호 관리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로동자로부터 책임적인 지도 일'군에 이르기까지 기술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기계 설비들에 정통하며 그것을 잘 다룰 줄 알 뿐만 아니라 자체로서도 능히 수리할 수 있을 만큼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며 채취률을 높이는 한편 광물의 빈화를 적극 방지하며 선광 실수률과 생산되는 광물의 품위 및 석탄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채취 공업 부문에서 생산 장성의 기본 고리의 하나이다.

특히 채취률과 선광 실수률을 제고하는 것은 동일한 로력과 자금으로 더 많은 석탄과 광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만약 광업 부문에서 채취률 1%만 높인다면 전국적으로 10만 여 톤의 광석을 더 얻어 낼 수 있다.

석탄 또는 광물들은 재생시키거나 번식시킬 수 없는 채취 공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는 선진 채굴법과 합리적인 선광 공정을 도입하여 한 덩어리의 석탄과 광물이라도 류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질 조건에 적응하게 련속 천공 종합 발파법, 분리식 채굴법, 수력 채탄법, 후층맥에서의 대공, 심공, 천공법 등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착암기 대당 라광량과 채취률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화학 시약들을 리용하는 중액 선광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선광법을 대담하게 도입함으로써 선광 실수률과 정광 품위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채취 공업을 다른 부문에 선행시켜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우선 채취 공업에서 생산 장성의 중요 담보로 되는 기술 장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계 공업 부문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채취 공업 부문에서는 로동자들이 대개는 지하 수백 메터의 깊이에서 자연과 투쟁하느니 만큼 일 자체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더 힘들 뿐만 아니라 로동 조건도 더 불리하다.

그러므로 기계 공업 부문들에서는 우리 나라 광산, 탄광들의 실정에 맞는 성능 높은 착암기, 비닉, 적재기, 운반 설비들과 선광 설비들을 비롯한 많은 기계 설비들을 집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광물은 량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다금속 광물로서 특징 지어진다. 이러한 다금속 광물들을 하나도 버림이 없이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한 많은 화학 시약들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질 좋고 다양한 화학 시약들을 대량 생산 공급하는 데 특별히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화학 연구

소들에서 보다 능률적인 화학 시약들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채취 공업 부문 일'군들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산, 탄광 부문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함으로써만 당의 특별한 배려에 의한 높은 지불을 받고 있는 이 부문 일'군들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채취 공업 부문의 작업 조건에 적합한 작업복, 로동화를 비롯한 로동 보호 물자들을 제때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작업을 편리하게 하고 로동자들의 건강을 도모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진다.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리 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탄광 지구에 있는 모든 류통망과 편의 시설 부문 일'군들의 봉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 채소전을 비롯한 자체의 부식물 공급 원천을 확대하며 매개 가정과 합숙들에서 돼지, 닭 등 가축과 가금들을 더 많이 기르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취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에 있어서 성과 여부는 주요하게는 이 부문을 다른 부문에 결정적으로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로동자들을 어떻게 조직 동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지도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로동자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갱 및 현장 실정을 정확히 료해한 기초 우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여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금번 진행된 전국 석탄 공업 부문 열성자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도 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일'군들 속에서 인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당을 위하여 일한다는 자각성을 높이며 그들에게 기술을 배워 주고 그들을 능력과 소질에 따라 적재 적소에 배치하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어서 뒤떨어진 사람은 앞선 사람들의 대렬에 이끌어 올리고, 소극 분자는 적극 분자로, 보수 분자는 혁신 분자로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여 모든 일'군들의 자각적 열성을 높이고 그들을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자금을 투하하고 로력을 불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당 및 이 부문 지도 일'군들은 우선 자신이 당의 요구를 심장으로 받들고 모든 단위들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사업 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과 기동가적 사업 기풍을 확립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당이 채취 공업 부문 앞에 제기한 과업을 영예롭게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차 대회를 맞이하는 조선 민주 청년 동맹

홍 순 권

一

청년들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혁명의 계승자이다.

《어느 민족을 물론하고 그 민족의 장래는 그 민족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어떻게 훈련되고 교양 받고 준비되였는가함에 달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대한 교양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의 력사를 물론하고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김 일성 선집 1953년 판, 제 2 권, 347 페지)

당은 창건 첫날부터 청년들을 우리 혁명 력량의 가장 생기 있고 적극적인 한 부문으로 인정하고 청년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일상적인 지도를 주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민주 청년 동맹의 창립과 발전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모든 성과의 기본 담보로 되였다.

당의 령도 하에 민주 청년 동맹은 창립 후 지난 18년간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정확히 조직 동원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과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조국과 인민 앞에 빛나는 업적을 쌓아 놓았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하에 영광스럽고도 자랑찬 길을 걸어 온 민주 청년 동맹은 금년 5월에 력사적인 제 5 차 대회를 맞이하게 된다.

민청 제 5 차 대회는 지난 기간 민주 청년 동맹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고 우리 혁명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제기되는 전투적 과업을 토의하게 되며 혁명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게 된다.

민주 청년 동맹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의 개조는 우리 나라 혁명 정세와 청년 운동 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다.

조국이 량단되고 우리 혁명 세력을 분렬시키려는 미제의 악랄한 책동이 계속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당은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력량인 청년들을 당의 주위에 결속시켜야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후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나라 혁명의 기본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공청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 단체들을 통합하여 대중적 청년 조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직접 민주 청년 동맹의 조직을 지도하였다. 이리하여 민주 청년 동맹은 로동 청년, 농민 청년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 각층 청년들을 단결시키는 우리 나라의 유일한 대중적 민주주의적 청년 단체로서 창립되였다.

이 로선의 정당성은 민주 청년 동맹이 걸어 온 승리의 로정이 실증하여 준다.

민주 청년 동맹은 창립 첫날부터 대중적 단체로서의 조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청년 운동을 분렬, 와해시키려는 미제와 반당 종파 분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광범한 청년들

을 민청 조직에 망라시켜 꾸준히 교양 육성함으로써 그들을 당의 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킬 수 있었으며 민주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한 투쟁에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있었다.

특히 민청은 로동 계급, 근로 농민들 속에서 배출된 우수한 청년들로 자기의 핵심 대렬을 튼튼히 꾸렸으며 동맹 내에서 로동 계급의 사상적 영향을 부단히 강화하였다.

또한 민청은 해방 후 청년들의 앙양된 애국적 열성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로력 전선에 적극 조직 동원함으로써 그들을 로동 속에서 더욱 단련시킬 수 있었으며 혁명적 전취물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수호하는 애국주의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킬 수 있었다. 이리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우리 조국 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렸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들어서면서 민청 조직은 더욱 공고 발전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됨에 따라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그들의 정치, 도덕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우리 당이 이 땅에 이룩해 놓은 행복한 제도 하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배우며 보람차게 일하고 있다.

로동 청년들의 대렬은 더욱 확장되였으며 국가 사회 생활과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역할은 더욱 높아졌다. 어제'날의 소생산자 출신이였던 도시와 농촌의 각 계층 청년들은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적 근로 청년으로 되였다.

오늘 민주 청년 동맹은 250 여 만 명의 청년들을 망라한 거대한 력량으로 장성 강화되였으며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새 생활의 창조자로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선진 돌격대의 역할을 담당 수행하게 되였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또한 당의 옳바른 교양과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사상 정치적으로 단련되였으며 문화 기술 수준도 비할 바 없이 높아졌다.

민주 청년 동맹은 당이 제시한 사상 교양의 방침에 따라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집중한 주의를 돌렸다.

특히 청년들 속에서 당 정책 교양과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순한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의 사상, 로동 계급의 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시킬 수 있었다.

민청 대렬을 질적으로 강화함에 있어서 공산주의 교양, 특히 혁명 전통 교양은 각별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민청 단체는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혁명 전통 교양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 당의 력사적 뿌리, 혁명의 근본을 철저히 인식시켰으며 항일 빨찌산의 고상한 혁명 정신과 인민적인 도덕 품성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왔다.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은 청년들의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되고 있으며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그들을 더욱 힘차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청산리 교시 실천을 위한 투쟁은 민청 사업의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민청 사업 발전을 저해하던 낡은 틀이 청산되고 아래를 도와 주는 혁명적인 사업 체계가 더욱 확립되였으며 민청 일'군들의 사업 작풍과 방법이 혁명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모든 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됨으로써 민청은 생기 발랄하고 힘 있는 조직으로, 혁명 과업을 능동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라 났다.

오늘 민청 대렬 내에는 공산주의적 청년 핵심들과 우수한 공산주의 교양자들의 대렬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 시대의 훌륭하고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광범한 청년들이 참가하여 생산과 건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으며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도우며 서로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는 감격적이고도 아름다운 미거로 생활을 꽃피우고 있다.

오늘 청년들 속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 생활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어 가고 있다.

학생 청년들의 생활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 났다. 학생 청년들 속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기풍을 확립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가 정확히 관철됨으로써 그들은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믿음직하게 자라 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맑스-레닌주의 기치,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앞날의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믿음직하게 육성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민주 청년 동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확고히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현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수 있는 계급적으로 준비된 청년들의 조직에로 발전하는 것이 당면한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민청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는 것은 또한 현 시기 민청 단체 앞에 나선 새로운 혁명 임무와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오늘 우리 당 앞에는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 같이 다지고 전면적인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만들며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망인 조국의 통일 독립을 하루 속히 실현하여야 할 어려운 혁명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위대한 포부와 희망으로 살며 혈기 왕성한 미래의 주인공들인 우리 청년들은 이 숭고한 위업 수행에서 응당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오늘 청년 동맹 앞에 나선 기본 임무는 전체 청년들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켜 당의 혁명 과업 실천에로 적극 조직 동원하며 전체 청년들을 지, 덕, 체가 겸비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는 데 있다.

민청 단체 앞에 제기된 이 영예로운 임무는 민주 청년 동맹을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공산주의 건설의 교대자의 조직으로, 보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민청이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의 개조는 조선 청년 운동 발전과 우리 혁명의 추진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우선 청년 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 놓게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일하며 배우는 로동 청년들을 핵심으로 한 근로 청년들과 학생 청년들이 단합된 공산주의적 청년 조직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교대자의 조직이다.

청년들의 사상과 지향의 통일—이는

청년 조직의 위력이 [illegible]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오늘 전체 맹원들과 청년들은 계급적 리해 관계에서 출발하며 당이 제시한 혁명 임무를 실행하려는 자각된 사상과 하나의 목적으로 결합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확고히 접수하고 있으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우리 당의 사상과 립장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로동 계급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희생을 아끼지 않으며 당의 정책이라면 [illegible] 가리지 않고 이악하게 관철하는 혁명가이며 공산주의적인 청년들의 전투 부대로 될 것이다.

청년 조직은 당원의 후비를 양성하는 학교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그의 성격에 적응하게 청년들의 조직 생활과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동맹원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하며 높은 계급 의식과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소유한 당의 믿음직한 후비 력량으로 준비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국가,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 복무하는 붉은 인재의 저수지로서 전체 청년들을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자기의 조직 교양자적 기능을 비상히 높이게 될 것이다.

민청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에로의 개조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더 한층 높일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청년 조직의 [illegible] 당 [illegible] 전체 맹원들과 청년들[illegible] 대한 당의 부여한 신뢰와 믿음의 표시이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기대에 무한히 고무되어 자기들의 성과를 더 한층 [illegible]적으로, 책임있게 주인으로서 자기 앞에 나선 모든 영예로운 임무를 더욱 빛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청 5차 대회를 앞둔 청년들의 장엄한 로력 투쟁과 새로운 위훈들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지금 전체 맹원들과 청년들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대회를 앞두고 자기들에게 보낸 민청 중앙 위원회의 호소문을 받들고 일떠 경제 모든 전선에서, 특히 [illegible]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 김 일성 종합 대학 건설을 위한 공사장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자의 영예와 긍지를 더욱 깊이 간직함으로써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선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서, 공산주의 건설자들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인간의 미덕을 더욱더 남김없이 발휘하게 될 것이다.

[illegible]이 지, 덕, 체를 겸비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되기 위한 청년들의 부단한 [illegible] 노력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술 문화 혁명의 [illegible]에서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의 개조는 남조선 [illegible] 운동의 발전과 그들의 [illegible] 고무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illegible] 사변으로 된다.

[illegible] 우리 나라의 [illegible] 사회주의 제도와 이 제도 하에서 [illegible] 청년들의 [illegible] 생활은 남조선 청년들의 투쟁을 [illegible] 고무하며 그들이 나갈 [illegible] 밝혀 주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illegible] 주시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미래의 [illegible]을 보고 있으며 그의 실

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궐기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자주, 자립, 자생, 자결의 기치 하에 반미 구국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것을 실증하여 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를 확고히 지향하는 우리 청년들의 통일과 단결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견확하기 위한 투쟁의 모범으로 된다. 그들은 과거 각이한 처지에 있던 각계 각층 청년들이 공산주의적 청년 단체인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에 결속되게 된 우리 청년 운동 발전 행정을 크나 큰 기대와 동경 속에서 바라 볼 것이다.

그리하여 남조선 청년들은 정치적 견해, 신앙의 차이 여하를 불문하고 새 생활, 새 정치를 위한 투쟁에서 단결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근로 청년을 중심으로 단결될 때에라야만 조국의 통일 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반미 구국 투쟁에 더욱 용감하게 떨쳐 나서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의 발전은 당의 령도 밑에 각계 각층 청년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교양 개조한 빛나는 총화이다. 이 경험은 앞으로 조국이 통일된 후 남북 청년들의 확고한 단결을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도 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오직 우리들의 단결된 력량, 근로 인민과 청년 대중의 확고 부동한 단결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

북반부 청년 학생들의 통일 단결된 힘과 이에 고무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신속된 힘을 합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불'길을 높인다면 우리 인민들의 최대의 민족적 숙망인 조국 통일의 위업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 ❋

민청 중앙 위원회는 5차 대회를 맞이하면서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로력적 위훈을 세우며 민청 조직의 공고화와 공산주의적 수양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할 것을 호소하였다.

당이 매 시기 제기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서서 그것을 끝까지 실행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훌륭한 전통이며 큰 자랑이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 당이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최근 년간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수행할 데 대한 력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 숭고한 혁명 과업 실현에서 영예로운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자기들의 력사적인 대회를 맞이할 것이다.

당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높은 신임과 큰 기대를 표시하고 건설과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철도의 전기화와 채취 공업, 대자연 개조 사업, 알곡 증산 등 모든 로력 전선에서 기적을 창조하며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온갖 창의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만 당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다.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된 로동으로부터 벗어 나게 하는 기술 혁신 운동에서 선봉 투사가 되는 것은 새 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 청년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견지하고 온갖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 신비주의를 분쇄하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함으로써 기술 혁신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어떤 곤난에 부닥치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뚫고 나아가며 백 번, 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 나 끝까지 싸워 이기는 불요 불굴의 혁명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체 청년들은 당의 이 가르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함으로써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며 국가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 투사로 될 수 있다.

민청 단체들 앞에 제기되는 당면한 중요 과업은 민청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민청이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 여부는 무엇보다도 민청 조직들의 전투력에 달려 있다.

민청 조직들이 생기 발랄하게 움직이고 청년들을 옳게 교양하여 힘 있게 이끌어 나갈 때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보위, 그리고 배움의 초소에서 그들의 정치적 자각성과 창조적 열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기의 력사적인 대회를 더욱 준비 있게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때문에 각급 민청 단체들은 대회를 앞두고 우선 민청원들이 동맹 규약에 철저히 립각하여 자각적이며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동맹 생활을 강화하며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민청 조직 정치 사업 수준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청원들 속에서 정치 사상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 반동의 괴수이며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는 오늘도 남녘 땅에 둥지를 틀고 앉아 우리의 혁명 위업을 저해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략탈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에 철저히 복무하고 있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또한 우리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켜 보리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청년들 속에서 반제, 반수정주의 교양을 강화하고 그들을 혁명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혁명의 가장 주되는 대상인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 일제의 남조선 재침 기도를 철저히 인식하고 그를 증오할 줄 알며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배신적 행위와 반동적 본질을 맑스-레닌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폭로 분쇄하고 우리 당의 혁명적 립장을 견결히 옹호할 줄 아는 그러한 일'군으로 청년들을 교양하는 것은 민청 사상 교양 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

오직 청년들을 이러한 사상과 립장으로 교양함으로써만 그들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당의 의도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당 중앙 위원회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불굴의 혁명 투사로 더욱 준비시킬 수 있다.

이리하여 각급 민청 단체들과 전체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단결된 조선 청년들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시위하는 것으로써 제 5 차 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 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자들 간의 모순

지난해 자본주의 세계는 파운드 화폐의 파탄이라는 일대 혼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협상의 결렬은 《자유 진영의 단결》과 《동맹 의존》의 미주에 숨어 있던 모순의 구멍이 열리며 그들 간의 싸움의 시발점을 알리는 전주곡이였다.

어제까지만도 《서방 동맹》의 공고성을 자랑하던 제국주의자들에게서 서러운 비명이 터져 나오고 격심한 호상 비난은 절정에 달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지배층들은 《자유 진영》의 《적대적 [illegible]》대로이 분립에 대하여 부르짖었고 파리의 엘리제 궁전에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미국 재무 장관 딜론은 《우리는 지금 분열된 구라파를 가지고 있다.》고 불안에 차 개탄하였고 전 영국 수상 맥밀란은 《구라파가 자체를 작은 폐쇄적 집단으로 되게 하려는 것은 미련하고 매우 망령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출판물들도 《드 골의 행동은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서방 동맹을 완전한 혼란에 몰아 넣었다》, 《재명된 드 골은 미국이 서방의 문명을 영도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썼다. 그러나 싸움은 이것으로써 끝나지 않았다.

전례 없는 시장 소동으로 하여 자본주의 세계는 뒤흔들리었으며 《닭고기 전쟁》에 뒤이어 《관세 전쟁》이 나오고 《강철 전쟁》, 나중에는 《[illegible] 전쟁》이라는 기괴 망측한 새 말까지 나타나 제국주의자들을 불안 속에 몰아 넣었다.

실로 지난해는 시장을 둘러 싼 공개적인 충돌이 더욱 격렬해지고 서방 세계 내부에서 메울 수 없는 균열이 더 생겼으며 감출 수 없는 불안과 동요가 휩쓸은 한 해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자들 간의 모순이 그렇듯 첨예화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시장 문제가 첨예화되고 시장 쟁탈전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 간 것은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가 더욱 심화된 조건에서 제기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 문제란 자본주의의 필수적 동반자로서 그의 기본 모순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 형태 간의 모순의 산물이며 그의 발현 형태이다.

생산 수단이 사자본주의적 소유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 지불 능력 있는 수요가 생산의 장성을 따라 가지 못함으로써 과잉 상품의 판매 문제는 항상 난관에 봉착한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과 자본이 더욱 집중되는 제국주의의 단계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와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며 시장 쟁탈을 위한 각국 금융 자본의 투쟁은 가일층 치열하여진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란 경제적으로는 독점 자본주의다. 독점이 완전한 것이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그 국가의 시장)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외국 시장으로부터도, 전 세계로부터도 경쟁자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전집 제 23 권, 44 페지)

특히 최근 년간에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 국가들의 모순과 알륵이 극도로

침예화되고 있는 것은 전후 년간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 발전에서의 불균등성에 의한 력량 관계의 변화, 사회주의 시장의 확대와 식민지 체계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자본주의 지배 령역의 축소, 전후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던 일시적 요인들의 약화 등과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제 2 차 대전 이후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는 시장 문제가 날카롭게 제기될 수 없었다. 사회주의 진영이 세계적 체계로 형성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쑈 독일과 일본, 이태리가 패망하고 영국, 불란서의 경제력이 약화된 사정은 전쟁에서 치부한 미국 독점들로 하여금 서구라파 나라들의 식민지와 세력권 내에 있던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본주의 제국에서 그의 경제적 및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침략과 략탈의 화신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황금 시대》는 영원한 것이 못 되였다.

이미 방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던 서구라파 제국과 일본은 자국의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생산과 무역에서의 력량 관계에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 났다.

그것은 다음의 표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자본주의 제국의 공업 생산과 수출 무역 중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지위

	1948년		1957년		1960년		1961년	
	공업	무역*	1	2	1	2	1	2
자본주의 국가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 국	53.4	32.5	46.9	20.8	44.1	18.3	43.0	17.7
영 국	11.2	9.8	9.5	9.3	9.4	8.9	9.0	8.9
불란서	3.9	4.0	4.6	5.1	4.9	6.2	5.0	6.2
서 독	3.6	0.5	8.2	8.6	8.7	10.2	9.0	10.9
일 본	1.0	0.4	3.0	2.9	3.9	3.6	4.6	3.6
이태리	2.6	1.4	3.3	2.6	3.8	3.3	4.0	3.4

* 1947년 자료임

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물론 자본주의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미국이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여전히 최대의 국제적 착취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감소되였다.

1948년에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에서 53.4%를 차지하였다면 그것이 1961년에는 43%로 저하되였으며 영국은 11.2%로부터 9%로 감소되였다. 반면에 서독은 3.6%로부터 9%로, 불란서는 3.9%로부터 5%로, 이태리는 2.6%로부터 4%로, 일본은 1%로부터 4.6%로 각각 증가하였다.

공업 발전에서의 변화는 대외 무역에도 반영되였다. 1947~1961년 기간 서구라파 나라들이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출 무역의 비중을 보면 미국은 32.5%로부터 17.7%로, 영국은 9.8%로부터 8.9%로 감소되였는데 서독은 0.5%로부터 10.9%, 불란서는 4%로부터 6.2%로, 이태리는 1.4%로부터 3.4%로 각각 장성하였다. 특히 서독과 일본의 발전 속도는 미국과 영국을 훨씬 릉가하여 서독의 공업 생산 총액은 영국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대외 무역은 미국 다음에 간다.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업 생산 및 무역에서의 지위의 이와 같은 변화는 그들 호상간의 정치적 력량 관계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의 지휘봉에 복종하던 동맹국들은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자기의 세력권을 요구하여 나섰다.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들 호상간에 《경제 령토 재분할》을 위한 투쟁을 불가피하게 첨예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 국가들의 모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력량의 장성,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 제

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급속한 붕괴로 인한 제국주의 상품 시장의 축소에 의해 더욱 첨예화되였다.

식민주의 기반 하에서 벗어 난 적지 않은 신생 독립 국가들은 지금 식민주의의 후과를 청산하고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의 창설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얼마 전 세일론에서는 석유를, 비르마는 은행과 대외 무역과 적지 않은 공업을 국유화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외국 회사들의 석유 리권을 제한하였으며 알제리아는 토지 개혁을 실시함과 함께 불란서 자본가들의 일련의 공장들에 대한 국유화를 실시하였다.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점차 구축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진》 국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오랜 식민지 략탈 정책의 후과로 하여 서방 국가들의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낮으며 지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과 후진 국가들과의 무역 동태

	1953	1956	1961	1962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의 수출 총액	100	100	100	100
그 중 후진 국가들에 대한 수출	34.9	32.5	28.5	17.2

※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에는 미국, 서구라파 제국과 일본이 포함.

우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후진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수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에 무려 절반 이하로 감소되였다. 후진 국가들에 대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축소되고 있다. 이를테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957년의 26억 딸라로부터 현재 20억 딸라로 즉 23%나 감소되였으며 영련방에 대한 영국의 수출도 축감되였다.

이것은 불가피적으로 자본주의 세계 시장을 더욱 협착케 하며 시장 문제를 더욱 첨예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또한 오늘 전후 수년간 생산 장성을 자극하던 일련의 림시적 요인들의 작용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독점 자본가들로 하여금 할 수 없이 국외 시장 쟁탈에서 출로를 찾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문제를 둘러 싼 제국주의 국가 호상간의 모순 및 그의 첨예화는 불가피하며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제국주의 내부 모순에 기초한 항구적인 것이다.

※ ※

현 시기 제국주의 국가들에서의 시장 쟁탈전은 주로 지불 능력이 비교적 큰 주요 자본주의 나라 내부 시장을 초점으로 하여 관세 장벽전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은 호상 자국의 시장으로부터 외국의 상품을 축출하기 위해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는 한편 자기 《동맹국》의 시장에로의 침투를 위해 각기 상대방의 높은 관세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렬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쟁에서 동맹이나 집단들로 분렬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 시장 분할을 위한 각국 독점체들 간의 투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면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은 어떤 것인가.

첫째 대립은 서구라파 《공동 시장》과 미국, 영국 간의 관계이다.

서구라파의 6개국을 망라하는 《공동 시장》은 그 자체가 제국주의 내부 모순의 직접적 산물이며 그의 형성 발전은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자들 간의 모순을 첨예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물론 《구라파 공동 시장》은 나토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며 자기 나라들

에서의 로동 운동과 그 세력권 내에서의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공동으로 진압하기 위한 반동적 동맹으로서 그것은 초기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공동 시장》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한편 금융 자본의 국제적 융합을 실현함으로써 팽창하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영국을 서구라파에서 배제하며 첨예화되고 있는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공동 시장》은 그의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자기의 이러한 본색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그의 높은 관세 장벽과 배타적인 무역 정책으로 하여 서구라파에서 미국과 영국의 지위는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 있어서 《공동 시장》의 관세 장벽을 허무는 것은 서구라파 패권에 관한 사활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구라파 《공동 시장》— 이것은 미, 영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막대한 리윤을 약속해 주는 광대한 상품 판매 시장이며 군비 경쟁과 해외 주둔군 유지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재정 원천지이다.

그것은 이 지역이 자본주의 세계 수입 총액의 무려 26%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공업 상품 수출의 5분의 1과 농산물 수출의 4 분의 1, 총액 46억 7,000만 딸라(1961년)에 달하는 상품이 이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말하여 준다.

미국과 영국이 이러한 광대한 상품 판매 시장을 상실한다는 것은 그들의 상품 실현 및 경제 생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경제적 위기를 더욱 첨예화시키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미국 독점가들은 《구라파 공동 시장》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며 서구라파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필사적인 발악을 하고 있다.

정치적 면에 있어서 《공동 시장》 성원국들까지도 망라하는 《대서양 공동체》를 형성할 데 대한 그들의 제안도 그러한 수단의 하나이다.

이것은 《공동 시장》을 그에 융해시키며 《대서양 공동체》에서 자기들의 령도권을 확립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그 성원국들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한 것이다.

미제는 이의 실현을 위하여 이른바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는 《호상 의존》론을 들고 나와 서구라파 나라들을 유인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를 간파한 드 골은 드골 대로 미국의 《대서양 공동체》에 도전하여 나섰으며 불란서는 미국의 《위성국》이 될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쳤다.

미제는 한편 영국을 《트로이 목마》로서 《공동 시장》에 들여 보내어 본-파리 축을 와해시키며 궁극에는 《공동 시장》 자체를 그들의 지배 하에 두려는 술책을 부단히 추구하여 왔다.

그들이 불란서를 제외한 《공동 시장》의 기타 성원 국가들과 막후 접촉을 통하여 15 개월에 걸치는 브류쎌 회담에서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불란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것은 당연한 것이였다. 왜냐 하면 경쟁 능력이 강한 영국의 구라파 《공동 시장》 가입은 《공동 시장》에서 불란서의 패권을 박탈하게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브류쎌 회담이 결렬된 이후 《구라파 외교 동맹》과 《공동 시장》 재정상 회의 등에서 영국의 가입 문제를 재심의하려던 미국과 영국의 완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드 골은 이미 회의장 밖에서부터 《보호주의와 제한주의》의 길목을 막아 버렸다.

영국은 《공동 시장》에 가입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 가자 5월 9~11일에

리스본에서 《자유 통상 련합》 참가국 회의를 소집하고 동료들에게 양보를 함으로써 내부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공동 시장》과 대결할 힘을 기를 것을 호소하였으며 미국은 드골을 고립시키기 위한 로골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국은 오늘 자본 수출과 관세 인하를 통하여 불란서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구라파 시장을 쟁탈하려 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은 《공동 시장》이 관세 장벽에 부딪치고 있는 형편에서 그것을 넘어 서며 그 성원국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서구라파에 대한 사자본의 직접적인 투자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1958년부터 1961년까지의 기간에 서구라파에 대한 미국 사자본의 직접적인 투자는 23억 6천만 딸라로부터 76억 5천만 딸라로 증가하였다.

브류쎌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공동 시장》의 관세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5월에 제네바에서 소집된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가트) 회의에서 《가트》 성원국들 간의 관세를 50% 인하할 데 대한 《관세 일괄 인하안》을 제기하였다.

미국의 관세는 지금 《공동 시장》의 관세에 비하여 2~3 배나 되는 조건에서 관세를 50% 인하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매우 높은 관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미국 시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대신에 오직 《공동 시장》만을 거의 무방비한 형편에 놓이게 할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관세 일괄 인하안》과 그에 대립되는, 높은 관세는 많이 인하하고 낮은 관세는 적게 인하하자는 《공동 시장》 성원국들의 《평균 인하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트》 성원국은 6 개월 여에 걸쳐 회담하였으나 아무런 접근 없이 11월 29일 현재로 1963년도 사업을 종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관세를 인하할 데 대한 미국과 영국의 각종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동 시장》은 더욱더 높은 관세 장벽으로써 미국과 영국에 대치하고 있다.

《관세 일괄 인하》 협상이 해결되기도 전에 불란서와 서독, 화란, 이태리 등은 《공동 시장》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가금과 닭알 및 강철 수입세를 인상하였다. 《닭고기 전쟁》, 《닭알 전쟁》, 《강철 전쟁》이란 바로 이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닭고기 관세 인상으로 하여 미국이 입은 년 손실액은 2,600만 딸라나 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 손실액보다도 이것이 미국 상품을 전면적으로 배격하는 데로의 발족을 알으킬 것을 더욱 두려워하며 《공동 시장》 성원국들인 서독, 불란서, 화란의 일부 상품 수입세를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였으며 12월 5일 미국 하원 세입 위원회는 《리자 평형세 법안》을 채택하였다.

7월 18일에 케네디가 《국제 수지에 대한 특별 교서》에서 제기한 리자 평형세란 《외국 정부와 법인 또는 개인이 자금을 획득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무 증권이나 주식을 외국인이 구입할 때에는 그 실제 금액에 대하여 2.75~15%의 부신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날로 악화되는 국제 수지를 개선하며 금의 해외 류출과 외국 자본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변종된 형태의 관세 장벽인 것이다.

새로운 관세 전쟁의 서막을 열어 놓은 《닭고기 전쟁》은 더욱 백열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쌀 전쟁》이 일어 날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태리는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 시장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쌀에 대하여 30~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구라파에 대한 가장 큰 쌀 수출국의 하나인 미국에 대한 《쌀 전쟁》의 개시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시장을 둘러싼 [illegible] 간의 [illegible] 하나의 경제적 테두리 [illegible] 농업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 시장》 성원국들 호상간의

모순이다.

원래 불란서가 《공동 시장》에 참가한 중요한 목적은 서구라파 대륙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그들의 농산물을 미국 잉여 농산물 및 영국 식민지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였다. 불란서가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조건으로 영 련방으로부터 수입하는 곡물에 대한 특혜 관세 제도의 철폐를 제기한 것도 바로 자국의 농산물 수출이 타격을 받지 않으며 농산물 시장을 계속 확장하기 위한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불란서와는 반대로 곡물 수요량의 50% 밖에 충족시킬 수 없는 서독은 《공동 시장》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도 곡물을 수입하여야 하는 만큼 그에 대한 높은 관세가 직접적인 관심사로 되고 있지 않다.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오히려 영국과 경쟁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더 많은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것을 적극 지지하였던 것이다.

불란서와 서독의 이러한 모순은 얼마전에 있은 공동 농업 정책 작성에서도 격렬하게 로출되였다.

불란서는 1963년 말 긴으로 공동 농업 정책을 작성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서독은 《공동 시장》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쌀의 량을 년 1,200만 톤으로 증가시킴으로써 불란서와 미국과의 경쟁에서 어부지리를 얻기 위하여 지연 전술을 썼다.

불란서는 만약 자기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으면 《공동 시장》을 탈퇴하겠다고까지 위협하였다.

《공동 시장》 성원국은 그의 령역 내에서 생산된 쌀을 우선적으로 산다는 타협에 도달하여 일시 위기는 수습하였으나 그러한 알륵이 첨예하여질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세 번째 경제적 모순은 일 미 간의 경제 관계이다.

일 미 간의 경제 관계는 특히 미국의 상품 강매 정책으로 하여 날로 심각화되고 있다.

미국의 상품 강매 정책이란 미국 상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 경우에 한해서도 그 차가 6% 미만인 경우에는 일본이 미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예속적인 상품 판매 정책이다. 이것은 일본 상품을 미국 상품보다 훨씬 낮은 최저 가격으로 입찰하면서도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일본 상품 판매를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난 여름 미국은 일 미 경제 회담에서 자기 상품 가격이 외국 상품 가격보다 50% 이내에서 비싼 경우에 한해서도 미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케 하려고 하였다.

일본의 대외 무역에서 대미 무역이 32%(1962년)나 차지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미국 상품 강매 정책은 일본의 무역과 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상품 강매 정책으로 하여 일본은 해마다 대미 무역에서 막대한 결손을 보고 있다. 1962년까지 일본의 총수입 초과액은 74억 6,400만 딸라(미국 금과 외화 축적량의 46.6%)에 달하였으며 1963년 11월 중만 하여도 무역 결손액은 1억 1,917만 딸라였다. 이것은 일본의 대 미 무역이 전형적인 식민지 무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대미 무역이 포화점에 도달하고 있는 오늘 일본에서는 미국의 예속으로부터 벗어 나려는 추세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2월 7일 일본 외상 오히라가 《일본으로서는 경제에서의 독립이 군사면에서의 역할보다 더 긴급》하다고 하였으며 수상 이께다 역시 12월 10일 국회에서 한 시정 연설에서 《독자적인 방책을 강력히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겠다고 한 것은 미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이다. 일본 경제계에서도 미제의 무역 정책에 대하여 《수치도 체면도 모

르는 철면피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본은 동남 아세아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난관으로부터의 출로를 찾으려 하고 있는바 이것은 일 미 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미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극력 제한 방해하고 있으나 최근 시장 문제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영국, 일본, 불란서, 서독은 자체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적극 확대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큐바를 봉쇄할 목적 밑에 큐바를 래왕하는 선박에 대하여 《요감시 대상 선박 명단》에 등록하고 그 배에 대해서는 미국 항구 기항은 물론 미국 상품 수송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1963년 1월 이래 큐바에 래왕한 영국, 레바논 등 자본주의 국가 선박은 무려 354 척에 달하였다.

현 시기 시장 쟁탈전의 초점이 주요 자본주의 나라 시장이 되였다고 하여 제국주의자들이 후진 국가에 대한 경제적 침투와 략탈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품 판매 시장과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한 치렬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모순이 날을 따라 첨예화되고 있으며 부분적인 경제적 장성, 그들의 온갖 허장성세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내부에서는 그의 취약성이 가일층 증대되고 있고 자본주의 자체를 약화시키며 그를 멸망에로 이끄는 요인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현 시기 자본주의 진영 내부에서는 시장 쟁탈전이 강화됨과 더불어 이를 중심으로 심각하여지고 있는 그들 간의 관계를 완화하며 밑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는 《서방 통일》을 구원해 보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렬강 간의 이 모순은 결코 완화될 수 없으며 그들의 《동맹》도 공고할 수 없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동맹은 강도의 동맹으로서 강도들은 단결할 수 없으며 그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진정하고도 장기적인 리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 2 차 대전 이후 미국을 제외한 기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적 위기가 아직 없었던 사정은 지금과 같은 형편으로나마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그러나 오늘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는 그의 발전 법칙에 따라 경제적 위기에로 더욱더 줄달음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의 군사화, 인위적인 경기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에서 상품 과잉은 증대되고 있고 불완전 조업률은 제고되고 있다. 군비 경쟁은 오직 더 큰 경제 위기를 배태하게 할 뿐이다.

자본주의 위기의 가일층의 첨예화는 필연적으로 각국 독점 자본들의 경제적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며 자본주의 전반의 진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더우기 현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력의 급속한 장성과 이 나라들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강화,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의 자립 경제 건설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시장 문제를 더욱 곤난하게 하며 제국주의의 지반을 근저로부터 뒤흔들고 있는 그들 간의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들과 모든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는 자립 경제를 더욱 강화하며 제국주의자들과 경제적 《협조》를 부르짖고 있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제 3 공화국》의 운명

김 경 현

얼마 전 서울 장안에서는 이른바 《경사스러운》 례식들이 진행되였다.

이 례식에는 수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였으며 그 중에는 《국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밴플리트와 《대통령 아버지》라고 자처하는 오노 반보꾸도 들어 있었다.

여기에서는 《대통령 취임식》과 《국회 개원식》이 벌어졌고 《대통령 취임사》가 발표되였으며 리 승만, 장 면 괴뢰 정권의 뒤를 이은 소위 《제 3 공화국》이 수립되였다.

례식에 모여 든 신사 제씨들은 이구동성으로 《제 3 공화국》 수립이 《민의를 대변한 대의제로의 복귀》라느니, 《제 3 공화국의 장래는 유망하다》느니 하면서 찬사를 늘어 놓았다.

과연 《제 3 공화국》 탄생이 《한국》의 유망한 장래를 열어 놓을 수 있겠는가?

도대체 《제 3 공화국》을 낳게 하도록 《하느님의 은덕》을 베푼자는 누구이며 그의 목숨이 얼마나 갈 것인가?

오늘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점》을 쳐 보지 않아도 나타난 사실들을 가지고 그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제 3 공화국》은 미제의 첩보 모략 통치의 산물

2 차 대전 후 워싱톤 지배층은 신식민주의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첩보 모략 통치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 첩보 모략 활동은 워싱톤에 있는 미 중앙 정보국(씨 아이 에이)에 의하여 조직 지도되고 있다.

미 중앙 정보국의 임무를 규정해 놓은 여러 조항 가운데 《정보국은 국가의 리익이 될 임무를 어데서나 자의로 수행할 것》이라고 지적되여 있다.

이러한 임무에 따라 미 중앙 정보국은 자기 나라에서는 물론 세계 도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파괴 암해 공작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까지 한다.

미국 침략 정책의 도구로 되고 있는 중앙 정보국에 대하여 전 미국 대통령 트루맨까지도 《중앙 정보국은 정부 활동의 무기로, 정책 작성의 무기로 되였다.》고 자인하였다. (《에이 에프 피》 1963. 12. 22)

특히 현 시기 미 중앙 정보국에 의하여 직접 조직되고 지휘되는 침략 책동은 신생 독립 국가들을 예속시키며 예속된 나라들에서 민족 해방 투쟁을 억압하며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대대적으로 파견하고 있는 《선교사》, 《평화군》, 각종 《고문》, 《전문가》, 《외교관》들이 바로 미 《중앙 정보국》의 초병이다.

콩고에서 비극적인 사변이 있기 직전에 콩고 주재 미 대사관원의 수가 무려 2,000 명으로 격증되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악랄한 암해 활동을 잘 보여 준다.

1961년 4월 꾸바아히론에 대한 군사적 침략도 바로 미 중앙 정보국이 조직한 것이였으며 그것을 직접 지휘 감독한 자도 당시 미 중앙 정보국장이였던 알렌 덜레스였다.

최근 년간 페루, 에꾸아도르, 과테말라, 혼듀라스, 도미니카, 토이기, 남부 윁남 등에서 일어 난 군사 쿠데타의 지도자는 례외 없이 미 중앙 정보국에 의하여 훈련을 받은 자들이였다.

2 차 대전 후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

에서만도 무려 30 여 차의 군사 쿠데타를 조작하였다.

미국 잡지 《뉴 리퍼블릭》까지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수적인 군사 정권을 지지하는 군부 및 씨 아이 에이측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1963년 11월 2일 호)고 인정하였다.

미 중앙 정보국의 첩보 모략 통치는 특히 남조선에서 로골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워싱톤 지배층은 남조선에서 위기에 빠진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려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음모를 은밀히 꾸미였다.

미 고위 정객이 미국 상원에서 《미국은 1 개월 전에 한국에서 군사 혁명의 가능성에 대하여 예견하고 있었다.》고 말한 데서도 그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사실 워싱톤 지배층의 지원이 없이는 《국군》의 통수권이 미제의 수중에 있고 미 첩보망과 미 군사 고문들이 거미줄처럼 포치되여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중무장까지 동원하여 감히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군사 정변》 후 남조선에서 조작된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지휘봉을 장악한 자도 미 중앙 정보국이였다.

《최고 회의 의원》들의 구성을 볼 때 박 정희를 비롯한 그 대부분이 《방첩대 대장》, 《헌병대 대장》 등 미 특무 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미 중앙 정보국이나, 백악관의 명령이 없이는 무엇도 제 마음 대로 할 수 없는 허수아비들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 《요미우리 신붕》까지도 《최고 회의를 강권으로 뒤'받침해 주고 있는 것은 미 중앙 정보국》이라고 쓴 것이 우연치 않다.

미제는 《군사 정변》 후 저들의 합법적인 비밀 기관으로 《한국 중앙 정보부》(한국 씨 아이 에이)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과거 제각기 부문별로 첩보 모략 활동을 진행하던 《방첩대》, 《헌병대》, 《범죄 수사대》 등을 《중앙 정보부》에 통합하여 첩보, 수사 기관들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휘하고 있다.

《미국의 씨 아이 에이는 한국 씨 아이 에이 발족에 도움을 주었》다. 《미국 씨 아이 에이의 한 공작원이 한국 씨 아이 에이의 사무소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측컨대 한국 씨 아이 에이가 미국에 유익한 어떠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지를 옆에 앉아서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뉴 리퍼블릭》 1963년 11월 2일 호)고 미국 출판물들도 숨기지 않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첩보 모략으로 군사 파쑈 정권을 수립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남조선 인민들의 더 큰 분노와 반항을 불러 일으킬 것은 뻔한 일이였고 세계 인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도 또한 무서웠다.

이러한 처지에서 그들은 남반부 인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무마하며 세계 여론을 기만할 목적으로 군사 쿠데타 직후부터 《제 3 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민정 이양》이라는 놀음을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박 정희, 김 종필을 중심으로 한 군사 독재에 몇몇 《민간인》들을 끌어 넣는 방법으로 《민의》의 외피를 씌워 군사 독재를 무기한 연장하려고 하였다.

박 정희, 김 종필을 워싱톤으로 호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움직임의 중요한 표현이였다.

워싱톤 지배층은 박 정희를 호출하여 《한 미 거두 회담》이라는 간판 밑에 극진한 환영과 두터운 신임을 표시하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하였으며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공고화하는 방향에서 《민정 이양》 놀음을 꾸민데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다.

뒤'이어 워싱톤 지배층은 다시금 당시 괴뢰 중앙 정보부장이였던 김 종필을

호출하여 남조선 정세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민정 이양》을 위한 모의를 거듭하였다.

김 종필은 미 중앙 정보국장, 법무 장관, 국무 장관 등 워싱톤의 고관들과 밀담하였다.

이 밀담에서 그는 《앞으로 4 년간은 혁명 주체 세력이 민간인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과도적 성격의 민정》을 실시할 데 대한 문제, 《민간 정부의 구조》와 그 인원, 새로 조직할 《정당》의 성격과 구성 성원, 《헌법 개정》,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 등 소위 《제 3 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훈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미국 통신까지도 김 종필은 《민정 복귀 계획을 포함한 혁명 정부의 앞날의 정치 구상》에 대한 워싱톤의 지시를 받았다고 시사하였다. (《유피아이》 1962. 10. 30)

당시 서울 《합동 통신》도 《제 3 공화국》 수립을 위한 《민정 이양》 놀음이 워싱톤의 계책에 의하여 감행된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남조선에서 《헌법 개정》, 《대통령, 국회 의원 선거》, 《정치 활동 개시》 등 세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계획은 현재 방미 중인 김 종필 중앙 정보부장의 귀국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1962. 11. 17)

워싱톤의 책략에 따라 《막후적인 외교관》으로 이름 난 서울 주재 미국 대사 버거의 조종 하에 박 정희는 사기와 협잡, 폭압의 방법으로 《국민 투표》를 통하여 괴뢰 헌법을 개정케 한 후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 연극을 통하여 소위 《제 3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제 3 공화국》은 미국 첩보 통치 체계를 그대로 본따서 《대통령》의 자문 기관으로 《국가 안전 보장 회의》라는 기구를 두고 첩보 통치 체계를 완비하였다.

《국가 안전 보장 회의》는 내외에서 수집된 첩보 및 정보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중앙 정보부》의 립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비준하는 기관이다. 《개헌안》 87 조에는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임무에 대하여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을 수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의장은 박 정희이며 위원들도 《중앙 정보부장》을 비롯한 미국의 특무들로 꾸려져 있다.

《제 3 공화국》의 배후에는 미 중앙 정보국의 검은 마수가 뻗치고 있다.

《제 3 공화국》은 워싱톤 지배층이 남조선에 대한 첩보 모략 통치의 산물이다.

이러한 괴뢰 정권이 어떻게 민의를 대변할 수 있으며 《대의제 정치》를 할 수 있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허황한 공담이라는 것은 《제 3 공화국》 지배층이 어떤 사람으로 꾸려졌고 그들이 표방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제 3 공화국》의 계급 구성과 그의 시책

일반적으로 국가란 일정한 경제 토대 우에 솟아 있는 정치적 상부 구조로서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이며 적대 계급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한 통치 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무기이다.

오늘 부르죠아 국가에는 민주주의 공화국, 의회제 군주국 또는 파쑈적 독재 국가 형태가 있다. 이 국가들은 그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한 줌도 못 되는 자본가, 지주들이 절대 다수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미제의 전형적인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에 조작된 력대 괴뢰 정권도 극소수의 예속 자본가,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제의 침략 도구로 리용되어 왔다.

남조선 괴뢰 정권의 계급적 본질에 대하여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 괴뢰 정권은 《극소수의 예속 자본가, 지주들의 리익을 대표하여 근로 대중을 압박 착취하는 반인민적 기관일 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부식하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도구로 되고 있다.》(선집 제 4 권, 1960년 판, 512 페지)

위싱톤의 검제에 의하여 조작된 《제 3 공화국》도 이에 례외로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톤 지배층과 남조선 위정자들은 《제 3 공화국》이 《민의를 대변》하였다느니, 《거국(擧國) 내각》이라느니 하며 그의 계급적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궤변으로도 《제 3 공화국》의 계급적 본질을 은폐할 수는 없다.

《제 3 공화국》 《국회 의원》의 계급 구성만 분석하여도 그들의 론리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알 수 있다.

금번 《국회 의원》들도 선행한 괴뢰 국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예속 자본가, 지주, 관료배들로 꾸려져 있다.

괴뢰 국회 의원 175 명 중 이미 그 경력이 판명된 168 명의 사회 계급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자본가	지 주	군 인	관료배	정상배	교 수	언론인	변호사	의 사	계
의 원 수	49	16	31	27	14	17	5	8	1	168
%	29.2	9.5	18.5	16	8.3	10.1	3	4.8	0.6	100

통계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예속 자본가, 지주와 관료배, 정상배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본 계급인 로동자, 농민의 대표는 한 명도 없다.

자본가 출신 《국회 의원》들의 대부분은 다시 정계에 등장하고 있는 예속 자본가로서 특히 여당인 《민주 공화당》과 결탁된 《개풍 재벌》, 《락희 재벌》 등 구《자유당》계 재벌 출신들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한편 야당계 《국회 의원》으로는 과거 《신민당》, 《민주당》과 밀접히 결탁되여 있던 《삼양 재벌》 계렬 예속 자본가들이 적지 않게 당선되였다.

관료배 출신 《국회 의원》의 다수도 군사 파쑈 정권에 의하여 등용된 구 《자유당》계 상층 분자들이다.

군인 출신 괴뢰 국회 의원들 중 《민주 공화당》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 공화당》계 28 명의 의원 중 《5.16 군사 쿠데타》에 직접 참가한 자는 김 종필을 비롯한 20 명이나 되며 이외의 군인 출신 의원들도 군사 파쑈 집단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다.

이번 《국회》에서 교육, 언론인 출신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군사 파쑈 정권의 리론적 대변자로서 《군정》 기간에 행정 기관의 상층 공무원, 또는 《민주 공화당》의 요직에 등용되였던 자들이다.

실로 이러로 조작된 《국회》는 그것이 지주, 예속 자본가, 정상배, 관료배들의 복집물로서 남조선 인민들의 반항을 억압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의 대표가 들어 가지 않은 국회는 결코 인민의 리익을 대표할 수 없으며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

소위 《제 3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분장해 나선 박 정희도 미제의 식민지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복무하는 자이다.

그가 왜정 때에는 일본군 장교로서 일본 천황에게 갖은 충성을 다하면서

일제의 대륙 침략 정책에 적극 가담하여 조선과 중국의 애국자들을 탄압 학살한 친일 주구였으며 해방 후에는 미제의 고용 간첩으로 변생하여 미국 특무 기관에 복무하면서 남조선 군대 내의 애국 장병들을 교활한 방법으로 색출 검거하고 지어 남조선 민주 정당에까지 잠입하여 애국자들과 진보적인 인사들을 밀고, 고문, 학살한 더러운 변절자이며 민족 반역자이다.

바로 이러한 《관록》을 가진 자인 까닭에 워싱톤 지배층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위기에 직면하자 그를 내세워 군사 쿠테다를 조작케 하였고 오늘도 계속 그에게 《대통령》 감투를 씌워 남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주구로 리용하고 있는 것이다.

괴뢰 국회 의원 계급 구성과 《대통령》의 정체가 바로 이러하기에 《제3 공화국》이 표방하고 있는 시책에서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것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괴뢰 대통령 《취임사》가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박 정희는 《취임사》에서 《군사 정변》의 《혁명 리념을 계승》하며 《자유 우방과의 뉴대를 강화》하고 《승공 통일의 길로 매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주, 자립》이니, 《주체 의식의 확립》이니 하는 기만적 구호를 다시금 되풀이하였다.

《승공 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조선 인민의 최대의 념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거부하고 민족 간의 불화의 씨를 뿌리며 전 조선을 삼키려는 미제의 민족 분렬 정책과 침략 정책에 복무하겠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승공 통일》이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이것을 부르짖는 자는 《승공 통일》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웠다가 인민들에 의하여 타도된 리 승만의 운명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국 통일은 결코 어느 일방이 타방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실현될 수 없다. 조국 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 내고 남북이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자유 우방과의 뉴대 강화》란 구호도 본질에 있어서 친미, 친일 로선을 더욱 강화하자는 심'보다.

말하자면 남조선을 미제의 침략적 군사 기지로 더욱더 예속시키겠다는 것이며 그것도 부족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 들이자는 것이다.

《한일 친선》을 고창하면서 《한일 회담》을 벌려 온 박 정희는 최근 이 《회담》의 마지막 결속을 서두르면서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송두리채 일본 군국주의자에게 내여 맡기고 있다.

오늘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박 정희의 《대통령 취임》을 그처럼 환영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여기고 벌써부터 종주국의 통치자로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대만을 포함한 일본 합중국》에 편입되여야 한다고 망발한 바 있는 일본 자유당 부총재인 오노 반보꾸라는 자는 최근 박 정희와는 《부자지 간》이라느니, 《남조선은 원양 어업을 할 자격이 없으니》 남조선 어장을 일본에 넘기라고 폭언하였다.

오노 반보꾸의 망언이 남조선 언론계는 물론 괴뢰 국회에서까지 물의를 일으켜 박 정희에게 《왜 일국 대통령이 그처럼 저자세를 취하게 되였는가?》 문책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박 정희는 오노의 망언이 《괘씸하기는 하나》 나의 《취임식》에 친히 왕림하여 호의를 보였으니 용서하자고 말했다.

과시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는 말과 같이 박 정희가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의부'애비로, 상전으로 어떻게 떠받들고 있는가를 잘 보여 준다.

박 정희는 친미, 친일 주구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가리기 위하여 《자주, 자립》과 《주체 의식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민족적 외피로 가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는《취임사》에서《자립 경제 건설》을 운운하면서 외래 제국주의자들의《원조》를 계속 구걸하여 나서고 있다.

미국식《원조》가 식민지 략탈을 위한 올가미라는 것은 오늘의 남조선 현실이 잘 보여 주고 있다.

미국《원조》가 지난 19년 동안 남조선에 가져다 준 것은 기아와 빈궁, 무권리, 황폐 뿐이다.

군사《정권》이 외국《원조》에 의거하여 자립 경제를 건설한다고 요란하게 떠들던《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 하고 죽은 문서장으로 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들은 자립 경제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방패로《외자 도입 촉진법》을 조작하고 외래 독점체들에게 남조선을 무제한 략탈하도록 내맡기고 있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금번《국회》는 미국 상전에게《원조》의 증액을 구걸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하였다.

모든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박정희가《취임사》에 들고 나온 구호는 외세에 더욱 아부하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국토의 분렬을 조장하면서 남조선을 더욱더 예속과 파멸에로 몰아 넣으며 파쑈 테로 통치를 계속하려는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이 거기에서 기대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이러한 반인민적 괴뢰 정권이 남조선 인민들에게 더욱 재난과 고통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 3 공화국》은 리 승만, 장 면 괴뢰 정권의 운명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어떠한 정권을 막론하고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 하고는 오래 가지 못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인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 부리고 있다. 특히 선거 때면 어제'날의 독군도 순한《양》이 되어 자기에게 한 표 던져 달라고 인민들 앞에서 애걸복걸하는 것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금번 남조선에서 진행된 괴뢰《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에서 이와 같은 추태는 더욱 로골적으로 표현되였다.

《선거》에서 군사 파쑈 집단이나 구정치인들은 서로 많은 표를 얻으려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급급하였다.

군사 파쑈 집단은 앞으로《복지 사회》를 건설하고《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패한 구정치인 대신《참신》하고《새 지도 세력》인 자기들이 집권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구정치 세력들은 2년 여에 걸쳐 감행된《군정》이 빚어 낸 참상들을 폭로하면서 자기들만이《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으며 굶주리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번《선거》들에서 인민 대중은 그들의 빈소리에 속지 않았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금번《국회 의원 선거》만 보더라도 과거 력대《국회 의원 선거》중에서 가장 낮은 인민 대중의 참가률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에서 력대《국회 의원》선거 비률은 다음과 같다.

대 별 (선거 날'자)	참가 비률 (%)	기권 비률 (%)
1 대 (1948. 5. 10)	95.5	4.5
2 대 (1950. 5. 30)	91.5	8.5
3 대 (1954. 5. 20)	91.1	8.9
4 대 (1958. 5. 2)	90.6	9.4
5 대 (1960. 7. 29)	84.4	15.6
6 대 (1963. 11. 26)	72.1	27.9

통계가 명시해 주는 바와 같이 금번《선거》과정에서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더욱 제고되였으며 여, 야

당을 모두 불신, 랭대, 배격하고 있다는 것을 증시하였다.

이번 《선거》 기간 중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선거하나마나》,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하랴》, 《누가 들어 앉아도 마찬가지다》라는 여론이 광범히 류포된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민주 공화당》은 《선거》에서 관권과 사기 협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36%,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23% 밖에 득표수를 날조해 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민주 공화당》의 한 대변인까지도 《이번 선거 결과는 정부 또는 정치에 대해 국민이 불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제 3 공화국》이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며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명시하여 준다.

남조선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는 《제 3 공화국》을 근저로부터 뒤흔들고 있다.

2 년 여에 걸친 군사 테로 통치는 남조선을 헤여 날 수 없는 파국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었다.

오늘 남조선 민족 경제는 극심하게 쇠퇴 몰락되였고 인민들은 대중적 아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류통은 마비 상태에 있다. 《국고》는 텅 비고 외화 보유량은 계속 줄어만 가고 있다.

1961년 말 외화 보유량이 2억 7천만 딸라였다면 1963년 8월에는 1억 810만 딸라로 축소되였다.

《제 3 공화국》이 이러한 경제 위기를 수습할 능력도 밑천도 없다.

금융과 재정난이 절정에 달한 군사 파쑈 집단은 《국회 의원 선거》가 끝난 즉시로 철도 운수 료금을 15% 인상시켰고 각급 학교 입학금 50%, 수업료 20%를 각각 인상시켰다.

갈수록 심산이라는 말과 같이 《제 3 공화국》의 경제 형편은 악화될 뿐이다.

고질화된 《제 3 공화국》 지배층 내부간의 모순과 갈등으로 하여 앞으로 정계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여당인 《민주 공화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원내 《안전 세력》을 확보하였으나 《사무 당원제》 김 종필파와 《정치 당원제》 윤 치영파 간에 대립과 알륵은 앞으로 요직 안배 문제가 구체화됨에 따라 보다 첨예화될 것이다.

야당들의 대여 투쟁도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야당들은 《4 대 의옥 사건》, 《대일 저자세 외교》, 《부정 선거》 소송 등 대여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로 《제 3 공화국》은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고립 배격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 위기, 지배층 내부간의 모순으로 하여 발족 시초부터 궁지에 빠지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제 3 공화국》의 장래가 유망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의 결말은 암담할 뿐이다.

《제 3 공화국》은 《대의제 정치의 회복》도 아니며 《민정의 복귀》도 아니다. 박 정희가 《의장》 대신 《대통령》이란 명패로 바꾸어 달고 그대로 주저앉은 《군정》의 연장으로서 《민정》의 탈을 쓴 식민지 괴뢰 통치 기구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정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이며 그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제 3 공화국》은 리 승만, 장 면 괴뢰 정권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순수 예술》파의 투쟁은 사회주의 문학 예술 발전의 절실한 요구

리 중 필

문학 예술이 인민 생활에서 노는 역할은 참으로 크다. 인민은 사실주의 문학 예술에서 오늘의 생활을 보며 인류가 걸어 온 과거를 본다. 그들은 거기에서 생활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을 보며 창조의 씨앗을 찾는다. 진보적인 문학 예술, 사실주의에 기초한 모든 문학 예술은 언제나 인민의 이러한 요구에 보답하였고 인민 생활의 참된 교사로 복무하여 왔다.

그러나 모든 문학 예술이 언제나 이렇게 되어 온 것은 아니다. 매개의 문학 예술이 사회에 복무하는 관계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어떠한 계급이 어떠한 목적에서 창조한 예술인가에 따라서 그것은 리상을 위한 인민들의 고상한 투쟁에서 그들을 방조할 수도 있고 이 투쟁을 방해할 수도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 생활을 풍부화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기형화하여 저렬하고 부패한 데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찌기 맑스-레닌주의 고전가들과 로동 계급의 당은 문학 예술 사업을 통일적인 당 사업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면서 그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 문제는 새롭게,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반동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 문학 예술을 각종 요설로써 중상 모독하고 저들의 반동적이며 허무적인 《순수 예술》을 이에 대치시키면서 사회주의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헐뜯으려 하였고 또 의연히 그렇게 발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놀라운 것으로도 되지 못한다. 왜냐 하면 부르죠아들의 그러한 행위는 그들의 계급적 처지에서 오는 응당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맑스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전히 사실주의를 떠드는 사람들이 부르죠아적 《순수 예술》의 혼탕 속에 머리를 박고 낡은 공기를 마시며 사회주의 문학 예술을 오도하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때 레닌에 의하여 신랄히 규탄되였으며 혁명적 현실에 의하여 여지 없이 격파 당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이미 쓰레기통에 던져진 지 오랜 낡은 오물들이 소생되고 있으며 찬양되고 있다. 한 세기 전부터 부르죠아 나라들에서 부식되어 온 예술에 대한 황당무계한 견해들이 오늘 이러한 나라들의 신문들과 잡지들에 나타나고 있으며 라지오와 텔레비존을 통하여 류포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미술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입으로는 사실주의를 배운다고 하면서도 학생들은 화실에서 추상파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인민들의 감정과 취미와는 전혀 인연이 없고 오직 생활에서 변태적으로 딩굴고 있는 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퇴폐적인 예술 작품들이 전람관을 장식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이 확고한 전통을 수립하였고 그것이 부르죠아 예술과는 서로 넘어 설 수 없는 엄연한 계선으로 갈라지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렵다.

사회주의 나라에서의 예술은 그 자체의 사회적 사명으로 하여 부르죠아적《순수 예술》과는 결코 량립할 수 없었으며 그것과의 치렬한 투쟁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예술은 진정으로 인민에게 속하는 예술이다. 그것은 마땅히 근로 대중의 생활 속에 뿌리를 박아야 하며 대중을 혁명적인 정신으로 목적 지향성 있게 교양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술가는 인민에게 리해되고 인민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며 그들에게 위대한 창조의 씨앗, 투쟁의 불씨를 안겨 주는 예술을 창조하려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부르죠아 《순수 예술》의 뒤꽁무니를 따라 가고 있는 자들은 예술가로서의 인민적 책임감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수천만 대중을 격동시킨 불후의 형상들을 창조한 지난 시기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이 너무나 메마르고 딱딱하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는 그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색정 세계를 대담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력설하고 있다. 이들은 부르죠아 《순수 예술》론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추잡스러운 색정 세계에서 그 어떤 《시》를 발견하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자신이 일찌기 마야꼽스끼가 평가한 바와 같이 《성'적인 심리병 환자》로 전락되고 있다. 어떤 나라의 한 작가는 《사생활과 시는 혼연 일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길'가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녀인에게 끌려 그를 음흉하게 뒤따르는 한 시인을 놓고 《그래 그것이 생활에서의 시가 아니란 말인가? 이것이 신비 영원토록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려는 시인의 형상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한다.

이런 치사스러운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예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들의 이러한 태도와 립장이 부르죠아 《순수 예술》론자들의 그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무릇 예술은 그것을 낳은 생활이 있고 매개의 예술은 그를 산생시킨 계급의 사람들에 의하여 우선 리해되며 지지를 받는다. 오늘날 퇴페적인 부르죠아 《순수 예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로동 계급과 혁명적인 인민의 생활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으며 또 그들의 감정에 맞지도 않으며 리해되지도 않는다. 일찌기 레닌은 클라라 쩨트킨과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나로 말하면 표현파니, 미래파니, 립체파니, 또 무슨 〈파〉니 하는 따위의 작품을 예술적 천재의 최고의 발현으로 볼 능력이 없다. 나는 그것들을 리해할 능력이 없다. 나는 그것들에서 아무런 환희도 느끼지 않는다.》

레닌은 이러한 예술은 타기되여야 하며 공산주의자들은 예술이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발전하라고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엄격히 지적하였다.

우리가 만약 사회주의 예술 내에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러한 현상들을 못 본체 한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들어 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어느때나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정치적 및 경제적 공세를 기도하면서 이데올로기 분야에서의 침투를 잊은 일이 없었다. 부르죠아 《순수 예술》은 언제나 이러한 침략적 목적에 복무하였고 그것은 특히 오늘날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일종의 심리 작전의 효과적인 무기로 리용되고 있다.

오늘날 어떤 나라에 침투된 《순수 예술》은 그 자체의 색정적 요소에 의한 유혹으로 생활에서 권태를 느낀 자들의 동물적이며 리기적인 욕망을 조장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수정주의자들에 의하여 예술 발전이 아무렇게나 방임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젊은 세대들은 로동을 기피하고 금전에 의한 부르죠아적 행복을 앉아서 바라는 숙불로 전락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오늘날 《순수 예술》과 그를 추종하고 있는 자들의 본질을 철저히 폭로하며 그의 온갖 조항을 반대하는 전투적 과업이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들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창작 활동의 기치로 삼고 있는 모든 작가, 예술인들 앞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

《순수 예술》은 과연 어떠한 자들의 어떠한 생활과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가?

우선 《순수 예술》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질은 그것이 현실 생활의 진실한 묘사를 거부하고 한갓 인간들의 동물적이며 관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의 음탕한 국면만을 그릴 것을 주장하면서 예술에서의 당성과 계급성을 로골적으로 부인해 나서는 데 있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예술이 사회 생활이나 정치와는 무관계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아무 것도 설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예술의 교양적 기능이나 인민에의 복무의 사명을 전적으로 부정해 나서며 예술은 오직 자기 외의 목적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데로부터 그들은 예술에서 사회적 투쟁의 묘사를 거부하며 현실적 내용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미》, 《순수한 형식》의 탐구를 지향한다.

관념론에 기초한 모든 예술, 착취 계급들의 예술에는 다 같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러한 요구성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부르죠아 예술에서의 이러한 요구성은 제국주의자들이 극도로 반동화되던 지난 세기 후반기부터 더욱 로골화되었다.

착취 계급들이 예술에 이러한 요구성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원래, 예술은 인민 대중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모순의 근원을 알게 하며 그 근인을 제거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그들을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진보적 계급은 예술을 생활 혁신의 한 개 수단으로, 투쟁의 무기로 삼아 왔다. 두 말할 것 없이 이러한 데 복무하는 예술은 언제나 당대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아 왔다. 근로 대중에 대한 영원한 착취를 꿈꿔 온 지배 계급들은 예술을 통하여 무서운 사회악의 진정한 근원이 밝혀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러한 점에서 그 어느 시기의 통치 계급보다도 더 불안에 싸일 사회적 근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그들의 더 없이 방종해진 생활과 그 엄청난 재부가 헤아릴 수 없는 죄악의 무덤이며 매일 매시각 수천만 사람들에게 무서운 사회적 빈궁과 고통을 들씌우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만약 예술이 이 모든 사회악의 근원을 뒤집어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때에는 수천만 근로 대중이 요지경에서처럼 《공산주의의 유령》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그 무서운 사실이 전 사회를 휩쓸어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를 마지막 죽음에로 이끌어 갈, 사회적 혁명에로 그들을 불러 낼 것이 아닌가…

사실상 오늘날 극도로 반동화된 일련의 제국주의 나라 부르죠아들은 죽음에 대한 이러한 공포와 불안을 간단 없이 느끼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하여 마침내 병적인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처지가 한편으로 오늘의 부르죠아 예술 사상과 예술에 반영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예술이 객관적 현실을 묘사하지 말며 어떠한 사상도 담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도 결국 그들의 예술이 반영하는 것은 부르죠아적 생활이며 부르죠아적 인간 관계와 도덕 관계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추악한 것이 적극적으로 미화되며 합리화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정상적인 인간 관계나 인간성은 여지 없이 모욕되고 있다. 그들은 도덕도 예술을 위해서는 한갖 거치장스러운 것에 불과하며 그것은 무자비하게 파괴되여야 한다고까지 선언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부르죠아 사회의 모순을 가리우며 사람들로 하여금 진지한 리상을 버리고 영원한 노예의 운명에 순종하다가 무의미한 한 평생을 끝마치게 하자는 것이다. 오늘날 《순수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불리는 모든 작품들의 전편에 가득 차 있는 그처럼 치사스러운 색정 세계의 묘사는 바로 이러한 목적에 복무하고 있다.

《순수 예술》론자들이 떠드는 《초계급성》, 《무당파성》의 본질은 이러하다. 그들이 제아무리 예술의 계급성을 부인하려 해도 그들은 종국으로 부르죠아적 생리과 부르죠아지의 계급적 립장을 벗어 날 수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예술은 배부른 자들의 기분에는 맞지만 당장 오늘의 생계 문제가 걱정되는 수천만 근로 대중에게는 필요치 않으며 아편과 같은 해독물로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바로 현실 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근로 대중의 의지와 감정과 사상을 동원시키는 진보적 문학 예술은 부르죠아지에게 있어서는 정수리에 내려지는 철추와 같은 것으로 된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부르죠아들은 창작의 《절대적 자유》를 부르짖으면서도 그것이 일단 진보적 예술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탄압하며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는 작가, 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다. 사실 상 부르죠아 사회에는 창작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르죠아 예술인들의 《자유》란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독점 자본가들의 돈'주머니에 매수된 《가장된 예속에 불과한 것이다.》

《순수한 미》, 《순수한 형식》을 탐구한다고 하는 부르죠아 예술인들의 다른 한 주장에 대해서 고찰해 보자.

아름다운 형식이란 사실주의 예술에 있어서는 객관적 내용과의 유기적인 통일 속에서만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 원래 내용을 떠난 형식이란 공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형식은 언제나 현실적이며 내용의 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순수 예술》론자들은 전혀 황당무계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추상적인 세계》, 《관념적인 세계》에서 그 어떤 순수한 것을 탐구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각종 기형적인 사물들과 형식을 조작해 내고 있다. 그들은 예술을 통털어 그 어떤 유미적인 형식의 표현에 귀착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술의 기초로 되여야 할 현실의 구체적인 형상적 반영을 부인하며 지어 그것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다. 처음에는 《순수한 선》, 《순수한 음》, 《찰나적인 미》를 탐구한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암호적인 시, 기하학적 도형의 착잡한 티렵로 된 그림, 무선율 음악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그들은 이런 정도로써도 만족하지 않는다. 마침내는 화면에 천 쪼각과 나무 쪼각을 다닥다닥 붙여 놓거나 물 우에 흘어진 잉크를 복사해 놓고 거기에 그 어떤 신비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 낸다. 심지어 동물들의 울부짖음과 사람들의 비명, 기계의 소음을 뒤섞은 《음악》을 조작하며 머리도 꼬리도 줄거리도 없는 문학을 만들어 내고 있다. 《순수 예술》은 그 자체의 본질로 하여 결국 이러한 길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것에 그 어떤 신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다름 아닌 정신 착란자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보는 사람들에게 미'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는커녕 반대로 혐오감과 착란을 야기시킬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의 참된 흐름을 가늠할 수 없게 하며 보다 밝은 래일에 대한 지향이 아니라 삶에 대한 극

도의 허무감과 염세 기분을 자아내게 할 뿐이다.

이러한 예술은 부패와 타락의 절정에 도달하여 생에 대한 아무런 뜻도 희망도 가지지 못하는 부르죠아 억만장자들의 몰취미가 어떤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근로 대중을 략탈하여 포만할 대로 포만해진 그들은 아무런 창조도 모르는 공허한 생활 속에서 범죄, 음탕, 포식을 질탕치듯 하면서 바라는 것이란 오직 저주 받은 생명의 하루하루를 이어 갈 새로운 《자극제》 뿐이다. 끝 없이 련속되는 박종한 생활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결합되여 그들 속에서 극심한 염세 기분과 몰취미를 빚어 내였다. 그들은 벌써 객관 세계의 정상적인 사물에 증오를 느끼면서 병'적인 환각, 환상의 세계에로 달아 나고 있다. 부르죠아 예술이 조작하고 있는 해괴망측하기 짝이 없는 각종 산물은 바로 이런 기분의 반영일 따름이다. 거기에는 사실 상 아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으며 어떠한 신비로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예술은 결코 예술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부르죠아지의 운명이 몰락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영원히 몰락하고 말 것이다.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순수 예술》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가 심각화되고 부르죠아지가 이미 사회 발전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된 그러한 력사적 환경에서 조장된 반동적인 예술 사상이다. 그것은 예술 발전을 위한 아무런 긍정적 요소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의 진보적인 예술이 이룩하여 놓은 모든 원칙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예술 자체를 말살하려는 해독적인 작용을 놀고 있다.

그런데 예술성을 위해서 《순수 예술》에서 배워야 한다고 떠드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예술의 진수적 요소를 거세하고 그것을 단순한 오락물로, 속물들의 완상'거리로 전락시키려는 어리석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순수 예술》은 쉬파리와도 같이 언제나 부패한 곳을 찾아 다닌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교양을 약화시키고 생활에서 근대중을 느낄 기회가 없는 그러한 곳에서 그것은 번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민적인 예술의 가치를 확고하게 고수하며 자신의 사회주의적 문학 진지를 굳건히 세고 발전시키고 있는 그러한 우리 나라에서는 설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다. 인민을 위한 입장을 떠난 예술은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없다. 무릇 시인, 작가, 예술인들에 의하여 창조된 불후의 걸작들은 그것이 인민에게 복무하는 그 높은 열정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시대와 인민의 절박한 념원을 떠나서 치사스러운 색정 세계의 모사에서 《영원한 것》, 《전 인류적인 것》을 찾자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인민을 배반하고 몰락하는 계급과 한 길 우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묻답 학습

《도덕적 재무장》론이란 무엇인가

오늘 멸망하여 가는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상의 위대한 영향력에서 《서방 문화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사상 전선에 온갖 추악한 부르죠아 《리론》들을 다 끌어 모으고 있다.

《도덕적 재무장》론도 바로 이러한 《리론》의 하나로서 지금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최신 류행을 자랑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모든 반동들, 펜타곤과 나토의 이름난 살인 장군들, 기시, 프랑코 등에 이르기까지 판 박은 파쑈 분자들이 이 오물을 전파하기 위한 운동에 련합되였으며 록펠러를 비롯한 미국의 억만장자들과 일본의 미쯔이 등 독점 재벌들이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운동은 이미 미국의 미시간주 마키나크섬을 비롯한 서서의 꼬시, 최근에는 일본의 도꾜 등에 자기의 《참모부》를 두고 많은 출판물 및 예술 등 온갖 선전 수단을 통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널리 류포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괴뢰들이 떠들고 있는 《도의 재건》도 바로 그의 인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도덕적 재무장》론이란 어떤 것인가?

이 《리론》은 1938년에 미국의 목사 프랭크 부크만에 의하여 창시된 것으로서 기독교 교리의 한 유형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생활에는 《절대적 성실성》, 《절대적 순결성》, 《절대적 자기 희생》, 《절대적 사랑》 등 이른바 네 가지 《도덕적 표준》이 있는데 사회적 불평등과 고통이 소멸되고 《만민 복리》의 리상 사회가 실현되자면 사람들이 이 네 가지 《도덕적 표준》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도덕적 재무장》론의 설교자들은 《사람은 사회의 개조에 앞서 자기 완성에 노력》해야 하며, 《인간 자신이 개변되지 않는한 사회적 및 경제적 변혁도 무용》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요컨대 계급 사회의 사회적 악과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마음의 혁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이미 오래 전에 폭로 분쇄된 《계급 협조》론의 재판에 불과하며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착취 사회에서 《절대적 도덕 표준》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 그 어떤 《도덕적 완성》에 의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의 차가 근절될 수는 없는 것이다.

착취자, 압박자들에게는 계급적 및 민족적 원쑤들에 대한 인민 대중의 열렬한 적개심과 불요 불굴의 투쟁 정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사랑》, 《초계급적 도덕》의 설교는 언제나 반동적 착취 계급의 선전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마음의 혁명》을 고창하는 《도덕적 재무장》론은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의 고통의 근원을 엄폐하며 그 제도를 변호하기 위한 하나의 날조된 《리론》이다.

《도덕적 재무장》론의 설교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악을 인정은 하나 결코 그것을, 그를 낳은 자본주의 제도와 결부시키는 것은 회피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악폐의 원인을 인간의 《자기 완성》의 결핍에 귀착시키고 있다.

그들은 《도덕적 재무장》을 설교함에 있어서 생활을 사랑하며 사회적 진보와 자유, 해방, 평등을 요구하는 인민 대중의 생활 감정을 도용하여 《혁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듯이 가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운운하는 《혁명》은 낡은

사회의 변혁이 아니라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는 《마음의 혁명》인 것이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는 흑인과 백인이 포옹하며 백만장자가 가난한 로동자와 입맞추며 백인이 흑인의 구두를 닦아 주는 장면들을 보여 주는 미국의 영화들과 기타 예술 수단들이 널리 류포되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이 《후진》 국가 인민들의 《벗》으로 되고 자본주의 사회는 더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변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 재무장》론의 설교자들은 식민지적 압박 밑에서 신음하는 인민 대중의 고통도 마치 그 어떤 《절대적 사랑》에 의해 가시여질듯이 선전하면서 식민주의자들과 식민지 인민들의 《협조》가 가져다 주는 《리익》에 대하여 꽹장히 떠들어 대고 있다.

《도덕적 재무장》이야말로 인민들의 고상한 생활 감정과 요구를 악용하여 그들의 혁명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술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그것이 어떤 《초계급》적인 리론인듯이 분장한다. 그들은 이 《리론》의 《공정성》과 《초계급성》을 보여 주기 위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비방과 함께 죄악과 부패로 가득찬 제국주의의 현실도 《비판》하는듯이 가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공산주의에도 자본주의에도 있지 않으며 인간 본성의 근본적 개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도덕적 재무장》론의 본질을 감출 수는 없다. 계급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실제적인 투쟁으로부터 대중을 물러 서게 하며 그 어떤 환상적인 기대에 얽매여 두려는 그들의 진의도는 온갖 사회적 해방 투쟁을 가장 악의에 차서 증오하고 있는 데서 잘 표현되고 있다. 그들은 오직 기만적인 《마음의 혁명》만이 사회적 악을 청산할 수 있다고 떠들면서 사회적 혁명,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에 대하여 온갖 비방과 중상을 다 퍼붓고 있다.

심지어 《도덕적 재무장》론의 창시자인 부크만은 《신의 령도 하에서의 나쏘 독재》에 대하여 공상하였다. 한때 파시스트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부크만은 그에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방위 전선을 창조한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보내 준 데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열렬한 축하의 전문을 보낸 일까지 있다.

특히 그들은 오늘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에 궐기한 모든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을 반대하면서 인민들의 민족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인종주의적 죄행을 극력 은폐하며 제국주의자들과의 타협에 대하여 선전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이러한 《리론》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일찌기 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생산력의 발전과 현존 사회 질서 간의 모순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배 계급의 사상은 더욱더 위선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다.

제국주의가 정치 사상 령역에서 엄대 위기에 처하고 그의 지배 체계가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수백 수천만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 잡고 있는 현 조건에서 낡은 제도를 《비호》하고 《구원》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은 전례 없이 기만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 자본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란한 선전과 함께 제국주의 반동들에게는 생활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인민 대중의 절박한 생활 감정을 악용하며 《혁명》이라는 구호를 도용하는 문제가 절실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은 《도덕적 재무장》론과 같은 기만적인 반동적 《리론》을 만들어 냈으며 그들은 이 반동 《리론》을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사람들의 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도덕적 재무장》론의 반동성은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반동적 책동과 안팎으로 통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름을 걸고 혁명을

팔며 제국주의에 복무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바로 계급 투쟁 대신에 《계급 협조》, 《초계급적 인도주의》, 《만민에 대한 사랑》, 《영원한 것》 등등의 반동적 선전으로 인민 대중의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기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투쟁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제국주의 반동 이데올로그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인민 대중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며 자기 세대를 다 산 자본의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력사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다.

온갖 반동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강력한 위력 앞에서 종국적으로 파산되고야 말 것이며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 제도는 조만간 매장되고야 말 것이다.

박 [illegible] [illegible]

근로자 제 1 호 (루계 239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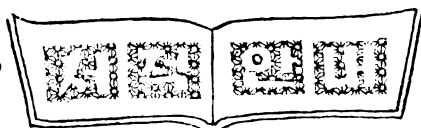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1월 3일　　발 행 • 1964년 1월 5일

ㄱ—430005　　　값 40 전

(정기간행물번호
제13206호)

《맑스—엥겔스 선집》 제 2 권

판형 국판 페지수 591 페지

《맑스-엥겔스 선집》 제 2 권은 작년 초에 발행한 《맑스-엥겔스 선집》 제 1 권의 속편이다.

이 책에는 맑스주의의 혁명적 정신을 외곡하려고 한 기회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력사적 필연성과 이 시기의 국가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한 맑스의 로작 《고타 강령 비판》을 비롯하여 맑스주의의 세 가지 구성 부분을 간략하게 특징 지은 엥겔스의 로작 《공상에서 과학에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새로운 세계관의 천재적 맹아를 내포하고 있는 최초의 문헌인 맑스의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테제》, 유물론적 세계관을 옹호하고 기초 지은 엥겔스의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 력사적 유물론의 리론을 사회 발전의 력사에 훌륭하게 적용하여 가족, 사적 소유, 계급 국가의 기원을 천명하고 한 사회 형태의 다른 사회 형태에 의한 교체의 불가피성을 론증한 엥겔스의 저서 《가족, 사적 소유 및 국가의 기원》 등 맑스와 엥겔스의 기본 로작들이 들어 있다.

또 력사적 유물론의 제 문제에 관한 맑스와 엥겔스의 주요한 서한 20 편이 들어 있다.

본 선집에 수록된 로작들은 맑스주의 원리를 정확히 리해하며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반맑스주의적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에 있어서 필독 문헌이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했다.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 호 1 월 20 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2 호 (240)

1964년 1월 (하)

차 례

—문 답 학 습—

남북 문화 교류를 위하여

하 앙 천

1

오늘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의 통일 문제보다 더 숭고하고 긴박한 민족적 과업은 없다.

통일이 되여야 한 민족이 한 강토 우에서 만민이 희망하는 지상 락원을 건설할 수 있고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실현할 수 있다.

나라의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해결하는 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정확한 방침이며 공화국 정부가 시종일관 견지하여 온 원칙이다.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이 방침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남북 총 선거에 의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남북 총 선거가 불가능한 형편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과도적인 련방제를 실시하거나 혹은 남북 경제 문화 교류를 먼저 실시하는 등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 번 제기하였다.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하여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은 아직까지 긍정적 반응이 없었다.

지난 번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 및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의 공동 련석 회의에서는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로부터 온 불행과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책을 제시하였다.

련석 회의는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는 조건 하에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 협정의 체결, 남북 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혹은 그 이하로의 축소, 남북 간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 기자, 언론인, 학술 연구를 위한 인사들의 래왕, 예술단, 체육단의 호상 교류, 경제적 련계의 회복 등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제기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남조선 동포들과 정계 및 사회계 인사들에게 호소하였다.

이 제안은 조국의 통일이 외세의 간섭 없이 어디까지나 민족 주체적인 력량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성취되여야 한다는 우리 인민의 일치한 념원을 표시하고 있으며 파국에 처한 남조선 사회와 도탄에 빠진 인민들을 하루 속히 구원하여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절박한 사활적 리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제안은 통일 문제 해결의 불가결한 요건으로 되는 남북 간의 긴장 상태 제거와 호상 리해와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기 위한 뜨거운 동포애를 나타내고 있다.

남북 간의 문화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남북 간의 경제적 련계의 복구와 함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남북 간의 장벽을 허치 놓는 데 있어서 구체적 조치로 되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첫 걸음으로 된다.

그러나 19 년간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 노예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제는 동족 간의 접촉과 의사 소통을 방해하며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이

달성한 빛나는 건설 모습을 외곡 선전하고 기만 중상하는 등 각종 악랄한 방법으로 《반공》 사상을 고취하며 민족간에 반목, 질시와 불화를 조성하기에 혈안이 되였다.

오늘의 현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족적 불화와 반목의 씨를 제거하고 남북 간의 호상 리해를 도모하며 민족적 화목과 단결을 이룩하는 것이 통일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민족적 화목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남북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를 실현하며 량단된 남북 간에 문화 교류의 다리를 놓고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이다.

이러한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의심할 바 없이 량단된 남북 인민들의 혈육의 정을 다시 이어 놓고 민족적 신뢰와 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외국의 간섭 없이 조선 민족 자체의 힘으로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함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

2

남북 간의 문화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 문화 전통을 수호하고 그를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 상태의 지속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재난과 불행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 문화 정책에 의하여 고유한 민족 문화의 아름다운 전통이 여지 없이 파괴 말살되고 자기 민족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비운을 면치 못 하게 할 것이다.

이 비참한 현실과 위험한 전도에 대하여 조선 사람치고 누가 가슴 아파하지 않으며 하루 바삐 통일을 위하여 분발하지 않겠는가!

우리 민족은 산고 수려한 조국 강토에서 수천 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한 피'줄기를 이어 살아 온 단일한 민족이며 사회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불가분리의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언어와 풍습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만 고유한 정신적 및 문화적 재부들을 소유하고 있는 슬기롭고도 문명한 민족이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 신라의 첨성대, 백제의 벽골제, 고려의 청자기 등을 비롯하여 우리 조상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과학적 및 예술적 천재를 발휘하였으며 13 세기 초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15 세기에는 우수한 민족 문'자를 창제함으로써 우리의 민족 문화 발전에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

우리의 조상들은 훌륭한 민족 예술과 문학을 창조하였으며 재능 있는 수 많은 과학적 발견과 발명들을 함으로써 세인을 경탄시켰다.

조국 청사에는 16 세기 중엽의 탁월한 철학자 서 경덕의 선진적 유물론 사상인 《기》의 불멸론과 의학자 허 준의 《동의 보감》을 비롯하여 18 세기의 우리 나라 대문호 박 연암의 불멸의 창작들과 정 다산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걸친 거대한 과학적 업적들이 아로새겨져 있다.

이러한 찬란한 민족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오늘 우리 세대의 책임과 임무가 그 얼마나 중대한가!

남조선을 강점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문명한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기의 야만적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며 우리 나라의 찬란한 민족 문화 유산을 여지 없이

파괴 탈탈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고귀한 문화 유적과 유물들은 미국 침략군의 땅크와 군화 밑에서 무참히 파괴 소실되고 있으며 수천 수만 종에 달하는 귀중한 유물들이 미국 날강도들에 의하여 략탈 당하고 있다.

미제는 신라와 리조 시대의 유물만 하여도 3만여 점이나 략탈해 갔으며 《리조 실록》, 《동의 보감》 등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과학, 문학 서적들과 국보급의 희귀본까지도 수천 점이나 강탈해 갔다.

우리 선조들의 웅장하고 우아한 건축 미술을 자랑하는 불국사와 덕수궁 등을 비롯한 수 많은 고대 건물들이 미국 양키들의 유흥장으로 전변되고 있으며 문명한 인간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패덕 패륜의 란무장으로 화하고 있다.

외세에 굴종하는 사상과 《미국식 생활 양식》의 부식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예속화 정책과 아울러 미제의 일관한 식민지 문화 정책이다.

그들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반동적 사상 침략 기구를 설치하고 남조선의 문화, 보도, 교육, 문학, 예술 등 모든 수단들을 동원 리용하고 있다. 《원조》와 《지식》의 미명 하에 교회, 학교, 병원들을, 미국을 숭배하는 노예 사상 보급에 리용하며 류학생, 관광단, 《친선》 방문 등 《문화 교류》의 형식에 의하여 양키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1953～1960 년간 미국을 방문하여 기만 선전을 받은 남조선 문화인들이 2,300여 명이고 1963년 1～10월까지 미국에서 문화 침략의 사명을 띠고 남조선을 래방한 자가 무려 8,300여 명이다.

오늘 남조선 천지에는 극단의 개인 리기주의에 기초한 무제한한 치부욕과 황금 만능주의, 모험적인 야만성과 인간 증오 사상, 부화 방탕과 극치의 색정주의 등으로 일관되여 있는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가 범람하고 있다.

이 《생활 양식》, 이 《문화》는 다름 아닌 임의의 모든 행동도 자체의 리득으로써만 정당화하는 실용주의와 객관적 의의를 가지는 모든 도덕 규범들과 원칙들을 전적으로 부인함으로써 불안과 공포, 죽음을 강요하는 실존주의와 인간의 자연적 본능의 우위를 주장하는 프로이드주의 등 미 제국주의의 가장 반동적이며 파렴치한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 제국주의 야만들에 의하여 우리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 문화가 외곡되고 유린 말살되고 있다.

문학에서 《무전통론자》들과 《모방 문학론자》들은 우리 나라 민족 유산에 대하여 허무주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심청이는 조선 녀자가 아니요》, 《금오신화》는 《료재지이》의 모방이라고 망발하고 있다.

리 도령이 권총을 차고 춘향이가 굽 높은 구두를 신은 해괴망측한 형상이 공공연하게 무대 우에 나타나기도 하고 《바보 온달》, 《월출랑》 같은 고전 영화에 타체썬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민요 아리랑은 《아리랑 만보》로, 도라지는 《도라지 만보》로 변조되고 가요는 거의 땐스곡으로 변조되고 있다.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는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의 력사를 통하여 가꾸어 온 우리의 고유한 미풍 량속을 여지 없이 유린하고 있다.

인간 증오 사상과 말세기적인 부패와 타락을 설교하고 있는 《갱》 영화와 퇴폐적인 문학 예술, 광란적인 쟈즈 음악과 타체 무용 등의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의 침습은 남조선 사회를 헤

여날 수 없는 범죄와 패덕 패륜의 막다른 구렁텅이에 몰아 넣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 심지어 어린이들에게까지 인간의 리성을 부인하며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인간의 투쟁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체 인간의 권위와 전통을 부정하며 오직 무제한한 개인적 탐욕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전률할 현상을 강요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세계관이 형성되지 못한 학생 청소년들 속에서는 색정과 타락, 비애와 절망, 사기와 협잡, 질투와 모해 등의 참을 수 없는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범죄 행위가 늘어 나고 속세를 비관하는 염세 사상과 삶을 저버리는 자살 참극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나고 있다.

남조선 《실화》 잡지에는 《전락》,《이방인》 등 허무주의적 소설을 탐독한 어느 학교 녀학생들은 《우리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생에 대하여 비관한 나머지 음독 자살한 기사가 실렸는가 하면 서울 남대문 시장에 출몰하는 《5 인의 해병》이라는 불량 소년들로 구성된 범죄 단체는 그 이름부터가 《깽》 영화 제목 그대로라고 한다.

천진란만한 청소년들이 저도 모르게 불의의 길로 빠져 들어 갈 때 자녀를 둔 부모된 자 그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는가!

양키 문화의 후과는 이것 뿐이 아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민족 어휘와 언어까지 퇴색되여 외래 어휘로 바뀌어지고 있으며 우아한 조선 녀성들의 몸 단장 대신에 《국적 불명》의 몸 치장과 《미국식 옷차림》을 모방한 《개량복》이 활개치고 있다.

민족 주체 의식을 좀먹고 있는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의 악독한 후과를 개탄한 남조선의 한 잡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자기의 것이 남의 것에 못해 보이고 자기 자신의 출생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머리칼도 노랗고 눈도 쌍거풀이고 코도 높으고 앞가슴도 불룩하고 했으면 해서 온갖 약품과 수술과 덧붙임을 다 마련해서 양인종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산다면 분명히 이 민족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녀원》 1963년 2 호)

더우기 통분할 일은 오늘 남조선에서 일제 강점 시기의 반동 문화가 재생되고 있는 것이다.

해방 전 일제의 《동조 동근론》, 《내선 일체》, 《황국 신민화 운동》 등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고귀한 민족 문화 유산은 여지 없이 외곡 파괴되였다. 우리는 제 나라 력사를 못 배우고 제 나라 말도 사용 못 하고 심지어 조상 때부터 타고 난 자기 성까지 일본식으로 고치는 망국노의 굴욕을 근 40 년간이나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그런데 오늘 미제의 충복 박 정희 매국 도당은 《한 일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서두르면서 패망한 일제 세력에 아부 굴종하며 일본 독점 재벌의 경제적 재침을 허용하고 일제 반동 문화의 재생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일제의 조선 강점 하에서 부르던 부패 타락한 노래들이 남조선의 거리들과 골목들에서 그대로 불리여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수입한 색정 영화들과 반동 문학 서적들이 대량 유입되고 있으며 《왜음》과 《왜색》이 철 만난듯이 번성하고 있다. 《8월 보름날의 찻집》,《행복한 고독》 등 퇴폐적인 일본 영화가 또다시 인기를 끌게 되고 《[illegible] 우지마라》, 《목포의 눈물》, 《오도꼬노 구부스》 등 일제 시기 부르던 눈물과 비애로 가득찬 류행가들이 어느듯 소년 소녀들의 입에서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일제는 일상 회화에서도 《미스터 김》,《미스터

리》와 함께 《긴상》, 《리상》이 되살아 나고 있는 한심한 처지다.

남조선의 어느 소설가는 《과거 36 년간 정치적 식민지였던 것이 인젠 문화적으로 자진하여 식민지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통탄하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의 범람, 일본 반동 문화의 재생으로 인하여 빚어 내는 죄악의 후과는 단순히 오늘의 재액과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위협하게 된다. 조상 전래의 고귀한 전통을 반동 사상과 양풍의 침습으로부터 수호하며 아름답고 좋은 것은 도로 찾아 내며 단일 민족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목전 긴급하고 중대한 민족적 임무다.

조선 사람치고 제 정신을 바로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조국은 통일되여야 하며 민족은 단결되여야 한다는 철칙을 바로 인식할 것이다.

력대로 우리 민족은 장기간 한 강토우에서 화목하게 살아 온 단일 민족이며 단결력과 투쟁 정신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는 우리 선렬들의 애국주의 사상과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간악한 외적의 침입으로 국난이 도래할 때마다 한 사람 같이 단결하여 거족적으로 궐기하였으며 무비의 애국적 헌신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

우리 나라 력사 상 을지 문덕, 강 감찬, 리 순신 등 애국적 명장들과 민족적 영웅들이 발휘한 위훈들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갑오 농민 전쟁, 반일 의병 투쟁, 3.1 인민 봉기, 6.10 만세 시위, 광주 학생 사건 등은 모두 우리 민족의 불굴의 정신을 시위한 것이다.

청년 학생들이 적수공권으로 리 승만 반동 통치를 타도한 4.19 인민 봉기에서 이것이 실증되지 않았는가!

특히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인 공산주의자들은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손에 무장을 들고 15 개 성상의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영예를 고수하고 우리 민족의 애국 전통을 집대성하였으며 해방 후 오늘의 승리의 대로를 열어 놓았다.

이러한 애국주의 전통과 투쟁 정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이 어찌하여 외세에 의존하며 미제의 압박 밑에서 치욕의 생활을 계속하여야 하겠는가!

미제는 자기의 조국도 민족도 문화도 전통도 없는 해적의 후예다.

그들의 조상은 겨우 15~16 세기에 이르러 아메리카 원주민을 야만적으로 정복한 노예 상인의 력사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는가!

20 세기 50 년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그들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기간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침략 전쟁의 실패를 자인하고 정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았던가! 무엇 때문에 아직 《숭미》, 《공미》 병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가?

조상 때부터 물려 받은 투쟁 정신과 오늘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서 단련된 굳은 지조와 결의가 모든 조선 사람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져 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우리 앞에 조성된 난국을 능히 타개할 수 있다.

전체 조선 인민 앞에는 민족적 량심과 애국적 지조를 굳건히 수호하고 민족의 장래와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 상태를 조속히 종식시켜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부과되고 있다.

남북의 접촉과 문화 교류는 조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며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 전통을 수호하

고 그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초보적 조치이다.

3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성숙된 민족 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오늘 문화 교류와 협조는 언어와 풍습과 피부색이 다르고 제도와 사상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상이한 민족들 간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하나의 국제적 조류로 되고 있다.

동방에서 서방에로, 북극으로부터 남극으로 지구 상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에서는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등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한 교류와 접촉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적인 협조가 실현되고 있다.

세계 각국 인민들과 민족들의 이러한 문화 교류와 협조는 세계 문명과 문화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개별적 나라들과 민족들의 문화 발전에 있어서도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세계 각국 인민들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비단 문화 발전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파괴자인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제 인민들 간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데서 거대한 직접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어와 풍습이 다르고 피부색과 생활 양식까지도 전혀 다른 상이한 인민들과 제 민족들 간에서도 호상 접촉과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 시기에 무엇 때문에 통역도 번역도 필요 없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가진 우리의 단일한 조선 민족끼리 접촉과 문화 교류가 실현될 수 없겠는가.

더우기 우리 나라의 남북 문화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민족 분렬 정책으로 인한 엄중한 민족적 불행과 재난을 제거하기 위한 민족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되고 있는 이상 무엇 때문에 주저할 수 있으며 그를 실현하지 못 할 리유가 또한 어디 있겠는가! 또한 남북 문화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적 전통과 고유한 민족적 특성에 의한 우리의 통일적 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되고 있는 이상 그 어떠한 자가 감히 이를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단일한 민족에는 두 개의 문화가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의 통일은 문화의 통일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남북 간의 문화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더 이상 지체시킬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19 년간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 파쑈 테로 통치는 자기들에게 빈궁과 억압과 불행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기발 밑에서는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다.

이리하여 조국 통일을 위한 남북 합작의 요구는 더욱더 증대되여 가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지도 밑에 전후 재'더미 속에서도 일떠서서 자력 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단시일 내에 경제를 복구하고 우리 인민이 모두다 자유롭게 살며 일하며 공부하며 문화 생활을 즐기는 지상 락원을 건설해 놓음으로써 우리 나라의 민족 문화를 빛나게 계승 개화 발전시키고 있다.

오늘 북반부 인민들은 생산 수단과 사회의 모든 물질적 부의 소유자일 뿐

만 아니라 정신적 및 문화적 재부의 완전한 소유자이며 주인으로 되고 있다.

리 승기 박사와 김 봉한 교수의 과학적 연구 성과는 남반부가 아니라 바로 공화국 북반부와 같은 환경과 조건 하에서라야만 비로소 세계 1 등급의 비날론 공장을 만들어 우리의 인민 경제 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경락 계통의 진모를 밝혀 내는 위대한 업적으로써 현대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 일대 전환을 가져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은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적 양식으로 되고 있다.

우리의 체육, 문화 예술이 세계적으로 절찬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번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가네포에서도 실증되지 않았는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 장성과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 공화국 정부의 국내외적 위신의 제고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더욱더 고무적 영향을 주며 외세 의존 반대, 자주 자립, 주체 의식의 확립, 민족 통일과 남북 합작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있다.

《한국 일보》는 외세에 의하여 국내 정치가 좌우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주 정신, 자주 관념 그리고 자주 처리만이 자주 민족 국가를 자주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른 한 신문에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문화적 소지와 주체성을 튼튼히 마련한 다음에라야 비로소 남의 것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모 대학 교수는 《주체성, 이는 곧 민족 정기다. 만일 이 주체성으로부터 유리된다면 그 어떤 사상도, 기술도 우리 것으로 삼아질 수 없다.》라고 민족 문화 발전의 방향을 옳게 제기하였다.

남조선의 한 평론가는 《남북의 분렬 정책이 시정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예속과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며 남북 통일이 이룩됨으로써만 한국을 안정시키고 한국 국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정당한 주장을 내놓았으며 어느 한 신문에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앞으로 달 나라에도 갈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지척지간인 자기 고향에는 갈 수 없는가?》고 반문을 한 후 《휴전선이 가로막혀 숲 속을 오가는 짐승 만큼도 못 한 형편》이라고 량단된 민족의 비운을 통탄하였다.

남조선의 한 시인은 이러한 절박한 념원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다리를 놓자. 다리를 놓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일은 다리를 놓아야 한다.
너와 나의 마음에 다리를 놓자.
휴전선 우에
서울과 평양에.
가로 세로 거미줄 감기듯.
하늘의 별이 얽히듯
이렇게 다리를 놓아 가면
언제인가 하나가 되리
우리는 하나가 되리》

시 《다리》에서

남북의 문화적 접촉과 련계가 얼마나 절박한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지향인가는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가 지난해 5월에 개최된 홍콩 회담을 앞두고 이 회담이 《그 결과가 어찌되건 올림픽 문제가 여기까지 이른 것만으로도 하나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우리는 한 피'줄의 자손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 왔다.》(《한국 일보》 1963년 4월 23일)고 강조한 사실에서도 명확히 표시되고 있다.

작년 말 남조선 인민들과 정계 인사들 및 사회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나간 후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의 절박성은 각계 각층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어 남조선의 일부 《국회 의원》까지도 남북 간의 언론인 왕래와 서신 교환만이라도 시급히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나서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팽배해진 대중의 지향과 그를 실현코저 하는 그들의 인내성 있는 투쟁은 오늘 남북 문화 교류와 협조의 실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된 현실적 요구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이 요구의 실현은 대중의 단순한 지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남북이 접촉하고 있는 실천적 체험에 의해서도 완전히 성숙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948년 4월에 있은 남북 제 정당 사회 단체 련석 회의의 력사적 경험과 최근 로잔느와 홍콩에서 한 자리에 모여 앉은 남북 체육 전문가들의 생생한 체험에 의해서도 그것은 확증되고 있다.

이리하여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 같은 념원인 남북의 접촉과 경제 및 문화적 교류의 실현은 단일 민족의 통일적 문화 발전을 위한 억제할 수 없는 요구로 되고 있다.

남북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서로 접촉하여 민족 경제의 통일적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고유한 민족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 토론도 하며 남북 간의 예술단과 체육단의 정상적 교류를 실현함은 물론 국제적 축전과 체육 축전에 공동으로 출전하기 위한 공동 련습과 훈련도 하며 남북의 청년 학생, 교육자들이 공동으로 되는 기념 집회, 강연, 좌담 등을 조직하며 서로 관광단도 파견하여 금강산이나 해운대의 탐승도 조직하는 등 구체적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문제는 우선 한 자리에 모여 앉아야 한다. 만나서 흉금을 털어 놓고 의견을 교환하여야 더욱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며 상설적인 기구도 내오게 될 것이다.

과학, 문화, 교육, 보건 등의 각 분야에 걸치는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 오게 할 것이며 조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결정적인 유리한 국면과 광활한 새 전망을 열어 놓게 될 것이다.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이와 같이 전체 조선 인민과 특히는 남조선 인민들의 절박한 사활적 요구로 되여 있으며 그의 실현의 현실적 제 조건들이 이미 충분히 구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은 그를 악랄하게 방해하여 나서고 있다.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오직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방해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반부의 전체 애국적 력량은 일치 단결하여 조국 통일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총 궐기하여야 한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 력량은 적들의 어떠한 탄압과 박해도 단호히 물리치고 더욱 과감히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반 사태는, 조국의 독립과 민족적 통일을 달성하려는 애국적 민주 력량이 부단히 확대 강화되는 위력 앞에서 쇠망하여 가는 반동 세력은 더욱더 당황망조하고 있으며 위기와 궁지에 빠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는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의 남조선 혁명 력량은 남북 합작과 평화적 조국 통일을 요구하는 전체 애국적 력량을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의 기치 하에 굳게 결집시키고 앙양되는 인민들의 투쟁 파도를 통일 위업의 달성에로 더욱 세차게 밀고 나아가야 한다.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파나마 인민들의 숭고한 애국 투쟁은 오늘 전 세계 인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파나마 전국의 도시들과 마을들은 반미 투쟁의 세찬 불'길에 휩싸였으며 미제 침략자들의 류혈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파나마 인민들의 영웅적 항쟁은 계속되고 있다.

격노한 파나마 인민들은 그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정체를 날날이 폭로하고 미국 기관들을 짓부시며 싸우고 있고 파나마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운하 지대의 《영구 조차권》을 강요한 《파나마-미국 조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령토 완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애국 투쟁이며, 파나마 인민들의 가슴 속에 맺힌 민족적 울분의 폭발이며, 파나마에서의 진정한 민족적 독립을 위한 운동의 새로운 발전이다.

계기와 원인

파나마 인민들의 금번 반미 애국 투쟁은 지난 1월 9일 운하 지대에서의 국기 게양 사건을 계기로 하여 폭발하였다.

운하 지대에서의 파나마의 주권을 인정할 데 대한 파나마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미국은 이미 1962년 10월 29일 운하 지대 관리 중심지인 발보아 언덕에 있는 행정 기관 건물의 정면에 파나마 국기를 미국 국기와 동시에 게양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1963년 1월에는 운하 지대에서 미국 국기가 게양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파나마 국기를 게양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민족적 존엄을 위한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에서의 거대한 성과였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최근에 와서 이 약속을 묵살하고 파나마 인민들의 면전에서 공공연히 미국 성조기만을 띄웠으며 파나마 국기를 동시에 게양하라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총탄으로써 대답하였다.

그들은 있지도 않은 《파나마 정부의 요청》이라는 허위 날조를 조작하여 미군을 동원하고 대서양의 파나마 앞바다에 순양함을 대기시키는 한편 운하 지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 1,200 명의 증원 부대를 파견하면서 땅크와 장갑차까지 사용하여 적수 공권의 파나마

인민들을 무참히 사살하는 범죄적 행동을 서슴 없이 감행하였다.

이것은 파나마 인민들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켰으며 그들의 투쟁을 전국적인 반미 폭동으로 급격히 전환시켰다.

처음 무력에 의한 탄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던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사태의 이러한 급격한 진전에 극도로 당황 망조하여 사건의 진상을 극력 외곡하며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을 회유 술책으로 마비시킴으로써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 나 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제는 파나마 문제를 그들의 침략 도구인 《미주 국가 기구》의 테두리 안에서 《조정》케 하기 위하여 이 기구의 《평화 사절단》을 파나마에 파견함으로써 마치도 자기들이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을 조성하려 하고 있으며 우선 외교 관계를 재개할 것만을 떠들어 대고 있다.

이것은 파나마 운하 지역에 대한 그들의 강점을 기정 사실로 만들며 관계를 흐지부지하게 만듦으로써 이 지대에 대한 《영구 조차권》을 고수하려는 음흉한 책동이다.

그들은 이 흉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운하 지대에 자기 나라 국기를 게양한 파나마 학생들이 시위를 평화적으로 끝냈더라면 파나마 위기는 아마도 회피되였을 것》이라는 등 책임을 파나마 인민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 위기가 《공산주의자들의 작간》에 의해 조성된 것이라는 허구를 꾸며 대고 있다.

결국 파나마 인민들이 자기들에 대한 어떤 모욕이나 학살 만행이 감행되여도 참아야 된다는 것이며 그들이 자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한 미제를 반대하여 궐기한 것이 잘못이였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행동은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미제의 강도적 론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파나마 인민들의 이 반미 애국 투쟁은 결코 일시적 감정의 로출도 아니며 국기 게양 사건으로 하여 초래된 우연적 현상도 아닌 것이다.

국기 게양 사건은 사건 발단의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며 원인은 보다 심오한 데 있다.

미제 강도들은 계기를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건의 심오한 원인을 엄폐하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장구한 기간 파나마의 민족적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감행하여 온 미제의 침략 정책에 있으며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에 대한 그들의 쌓이고 서린 울분의 폭발이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을 파나마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수십 년간이나 파나마 운하 지대를 강점하고 이 나라의 존엄을 침해하여 왔으며 파나마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여 왔다.

실로 20 세기의 파나마 력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침략의 력사이며, 착취의 력사이며, 그들에 대한 이 나라 인민들의 원한의 력사였다.

미제는 20 세기 초부터 파나마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그들

운 1903년에 예속적인 《파나마-미국 조약》을 강요하여 파나마 운하와 그 량안의 각각 8키로메터에 달하는 령토를 《영구 조차지》로 탈취한 이후 이를 파나마와 나아가서는 라틴 아메리카 침략을 위한 거점으로 리용하였으며 새로운 치부의 원천지로 전환시켰다.

파나마 운하를 독점한 미제는 이 운하에서 매년 1억 딸라의 거대한 리윤을 얻어 냈다. 그러나 파나마가 받는 금액은 단 193만 딸라에 불과하다. 미국의 독점 자본가들은 운하 지대에서 파나마인들을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하여 막대한 착취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나마 경제의 명맥까지 틀어 쥐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파나마 인민들은 이 운하를 미국에 빼앗긴 것으로 하여 60년 동안이나 가혹한 략탈을 당하여 왔으며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겪어 왔다.

이로부터 파나마 인민들은 오래 전부터 미제의 예속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운하 지대의 귀속을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 왔다.

특히 1956년 7월 영 불 제국주의를 구축하고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아랍련합 공화국 인민들의 성과와 큐바 혁명의 승리는 파나마 인민들의 반미 애국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수에즈 운하 국유화에 뒤이어 파나마 정부는 운하 지역의 자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성명하였으며 1958년 5월 파나마 수도의 학생들과 시위자들은 《양키를 타도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운하 지역에 들어 가 그를 수복하려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이후에 있어서도 1959년 11월 반미 시위를 비롯하여 운하 지대의 반환을 요구하는 투쟁은 거세차게 전개되였다.

금번 파나마에서의 자주권을 위한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은 이런 투쟁의 련속으로서 그 원인은 미제의 운하 지대에 대한 강점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운하 문제에 대한 협상 이전에 외교 관계 재개를 부르짖으면서 갖은 교활한 술책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식민주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을 발판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작간》을 운운하는 것은 《후진》 국가들에 공공연한 압력을 가하며 인민들에 대한 학살 만행과 무장 탄압을 감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 보려는 미제의 상투적인 수법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카스트로 앞잡이들이 류혈적인 파나마 폭동에 관련되여 있다》는 허구를 날조함으로써 이 사건을 저들의 반큐바 책동과 결부시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히틀러의 악명 높은 《반공》 외교에서 배워 온 이러한 수법이 시대가 달라진 오늘에 와서 통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다.

미제의 《공산주의자들의 작간》 운운은 오늘 파나마 정부와 인민들의 격분을 더욱 격발시키고 있다.

파나마 대통령 치아리는 파나마 문제에는 국제 공산주의도, 큐바도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언명하였으며, 1월 15일 파나마시의 청년 학생들은 미국 정부와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는 것을 반대하여 파나마 종합 대학에서 운하 지대에 대한 자주권의 회복을 요구하는 군중 집회를 열고 약 3,000명의 학생들이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거듭

웨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파나마 정부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 조약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하기 전에는 파나마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미제 침략자를 몰아 내기 위한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은 날을 따라 더욱 거세게 타 오르고 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월가

파나마 사건이 폭발한 이후 미국 출판물들에서는 완전한 하나의 대소동이 일어 나고 있다.

소동의 주인들은 저마다 파나마 사태와 관련하여 진부한 론조들을 들고 나와 사건의 진상을 외곡하고 파나마에 무근거하게 악의에 찬 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러면서도 월가는 파나마 사태에 대한 자기의 불안과 공포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월가의 침략자들이 파나마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눈이 뒤집히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들은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의 물'결이 그렇지 않아도 반미 투쟁의 도가니로 화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 파급되여 더욱 거세찬 련쇄적 반응을 일으킬 것을 무서워 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지는 이렇게 썼다. 《파나마에서 일어 난 폭발은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과의 관계 력사에서 쓰라린 전환점으로 될 것이다.》

그렇다. 파나마 사건은 다만 파나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꾸바 혁명 이후 가장 대규모적이고 완강한 반미 투쟁의 하나이며 그의 발전은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에 또 하나의 심대한 파렬구를 형성하여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파나마 사건은 미제의 《평화》 정책,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 대한 《선린》 정책의 진면모를 전 세계 인민들 앞에 여지 없이 폭로하였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더한층 새로운 앙양에로 나아가게 하였다.

파나마 사건이 일어 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1월 8일 미국 대통령 존슨은 국회에 제출한 《년두 교시》에서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와 선린 관계를 맺》어야 하며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좋은 벗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존슨의 이 말이 떨어지기도 바쁘게 미 제국주의자들은 무력으로써 《라틴 아메리카 우방에 대한 선린 관계》를 강요하였으며 파나마에 대한 명로적 야욕을 실현해 보려고 총탄을 퍼부었다. 이것은 미국 지배층들이 떠벌리는 《평화》와 《벗》이란 침략을 위한 하나의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바로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누구에게 정의가 있는가를 명확히 판단하게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들은 《파나마를 지지하고 양키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높이 웨치면서 대중적 시위와 집회들을 진행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에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니카라과의 수도의 5,000 명 대학생들의 반미 시위를 비롯하여 멕시코, 코스

타리카,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등 라틴 아메리카의 전 지역에서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선풍이 휩쓸고 있다. 심지어 일부 친미적인 괴뢰 정권까지도 인민들의 압력 밑에서 파나마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라틴 아메리카의 광범한 인민들이 미제의 마수를 꺾어 버리기 위한 파나마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일치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속에서 미제에 대한 분노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 대륙에서 미제가 인민 대중으로부터 더욱더 고립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파나마 사건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월가의 억만장자들을 몰아 내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며 모든 지역에서 조만간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을 폭발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실로 파나마 인민들의 애국 투쟁은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의 일환으로서 그의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는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라틴 아메리카 각국 인민들은 그들의 공동의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더 과감히 나서고 있으며 그들 간의 련대성은 일층 더 강화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교활하고 음흉한 술책으로 침략 책동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자들의 침략 지반을 구원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이 력사의 흐름 앞에서 월가는 공포에 떨고 있다.

파나마 인민들은 외롭지 않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파나마 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하고 있는 류혈적 학살 만행과 무력 침략은 파나마와 라틴 아메리카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될 뿐만 아니라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 대한 가장 파렴치한 도전 행위이다.

미제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세계 반동의 괴수이며 전 세계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이다.

미제는 오늘 세계 도처에서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교살하려고 날뛰고 있으며 강도적 살인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우리 조국 남반부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각종 신형 무기와 전투 부대를 끌어 들이여 식민지 통치를 영구화하려 하고 있으며 아세아에서의 침략 전쟁의 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다. 그들은 남부 월남에서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감행하고 있으며 라오스에서 류혈적인 국내 전쟁을 다시 도발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미제는 인민 중국의 신성한 령토의 일부분인 대만을 강점하고 있으며 인도 반동 계층을 사촉하여 인민 중국을 반대하는 반중국 소동을 벌려 놓고 있으며 큐바에 대한 새로운 무력 간섭을 로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파나마에서의 미제의 야수적인 만행과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은 침략자의 《리성》과 《선의》에 대하여 떠드는 사람들의 설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 준다.

미제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변할 수도 없다.

미제를 반대하는 파나마 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세계 인민들의 투쟁의 한 부분이다.

파나마 인민들은 외롭지 않다.

오늘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평화를 사랑하며 정의를 수호하는 인민들은 미제 침략자를 반대하는 파나마 인민들의 편에 확고히 서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파나마에서의 미제의 죄행을 규탄하고 있으며 파나마 인민들의 반미 애국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미제 침략자들이 파나마 운하 지역에서 물러 가고 파나마 운하 지역은 무조건 파나마에 귀속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탄압과 외교적 술책으로도 정의를 귀중히 여기며 전 세계 인민들의 한결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파나마 인민들의 전진 운동을 멈춰 세울 수 없다.

미제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강점 당한 운하 지대의 귀속은 주권 국가로서의 파나마의 응당한 요구이다. 그 누구도 이 나라 인민들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파나마 운하 지대에서 물러 가야 하며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인민의 수중에 돌아 와야 한다.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파나마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과 과학적 예견성

리 진 훈

1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언제나 가장 큰 관심사로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앞을 정확히 내다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람들이 앞날을 예견한다면 사태 발전에 맞게 행동할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암중모색하게 되며 뜻하지 않은 실패를 가져 올 수 있다.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나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앞날의 날씨를 미리 예측한다면 그에 대처하여 모든 준비를 갖출 수 있고 생산 활동에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불의의 재난을 당할 수 있다.

미래를 예견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종사하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로부터 앞'일을 미리 내다 보기 위하여 모진 애를 써 왔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예언자》를 현인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사람들이 미래를 예견하기 위하여 애써 왔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에 있어서의 사태 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기껏해야 자기들의 오랜 경험에 토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미신에 의해서 앞을 내다 보려고 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황당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는 것, 이것은 오직 과학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자연계에서 사물의 변화 발전을 정확히 예견하는 문제는 자연 과학에 의거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며 사회적 현상의 변화 발전을 예견하는 문제는 오직 사회 과학에 의거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과학적 예견이란 바로 자연과 사회의 객관적 발전 법칙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진이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정확히 내다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현재 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 대한 과학적 예견에 기초하여 사업을 조직함으로써 언제나 투쟁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고 있다.

실로 과학적 예견은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의 기초에 확고히 놓여 있다.

《혁명 발전의 매 시기의 정책을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현재와 가까운 장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라의 먼 장래의 발전 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였으며 대중이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과 명백한 투쟁 목표를 제시하였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우리 당은 해방 직후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조선 혁명의 앞길을 명확히 내

다 보고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을 제기하고 관철하였으며 또한 통일 독립된 조국의 만년대계를 예견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관한 로선을 제시하고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해 왔다.

우리 당은 조국 해방 전쟁의 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전쟁 승리를 예견하였을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 건설을 설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적 로대 축성에서 기초로 되는 기계 제작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 중요한 력량을 경주하였다.

과학적 예견에 기초한 우리 당의 이 모든 방침들의 거대한 생활력, 그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명백히 확증하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키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를 공산주의에로 이끄는 정확한 길을 밝히고 그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미리 강구하고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 농업 지도 체계의 확립,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정치, 경제, 문화적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의 제고, 공업 농업 간의 새로운 호상 관계의 설정과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대책의 수립 등 최근 우리 당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얼마나 먼 앞날을 내다 보고 모든 사업을 포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먼 장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며 부단히 새로운 승리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 이것은 우리 인민이 언제나 혁명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는 결정적 담보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를 더욱 빛내이며 혁명의 승리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오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매개 부문, 매개 단위들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능력을 높이며 자기 사업의 발전 전망을 확고히 내다 보면서 사업을 예견성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생활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일'군들이 사업의 발전 전망을 내다 보고 그에 기초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모든 곳에서는 례외 없이 전변이 일어 나고 있으며 그렇지 못 한 데서는 사업에서 계속 부단한 전진을 이룩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과학적 예견성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커다란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2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맑스주의 발생 이전부터 과학적 예견이 가능했다. 그러나 사회 생활 분야에서 과학적 예견은 맑스주의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였다.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예견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예견이나 할 것 없이 그것은 모두다 객관적 법칙에 대한 인식에 엄밀히 기초할 때만이 가능하다.

법칙에 대한 인식이 없이 미래에 대하여, 사건의 발전에 대하여 예견하려는 모든 시도는 허사로 돌아 갔다.

정 약용에서 최고봉에 도달한 우리 나라 실학파의 사회-정치 사상에는 농민적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이 풍부히 제기되였었다. 걸출한 실학 사상가들은

정당하게도 당시 사회의 부패, 타락, 인민 생활의 령락의 근원을 봉건 사회의 모순에서 찾았으며 량반 지주들의 토지를 제한하고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할 것을 비롯하여 반봉건적인 사회 경제적 개혁안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 발전의 법칙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리상 사회의 건설을 위한 옳은 길을 리해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들에 의하여 그려진 화폭은 실현될 수 없었다.

토마스 모어를 시조로 하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도 자본주의의 모순을 심각히 그리고 명료하게 비판하였으며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대체되여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본질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가져 오는 객관적 조건들을 리해할 수 없었으며 새로운 사회의 창조자로 될 수 있는 력량도 보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상가들의 리상은 리상 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들의 희망은 《사회적 력량에 의거하고 있지 않는 희망, 정치적, 계급적 력량의 장성, 발전에 의하여 튼튼하게 되지 않는 그러한 희망》(레닌 전집 제18권, 457 페지)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력사적으로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 예견이 자연계에 대한 그것에 비하여 늦어진 것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자연계에서 모든 현상은 자체의 법칙에 따라 변화 발전하며 자연 법칙들은 인간의 의사와 인간의 활동과는 관계 없이도 작용한다. 사람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람들의 소원과는 관계 없이 낮은 밤으로 바뀌여지며 봄은 여름으로, 여름은 가을로 바뀌여진다. 만일 사람들이 이 법칙을 모른다면 자연 현상의 발전을 예견할 수 없으며 인간의 활동이 합목적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 반대로 사람들이 자연 법칙들을 인식한다면 그 현상들의 장래 발전을 예견할 수 있으며 자연력을 사람들의 리익에 복종시킬 수 있다.

물론 사회 발전 법칙도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여 실현된다.

사회의 발전 법칙은 일체 반동 계급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파멸에로 이끄는 사회의 발전 법칙을 겁내하며 그의 인식을 백방으로 저해한다.

례컨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법칙은 부르죠아지의 멸망의 법칙으로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 발전은 불가피하게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며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화, 생산력의 계획적 발전을 요구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합법칙적이란 것을 보여 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르죠아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법칙을 계급적 본성으로부터 혐오하게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인식할 수 없게 하고 투쟁에 궐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악하는 것이다. 부르죠아지의 관심

은 사회 발전 법칙을 인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 력량의 공세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보존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사회 발전 법칙들이 많은 자연 법칙보다 현저하게 늦게 발견되였으며 사회 현상에 대한 예견이 자연계에 대한 예견보다 훨씬 뒤늦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맑스주의의 발생—이것은 사람들에게 사회 발전 법칙을 전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맑스주의는 근로 대중에게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며 그를 지침으로 하여 일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주의는 발생 첫날부터 자본가 계급의 필사적인 반항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사회 발전의 과학으로서의 맑스주의에 기초하여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혁명가들의 개별적인 사업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오직 사회주의 하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예견은 전 사회적인 것으로 되며 그가 가지는 의의가 무한히 증대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생산 수단이 사회화되여 있으며 생산력은 인식된 법칙에 상응하게 사회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발전된다.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던 경제 법칙들을 의식적으로 리용하며 장래를 예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한다.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사회주의 하에서는 자본주의 하에서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의 리해 관계가 일치되며 인간 관계가 외곡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되고 명백하게 되였다.

미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휘황한 전망을 주며 시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리하게 작용한다.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더 잘 예견하며 사람들의 활동을 그에 더 잘 적응시킬 것을 념원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특징은 미래 사회에 대한 과학적 예견에 대하여 리해 관계를 달리하는 계급과 계층이 없으며 그에 대하여 모두다 공통된 관심을 가진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주의 하에서는 과학적 예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한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은 과학적 예견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것이며 과학적 예견이 없이는 사회주의 사회가 전진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

고도로 발전되고 조직화된 사회주의 사회를 훌륭히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문제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키는 문제도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할 때 경제 발전을 위한 옳은 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나라의 물적 인적 자원과 온갖 가능성들을 훌륭히 동원 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사회주의 사회는 보다 급속히 발전하게 되며 모든 사람들의

복리가 더욱 증대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과학적 예견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한 당에 의하여 실현된다.

맑스-레닌주의적 리론의 힘은 《그것이 어떠한 정세 밑에서든지 옳은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며 주위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내'적 관계를 리해할 수 있으며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을 예견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사건이 현재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하여야 하는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당에 준다는 거기에 있다.》 (쓰딸린)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한 당은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한 기초 우에서 정책을 작성하며 그를 관철하는 투쟁에로 대중을 계획적으로 조직 동원한다.

우리 당은 언제나 우리 조국의 장래 발전 전망을 명확히 내다 보고 우리 인민 앞에 투쟁 목표와 그의 실현 방도를 내세우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오늘과 래일 뿐만 아니라 5 년 후, 7 년 후에 우리 조국이 어떻게 발전하며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미리 알고 확신성 있게 나가고 있다.

3

우리 당은 언제나 과학적 예견에 기초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다 먼 장래를 전망한 기초 우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당의 정책들을 훌륭히 관철시키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보다 성과적으로 촉진시키자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눈 앞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예견하고 사업을 포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매개 초소에서 사업하는 일'군들이 자기 사업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앞을 예견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며 그 능력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자기가 일하는 공장과 농장의 오늘의 사태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가 1 년 후, 10 년 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준비를 갖추어 나가며 모든 사업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가 작성한 계획이 과학적인 것으로 될 수 있으며 또 계획 수행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만 보면서 일한다면 사업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우리들에게는 그 순간의 성과로써는 부족하다. 우리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그 순간 또는 그 날을 위한 계획으로써는 부족하다.》(레닌 전집 제 26 권, 46 폐지)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더 심화 발전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업을 고도로 계획화할 것이 요구되는 오늘의 조건에서 우리 일'군들이 사업을 예견성 있게 조직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는 비할 바 없이 증대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미래를 예견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전

진할 수 없으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일'군들이 과학적 예견의 능력을 소유하자면 무엇보다도 맑스-레닌주의 리론, 우리 당의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를 빨리 발전시키는 훌륭한 운전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 법칙을 알아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의 길을 찾고 그를 따라 전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되면 될수록 마치 캄캄한 밤에도 험한 길에 헛듣지 않고 평탄하고 가까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듯이 언제나 자기의 앞길을 명백히 바라 볼 수 있으며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갈 수 있다.

일'군들이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능력을 가지자면 또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요구된다.

앞을 내다 보자면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현 실정을 옳게 료해하는 유일한 무기로 되는 것은 군중 로선의 관철이다.

일'군들이 부단히 군중 속에 침투하여 대중과 같이 사업할 때 비로소 이미 포치된 사업이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는가,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중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가 요구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료해할 수 있으며 군중의 지혜를 종합하여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대책을 옳게 세울 수 있다.

예견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은 바로 실천이며 실천의 무대는 곧 군중이 일하고 생활하는 생산 현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군들이 군중 속에, 생산 현장에 침투하고 접근하는 것은 그들이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대책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의 과학적 예견의 능력이 높아지면 질수록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날 것이며 7 개년 계획은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당이 펼쳐 준 휘황한 설계도가 놓여 있다.

우리 조국의 면모는 앞으로도 계속 천리마의 속도로 전변될 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날과 더불어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당의 구상을 보다 훌륭히 구현하며 투쟁의 모든 전선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에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964 년도 기본 건설 부문의 중심 과업과 그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리 세 식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나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될 1964 년도의 계획 실행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면서 기본 건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수행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채취 공업과 농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경공업과 재가공 공업에 보충적 투자를 실시하며 주택 및 공공 문화 후생 시설 건설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평양시 건설과 김 일성 종합 대학 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며 민주 수도를 더욱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릴 것이다.》 (결정서에서)라고 기본 건설 부문의 금년도 중심 과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원 회의는 금년도에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을 전년에 비하여 126%로, 건설 조립액을 151%로 급속히 증가시키면서 기본 건설 부문에서 《비날론 속도》와 《평양 속도》를 창조한 건설자들의 영웅적 기개를 또다시 세계에 떨칠 것을 호소하였다.

금년도 기본 건설 부문의 이상과 같은 사업 방향은 우리 당이 금년에 달성하려는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균형과 속도를 보장하며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정확한 방침으로 되며 주객관적 조건과 가능성을 타산한 과학적인 방도로 된다.

우선 금년도 기본 건설 부문의 방침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금년도 경제 발전 방향의 한 중요 측면—이미 축성하여 놓은 자립 경제의 토대에 립각하여 중공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는 데 훌륭히 복무하게 된다.

당은 금년에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80%를 생산적 건설에 돌리게 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채취 공업에 힘을 집중하게 하였다.

또한 금년에 인민 경제의 첫 공정이며 다른 부문에 선행되여야 할 동력 기지 건설이 계속 강력히 추진된다. 즉 평양 화력 발전소, 강계 및 운봉 수력 발전소의 건설이 촉진되고 새로운 발전 능력들이 조업을 개시하게 된다.

또한 금년에는 철도의 전기화가 전 인민적 운동으로 급속히 추진되며 평양—신의주, 평양—신성천 간의 철도 전기화가 완성된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중공업을 일층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된다.

다음으로 기본 건설의 금년도 방침은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금년도

경제 발전 방향의 주요 측면—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담보로 된다.

금년에 농촌 경리에 대한 투자는 전년에 비하여 135%로 증가된다.

우선 금년도에 이미 진행 중에 있는 대규모 관개 건설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대동강, 압록강, 청천강 등을 비롯한 대 소 하천들의 정리와 제방 공사 등 대자연 개조 사업들이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며 협동 농장들에 국가의 투자로 탈곡장, 종자 창고를 비롯한 각종 창고, 화전장 등이 대대적으로 건설되게 된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경공업의 원료 기지 조성을 위한 건설에 중점을 두게 된다. 특히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건설을 전국의 지원 하에 강력히 추진시키며 8.15까지는 스프 한 계통을 조업 개시하게 된다.

또한 중공업 부문에서는 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에 그를 더 잘 복무케 하기 위하여 이 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개선하고 보강하는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금년도에 도시와 농촌에서 주택 건설이 계속 강력히 촉진되며 공공 문화 후생 시설 건설이 광범히 진행된다. 금년에 평양시에서는 1만 3, 200여 세대의 문화 주택과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건설인 김 일성 종합 대학을 비롯하여 극장, 영화관 등 총 건평 16만 평방메터의 공공 문화 후생 시설 건설이 진행되며 중앙 난방과 공원, 유원지 건설이 큰 규모로 추진된다.

이 모든 것은 금년도 건설 방침이 금년에 당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경제 과업—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과업 실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와 같이 금년도 기본 건설 과업은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방향에 철저히 립각하여 세워진 과학적인 계획이다.

기본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고조를 불러 일으키게 될 금년도 기본 건설 과업은 실로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여 있다.

그것은 첫째로, 자립 경제의 토대로 되는 중공업이 더욱 정비 보강되고 기본 건설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층 공고히 된 사실이다.

7개년 계획의 첫 3년간에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에 의하여 금속, 기계, 건재 등 기간적 중공업의 골간에 살이 붙고 잘 정비 보강된 결과 건설에 필요한 각종의 생산 설비, 각종의 재료들과 건설 기계들의 생산이 질량적으로 급속히 증대되였다.

특히 기계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됨으로써 이제는 필요한 건설을 언제든지 마음 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였다. 만일 우리가 정전 직후와 같이 기계 설비를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면 금년에 우리 당이 내세운 것과 같은 대규모의 건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기계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건설 부문의 기술 장비가 급속히 장성 강화되였다. 특히 75톤급 대형 탑식 기중기와 4립방메터짜리 《장백호》 엑쓰까와또르의 생산은 기본 건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에 있어서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금속 및 건재 공업 부문이 정비 보강된 결과 그 품종이 확대되였고 질이 제고되였으며 철재,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 재료를 보장하는 사업에서도 개선이 크게 이루어졌다.

둘째로, 그것은 기본 건설 부문에 새로운 관리 지도 체계가 확립되여 있는

사실이다.

1963년 1월 7일 당과 내각의 공동 결정에 의하여 개편된 새로운 건설 관리 지도 체계는 우리 나라 기본 건설 부문에서 처음으로 전국을 망라하는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관리 지도 체계이다.

수립된 새로운 관리 체계는 건설 부문의 잠재력을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거대한 우월성을 가진다.

우선 그것은 전국의 기본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케 함으로써 건설에서 선후차를 가리며 중심 고리에 기동적으로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새 체계는 종래와는 달리 건설주 기관들과 설계 기관, 시공 기관들을 서로 분리시켜 그들 간에 계약 체결에 의하여 건설 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이것은 지난 시기 건설주가 모든 것을 걸어 안고 건설하면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무규률적인 현상을 근절케 하였고 건설을 점차 정상화할 수 있게 하였다.

새 체계 하에서는 전국의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게 된 결과에 건설 력량을 정규화하고 건설 간부들과 기술 기능자들을 계통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한다.

새 체계 하에서의 1 년간의 생활은 그것이 건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며 건설 생산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우월성을 가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요컨대 기본 건설 부문에서 이미 축성하여 놓은 제반 물질 기술적 토대와 새로운 건설 관리 지도 체계에 튼튼히 립각하여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일으킨다면 당이 요구하는 대로 금년에 기본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틀림 없는 일이다.

금년도 기본 건설 과업의 실현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나 인민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금년도 건설 과업의 실현은 우선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살려는 우리 인민의 오랜 념원을 최근 1~2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준다.

또한 금년도 건설 과업의 실현은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자립적 민족 경제 토대의 공고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로농 동맹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축소시키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을 강력히 촉진하게 될 것이다.

금년도 건설 과업에서 평양시 건설은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선 혁명의 발원지이고 사회주의 조국의 민주 수도이며 미제의 기반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희망의 등대로 되는 평양시를 더욱 웅장하고, 더욱 아름답게 꾸리는 것은 우리 인민의 거대한 정치적 승리로 된다.

* *

그러면 금년도 기본 건설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 과업은 무엇인가.

금년도 기본 건설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수립된 관리 지도 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는 것이다.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한 일일 뿐만 아니라 처음 해 보는 일인 것 만큼 새 체계의 일부 환절들은 아직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일부 지도 일'군들은 새 체계가 가지는 심오한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사업 질서와 방법을 새 체계에 상응하게 전환시키지 못 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 건설을 혁신함에 있어서 약한 고리를 조성하고 사업 전반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새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공동 결정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기본 건설 부문의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급 건설 기관들은 물론 각 도 건설 위원회들과 건설 기업소 간부 대렬을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되고 발전성 있는 우수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며 그들에 대한 정책 교양과 실무 교양을 집중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특히 지난 시기 수차에 걸친 건설 기구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 부문에 오래 고착된 간부 비중이 적은 조건에서 간부 대렬을 꾸리고 그들을 계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새 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기본 건설 부문 내 모든 단위들에서 사업 체계, 사업 방법을 철저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모든 건설 기관, 기업소들과 각 부서 단위들에서 직능과 사무 분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며 사업 체계를 세워야 한다.

특히 새로운 관리 체계 하에서는 건설이 건설주, 설계 기관, 시공 기관들 호상간에 주문 제도에 의하여 진행되게 되였고 시공 기관 내에서도 건설 시공 기관, 기업소와 기계화 및 설비 조립 기관, 기업소들이 계약 체결에 의하여 협동 작업을 수행하게 된 조건에서 련계된 부문들 간의 호상 관계에 대한 명확한 책임 한계와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1 년간의 경험은 이 호상 관계의 합리적이며 정확한 해결이 없이는 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이와 함께 웃 단위가 아래 단위를 계통적으로 도와 주는 체계를 세우고 지도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 건설 위원회는 도 건설 위원회를 도와 주고 도 건설 위원회는 기업소들을 체계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앙급 건설 기관들이 도 건설 위원회를 제쳐 놓고 산만 무질서하게 건설 현장을 지도함으로써 지휘 체계를 혼돈시키고 현장 일'군들에게 혼란을 주는 현상을 철저히 퇴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내려 가 도와 줄 대신에 무질서하게 사람들을 불러 올리거나 잡다한 통계와 보고를 받는 것으로써 지도를 대치하려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금년도 기본 건설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설에서 우리 당의 집중화, 정상화의 원칙을 정확하게 관철시키는 것이다.

건설에서 집중화, 정상화는 건설의 조업 개시 기일을 단축하고 그의 질을 높이게 함으로써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기본으로 된다. 특히 오늘 우리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푼전을 아껴 가면서 건설하고 있는 조건에서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며 생산 능력의 조업 개시를 촉진시키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건설에서 집중화와 정상화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건설에서 력량을 분산시키는 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또 중요 대상에 힘을 집중한다고 하면서 이에 건설의 정상화를 옳게 결합시키지 못하고 무질서한 깜빠니야 공사를 진행하는 경향들이 발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에서 집중화 원칙은 계획으로부터 시공 조직에 이르기까지 건설을 정상화하는 원칙과 반드시 결부되여야만 그 우월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해 일부 건설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건설 조직을 이와 같이 하지 못한 데

으로부터 로력과 설비 리용에서 랑비를 낳게 하였고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건설에서 집중화, 정상화의 원칙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최근 김 일성 동지가 또다시 강조한 바와 같이 기본 건설의 계획화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모든 건설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자기 력량과 객관적 보장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중요 대상에 로력과 자재의 집중을 예견하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시공 계획과 자재 및 설비 보장 계획을 잘 맞물리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 건설 위원회는 전국의 기본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 작성으로부터 그 집행에 이르는 건설의 전 과정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

다음으로 건설에서 집중화, 정상화의 원칙을 잘 관철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모든 건설 기업소들에서 개별 건설 대상의 시공 조직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고 시공 순위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모든 건설 기업소들에서는 도시 및 산업 건설에서의 지하 매설물 공사 또는 수력 발전소나 관개 하천 건설에서의 계절적 제한성을 띠는 공사 등 다른 모든 공정에 선행시켜야 할 공정들을 정확히 타산하고 그에 건설 력량을 집중하도록 할 것이다.

금년도 기본 건설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킴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기본 건설에 대한 설계와 자재, 설비 등의 보장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 결정에는 《설계 기관들에서는 설계 력량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2 배 이상으로 확장하고 설계에 대한 증대된 수요를 질량적으로 원만히 보장할 것이며 각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건설 설비들과 건설 자재 생산을 계획 대로 어김 없이 보장함으로써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지적되여 있다.

전원 회의가 이 문제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한 것은 우리의 건설자 대렬이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급속히 장성한 결과 이제는 건설에서의 성과가 설계와 설비, 자재 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크게 좌우되게 되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기본 건설에 대한 보장 사업을 개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설의 첫 공정으로 되는 설계를 시공에 선행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두 측면에서 사업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건설주 기관들에서는 설계의 기초 문건인 기술 과제를 제때에 정확히 작성 보장하여야 한다. 즉 매개 건설주 기관들에서는 기술 경제적으로 정확히 타산된 기술 과제를 작성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의 작성이 지연되거나 또는 과학성의 결여와 경제적 타산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도중에 기술 과제를 변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설계 기관들에서는 설계의 표준화에 신중한 주의를 돌리여 종류별, 규격별로 다양한 표준 설계를 작성함은 물론 표준 설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대상 설계들까지도 광범히 반복 적용하기 위한 조직 사업과 통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재 설계 력량이 제한되여 있는 조건에서 설계에 대한 질적 및 량적 요구를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와 함께 설계 사업에서 조관식, 부호식 설계 방법 등 새롭고 능률적인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설계원 1 인당 생산성을 적극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에 대한 급격히 장성하는 방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은 설계 일'군 대렬을 2 배로 증가시킬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사무 기관 또는 비전공 부문에 있는 설계 일'군들을 소환하여 설계 기업소들을 튼튼히 꾸려 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대책으로 설계에 대한 증가되는 량적 수요를 보장하는 한편 경제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설계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의 질 제고의 기본 내용은 건축물의 강성과 수명을 보장하며 생산적 요구와 생활 상 편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면서 철재와 목재를 비롯한 자재, 자금, 로력을 극력 절약하여 더 많이 건설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설계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우리는 구조 계산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공명주의에 사로잡혀 구조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현상이라든가 반면에 소극성에 빠져 지나친 예비를 조성하려는 편향들을 다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기본 건설에 대한 보장 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생산 설비들과 자재들을 제때에 생산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기본 건설 총 투자의 80%가 생산적 건설인 조건에서 건설 대상의 생산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 공급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실지 수천 수만 종의 복잡한 설비와 부분품들의 생산을 계획하고 생산에 맞물리며 그를 제때에 인수하여 건설장에 공급하는 사업은 어느 한 기관이나 한 집단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건설주 기관과 생산자, 시공자 간의 긴밀한 협동 작업에 의하여서만 원만히 보장될 수 있다.

우선 금년도 건설에 필요한 모든 대상 설비들을 루락시킴이 없이 종합적으로 생산에 맞물리는 사업을 세밀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설비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설비를 계획된 기일 내에 질적으로 생산 보장하는 동시에 협동 생산품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가공하여 넘겨 주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요 설비들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의 설치 및 시운전까지도 책임지는 립장에서 시공 기관들을 도와 주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현재 설비의 조립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 기관들에는 설비 전문가들이 매우 부족되는 조건에서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방조 없이는 방대한 설비 조립 공사를 질 량적으로 원만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 기관들에서는 설비 담당 부서들을 시급히 꾸리고 설비의 생산 행정을 일상적으로 장악 추진시키며 인수 및 보관 관리와 공급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재, 목재,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 재료와 각종 일반 건재 생산을 강화하고 그의 품종을 확대하며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특히 금년도에 수도 평양 건설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김 일성 종합 대학을 비롯한 기념비적 대건설들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보다 다양하고 질이 높은 건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 공급할 것이 요구된다.

모든 건재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체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건재품의 종류를 배 혹은 수 배로 확대하며 그의 질을 국제적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건재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금년 중에 온갖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새 품종의 시작품 생산을 조직하고 그의 기술 공정을 완성할 것이며 그 토대 우에서 래년부터는 국가적인 큰 투자에 의하여 대규모적인 건재 생산에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단 금년도 기본 건설을 보장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7 개년 계획의 나머지 기간에 예견되는 방대한 건설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만일 우리가 단 시일 내에 건재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지 못 한다면 기본 건설 사업에서 새로운 고조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금년도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

하며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이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고 건설의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건설의 공업화는 건설적 생산에 흐름식 공정과 기계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며 건설을 더 빨리, 더 경제적으로 또 더 좋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 방도이다.

우리 당은 이미 전후 첫 시기에 건설의 공업화 방향을 제시하였고 1957년 10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건설 분야에서는 전면적인 조립식 건설에로 이행하였다.

우리가 창조하였고 세계를 경탄케 한 《평양 속도》는 바로 이 방침에 의하여 이룩된 열매이다.

건설 공업화의 기본 내용은 설계의 표준화, 부재 생산의 공업화, 시공의 기계화이다.

우리는 이미 도시 건설의 공업화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건설의 전 분야에서 공업화를 일층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설계의 표준화와 부재의 규격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업 건설에서 표준 설계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부재를 규격화하고 그 대용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부재 생산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생산 면적 단위당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현존 부재 공장들의 기계 설비들에 대한 보수 정비 사업을 강화하고 그의 생산 능력을 완전히 리용하는 동시에 가장 능률적이고 큰 투자 없이도 쉽게 조직할 수 있는 수직식 부재 생산 방법을 적극 도입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의 공업화에서 시공의 기계화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당은 최근 2～3년 내에 건설 부문에서 운반, 상하차, 굴착을 비롯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작업들을 완전히 기계화하고 손로동과 등'짐 로동을 없앨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의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현존 기계들의 리용률을 제고하는 것이다.

건설 관리 체계의 개편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조성되였으나 아직도 조직 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개선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설 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중요한 것은 모든 기계들에 대한 관리 운영 조직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관개 하천 건설을 비롯하여 토공사들에서 불도젤, 엑쓰까와또르, 자동차 등의 력량을 작업 대상과 지형 조건들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기종별 능력의 과부족으로 인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또 수송 조직에서도 집중화 방법을 광범히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건설 작업의 기계화에서는 대형 건설 기계에 의한 현대적 기계화와 벨트 콘베야, 토운차 등을 비롯한 각종 중 소 기계화를 배합하는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 공업 부문에서 계속 새로운 대형 건설 기계를 생산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나라 기본 건설의 질적 내용의 변화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필수적 요구이다.

이상과 같은 건설의 공업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건설 기관, 기업소들에서 그를 위한 기술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에 필요한 물질적, 기술적 보장 대책을 계획적으로 안받침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건설 계획과 동시에 기술 발전 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금년도 건설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설 기업소들에서 현물 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며 기업 관리 운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지난 기간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자체의 특수성 즉 다른 공업 부문과는 달리 로동의 결과가 하나의 완제품으로 출현하기까지에는 오랜 시일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작업의 반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작업 공정이 복잡하다는 데서 기업소 경영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가치 측면에서만 분석하여 왔다. 이것은 기업 관리 운영에서 이러저러한 부정적 현상들을 가져 오게 하였다. 특히 로동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그에 따르는 정확한 분배를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건설자들의 창발적 열성을 일층 높이지 못 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 결정은 기본 건설 부문에서 《엄격한 로동 규률을 확립하고 수행한 작업의 량과 질에 의하여 식량과 임금을 받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확립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현물 평가제를 도입 일반화할 것》을 특별히 지적하였다.

현물 평가제란 문'자 그대로 매개 기업소들의 기업 활동을 현물 즉 건설물의 조업 개시 기일 보장과 원가 계획 수행 여하에 따라 평가하는 새로운 경제적 범주이다.

그것은 이미 기업 관리 운영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되였다.

건설에서 현물 평가제의 도입은 건설물의 조업 개시 기일 단축과 로동 생산능률 제고에 커다란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액 상 계획에만 매달려 공사를 벌려 놓고 시공의 선후차까지 위반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주는 현상을 기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것은 기업소 전반의 활동을 현물로 정확하게 평가하게 함으로써 개별적 로동에 대해서도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정확한 평가와 정확한 분배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현물 평가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기업 단위들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도입하고 기업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즉 당이 제시한 계획화의 제 원칙에 립각하여 실현성 있는 과학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건설 시공에 설계 도면과 기계 설비들을 선행시키고 기술 준비를 충분히 갖추게 하며 기술적 지도와 자재 보장 사업을 정확히 맞물리게 함으로써 건설 계획을 시공 순위대로 일별, 월별,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로력 관리 사업을 개선하고 로력 기준을 정확히 작성 적용하며 매개 일'군들의 기능과 기질에 따라 로력 배치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기본 건설 부문 내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현물 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기업 관리 운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금년도 건설에서 반드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　　　*

지금 기본 건설 부문 앞에는, 한편으로는 개편된 새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년도 건설 과제를 수행해야 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 건설 부문 앞에 나선 과업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이 부문에서 당적 령도를 강화할 것이 특별히 요구된다.

각급 당 조직들은 기본 건설 부문 내의 대렬을 꾸리며 건설 정책에 대한 키잡이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금년도에 기본 건설 사업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정확한 실행을 기본 건설 측면에서 담보하는 동시에 앞으로 보다 방대한 건설을 수행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진하는 우리의 영화 예술

박 영 희
계 훈 혁

오늘 우리 영화 예술은 다른 모든 문학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당성의 기치 높이 조국의 혁명 위업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고 있다.

우리 영화 예술의 급속한 발전은 무엇보다도 영화 예술 일'군들이 당의 정확한 문예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천리마 시대가 제기하는 일련의 본질적 문제들—현대성의 요구를 철저하게 해결한 데서 이룩된 것이다.

최근 시기 창작된 우리 영화들에는 천리마 시대 생활의 본질과 인간들의 정신 세계가 매우 폭 넓고 깊이 있게 천명되여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발휘하는 근로자들의 영웅적 기백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생동하게 반영되여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영화 예술은 참으로 수백만 근로 대중을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킬 수 있는 강유력한 수단으로 되였으며 인민을 교양하고 적들에게 타격을 주는 계급 투쟁의 예리한 무기로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술 영화 《정방공》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첫 3 부작 영화 《대지의 아들》 1, 2 부, 《붉은 꽃》, 《백일홍》, 《땅을 지키는 사람들》, 《1,211 고지 방위자들》, 《조국으로 돌아 오다》, 《다시 찾은 이름》, 《뜨거운 심정》, 《새 세대》, 《축배》 등 작품들이 잘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천리마 현실이 제기하는 가장 긴절한 문제들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이에 옳은 예술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영화 예술의 전투성을 더욱 제고시켰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은 그 주제의 적극성과 높은 사상성, 형상의 풍만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영화 예술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다.

* *

그러면 최근 우리 영화 예술 분야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천리마 기수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시대의 본질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 성격적 특질-정신적 미를 진실하게 밝혀 냄으로써 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이에 훌륭한 예술적인 해답을 주었다는 데 있다.

천리마 기수의 영웅-투사적인 성격 창조, 여기에 우리 영화 예술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가 있다. 이것은 우리 영화 예술을 높은 전투성과 생생한 현대성으로 빛나게 하였다.

우리 영화에 형상화된 주인공들—천리마 기수들은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평범하고 소박한 그들의 일상 생활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영웅적인 특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대의 높이에서 전형화한 것은 영화 예술이 달성한 새로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정방공》의 옥림이나 《축배》의 응두, 《백일홍》의 우혁이나 《뜨거운 심정》의 홍기, 《새 세대》의 명숙 등 우리 영화의 주인공들은 결코 남다른 재능을 가진 걸출한 인간들이거나 선발된 사람들

은 아니다. 그들은 다 같이 어제'날 착취 받고 학대 받던 평범한 근로자들이며 그들의 자제들이다. 평범하고 소박한 그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되게 한 것은 시종일관한 당의 령도이며, 다시는 옛 처지로 돌아 가지 않으려는 높은 계급적 각성이며 시대에 대한 높은 책임성이다. 이러한 것을 떠나서 우리는 그들의 영웅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리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웅-투사적인 성격은 그 어떤 추상적인 용감성이라든가 기상 천외한 전설적인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 세계의 바탕에 깊이 깔려 있는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로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과 높은 공산주의적 풍모 등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심성 그대로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영화 예술인들은 보람찬 우리 제도 하에서 평범하고 소박한 근로자들이 매일 매 시각 시대의 영웅으로 장성하는 천리마적 현실의 본질적 특성을 옳게 인식함으로써 새형의 인간, 천리마 기수들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은 예술적 경지에서 보여 주는 작품들을 수다히 창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창작된 《정방공》과 《축배》는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이 작품들은 령도 계급으로서의 로동계급의 전형을 창조하는 문제가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는 때 로동 계급의 영웅-투사적인 성격적 특질을 각이한 주제와 각이한 예술적 형식을 통하여, 그들의 암담했던 과거를 랑만에 넘치는 오늘의 현실 생활과의 대조를 통하여 심오하게 천명함으로써 로동 계급의 형상 창조에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꼰전 15 원에 타면 공장의 고용 로동자로 팔리여 간 옥림이가 해방 후 당의 품'속에서 고속도 다추 운동의 선구자로, 지배인으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장성하는 과정이나 반생을 왜놈 감독의 채찍 밑에서 고역에 시달리던 응두가 해방 후 나라의 주인으로서 조선 인민의 기개와 본때를 보여 주는 투쟁 과정은 그대로 영웅 서사시적 이다.

이 영화들은 그 어떤 기발한 사건이나 복잡한 생산 공정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로동 생활의 흐름 속에서 로동 계급의 참다운 인간 성격을 해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영화 창조자들은 옥림이나 응두의 성격 형상에서 그들의 생애를 단순히 자서전적으로 라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의의 있고 본질적인 측면들을 추출하여 일반화함으로써 독자-관중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시대의 전형으로 부각하였다.

우리 영화에 형상화된 주인공들은 그 직업과 년령, 개성에 있어서 서로 다르나 남이 한 걸음 걸을 때 열 걸음, 백 걸음으로 달려 나가려는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진취적 정신과 혁명적 락관주의,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에서 서로 공통한 성격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사상 성격적 특질을 풍만하게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영화의 주인공들은 현 시기 공산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다정한 《길'동무》로 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고무자로 되고 있는 것이다.

천리마 기수의 성격 창조에서 거둔 성과의 다른 하나는 성격 형상에서 단조성을 극복하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폭 넓고 심도 있게 보여 준 점이다.

지난 시기 우리는 일부 작품들이 잡다한 생산 공정 속에 인간을 파묻어 둠으로써 그의 내면 세계의 움직임-성격의 운동을 보여 주지 못하는 데 대하여 많이 론의해 왔다.

최근 창작된 영화들은 이러한 편향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심도 있게 보여 주

었다.

이것은 례컨대 《백일홍》의 우혁이나 금녀의 성격 형상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런 영화들은 주인공들의 내면 세계를 심도 있게 추구하며 그것을 조형적인 화폭으로 개방함으로써 영화의 서정성, 혁명적 랑만성을 풍부하게 구현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영화 예술 작품에서 혁명적 랑만성을 옳게 구현하는 문제는 현대성 구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우리 현실 자체의 랑만적 성격으로 하여 더욱 그러하다.

오늘도 좋지만 그 보다 더 좋은 공산주의 래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로 달려 나아가는 우리 현실이야말로 그대로 랑만적이다.

《새 세대》의 주인공 명숙은 기술 학교를 갓 나온 나어린 처녀이다. 그러나 이 나어린 처녀는 하늘 아래 첫 동리로 불리우는 산간 마을인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도 남과 같이 고기'국을 먹게 하려는 푸른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담수 양어에 착수한다. 그의 꿈은 우리의 현실에서 드디여 실현된다.

우리의 영화 창조자들은 이러한 현실 자체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정신 세계의 밑바탕에 흐르는 혁명적 랑만을 진실하게 구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대 주인공들을 혁명적 락관주의로 형상화하는 문제는 근로자들과 특히 새 세대들을 혁명 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미래를 락관하는 혁명가의 품성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천리마 기수의 전형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현실 주제 작품 창작에서 거둔 성과의 또 하나는 극적 갈등 문제를 옳바르게 해결함으로써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정당하게 천명했다는 그것이다.

낡은 것과 새것과의 모순에 기초하고 있는 갈등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그 특성도 부단히 변화 발전한다. 따라서 갈등에 대한 옳바른 리해가 없이는 천리마 현실의 본질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없으며 천리마 기수의 성격도 옳게 전형화할 수 없다.

사회 생활에서 본질적인 갈등을 포착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천명하는 능력—이것은 창작가의 미학적 리상의 높이와 관련되며 정치적 식견, 현실 체험의 깊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백일홍》의 창조자들은 락석 감시원인 우혁과 금녀 부부 간의 갈등을 통하여 심산 유곡에서 일편 단심 《혁명와 피입'돌》이 되고저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해 투쟁하는 우혁의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성실성, 시대에 대한 높은 자각을 유감 없이 보여 주었다.

우혁은, 번화한 도시의 건설장 같은 데서만 자기의 리상을 꽃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녀와 단 한 번도 직접 충돌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금녀를 어루만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자기의 행동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진 금녀의 《리상》을 극복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 몇 초나마 렬차를 정지시킨 사건을 두고 심각하게 자책하는 우혁과 자기를 깊이 뉘우치는 금녀와의 극적 관계 속에서 잘 밝혀지고 있다.

《뜨거운 심정》에서는 긍정이 지배적이고 부정이 말차적이며 긍정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부정이 교양 개조되는 사업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되고 있는 시대의 진리가 명백하게 천명되고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시기 창작된 일련의 현실 주제 작품의 갈등 해결에서 보여 주는 특징적인 것은 례외 없이 갈등 선상에 긍정이 주도적 위치에 서 있으며 극성이 긍정의 적극적 역할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 해결에서 새로운 시사를 주는 다른 하나는 긍정이 지배적이고 긍정의 적극적 역할에 의하여 극성이 발전되고 해결된다 하여, 특히는 외'적 부딪침이 《첨예》하지 않다 하여 갈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부정을 교양 개조하려는 긍정의 내부적인 극적

체험의 심오성에 의해서 극성은 예리하고 심각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의 심각성은 결코 그 어떤 충돌의 도수와 량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외'적인 것이건 내'적인 것이건 간에 긍정적 주인공의 리상의 높이와 그와 맞서고 충돌하는 부정의 사상적 락후는 심국 새것과 낡은 것 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항상 예리하고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 지배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말차적이라는 현실적 특성을 직선적으로 리해하여 부정을 하잘나위 없는 것으로 차요시하거나 반대로 부정을 확대 과장하는 경향은 다 맑스-레닌주의 미학 리론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이와 같이 영화 예술의 현대성 구현에서 달성한 성과는 우선 천리마 시대 생활의 본질과 천리마 기수들의 영웅-투사적인 성격적 특질을 심오하게 천명하고 있는 데서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영화 예술의 현대성 구현에서 이룩한 성과는 현실적 주제를 많이 취급했다는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현대성은 현실적 소재 그 자체이기보다 작가, 예술인들이 시대 정신의 높이에서 그것을 심오하게 감득하며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묘사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현실 생활을 소재로 했거나 력사적 과거를 소재로 했거나 간에 작가가 시대 앞에 제기하려는 사상을 력사주의적 원칙과 밀접히 통일시키는 데 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 우리 인민들의 혁명 위업 수행을 고무 추동하며 그들의 계급 교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현대성의 구현은 당해 시기 혁명이 제기하는 초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으며 당 정책의 본질을 천명할 수 있는 참신한 문제성의 제기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이미 우에서 언급한 일련의 영화 작품들은 현대성 구현에서 한 걸음 크게 앞으로 나간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범한 로동 생활 속에서 시대의 본질을 천명할 수 있는 문제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반화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창작가의 재능이다.

《뜨거운 심정》의 창조자들은 미제에 의한 전쟁의 참화로 하여 부모를 잃고 단 하나 밖에 없는 누이의 생사마저 알 길 없어 애타하는 명칠이의 그늘진 생활에서 문제성을 포착하고 누이를 찾아 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시대를 구가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붉은 꽃》도 이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여 주었다.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 사업이라는 높은 당적 자각으로 후대들을 교양하는 한 평범한 녀교원의 사업과 생활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높은 시대 정신의 조명으로 비처 주었다. 그리하여 관중들을 우리 시대, 우리 제도에 대한 열렬한 긍정과 옹호, 낡은 제도에 대한 불타는 저주와 증오의 정신으로 교양함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현대성 구현에서의 영화 예술의 성과는 문제성의 참신성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다양성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조국으로 돌아 오다》의 창조자들은 계급적으로 자각하지는 못 했으나 민족적 량심만은 저버리지 않은 한 건축 기사—방 원일의 극적 운명 속에서 심오한 문제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현실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에서 훌륭하게 해결하였다.

방 원일이 남조선에서 일본으로 전전하면서 쓰라린 체험과 모색 끝에 진정한 조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며 진정한 삶의 길은 조국의 품에 안기는 데 있다는 진리를 자각하고 조국으로 돌아 오는 것은 그의 운명과 성격 발전의 론리로 보아 응당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 작품의 밑바탕에는 조국 통일에 대한 지향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계급 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품
은 창작하는 것—이것은 영화 예술을
포함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
의 기본 사명이다.

광범한 시대상을 포괄하고 있는 영화
《대지의 아들》은 땅을 위한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은 오직 당의 령도 하에 계
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
만 실현될 수 있다는 력사적 진리를 옳
게 천명하였다.

동시에 땅을 위한 심각한 계급 투쟁
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농민 대
중이 조직된 력량으로 단결되여야 한다
는 우리 당의 계급 정책과 군중 로선의
정당성을 선명한 화폭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우리 나라에서 첫 3
부작 영화로서 대형식의 작품 창조 문
제가 의정에 오르고 있는 현 시기 사회
력사적 인민화의 폭 넓은 묘사 속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 장성의 력사
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크다.

계급 교양에 바쳐진 일련의 작품들에
흐르는 공통적인 사상은 사람들에게 생
활이 유족하고 행복할수록 처참했던 과
거를 잊지 말 것을 절절히 호소하고 있
는 것이다.

몇 푼의 빚 때문에 이름마저 빼앗기고
물건처럼 끌리여 다니던 《다시 찾은 이
름》의 순비의 기구한 운명이나 《붉은
꽃》의 쌍가마의 고뇌에 찬 반생이 얼
마나 사람들의 심장을 낡은 제도와 계
급적 원쑤에 대한 증오의 격정으로
부르게 하고 있는가.

때문에 이 영화들은 아직도 순비와
쌍가마와 같은 처지에서 헤매는 남조선
동포들을 하루 속히 구원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쳐야 한다는
사상을 힘 있게 강조하고 있다.

영화 예술은 특히 과거와 현재, 미래
를 회상과 련상, 환상의 자유 분방한
형상 수법으로 직접 시각화하여 보여
줄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대비 교양에서
가장 위력 있는 수단으로 된다. 그러나
이 예술적 특성 자체가 대비 교양에서
의 성과를 담보할 수는 없다. 문제는
대비의 수법을 어떻게 구사하는가에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예술의 계급
교양에 복무하는 기능을 높임에 있어서
기본으로 되는 대비의 중심을 옳게 잡
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비는 력사적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
는 경우에나 공화국 북반부와 남반부를
대조하는 경우나를 막론하고 단순한 평
면적인 대조가 되여서는 안 되며 그것이
어디까지나 작품의 주제와 주인공의 성
격을 천명하는 데 유기적으로 련관되면
서 우리 현실과 우리 제도를 열렬히 옹
호 긍정하는 데 복종되지 않으면 안 된
다. 《붉은 꽃》을 비롯한 성공한 일련의
작품들은 바로 이것을 확증하고 있다.

현대성 구현에서 이룩한 우리 영화
예술의 성과는 그의 높은 형상성에 의
해 담보되고 있다.

제아무리 건전한 사상과 긴요한 문제
성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라도 그것이
형상의 옷을 입지 못했을 때에는 딱딱
하고 메마른 론리나 설교 밖에 나올 것
이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예술성으로 더욱 강
하여진 고상한 사상성—이것은 어떠한
예술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든지 유일
하고 정당한 범주이다.》(선집 제 4 권, 39
페지 1954년도 판)라고 교시하였다.

우리 영화 예술이 인민들의 열렬한
정서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은 그의 고상한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
일에 있다.

지난 기간 영화 예술 인'군들은 당
정책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현실 깊이
침투하여 근로자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새 현실—새 내용의 요구에
따르는 새 형식을 부단히 탐구할 수 있
었다. 우리 영화 예술의 형상성이 높
아졌다는 것은 다만 극작술 상 혁신에
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과 함
께 그 표현의 기교가 결정적으로 높아
진 데도 있다. 그것은 일련의 성과작들

에서. 현대인들의 미감에 맞는 독창적인 영화 언어를 능란하게 구사하고 있는 데서, 인간들의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천명하고 있는 데서 잘 표현되고 있다.

무한히 아름다운 우리 시대 인간들의 내면 세계에로의 깊은 육박—이는 우리 영화의 전투적인 서정성을 더한층 높이게 하였으며 대중의 감정에 깊이 스며드는 시'적인 화면들을 창조케 하였다.

그 밖에도 우리 영화 예술의 형상성이 높아진 측면은 편집 기법과 다양한 회상 수법의 능란한 구사, 현대인들의 미감에 맞는 템포-리듬의 조성, 촬영과 연기 형상의 눈부신 발전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의 영화 예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성, 계급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이 제기하는 혁명 위업 수행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영화 예술은 혁명하는 시대의 건전하고 전투적인 영화 예술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영화 예술이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문학 예술의 무사상, 무계급성을 추구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된다.

물론 우리는 이상과 같은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를 이룩하고 있는 현실과 인민들의 미학적 수요의 장성은 영화 예술의 사상 예술성을 가일층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그 주제적 면에서 과거 조국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한 공산주의자들과 그의 영웅적 위업을 계승한 로동 계급의 전형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조해야 하며 특히 조국 통일에 대한 주제의 작품들을 더욱 왕성하게 창작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영화 예술은 인민 대중의 계급 의식을 더욱 제고하며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힘차게 고무 추동하여야 한다.

주제를 다양하게 개척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 주제를 어떤 형식과 수법으로 구현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긴절한 주제가 진실로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높은 형상 속에서 천명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화 예술의 형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사실 상 일부 영화 작품들은 무한히 풍부한 영화 언어들이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며 극작술에서의 《무난한 처리》와 류형성, 도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딱딱하고 메마른 표현들을 더는 용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영화 예술 일'군들은 매작품마다에서 새것의 탄생을 추구하는 립장에서 대담하게 독창적인 영화적 구성과 표현 기법을 탐구해 나갈 때만이 인민들의 사상 미학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창작 실천 상 더욱 원숙한 해결을 요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작가 자신들의 정치적 식견과 예술적 기량을 높이여야 한다.

우리는 계속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의 당성, 계급성의 기치를 고수하면서 천리마의 새로운 대고조로 들끓는 현실의 요구에 부합되게 영화 예술의 창작에서도 대고조를 이룩하여야 한다.

남조선 민족 자본의 특성

현 호 범

오늘 경제적 지위의 개선과 민족적 권리의 회복을 지향하는 민족 자본가들을 한편으로 하고 식민지 억압과 략탈을 로골화하고 있는 미제와 그의 괴뢰 반동 세력을 다른 편으로 하는 량자간의 모순의 심각화는 남조선 사회 경제 발전의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의 리익을 대표하는 미제와 그와 결탁한 예속 자본 및 봉건 세력에 의한 정치 경제적 지배는 남조선 민족 경제와 민족 시장의 파괴, 민족 자본의 쇠퇴 몰락 과정을 급속히 촉진시켰다.

남조선의 식민지 경제의 반영인 자금난, 원료-동력난, 세금 과중 및 판로난 등 모든 악결과는 민족 자본의 경제적 지위를 심히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적 자각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 사회 경제 발전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는, 계급적 처지와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 엄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민족 자본가들도 공동적인 주되는 적인 미제와 그의 지주로 되고 있는 괴뢰 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로동 계급과 공통된 리해 관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제 4 차 당 대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도시 소부르죠아지, 청년, 학생, 지식인 그리고 민족 부르죠아지까지도 조국의 분렬과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에 의하여 다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공통한 민족적 리해 관계에 의하여 련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 시기 남조선 민족 자본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 문제는 남조선의 혁명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남조선 민족 자본가들의 날로 악화되는 경제적 지위와 처지는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사회 경제 관계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 자본은 주로 중 소 규모의 자본으로서 민족적 독립과 민족 경제의 발전 및 자주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지향하는 토착 자본을 의미하는바 과거 일제 통치 시기 그의 발전이 억제되여 극히 미약하였던 남조선 민족 자본은 해방 후 미제의 민족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파괴 정책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산되였다.

남조선 민족 자본의 부단한 파산은 《원조》를 기본 공간으로 하는 미제의 식민지 략탈과 군사화 정책 그리고 남조선 현대 괴뢰 《정권》의 매국 배족 행위의 후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외 원조》는 《피원조국》에 대한 미제의 정치, 군사적 지배와 함께 경제적 략탈을 실현하는 중요 도구로 되고 있는바 그것은 남조선에서 가장 로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제에 의하여 설치된 《주한 미국 경제 협조처》는 《경제 원조 계획》을 실현한다는 간판 밑에 사실 상 남조선 경제 명맥을 완전히 장악하고 일체 경제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경제 원조》에 의한 미제의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는 《원조》 물자의 도입과 분배, 《대충 자금》의 사용 및 기술적

예속 등 각종 방법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한편 남조선 괴뢰 지배층은 미국의 《원조》를 구걸하는 대'가로 일련의 매국적 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미국 독점 자본의 무제한한 전횡을 허용하고 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미국 정부에 넘겨 주었다.

미제와 괴뢰 지배층에 의한 남조선 《기간 산업》의 지배의 강화, 예속 자본의 육성은 민족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 민족 자본을 위협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되였다.

오늘 남조선 민족 자본의 령세성, 취약성은 그의 반영으로 된다.

남조선 민족 자본은 경제적 규모로 볼 때 기본적으로 종업원 5 명 이상 150~200 명을 망라한 기업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규모의 기업들은 남조선의 가공 공업 부문 기업소 총수의 99%, 종업원 수의 약 65%, 생산액의 근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업 부문에서는 기업체 수의 약 85%, 종업원 수의 30%, 생산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족 자본은 이 외에 건설, 토건 및 운수 부문에서도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며 상업 류통 특히 소매 상업에서는 그의 지위와 수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 계급으로서의 남조선 민족 자본은 그의 경제적 및 정치적 처지로 보아 다음과 같은 계층들로 구분할 수 있다.

1. 령세 기업가; 민족 자본의 하층을 의미하는 이들은 소부르죠아지에 가까운 처지로서 불과 몇 명 안 되는 럼가한 로동력을 채용하여 령세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령세 기업가들은 수'적으로는 민족 자본가들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의 경제력의 취약성으로 하여 부단히 령락되며 수공업자 및 반실업자로 전락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반제적 측면은 다른 계층보다 강하다.

2. 민족 자본의 중간층; 이들은 민족 자본의 기본 부분을 이룬다. 산업에서 10 명 이상 100 명 미만의 종업원을 망라한 기업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 부류의 기업가들은 기업 경영의 경험과 능력이 있으나 미제와 예속 자본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부단히 몰락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류 자본가들의 반제적 측면도 또한 강하다.

3. 민족 자본의 상층; 이들은 종업원 100 명 이상 150~200 명을 망라한 기업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바 일방으로는 미제와 예속 자본의 압박을 받으며 타방으로는 미제의 회유 기만 정책으로 되는 《중 소 기업 육성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정책》에 기초하여 군사 《정권》이 방출하는 약간의 《중 소 기업 육성》 자금은 50 개의 《시범 공장》을 비롯한 일부 중 소 기업 상층에 집중됨으로써 사실 상 그것은 《선전적 효과》를 얻으며 새로운 지지자의 육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은 이 부류의 민족 자본가들의 심한 동요성을 조건 짓는다.

최근 시기 민족 자본의 더욱 급속한 파산은 경제적 위기,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통치 지반을 유지하려는 괴뢰 《정권》의 가혹한 수탈 정책과 관련된다.

박 정희 도당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적 파국과 생활고로 인한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하고 자기의 통치 체계를 영구화하기 위하여 《5 개년 계획》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밑천도 없이 간판만 내걸은 이 《계획》은 자금난으로 하여 파탄되였으며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실시한 《통화 개혁》이 실패됨으로써 통화 팽창, 물가 등귀 등 류통과 소비면에서 일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박 정희 도당은 진동하는 자기의 통치 지반을 재수습할 목적 밑에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긴축》을 강화하였다.

《긴축 정책》의 중심은 재정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한편 세금 수탈을 강화하여 재정 적자를 메우며 금융 자금의 방출을 제한하며 민간인들의

수중에 있는 화폐를 최대한으로 걷어 들이는 데 있으며 생산 자금의 축감, 물가 등귀의 인위적 억제 등으로 인플레 추세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박 정희 도당에 의한 민족 자본의 파산의 촉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첫째로, 괴뢰군 유지비 충당을 위한 막대한 조세의 부담과 관련된다.

괴뢰 정권은 침략적인 군사력 강화를 위하여 괴뢰군을 증강하고 그를 유지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세금 증가로써 해결하고 있는바 1963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25%나 더 많은 조세를 징수하게 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민족 자본가들의 조세 부담을 격증시켰으며 다른 편으로는 인민 대중의 구매력을 더욱 감퇴시킴으로써 민족 자본의 파산을 촉진시켰다.

둘째로, 괴뢰 《정권》의 이른바 《5 개년 계획》의 파산과 관련된다.

《5 개년 계획》은 자재와 자금의 압도적 부분을 기간 산업과 대기업에 집중할 것을 예견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첫해인 1962년에 재정 자금의 40%와 수입 물자의 33%를 새 공장 《건설》에 돌리기로 하였으며 반면에 중소 기업소에는 소요 자금의 16 분의 1에 불과한 10억 원을 방출하고 원료 공급에서도 대기업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기업소 수의 10~15%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공급하게 하였다.

괴뢰 《정권》은 《5 개년 계획》이 파탄되고 경제적 혼란이 심화되자 《경제 성장 제 1 주의》를 《경제 안정 제 1 주의》로 전환시켜 외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수입을 축감하였는바 이는 주요 원료의 부족과 그의 가격 등귀를 초래하게 함으로써 민족 자본가들의 몰락을 촉진시켰다.

끝으로 괴뢰 《정권》의 가혹한 경제 정책과 함께 특히 지난해의 극심한 식량 위기와 관련된다. 식량 위기는 쌀값의 폭등을 통한 기타 일련의 물가 등귀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공업 상품에 대한 주민들의 구매력을 격감시키게 함으로써 민족 자본의 파산을 촉진시켰다.

이와 같은 사정들로 하여 급속히 파산 몰락되고 있는 남조선 민족 자본은 일련의 경제적 특징들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남조선 민족 자본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경제적 자립성의 상실이다.

민족 자본이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생산 수단을 자국 내에서 공급받아야 하며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남조선의 민족 자본은 자본주의 경제의 테두리 내에서 발전하는 것 만큼 경공업의 발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바 민족 자본이 경공업에 기초하여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한편으로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 즉 중공업 발전이 보장되여야 하며 다른 편으로 농업이 원료와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제 통치의 악결과인 중공업의 락후성, 해방 후 북반부 중공업에 의한 지원의 가능성의 상실, 미제의 가혹한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경제 토대는 전면적으로 약화되였다. 1961년 말 현재 가공 공업 생산에서 금속 기계 및 화학 등 《중공업》 부문의 비중은 19.3%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기계 제작 공업은 4%였다. 이것은 1960년도 북반부의 공업 총 생산액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의 비중이 21.3%에 달한 것과 대조적인 사실이다. 과거 소요 조면의 94%와 대마, 아마, 잠견의 거의 전량을 경공업에 공급하던 남조선 농촌은 오늘 공업 원료는 고사하고 기본 식량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여 해마다 500만~800만 석의 량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또한 남조선 민족 자본은 극히 락후한 기술적 토대에 의거하고 있다. 기업들의 기술 설비의 령세성은 그것이 극히 유치한 수준에 처해 있으며 류동 자본이 고정 자본을 수 배나 능가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1959년 현재

남조선 가공 공업에서의 공장 당 전동기 마력수를 보더라도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들은 평균 431.2 마력, 종업원 5~99 명의 기업체들은 11.5 마력에 불과하다. 종업원 1 인당 전동기 마력수는 전자의 경우에 1.86, 후자의 경우에 0.86이다. 광업에서의 기술 장비도의 질적 지표로 되는 종업원 1 인당 전력 구입비를 본다면 종업원 200 명 이상의 대기업이 393 원, 종업원 5~49 명의 기업들은 66 원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전력 단가의 차이를 본다면 이 관계는 더욱 심한 것으로 된다.

남조선 민족 자본은 또한 원료, 자재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거하고 있다.

남조선 공업의 주요 원료들인 인견사, 원모, 원당, 유류, 원면, 가성 소다, 세멘트, 강재 등은 거의 미국에서 공급 받고 있는 형편이다.

민족 자본의 의존성은 원료, 자재만이 아니라 재정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광범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남조선 금융 활동의 거의 전반을 통제하는 《대충 자금》의 조정 하에 움직이는 관제 《중소 기업 은행》이 민족 자본가들의 금융 활동을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일례로 된다.

미제와 괴뢰 도당들의 융자 제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부 중소 기업만이 관제 《은행》 자금 리용에 참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중세기적 고리대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중소 기업가들의 관제 《은행》에 의존하려는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경영 상태의 락후성과 그의 부단한 악화는 남조선 민족 자본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민족 자본의 중소 기업들은 대체로 초기 자본주의를 방불케 하는 개인 기업체들이다. 종업원 5 명 이상, 100 명 미만의 중소 기업체들 중에서 단체 및 법인 기업들은 12.1%에 불과하고 87.9%라는 압도적 부분이 락후한 고립적인 개인 기업 경영 형태들이였다. 그리고 12.1%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 기업체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부분이 비공개 주식 또는 합자 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 상 이것은 괴뢰 정부의 조세 및 기타 압박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며 전형적인 법인 기업체로서의 면모를 유지하지 못 하는 기업체들이 많다. 례컨대 1960년 말 현재 종업원 5~9 명을 가진 령세 기업체 중 단체 및 법인 기업체 수는 529 개에 달하였는바 이것들은 본질 상 령세 자본가—소생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련합에 불과하다.

수입 원료, 자재는 대기업 《우선주의》에 의하여 예속 자본가와 《관영》 기업들에 집중 공급됨으로써 민족 자본의 원료난을 격화시키고 있다. 현재 이들의 월 평균 자재 보유량은 지난날의 3 분의 1로 격감되고 있다. 작년에 물품세는 50~100% 인상되였는바 이는 원료, 자재의 부족과 결부되고 있다.

민족 자본가 상층에 대한 자금의 집중 방출은 대부분의 기업체들을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였으며 고리대에 얽매여 놓았다. 오늘 남조선 중소 자본의 83%가 고리대의 압박을 받고 있는바 이들은 높은 고리대 리자와 조세 지불에 의하여서도 기업 리윤의 거의 전액 지어는 투하 자본의 일부까지 상실하고 있다.

남조선 민족 자본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또한 부단한 분화와 령세화이다.

식민지 산업의 일반적 특징으로서의 령세성은 남조선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그것은 미제의 식민지적 수탈의 가혹성에 있는바 수출을 20 배로 릉가하는 수입 상품의 범람, 군사적 수탈의 강화 및 농촌에서의 봉건 잔재의 유지 등 사정과 밀접히 결부된다.

1960년에 남조선 가공 공업 부문에서 종업원 5~29 명을 가진 소규모 및 령세 규모의 기업들은 기업체 총수의 88.9%나 되며 기업체 수의 과반수인 55.4%가 종업원 5~9 명의 령세 기업들이다. 령세 기업들의 기업체당 고용 로동자 수는 4.2 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민족 자본가들은 한편으로는 미제와 괴뢰 도당 및 그와 결탁한 예속 자본가들의 압박에 의하여, 다른 편으로는 그들 호상간의 경쟁에 의하여 부단한 분화 과정을 겪으면서 파산 몰락되여 가고 있다.

그 외에 괴뢰 《정부》의 강권에 의한 제압은 민족 자본의 급속한 파산을 조건짓는다.

괴뢰 《정부》는 《생산 신고제》에 불응하는 약 60%에 해당하는 중소 기업들에 대하여 융자를 중지하며 《중소 기업 협동 조합》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65%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원료 배정을 중지하며 《위생 시설 불비》, 《기준 미달》 등의 구실로 강제 폐쇄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중소 기업들의 이와 같은 파산 몰락은 기업들의 부단한 령세화라는 독특한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가공 공업 기업소 규모별 동태(%)

년도	종업원 수			계
	5~49 명	50~99 명	100 명 이상	
1948	87.5	7.1	5.4	100
1955	92.1	5.1	2.8	100
1959	93.5	4.0	2.5	100
1960	94.5	3.1	2.4	100

남조선 민족 자본은 경제의 심한 침체와 미제가 반입하는 잉여 물자의 품종 구성의 변동과 관련하여 특히 부문간의 심한 류동을 나타내고 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낮은 조건에서 얼마 안 되는 고정 자본을 내던지고 보다 유리한 부문으로 이동하며 이 업종으로부터 저 업종으로, 산업으로부터 상업, 써비스업 등으로 부단히 류동하면서 만성적인 침체와 몰락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남조선 민족 자본의 이와 같은 경제적 특징은 일련의 정치적 특징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치적 면에서 민족 자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미제와 괴뢰 도당들에 대한 증대되는 불만이다.

해방 후 18년간에 예속 자본과 민족 자본 간의 경제력의 간격은 실로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였는바 이는 그들 간의 자유로운 경제적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제에 의한 예속 자본의 육성과 민족 자본의 직접적 억압의 결과이다. 민족 자본가들은 미제에 의한 민족 경제의 전면적 파탄과 잉여 상품 시장화 정책, 증대되는 군사비 부담, 생산 자금의 심한 차별적 공급, 기만적인 《중소 기업 육성 정책》, 《생산 신고제》 등 각종 경제적 통제에 대하여 큰 불만을 품고 있는바 이는 그들의 반제적 진출의 기본적 요인이다.

민족 자본가들은 최근 시기 미제의 조종 하에 재생된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진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기술이 발달한 일본 자본이 들어 오는 날에는 한국의 중소 기업은 다 망한다》고 하면서 미제와 괴뢰 도당들의 책동을 비난하고 있다.

민족 자본의 정치적 특징의 다른 하나는 반제 투쟁에서의 그의 제한성이다.

민족 자본의 2중성은 남조선의 경우에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부르죠아지인 만큼 반제 투쟁에서 불철저성과 동요성을 극복할 수 없으며 자기의 취약한 경제적 및 정치적 바탕으로서 자주적인 자본주의 발전 즉 민족 부르죠아지 한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제기조차 할 수 없다. 이들의 반제 투쟁은 오직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한 강력한 반제 반봉건 력량에 의거해야 한다.

반제 투쟁에서의 민족 부르죠아지의 제한성은 중 하층에 비하여 상층에서 더욱 심하다. 민족 자본의 상층은 미제와 괴뢰 도당 및 예속 자본의 압박에 대해서는 중 하층과 함께 불만을 품는 동시에 괴뢰 도당들의 중소 기업 각 계층에 대한 차별 대우와 관련하여 지배

중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발로시킨다.

그러나 미제와 괴뢰 도당들의 략탈 정책과 대기업 《우선주의》의 강화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민족 자본가들은 반제적 측면이 강하며 중 하층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끝으로 민족 자본의 정치적 동향에서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는 것은 북반부에 확고히 수립된 자립 경제에 대한 열렬한 동경이며 남북 합작에 대한 지향이다.

종래의 모든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서 로동 계급은 자체의 물질적 지반이 거의 없는 형편에서 민족 자본가들과 함께 싸워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사회 경제적 조건은 로동 계급으로 하여금 북반부에 축성된 강력한 사회주의 진지에 의거하여 민족 자본가들과 함께 반제 투쟁을 진행하며 그들에게 일련의 물질-기술적 지지를 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다.

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남북 합작에 대한 방안이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광범한 민족 자본가들에게까지도 커다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경제적 지위의 근본적 개선을 담보하는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 기인된다.

*　　　*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 경제의 파탄과 민족 시장의 폐쇄는 민족 자본이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서 로동 계급의 동맹자로 될 수 있는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남조선 민족 자본이 오늘의 파국에서 구출되는 유일한 출로는 외세의 배격, 자립 경제의 확립인바 이것은 남북 합작으로써만 가능하다.

남조선의 농업과 북조선의 강력한 공업을 련결시키며 북조선의 중공업의 방조 하에 민족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며 과중한 군사비 부담을 격감시켜 심각한 자금난과 판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주 경제의 물질적 지반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조선 민족 자본가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애국 력량과 단합하여 미제를 구축하고 괴뢰 도당 및 예속 자본가들의 증대되는 압박을 반대하며 남북 합작을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남조선 민족 자본가들이 경제적 파산에서 벗어 나며 민족적 권리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문답학습

중근동의 석유와 제국주의

중근동은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를 련결하는 접촉점에 놓여 있으며 동서로는 이란으로부터 지중해, 남북으로는 토이기로부터 홍해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중근동은 오래 전부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대상으로 되여 왔으며 그들 간의 모순과 충돌의 초점으로 되여 왔다.

그것은 자본주의 세계의 총 매장량의 70%를 넘는 풍부한 석유가 바로 이 지역에 매장되여 있으며 그 채굴 조건이 좋고 국제 해상 및 륙상 교통도 좋으며 또한 이 지역이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반대하기 위한 군사-전략 상 중요한 요충 지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중근동의 석유 지대는 애급,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카다르, 바레인, 이란, 레바논 등 광활한 지역을 포괄하며 그 길이는 2,000 키로 메터를 훨씬 넘는다. 1960년 초 현재 이 지역에서 관정된 석유 매장량은 244억 2,500만 톤에 달하는바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탐사된 석유 총 매장량의 4 분의 3에 해당한다.

매장량에서 뿐만 아니라 채굴량에 있어서도 중근동은 자본주의 세계의 석유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57년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생산된 석유 (7억 7천만 톤) 중에서 중근동이 차지한 비중이 4 분의 1(1억 7천 800만 톤)이였다면 1962년에는 그것이 3 분의 1에 달하였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중근동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망을 능히 간파할 수 있다.

특히 중근동의 석유는 값 눅게 강제 채용된 이 지역 로동력에 의하여 채굴되므로 막대한 추가 리윤을 제국주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1958년 미국 잡지에 의하면 당시 미국에서 석유 1 바렐의 원가는 1 딸라 12 센트였는데 쿠웨이트에서는 5 센트에 불과했다. 이로부터 서방 석유 독점체들은 해마다 15억 딸라의 추가 리윤을 얻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식민주의자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석유 리권의 확보와 그의 확대를 위하여 필사적으로, 경쟁적으로 이 지역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중근동 인민들의 민족적 재부로 되고 있는 풍부한 석유는 이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자석》이기도 하였다.

제 2 차 대전 전에 중근동은 주로 영

국의 지배 하에 있었고 매우 적은 부분의 석유 리권만이 독일, 불란서, 화란 등의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었다.

그러나 중근동의 풍부한 석유 자원에 대한 영국의 독점적 지배는 오래 계속될 수 없었으며 이 지역에서의 석유 리권은 제국주의자들의 맹렬한 리권 쟁탈전을 거쳐 재분할되지 않을 수 없었다.

서구라파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뒤늦게 이 쟁탈전에 참가한 미국 석유 독점체들은 제 2 차 세계 대전 전까지 바레인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영국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석유 채굴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였으며 쿠웨이트에서는 50%의 석유 리권을 차지하게 되였다.

그러나 미국 독점체들이 중근동 지역에 대대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제 2 차 대전 후부터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 2 차 대전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력 호상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중근동에서의 그들 호상간에도 심각히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제는 전후 군사-경제적으로 심히 약화된 영국 세력을 중근동에서 배제하며 이 지역 석유에 대한 리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영국과 대결하는 길에 들어섰다. 당시 미 국무 차관 웰레스가 《전후 시기 중근동 석유 문제는 미국에 있어서 사활적 문제로 제기된다. 모든 문제는 미국과 영국 정부 간의 맹렬한 투쟁에 귀착될 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

미국 석유 독점체들은 전후 불과 몇해 동안에 중근동 석유 리권 분배에서 영국을 압도하게 되였다. 1960년에만 하여도 미국은 중근동 석유 채취의 52.5%, 영국, 화란이 37.2%, 불란서가 6.6%를 차지하였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의 석유 문제는 중요한 정치 문제로 되여 왔으며 또 되고 있다. 중근동에서의 복잡한 정세는 그 어느 하나도 석유 문제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다. 중근동 인민들과 제국주의자들 간, 이 지역에서의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은 언제나 석유 문제를 둘러 싸고 벌어지고 있다. 례컨대 미제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이 나라 북쪽에 있는 부라이미 오아시스 문제를 둘러 싸고 발생한 이 나라와 영국 간의 모순을 리용하여 영국의 영향을 배제하였으며 중근동의 기본 석유 산지와 직접 린접하고 있으며 지중해에로의 석유 수송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씨리아에 대해서도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였다. 영국은 미국의 이러한 팽창 정책에 대처하여 씨리아 정부로 하여금 씨리아를 통과하는 미국의 송유관 건설을 방해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다.

한편 미국은 1949년 3월 매판 부르조아지인 씨리아군 참모장 후스니 아스 자임을 사촉하여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하고 미국 회사의 송유관 건설을 승인케 하였다. 그러나 동년 8월 영국은 씨리아에서 자기 세력을 부식하기 위한 정변을 다시 조직하고 친영 분자인 싸미 헤나우이 대좌를 위수로 하는 군사 정권을 조작하였으며 이전 정권의 친미 정책을 폐기케 하였다. 이리하여 이 지역에서 영 미 간의 모순은 일층 격화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은 내부적으로 반정부 음모를 부단히 강화하여 마침내 1949년 12월에 친미적인 아디브 쉬쉐클리를 집권케 함으로써 미국 석유 독점체들의 경제적 침투를 보장하였으며 1950년에는 송유관 건설이 완성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

석유 리권 쟁탈전에서 미제는 중근동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고 거기에서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과 불란서와 기타 제국주의 국가 독점체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면서 중근동의 새로운 지배자로, 새로운 략탈자로 등장하였다.

이라크에서 혁명(1958년)이 일어 난 다음 날에 미국 군대는 레바논의 해안을 점령하고 중근동의 석유를 잃을 것을 두려워 로골적으로 무기를 휘둘렀으며 예멘에서 혁명이 있은 후에 미제는 자기의 《아람코》 석유 회사의 운명을 《걱정》하여 반혁명 분자들에게 무기와 군사 기재를 제공하였다.

미제는 1950년부터 10 년간에 이란에 5억 딸라 이상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1962년 4월에는 이란과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하고 이란의 군사 방위 상 일체 문제를 자기의 지배 하에 넣었다.

1962년 1월부터 5월 말까지만 하여도 미국은 이스라엘에 7,500만 딸라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최근에는 호크 지상대 공중 미싸일을 공급하고 있다.

오늘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과 중거리 미싸일 기지 설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다량의 군사 설비들을 반입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중근동에서 저들의 석유 리권을 유지 확대하며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의 악랄성을 명백히 보여 준다.

미제와 함께 영 제국주의자들도 중근동에서의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르단과 예멘 및 오만에 자기의 군대를 파견하고 군사 행동을 감행하였으며 오늘은 주로 자기 력량을 페르샤만 지역에 집결하고 석유 채굴을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정변(1963.2)이 일어 난 후 서방과 아랍의 출판물들에는 이 사건에 제국주의 세력이, 특히는 미국 석유 독점체들과 련결된 자들이 관여하였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카셈은 민족 석유 회사를 설치할 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는데 이 결정이 발표된 수일 후에 정변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반란자들은 정변 당일에 외국 석유 회사들은 《이라크에서 석유 자원을 리용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가질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정변 후 2 주일 후에 미국 석유 회사 대표 머피는 회담을 하기 위하여 바그다드에 도착하였다.

제반 사실은 정변의 진정한 조종자가 누구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파리 쥬르날》지에 게재된 타부이의 론설에서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사하고 있다. 《미 국무성 고문들은 카셈이 아랍 동방에서의 미국의 웅대한 계획 실행도상에 주요 장애물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 《웅대한 계획》이란 아덴, 씨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요르단과 팔레스티나, 사우디 아라

비아, 예멘 그리고 남아라비아 공국을 망라하는 《련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계획은 근동의 아랍 석유의 모든 원천의 통합을 념두에 두고 있다》고 썼다.

이것이 중근동에서의 식민지 재분할과 영국 경쟁자들의 구축 그리고 이 지역 전체 석유 자원의 독점을 위한 미제의 계획이라는 것을 간파하기 어렵지 않다.

미제의 이러한 략탈적 계획과 석유를 둘러 싼 서방 제국주의 렬강 간의 암투는 중근동에서의 정치 정세를 긴장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다.

오늘 중근동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 말미암아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는 도탄 속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사실 상 석유 더미 우에서 살고 있는 중근동 인민들에게 있어서 등유조차 구매하기 힘든 것이 이 지역 인민들의 생활 형편이다. 석유 로동자들은 사막의 염천 아래에서 매일 12~18 시간의 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임금은 기아 임금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독점체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수억 딸라의 순 리익을 얻고 있을 때 사우디 아라비아의 인민들은 세계에서도 류례가 없는 빈궁한 처지에서 헤매고 있다. 이 나라에는 학교와 병원이 거의 없으며 대다수 청년들은 글을 모르며 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근동 인민들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거세찬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으로부터 석유 주권을 탈환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은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다.

이란에서는 로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의 결과 국회는 석유 국유화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사우디 아라비아 로동자들은 총 파업을 단행하여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였는바 반제 강령을 가진 《민족 혁신 전선》을 조직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지역 기타 나라들에서도 반제 투쟁이 날로 앙양되고 있다.

각성된 중근동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 략탈자들은 마침내 이 지역에서 쫓겨 나고야 말 것이며 중근동의 풍부한 석유 자원은 인민들의 수중에로 돌아 오고야 말 것이다.

김 봉 환

건설에서의 현물 평가제

최근 우리 나라 각지의 건설 기업소들에서는 현물 평가제가 급속히 도입 일반화되고 있다.

기본 건설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심화 발전하는 과정에 창조된 현물 평가제는 이 부문의 기업 관리 운영을 가일층 개선하며 작업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실현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현물 평가제란 한마디로 말하면 건설 기업소와 로동자들의 계획 수행에 대한 평가를 현물 실적에 의하여 진행하는 방법이다. 즉 그것은 매개 건설 대상을 단위로 현물량, 조업 개시 기간, 원가 저하 과제 등 지표를 설정하고 그를 얼마 만큼 잘 수행하였는가에 의하여 작업에 참가한 집단과 그 성원들의 생산 성과를 규정하며 로임도 그에 적응하게 주고 거기에서 조성되는 리익금은 그들에게 직접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물 평가제를 실시하는 조건에서는 몇 천 원 혹은 몇 만 원의 금액상 계획을 수행하였는가 보다도 몇 동의 주택, 몇 개의 구축물 등을 얼마만한 기간 내에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현물 평가제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건설 대상의 조업 개시 계획 기간과 원가 계획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만 국가 과제를 완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일 조업 개시 기간은 보장하였는데 원가 계획을 수행하지 못 하였거나 원가는 저하시켰지만 조업 개시 계획 기간을 준수하지 못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 손실액을 그 작업에 참가한 직장 또는 작업반이 부담하게 된다.

그 대신 건설 기업소는 상기의 두 가지 지표를 모두다 잘 수행하였을 때 국가로부터 추가적으로 해당한 평가를 받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준공된 대상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하여 공사에 참가하였던 전체 성원들이 책임지게 된다.

현물 평가제에서 개별적 로동자들의 로임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수행한 작업의 량에 따라 월별로 지불하고 그 일부는 공사가 끝난 후 확정 지불(청산)하며 그들의 사업 성과는 점수 평가제에 의하여 규정한다. 점수 평가는 작업에 참가한 모든 성원들의 참가 하에 집체적으로 진행되며 매개인이 수행한 현물 작업량, 질 보장 정형 뿐만 아니라 시공 활동과 집단 생활에 이르는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따라서 점수는 건설 작업에서 로동자들이 지출한 로동의 척도로서, 작업반이 번 로임 총액에서 그들의 몫을 규정하는 분배의 척도로서 뿐만 아니라 그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사회적 평가의 기준으로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물 평가제는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고정 폰드의 조업 개시 추진 및 원가 저하 과제의 수행과 직접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더 잘 관철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현물 평가제가 건설 부문의 계획화에 현물 지표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는 동시에 다른 부문들에서 이미 도입 리용되고 있는 작업반 우대제의 기본 원칙을 건설 부문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 것임을 말하여 준다.

현물 평가제의 거대한 우월성은 무엇보다 먼저 집중적인 건설을 보장하고 건설을 정상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케 한다는 데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로동 지출의 결과가 하나의 완성품으로 되여 나올 때까지 비교적 긴 기간이 요구되며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작업이 반복 진행되지 않고 작업 공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는 데로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을 총화할 때 건설 조립 작업액과 같은 가치 표시 지표를 적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여 왔다.

이것은 일부 건설 기업소들로 하여금 건설 조립 작업액을 높이기 위하여 로력은 적게 들고 금액 상 실적이 높은 공정을 따라 다니면서 공사를 계획하고 작업을 조직하는 데 치중케 함으로써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건설의 정상화를 보장하며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 데서 일정한 지장을 주었다.

그러나 현물 평가제를 실시하는 조건에서 모든 건설자들은 오직 자기들에게 맡겨진 건설 대상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좋게 그리고 값 눅게 건설하겠는가에 관심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것은 조업 개시 기간을 단축하고 미완성 건설의 투자 실적을 최대한 축소시키며 건설 대상의 빈번한 이동과 건설 순위의 위반과 같은 현상을 근절시킨다.

평양 동구 지구 종합 주택 건설 사업소에서 현물 평가제를 도입한 이후 그전에 비하여 건설 대상수를 42%로 축소하고 주택 동당 평균 조업 개시 기간을 34.6%나 단축하였으며 월 평균 미완성 투자 실적을 35%나 감소시켰다는 사실은 그것을 단적으로 실증하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현물 평가제의 실시는 광범한 건설자 대중을 계획의 작성으로부터 생산과 분배에 이르기까지 기업 관리 운영의 모든 측면, 모든 령역에 직접 참가시킴으로써 기업 관리에서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비상히 제고시킨다.

사실 상 현물 평가제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바로 작업 수행과 원가 저하 정형, 로임과 상금의 확정 등 모든 사업을 대중들 자신의 직접적인 참가 하에 진행한다는 거기에 있다.

현물 평가제가 대중을 기업 관리에 보다 광범히,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처음으로 도입한 평양 동구 지구 종합 주택 건설 사업소의 경험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지금 이 기업소의 매개 직장, 작업반들에서는 모든 성원들이 다 사회적 계산원, 자재 관리원, 기공구 관리원, 로력 관리원, 질 검사원, 로동 안전원 등 한 가지 이상의 분공을 맡아 자각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자재의 인수와 소비 실적, 출근 상태의 장악 등 기업 관리 운영의 많은 측면이 그들 자신의 힘에 의하여 대중적으로 해결되게 되였으며 일'군들 속에서 일을 찾아 하고 만들어 하는 창조적인 기풍이 더욱 활짝 꽃 피게 되였다.

현물 평가제의 도입은 또한 기본 건설 부문의 계획화 실무에서도 커다란 개선을 가져 오게 한다.

현물 평가제는 기본 건설의 계획화에서 현물 지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 부문의 계획화 사업과 관리 운영 전반에서 새로운 혁신을 위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현물 평가제의 도입이 기본 건설 부문에서 대안 사업 체계의 요구를 보다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그러면 현물 평가제를 정확히 도입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전체 건설자 대중들에게 현물 평가제의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를 도입하는 사업에 대중들 자신이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만 현 시기 기본 건설 부문의 계획화와 이 부문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 적용의 새 싹인 현물 평가제가 성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또한 모든 건설 기관, 기업소의 지도 일'군들은 이미 개편된 새로운 건설 관리 체계의 요구에 적응하게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그것은 현물 평가제의 도입 자체가 그 어떤 내부 경재 계산이나 통계 보고 체계의 단순한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 건설 부문에서 대안 사업 체계의 요구를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물 평가제는 오직 우가 아래를 책임지고 도와 주는 사업 체계와 그에 상응한 사업 방법이 확고히 수립될 때에 자기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이 부문의 지도 일'군들이 현물 평가제 단위에 직접 내려 가 사업을 배워 주고 조직하여 주며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 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 밖에도 현물 평가제의 성과적인 도입을 위하여서는 그의 적용 대상과 단위의 설정, 내부 계획화와 계산 체계의 개선, 실행 예산서를 포함한 일체 설계 문건의 선행 등 일련의 실무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여야 한다.

현물 평가제의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나 건설 대상이 건설주에게 인도될 수 있으며 시공비를 계산할 수 있는 개별적인 건설 생산물별로 되여야 한다.

이를 테면 주택, 공공 건물 등 건축 공사에서는 개별적인 동이, 시설과 토목 공사 등에서는 설계 예산서 작성의 단위인 개별적 대상 및 구축물이 현물 평가제의 적용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건설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그의 공사 수행 기간이 장기성을 띠는 곳에서는 공정, 구조 요소나 구획 혹은 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비록 건설주에게는 공사를 인도하지 못 하지만 직장, 작업반 성원들이 수행한 작업의 결과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정확히 평가되도록 되여야 하며 또 그 공사를 담당 수행하는 성원들을 작업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해당 작업에서 이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데로부터 현물 평가제 도입의 기본 단위는 해당 건설 대상(공정, 구조 요소)을 책임지고 담당 수행할 수 있는 직장 혹은 작업반으로 되여야 한다. 현물 평가제의 도입 단위가 직장으로 되는 경우에는 부과된 계획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반 단위로 내부 채산제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계산과 평가를 제때에 정확히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건설 기업소들에서 현물 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것은 우로부터 중앙 집중적인 통일적 지도에 기초한 전문화된 건설 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이 부문 앞에 날로 더욱 큰 과업이 제기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완전히 성숙된 문제이다.

모든 건설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기본 건설 부문에서 현물 평가제를 도입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을 관철함으로써 금년도 이 부문 앞에 제기된 전투적 과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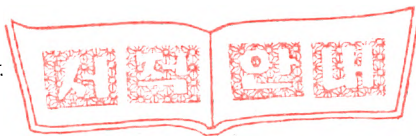
김 윤 식

근로자 제 2 호 (루계 240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1월 17일 발 행 • 1964년 1월 20일

ㄱ—430030 값 40 전

정기 간행물 번호
제 13206 호

피델 카스트로 루쓰

《주 요 연 설 집》

판형 국판 예정 페지 481 페지

이 책에는 1953년부터 1963년까지의 기간에 발표된 피델 카스트로 루쓰 동지의 주요 연설들이 들어 있으며 큐바 인민의 《하바나 선언》이 부록으로 첨가되여 있다.

이 책의 첫 부분에는 바티스타 독재 정권의 법정에서 한 유명한 연설 《력사는 나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가 들어 있다. 이 연설에서 26 세의 청년 혁명가 피델 카스트로는 미제의 충실한 주구인 바티스타 독재 정권의 폭행과 부패성, 그의 매국 행위를 신랄히 규탄하는 한편 앞으로 도래할 큐바 혁명의 주요 방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연설집》의 다음 부분에는 큐바 혁명 승리 후 큐바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규탄한 연설들인 《유엔 총회 제 15 차 회의에서 한 연설》, 《양키의 직접적 침략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만약 그들이 큐바를 침공한다면 제국주의는 멸망할 것이다!》 등이 들어 있다.

또한 이 책에는 카리브해에서의 미제의 새로운 침략 행위와 관련하여 미제의 침략적 본성을 전 세계에 폭로 규탄한 연설들인 《1962년 10월 23일 텔레비존 방송 연설》과 《1962년 11월 1일 텔레비존 방송 연설》을 비롯한 수편의 연설들이 들어 있다.

부록에는 미주와 전 세계 인민들에게 미제의 침략성을 폭로하며 큐바 혁명을 끝까지 사수할 결의를 다진 《하바나 선언》과 《제 2 하바나 선언》을 비롯한 공식 문헌들이 들어 있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3호 2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3 호 (241)
1964년 2월 (상)

(반 월 간)

차 례

민족 해방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자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위대한 혁명적 전환이 일어 나고 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거세찬 혁명의 폭풍이 이 대륙들을 휩쓸고 있다.

민족 해방 운동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고 있다. 수억만 인민들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준 치주로운 제국주의의 숨통이 여기서 끊어져 가고 있다.

력사는 일찌기 그 규모와 심도에 있어서 이처럼 광범한 지역과 인민들을 포괄한 혁명 운동을 보지 못 하였다.

민족 해방 투쟁의 전례 없는 앙양은 세계 혁명을 강력히 촉진하고 있으며 그 승리를 앞당기고 있다.

현실은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대두한 수정주의는 현 시기 세계 혁명 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으며 민족 해방 투쟁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수다한 출판물들과 연설들을 통하여, 국제 민주 단체들의 회의들과 기타 온갖 기회를 리용하여 민족 해방 운동을 중상 비방하며 제국주의 앞에서의 투항과 타협을 설교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자신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투쟁하지 못 하게 하며 제국주의를 갖가지 방법으로 미화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리성》에 기대를 걸고 평화적 공존과 군비 철폐 등의 실현을 통하여 인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떠들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무장 투쟁이 세계 대전의 참화를 가져 온다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민족 해방 운동을 가리켜 《충상을 위한 운동》이라고 모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수정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운동을 부르죠아 운동으로 묘사하고 그 혁명적 의의를 과소 평가하며 피압박 인민들이 자체로는 혁명을 할 수 없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투쟁하는 인민들을 지원하지 않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기 위한 책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민족 해방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며 그들의 영향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며 모든 진보적 력량들과 굳게 단결하여 민족 해방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모든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선 숭고한 의무라고 인정한다.

1.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청산되여야 한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2 차 대전 후 이 지역에서 이미 50여 개 나라들이 독립을 달성하였다.

조선, 중국, 월남 인민들은 사회주의 전선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큐바 인민은 미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섰다. 일련의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이 새 생활을 개척하고 있다.

과거에 오로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대상으로만 되였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민족 국가들이 탄생 발전되고 있는 것은 위대한 력사적 사변이다.

오늘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어제'날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이 지역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인민들을 제멋대로 억누르고 략탈하던 시기는 지나 갔다.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거대한 승리는 제국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민족 해방 운동의 타격에 의한 식민지 노예 제도의 붕괴는 그 력사적 의의로 보아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에 다음 가는 현상이다.》(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 1 >

그러나 식민주의 제도는 아직 완전히 청산된 것이 아니다. 식민주의자들은 세계의 광대한 지역에서 의연히 무력적 폭압과 강도적 략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 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앞에는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를 완전히 청산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사람들은 식민주의 제도가 이미 붕괴되고 그 잔재만이 얼마간 남아 있으며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이 거의 완수된듯이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는 피압박 민족들이 식민지 통치의 기반에서 해방되고 다만 5천만 정도의 사람들만이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략탈을 받고 있는듯이 말한다.

이것이 사실인가?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 세계에서 수억만 인민들이 의연히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적 억압과 략탈에 시달리고 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된 오늘 과거와 같이 로골적이며 직접적인 형태로 식민지를 통치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였다. 그들은 낡은 수법과 함께 교활하고 은폐된 신 식민주의의 수법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계속 식민주의 제도를 보존하고 있다. 현실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눈을 감지 않는 한 이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 많은 나라들을 각이한 방법으로 의연히 예속 상태에 얽매여 두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일련의 나라들에서 그 괴뢰들을 정권에 들어 앉히고 이들을 통하여 식민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독립을 선포한 여러 나라들을 《련방》, 《공동체》 등과 같은 기구에 얽매여 두고 이 나라들을 과거의 종주국에 대한 예속 관계에서 벗어 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일부 나라들을 센토, 세아토와 같은 군사 쁠럭과 수 많은 쌍무적인 군사 동맹들에 묶어 들여 정치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오늘 미국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31 개 나라에서 중요한 것만 하여도 95 개소의 군사 기지를 포치하고 40만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10여 개 나라에 군사 기지를 설

치하고 7만 명의 군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불란서는 이 지역 나라들에 20만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 수 많은 군사 기지들과 주둔군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며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는 목적에 리용되고 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원조》를 제공하고 그것을 미끼로 그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진보를 위한 동맹》은 이 지역 나라들에 자기의 침략적 의사를 강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들은 《평화군》, 《아프리카 십자로 계획》 등을 식민주의적 침투의 도구로 리용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 모든 책동으로 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 당하고 있으며 실제 상 식민지, 반식민지의 처지에서 벗어 나지 못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남조선, 대만, 남부 월남, 일본의 오끼나와 등 여러 지역들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지배가 광범한 지역에 의연히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제국주의자들은 약소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예속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는 2,000여 개에 달하는 미국 독점 회사들의 자본이 국가 자본과 함께 침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투자는 2 차 대전 후 기간에 수 배로 장성하였다.

미국은 이 지역 나라들에 1962년 말 현재로 약 300억 딸라를 투하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거액의 자본 수출과 각종 식민지적 리권에 의거하여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의 중요 부문들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제는 철광석의 거의 전부, 동광의 90%, 아연광의 3 분의 2, 석유 생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그들은 농업과 목축업에서도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토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 영국, 불란서 등의 독점 자본가들은 아프리카에서 중요 광업 부문들을 거의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장악하고 있으며 중근동 석유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식민지적 예속과 전횡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경제적으로 락후한 약소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자유로운 자본 수출과 경제적 통제는 식민주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이 나라들에 대한 정치 군사적 통제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식민주의 제도가 거의 다 소멸되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지배가 식민지적 예속화의 뚜렷한 표현이라는 것은 무시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풍부한 자원들은 제국주의 강도들에 의하여 혹심하게 략탈 당하고 있으며 이 나라 인민들의 로동의 열매는 독점 자본가들의 호주머니에 끝 없이 흘러 들어 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나라들에서 얻는 리윤률은 본국에서보다 몇 배나 더 높다. 최근 년간의 리윤률은 미국에서 10~12%, 영국에서 8~9%였는데 독점 자본가들이 예속 국가들에서 얻는 리윤은 투자의 30~100%, 또는 그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강도적 략탈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반식민지 처지에 있는 나라의 근로자들에게 장시간의 고된 로동을 강요하고서도 본국에서보다 몇 분의 1, 심지어는 몇 십 분의 1 밖에 안 되는 기아 로임마저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로부터 리윤, 리자로서 긁어 가는 리득과 원료들을 싸게 사 가고 상품을 비싸게 팔아 얻는 리득만 하여도 매년 약 300억 딸라에 달한다. 이것은 독점 자본가들이 이 지역 나라들에서 한 시간 동안에 340만 딸라, 하루 동안에 근 1억 딸라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1 년 동안에 빼앗아 가는 이 금액으로는 5억 톤의 밀'가루를 살 수 있으며 이것으로 20억 인구가 1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긁어 가는 매 딸라, 매 파운드, 매 프랑에는 고역과, 빈궁과, 기아에 시달린 인민들의 피와, 땀과, 원한이 스며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서도 약소 국가 인민들을 혹독하게 착취하고 있다. 그들은 《원조》를 받는 나라들에 그것보다 2~3 배나 더 많은 금액을 군사비로 지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35억 딸라의 《경제 원조》를 주고 약 100억 딸라의 재부를 략취하였다. 미제가 《원조》를 미끼로 들씌운 엄청난 군사비 부담과 가혹한 착취는 남조선 경제를 완전히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었다. 미제가 극력히 힘을 들여 《지원》한다는 남조선 경제의 여지 없는 파산은 제국주의 《원조》의 략탈적 본질을 가장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모든 전횡과 강도적 략탈은 식민주의 제도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여 준다.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한 야만적 식민지 통치의 악결과로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계속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다.

유구한 문화와 풍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근면한 인민들이 살고 있는 이러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 침략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가장 락후한 지대로 남아 있다.

오늘 아세아에서는 약 6,000만 명, 아프리카에서는 1,000만 명,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5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아무런 생활 원천도 없이 길'가에서 헤매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주민의 3 분의 2, 아프리카 주민의 대다수, 아세아의 수억만 사람들이 만성적인 기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해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혹심한 기아와 고역 때문에,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병 때문에 죽고 있다.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는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보다 20~30 년이나 짧으며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30 세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 유아 사망률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보다 3~4 배, 심지어는 그 이상에 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참으로 이 나라들에서 인민들에 대한 대량 살륙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혹심한 문화적 락후성을 가져다 주었다. 20 세기의 중엽인 오늘에도 라틴 아메리카의 7,000만 사람들, 아프리카 주민의 80%가 완전한 문맹자이다.

이 지역 나라들에서의 아동들의 취학률은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 비하여 3~4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죄행에서 온 것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피압박 민족들의 불구 대천의 원쑤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피압박 민족들에게 들씌우고 있는 이 참화를 더 지속시킬 수 있겠는가.

식민주의 제도를 하루라도 더 빨리 쓸어 버리며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후과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은 우리 시대

이 가장 절박한 요구이다.

식민주의 제도를 한 해라도 더 빨리 청산한다는 것은 수천만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며 수억만 사람들을 빈궁과 기아에서 해방하며 수천만 아동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 된다.

오늘 이미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거의다 해방된듯이 말하는 사람들은 피압박 민족들의 고통을 본 체 만 체하는 것이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용서 못 할 범죄를 은폐하는 것을 도와 주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 지배와 략탈 정책을 온갖 방법으로 가장하고 있으며 세상에 식민주의 제도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듯이 떠벌리고 있다. 특히 미제는 그들이 식민주의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후진 국가》 인민들의 《진보》를 위하여 힘 쓰고 있는듯이 요란스럽게 선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선전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기만하고 그들을 민족 해방 투쟁에서 물러 서게 하려는 간계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제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에 맞장구를 치면서 더는 식민주의 제도가 남아 있지 않다고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겠는가?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은 피압박 민족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과 략탈을 폭로 규탄하며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하루 바삐 제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인민들이 완전한 민족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결코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멈출 수 없다.

피압박 인민들은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를 완전히 청산할 력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이다.

2,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스스로 물러 가지 않는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어떠한 《선심》도 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민지는 제국주의의 착취와 략탈의 무진장한 원천이다.

제국주의 독점 자본은 세계 수억만 피압박 민족들의 고혈을 빨아 배를 불리고 있다. 독점 자본가들은 다른 나라 령토를 침략하고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들을 또한 군사 전략 기지로, 대포'밥의 공급지로 리용하고 있다. 식민지는 바로 제국주의의 《생명선》이다.

력사는 아직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에서 스스로 물러 간 실례를 알지 못한다.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물러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치의 땅이라도 더 그러쥐고 예속시키기 위하여 날뛰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쟁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한다.

제국주의는 그 본성에 있어서 반동적이며 침략적이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그는 궁지에 빠질수록 더욱 발악한다. 근로자들을 착취하지 않는 자본이란 있을 수 없으며 침략을 하지 않는 제국주의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독립을 달성하려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고 일관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일부 사람들은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가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변화되였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그 침략적 본성을 버리고 《리성적》으로 되였다고 말하면서 제국주의 두목들의 《현명

성》을 극구 찬양하고 있다. 그리 하여 그들은 이 시대가 제국주의와의 전면적인 협조의 시대라고 하며 이 협조를 통하여 세계 혁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제국주의자들이 《리성》을 발휘하여 식민지에서도 자진하여 물러 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국주의자들과 사이 좋게 협상하고 타협하면 피압박 민족들이 독립을 《선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며 인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세력 범위〉, 자본 수출을 단념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일요일마다 부자들에게 기독교의 위대성을 설교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매년 수십억 루블리는 못 되더라도 수백 루블리라도 베풀어 주라고 권고하는 승려의 수준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레닌)〈2〉

제국주의자들과의 협조를 고창하는 사람들은 세계 혁명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서 평화적 공존을 들고 나온다.

그들은 평화적 공존이 오늘의 핵 무기 시대에 혁명을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피압박 민족들의 선차적 과업도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라고 말한다.

평화적 공존은 서로 다른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 공존은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지 예속 국가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지금도 제국주의자들에게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노예의 처지를 강요당하고 있다. 억압하고 억압 당하는 량자 사이에서 무슨 평화적 공존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럼에도 제국주의자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피압박 민족들에게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계속 감수하라는 것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최근에 와서 수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제국주의자들과 피압박 민족들 사이의 평화적 공존을 주장한 일이 없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변명도 그들의 본심을 감출 수 없다.

그들은 평화적 공존의 환경에서만 민족 해방 혁명의 완전한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다. 평화적 공존이 보장되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경제적 경쟁에서 제국주의가 패배할 것이며 따라서 민족 해방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떠든다. 그들은 민족 해방 운동이 평화적 공존에 복종하여야 하며 결국 혁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평화적 공존을 광고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2 차 대전 후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가렬한 투쟁의 결과에 이루어진 수 많은 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저들의 평화 공존 정책의 《덕분》으로 묘사하는 렴치 없는 일까지도 꺼리낌 없이 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평화적 공존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제국주의와의 경제적 경쟁에서 달성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승리가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대신하여 해방을 가져올 수도 없다.

민족적 독립이 평화적 공존에 의하여 달성된 것 같이 말하는 것은 남의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가로 채려는 비렬한 행동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피흘려 싸운 수천 수만 혁명 투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 업적을 모독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또한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가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을 위한 가장 믿음직한 방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가 실현되면 제국주의자들이 군대와 무장을 가지지 못 하게 될 것이므로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 하여 식민지 피압박 민족들이 해

방 투쟁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의 실현을 위하여 무장을 놓아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군비 철폐의 실현을 위하여 시종일관 모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2 차 대전 이후 18 년 간이나 열강들 사이에 군비 철폐에 관한 회담이 진행되여 왔으나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거부로 인하여 진전을 보지 못 하고 있다.

군비 철폐를 반대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이다. 《무장 없는 제국주의》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제국주의자들은 지금도 계속 군비 확장에 광분하고 있으며 민족 해방 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피압박 민족들이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족 해방 투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투쟁하는 인민들의 면전에서 유엔을 우상화하는 데 종사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유엔을 통하여서도 피압박 민족들이 독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유엔이 식민주의 제도의 청산을 실현하지 않으면 그 누가 이것을 해 내겠는가 하고 소리 높이 웨치고 있다.

유엔은 만일 그것이 헌장에 규정된 임무에 충실하다면 일정하게 피압박 민족들에게 유익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유엔의 어떤 결정이 피압박 민족들의 독립에 대한 담보로 될 수는 없다.

더우기 오늘 유엔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침략의 도구로서 악용 당하고 있다. 미제는 유엔을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약소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감행하였으며 수백만 조선 인민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유엔의 간판 밑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도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며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미제는 유엔의 간판 밑에 콩고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그 수상 루뭄바를 학살하였으며 애국적 력량을 탄압하였다.

유엔의 간판 밑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쿠바의 주권을 침해하고 침략의 마수를 쿠바 령토 내에 뻗치려고 하였다.

과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어떻게 유엔을 통하여 민족적 해방을 달성할 수 있으며 식민주의를 청산할 수 있겠는가.

평화적 공존,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 유엔 등을 통하여 식민주의 제도를 청산할 수 있는듯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인민들을 사상적 면에서 무장 해제시키고 반제 혁명 투쟁을 마비시키며 피압박 민족들을 영원히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 얽매여 두려는 것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적극 미화 분식하며 그 앞에서의 투항과 굴종을 설교하고 있다. 혁명적 인민들은 결코 이 길을 따를 수 없다. 력사는 민족 해방 투쟁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선심》에 기대를 걸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실패의 쓰라림을 맛 보지 않으면 안 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피압박 민족들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에 궐기할 때 비로소 해방과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오늘 민족적 독립을 위한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은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미제는 세계 반동의 원흉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다. 미제는 가장 큰 국제적 착취자이며 국제 헌병이며 인민들의 흉악한 원쑤다.

오늘 미제는 멸망하여 가는 자기 운명으로부터의 출로를 타국 인민들에 대한 침략과 국제 긴장 상태의 격화에서

찾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침략 책동과 파괴 행위를 부단히 감행하고 있으며 새로 독립한 민족 국가들을 자기들의 지배 하에 복종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제는 세계의 모든 반동 세력들과 결탁하여 온갖 진보적인 운동을 탄압 말살하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방해하며 탄압하고 있는 원흉도 바로 미제다.

미제는 많은 나라들을 사실 상 자기의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로 전락시킴으로써 가장 큰 식민지 소유국으로 되였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이 나라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이 나라 자원을 마음 대로 략탈하고 있다.

미제는 무력으로 타국 령토를 강점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의 주권을 엄중히 유린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궐기한 인민들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침략 전쟁을 감행하고 있으며 인민들을 야만적으로 학살하고 있다. 미제의 발'길이 미치는 곳에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데가 없다.

이 모든 사실들은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며 세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투쟁의 예봉을 미제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오늘 미제는 날로 더욱 곤경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세계 제패를 꿈 꾸며 인민들에게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들씌우려는 미제의 책동은 전 세계 인민들의 응당한 격분과 반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인민들이 굳게 단합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확대 강화하며 그를 더욱 궁지에 몰아 넣어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교활한 신 식민주의적 책동은 도처에서 폭로 배격하며 파탄시켜야 한다. 세계 도처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높이며 전면과 후면에서 그에게 타격을 가하고 그 손발을 얽매여 놓아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군사 기지를 철폐시키며 그 군대를 몰아 내는 투쟁을 할 것이며 미제 침략자들이 어디에서나 발 붙일 곳이 없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세계 피압박 인민들이 자기의 해방을 쟁취하는 길이다.

3, 혁명 투쟁은 민족 해방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다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달성하는 것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업이다.

피압박 인민들은 자신의 완강한 투쟁으로써 식민지 통치 제도를 청산하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로부터의 식민지 국가 및 예속 국가들의 해방을 달성하는 것은 승리적인 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독립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쓰딸린) < 3 >

오늘 전반적인 정세는 민족 해방 투쟁에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여 있다. 문제는 로동 계급의 당들과 혁명적인 선진 분자들이 이 투쟁의 선두에 서서 어떻게 혁명을 령도하는가에 달려 있다.

당의 정확한 령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적 담보다.

로동 계급의 당들은 혁명적 립장을 고수하며 정확한 전략 전술을 세우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투쟁에로 옳게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혁명의 승패는 무엇보다도 당이 인민 대중을 쟁취하는가 못 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혁명 군중을 쟁취하여 자기 주위에 묶어 세우지 않는다면 로동 계급의 당은 혁명 투쟁을 전개할 수 없으

며 혁명을 령도할 수도 없다.

로동 계급의 당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계층을 튼튼히 결속하여야 한다.

당은 특히 로동 계급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고 그 령도권을 확고히 보장하며 농민 대중과 청년 학생, 지식인들을 쟁취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민족 해방 투쟁에서 로동 계급과 함께 농민 대중은 혁명의 주력 부대다.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결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들은 락후한 농업 지대로 남아 있다. 이 지역들에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거의 토지가 없거나 척박한 땅쪼각에 의지하여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빈농민이며 고용 농민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처지로부터 반제 반봉건적 민족 해방 혁명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혁명성이 강하고 투쟁에서 견결하다.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을 농민 대중의 리해 관계와 옳게 결합시키고 그들을 투쟁에 광범히 동원할 때에 혁명 투쟁을 성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의 농민 대중의 혁명적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의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은 믿음성이 없고 보잘 것 없는 소부르죠아 운동이라고 하며 별로 큰 혁명적 의의를 가지지 못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벌써 혁명을 하려는 사람들의 립장이 아니다.

식민지 예속 국가들이 처한 구체적인 형편을 정확히 분석함이 없이 덮어 놓고 농민 대중을 무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민족 해방 투쟁에서 농민 대중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로농 동맹을 부정하며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거부하는 반맑스-레닌주의적 태도다.

오늘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은 투쟁에 궐기한 농민 대중이 얼마나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농민을 정확히 령도할 때 어떻게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로동 계급의 당이 지닌 중요한 임무는 농민 군중을 혁명화하고 조직하며 농촌을 강력한 혁명의 기지로 만드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당은 농민과 함께 청년 학생, 지식인을 투쟁에 광범히 끌어 들여야 한다.

식민지 예속 국가의 청년 학생, 지식인들은 자신의 압박 받는 처지로 하여 민족적 각성이 높으며 반제 의식이 강하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 속에 민족적 각성과 반제 의식을 고취하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서 청년 학생, 지식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로동 계급의 당은 청년 학생, 지식인들 속에서의 사업을 강화하며 이들을 조직하고 부단히 단련시키며 혁명 투쟁에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로동 계급을 비롯한 모든 반제 력량을 튼튼히 단결시키고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 세력들을 철저히 고립시킬 때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은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로동 계급의 당은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하며 인민 대중을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혁명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에 결정적인 투쟁에 나서야 하며 유리한 정세 하에서는 서슴 없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인정한다.

더우기 인민들 자신이 투쟁에 궐기했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의 투쟁을 옳게 조직하고 거기에 의식성을 부여하며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정세가 요구할 때에는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당은 이러한 혁명의 전위 부대로서, 혁명의 참모부로서 로동 계급과 인민에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당이 군중의 꼬리를 따르며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오늘 수정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투쟁에서 로동 계급의 당이 령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하도록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부 당들은 혁명을 포기하고 혁명 투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정세가 무장 투쟁을 요구하며 인민들 자신이 무장을 들고 진출하는 결정적인 시각에 《평화적》 방법만을 제창하면서 그 나라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투쟁에 나서지 못 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에도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이 있을 수 있다고 위협하며 혁명 력량이 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리 하여 수정주의자들이 내려 먹인 《평화적 이행》의 로선은 최근 년간 일련의 나라 민족 해방 투쟁에 큰 타격을 끼쳤으며 또 끼치고 있다.

손에 무장을 들고 혁명 투쟁을 전개하던 무장 대오 속에 《평화》병이 옮아 가서 혼란을 조성하게 되였으며 굳지 않은 사람들이 투쟁의 길에서 물러 서게 되였다. 일부 나라의 혁명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반혁명의 무력적 탄압 앞에서 실패하게 되였으며 혁명 력량은 큰 손실을 당하게 되였다.

혁명 군중은 무장을 들고 피 흘리며 싸우는데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투쟁에는 참가하지도 않고 팔짱을 끼고 뒤에 앉아서 《평화》 타령만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혁명을 하자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제국주의와 반동 세력의 무력에 항거하여 싸우지 않고 투쟁을 포기하며 반혁명의 공세가 무서워서 정권을 잡지 않는다면 피압박 민족들은 어느 때에도 해방될 수 없으며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서 능히 거둘 수 있는 승리를 거두지 못 하게 하였으며 피할 수 있는 희생도 면하지 못 하게 하였다.

만일 로동 계급의 당이 투쟁에 나서지 않고 혁명을 령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계급이 그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군중을 잃고 대중의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로동 계급의 당은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형태의 투쟁에 철저히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여 폭력적 투쟁과 비폭력적 투쟁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야만 승리적인 해방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만일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폭력적 방법에만 의존하고 폭력적 투쟁에 준비되여 있지 않는다면 혁명 력량은 적의 반격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는 례외 없이 무력에 의거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 인민들에게 평화적으로만 해방 투쟁을 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족 해방 투쟁에서 폭력적 투쟁 형태를 취할 것인가 비폭력적 투쟁 형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개 나라들이 처하고 있는 구체적 조건에 따라 그 나라 당이 결정할 문제다. 제국주의자들의 반항 여하와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에 따라 폭력적 투쟁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고 비폭력적 투쟁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

이것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각이할 수 있다.

물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에는 평화적 방법에 의거하는 것이 응당하다. 공산주의자들은 무턱대고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계급 투쟁이 격화되면 많은 경우에 그것이

무장 투쟁으로 넘어 가게 된다. 전쟁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결코 혁명적 군중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군중을 탄압하는 착취 계급들에게 달려 있다. 지배 계급이 폭력으로 혁명 군중을 탄압하기 때문에 혁명 군중이 폭력으로써 대항해 나서는 것이다.》(김 일성) < 4 >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을 폭력으로 탄압할 때 인민들은 앉아서 희생만 당할 수 없다. 반동적 폭력에는 혁명적 폭력으로 대항하여야 한다. 무장한 반혁명에 대치되는 혁명적 무장이 없이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 세력의 폭압 밑에서 혁명 력량을 보존할 수 없으며 투쟁은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무장 투쟁은 반제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투쟁 형태다.

피압박 민족들이 단결하여 무장 투쟁에 궐기한다면 그것은 불패의 힘으로 되며 어떠한 제국주의자들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일곱 자루의 총으로 무장 투쟁을 시작한 꾸바 인민은 영웅적인 항쟁으로써 미제의 괴뢰인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승리하였다.

수백 자루의 렵총으로 무장 투쟁을 시작한 알제리아 인민은 수십만의 병력과 각종 현대적 무기를 동원한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7여 년간 영용하게 싸워 승리하였다.

오늘 남부 월남 인민들은 미제의 무력 침략을 반대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자기들의 투쟁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베네주엘라, 앙골라 등 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치렬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하고 있으나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공산주의자라면 인민들의 이 영웅적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온갖 구실을 붙여 피압박 민족들의 무장 투쟁을 적극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무장 투쟁이 《세계 열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꽃》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살 행위》이니,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무모한 행위》이니 하며 모독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세계 열핵 전쟁이 일어나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 독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고 웨치고 있다. 이 얼마나 괴이한 소리인가.

수정주의자들은 핵 무기가 출현하였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전쟁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한다. 그들은 핵 무기 시대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의 구별도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 하여 모든 전쟁이 다 인간 살륙의 범죄이며 부정의의 전쟁이라고 떠들고 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란폭한 위조이다.

물론 핵 무기는 거대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성격을 변경시킬 수 없다. 핵 무기는 전쟁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다 열핵 전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혁명을 그만 두고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참고 견디라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주권도 자유도 영예도 다 저버리고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여도 좋다는 것이다.

그들의 책동은 제국주의자들과 한패가 되여 피압박 인민들을 투쟁에서 물러 서게 하려는 협박 공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갈로써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을 놀래울 수는 없으며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 그것은 헛된 시도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정체가 폭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말로써나마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무장 투쟁을 지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누구를 속일 수 있겠는가? 인민들은

누가 혁명을 지지하고 있으며 누가 혁명을 반대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피압박 인민들은 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과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한 철저한 반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그들의 침략 책동을 파탄시킬 것이다.

오늘 민족 해방 투쟁은 어느 때보다 로동 계급의 당들이 자기의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직 혁명 투쟁의 원칙을 견지하는 그러한 당과 그러한 투사들만이 전위 부대의 영예로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한다 하여도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을 멈추어 세울 수는 없다.

민족 해방 투쟁의 종국적 승리와 식민지 체계의 완전한 청산은 불가피하다.

4, 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은 민족 해방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한다

민족 해방 투쟁의 결과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민족 국가 인민들은 자기 력사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

그러나 정치적 독립의 달성은 민족 해방 혁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민족 해방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사회는 계속 전진할 것을 요구하며 생활은 그 해결을 기다리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투쟁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나라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가—로동 계급의 당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 한다.

오늘 맑스-레닌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은 이 문제에서도 근본적으로 대립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독립을 달성한 민족 국가들에서 제국주의를 계속 견결히 반대하며 민족 민주주의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오직 이러한 경우에만 이 나라 인민들은 식민지 통치에서 물려 받은 세기적인 락후성과 빈궁을 퇴치하고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들은 정치적 독립의 달성으로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이 완수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들의 안중에는 반제 투쟁 과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로동 계급의 당이 부르죠아지들과 합작하여 경제 건설이나 하면 되고 혁명을 더 전진시킬 필요가 없다는듯이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독립을 달성한 나라 인민들의 혁명 도상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며 이 나라 인민들이 쟁취한 독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유해로운 주장이다.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후 인민 대중은 하루 속히 낡은 질곡에서 벗어 나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며 자기들의 생활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독립이 달성되였다고 하여 아무러한 투쟁도 없이 사회적 진보와 독립의 공고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오직 반제 반봉건적 혁명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며 새롭게 사회를 개조함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련속적인 혁명 과정이다.

민족 해방 혁명의 철저한 수행은 우선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낡은 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지반을 박탈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봉건적 생산 관계를 타파하여야 한다.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며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외 관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압력과 침략 정책을 반대하며 독자적인 평화 애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모든 혁명적 조치는 제국주의 및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 세력들의 반항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혁명의 진전에 따라 사회 각 계층들 사이의 계급적 모순이 점차 전면에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력사적 환경에서 투쟁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전개된다.

사회 발전의 객관적 행정에서 일어나는 계급들 간의 투쟁은 피할 수 없다. 제국주의 및 그와 결탁한 반동 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사회 혁명 과업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다.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적 및 계급적 리익을 옹호하며 혁명 력량을 결속하여 반제 반봉건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계급 투쟁의 법칙을 무시할 때 혁명이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은 허다한 력사적 경험이 실증하고 있다.

사회 혁명이 심화되고 계급 투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민족 부르죠아지들의 동요성은 점차 표면화된다.

외래 제국주의 및 봉건 세력들과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민족 부르죠아지들은 근로 인민들과 함께 반제 반봉건적 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 나설 수 있다. 다른 한편 그들은 근로 대중의 장성하는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 진출에 불안을 느끼며 중도에서 혁명을 포기하고 반동 세력들과 결탁하려는 경향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 부르죠아지의 진보적 측면은 지지하며 그와 동맹하는 동시에 그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견제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 부르죠아지와의 관계에서 로동 계급의 당은 언제나 단결하며 투쟁하는 원칙적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의 당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부르죠아지들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함께 투쟁하여 나갈 것을 원한다.

로동 계급과 민족 부르죠아지가 통일 전선에서 계속 단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선 민족 부르죠아지가 진정으로 전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가 아니 하는가에 달려 있다. 민족적 리익은 민족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로동자, 농민들의 리익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만약 부르죠아지들이 진실로 민족적 리익에 충실하려면 반드시 근로 대중의 리익을 존중히 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은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 및 온갖 반동 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로동 계급과 진보적 부르죠아지 사이의 단결은 공고히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지들이 자기의 협소한 계급적 리익을 전 민족의 리익 우에 올려 놓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되며 따라서 각계 각층 인민들과의 단결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의 리익을 배반하는 반동적 부르죠아지의 이러한 행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만약 당이 반동적인 부르죠아지들을 덮어 놓고 믿으며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면 당의 독자성은 상실될 것이며 혁명적 진출을 잃고 결국 혁명 자체를 망치게 할 것이다.

반동적 부르죠아지에 대한 태도에서 인도 공산당의 당내 집단은 수치스러운 투항주의적 립장에 굴러 떨어졌다. 당내 집단은 프롤레타리아당의 혁명적 원칙을 걷어 던지고 반동적 정권에 대하여 《무조건 지지》할 것을 맹세하여 나섰다.

그들은 반동 정권의 침략적 대외 정책을 《국제주의에 부합된다》고 하면서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리 하여 그 자신이 맑스-레닌주의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를 중상 비방하는 사회 배외주의자로 전락하였으며 공산당을 사분오렬케 하였다.

오늘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은 당계 집단의 추악한 행동을 지지하며 찬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인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에 대한 로골적인 배신 행위로 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쓰라린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 민주주의 혁명 행정에서 어디까지나 로농 동맹을 튼튼히 하며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통일 전선에 굳게 단결시켜야 한다.

민족 해방 혁명의 종국적 승리와 사회의 혁명적 개조는 결국 로동 계급의 당의 힘과 로농 동맹의 견고성에 달려 있다. 로동 계급의 당이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한 광범한 인민들의 통일 전선을 옳게 조직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령도하여 나간다면 혁명에서 능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생활이 제기하는 절박한 사회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사회 발전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독립한 인민들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할 것을 지향한다.

그들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자본주의는 인민들에게 기아와 빈궁과 무권리밖에 가져 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나라의 부강한 발전과 인민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로동 계급의 당은 어떠한 정황 하에서나 자기의 원칙적이며 독자적인 립장을 견지하고 대중의 힘을 적극적으로 단합 동원시켜 새 사회 건설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하여야 한다.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후 민족 국가들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기도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는 것이다.

오늘 일부 사람들은 민족 국가들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민족 국가들과 제국주의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교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현 시기에는 다만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과 락후한 지역 사이의 구별》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래의 침략적인 제국주의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과 서로 《협조》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 역시 민족 국가 인민들에게 혼란을 가져 오는 위험한 견해이다.

독립한 인민들이 진행하는 사회적 변혁과 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종전의 식민지에서 물러 서지 않았으며 새로운 형태로 부단히 침투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 독립한 인민들에게 각종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통제를 가하여 이 나라들의 정치적 독립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서슴없이 무장 침공까지도 감행하며 민족 국가들을 전복하기 위한 각종 파괴 활동을 진행한다.

정치적 독립이 달성된 후 민족 국가들에서 반제 투쟁은 약화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의연 첨예하게 진행되며 각 방면에 걸쳐 더욱 복잡화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을 해방된 인민들의 《벗》이나 《은인》처럼 묘사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원조》도 민족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도와 줄 수 있다는듯이 꾸며 대고 있다. 그들은 미제의 《원조》가 《수세기 동안 뒤떨어진 인민들로 하여금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마치도 군비 철폐를 실시하여 거기에서 얻어 낸 돈으로 《후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돌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가까운 력사적 기간내에 이 나라들은 선진 공업 국가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후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게 될 것이라고 떠든다.

이 모든 것은 실로 잠꼬대와 같은 황당무계한 소리다.

이것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계급적 립장에서 얼마나 멀리 굴러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원조》에 의거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실례가 있는가?

그와는 반대로 현실은 제국주의의 《원조》에 의존하면 할수록 정치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며 경제 형편을 악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소위 《원조》는 민족적 독립 국가들을 다시 예속화하기 위한 신 식민주의의 올가미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표면 상으로는 호상간의 <친선>과 <단결>을 주장하나 뒤에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파괴 공작을 진행하며 <협조>와 <원조>를 표방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김 일성)< 5 >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와 략탈을 통하여 배를 불린 제국주의 강도배들이 갑자기 《선심》을 쓰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경험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나라들에서는 민족적 독립의 공고화와 나라의 정치 경제 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그 나라 통치 집단이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였거나 그 괴뢰로 전락된 곳에서는 사실 상 여전히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처지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할 수 없으며 평등한 기초 우에서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락후한 경제를 유산으로 넘겨 받은 민족 국가 인민들 앞에는 새 사회 건설에서 적지 않은 난관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자력 갱생의 길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의거하여서는 나라의 경제를 자립적 토대 우에서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없다. 자기 나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만 제국주의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력사적으로 최단 기간 내에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외부의 원조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외부의 원조에 대하여 말한다면 민족 국가들의 경제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해방된 인민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 원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이 나라들에는 풍부한 자원과 유리한 자연 조건이 있다.

경제 기술적 발전에 있어서 이 나라들은 각이한 수준에 놓여 있다.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경제 기술들을 서로 교환하고 호상 방조한다면 각 민족 국가들에서의 경제 건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먼저 해방되었거나 비교적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들은 뒤늦어 민족적

독립의 길에 들어 선 인민들은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해방된 인민들의 진정한 유대와 호상 원조는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과 경제적 침투를 분쇄하며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번영을 가져 오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새 사회 건설에서 민족 국가 인민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주권의 존중,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민족 국가 인민들에게 허심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성의 있는 원조를 주어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족 국가들에 주고 있는 경제 기술적 원조는 이 나라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원조는 무엇보다도 원조를 받는 나라들의 독립의 공고화와 번영을 도와 주려는 진정한 념원에 립각하였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원조》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는 어떠한 정치적 부대 조건도 있어서는 아니 되며 경제 기술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위반된다면 민족 국가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신을 저락시키며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민족 국가들에 대한 원조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절대로 계급적 원칙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제국주의와 결탁한 나라의 반동 지배층에게 원조를 주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데 사용하도록 군사 원조까지도 거리낌 없이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과 경쟁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결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과 민족 국가 인민들 앞에서 제국주의자들과 한패가 되어 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기의 벗과 원쑤를 구별하지 못 하면 그것은 위험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응당 비판되여야 하며 즉시 중지되여야 한다.

나라의 자주적인 발전을 고수하며 제국주의의 새로운 침략을 반대하는 민족 국가 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어떠한 음모 책동도 민족적 독립의 길에 들어 선 인민들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비방 중상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인민들은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훌륭히 다스리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다.

해방된 인민들은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될 수 없다.

5, 민족 해방 운동은 현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운동은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환이며 그 강력한 동맹군이다.

자본주의 국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는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과의 직접적 동맹 없이는 불가능하며 식민지 민족 문제의 종국적 해결은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세계 혁명 발전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그 역할은 실로 거대하다.

레닌은 일찌기 민족 해방 투쟁이 담당하게 될 거대한 혁명적 역할을 예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날 수백 수천만의 주민들이—사실 상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가 독자적이며 적극적인 혁명 력량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박두하는 세계 혁명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최초에는 민족 해방을 지향하였던 세계 인구의 대다수 운동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게 되여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혁명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 6 >

레닌의 예언은 지금 현실로 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는 세계 인구의 3 분의 2가 살고 있으며 방대한 자연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

이 거대한 힘을 가진 대륙들이 제국주의의 후비로부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력량으로 전환되고 있다.

민족 해방 혁명은 들끓고 있으며 제국주의 지반을 뿌리 채 뒤흔들리고 있다.

도처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련속 무너지고 있으며 새로운 력량이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모든 사실은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위대한 혁명 과정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세계 평화 위업은 거대한 힘을 얻고 있다.

민족 해방 투쟁은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지위를 강화하며 국제 로동 운동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 해방 투쟁의 전례 없는 앙양으로 이제 세계 혁명의 귀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심도 주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는 충분히 또 절대적으로 보장되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 해방 운동은 사회주의 진영 및 국제 로동 운동과 함께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현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다.

그러나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일부 사람들은 민족 해방 운동의 혁명적 의의를 과소 평가하며 그것을 제국주의에 큰 타격을 줄 수 없는 소부르죠아 운동 또는 부르죠아 운동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사회주의 10월 혁명 후 동방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민족 해방 운동이 낡은 부르죠아 민족 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나 프로레타리아트가 령도하는 민족 해방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로동 계급이 출현하고 장성함에 따라 이 나라들에 로동 계급의 당들이 조직되였다. 이 당들은 민족 해방 투쟁의 선두에 서서 그를 령도하게 되였으며 이 운동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전반적 흐름에 합류하였다.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민족 해방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혁명의 거류를 어떻게 단순히 부르죠아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무리한 소부르죠아 운동으로 묘사할 수 있겠는가.

로동 계급이 아직 형성되지 못 하였거나 미약한 나라들에서는 다른 계급이 민족 해방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맑스-레닌주의자들은 그 운동의 혁명적 의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록 그 운동에 프로레타리아적 요소가 없거나 적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국주의를 약화시키는 운동인 때에는 그것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현실을 바로 보는 사람이라면 현 시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생명선》이 끊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데 대하여 제국주의자들 자신이 큰 비명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하여 항

식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타격을 주는 실제적 결과를 보고 그 혁명적 의의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수정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미약하며 산업 프로레타리아트가 적기 때문에 이 지대가 현 시대의 강력한 혁명 투쟁의 무대로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 2 국제당 지도자들의 낡아 빠진 반혁명적 《리론》의 재판에 불과하다. 바로 제 2 국제당의 변질자들이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혁명이 일어 날 수 없다고 뇌까렸다.

이들의 《리론》이 력사적 실천에 의하여 완전히 매장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와 산업 프로레타리아트의 수효만 가지고서는 이러저러한 나라들에서 혁명의 전제 조건이 조성되였는가 안 되였는가를 기계적으로 따질 수 없다.

민족 해방 운동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도 산업 프로레타리아트의 수효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산업 프로레타리아트가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도 로동 계급의 당이 수정주의에 물 들어 옳은 지도를 보장하지 못하면 혁명의 불'길은 일어 날 수 없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과 라틴 아메리카의 꾸바에서는 산업 프로레타리아트가 비교적 적었지만 사회주의 혁명이 이미 실현되였다.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혁명 정세가 조성되였는가 안 되였는가 하는 것은 개별적인 나라의 범위에서 고립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문제는 어느 고리에서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여 있는가, 어디에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가 있는가, 어디에 혁명 력량이 준비되여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혁명적 폭풍의 지대로 전변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이 지대에 혁명을 낳는 심각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들이 집결되여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이 나라 인민들 사이의 모순, 이 나라 착취 계급들과 근로 인민들 사이의 모순이 엉켜 있으며 제국주의 렬강들 및 독점 자본 집단들 호상간의 모순이 이 지대에서 충돌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사이의 모순도 또한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국주의와 피압박 민족 간의 모순의 밑바닥에는 계급적 모순이 놓여 있다. 제국주의와 피압박 민족 간의 모순은 우선 제국주의 국가의 자본가 계급과 식민지 예속 국가의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 간의 모순이 기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식민지 예속 국가 로동 계급과 인민들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보다 이중 삼중의 혹심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 이 지역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민족적, 인종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은 토착 지배 계급들의 폭압과 결합되여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되여 있다.

이 모든 것은 이 지역 인민들에게 더욱더 혹심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들을 불가피하게 혁명의 길로 추동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일련의 나라들에는 혁명을 담당 수행할 만한 주체적 력량이 준비되여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가장 포악한 탄압 속에서 자라 난 혁명적인 로동 계급과 함께 혁명적인 농민 대중들이 있으며 세련되고 단련된 일련의 맑스-레닌주의당들이 있다.

계급적 원쑤들과의 수 많은 전투에서

이 지역 인민들과 당들은 강력한 혁명 부대로 장성하였다.

이 모든 것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를 때려 엎는 혁명의 폭풍이 그처럼 세차게 휘몰아 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앙양되는 민족 해방 혁명에 대하여 어떤 립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결국 혁명을 하자고 하는가 하지 말자고 하는가 하는 원칙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민족 해방 운동을 멸시하거나 그 힘을 믿지 않고서는 세계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이 민족 해방 투쟁의 거대한 혁명적 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혁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독자적으로 혁명할 수 없으며 오직 구라파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서만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거만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 나라 혁명에서의 프로레타리아 헤게모니에 관한 레닌의 명제를 외곡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구라파의 로동 계급이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령도하는 것은 응당한 것이며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의심할 바 없이 한 나라의 범위에서 농민 대중과 근로 인민들에 대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를 보장하는 것은 그 나라 혁명 승리의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이 명제를 구라파 로동 운동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과의 호상 관계에 기계적으로 옮겨 놓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협잡 행위이다.

력사적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독자적으로 혁명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중요한 것은 국제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이 호상 지원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 량자는 어느 한쪽이 령도하고 령도를 받는 그러한 관계나, 그 어떤 종속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구라파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지도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지역적 및 인종적 편견으로부터 출발하여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을 《렬등 민족》이라고 하는 반동적 부르죠아 관념의 산물이다. 맑스-레닌주의자는 결코 이러한 부르죠아 관념의 포로가 되여서는 안 된다.

맑스-레닌주의자라면 세계 혁명에 대한 《령도적 역할》을 맡아 나서겠다고 하기 전에 우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에서 혁명적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은 혁명을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투쟁을 멸시만 한다면 그것은 민족 배타주의적 행동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제 혁명 전선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민들의 투쟁 성과를 귀중히 여겨야 하며 거기에서 허심하게 배워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지역적 및 인종적 편견이 있을 수 없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투쟁하든 간에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혁명을 수행한다는 공통적 목적 밑에서 서로 련결되여 있다.

만약 오늘 구라파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무한히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투쟁에 커다란 지원으로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구라파 로동 계급에게 강력한 지원으로 된다. 그러므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그것은 세계 진보적 인류의 공동의 승리로 되며 공동의 기쁨으로 된다. 정세가 성숙되고 대중들이 투쟁에 준비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못마땅한 것으로 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일부 사람들은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자기들의 반맑스주의적 견해를 내리먹이는데 흔히 자기 당의 《권위》와 《전통》을 내휘두른다.

이러한 당들의 전통과 권위에 대하여 말한다면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 존경의 뜻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이러한 당들의 과거의 혁명 업적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 경험에서 배우고 있다.

그러나 과거도 중요하지만 오늘 어떻게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통이나 과거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으로써 혁명 사업을 대신할 수는 없다. 투쟁의 불길 속에서 혁명적 당들의 권위가 수립된다. 로동 계급의 당이 혁명적 립장에서 굳건히 선다면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빈 말을 하거나 과거를 자랑하는 것으로써가 아니라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싸우는 인민들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세계 혁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민족 해방 운동을 강화하는 길—이것은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 력량을 강화하는 길이며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을 촉진하는 길이며 세계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길이다. 진실로 세계 혁명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혁명의 폭풍 지대로 화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며 그 승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해야 할 것이다.

6,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단결하여야 한다

오늘 세계의 모든 혁명 력량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 국제 로동 운동, 민족 해방 운동은 현 시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에 서 있는 강력한 혁명 부대들이다. 이 혁명 부대들은 호상 굳게 단결하며 전투적 련대성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단결은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손에 장악되여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단결의 강화는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힘을 몇 배로 증대시킨다. 단결되여 있을 때에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제국주의의 그 어떤 진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

바로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단결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장성하는 혁명 운동을 가로막기 위하여 모든 반동 세력을 규합하며 혁명 력량들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에 대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 국제 로동 운동, 민족 해방 운동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매개 전선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날뛸 수 없도록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우선 사회주의 진영은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는 것을 맑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에서 나오는 국제주의적 의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세계 혁명의 기지로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은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을 견결히 반

대하며 피압박 민족들의 권리를 옹호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피압박 민족들이 전개하는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해방 투쟁을 물심 량면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계급의 동맹군을 강화하는 것이며 제국주의에 대한 공동의 승리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은 자기의 이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혁명을 싫어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방해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압박 민족들과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지배층과 타협하며 식민지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식민지 소유 렬강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력사적 위업과 국제주의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국제주의에 대하여 아무리 요란하게 떠들어 대도 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서 피 흘려 투쟁하는 인민들을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무슨 진실한 국제주의적 행동을 찾아 볼 수 있겠는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혁명에서 먼저 승리하였다고 하여 결코 자기의 혁명적 임무를 다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아직 수억만 인민들이 자본의 억압 밑에 신음하며 그와 투쟁하고 있는 것을 못 본 체 할 수 없다.

사회주의 진영과 함께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을 통하여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국의 로동 계급과 식민지 인민들을 리간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한다. 그들은 로동 계급을 민족 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사상으로 더럽히려 하며 식민지에서 략탈한 초과 리윤의 일부로 로동 계급의 상층부를 매수하여 로동 계급의 대렬을 와해시키려 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로동 계급은 제국주의 지배층의 이러한 간계와 음모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 정책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여야 한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완전한 독립에 대한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계급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이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며 또한 자기 자신의 계급적 해방을 앞당기는 길이다.

자본주의 국가 공산당들은 이러한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지배층에 추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하여 혁명 투쟁을 통한 직접적이며 결정적인 지원을 함이 없이는 사실 상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 사이의 혁명적 련대성이란 공담에 불과하다.

엥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타 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 수 없다.》 < 7 >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사회주의 국가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로동 계급이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에 대한 지원을 그 어떤 《부담》으로 생각하거나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이다. 원조를 자랑하기만 좋아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원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 사이의 관계는 항상 호상 지지와 호상 원조의 관계이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의 지원은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의 승리를 용이하게 하여 준다.

다른 한편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은 제국주의에 타격을 줌으로써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준다.

《…로동 계급의 승리와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의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은 혁명적 공동 전선의 형성과 공고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쓰딸린) < 8 >

사회주의 진영을 비롯한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공동 전선—이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제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오늘 반제국주의 공동 전선에서 국제 민주 단체들의 활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제 민주 단체들은 그 산하에 세계의 수억만 근로자들과 진보적 력량을 망라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그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 민주 단체들의 활동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중심 과업의 하나다.

지난날 이 단체들은 이 방면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 이것은 피압박 민족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으로 되였다. 사실 상 피압박 민족들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공고한 평화와 인민들의 행복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일부 사람들은 국제 민주 단체의 활동을 그 본래의 사명과는 딴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 그들은 이 단체들이 반제 투쟁을 포기하며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국제 민주 단체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적 공존과 군비 축소 문제에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조직들을 혼란시키며 분렬시키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이 단체들의 회의 연단에서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목소리조차 울려 나오지 못 하도록 한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면 부르죠아지들을 놀라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과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과 단결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이 강대한 동맹군을 잃어 버리면서라도 부르죠아 상층부와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지배층과의 타협과 결탁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그들은 국제 민주 단체들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기구로부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을 미화하고 그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인민들의 투지를 마비시키는 부르죠아 평화주의 단체로 전락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국제 민주 단체들은 결코 그 본래 사명에서 물러 서서는 아니 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분렬주의적이며 투항주의적인 행동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며 반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 인민들의 공통적 처지와 공통적 목적은 이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을 위하여 굳게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공동의 원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때에 제국주의를 궁지에 몰아 넣고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민족적 해방을 달성하며 쟁취한 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주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공동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정부들 사이에서, 직업 별 단체들 사이에서 련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회의들을 소집하며 공동 투쟁 기구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호상 투쟁 경험을 교환하고 공동 투쟁 방침을 세우며 호상 지지와 협조를 더욱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 관계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피압박 민족들의 권리와 요구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제 로동 계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 평화 옹호 운동을 강화하는 길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 지역 인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려는 이러한 노력도 맹렬히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각 사회계 대표들이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 대책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 회의를 가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활동을 《반제 투쟁이라기보다도》 《지리적》, 《인종주의적》인 《폐쇄적 행동》이라고 중상 비방하고 있다.

얼마나 괴이한 론법인가.

맑스-레닌주의자라면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 오르고 있는 것을 그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응당 이를 기뻐하며 적극 지원하여 세계 혁명을 더욱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이 지역 인민들의 단합된 국제적 활동이 반제 투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특권을 보존하기 위한 수법의 하나로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남아 있는 종족적, 종교적 차이 기타를 리용하여 이 지역에서 인위적인 알륵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아세아에서는 아세아 사람들끼리,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 하고 있다.

이 지역 인민들이 국제 회의들과 통일적인 공동 기구들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침략 책동에 공동으로 대처할 방도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인종주의》니 《지리적》이니 하는 터무니 없는 구실을 붙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위한 활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 인민들을 호상 리간시키고 반목시키려는 제국주의의 정책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력사적인 반둥 회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세계 평화 위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미 조직되여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는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위한 공동 조직을 반대할 하등의 근거도 없다.

요컨대 일부 사람들이 이 지역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반대하는 진의도는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의 불'길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 있으며 근본적으로 혁명을 싫어하는 데 있다.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비롯한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

주의를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기본 담보라고 확신한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굳게 단결하여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 ⁂

오늘날 수정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민족 해방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다. 그들은 지금 각 나라 로동 계급의 당들을 분렬시키고 파괴하는 길에 들어 서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 당의 권위를 악용하여 각국 당들에 수정주의를 내리먹여 그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당들은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옳은 방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남의 당 내부 문제에 되는 대로 간섭하며 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들은 일련의 당들에서 견실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을 배척하며 이들을 당 대렬에서 제거하는 일대 소동을 벌려 놓고 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자기들의 수정주의를 부식하고 합리화하는 데 악용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지시와 강요에 따라 일부 당들에서는 맑스-레닌주의자들의 혁명적 활동을 억제하며 그들에게 《종파주의》, 《분렬주의》 등 온갖 사상적 감투를 씌워 박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을 당 대렬에서 부당하게도 내쫓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상 각국 당들을 분렬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당을 공고히 하는 혁명적인 조직 원칙이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에서 당 대렬을 강화하며 당의 전투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이 수정주의자들에 의하여 도리여 당을 분렬시키며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당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당들에서 부당하게 축출 당한 견실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단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새로운 공산주의적 조직들을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맑스-레닌주의와 세계 혁명의 운동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로 발전하였다.

의견 상이 문제를 어물어물 그대로 넘어 간다면 그것은 수정주의를 더욱 조장시키여 세계 혁명의 위업에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견 상이 문제의 해결을 그 어떤 《시간의 흐름》에 자연 발생적으로 내어 맡겨 둘 수는 없다고 인정한다. 혁명의 리익은 투쟁하는 인민들의 대렬에 맑스-레닌주의와 대치되는 어떤 사상이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국제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투쟁 대렬 내에 수정주의가 퍼지는 것을 한시라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수정주의와의 투쟁을 끝까지 진행하여야 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옳고 그른 것을 명백히 갈라내야 한다. 당 대렬에서 수정주의를 철저히 청산하고 당을 맑스-레닌주의 기초 우에서 혁명적으로 꾸려야 한다. 그래야만 혁명 투쟁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보장하며 전진을 할 수 있다.

수정주의는 파산을 면할 수 없다.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견실한 투쟁을 통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맑스-레닌주의의 기초 우에서 새로운 위대한 단

결을 이룩할 것이며 승리할 것이다.

각국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일치하게 합의한 행동의 지침인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과 성명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 같이 맑스-레닌주의와 그리고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의 통일 단결을 고수하여야 한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하자.

* *

<1>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0년 판, 37 페지

<2> 레닌 전집 제 21 권, 407 페지

<3> 쓰딸린 저작집 제 7 권, 191 페지

<4> 인민 군대 내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35 페지

<5>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60 페지

<6> 레닌 전집 제 32 권, 629 페지

<7> 맑스 엥겔스 전집 제 2 판 제 18 권, 509 페지

<8> 쓰딸린 저작집 제 6 권, 200 페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과 사회주의 건설

—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 현지 지도 4 주년에 제하여 —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에 대한 현지 지도가 있은 때로부터 4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창조와 변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더 힘 있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청산리 교시 이후의 4 년 간은 당 사업에서와 국가,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 난 시기였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당 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 왔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이 높아지고 당의 핵심 진지가 공고화되였으며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이 제고되였다.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는 세포에 이르기까지 거침 없이 관통되게 되였으며 당 조직은 당원을, 당원은 군중을 발동하는 정연한 체계가 확립되였다.

전 당에 당적 사상 체계가 확고하게 수립되고 모든 사업에서 주체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상하가 기맥이 상통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나감으로써 사업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결속시키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천리마 운동,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길 확실, 리 신자와 같은 공산주의적 교양자의 대렬이 급속히 확대되고 인간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게 되였으며 도처에서 공산주의적 미풍이 만발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의 개선— 이것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가져 온 또 하나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 4 년 간에 우리 당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경제 지도에 적용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지도에서 절실하게 제기되였던 경리 운영 문제를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적응하게 능숙히 해결하였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화 사업을 비롯한 사회주의 경리 운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일'군들의 사업 능력이 훨씬 높아졌다.

특히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창설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 가 하부 일'군들을 도와 주는 원칙, 생산에 대한 통일

적인 기술적 지도를 보장하며 필요한 물질적 수단들을 우로부터 아래에 공급해 주는 원칙이 구현되였으며 생산자 대중을 직접 기업 관리에 광범히 참가시킬 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정치적 열성이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생산에서 집단적인 양양이 일어났다.

인민 경제의 자립성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이 급속히 촉진되였으며 보다 유족하고, 보다 문명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공업 총생산액은 1960～1963 년간에 1.7 배로 장성하였다. 중공업이 더욱 정비 보강되고 그것이 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에 더 잘 복무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공업은 경제 발전과 기술 혁명 수행에 필요한 많은 종류의 대형 기계, 정밀 기계들을 만들고 있으며 더 좋고, 더 많은 인민 소비품들을 생산하게 되였다.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휘되게 되였으며 우리의 농업 생산은 사회주의 경제 법칙에 따라 확고하게 부단히 장성하게 되였다. 기후 조건이 불리하였으나 지난해에도 알곡 500만 톤 고지를 더욱 공고화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농촌에서의 기계화, 전기화, 수리화, 화학화도 급속히 촉진되고 있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빛나는 구현—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방법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온 우리 당 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다.

당 사업 방법으로서의 청산리 방법

청산리 방법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 기간에 걸쳐 견지되여야 할 당 사업 원칙이다.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면 될수록 청산리 방법은 더 폭 넓게, 더욱 깊이 관철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 방법은 군중 로선에 기초하고 있다.

군중 로선에 기초한 령도 방법은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조건 하에서 비로소 전 사회적 범위에서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며 또 이러한 령도 방법을 철저히 관철할 때에만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군중 로선에 기초한 혁명적 사업 방법은 일찌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확립되였으며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것은 더욱 풍부화되고 발전되였다. 이것이 바로 청산리 방법이다.

그러므로 청산리 방법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확립된 혁명적 사업 방법이 사회주의의 조건에 적응하게 개화 발전된 것이라고 말한다.

청산리 방법은 우리 당의 수중에 장악된 사회주의 건설 촉진의 강유력한 무기이다.

《청산리 방법의 기본은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지도 일'군들이 대중 속에 들어 가 사람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1961년 2월 6일,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청산리 방법은

첫째로, 일상적으로 하부에 내려 가 아래 일'군들과 군중을 구체적으로 도와 주며,

둘째로,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세째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모범을 창조하여 일반화하며,

네째로, 일체의 지도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 고리를 포착하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청산리 방법의 이러한 요구들을 구현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당은 이 요구들을 철저히 관철할 때에라야만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힘있게 불러 일으키고 그들의 지혜와 힘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는 투쟁에 남김 없이 동원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력사적 과업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행정에서 청산리 방법은 국가, 경제, 문화 등 모든 기관들과 모든 지도 일'군들의 사업에서 례외 없이 견지되여야 할 원칙으로 된다.

국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 매개 단위, 전체 지도 일'군들의 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것은 사회주의 건설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며 그것을 주동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는 행정은 력사 발전에서 주관적 요인의 역할이 부단히 증대되는 과정이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확립은 벌써 사회 발전에서 주관적 요인의 역할을 전례 없이 제고시킨다. 생산 수단이 사'적 소유로 되여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 맹목성이 전 사회를 지배하며 사회의 경제 법칙이 주로 대중의 자연 발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작용하게 되는 것과는 반대로 사회주의 하에서는 인간의 능동성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사회적 법칙들은 인간의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작용하게 되며 인간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리용되게 된다.

그것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확립됨으로써 전체 사회, 그의 모든 성원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리해관계와 목적을 가지게 되며 그들의 주관적인 지향이 객관적 법칙의 작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주의 하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앞날을 과학적으로 예견하면서 자기의 력사를 창조하게 되며 사회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사회주의는 바로 착취자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광범한 근로 대중의 이러한 의식적인 활동에 의해 건설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주관적 요인, 당과 로동 계급 그리고 전체 광범한 근로 대중의 의식적 활동이다.

이것은 물론 사회주의 조건에서 우연성, 맹목성의 온갖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정도로 남아 있게 되며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이 가일층 진척됨에 따라 그것은 점차 적어지게 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면 될수록 사회가 더욱 조직화되고 생산이 고도로 사회화되며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장비가 더욱 제고되는 조건에서 주관적 요인의 역할, 의식성의 의의는 더욱더 높아지게 되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필연적으로 대중들에 대한 지도에서 행정적 및 강제적 방법이 점차 뒤로 물러 나게 하며 근로자들의 의식성과 자각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이게 하는 해설과 설복에 의한 당적 방법을 전면에 나서게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는 객관적 과정 자체가 결국 고유한 의미에서의 당 사업 방법인 청산리 방법이 국가, 경제, 문화 등 모든 기관의 사업에 더욱 일반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청산리 방법을 일반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발전하는 현실에 상응하게 모든 부문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근절하고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켰으며 모든 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화시켰다.

우리 나라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전면적으로 관철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우리 당이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에 대한 당 위원회들의 《키잡이》 역할을 제고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에서 당과 그의 인전대들과의 호상 관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면서 모든 사업 단위들에서 최고 지도 기관으로서의 당 위원회들이 키잡이 역할을 옳게 수행할 데 대한 전면적인 해명을 주었다.

당 위원회들의 키잡이 역할이 제고되는 행정에서 혁명 과업 수행에 대한 그의 방향 상 지도와 집행에 대한 장악이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행정 기관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이것은 당이 행정을 대행하거나 또는 행정의 뒤꼬리를 좇아 다니는 것과 같은 현상을 근본적으로 청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모든 부문에서, 당 내부 사업에서,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의 사업에서, 이 기관들에 대한 당의 지도에서 전면적으로 구현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창조적 열의가 들끓고 계속 혁신이 일어 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당의 정치적 령도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당 기관들을 행정화하고, 당의 정치적 령도를 행정적 방법으로 대치시키는 것은 당의 령도의 본질을 외곡하며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하시키는 결과 밖에

가져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가지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로 대중의 창발성과 자각적 열성을 고도로 발양시킬 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자각적 규률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당 대렬의 조직 사상적 강화와 그의 전투력의 부단한 제고, 혁명 진지의 가일층의 공고화—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일 데 대한 중요한 문제를 현명하게 그리고 정확히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이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으며 그것을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제 관리에 구현된 청산리 방법

경제에 대한 관리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은 매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이후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중심적인 문제이다.

당은 나라의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과 수립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상응하게 경제 관리 운영을 부단히 완성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 형태를 창조하여야 한다.

관리 운영을 어떻게 완성하는가 하는데 따라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문제가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사회주의적 관리 운영 문제 해결에서의 기본은 바로 생산자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근로 대중의 정치적 열성과 생산 의욕을 높이고 그들의 창조력을 고도로 발동시키는 사업을 떠나서 생산 장성의 기본 방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물론 경제 관리 운영에는 많은 사업들이 포괄되고 있다. 인민 경제 발전의 계획화, 생산 및 로력 조직, 물질적 및 기술적 수단들의 보장, 사회주의적 분배 등이 모두 그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경제 관리 운영의 종국적 목적인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 운영 체계와 방법에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관리의 모든 사업들이 근로자들의 정치적 열성과 생산 의욕을 제고시키는 데로 결정적으로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자들의 정치적 열성과 생산 의욕이 고도로 앙양될 때 그들의 창발성과 재능은 최대한으로 발휘되고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이 다 동원되게 되며 생산은 급속히 장성하게 된다.

더우기 관리 운영의 모든 사업들은 생산에 대한 근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들이 생산 관리에 직접 참가하게 될 때 훌륭히 개선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 관리에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문제는 바로 청산리 방법의 기본 요구를 관리 운영 체계에 구현함으로써 훌륭히 실현되게 되였다.

우리 당이 창조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공업 및 농업에 대한 지도에서 청산리 방법의 연장이며 그의 구현이다.

새로운 지도 체계 하에서는 우선 우로부터 통일적인 지도가 아래에 관통되여 대중 속 깊이 침투되게 되였다.

우로부터의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 이것은 근로자들의 창발성을 높이며 그들의 열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기본 담보이다. 우로부터의 통일적인 지도를 거부하고 경제 지도를 분권화하는 방법으로써는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높일 수 없으며 그들의 생산 의욕을 전면적으로 계발시킬 수 없다. 오직 당의 정책과 유일적인 의지가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여 그들 자신의 것으로 전화될 때 대중은 생산 장성을 위한 지혜와 재능을 남김 없이 발휘하게 되며 창발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지도 체계 하에서는 성, 국들의 지도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까지 침투하게 되였으며 관리 부서들 간의 책임 한계와 분공이 명백히 되고 계획 및 생산 지도와 기술 지도가 유기적으로 통일되게 되였으며 설비, 자재, 후방 공급 물자들을 우에서 아래로 공급하여 주는 원칙이 확립되였다.

이리하여 경제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우에서 제기된 방침과 의도가 밑에까지 관통되게 되였으며 지도 일'군들은 잡다한 업무에서 벗어나 생산 기술 지도에 역량을 집중하며 군중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그들의 자각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생산자들은 생산에서 떨어짐이 없이 자기의 열성과 능력, 지혜를 남김 없이 발휘할 수 있게 되였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지도 체계 하에서는 또한 생산자 대중을 경제 관리에 광범히 참가시키는, 공산주의적 과업에 속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성과 있게 해결되게 되였다.

근로자 대중을 경제 관리에 자각적으로 인입하는 문제는 명령이나 지시 등과 같은 행정적 방법에 의해서는 옳게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사람들을 해석과 설복의 방법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는 당적 지도를 강화함으로써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 하에서는 바로 당의 령도적 역할이 결정적으로 제고됨으로써 대중이 작업반 및 공장이나 농장의 전반적인 생산 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돌리며 관리 운영 사업에 자각적으로 광범히 참가하게 되였다. 공장, 기업소와 농장들에서 계획화, 설비 관리, 계산, 정량, 제품 검사, 사회주의적 분배 등과 같은 기업 관리 사업들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화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경제 관리의 기본 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군중 로선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 운영 체계가 창조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에 의하여 수립된 새로운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청산리 방법이 경제 관리 운영 체계에 구현된 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위대한 힘으로 되고 있다.

경제 관리에 구현된 청산리 방법의 위대한 [illegible]에 비하여 [illegible] 건설은 100%,

강철은 105%로 기한 전에 초과 수행한 검책 제철소와 지난해 불리한 자연 조건에도 불구하고 군적으로 알곡 정당 수확고를 1962년에 비하여 890 키로 그람이나 더 높인 숙천군의 획기적인 성과들과 오늘 전국 도처에서 일어 나고 있는 혁신들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며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를 계속 심화 발전시키는 여기에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보람찬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주요한 담보가 있다.

청산리 방법의 관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우리는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모든 부문의 사업 방법을 당적 사업 방법으로 전환시켰으며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후 기본 문제로 제기되였던 관리 운영 문제도 성과 있게 해결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4 년 간의 력사적 경험은 청산리 방법을 더욱 튼튼히 틀어 쥐고 더 잘 관철하는 것이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더한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급속히 추진시키며 혁명 기지를 반석 같이 꾸리는 최고한 담보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하고 7 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켜야 할 어려운 혁명 임무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나서고 있는 이러한 혁명 임무는 오직 각급 당 조직들과 모든 지도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하부에 내려 가 아래 일'군들을 도와 주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혁명적 사업 방법,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할 때에비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청산리 방법을 관철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시, 군 당 위원회까지 포함한 우리 당의 초급 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다.

초급 진지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 속에 침투시키고 그를 직접 집행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실현하는 거점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초소를 담당하고 있다.

초급 진지를 조직 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전투력을 높임이 없이는 군중을 발동시키고 군중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청산리 방법의 기본 요구를 실지적으로 관철할 수 없다.

특히 초급 진지가 모든 부문의 초소를 담당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를 전반적으로 강화함이 없이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 걸쳐 청산리 방법을 관철시킬 수 없다.

초급 간부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는 것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청산리 방법을 관철함에 있어서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 잡는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청산리 방법은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체현한 혁명적인 사업 방법이다. 따

리서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 군중적 사업 작풍을 떠나서는 그의 관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작풍 문제는 군중과 일상적으로 사업하며 생활하고 있는 초급 일'군들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일'군들이 주관적으로는 군중 속에 들어 가서 그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많은 경우 사업 작풍 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풍을 바로 잡는 것은 모든 사업에 착수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청산리 방법의 정확한 관철도 실은 여기에 크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개선하는 것은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사상 관점에 관한 문제이며 이것은 일'군들의 당적 수양을 떠나서는 해결될 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오직 일상적인 당 생활과 자체 수양을 통하여 자기를 부단히 완성해 나감으로써만 겸손하고 순박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하는 군중적 사업 작풍을 소유할 수 있으며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다.

청산리 방법을 관철함에 있어서 또한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인 령도 방법은 그에 상응한 높은 사업 능력을 요구한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하여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쓸모 없는 것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산리 방법도 그것을 능숙하게 적용할 줄 알도록 일'군들이 준비되여 있지 못할 때는 결코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특히는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경제 기술 지식과 높은 일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모든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고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전반적 지식을 소유하게 될 때에라야만 현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분석 종합하고 그에 기초한 과학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며 군중을 더 잘 조직 동원할 수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행정에는 뜻하지 않았던 난관도 있을 수 있고 애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과 함께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는 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가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청산리 방법이 있다.

당의 령도 하에 청산리 방법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아갈 때 조선 인민은 반드시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하게 될 것이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혁명 운동과 전통 계승 문제

전 진 균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혁명 운동에서 전통 계승 문제를 항상 중요시하였으며 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영예로운 임무로 간주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신이 창시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론이 과거의 사회주의 리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과거 사회주의 리론의 계승이며 발전이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엥겔스는 《반듀링론》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리론의 근원에 대하여 쓰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것은 처음에는 다만 18 세기의 위대한 불란서 계몽 학자들에 의하여 제창된 제 원칙의 가일층의, 이를 테면, 보다 철저한 발전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온갖 새로운 리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도, 그 뿌리는 비록 깊이 〈물질적〉 경제적 사실 가운데 박혀 있다 하더라도, 우선 종래 축적되여 온 사상적 재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18 페지)

현대의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도 그것은 과거 운동의 연장이며, 계승이며, 발전인 것이다. 과거의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제쳐 놓고 오늘의 공산주의 운동을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오늘의 투쟁을 떠나서 미래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종전의 공산주의 운동의 빛나는 결실이며 제국주의 시대에 와서 맑스, 엥겔스의 리론을 고수하고 발전시킨 레닌의 사상의 승리이다.

그 후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구라파와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10월 혁명의 연장이며 그의 계승 발전이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승리적 전진은 모두 국제적 령역에서와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 운동의 력사적 전통의 계승 발전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도 바로 과거의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결과이다. 우리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1930 년대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투쟁과 그 행정에서 이룩된 혁명 전통을 떠나서 오늘의 사회주의적 발전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항일 빨찌산들이 이룩한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음으로써만 18 년이라는 짧은 력사적 기간에, 3 년간의 가혹한 전쟁의 피해를 겪고서도 오늘과 같은 부강한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조선 혁명은 수입해 온 것이 아니다 …과거부터 공산주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조선 혁명이 있다.

항일 투쟁에서 단련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없었더라면 해방 후에 우리 당을 창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민주주의적 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507 페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매개 나라 혁명 운동에서 하나의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로 된다.

* *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매개 나라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전통에서 배우는 동시에 반드시 자체의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혁명 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옳바로 잡으며 혁명 력량의 결속과 전투력을 강화하며, 이리 하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보장하는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것은 우선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문제이다.

공산주의 운동의 혁명 전통은 국제적 명역에서나 매개 민족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맑스주의, 레닌주의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전통이며 온갖 기회주의적 조류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승리의 전통이다. 혁명 운동, 공산주의 운동은 반드시 반맑스주의적, 기회주의적 경향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전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의 위업이 그러했으며 레닌, 쓰딸린의 위업,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10월 혁명과 그 후 사회주의 승리의 로정이 그러하였으며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현실이 또한 그러하다.

1920 년대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는 처음부터 개량주의, 종파주의와의 투쟁의 력사였다.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은 바로 종파주의, 개량주의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의 승리의 결과로서 형성되고 공고화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그것이 정당하며 진리이기 때문에 전능하다. 반맑스주의적, 반레닌주의적 기회주의 조류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아무리 득세하고 혁명을 좀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혁명 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매개 나라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전통은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의 전통이다.

그러므로 혁명 전통을 계승하며 고수하는 것은 공산주의 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 립장을 고수하는 문제로

되며 그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문제로 된다.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이 없이 혁명을 올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 수 없으며 발전시킬 수 없다

혁명 전통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맑스-레닌주의 원칙에서 물러 서는 것이며 공산주의 운동의 길에서 벗어 나 옆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의 지나 간 영광스러운 시기를 그 어떤 《암흑의 시기》로 묘사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실지에 있어서 혁명의 전통,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다. 혁명 전통을 거부하면서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을 고수할 수는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응당 이러한 태도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고수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혁명 전통을 고수하며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것은 또한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주체성을 견지하는 문제이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주체성의 립장 즉 맑스-레닌주의 일반 원칙을 자체의 민족적, 력사적 제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주체적 력량에 최대한으로 의거하는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 이것은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문제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는 어디서나 적용되여야 하는 혁명 운동의 일반적 지침이다. 그것은 각이한 나라들의 혁명적 실천에서 구체화되면서 환경,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적합하게 적용되며 거기에 각이한 색깔이 붙는다. 이리하여 매개 나라 혁명 전통에는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도덕과 전략 전술 원칙들이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체현된다.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의 혁명 전통을 이루는 사상 체계, 투쟁 정신, 투쟁 업적과 경험은 본질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적이고 프로레타리아적인 동시에 민족적 특성을 띠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상과 투쟁 정신, 투쟁 경험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곧 소여 나라의 혁명 문제를 실정에 가장 적합하게 해결하며, 자체의 력량을 가장 잘 발동시켜 혁명을 최대한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길이다.

일제 식민지 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류례 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 속에서 이룩된 항일 빨찌산들의 사상 체계와 투쟁 정신, 투쟁 경험에는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로 되는 자력 갱생과 군중 로선,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통 제 원칙이 가장 철저하게 구현되여 있다. 이러한 전통은 해방 후 새 조국 건설 행정에서 더욱더 개화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혁명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주체성 있게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매개 나라의 혁명 전통에는 자체의 민족적, 사회적 형편에 가장 적응한 사상 체계, 투쟁 정신과 경험이 체현되여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자체의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이 없이는 주체성의 립장에서 자기 인

민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혁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 수행에서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주체성의 립장을 고수하는 길이다.

자체의 힘을 믿지 않으며 자기 나라의 혁명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살릴 줄 모르며 남만 쳐다 보고 그 장단에 춤을 추는 사람들은 남이 하는 수정주의마저 무조건적으로 받아 들임으로써 교조주의도 수정주의도 동시에 범하고 있으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배반하고 혁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는 결정적으로 배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여야 한다.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것은 또한 당을 강화하고 혁명 력량을 꾸리며 그의 전투력을 높이는 문제이다.

혁명 투쟁 행정에서 이룩되는 전통—혁명적 사상, 업적, 경험들은 당의 뿌리다. 이 뿌리를 고수하고 왕성하게 자래우는 것은 거기에서 솟아 난 당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믿음직한 길이다.

따라서 당을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것, 선행한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우수한 것들을 이어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 전통을 옳게 계승 발전시킴으로써만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대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울 수 있으며 혁명 력량을 반석같이 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당원들과 대중을 혁명 전통의 정신과 경험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당원들과 대중을 당적 사상, 혁명 전통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때에만 당 대렬을 공고히 하고 대중을 당의 주위에 굳게 집속시킬 수 있으며 당에 대한 그들의 충실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 전통의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전 당과 인민의 사상 의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당과 혁명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또한 혁명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선렬들이 과거 혁명 투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할 수 있으며 매개 사람들에게 열렬한 애국심과 혁명적 투지를 북돋아 줄 수 있다.》 (김 일성 선집 제 5 권, 508 페지)

혁명 운동의 전통을 무시하면서 당을 강화 발전시킨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혁명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당의 뿌리를 잘라 버리고 당을 변색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 전통, 혁명 선배들이 이룩한 투쟁 정신과 경험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데 관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상 당 대렬을 강화하고 그의 전투력을 제고하며 대중을 혁명 력량으로 꾸릴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혁명 전통을 계승한다 할 때 이는 혁명의 령도 핵심을 보위하는 문제와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혁명의 령도 핵심이 형성되는 과정은 곧 혁명의 전통이 이룩되는 과정이다. 령도 핵심은 계급과 대중의 오랜 투쟁

행정에서, 그 투쟁 자체의 요구에 따라, 그 투쟁 력량 속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령도 핵심은 그 어떤 개인의 의사나 선거에 의하여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다.

령도 핵심에 대한 태도 문제는 혁명 전통에 대한 태도 문제로 되며 혁명에 대한 태도 문제로 된다.

혁명의 운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 여부는 당의 령도적 역할 여하에 의존하며 당의 령도는 령도 핵심의 역할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령도 핵심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되며 령도 핵심을 보위하는 것은 곧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것으로 되며 혁명 승리의 주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의 령도 핵심에 대한 전 당과 전체 우리 인민의 충실성과 헌신성—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혁명 전통, 령도 핵심을 존중하며 고수하는 것은 비단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한 문제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혁명적 의리의 문제이며 공산주의적 도덕의 문제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따라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위해 피흘리고 목숨 바친 혁명 선배들과 그들의 업적을 무한히 존중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이다.

혁명 선배들—그들은 오직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피압박 대중의 영원한 해방을 위하여, 바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의 투쟁과 희생이 있은 덕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의 사업과 성과가 있다.

혁명 선배들과 혁명 동지들, 더우기 혁명의 령도 핵심에 대한 경건한 태도, 사랑과 존경—이것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적 인간성으로부터 자연 필연적으로 우러 나오는, 가장 아름답고 진실하고 성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혁명적 의리라고 말한다. 혁명적 의리—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류의 해방이라는 숭고한 목적 밑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투쟁 행정에서 형성되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 관계의 반영이다. 이것은 오직 프로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들에게만 고유한 것이다.

맑스주의 창시자들은 이러한 도덕의 원리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몸소 그 모범을 보여 주었다. 맑스와 엥겔스의 우의와 의리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이였지만 엥겔스는 자기들의 학설의 창시자의 영예를 전적으로 맑스에게만 돌리였다. 엥겔스는 맑스의 필생의 사업이던 자본론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여생에 그것을 채 마치지 못 할가봐 제일 걱정하였다.

맑스와 엥겔스, 레닌, 쓰딸린을 비롯

하여 전 세계 공산주의 투사들이 보여준 혁명적 의리는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됨으로써 그 어떤 환경에서도 서로 돕고 이끌면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힘과 용기와 신심을 얻어 낸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이것을 떠나서 공산주의자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 속에서는 배은망덕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없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소위 《개인 미신을 반대한다》는 소동을 일으키면서 과거의 혁명 업적을 말살하며고 회책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 도덕, 혁명적 의리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것이다.

모든 나라 로동 계급과 진실한 공산주의자들, 혁명적 인민들은 이러한 행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혁명 전통—이것은 귀중하고도 성스러운 것이다. 혁명 운동의 전통을 부인하면서 혁명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환상이며 기만이다. 혁명 전통을 거부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도덕에 위반된다.

혁명 전통, 혁명의 령도 핵심에 대한 허무주의적, 배신적 태도는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대로에서 물러 선, 그 어떤 다른 《전통》을 내세우려는 이단적 태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수정주의자들은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혁명의 전통을 결코 말살할 수 없다. 그것은 력사의 흐름과 함께 부단히 계승 발전될 것이며 매개 나라들에서와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줄기차게 뻗어 나갈 것이다.

* *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혁명 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계승하며 혁명 발전의 매개 단계에 적응하게 더욱 개화 발전시키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러한 원칙적 립장에 서서, 혁명 전통을 부정하는 온갖 시도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였으며 우리의 혁명 전통, 특히 1930 년대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이룩된 공산주의적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당은 항일 빨찌산 투쟁 행정에서 준비된 력량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되였으며 국가 건설, 인민 무력 건설도 바로 빨찌산들을 핵심으로 하여 실현되였다.

당은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이루어진 혁명적 업적과 경험에 기초하여 제반 민주 개혁과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을 제시하였고 해결하였다.

당은 우리 혁명을 령도함에 있어서 해방 후 민주 혁명 시기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과거 빨찌산 투쟁 시기에 축적된 경험에서 배우는 립장을 견지하였다.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 대중에 대한 혁명 전통 교양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

하고 있다.

이리 하여 당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혁명 전통의 계승 문제와 밀접히 결부시켰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 전통 교양이 공산주의 교양, 계급 교양과 통일되여 있으며 그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

혁명 전통 교양은 참으로 우리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당적 사상 체계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위력한 수단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항일 빨찌산 투쟁의 간고한 로정과 해방 후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의 력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로정에서 언제나 우리 인민의 진두에 서서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해 온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굳건히 뭉치여 있으며 그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당과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살고 일하며 항일의 선렬들이 한 것처럼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헤아림이 없이 어떠한 난관이라도 뚫고 나아가는 높은 혁명적 정신과 기개를 떨치고 있다.

항일의 붉은 정신을 이어 받은 근로 대중의 이와 같은 혁명적 정신과 기개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천리마의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항일의 혁명 전통은 우리 시대에 와서 자기의 결실을 보고 있으며 개화 만발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혁명 승리와 조국의 륭성 발전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는 종국적으로 매장되고야 말 것이다

리 구 호

…그대는 《암흑》의
　　땅으로 알려지고
그대는 《폭행》과 《빈궁》의
　　나라로 불리였거니
원쑤들은 그대를 무덤으로
　　만들려고 발악한다.
허나,
이제 그대는 일떠서리라
　　기쁨의 락원으로,
　　자유의 변강으로
　　…

아프리카의 한 진보적 시인은 이렇게 웨쳤다. 이것은 한 시인의 웨침만이 아니다. 2억 6천만의 아프리카 인민들은 신 구 식민주의자들의 쇠롱을 쫄타 매고 그들의 마수를 꺾어 버리며 자유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격렬한 투쟁에 일떠서고 있다.

이 투쟁 속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전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고 있다.

아직 독립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제국주의 마수가 다시 뻗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식민주의자들의 철쇄를 분쇄하기 위한 무장 투쟁이 더욱더 세차게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나라들에서는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경제적 및 군사적 면에서 식민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치렬히 벌어지고 있다.

투쟁의 불'길 속에서 최근 2 년 간에만 하여도 6 개의 독립 국가들이 출현하였는바 1962년에는 알제리아 인민들이 불란서 제국주의자들과의 7 년 반의 영웅적 무장 투쟁을 거쳐 민족적 독립을 달성한 것을 비롯하여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가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작년에는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케니아와 잔지바르가 장기간의 영국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되였고 영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작되였던 《중앙 아프리카 련방》이 해체되였으며 영령 잠비아에서 내부 자치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이리 하여 제 2 차 대전 전에는 독립 국가가 단 4 개에 불과하던 아프리카에 지금은 35 개의 나라들이 이러저러한 정도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였다.

물론 적지 않은 독립 국가들이 식민주의자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예속 하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 나라 인민들이 각종 형태의 식민지적 압박과 착취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간고한 투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식민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이미 달성한 빛나는 승리는 아프리카의 새 력사 창조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또한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의 식민지 체계를 종식시키고 제국주의 후방을 축소시키며 국제 자본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제국주의 멸망의 가일층의 촉진과 세계 평화의 보장에 거대한 영향을 준다.

투쟁의 격류 속에서

제 2 차 대전 이후 치렬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아프리카의 면모가 크게 개변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니아살랜드, 남북 로데시아, 서남 아프리카 등 24 개의 나라들이 식민지 철쇄에서 벗어 나지 못 하고 있으며 명목 상의 정치적 독립은 달성하였으나 적지 않은 나라들이 여전히 식민지적 예속 하에 있다.

아직 독립을 달성하지 못 한 나라들은 주로 아프리카의 동부,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오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식민지 인민들의 투쟁에서 무장 투쟁은 그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이 민족적 해방과 독립에 대한 사소한 념원에 대해서도 야수적인 폭압으로써 대답하며 원쑤들이 발끝까지 무장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인민들의 해방과 독립, 자유의 유일한 길은 오직 손에 무장을 튼튼히 틀어 잡고 원쑤들과 가장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인민들은 장기간에 걸치는 압제자들과의 크고 작은 수 많은 전투들을 통하여 각성되였으며 자기의 투쟁 방법을 발견하였다. 최근 년간 식민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달성한 빛나는 승리의 하나 하나가 바로 무장 투쟁을 비롯한 치렬한 투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영웅적 알제리아 인민의 무장 투쟁에 고무된 앙골라 인민은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용감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무장 투쟁 과정에서 앙골라 인민 무장대의 력량은 초기의 수십 명으로부터 오늘은 3만 명으로 장성하였으며 간악한 침입자들을 련속 소탕하면서 자기들의 활동 범위를 전국 13 개 주 중 9 개 주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포도아령 기니아 인민 유격대는 남부의 중요한 지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북부의 수림 지대에 유격 투쟁 근거지를 창설하고 제국주의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유격대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식민지 당국은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으며 식민주의 군대는 불과 몇 개 도시들을 겨우 통제하고 있을 뿐이다.

무장 투쟁의 불'길은 남북 로데시아, 니아살랜드, 모잠비크, 스위질랜드 등 나라들에서도 세차게 전개되고 있다.

인종 차별이 우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주의자들과 그 괴뢰들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최근의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콩고에서도 아둘라 도당을 반대하는 무장 부대가 광범한 지역에서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바 괴뢰 당국은 이에 당황하여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다고 한다.

자주적인 발전을 지향하며 외래 간섭자들을 반대하는 길에서 달성한 잔지바르 인민의 승리, 영국 장교들을 축출하기 위한 탄가니카, 우간다, 케니아 병사들의 폭동 등은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처럼 아프리카에서 무장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독립을 스스로 《선사》하지 않으며 식민지 리권을 위하여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탄압에 혈안이 되고 있는 조건에서 무장 투쟁은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필연적 귀결로 된다.

경험은 오직 식민지 인민들이 손에 무장을 틀어 잡고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싸울 때만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를 분쇄하고 독립도, 자유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공담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은 식민주의자들의 척추를 꺾어 버리기 위한 단호한 투쟁, 무장 투쟁을 적극 지지할 대신에 온갖 구실을 붙여 가면서 이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들과 기타 온갖 기회를 리용하여 식민주의자들의 폭압과 략탈을 당하고 있는 인민들에게 《평화적 공존》, 《군비 철폐》를 내려 먹이려 하며 그것이 아프리카 인민들의 당면한 선차적 과업이라고 떠들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아프리카 인민들의 무장 투쟁이 인류를 멸망케 하는 핵 전쟁의 《불씨》로 된다고 하면서 아프리카 인민들을 투쟁에서 물러 서게 하려고 협박 공갈하고 있다.

식민지 예속 하에 있는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식민주의자들과의 《평화적 공존》을 설교하며 《군비 철폐》에 대하여 떠드는 사람들의 잠꼬대 같은 《리론》이 싸우는 아프리카 인민들의 랭소를 받고 있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무장 투쟁과 함께 식민지적 폭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파업, 시위, 군중 집회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니아살랜드 인민들은, 《영국인들은 이 땅에서 손을 떼라》는 구호 하에 영국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모잠비크 인민들은 《모잠비크 아프리카인 반제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대중의 행동 통일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의 지도 하에 모잠비크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운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작년 8월 이 나라에서 3,000여 명의 부두 로동자들이 식민지 당국의 전횡을 반대하여 단행한 파업은 식민주의자들의 야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 주일 간이나 계속되였다.

북로데시아, 남아 련방, 서남 아프리카 등 식민지 나라들에서도 반동적 인종 격리 정책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무장 투쟁을 비롯한 각종 투쟁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들로부터 광범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국제적 련합을 형성하고 있는 조건에서 아프리카 인민들은 더욱 단결되고 호상 지지 성원할 때만이 련합된 제국주의 세력을 맞받아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것이다.

1955년에 있었던 반둥 회의 이후 작년 2월 모쉬에서 있었던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회의, 그리고 작년 5월에 있은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회의들에서는 아프리카 식민지 인

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지지 성원하며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호상 협조 등 문제가 토의되였다. 이 회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합된 력량을 시위하였다. 회의 이후 많은 독립 국가들이 국가 예산의 일부를 해방 운동 원조 기금으로 배당하였으며 포도아 식민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정치,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 집단적인 제재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식민지 기반 하에 있는 나라들과 지역들에서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이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식민주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판가리 싸움에서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나라 인민들은 자기의 력사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

이 나라들 앞에는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부식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령역에서 식민지 통치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며 계속 민족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길로 나갈 때만이 아프리카의 독립 국가들은 나라의 락후와 빈궁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자주 독립 국가로서 당당히 발전할 수 있다.

사실 상 아프리카 인민들이 투쟁의 불'길 속에서 달성한 정치적 독립은 민족 해방 혁명의 첫 걸음에 불과한 것이다.

신구 식민주의자들은 오늘 갓 독립한 나라들에서 이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난관을 리용하여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며 달성한 정치적 독립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듦으로써 식민주의의 멍에를 다시 들씌우려 하고 있다.

그들은 《협조》와 《원조》를 표방하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협조》와 《원조》 정책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주로 자체의 자원과 힘에 의거하여 자기의 튼튼한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립 경제를 건설할 때만이 이미 달성한 독립도 공고히 할 수 있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압력도 성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으며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이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완전히 벗어 나며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사회주의 나라들의 원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들에 대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원조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침투를 성과적으로 분쇄하며 이 나라들의 자주적인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주어져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아무런 부대 조건도 없고 허심하고 성의 있는 것이여야 하며 그 어떠한 민족 리기주의적 목적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오늘 아프리카의 많은 독립 국가들이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130여 년 간에 걸친 불란서 식민주의의 지배에서 해방된 알제리아 인민들은 불란서 식민주의자들과 국내 반혁명 세력의 온갖 반항을 물리치면서 민족 회의를 선거하고 새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일련의 경제적 개혁들을 진행하였다.

알제리아 정부는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이 소유하였던 300만 헥타에 달하는 토지와 500여 개의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여 침체되였던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

말리 공화국은 민족 경제 건설에서 부대 조건이 붙는 일체 외국 원조를 배격하고 자국의 힘에 의거하여 국민 경제에 대한 전반적 지배를 확립하고 있다.

소말리, 우간다 및 기타 나라들에서도 식민주의 잔재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는 종국적으로 청산되여야 한다

제 2 차 대전 후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위대한 변화와 민족 해방 투쟁의 빛나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 제도는 아직 완전히 매장되지 않았으며 신 구 식민주의자들은 많은 지역에서 의연히 류혈적 탄압과 강도적 략탈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구 식민주의자들은 앙골라, 포도아령 기니아, 모잠비크 등 식민지 나라들에 무력을 대량적으로 투입하여 피비린내 나는 식민지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남북 로데시아, 니아살랜드, 베쮸아나랜드, 스위질랜드 등 나라들에서 수많은 인민들을 체포 투옥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과거와 같이 로골적이며 직접적인 형태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아프리카의 식민지 나라들에 이러저러한 정도의 정치적 독립을 허여한 후 이 나라들을 각종 방법으로 의연히 예속 상태에 얽어매 두려 하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주요 경제 명맥을 틀어 쥐고 략탈을 강요하고 있으며 독립 국가들의 내정에 공공연하게 간섭하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내란을 도발하며 진보적 정부를 전복하며 신생 독립 국가들 간의 반목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등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작년 9월 알제리아에서 발생된 벤 벨라 정부를 반대하는 베르트족의 무장 반란과 이에 뒤'이어 발생된 알제리아-모로코 국경 충돌 사건 그리고 가나 대통령 느크루마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등은 모두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책동의 일환이다.

특히 신 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는 아프리카에서 저들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악랄한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제는 아프리카에서의 반제 민족 해방 운동의 불을 끄며 붕괴되는 식민지 체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경제적 및 군사적 《원조》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우세한 저들의 경제력에 의거하여 구 식민주의자들의 세력 범위에 대거 침투하고 있다. 《원조》의 미명 하에 실시하는 자본 투자, 《평화군》,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 등이 바로 그러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1960년 현재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은 1943년에 비하여 6 배나 되는 10억 딸라에 달하였다. 미국 독점체들은 아프리카 대륙에 400여 개의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이 대륙에서 4억 딸라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콩고에서 미제는 자기의 침략 도구인 《유엔군》과 아둘라 괴뢰 도당을 리용

하여 영국, 벨기, 불란서 등 구 식민주의자들을 구축하고 자기의 지배를 확립하였다.

제반 사실은 아직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는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신 구 식민주의가 아프리카 인민들의 주되는 위험으로 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민족적 독립도, 사회적 해방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의 변호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 제도가 거의 다 소멸되였다고 말하면서 더는 투쟁할 필요가 없다는듯이 떠들고 있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신 구 식민주의자들의 탐람 및 침략적 본질을 엄폐하며 인민들의 당면한 사회적 및 민족적 문제를 묵살하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식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오직 아프리카 인민들에 대한 《사심 없는 원조》를 줌으로써 공동의 《번영》이 이루어질 것을 바랄 뿐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아프리카의 엄연한 현실에 대하여 눈을 감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에 맞장구를 쳐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무마하며 나아가서는 그를 포기케 하려 하는 것은 피압박 인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저들만 편안히 살려는 것이다.

*　　　*

오늘 아프리카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국제 로동계급의 혁명 투쟁의 일환으로서 제국주의 세력을 배후로부터 타격을 주어 그 력량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와 평화 력량의 강화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될수록 제국주의 침략 세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사회주의와 평화 력량은 더욱 강화된다.

레닌은 지금까지 력사 밖에서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서만 간주되여 오던 식민지 예속 국가의 수억만 인민들의 투쟁이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결합될 때 세계 제국주의는 붕괴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을 비롯한 국제 로동 계급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 성원은 국제 로동 계급의 고상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투쟁의 혁명적 의의를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을 하나의 부담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의 위력이 장성되면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독립도, 자유도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듯이 떠들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론법은 결국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해주는 것이며 식민지 피압박 인민들로 하여금 영원히 제국주의의 노예의 처지를 감수하라는 것이다.

실로 이러한 사람들은 《피와 오물 투성이가 된 제국주의적 군주제와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의 종복》(레닌 전집 제 22 권, 198 페지)외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하

여 왔으며 또 지지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을 자기의 대외 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오늘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력량과 국제 로동 계급 그리고 세계 평화 력량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료원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탄압도,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기만적 책동도 아프리카 인민들의 이 거대한 력사적 조류를 가로막을 수 없다.

아프리카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 속에서 신구 식민주의자들은 종국적으로 매장되고야 말 것이다.

근 로 자 제 3 호 (루계 241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2월 3일 발 행 • 1964년 2월 5일

ㄱ—430076 값 40 전

전 세 계 로 동 자 들 은 단 결 하 라 !

4 호 2 월 20 일

평 양 근 로 자 사 1964

제 4 호 (242)

1964년 2월 (하)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 대하여

박 웅 걸

오늘 우리 문학 예술 부문 '일'군들 앞에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여야 할 과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산주의자의 전형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선 1930년대 항일 투사들을 들게 된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15여 성상이나 계급적 원수를 반대하여 목숨 바쳐 싸워 이긴 불요불굴의 투사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성과 고상한 사상을 지닌 인간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산 모범으로 보여 주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인간 개조 사업에서 혁명 전통 교양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의의는 자못 큰 것이다.

오늘의 천리마 기수들은 누구나 다 항일 유격대원들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 업적과 투쟁 경험, 사상 체계와 혁명 정신, 군중 관점과 사업 작풍을 배우고 있으며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 예술 부문 사업에서 항일 투사들—공산주의자의 전형을 더욱 훌륭히 창조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고 근로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산주의 교양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 근로자들에게 보다 풍부한 정신적 량식을 주며 그들의 사회주의 건설에 보다 큰 고무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위대한 천리마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특히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할 대사변을 앞두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당의 수중에 장악된 강유력한 사상적 무기인 문학 예술은 자기의 형상 수단을 통하여 인민 대중을 더욱 높은 계급적 각성과 보다 철저한 혁명 의식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즉 인민 대중들로 하여금 항일 투사들처럼 살며, 싸우며,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그 고결한 지조를 본받게 하고 조선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각오와 투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하여야 한다.

특히 미제를 배격하고 자주적 힘으로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궐기한 남반부 인민들에게 감옥도, 원수의 총탄도 두려워 하지 않고 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안고 투쟁할 수 있도록 혁명의 씨앗을 뿌려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 것은 또한 오늘의 천리마 현실 자체가 절실하게 제기하는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1958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력사적 환경에서 인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산주의 교양이 일정에 제기되였다. 이 시기 혁명 전통 교양은 근로자들의 의식과 도덕 생활에서 거대한 전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천리마 운동에는 더욱 박차가 가해졌으며 그것은 천리마 대고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천리마 운동이 낳은 우리 시대의 전형인 천리마 기수들은 항일 투사들처럼 살며 일하며 배우는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들이다.

천리마 운동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인간 개조 사업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였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일하는 천리마 기수들의 대렬이 확대되여 나갔다. 이 과정에서 천리마 기수들의 사상 정신 세계는 비상히 높아졌다. 그들은 혁명 전통 교양이 가지는 커다란 힘을 자각하게 되였고 아울러 그에 대한 더욱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게 되였다. 이것은 항일 투사들의 사상 정신적 풍모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할 것을 지향하는 천리마 기수들의 공산주의 수양을 위하여 제기되는 합법칙적 요구이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인민 대중의 보다 높은 요구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김 일성 동지는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전개한 공산주의 투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그들의 숭고한 혁명 정신으로 우리 세대의 인민을 교양하는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계속하여야》(《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91 페지) 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보답하여 우리 문학 예술은 지난 기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장편 소설 《서곡》을 비롯하여 서사시 《백두산》, 《밀림의 력사》 그리고 무대 예술 부문에서는 《밝은 태양 아래》, 《밀림아 이야기하라》, 《해바라기》(1, 2 부), 《조국 산천에 안개 개인다》, 《붉은 기'발》 등이 창작되였다. 영화 부문에서도 기록 영화 《김 일성 원수 항일 유적 전적지》, 예술 영화 《미래를 사랑하라》, 《벗들이여, 우리와 함께 가자!》, 《애국자》 등 성과적인 작품들이 나왔다.

이러한 작품들이 거의 모두가 1959년 이후 시기에 창작되여 나왔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문학 예술이 혁명 전통 교양에 대한 인민 대중의 절실한 요구에 일정한 대답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작품들은 일관하여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이 가지는 혁명적 의의를 예술적으로 밝혀 내였으며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 바쳐졌다.

문학 예술 작품들에 창조된 주인공들인 성호, 칠호, 천이, 순실, 성룡, 병훈, 길산, 사남 등의 형상은 그들의 공산주의적 높은 정신 세계와 아름다운 도덕적 풍모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들의 주인공들은 수많은 독자와 관중들에게 커다란 영향

을 주고 있으며 우리 당의 인간 개조 사업과 공산주의 교양에 훌륭히 복무하고 있다.

지난 시기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특히 무대 예술 부문이 거둔 성과가 컸다. 그것은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4 편의 무대 예술 작품이 인민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음악 무용 서사시《밝은 태양 아래》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오늘의 천리마 시대를 그것이 뿌리 박고 있는 혁명 전통과 구체적으로 결부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 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사회주의 건설의 선두에 서 있는 공산주의 투사의 생동한 형상을 그려 내였다.

그러나 이상의 성과로써는 만족할 수 없다. 인민들의 미학적 수준이 날마다 높아 가고 있으며 그 만큼 문학 예술에 대한 요구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 앞에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본격적인 대작을 내놓아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손에 무장을 들고 조국 광복의 길을 열었다. 이 과정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 영원히 기록되여야 할 위대한 영웅 서사시적 사변들로 충만된 시기였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응당 이러한 력사적 사실을 폭 넓은 영웅 서사시적 거편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들은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이 시기에 첨예하게 진행된 투쟁의 본질과 혁명적인 시대상을 뚜렷이 밝히며 투사들의 내면 세계를 심오하게 드러 낸 대작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당의 기대이며 현실의 요구이다.

이러한 당과 인민의 기대와 요구에 보답하여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 창작에서 오늘의 시대 뿐만 아니라 먼 후대들에게도 영원히 전하여질 불후의 명작을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 당적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더 없는 보람이며 영예로 될 것이다.

그러면 문학 예술 분야에서 혁명 전통의 사상을 반영하며 더욱 높은 수준에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 예술이 자기의 창작 방법 상 지켜야 할 원칙의 하나인 전형적인 환경에서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즉 혁명 투사들의 형상을 당시의 구체적이며 본질적인 력사적 사실에 립각하여 그 속에서 살며 투쟁한 그들의 높은 정신 세계를 심오하게 반영함으로써 공산주의자의 성격을 전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작가가 실제적으로 있는 사건이나 인물들에 포로되여 사실 그 대로 기록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본질적인 것을 선택하여 전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공의 성격을 전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생활하는 정황을 전형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작품에 전형적인 환경을 제시하기 위하여서는 당대의 시대상과 계급적 제 관계가 가장 뚜렷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정황과 사건을 취사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래야만 거기서 행동하는 주인공의 성격도 또한 전형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벌써 1946년 3월에 우리 작가들에게 교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일부 작가들이 쓴 보천보 전투기를 례로 들면서 이 작품들의 중요한 결함은 력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전투 정형을 잘 묘사하였으나 그 전투를 군사적으로만 평가한 데 있다고 말씀하였다. 그러면서 보천보 전투가 조선 인민에게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희망과 신심을 안겨 준 구국의 홰'불로 된 그 력사적 의의를 밝히지 못 한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 교시는 문학 예술 작품에서의 환경 묘사는 정황이나 사건의 단순한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과 생활의 본질, 계급 투쟁의 의의가 밝혀질 때만이 전형적인 것으로 된다는 진리를 해명해 준 것으로 된다.

문학 예술 작품에 묘사된 환경이 전형적인 것으로 되지 못 할 때 주인공의 성격도 또한 전형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원칙은 전형적인 환경을 제시한다는 것이 결국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해 내는 데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혁명 투사들의 형상은 1930년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과 성격을 대변하게끔 훌륭하여야 하며 그를 통하여 당대의 가장 본질적인 사변들과 문제들을 알 수 있게끔 창조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진실하고 생동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창작 실천을 통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소재에 사로잡히거나 원형에만 매여 달릴 때 왕왕 기록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문학 예술인들이 만약 원형의 자서전(그것도 작가가 알고 있는 자료의 한도내)에만 매여 달려 그것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면 주인공의 성격을 폭 넓고 심오하게 그려 내지 못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재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원형에 대한 작가의 지식에는 제한이 있다) 작품을 통하여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명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원형에까지 본의 아닌 페를 끼치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주인공의 성격 창조에서 개성을 선명하게 살리면서도 그것이 인식 교양적-사회적 의의를 가지도록 일반화하여야 한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리치를 잊어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서 일반화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1930년대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개별적인 사건들과 소재들을 라렬하며 항일 투사들의 성격들을 심오하게 파고 들어 그려 내지 못 하는 기록주의적 현상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왜냐 하면 공산주의자의 전형이 폭 넓고 깊이 있는 일반화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작가가 많은

사건들과 투사들의 다양한 성격들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의의 있는 것을 추려 내여 형상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우리 문학 예술 창작 분야에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부 작가, 예술인들이 아직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이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와 당시의 혁명적 사변들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일 투사들이 지닌 정신 세계와 도덕적 높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문학 예술 작품에는 그것을 창작한 사람의 사상 의식 수준과 창조적인 열정, 예술적인 기량이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예술인들 자신이 공산주의적인 높은 정신 세계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훌륭하게 창조할 수 없다.

따라서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 창작에서 발로되는 이러한 부분적인 경향은 창작가들의 능력이 미약한 데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는 자신들의 당적 수양의 부족과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기 위한 정열적인 탐구 정신, 진지한 창작 태도가 결여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작가, 예술인들 가운데에는 혁명 투사들의 략력이나 얻어 듣고 작품을 창작하려고 조급하게 붓을 드는 사실들이 적지 않다. 이것은 혁명 투사들에 대한 모욕으로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자들과 관중들에 대한 죄악으로 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그릇된 현상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있었던 풍부하고 감동적인 소재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진지한 태도로써 혁명 전통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당과 인민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공산주의 혁명 투사의 전형을 훌륭하게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창작가들의 실무 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소재는 어디까지나 주인공의 성격을 전형화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자료 자체가 작품이 아닌 것처럼 원형 자체가 곧 전형으로 될 수는 없다.

문학 예술 작품에서 전형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그 소재가 창작가들에 의하여 평가되고 가공되여야 한다. 이러한 형상 작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창작일'군들의 사상 예술적 기량 정도에 따라 그 성과 여부가 결정된다. 제 아무리 훌륭한 원형, 좋은 소재를 취급한다고 하여도 창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예술적 기량이 똑바르지 못하거나 미약할 때 전형적 성격을 창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 기량을 더욱 높이여 자신을 사상 예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원형과 소재의 세계에 보다 깊이 침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성 있는 예술적 허구와 창조적인 환상을 자유롭게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 전통의 주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력사적 사건만을 앞에 내세우고 진정 보여 주어야 할 공산주의자의 성격은 안겨 오

지 않게 하는 폐단도 없앨 수 있다.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 특히 1930 년대 항일 투사들의 정신 세계가 그 만큼 높으며 그들의 생활과 투쟁이 너무나도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문학 예술 창조 일'군들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당적인 의무이며 영예로운 사명이다.

우리는 한 혁명 투사의 투쟁 과정을 잘 반영하여 훌륭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한다면 인민 대중이 그것을 통하여 당시의 시대상과 계급적 제 관계를 알게 될 것이며 동시에 《혁명 력사의 한 페지》를 펼쳐 보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재삼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항일 혁명 투사의 성격과 내면 세계를 폭 넓고 깊이 있게 그려 내는 그것이다.

문학 예술 작품은 주인공의 생동한 성격을 통해서만 심오한 주제와 사상을 밝혀 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 창작된 일부 혁명 전통 주제의 작품들에서는 흔히 일면적이고 국부적인 생활 소재에 매여 달리면서 감동적인 사건을 엮는 데만 급급하던 나머지 당해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체현한 진실한 성격과 그의 높은 정신 세계를 심도 있게 보여 주지 못하였다.

생활 소재가 좋고 작품의 주제가 명백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항일 영웅들의 성격적 바탕에 깔려 있는 고상한 정신 세계를 시대적 높이에서 심오하게 밝혀 내지 못한다면 여기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러저러한 사건의 줄거리와 개별적인 결론만 남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혁명 투사의 성격을 용감성이나 대담성,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의 발현을 통하여 보여 주는 것은 응당하다. 그러나 공산주의자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왜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높고 폭 넓은 세계관, 풍부한 감정과 아름다운 리상을 지닌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1930 년대 공산주의자들은 부정의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용서할 줄 모르는 강철 같은 투사들이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국 땅의 한 줌의 흙과 한 떨기의 꽃을 두고, 뭇새의 우짖음과 흐르는 시내'물의 조약돌을 두고도 고향을 그리워 하고 민족의 운명을 생각한 절세의 애국자들이였다.

그들이 바로 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인간으로, 우리의 귀감으로 된 것은 바로 이 조국에 대한 절절한 애국심과 계급의 해방을 위한 백절불굴의 투지로부터 울려 나온 것이였다. 그들은 우리 시대의 보통 사람들과 같이 과거 사회에서 가장 혹독한 착취와 압박을 받아 온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였다. 바로 이러한 사회 계급적 바탕으로부터 그들은 참된 계급의 전사로, 민족적 영웅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또한 누구보다도 원쑤를 증오하고 혁명 동지들을 더 없이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가장 곤난한 순간에도 오늘의 승리를 믿고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인민의 충복들이였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항일 투사들을

다만 군사적 면에서만 시대의 앞장에 선 영웅으로 묘사하는 것은 심히 일면적일 수 밖에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정치 일'군이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리론가들이였다. 동시에 그들은 간고한 생활과 투쟁의 로정에서 가장 높은 인간 수양을 쌓은 전면적으로 발전한 공산주의자들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김 일성 동지가 령도한 1930 년대의 항일 혁명 투사들을 공산주의적 당성과 인간성, 문화성을 모두 갖춘, 혁명하는 시대의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들의 성격을 광범한 사회 력사적 화폭 속에 다양하고 심오하게 밝혀 내야 한다.

이와 같은 폭 넓고 생동한 성격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혁명 투사의 내면 세계를 심오하게 파고 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 -로정에서 투사들이 어떻게 자신을 혁명가로 단련시켰으며 어떠한 행동으로 인민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는가 하는 것을 산 전형으로, 생동한 성격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즉 한 혁명 투사의 초상을 통하여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의 영웅적 투쟁 위업과 정신.도덕적 풍모를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이 훌륭하게 창조된 문학 예술 작품이 독자와 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시대의 일'군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악과 모순을 맑스-레닌주의 서적을 통해서만 리해한 것이 아니다. 감명 깊은 혁명적인 소설을 읽고 주인공들처럼 살며 싸울 것을 다짐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일'군이 한두 사람만이 아니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는 이러한 감동적인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그것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1930 년대 항일 혁명 투쟁이 이룩하여 놓은 무진장한 소재들을 언제든지 임의로 탐구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창작 조건과 형상 수단들이 충분하게 마련되여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우리는 어느 한 혁명 가정을 원형으로 하여 그릴 수도 있고 한 혁명 투사의 투쟁 로정을 원형으로 하여 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원형의 이름이나 한두 자 변경시켜 가지고 년대기식으로 사건만 라렬하는 데 그쳐서는 작가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일반화된 전형으로 그려야 한다. 그리고 작품을 통하여 제기하려는 주장과 중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써야 한다.

풍부하고 다양한 내면 세계를 가진 공산주의자의 전형,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하고 있는 천리마 기수들에게 고무적 힘으로 되며, 반미 구국 투쟁에 궐기한 남반부 인민들에게 산 교과서로 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항일 투사들의 성격을 그의 내면 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그리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공산주의적 미래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파도치고 있으며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서 끝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혁명적 랑만성에 대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락관주의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여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강대한 일본 제국주의와 용감히 싸운 그 고귀한 정신》(김 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속에 깃들어 있다.

때문에 항일 투사들의 내면 세계에 대한 심오한 사실주의적 묘사를 떠나서는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서 혁명적 랑만성을 구현할 수 없다.

혁명적 락관주의로 무장한 공산주의자들은 승리의 신심을 안고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계급의 전사들이였으며 미래를 앞당기는 투사들이였다. 그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애국 애족의 사상과 함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으로 된다는 과학적 공산주의로 자신을 무장한 혁명가들이였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야수적인 일제 군경의 고문도, 총칼과 교수대도 결코 그들의 락관주의적인 의지와 혁명적인 리상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념원과 리상은 오늘 우리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활짝 꽃피고 있다. 항일 투사들의 리상을 배웠고 그것을 자기의 리상으로, 사상으로 삼고 있는 오늘의 천리마 기수들은 지금 바로 그들을 혁명의 곤간으로 하고 그들과 함께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산주의의 미래를 똑바로 내다 보며 싸운다.

여기서 스스로 제기되는 문제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들의 과거의 혁명 투쟁을 오늘의 현실 생활과 밀접하게 결부시키는 것이 좋다는 그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독자와 관중들의 현대적 미감에 맞게 작품의 구성을 짜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대적 폭을 넓히며 성격의 계승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의 많은 혁명 투사들은 과거에 강도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당의 령도 핵심으로서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고 있다.

항일 투사들은 해방 후 평화적 건설 시기,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를 불문하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전선의 앞머리에 서 있다.

이 투사들의 생활 력사는 혁명적 랑만으로 가득 차 있다.

혁명 투사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긴 세월을 징역살이도 하였으며 두 번, 세 번 체포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혁명 전우들을 만나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또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그 굽힘 없는 의지로 혁명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항일 혁명 시기에 헤여지게 되였던 어린 아들딸들을 해방 후에야 비로소 만난 투사들도 있다.

간고한 투쟁을 거쳐 오늘의 승리를 쟁취한 그들의 생활은 그대로가 혁명적 랑만의 산 모범이다.

문학 예술 작품에서 혁명적 락관주의로 충만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한다는 것은 특히 싸우는 남반부 청년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항일 투사들의 투쟁 모습을 잘 그린 작품은 남반부 청년들에게 지하 투쟁 방법, 당 조직 방법, 감옥 투쟁 방법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들에게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온갖 시련들을 두려워 하지 않고 투쟁의 보람을 느끼도록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우리의 적지 않은 작품들은 그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과 주인공들의 성격-생활이 매우 협애하다는 것을 지적하게 된다. 그것은 특히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1930 년대의 간고한 투쟁 자체에만 국한시키서 주인공을 묘사하려는 경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작품이 내세우고 있는 주제와 사상에 따라서 과거의 항일 무장 투쟁 시기만을 그릴 수도 있다. 따라서 당시의 생활만을 그리는 경우에도 주인공의 성격과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파냄으로써 그 속에서 나래치는 혁명적 랑만을 보여 줄 수 있다.

우리는 혁명 전통을 취급하는 문학 예술 작품의 창작에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민들이 항일 투사들의 과거만이 아니라 그것과 련속된 현재의 생활과 투쟁에서 모범을 배우고 있으며 그것을 혁명가적 수양의 거울로 삼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응당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서 혁명적 락관주의로 가득 찬 서사시적인 대화폭을 펼쳐 보임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보답하여야 한다

항일 투사들의 과거의 생활에서 싹이 튼 리상은 오늘의 현실에서 꽃이 피고 그들의 오늘의 생활과 투쟁으로 하여 또한 보다 광명한 공산주의적 래일이 더욱더 앞당겨 밝아 오고 있다.

바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의 위업에 의하여 이룩되고 있는 우리 조국의 현대사는 일관하여 혁명적인 랑만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문학 예술 부문의 창작 일'군들은 이것을 반영한 대작들을 내놓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소설가들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크다. 훌륭한 소설이 많이 나오면 그에 기초하여 좋은 영화와 연극도 만들 수 있다.

우리 전체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창작을 통하여 혁명 전통의 사상을 더욱 폭 넓고 깊이 있게 반영함으로써 불후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혁명가적 수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만약 항일 투사들이 지닌 그 높은 정신 세계에 도달하자 못하거나 혁명 전통의 사상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지 못 할 때에는 제 아무리 훌륭한 기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결코 공산주의자의 빛나는 전형을 창조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백두산의 혁명 정신으로 생활하고 창작하며 투쟁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미학관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하게 무장하고 천리마의 현실에 깊이 침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예술적 시야를 넓히고 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후손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산주의자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혁명가적 수양의 거울로 되게 하며 생활의 훌륭한 스승으로 되게 하자.

우리 나라에서의 철도 전기화

김　　희　　일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전 인민적인 지원 하에 철도의 전기화가 전면적으로 급속히 진척되고 있다.

금년에 평의선의 전 구간과 평원선의 기본 구간에서 전기화를 완성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든 철도 운수 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애국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평양—신의주 간, 평양—신성천 간의 천여 리 철'길 우에서는 탑주가 새로 일떠서고 전차선이 가설되고 있으며 로동당 시대의 새로운 기적—《철도 전기화 속도》가 창조되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 건설인 이 공사의 진행은 철도 운수 부문의 발전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키고 앞으로 나라의 철도 전기화를 전반적으로 완성함에 있어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하에서 철도 운수는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기본 건설의 대대적인 확장,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철도 운수가 화물 및 려객 수송을 통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의 생산적 련계를 계획적으로 실현시켜 주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교류를 보장케 하고 나라의 각 지역을 유일한 인민 경제의 유기적 총체로 결합시키는 동맥으로 되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인민 경제에서 철도 운수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철도는 인민 경제의 동맥과도 같다. 만일 철도가 인민 경제 발전에 필요한 화물 수송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한다면 공업과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방대한 건설 사업도 진행할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선집 제 6 권, 38 페지)

철도 운수가 인민 경제에서 담당 수행하는 이러한 역할로부터 우리 당은 경제 건설의 매 시기마다 증대되는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수송 수요에 적응하게 철도 운수를 다른 모든 부문에 선행시켜 발전시키는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여 왔다. 더우기 우리 당은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 들어서면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철도 운수를 선차적으로 복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특별히 중요한 관심을 돌리여 왔다.

당은 전후 철도의 파괴가 혹심하였던 조건 하에서 계단을 설정하여 순차적인 방법으로 최단 기간 내에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며 일체가 철도 운수 부문에

남긴 식민지적 편파성을 극복하고 그의 확고한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복구 개건 방침을 철저히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일제가 대륙 침략과 조선 인민을 착취할 목적 밑에 주로 해안 연선을 따라 남북으로만 기형적으로 련결시켰던 철도 운수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이 완전히 청산되고 그의 자립적 토대가 튼튼히 구축되였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나라의 산업 지리적 배치에 적응하게 내륙 지방과 동서 해안 지역을 관통하는 가장 합리적인 철도망을 가지게 되였으며 특히 통과 능력이 부족하고 구배와 곡선이 심한 일부 기본 간선들에서는 이미 전기화가 실현되였다. 전후에만 하여도 철도의 통과 능력이 걸렸던 고원—신성천 간, 명천—홍원 간의 철도선이 전기화되고 해주—하성 간의 200 리 광궤 철도 공사를 비롯하여 300여 키로 메터의 새로운 철도가 부설되였으며 수 많은 교량, 굴들이 복구, 개건, 신설되였다. 그와 함께 거의 모든 역 구소들에는 과학적인 사령 지휘 수단들과 선진 기술이 도입되고 기계화, 자동화가 실현되여 철도의 수송 능력과 통과 능력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철도 운수 부문에서는 오늘 1946년의 년간 철도 화물 총 수송량에 해당하는 량을 불과 26 일 간에 수송할 수 있게 되였으며 철도의 화물 순환은 실로 15.9 배, 화차 회귀 일수는 1956년에 비하여 약 2 주야나 단축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철도 운수가 이미 인구 1 인 당 화물 순환과 기술 수준에 있어서 선진 국가의 그것을 따라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철도 운수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도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다.

당은 전후 짧은 기간 내에 강력한 중공업의 지원 하에 현대적 설비를 갖춘 평양 전기 기관차 공장, 원산 철도 공장을 비롯하여 자체의 운수 기계 제작 공업 기지를 창설하였다.

지난날 간단한 부속품조차 변변히 생산하지 못 하던 락후한 형편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최신형 전기 기관차, 객차, 화차 등 필요한 운수 수단들과 부속품들을 완전히 우리 힘으로 생산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일부 화차를 비롯한 차량 부속품들을 외국에 수출까지 하게 되였다.

해방 전에는 불과 몇 사람의 기술자 밖에 없었던 철도 운수 부문에서는 지금 수천 명의 기사, 기수, 전문가들과 수만 명의 고급 기능공들을 비롯하여 자체로 철도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술 인재의 대부대를 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현대적 공업,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 발전된 사회주의적 철도 운수를 가진 강유력한 나라로 전변되였다.

지난 기간 철도 운수 부문에서 달성한 이러한 모든 성과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어 나고 있는 새로운 천리마의 대고조에 상응하게 철도의 전기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철도 운수 부문의 발전을 한 계단 더 높은 질적 수준에로 급속히 끌어 올릴 수 있게 되였다.

* *

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비약

적인 발전에 적응하게 철도 운수 부문의 발전을 한 단계 더 선행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철도의 전기화를 급속히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철도의 전기화를 실현함이 없이는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철도 운수 부문의 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나라의 기술 경제적, 자연 지리적 조건에 맞게 운수 수단의 통과 능력과 수송 능력을 백방으로 제고할 수 없다.

철도의 전기화는 우선 철도 운행 자체에 현대적 대규모 공업의 기술적 토대인 전기를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부문의 기술 장비 수준을 제고하고 그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와 련관된 기타 많은 부문의 기술 장비도 가일층 개선 완성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철도의 구간 통과 능력과 차량 리용률 및 차량들의 생산성의 제고, 철도 운행에서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을 보장함으로써 현존 철로만을 가지고도 철도의 통과 능력과 수송 능력을 급속히 제고시키며 철도 운수의 연료 소비량을 축감하고 막대한 수송 로력을 절약케 하여 철도 경영비와 수송 원가를 저하시킨다.

초보적인 타산에 의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현존 철도의 기본 간선들을 전반적으로 전기화한다면 현재에 비하여 철도의 통과 능력은 근 2 배로 높이고 연료 소비량은 5 분의 1로 저하시킬 수 있으며 현존 기관차를 운영하는 로력의 35%를 절약하고 복선 부설시에 요구되는 많은 농로를 추가적으로 더 얻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철도의 전기화를 전반적으로 실시한다면 증기 기관차에 의하여 운행할 때보다 동력비는 70% 이상 절약하고 수송 원가는 20% 이상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 철도의 전기화는 또한 나라의 자연 지리적 조건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산악 지대가 많은 공화국 북반부의 철도 운수에서는 불가피하게 구배와 곡선이 많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복선의 부설에 일정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일 복선을 부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기필코 철도의 전기화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기본 건설 투자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며 또 증기 기관차는 그의 렬차당 견인 능력의 제한으로 하여 구배와 곡선들에서 긴장된 렬차의 통과 능력을 풀 수 없다. 전기 기관차의 견인 능력이 증기 기관차의 그것에 비하여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은 다음의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에서 가파르기로 이름난 양덕 고개에서 증기 기관차는 500 톤의 짐을 싣고 시속 60 리 밖에 달릴 수 없다면 전기 기관차는 1, 200 톤의 짐을 싣고도 시속 120 리나 달릴 수 있는 것이다.

철도의 전기화는 철도 운수의 문화성과 안전성을 보장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전력과 동을 비롯하여 철도의 전기화에 필요한 자원들도 풍부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오직 철도 운수에 전기화를 전반적으로 도입함으로써만 증기 기관차에 의한 철도 운행

이 가지는 부족점들을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시정하고 7 개년 계획 기간에 철도 운수 부문 앞에 제기된 화물 및 려객 수송 과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철도 운수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공고화할 수 있다.

지금 교통 운수 부문 앞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례 없는 발전 속도와 공업 및 농업 생산의 비약적인 장성에 따라 날로 더욱더 큰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 운수 부문 앞에만 하여도 7 개년 계획 기간에 화물 수송량은 2 배로, 화물 순환은 1.9 배로, 화물 렬차의 평균 견인 중량은 1,000 톤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1967년에 가서는 한 해 동안에 7천 5백만 톤의 화물을 수송하고 175억 톤 키로 메터에 달하는 화물 순환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 시기 철도 운수 부문 앞에 나선 이러한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철로의 배치, 륜전 기재의 합리적 리용 등과 함께 반드시 철도의 전반적인 전기화를 실현함으로써 철도 운수의 통과 능력과 수송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철도의 전기화가 오늘 우리 나라 철도 운수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로부터 오는 합법칙적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철도의 전기화—이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철도 운수 부문에서 기술 혁명의 중심이며 통과 능력 제고의 기본 방도이다.

우리 나라 철도 운수 발전의 이 방향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전력 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 철도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며 수송 능력을 높이고 수송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서는 철도를 전기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철도 운수의 장래 발전은 철도를 전기화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선집 제 6 권, 39 페지)

우리 당은 벌써 오래 전부터 철도 운수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장차 우리 나라에서 철도의 전기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조건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힘을 돌리여 왔다.

그리 하여 오늘 우리는 나라의 철도 전기화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였으며 무려 18만 여 개의 부속품들을 생산하여 조립하여야 하는 복잡하고 정밀한 최신형 전기 기관차들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 우리의 자재로 다량 생산해 낼 수 있게 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1 년 간에 30 여 대 이상의 《붉은 기》호 전기 기관차가 생산되고 있으며 수은 정류기, 견인 전동기, 변압기 등 철도의 전기화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충분히 생산 공급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7 개년 계획 기간 내에 현존 철도의 통과 능력이 긴장되고 구배와 곡선이 심한 구간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기본 간선들에서 전기화를 완성할 보람찬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평양—신의주 간, 평양—개성 간, 회천—고인 간, 평양—덕천 간, 고원—평강 간 등 철도 운수의 주요 간선들에서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며 수 많은 《붉은 기》호 전기 기관차와 새로운 형의 고속도 전기 기관차가 생산되

여 조국의 동맥을 달리게 될 것이다. 7 개년 계획에 예견된 철도의 전기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금후 매년 300 키로 메터 이상의 철도 전기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7 개년 계획 말에 가서 우리 나라 철도 운수의 전기화 비중은 40% 이상 달하게 되며 철도 총화물 순환의 60~70%를 전기 철도가 담당하게 된다.

7 개년 계획에 예견된 철도 전기화의 전망은 실로 휘황찬란하다.

이 원대한 전망을 실현함에 있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평양—신의주 간, 평양—신성천 간의 전기화 공사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공사는 우선 그 규모에서 과거와는 비할 바 없이 방대한 것으로서 그 길이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 전후 7 년 간에 진행한 철도 전기화 총 연장 길이의 1.9 배에 달하며 최근 2 년 간에 진행한 철도 전기화 공사량의 2.6 배 이상에 해당된다. 이것은 전차선의 가설에서만도 공사 결의 기간 내에 지난해에 비하여 매일 500 %의 작업 능률로 매일 2,100 메터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현대적 시설을 갖춘 10 개의 새로운 변전소와 2 개의 전신구를 건설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일체 기계 설비를 새로 장비하고 렬차의 견인력과 통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19 개 역 구내의 유효장 확장과 선로 개량 공사, 추도하로 공사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평양—신의주 간, 평양—신성천 간의 철도 전기화 공사는 그 규모에서 이와 같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구간이 우리 나라 철도 운수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금년에 이 공사를 완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업—나라의 철도 전기화를 더욱 전진시키고 인민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불러 일으키는 데서 커다란 기여로 될 것이다.

* *

그의 규모가 전례 없이 방대하고 작업 공정 자체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평양—신의주 간, 평양—신성천 간의 철도 전기화 공사는 불과 한 해 사이에 그것도 기한을 훨씬 앞당겨 완성하여야 할 극히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데 이 공사는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구간에서 렬차의 무사고 정시 운행을 보장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공사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서는 우선 그를 직접 담당 수행하는 철도 운수 부문의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의 주도 세밀한 조직 지도 사업이 요구된다.

이에 있어서 이 부문 산하 전체 건설자들과 대중들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철도 전기화가 가지는 의의와 철도 운수 부문의 기술 혁명 수행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 현 시기 이를 촉진시킬 데 대한 당의 의도와 그 수행 방도를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전체 건설자들을 이 사업에 보다 성과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으며 공사를 최단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통 운수 부문의 각급 건설자들과 지도 일'군들은 이미 편성된 전기 철도 건설 련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철저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며 시공 조직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 제시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공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작업 대상들이 분산되여 있으며 그것이 높은 기술적 지도를 요하는 사정은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지도에서 행정 조직 계획화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한다. 공사의 순위를 작업 대상 별로 정확히 규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자재, 설비, 공구 지구들을 충분히 갖추며 그를 합리적으로 공급할 때에만 모든 작업이 정확히 시공 조직 계획에 근거하여 치차와 같이 딱딱 맞물고 돌아 갈 수 있으며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차 선로 건설과 병행하여 역 구내 확장과 통신 선로 이설 등 부대 공사를 그에 선행시키며 송전선 및 견인 변전소 공사를 추진시켜 철도 전기화 공사의 조업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계단 별로 보장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금년도 전기화 공사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경제 지도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성 지도 간부들로부터 대대에 이르기까지 실지 전투 단위에 지도를 접근시키며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하고 제시된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방도를 대중과 토론하여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장을 우리의 로동 계급과 청년들의 창조와 위력이 맥박치며 시간마다 새 기적과 혁신이 일어 나는 위대한 전투 마당으로 전환시키며 혁명적 정신과 힘이 약동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 학교로 전변시켜야 한다.

철도 전기화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 하여 철도 전기화 건설장의 모든 곳에서 기계가 더 많이 일을 하게 하고 보다 능률적인 기계가 작업하도록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며 선진적이며 능률적인 기계들을 부단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매개 중대와 소대에 이르기까지 월 1 건 이상의 선진 기술과 1 인 1 건 이상의 창의 고안, 합리화안들을 적극 일반화하여야 한다.

철도 전기화 공사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대중적 기술 혁신과 함께 이미 도입되고 있는 건설 기계들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모든 건설장들의 실정에 맞게 선로 조립 건설용 멀차, 기중기, 에쓰까와또르, 불도젤, 전주 굴착기 등을 비롯한 능률이 높은 각종 대 소형 기계들을 광범히 도입하여, 그의 리용률을 높임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철도의 전기화—이것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여질 귀중한 재부이다.

따라서 매개 공사에서 그의 질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휘 성원들은 설계의 정확한 도면에 기초하여 기술적 지도와 보강 조건을 선행하며 기술 행정 검사 체계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시공 규정과 표준 조작법을 엄수하여 건설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동시에 자재의 소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며 자재 보관 관리 사업을 개선하며, 한 그람의 동, 한 줌의 세멘트, 한 토막의 강재라도 더 절약하기 위한 군중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의 백년대계로 되는 철도 전기화의 실현은 많은 기술 인재와 지도 일'군을 요구한다.

따라서 철도 운수의 모든 단위들에서 전기 기관차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 기능자 양성 사업을 예견성 있게 진행함으로써 전기화가 실현된 후 그를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차 승무원, 변전소 운전공, 전차 선로 수리공, 전기 기관차 수리공들과 지도 일'군들의 대렬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여기에 강력한 지원을 주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철도 전기화를 지원해 나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대식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며 협동 생산의 계획적 수준을 일층 제고하며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전기화 공사장에 각종 전기 기자재와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더 빨리 공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과 평양 전기 공장들에서는 변압기, 전동기, 수은 정류기 등을, 주을 전기 공장에서는 애자를 더 많이 생산 공급하며 평양 전기 기관차 공장에서는 결의한 37대의 최신식 전기 기관차를 제때에 생산 공급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도 철도 전기화 공사의 성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다량의 동이 요구된다. 매개 동 광산들에서는 철도 전기화 공사에 필요한 동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하여 동 생산을 증대시키며 제련소들에서는 동 제련의 실수률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모든 단위들에서는 전 인민적 운동으로 동을 비롯한 원자재들을 극력 절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철도 전기화 공사를 이미 결의한 대로 평양—신의주 간은 금년 5.1절까지, 평양—신성천 간은 금년 8.15까지 완공함으로써 천리마 시대의 기상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시위하자!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자

김 세 봉

오늘 우리 당은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격히 확대하는 한편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발전하는 현실에 상응하게 상품 류통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것은 인민 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금년도 과업 수행의 중요한 일환이다.

지난 기간 우리의 사회주의 상업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에 의하여 급속히 발전하여 왔다.

소매 상품 류통액은 전쟁 전인 1949년에 비하여 1963년에는 7.9 배로 장성하였으며 주요 소비 상품의 공급량을 보면 같은 기간에 육류는 10.6 배, 수산물은 2 배, 식용유는 12.2 배, 채소는 48.6 배, 과실은 20.5 배, 면 및 스프 직물은 13.1 배, 기성복은 53.2 배, 내의류는 25.4 배, 양말은 7.1 배, 신발류는 4.6 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특히 최근 년간에 인민 소비품 생산의 부단한 장성에 기초하여 라지오, 시계, 재봉기 등을 비롯한 실로 많은 새로운 상품들이 대량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리 하여 우리의 상업은 근로자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날로 장성하는 근로자들의 수요와 급격히 확대되는 인민 경제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상업 부문 앞에는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미 의식주 문제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도 모르게 된 우리 인민들은 오늘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문화적으로 생활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의 호소를 높이 받든 우리 근로자들은 질 좋고 다양한 일용품과 맛 있고 영양가 높은 각종 식료 상품의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필연코 사회주의적 생산과 근로자들의 소비를 계획적으로 련결시키면서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각종 생활 필수품을 원활히 공급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상업 부문 앞에 보다 새롭고 영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바로 이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1962년 9월 3~4일과 1963년 11월 22일 우리 상업 부문 앞에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 *

현 시기 우리 상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들 중에서 첫 자리에 나서는 것은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식주 문제 해결에서 먹는 문제는 항상 기본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인민 생활이 날로 향상되고 주식물과 주요 부식물들이 기본적으로 해결된 오늘에 와서는 보다 맛 있고 영양가 높은 고급 식료 상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주식물인 쌀이 무료나 다름 없는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우리의 조건에서는 맛 있고 영양가 높은 고급한 식료 상품으로부터 세소한 조미료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식료품, 특히 부식물을 정상적으로 공급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있어서 도시 및 산업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됨에 따라 새로 형성된 주택 지구 근로자들에 대한 식료품 공급 사업을 변천된 새로운 현실적 요구에 따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로동자, 사무원들은 식료품의 대부분을 자체 해결하고 있는 농촌 주민들과는 달리 자기 수입의 압도적 부분을 식료 상품 구입에 지출하게 된다.

우리 당이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과 특히는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 상품 공급 사업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상품 류통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공업 상품의 공급을 계속 증가시키는 동시에 식료품 공급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폭적으로 올린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겠다.》 (선집 제 5 권, 40 페지)라고 강조하였다.

도시 및 로동자 지구를 중심으로 매개 시, 군에서 식료 상품 생산 및 공급 기지를 축성하는 것은 이 지구 근로자들의 수요를 지방 자체 생산으로 충당시키는 관건적 문제로 된다.

이것은 식료 상품의 공급 원천을 확고히 보장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산과 소비를 계획적으로 련결시켜 주며 다종다양한 식료 상품들을 지방적 특성에 맞게 가장 눅은 값으로 제때에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식료 상품 생산 및 공급 기지를 꾸리기 위하여 시, 군 인민 위원회 및 상업 기관들은 각종 식료 상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시기 별, 품종 별, 용도 별로 정확히 타산하여 식료 공장들과 부근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 다양한 식료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 공급하도록 조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수매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매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수매 사업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부산물에 대한 수매와 교류를 통하여 농민들의 현금 수입을 증대시키며 생산을 자극하고 도시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기여한다.

수매에서는 국가 계획 수매도 중요하지만 식료 상품의 많은 부분이 국가 계획권 내에 인입되지 못 하고 있는 조건에서 각종 식료 상품과 농부산물에 대한 자유 수매를 강화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식료 상품 수매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식료 상품의 자유 수매 품종과 지역 가격에 대한 온갖 통제와 제한을 없애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하여 수매, 공급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시, 군 인민 위원회 및 상업 기관들은 당 위원회들의 지도 밑에 수매 일'군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며 수매 도구, 자금 기타 수매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는 동시에 매개 수매원들로 하여금 농민들 속에 들어 가 당의 수매 정책을 해설하여 주고 각종 수매 원천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수매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그들의 책임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함에 있어서 농민 시장을 적극 리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현 시기 농민 시장은 농산물의 집산지로, 수매 교류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농민 시장을 통하여 국영 농목장과 협동 농장 그리고 농장원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식료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 수 있다.

각 도 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는 1~2 개의 매일 시장 또는 정기 시장을 개설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관리 운영 사업

울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시, 군 인민 위원회들과 상업 기관들은 농민 시장에 더 많은 상품 원천을 동원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각종 식료품을 년중 계속 공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매개 협동 농장들과 농장원들이 자기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온갖 편의와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근로자들은 더 많은 가공 식료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녀성들이 부엌'일로부터 해방되여 더욱더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되고 있는 조건에서 급격히 장성하는 가공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경공업과 지방 공업이 생산하는 것 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상업 기관 자체 가공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상업 기관들의 자체 가공 사업은 큰 투자 없이 보다 눅은 값으로 주민들의 계절적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킬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적 수요와 자기 봉사 구역 내 주민들의 구미에 맞는 각종 부식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업 기관 자체 가공은 매개 식료품 상점 단위로 2~3 명의 녀성 로력을 가지고 소규모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아빠트 밑에 간단히 차려 놓고서도 할 수 있다.

식료품 상점들과 식당들에서는 공장들에서 손이 덜 미치는 품종들과 제 2 차적 가공을 요하는 식료품 례하면 장류, 기름류, 채소류, 조미료, 젓갈류, 수산물, 육류, 과실, 과자류 등을 다양하게 가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잘 변질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팔 수 있는 각종 장류, 기름류, 젓갈류, 절움류, 통졸임, 조미료 등은 종합 식료 상점에서 생산하여 분점에 공급하여 주며, 변질되기 쉬운 반찬류 같은 것은 식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료품 가공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에 필요한 저장 및 랭동 시설을 원만히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많은 경우에 부식물은 그의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온도, 습도 등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쉽게 부패 변질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은 부식물의 가공과 함께 그의 저장 및 랭동 체계 확립을 긴절하게 요구한다.

부식물의 저장 및 랭동 설비는 생산지와 소비지에는 물론 부식물 공급을 담당한 소매 상업 기관, 기업소들에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식물 수송을 위한 랭동 수송 기재와 용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료품 공급 사업의 성과는 잘 째여진 공급 및 봉사 조직을 통해서만 비로소 최종적으로 달성된다.

식료품의 공급 및 봉사 조직에서 가장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식료품의 판매 지점을 어떻게 포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식료품은 공업 상품과는 달리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매일 매시 없어서는 안 될 상품이며 그것은 특히 가정 주부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바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식료품의 판매 지점은 주민들의 생활 단위 주주택 지구에 최대한으로 접근시켜야 하며 판매 시간은 가정 주부들이 아침 저녁으로 보다 짧은 시간에 필요한 부식물을 마음 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봉사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조건에 상응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식료품 공급 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식료품 상점들에서 판매 활동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포함한 각종 식료품은 알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며 사철 떨구지 말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식료 상품 매대 조직

을 고객들과 판매원들의 봉사 활동에 편리하도록 하며 소포장 판매, 선별 판매, 소포 판매, 위탁 판매 등 다양한 판매 방법을 광범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식료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당적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품종 별, 등급 별, 선도 별로 정확히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급양 사업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사회 급양 사업의 강화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에 적응하게 생활을 조직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녀성들의 가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그들의 사회 진출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논다.

사회 급양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밥 공장과 가족 식당을 비롯한 각종 대중 식당망을 더 확대하며 민족 료리를 비롯한 각종 음식물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밥 공장과 가족 식당—이것은 가정의 부엌'일을 대신하는 공동 주방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손님들이 구미에 맞는 음식을 마음 대로 먹을 수 있게 필요한 설비 조건들을 갖추어 주어야 하며 세분 판매를 실속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 료리와 고급 료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증설하며 특히 이 부문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이 사회 급양 사업의 개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청량 음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오늘 청량 음료점들에서 철을 따라 과즙, 사이다, 맥주, 아이스크림, 화채류, 수정과 등을 더 많이 공급하며 밤, 고구마, 락화생들도 제철에 충분히 확보하여 광범히 가공 공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로, 상업 부문 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은 공업 상품 공급 사업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근로자들의 수요가 비교적 단순하였던 지난 시기에 있어서는 상품의 품종 구성이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큰 문제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우리 근로자들은 보다 다양한 일용 필수품과 고급한 상품을 더욱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당은 인민들의 이러한 요구와 조성된 확고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금년에 모든 가정들에서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문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전기용품, 문화용품과 철제 일용품 및 합성 수지제 일용품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질 좋은 일용품의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각급 상업 기관들에서는 날로 높아 가는 인민들의 수요와 소비 상품 생산의 급격한 장성에 적응하게 공업 상품의 품종과 구성을 부단히 개선하며 특히 가정용 필수품과 세소 일용품 및 문화용품의 공급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업의 조직과 기술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당은 오늘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각종 일용품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농업 정책에 의하여 농업 생산이 부단히 증대됨에 따라 농민들의 수입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공업 상품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였다.

당과 정부는 또한 농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국가적 혜택을 돌리고 있다. 1963년도에만 하여도 협동 농장들에 공급되는 기계 설비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공예 작물의 수매 가격을 인상하는 등으로 7천여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적 혜택을 농민들에게 주었으며 막대한 량의 현물세와 대부금을 면제하고 작년 영농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많은 협동 농장들에 수 많은 기계 설비와 생활 필

수품을 시상하였다.

당은 또다시 새해의 선물로 전체 농촌 어린이들에게 100여만 벌의 겨울옷과 모자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작년 한 해 동안에 농민들에게 무려 1억 9천여만 원의 국가적 혜택을 주었다.

농업 생산의 장성과 농민들에 대한 당의 배려의 결과 금년 1.4 분기에 농민들의 구매력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근 2 배로 장성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상업이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농촌 상점망을 지역 단위로 재정리 포치하며 그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야 할 것이다.

각급 상업 기관들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농민들의 수입의 장성에 상응하게 값이 눅고 튼튼한 각종 직물류와 솜동복, 작업복을 비롯한 각종 기성복과 편직물, 라지오, 재봉기, 시계, 자전거 등을 비롯한 기타 각종 일용 필수품과 문화용품들을 집중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의 정확한 정책과 배려에 의하여 벌방 지대 농민들보다 못지 않은 생활을 누리고 있는 장성, 무산 등 산간 지대 농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에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세째로,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상업 기관들에서 주문에 의한 공급 제도를 확립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회의에서는 도매 상업 기관들의 역할을 일층 제고하여 상점들에서 주문에 의한 상품 공급 체계를 철저히 확립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주문제는 각종 수요를 소매, 도매를 거쳐 생산에 반영시킴으로써 생산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조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생산한 제품을 각 계층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도매, 소매를 거쳐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상품 공급 제도이다.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와 생산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상업과 생산 간, 상업 내부 호상간 상품 운동의 모든 활동을 계획적으로 보장하는 기초로 된다.

주문제를 실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정확히 연구 타산하는 것이다.

시, 군 인민 위원회들과 매개 상업 기업소들에서는 상품의 매 품종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와 지대 별 각 계층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전반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상품에 대한 수요는 고정 수요 연구 체계와 선택 조사 연구 방법 등을 옳게 결합시켜 타산하여야 하며 또한 현 재고와 과년도의 실적 그리고 생산 능력 등을 옳게 타산하여 생산에 반영시켜야 한다.

매개 상점 일'군들은 전천 종합 상점 2중 천리마 작업반장 정 춘실 동무의 모범을 따라 봉사 구역 내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정확히 장악하고 매달 계획적으로 도매 기관에 주문하여야 하며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확고히 기초하여야 한다.

도매 기관 일'군들은 소매 기관으로부터 상품 주문서가 올라 오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매망에 직접 내려 가서 도매소 상품 재고의 구성과 그의 견본, 앞으로의 생산과 공급의 가능성 등 모든 것을 알려 주며 일단 주문 받은 상품은 제때에 송달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상품이 체화, 편재되는 일이 없도록 제때에 교류 조절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상품들이 류통망에 반입되도록 생산에 대한 반작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네째로, 편의 봉사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편의 봉사 사업의 개선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몸차림, 옷차림을 문화적으로 할 데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각종 새로운 일용품과 문화용품들이 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편의 봉사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편의 봉사망을 확장하고 그를 합리적으로 포치하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리발소, 목욕탕, 세탁소, 각종 수리, 수선소들을 증설하는 동시에 특히 그것을 실정에 맞게 포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의 봉사망 포치에서는 업종이 류사한 것들은 구역 또는 지역을 단위로 하여 현대적 설비를 갖춘 종합 편의 시설망으로 개편하며 기타 특수한 것들은 주민 지구의 개별적인 요소에 포치하여 전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수리, 수선 작업의 특성을 옳게 타산하여 고정 수리와 이동 수리를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동시에 편의 시설망들에서 부분품, 부속품들을 수매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겸하여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편의를 백방으로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농촌에서 기술 문화 혁명이 진척되는 데 따라서 편의 시설과 각종 수리, 수선망을 더욱 확장하며 그에 필요한 일'군들을 배치하고 관리 운영 사업을 잘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리, 수선 사업을 비롯한 편의 봉사 사업에 소요되는 설비, 기계, 도구들과 원재료들은 지방 상업 총국이 책임지고 지방 산업과 중앙 공업 기업소 생활 필수품 직장과의 련계 밑에 계획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편의 봉사 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조건의 하나로 된다.

편의 봉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일'군들이 인민들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표준 조작법과 기술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며 수리, 수선 작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도 편의 일'군 양성소 사업을 강화하며 편의 봉사 일'군들 속에서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급 이상 높이기 위한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 ※

상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지방 인민 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현 시기 상품 류통 사업을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신천 지구 당 및 정권 기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현 시기 군 인민 위원회의 첫째 가는 임무가 상업이며 따라서 군 인민 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자기 사업의 중심을 상업에 두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상업이 지방 인민 위원회들의 사업에서 첫째 가는 임무로 되는 것은 우리 인민 정권 자체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민 위원회들로부터 지방 산업과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기능이 분리되고 지방 상업에 대한 지도가 모두 그에 이관된 사정과 관련된다.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인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문제 특히 상업을 직접 틀어 쥐고 책임적으로 조직 지도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은 도시와 농촌을 련결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군 인민 위원회가 상업을 잘 조직하고 옳게 지도할 때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련계가 더욱 강화되고 나라의 전반적인 류통 사업이 잘 되며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이 다 같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로동자, 농민들의 협조와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며 생산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지방 인민 위원회들이 상업을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계획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현시기 상업에서 계획화 수준을 높일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우리의 생산이 계획적인 것만큼 분배와 소비도 계획적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상품 류통 규모가 방대하여지고 그 품종 구성이 다양하게 된 현 시기 상업에서 계획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상품 공급 사업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상업의 계획화에서는 우선 상품 류통을 다른 인민 경제 부문들과 계획적으로 련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상품 원천, 상품 공급, 판매 능력 등 상업 내부 환절들의 고리를 계획적으로 련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업 기관, 기업소들에서의 상품 류통 계획은 개별적 일'군들의 주관적 욕망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객관적 현실과 가능성을 옳게 타산하여 정확히 작성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군중 로선에 철저히 의거하여 계획을 직접 실행하는 일'군들과의 광범한 토의 밑에 상업을 직접 조직 지도하는 일'군들이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 군 인민 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매개 상업망들에 내려 가서 상품의 매 품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와 지대별, 계층별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며 상품의 현 재고와 과년도의 실적 그리고 생산 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품 류통 계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매개 상업망들에서는 매대별로 개별적 판매원나 접대원에 이르기까지 매일 계획 과제를 품종 별로 주고 그의 실행에 대한 총화 평가 사업을 매일, 매주, 매월, 매 분기마다 진행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시, 군 인민 위원회들에서는 매개 상업 기업소들의 계획 수행 정형을 매월, 매 분기, 년간을 통하여 계통적으로 정상 분석하고 약한 고리를 찾아 내며 그 고리를 추켜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에 전체 상업 일'군들을 조직 동원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야 할 것이다.

상업에 대한 지방 인민 위원회들의 지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업 기업소들의 기업 관리 운영 사업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 관리는 물자 재산, 화페 재산, 로력 등에 대한 관리를 잘 하여 나라에 보다 많은 리익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매개 상업 기업소의 수익성을 높이며 살림살이를 잘 꾸리는 문제로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매개 상업 기업소 단위 책임자로부터 판매원, 접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군들이 수지 타산을 할 줄 알며 온갖 예비를 찾아 내여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도록 그들의 관리 운영 지식을 높여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업 부문 일'군들로 하여금 상품 보관 관리를 잘 하며 상품 입출고 제도와 검사 규률을 강화하여 상품의 부패, 변질, 파오손 현상을 근절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매개 단위에서 내부 채산제를 강화하며 물자 재산에 대한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고 고정 재산을 옳게 관리하며 각종 시설들과 랭동기, 기타 설비 비품들의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 규률, 부기 계산 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 경리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재정 부기 일'군들을 고착시키고 그들의 실무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데 주목을 돌릴 것이다.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상업의 모든 단위들에서 직접 부문의 로력 비중을 계통적으로 높이고 부양 가족 로력과 림시 로력을 광범히 인입하며 로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매

개 상업 기업소들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로동 규률을 강화하며 로동 정량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고 도급제 및 우대제, 상금제를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도록 백방의 지도를 주어야 한다.

상업에 대한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자체 실정에 맞게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차적 문제는 상업을 직접 지도 관리하는 도 인민 위원회 상업 관리국과 시, 군 인민 위원회 상업 관리부를 튼튼히 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매개 상업 단위에 내려 가 실속 있게 도와 주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업 부문 지도 일'군들이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결합하여 한 점을 뚫고 거기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며 전체를 추켜 세우는 사업 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상업을 새 현실에 맞게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유력한 수단으로 된다.

주문에 의한 상품 공급 조직의 완성, 주민들에 대한 높은 봉사성, 상품 화폐 재산의 옳은 관리와 수익성의 제고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모범 상점》, 《모범 상업군》 창조 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켜 그 대렬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당의 혁명적 사업 방법을 상업 부문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은 옳은 검열 사업과 밀접히 결부됨으로써만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업 활동에 대한 국가적 및 전 사회적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 조직 특히는 봉사성에 대한 지도 검열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품 화폐 재산의 보관 관리에 대하여서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상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지방 당 조직들이 이 부문에 적극적인 지도를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 조직들은 상업 일'군 대렬을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 줄 알며 인민 대중의 신망이 높은 사람들로 튼튼히 꾸려 주고 그들을 당적 사상 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모든 상업 일'군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데 큰 주목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상업은 그 본질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착취하며 고률의 리윤을 짜내는 자본주의 상업과는 반대로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복무한다. 때문에 사회주의 상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줄 아는 그러한 혁명적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업 일'군들이야 말로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머니와 같이 돌보아 주는 가장 존경 받는 귀중한 사람들이며 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민의 충복이 되는 데 있다고 강조히 교시하였다.

우리 당은 항상 상업 일'군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상업 부문 사업 개선의 가장 기본적이며 결정적 고리로 인정하고 그를 강화하기 위하여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다. 그리 하여 상업의 모든 단위들에서 정치 사업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또한 상업 일'군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국가적 대우를 개선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사회주의 상업의 우월성을 상업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성, 대중성, 계급성에 기초한 높은 봉사성을 소유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

다.

상업 그 자체가 인민 대중의 생활상 문제를 직접적으로 돌보아 주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만큼 상업 일'군들의 활동은 대중과의 접촉, 대중들의 요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인민성, 대중성은 인민 대중에 대한 관점에서, 대중과의 련계에서, 그들에 대한 태도에서 표현된다.

이는 상업 일'군들로 하여금 대중들의 생활상 요구에 누구보다도 민감하며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소한 것까지 책임적으로 해결하여 주는 립장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은 모든 상업 일'군들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즉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인민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생산에 대한 상품 주문 과정에서 인민성, 대중성이 표현되도록 상업 일'군들을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일'군들의 사업에서 인민성, 대중성은 계급성의 원칙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상업에서 계급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상품 공급 사업을 사회주의 건설에 유익하게 로동 계급과 그의 동맹자인 농민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방향에서 조직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만이 상품 공급에서 높은 봉사성은 자기의 생활력을 나타낼 수 있다.

상업 일'군들에 대한 교양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들을 항일 빨찌산 후방 공급 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상업 활동에서 높은 책임성과 혁명적 전개력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상업 단위들에서는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산 모범과 혁명 선렬들의 투쟁 정신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상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현실은 우리 상업 일'군들이 보다 정치적으로 잘 준비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세련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상업 일'군들에게 상품에 대한 지식과 상품 포장, 진렬, 취급 방법 그리고 영양 위생학, 료리 제조법, 카로리 및 원가 계산, 접대 봉사 방법, 재정 부기 계산과 기업 관리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상업에 대한 전 인민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상업 발전을 위하여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본질과 그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상업 발전에 대한 그들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이 상업 일'군들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전체 상업 일'군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과 상업 부문에 주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이룩하며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 과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자.

남조선에서의 로동 운동의 앙양

윤 영 호

최근 남조선에서는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이 앙양되고 있으며 그 불'길은 남조선 도처에 세차게 타번지고 있다.

관영 기업체와 민영 기업체의 수 많은 로동자들이 이 투쟁에 망라되고 있으며 수 개월 간 쟁의에 들어 서고 있다.

이것은 미제와 괴뢰 정권에 대한 그들의 불만과 반항의 표시이며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더욱더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그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오늘 남조선 로동 계급의 정치적 각성과 계급 의식이 더욱 제고되였다는 표시이다.

오늘 남조선 로동 운동의 특성과 성격을 정확히 해명하는 것은 조국 통일 위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오늘 남조선 로동 운동은 그의 규모와 성격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장성 발전하고 있다.

우선 로동 운동이 대중적 성격을 띠면서 대규모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의 련대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로동 쟁의에는 각이한 직종과 구성 성분을 가진 로동자들이 망라되고 있다.

즉 철도, 운수, 광산, 부두, 전력, 섬유, 체신, 전매, 출판, 금융 부문 및 미군 부대에 이르기까지 150여 개에 달하는 괴뢰 관영 및 개인 기업체들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쟁의에 참가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로동 운동이 비교적 활발히 전개된 4. 19 이후 시기에도 최고 만 명 단위에서 쟁의가 진행되었다면 금번 쟁의에는 무려 14만여 명 이상의 로동자들이 망라되고 있다.

이처럼 광범한 로동자들이 쟁의에 참가한 것은 해방 후 일찌기 그 류례가 없는 일이다.

남조선 어용 출판물들까지도 최근의 로동 쟁의를 《전례 없는 대규모의 쟁의》라고 인정하는 데 이르고 있다.

대규모적인 로동 쟁의는 불피코 남조선 로동 계급의 련대성을 점차 강화케 하고 있다.

작년 초까지만 하여도 로동 쟁의는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시작된 철도 부문 로동자들의 쟁의에 호응하여 일떠선 각 부문 로동자들의 투쟁은 련쇄 반응을 일으키며 계속 확대 발전하고 있다.

지난 1월 철도, 체신, 전매 부문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 조건이 100% 달성될 때까지 생사를 같이 해서 싸울 것》을 결의했으며 지난 2월 초에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 조건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공동 투쟁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남조선 로동 쟁의가 로조들 간의 단순한 호응, 지지

정도가 아니라 수 개의 단위에서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그것이 전면적으로 발전할 추향을 보여 주고 있다.

말하자면 로동자들의 투쟁이 개별적인 공장 단위에서 산별적인 투쟁에로, 지역적인 투쟁에로, 나아가서는 전 남조선적인 범위의 투쟁에로 발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번 쟁의에서 특징적인 것은 로동 계급 대열 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간 산업 부문 로동자들의 진출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으며, 비교적 요구 조건이 높고 투쟁에서 적극성과 완강성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기간 산업 부문 로동자들의 투쟁은 부두 하역, 토건 부문과 경공업 부문 로동자들의 투쟁에 비하여 비교적 약하게 전개되였다.

저조 상태에 있던 기간 산업 부문 로동자들의 투쟁은 최근에 이르러 금속, 광산, 화학, 철도, 운수 등 각 부문에 걸쳐 일제히 투쟁에 돌입함으로써 어느 부문보다도 급격히 장성하고 있으며 점차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중심을 이루고 기타 광범한 로동자들을 투쟁에로 고무함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였다.

투쟁에 궐기한 남조선 로동자들은 체불 임금의 즉시 지불과 현행 임금을 40~100% 올릴 것을 강경히 요구하고 있으며 괴뢰 정권의 반동적인 보수 정책을 반대 배격하고 있다.

남조선 은행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 년 간에 있어서 물가 지수의 장승률은 약 40%인데 로동자의 로임은 그 대로 답보 상태에 있으며 그들의 가계 유지비는 최저 생활비도 되지 못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괴뢰 정권은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철도 료금 15%, 학비 20~50% 인상하였으며 《보수 통제법》 등으로 로동자들의 생활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금번 로동 쟁의는 물가의 앙등과 생활고, 괴뢰 정권의 반인민적 로동 보수 정책에 대한 불만과 직접 관련되여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들은 로동자들의 완강한 투쟁에 당황하여 이것을 무마하며 탄압하려고 갖은 흉계를 다 꾸미고 있다.

그들은 반동적인 남조선 《로총》 간부들을 초청하여 《만찬회》를 베풀며 로동 쟁의를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하는 한편 로동 관계법을 개악하며 《한 미 공동 회의》니, 《로동 관계 8 부 장관 회의》 등 탄압 모의를 빈번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로동 계급은 간악한 탄압과 와해 책동에 굴하지 않고 미제와 괴뢰 당국을 반대하며 자기들이 내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부문의 로동자들이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파업을 결의해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오늘 남조선 로동자들 속에서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자각이 높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남조선 로동 운동의 주요한 특징은 아직도 경제 투쟁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나 그것이 점차 정치 투쟁에로 발전하고 있으며 투쟁의 예봉이 괴뢰 정부와 미제에게 돌려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 로동 계급은 생활 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보수 통제법》, 《로동 위원회법》, 《로동 쟁의 조정법》 등을 비롯한 각종 로동 관계 식민지 악법들을 철폐 및 개정할 것을 완강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시기 대중적 규모에서 강력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는 남조선 로동 계급의 투쟁은 개별적인 기업주들이 아니라 주로 미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인 괴뢰 정부를 투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미제 략탈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로동 계급의 투쟁이

당면 경제 투쟁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로동 운동에서 정치적 성격이 더욱더 농후해지는 것은 운동 발전의 객관적인 합법칙성의 발현이다. 그것은 로동 계급이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종국적인 해방을 위하여서는 모든 사회 경제적 악의 근원인 자본주의 착취 제도 자체를 전복하여야 할 필요성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조선 로동 계급이 투쟁을 통하여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판가리 싸움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데로부터 오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날로 앙양되고 있는 남조선 로동 운동 내부에서의 점차적인 질적 변화 및 정치적 성격의 강화 그리고 그것이 남조선 인민 투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는 남조선 로동 계급이 전 인민적인 반미 구국 투쟁에서 점차 자기의 령도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로동 운동은 대규모적으로 앙양되고 있으나 지도자의 결여, 조직성, 의식성의 미약으로 인하여 일정한 제한성을 나타내고 있다.

남조선에서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로동 쟁의권은 대체로 《한국 로총》과 같은 어용 로조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태업, 파업 등 실력 행사에 들어 가는 것을 주저하며 중재, 조정 등의 방식에 너무 오래 매달리고 있다.

례컨대 2만 7,000여 명의 남조선 철도 부문 로동자들은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현행 임금 100% 인상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 갔으나 아직까지 실력 행사에 들어 가지 못 하고 《철도청》의 중재, 조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산별 로동자들 간에 조직적 련계를 맺으려는 추세는 점차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산별 로동자들 간의 조직적 련대성이 미약하며 어용 로조의 무마, 파괴 책동으로 쟁의가 각개 격파당할 징조를 보이고 있다.

체신 부문 로동자들이 약간의 체불 임금의 지불에 순응하여 로동 쟁의에서 물러 선 것은 그의 구체적 실례이다.

금번 쟁의에서 괴뢰 정부의 소위 《보수 통제법》을 비롯한 반동적 로동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였으나 많은 경우에 경제적 투쟁에 국한되고 있는 것은 로동 운동의 약점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철도 부문 로동자들이 성명에서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고한 로동의 시점에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기본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경제적 투쟁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 투쟁만으로는 부족하다.

남조선 로동 계급을 참을 수 없는 빈궁과 무권리 속에 몰아 넣고 있는 식민지 테로 통치 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정치 투쟁을 진행하지 않고는 로동 계급의 진정한 해방이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을 련결시키며 경제 투쟁에서 점차 정치 투쟁에로 이행함으로써만 남조선 로동 계급은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오늘 남조선 로동 운동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제한성은 투쟁 행정에서 점차 극복될 것이며 투쟁에 일떠선 로동 계급은 더욱 의식화되고 조직화될 것이다.

2

최근 시기 남조선 로동 운동의 새로운 추세에로의 발전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의 사회 경제적 근원은 독립적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과 다르다.

독립적인 자본주의 나라 로동 운동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인 로자 간의 주요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다면 식민지 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제국주의와 그 주구인 지주, 예속 자본가를 청산하기 위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다.

미제의 전형적인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에서의 로동 운동의 사회 경제적 근원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들과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과 그에 복무하는 남조선 예속 자본의 압박과 착취에 의한 남조선 로동 계급의 처지의 체계적인 악화와 식민지 파쑈 통치에 의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미국 독점 자본, 예속 자본과 남조선 로동 계급 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가일층 첨예화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의 압박 하에 남조선 민족 산업은 전면적으로 파산되였으며 막대한 실업군이 조성되였다.

미제는 고용군의 유지비에 필요한 막대한 군사비 념출을 위하여 남조선 로동 계급에 대한 가혹한 식민지적 착취를 감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력의 가치로부터의 로임의 배리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의 로동자들의 임금은 최저 한계를 훨씬 더 벗어나고 있다.

남조선 로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최저 생계비의 3분의 1도 못 된다. 식민지 기아 임금마저도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 수 개월씩 밀리고 있다.

로동 시간은 하루 10~16 시간을 넘으며 기술 발전이 정체된 조건에서 고된 로동이 강요되고 있다.

실로 남조선에서 로동 계급에 대한 주요 착취자가 미국 독점 자본인 조건에서 계급적 모순과 민족적 모순이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미국 독점 자본, 그에 복무하는 예속 자본과 남조선 로동 계급 간의 모순의 첨예화는 남조선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을 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 일당은 《민정 이양》을 계기로 세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관영 료금 및 학비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수입 물자에 대한 《시가 역산제》의 도입과 《림시 외환 리득 세법》에 의한 딸라 환률의 인상을 통하여 물가의 등귀를 더욱 자극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도탄 속에 몰아넣었다. 특히 박 정희 도당은 갖은 악법들을 조작하여 로동자들의 생활 처지의 개선을 백방으로 저애하고 있다.

남조선 로동 계급의 쌓이고 쌓인 반미, 반《정부》적 감정은 《제 3 공화국》의 첫 《선물》인 각종 료금의 인상과 물가의 등귀, 반동적 로동 정책 등 학정을 계기로 일시에 폭발되였다.

또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급격한 향상은 남조선 로동 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투쟁에 궐기한 남조선 로동 계급은 항상 북반부를 우러러 보며 거기에서 희망과 승리의 신심을 얻고 있다.

지금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에서 급격하게 앙양되고 있는 로동 쟁의와 관련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진퇴량난에 빠지고 있다.

현재 박 정희 도당은 로동자들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도 또한 접수도 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지고 있다.

그들이 로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무조건 거부하지 못 하는 리유는 로동자들의 반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일 남조선 로동자들이 파업과 같은 실력 행사에 들어 서면 로동 쟁의의 규모가 큰 것 만큼 남조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특히 남조선 산업에서 기간적 부문인 전력, 석탄, 철도 부문 로동자들이 쟁의를 벌리고 있는 것 만큼 이들이

실력 행사를 단행한다면 남조선 경제는 더한층 마비될 것이다.

반대로 박 정희 도당은 원래 로동자들의 요구에 순응할 생각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미한 밑천도 없다.

만일 로동자들의 요구 대로 임금을 인상하면 령세 관영 기업체와 민영 기업체들이 더욱 큰 재정 경영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 하여 괴뢰 정권은 임금 인상 여부에 대한 단안을 내리지 못 하고 있다.

더우기 미국과 이미 체결한 《재정 안정 계획》에 따라 년말 통화량을 400억원 선으로 한정한 관계로 화폐 증발권을 사실 상 제한 당하고 있다. 만약 화폐를 람발한다 하여도 오히려 그것은 물가의 앙등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며 괴뢰 정권의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박 정희 도당은 로동 쟁의를 탄압, 회유, 무마하는 방법으로 저지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박 정희 도당들은 관영 기업체들에 적용하고 있는 《보수 통제법》을 폐기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수당금을 다소 인상하는 것으로써 회유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 주지 않는 한 어떠한 타협 조건도 받아 들이지 못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표시하고 있다.

례컨대 박 정희 도당은 2월 10일 철도 부문 로동자들의 임금을 7%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쟁의를 무마하려고 들자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 모든 것은 박 정희 도당이 앙양되고 있는 로동 운동을 무마하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 처방이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남조선 로농 계급의 정의의 투쟁을 멈출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그들의 투쟁은 심화 발전될 것이다.

로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은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계에서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부산 일보》 최근 호는 《생활 권익을 위해서나 로동력 보존을 위해 로동자 대우 개선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로동자들의 《쟁의는 합법적》이라고 썼으며 《조선 일보》는 로동 쟁의를 무마, 억압하려는 박 정희 도당의 처사에 대하여 《로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누르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남조선 로동자들의 근본적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여야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남북의 합작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남조선 로동자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

남조선 로동 계급은 오랜 기간 일제와 싸워 이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며 해방 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한 혁명적 기개를 지니고 있다.

남조선 로동자들이 이 고매한 혁명 정신을 간직하고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애국적 인민들과 굳게 손을 잡고 원쑤를 반대하여 궐기할 때 점령 못 할 요새는 없다.

날로 앙양되고 있는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더욱 더 커다란 타격을 가하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남조선 로동자들의 애국적 투쟁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남조선에 침투하고 있는 일본 독점 자본

한 금 천

오늘 남조선의 정치 경제 정세는 일본 독점 자본의 재침 책동의 위협 밑에 엄중한 국면에로 빠져 들어 가고 있다.

일본의 대독점체들과 상사들은 《경제 협력》, 《일 한 친선》의 간판을 들고 자기의 선발대들을 파견하여 남조선에서 침략의 지반을 축성하고 있다.

이미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일본 상사들의 수는 5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 한복판에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선발대들이 활동할 《뉴우 코리어 호텔》이라는 11 층의 건물이 솟아 오르고 있다.

거리들에는 벌써 일본 상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왜색 풍조가 짙어 가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까지도 《왜색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 이 땅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개탄하고 있다.

실로 오늘 남조선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치욕의 과거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60여 년 전에도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자신을 조선 인민의 《보호자》로 자처하고 《협력》, 《개발》의 구호 밑에 조선의 경제 명맥을 틀어 쥐였으며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마침내 조선 인민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 노예로 전락시켰으며 아세아의 많은 지역을 침략하였다.

력사와 현실은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재침 책동이야말로 남조선 인민은 물론 전체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해를 침해하는 화근으로 되며 그것은 또한 아세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시기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재침 책동을 반대 배격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과 나아가서는 아세아 인민들의 절실한 투쟁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1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재침 책동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 조종에 의한 일본 독점 자본 발전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미 제국주의자들은 일본 군국주의를 자기들의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울 것을 대극동 정책의 중심 과제의 하나로 삼고 일본 독점 자본을 급속히 부활시켰다.

그들은 《점령지 구제 자금》, 《점령지 경제 부흥 원조 자금》을 비롯한 각종 《원조》, 군수 물자 주문, 사자본 투자, 무역, 신용 등의 형태와 방법으로 일본 독점 자본 발전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1945～1958년 6월까지의 기간에 미국이 일본에 준 《원조》액은 35억 4천만 딸라이며 조선에서의 침략 전쟁을 도발한 후 1962년에 이르는 기간에 약 70억 딸라에 달하는 《특수》 자금을 제공하였다.

일본에 대한 미제의 각종 형태와 방

법을 통한 자금 조달은 일본 독점 자본의 막대한 치부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특히 전후 심각한 자금난을 타개하고 생산과 독점을 장성시킬 수 있는 기초로 되였다.

대전 직후에 와서 전전의 약 3분의 1로 저하되였던 일본의 공업 생산은 급속히 회복되여 1951년에 벌써 전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1961년에는 전전의 4배로 장성하였다. 1961년에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도달하였는데 이것은 전전보다 1% 장성한 것으로 된다.

생산력 발전과 함께 자본의 집중 과정이 촉진되였다. 1961년 법인 기업체 총수 48만 1,377개 중 537개의 기업체들이 자본금 총액의 65%, 고정 자본 총액의 59.5%, 상품 매상고의 33%, 리익금의 41.6%를 장악한 사실은 대독점에 의한 경제적 지배의 강화를 반영하는 단적 실례로 된다. 《후지》, 《야스다》, 《스미도모》 등 6개의 대은행은 1959년에 벌써 은행 자본 총액의 46%, 대부 총액의 43%를 직접 장악하게 되였다.

생산력의 확장, 생산 및 자본의 집중을 통한 독점 자본의 급속한 발전은 생산 능력과 소비 시장 간의 모순을 산생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독점 자본 발전의 전 과정에 걸쳐 자본에 의한 로동 계급의 착취는 생산력 발전 수준에 비한 국내 소비 수준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

1961년 현재 일본 공업 생산은 대전 전의 4배로 장성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국내 소비는 겨우 50%가 장성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코 일본 독점으로 하여금 협소한 국내 시장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대외 시장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산 수단이 사적 소유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 지불 능력 있는 수요가 생산 장성에 따라 가지 못함으로써 과잉 상품의 판매난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제국주의 단계에 와서 자본의 거대한 규모에로의 집적 및 집중은 생산과 수요 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며 따라서 과잉 상품의 판매, 보다 《안전한》 잉여 가치 착취를 위한 해외 팽창 정책을 유발하게 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의 생산력과 자본의 규모는 자라 개개의 민족 국가의 협소한 테두리를 벗어 났다. 이로부터 타민족의 예속과 원료 산지 및 자본 수출지로서의 식민지의 략탈에 대한 대렬강들의 지향이 생겨 난다.》(전집 제 21 권, 412 페지)

현 시기 일본 독점 자본의 팽창 방향은 동북 아세아이며 당면하게는 남조선이 목표로 되고 있다.

일본 독점들은 《일본이 없이는 한국 경제의 앞날도 없다》고 남조선 재침 야망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물론 일본 독점이 침략의 촉수를 남조선에 뻗치려는 것은 지리 상으로 린접되여 있는 유리한 조건을 타산한 일본 자체의 침략적 야망에도 기인되지만 중요하게는 미제의 유인 정책과 결부되고 있다.

최근 미제는 자국이 봉착하고 있는 딸라 위기와 관련하여 남조선에 대한 《원조》의 일부를 일본에 분담시킴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며 일본의 힘을 빌어 뒤흔들리는 남조선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재수습하려 하고 있다.

미 국무성 당국자들이 《아세아에서 일본이 지도적 역할》을 놀아야 하며 《한국의 장기적 안정과 경제 리익은 불가피하게 일본과 련결되여 있다》고 떠벌리고 있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제의 대외 정책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은 해외 팽창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아에서 옛지위를 회복해 보려는 일본 독점들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독점 자본은 미제의 《원조》 분담 정책에 편승하여 남조선에 대한 재침의 길에 들어섰다.

그가 남조선 침투에서 노리고 있는 목적은 남조선을 침략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전 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는 아세아 대륙을 침략함으로써 이미 파산된 지 오랜 저들의 《대동아 공영권》의 옛지위를 회복해 보려는 데 있다.

그것은 아세아에서 《일본 합중국을 만들어야 하며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극동의 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한 일본 자유 민주당 부총재 오노 반보꾸의 망언에서도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특히 현 시기 일본 독점들이 남조선에 대한 침투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첨예한 대외 시장 문제와 국제 수지 적자의 증대로 인한 일본 자체의 당면한 경제적 난관과 다른 편으로는 박 정희 《정권》의 대일 굴종의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께다 내각은 얼마 전에 《소득 배증 계획》을 내세운 바 있다.

이 계획은 최근 10년 간에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장성시킬 것을 내용으로 한 허황한 계획인데 그것은 광범한 대외 시장을 뒷받침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구라파 공동 시장》, 《자유 통상 지대》 등 국제 무역에서의 지역적 블럭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미국 상품 강매 정책)의 강화 등 일련의 정세는 서구라파에 대한 일본 상품 판로를 차단하고 있다. 그의 후과는 1962년에 수출 42억 딸라, 수입 58억 딸라로서 일본의 국제 수지 적자가 16억 딸라에 도달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와 때를 같이 하여 박 정희 도당은 지난 군사 파쑈 통치 2 년 간에 반인민적 정책이 빚어 낸 생산의 파탄, 식량 위기, 물가 폭등, 원자재 부족, 외화 고갈 등 심각한 경제적 후과로 말미암아 초래된 자기의 통치 위기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수습해 보려고 일본에 적극 의거하는 길에 들어섰다.

박 정희는 《제 2의 리 완용이가 되더라도》, 《역적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일본 독점 자본을 끌어 들여야 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일본 독점 자본으로 하여금 남조선 침투를 서두르게 되는 주객관적 조건으로 된다.

일본 독점체들은 최근 시기에 와서 《한국행 뻐스를 놓치지 말라》고 하면서 앞을 다투어 남조선에 기여 들고 있다.

2

현 시기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침투는 주로 무역, 《기술 협조》, 《보세 가공 무역》, 차관 등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 독점 자본은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자국의 잉여 상품을 남조선에 투입하며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경제적 지반을 축성하기 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이것은 현 시기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침투에서 자본 수출보다 상품과 기술 수출이 지배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제국주의 독점은 타국에 대한 경제적 략탈에서 독점적 고률 리윤 획득의 원천으로 되는 원료 자원과 로동

력, 기업을 매점하기 위한 자본 수출에 큰 의의를 부여한다.

그러나 자본 수출에 대한 독점 자본의 지향은 두 나라 호상간 특히 자본 수출 대상국에 의한 일정한 정치적 보장 및 경제적 안받침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적 관계로서의 정치 경제적 조건이 보장되였을 때 한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자본 수출은 거리낌 없이 진행되며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자본 수출이 제한 억제된다.

오늘 일본과 남조선 호상간에는 일본 독점들의 자본 수출을 제한 억제하는 일련의 정치 경제적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0여 년이나 끌어오던 《한 일 회담》은 아직도 타결되지 못 하여 남조선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가 실현되지 못 하고 있으며 《한 일 회담》과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침투를 반대하는 남조선 및 일본 인민들의 투쟁 기세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독점들의 상품 및 자본 수출이 실제상 강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독점들이 《량국 정부의 보다 확고한 뒤'받침과 일관성 있는 시책이 베풀어져 투자의 보장은 물론 상거래의 신용 및 안정도가 마련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한 일 국교 정상화》를 급속히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결코 우연하지 않다.

다른 한편 남조선의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 위기, 무역과 어업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 일 간의 경제적 모순, 남조선 경제에 대한 미제의 지배 등은 일본 독점들의 남조선에 대한 자본 수출을 심히 제한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본 독점 자본은 새로운 수법을 고안하게 되였는바 그것이 곧 《경제 협조》의 간판 밑에 정제적 침략을 강화하려는 무역, 《연불 수출》, 《기술 협조》, 《보세 가공 무역》, 차관 등 자본 수출의 과도적 형태이다.

오늘 일본 독점 자본은 이러한 형태로써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에 대한 침투 정형을 형태 별로 고찰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 독점 자본은 대외 무역을 통하여 상품 수출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시기 일본 독점 자본은 남조선의 심각한 외화난으로 말미암아 지불 능력이 극히 제한되여 남조선에 대한 상품 수출을 충분히 확대할 수 없는 것을 타산하고 《구상 무역》, 《연불 수출》의 방법까지 리용하여 상품 수출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1959년에 남조선에 대한 일본 상품 수출액은 3천 2백만 딸라로서 남조선 수입 총액의 10.6%에 불과하였으나 1962년에 와서는 그의 3 배로 증대되였다.

무역의 량적 증대와 함께 그의 구조 상에서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그것은 무역에서 점차 설비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의 《하세가와 제철소》, 《도요 면화》, 《도요 레이온》 등 독점체들은 남조선의 괴뢰 정부 또는 개별적인 예속 자본가들을 상대로 하여 수천만 딸라에 해당하는 세멘트, 제빙, 방직 부문의 종합 설비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니홍 정유》, 《고베 제강》, 《도요 면화》 등은 정유, 비료, 세멘트 공장 설비 수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무역 구조 상 변화의 다른 하나는 중화학 공업 제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1961년에 남조선의

일본 중화학 공업 제품 수입액은 대일 수입 총액의 76.3%나 되고 있다.

설비 무역이 증대됨에 따라 남조선의 대일 무역에서의 상시적인 채무, 채권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응당한 귀결이다.

이러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남조선이 일본의 설비 수출 시장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일본 독점 자본의 경제적 침략 책동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로, 일본 독점 자본은 《보세 가공 무역》, 《기술 협조》의 형태를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자본 수출의 지반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보세 가공 무역》, 《기술 협조》는 독점들이 자본 수출의 과도적인 단계에서 상품과 자본 수출의 전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흔히 리용하는 침략 수단의 하나이다.

일본 독점 자본은 《보세 가공 무역》, 《기술 협조》의 미명 밑에 자금의 결핍, 기술 조건의 불비로 인하여 운휴 상태에 있는 남조선의 중소 기업체들에 약간의 자금과 설비들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그것을 저들의 하청 공업으로 전락시켜 값싼 로동력을 착취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건설 청부의 담당, 장기 《기술 제휴》, 기술 인원의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한 20여 건의 《기술 협조 계약》이 체결되였으며 1963년 9월 현재로 금액 상 2억 9천여만 딸라에 해당하는 수십 건의 보세 가공 계약 및 가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세째로, 일본 독점 자본은 직접 투자, 차관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책동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일본 독점들은 상품과 기술 수출을 강화하면서 차관, 직접 투자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최근 2년 간에 일본 독점들이 차관, 직접 투자의 형태로 남조선에 투하하였거나 투하 교섭 중에 있는 자본을 금액 상으로 환산한다면 5억 딸라 이상이나 된다.

일본의 위체 은행들인 《제 1 은행》, 《동경 은행》 등 수 많은 대은행들은 남조선에 대한 《신용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점》 설치를 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 독점체들은 《대리점 업무 계약》, 《기술자 교환》, 《공동 조사》 등 각종 형식으로 남조선에 침투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 일본 독점들은 자본 수출보다 상품과 기술 수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한 정도로 남조선 경제에 침투하고 있는 일본 독점 자본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박 정희 도당의 대일 굴종 정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자본 수출의 비중을 급격히 증대시키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만일 일본 독점 자본이 자본 수출을 강화한다면 남조선 경제는 더욱더 파탄될 것이며 남조선 인민은 미 일 제국주의에 2중으로 예속된 식민지 노예로 전락될 것이다.

오늘 남조선은 일본 독점 자본까지 끌어 들여 미 일 침략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되느냐, 아니면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 내부 력량에 의거하여 자생, 자결하느냐 하는 '갈림' 길에 놓여 있다.

지난날의 력사와 오늘의 남조선 현실은 외세 의존이 민족의 리익과 나라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망국의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있다.

출로는 오직 하나, 그것은 남조선에서 일체의 외세를 몰아 내고 남북 간의 교류와 합작을 통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조선 인민은 미제의 비호, 조종 하에 남조선을 재침하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책동과 그를 맞아 들이고 있는 박정희 도당의 그 어떠한 망국 행위도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과거처럼 조선에서 함부로 로략질할 때는 지나 갔으며 오늘의 조선 인민이 60여 년 전의 조선 인민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오늘의 조선 인민은 항일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불패의 인민이며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세계의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침략자들을 격파하고 조국을 지켜 낸 영웅적 인민이다.

특히 전후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력량이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다. 이제 우리 인민에게는 그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며 그 어떤 원쑤의 침략 책동도 단숨에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이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거기에서 응당한 결론을 얻어야 한다.

만일 분별 없이 모험적인 침략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과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구국 투쟁의 불'길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민주주의 정당, 사회 단체, 개별적 인사들도 일본 군국주의의 무모한 침략 책동이 일본 인민을 미제의 침략의 희생물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재침 책동을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과 일본 인민들에게 국제적 련대성을 표시하며 열렬한 지지 성원을 보낸다.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재침 책동은 조선 인민과 일본 인민의 단합된 력량 앞에 과탄되고야 말 것이다.

미제는 동남 아세아에서 쫓겨 나고야 말 것이다

허 남

동남 아세아는 오늘 세계에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폭풍이 가장 세차게 일어 나고 있는 지역의 하나이다. 바로 이 지역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의 《무시운 십자 포화에 걸려 들어》(워싱톤 데일리 뉴스) 녹아 나고 있고 그들의 침략 정책의 《척추》가 분질러지고 있다.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 간의 격렬한 싸움 속에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각성하고 승리하고 있으며 침략자들의 식민지 지반은 뿌리 채 뒤흔들리고 있다.

미제는 동남 아세아에서의 자기들의 집요한 침략 정책으로 하여 추적된 《폭발물》 더미 우에서 공포에 떨면서 비명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헤여 날 수 없는 감탕 속에 더욱더 깊이 빠져 들어 가고 있다.

동남 아세아는 반제, 반식민주의의 전투장으로 화하고 있다. 이 지역 인민들은 무장 투쟁을 비롯한 각종 단호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광명한 길을 개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도발에 날뛰는 미제 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함으로써 아세아의 평화 유지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　＊

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동남 아세아를 침략과 략탈의 중요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여기에 끊임 없이 침략의 마수를 뻗쳐 왔다.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침략의 마수가 전면적으로, 본격적으로 뻗치기 시작한 것은 특히 2 차 세계 대전 이후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대외 침략, 세계 제패 계획에서 동남 아세아 지역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다.

미제가 저들의 침략 정책에서 이 지역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동남 아세아는 세계에서 자연 부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고무, 주석, 석유를 비롯한 각종 전략 자원이 풍부하며 제국주의 독점체들에 막대한 초과 리윤을 가져다 주는 광대한 시장이 있다.

동남 아세아는 미제의 전략적 견지에서 볼 때도 사회주의 진영, 특히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을 《봉쇄》하며 그들을 반대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 지대를 이루고 있다.

미제는 2 차 대전 후 우리 나라, 중국, 월남 등 사회주의 나라들이 출현한 시초부터 이 나라들을 반대하기 위한 침략적 지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그들의 이러한 정책은 특히 아세아 사회주의 나라들의 위력이 미증유로 강화되고 이 나라들이 아세아에서의 강유력한 평화의 성새로 등장함에 따라, 그리고 동남 아세아를 비롯한 아세아 지역 인민들에 대한 그들의 고무적 영향

력이 증대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제는 동남 아세아에서 자기의 식민지적 리권을 확대하고 세력권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전 과정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영국, 불란서, 화란 등 구 식민주의자들의 지위가 약화된 절호의 기회를 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자기의 경제력에 의거하여 이 지역에 전면적으로 침투하였다.

미제는 대전 전에 영국의 예속 하에 있었던 타이를 탈취하고 불란서의 식민지였던 남부 월남을 강점하였으며 점차 인도에서 영국을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동남 아세아 전 지역에 마수를 뻗치였다.

이리 하여 미제는 동남 아세아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세력의 중심으로 되였으며 민족 해방 운동을 교살하는 흉악한 헌병으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첫째 가는 원쑤로 등장하였다.

동남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은 특히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급격히 고조되고 혁명과 반혁명, 진보와 반동 간의 투쟁이 전례 없이 치렬해지고 혁명 력량의 진출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더 발광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미제는 이 지역이 완전히 혁명화되며 제국주의자들의 영향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사회주의 력량에 종국적으로 합세하게 될 사태를 무엇보다 겁 내고 있는 것이다.

사태 발전은 미제의 온갖 발악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갈수록 혁명 력량이 급속히 장성하고 있으며 미제와 모든 반동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 지배층의 대변자들이 동남 아세아에서 《1970년까지도 현재의 정세가 지속된다면 이는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우리가 직면한 어떤 위기보다도 더 위험한 정세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명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제는 동남 아세아를 자기의 세력권 내에 장악함으로써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을 《봉쇄》하며 그의 고무적 영향력을 막으려는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동남 아세아에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위기에 처한 자기들의 식민지 지반을 수습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인민들이 각성되고 민족 해방 투쟁이 급속히 앙양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야수적인 무력 탄압과 함께 각종 교활한 신 식민주의 수법을 적용하고 있다.

실로 오늘의 동남 아세아는 미제의 각종 형태의 신 식민주의의 진렬장으로, 시험장으로 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선 이 지역에 자기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침략적인 군사 뿔럭을 더욱 강화하며 로골적인 무력 간섭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쎄아토》를 조작하고 그 참가국들의 령토에 수 많은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극동과 동남 아세아 지역에 21만 5,000 명에 달하는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미제는 《말레이시아 련방》을 《쎄아토》와 직접 련결시키며 남조선, 일본, 오끼나와, 대만, 비률빈, 인도지나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르는 《초생'달》 형의 군사 뿔럭 체계를 형성함으

로써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위》하려는 침략 계획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그들은 침략적인 군사 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직접적인 무력 간섭과 침략 전쟁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남부 월남 인민을 반대하는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더욱 확대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존슨이 자기의 첫 훈령에서 《미국의 온갖 노력을 베트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원조》하는 데 돌려야겠다고 한 사실은 미제가 남부 월남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얼마나 발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여 준다.

미제는 남부 월남 인민을 반대하여 2만 5,000여 명의 군대와 700 대의 비행기, 전투함과 항공 모함을 포함한 20 척의 함선들, 500 척의 발동선, 땅크, 각종 군용차, 수천 대의 장갑차, 각종 포를 비롯하여 현대적 살인 무기들을 끌어 들였으며 수천 개소의 《전략촌》을 설치하여 수백만의 주민들을 억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유독성 화학 물질까지 사용하여 인민들을 대량 살륙하고 있다.

미제는 또한 라오스에서 괴뢰들과 반동 분자들을 사촉하여 라오스 애국 력량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빈번히 감행하게 함으로써 또다시 내란을 도발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 방법에 의거하는 동시에 각종 정치 경제적 압력을 가하며 특히 《원조》를 통하여 동남 아세아 나라들을 자기의 지배 하에 넣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제가 《원조》를 통하여 동남 아세아 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하여 얼마나 집요하게 달라붙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이 발표한 축소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45년부터 1962년 6월까지 동남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원조》 총액은 근 150억 딸라에 달한다.

특히 최근 년간에 와서 동남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침투는 급속히 강화되였는바 1962년 한 해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외 《원조》 총액 50억 딸라 중에서 인도에 8억 3천 800만 딸라, 파키스탄에 4억 3천 900만 딸라, 남부 월남에 2억 4천 600만 딸라를 준 것을 비롯하여 동남 아세아 및 극동 제 국에 제공한 《원조》액은 그 총액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 《원조》는 민족 경제를 여지 없이 몰락시키고 이 나라들을 미국의 완전한 상품 시장으로, 원료 공급지로 전락시켰다.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그 나라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완전히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

인도는 이러한 미국 《원조》의 희생물의 대표적 실례의 하나이다.

미제는 인도를 상실한다면 《세계의 세력 균형이 엄중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떠들면서 동남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 수행에서 인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도의 반동 통치 집단을 매수하기 위하여 막대한 딸라를 던져 주고 있다.

인도가 독립한 이래 1961년까지 미국과 그의 통제 하에 있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원조》와 차관은 63억 6천만 딸라에 달한다.

이러한 《원조》의 간판을 들고 인도에 침투한 미국 독점 자본은 인도 경제의 중요 명맥을 장악하였으며 국가 예산까지 통제하게 되였다.

결과 인도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였으며 미제의 《반중국 캄패니야》의 돌격대로 전락되였다.

인도 뿐만 아니라 타이, 비률빈, 남부 월남 등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의 통제를 거부하고 독자적 정책을 실시하려는 동남 아세아 중립 국가들에 대하여 표면상으로는 《중립의 존중》이니, 《친선과 협조》니 하면서 배후에서는 파괴 활동을 감행하여 그 나라 정부를 전복하고 그를 괴뢰 정부로 교체하기 위한 교활한 침략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1962년 초에 쎄일론의 자유당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군사 쿠테타 조작, 비르마, 인도네시아에서의 빈번한 파괴 책동 등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배후 책동에 의한 것이였다.

특히 최근 미제는 《자유 크메루 운동》 조직을 통하여 수다한 파괴 분자들을 캄보쟈 내부에 잠입시켜 정부 전복 활동을 감행케 하고 있으며, 타이와 남부 월남 괴뢰들을 사촉하여 국경 도발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캄보쟈 정부를 내외로부터 공격하고 있다.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이러한 침략 정책에 대하여 캄보쟈 정부가 《미국의 판변 측이 일방으로는 캄보쟈의 주권과 정책을 존중한다고 공포하면서 행동에 있어서는 캄보쟈의 평화와 자유에 창끝을 돌리고 있는 음모에 공공연히 가담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또한 미제는 자기들이 조작한 괴뢰 정권까지도 저들의 침략 정책 수행에서 불리할 때에는 그를 서슴없이 전복한다.

최근 남부 월남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두 차례의 군사 쿠데타는 바로 그 일례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동남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조수로 리용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 군국주의를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면서 일본 독점 자본의 동남 아세아 진출을 적극 추동하고 있다.

일본 독점 세력은 미제를 등에 업고 동남 아세아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일본 수상 이께다는 동남 아세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진출을 주장하면서 《이 길만이 일본의 생존의 길》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게 되였다.

이상의 모든 사실들은 미제가 동남 아세아에서 스스로 물러 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침략의 지반이 약화되면 될수록 그를 수습하고 멸망에 직면한 자기의 운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더욱더 집요하고 악랄하게 발악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오늘 동남 아세아에서 혁명과 반혁명간의 력량 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반동 세력들은 완전히 고립되여 있으며 인민들의 단호한 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식민지 체계는 총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동남 아세아에는 장기간의 반제 투쟁에서 각성되고 단련된 혁명의 주체적 력량이 준비되여 있다.

이 지역에는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무장 부대들이 활동하고 있다.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 학생, 지식인 등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 대중이 참가하고 있으며 투쟁의 선두에는 혁명의 불'길 속에서 세련되고 장성 강화된 맑스-레닌주의당들이 서 있다.

동남 아세아 제 국의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현대 수정주의를 배격하고 반제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고 있으며 모든 인민 대중과 일체 진보적 력량을 민족 해방 투쟁의 종국적 승리에로 인도

하고 있다.

식민지 제도의 붕괴와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의 결과 제국주의자들은 독립한 동남 아세아 제 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의 가능성을 상실하였고 그들의 적지 않은 경제적 리권도 탈취 당하였으며 식민주의자들과 결탁하였던 토착 봉건 세력과 매판 자본가들의 세력도 현저히 약화되였다.

동남 아세아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지위의 약화는 이 지역에서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고 있다.

영 제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입으로부터 자기의 식민지 진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리용하고 있으며 불란서 제국주의는 《동남 아세아의 중립화》안을 내놓음으로써 미제에 의하여 탈취 당한 자기의 옛 식민지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미제의 세력을 몰아 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세계의 평화 애호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특히 동남 아세아 제 국은 우리 나라, 중국, 월남 등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과 린접하여 있다. 아세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거대한 고무적 힘을 받고 있다.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존재와 그의 위력의 강화는 동남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파탄시키고 이 지역 나라들의 독립을 담보하는 믿음직한 성새로 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동남 아세아에 혁명을 낳는 모순들이 가장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으며 혁명 력량이 준비되고 있으며 이 지역이 미제의 침략 전선에서 가장 약한 고리의 하나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미제를 반대하며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 거연히 일떠서고 있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미제의 무력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무장 투쟁이 급속히 앙양되고 있으며 미제의 《원조》와 경제적 예속 정책을 배격하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려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신생 력량들의 공동 투쟁 전선이 날로 확대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동남 아세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민족 해방 투쟁은 례외 없이 그의 주공 방향이 미제에 돌려지고 있으며 인민들의 반미 기세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이 총칼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침략 전쟁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손에 무장을 잡지 않을 수 없다.

무장한 적들에 대하여서는 오직 무장 투쟁으로써만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오늘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무장 투쟁은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영웅적 남부 월남 인민은 미제와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여 용감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의 전과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남부 월남 인민 해방군은 이미 남부 월남의 국토의 4 분의 3과 인구의 절반 이상을 해방하였으며 지난 3 년 간에만도 1,500 명의 미국 침략자를 포함한 25만 2,000여 명의 적을 소탕하였고 865대의 적 비행기를 격추 또는 격상시킨

것을 비롯해서 수 많은 전투 기재들을 로획, 파괴하였다.

특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미제 침략자들이 요란스럽게 떠들던 《전략촌》 정책을 파탄시킴으로써 인민 해방군은 18개월 동안에 《전멸》시킨다던 소위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다.

남부 월남에서의 미제의 기본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략촌》 정책과 《공수 작전》 전략은 파탄되였으며 현재 전투의 주도권은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다.

처음에 낫과 창을 유일한 무기로 하여 투쟁에 궐기한 남부 월남 인민은 오늘 미제 침략자들의 그 어떠한 공격도 능히 격퇴할 수 있는 강력한 력량으로 장성 강화되였다.

남부 월남 인민들의 애국적 무장 투쟁과 그의 승리는 오직 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그 어떠한 강대한 적이라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동남 아세아 인민들에게 커다란 모범으로 되고 있다.

라오스 인민은 라오스 애국당의 령도 밑에 미제와 노사반 도당의 빈번한 도발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해방 지구를 철옹성 같이 수호하고 있으며 반제 민족 해방의 혁명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라오스 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인 라오스 애국 군대는 적들과의 가렬한 무장 투쟁 속에서 단련되였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적 대오로 장성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련방》과 미제 7 함대의 위협적인 도발 책동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북부 칼리만탄 및 기타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도 고조되고 있다.

무장 투쟁은 말라이, 비르마, 비률빈 등에서도 계속 전개되고 있다.

오늘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무장 투쟁으로써 미제의 침략 계획을 파탄시키고 있으며 그놈을 수습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몰아 넣고 있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혁명 투쟁의 모든 과정은 레닌의 다음과 같은 말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고 있다. 《그 민족들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놀랄 만한 기술과 군사 기술을 투쟁에 리용하는 구라파의 압박자들의 위력이 아무리 불패의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피압박 민족들이 수행하는 혁명 전쟁은, 그것이 수백만 근로자들과 피착취자들을 실지로 각성만 시킨다면, 동방 각 민족의 해방을 현재 실지로 완전히 실현시킬 그러한 가능성과 기적을 내포하고 있》(전집 제 30권, 172 페지)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 세력을 몰아 내기 위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미제의 경제적 침투와 《원조》를 배격하고 그의 내정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며 정치적 독립의 공고화와 자립적 민족 경제의 창설을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다.

캄보자 정부는 미제의 《원조》의 침략적 본질을 폭로하고 그를 단호히 배격하고 있으며 자국 인민들에게 자력 갱생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비르마 정부는 외국인 소유의 기업소와 회사들을 몰수하고 외국인의 새로운 기업소 창설을 금지하는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쎄일론 정부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반대하고 미국의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였다.

쎄일론 수상 반다라나이케는 외국의 《원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력 갱생한 나라들의 모범을 따라서 《…쎄일론도 자력으로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경제에서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며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경험은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의거하여서는 나라의 민족 경제를 성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또한 경제에서의 자립이 없이는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므로 오늘 동남 아세아의 중립 국가들 속에서 미제의 《원조》와 외세를 배격하며 자주, 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것은 사태 발전의 필연적 귀결이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정치적 독립의 공고화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투쟁에서 단결과 호상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의 연대성을 부단히 공고화하고 있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 속에서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신생 력량들의 단결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수도 쟈카르타에서 진행된 《가네포》 경기 대회와 아.아 기자 회의, 아.아 로조 회의 그리고 제 2 차 아.아 수뇌자 회의 소집을 위한 투쟁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에 대한 지향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다.

전 세계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받고 있는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혁명 투쟁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세찬 기세로 발전하고 있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미제의 침략 계획은 더욱 파탄되고 있으며 미제 침략자들은 완전히 궁지에 빠지고 있다.

오늘 미국 지배층까지도 《동남 아세아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는 남부 월남에서의 침략 전쟁은 그 전도가 암담하며 베루 집단을 비롯한 미제의 괴뢰 도당들은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수립한 미제의 《반공》 군사 체계는 붕괴되여 가고 있다.

사실 상 그들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남 아세아는 미국의 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은 미제의 세계 제패 계획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종국적 청산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제는 민족 해방 투쟁에 궐기한 동남 아세아 인민들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쫓겨 나고야 말 것이며 민족적 독립과 자주를 위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은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문답학습

굴진과 채굴 간의 력량 비률을 왜 5 대 5로 하여야 하는가

당은 오늘 굴진과 채굴에서 로력 배치와 자재, 설비, 자금의 투자 비률을 5 대 5로 보장할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은 우리 나라 채취 공업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가장 정확한 조치이며 채취 공업에서 갱 건설과 굴진을 채굴에 선행시킬 데 대한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석탄과 광석은 지상에 산적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석탄과 광석을 캐 내자면 우선 그것이 매장되여 있는 땅을 파고 들어 가야 한다. 즉 채취 공업에서 굴진을 진행하는 행정은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것이 선행됨이 없이는 도대체 석탄이나 광석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채취 공업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자면 더욱더 깊은 땅 속으로 파고 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석탄이나 광석을 캐내여 쓰면 쓸수록 그 매장량은 감소되게 마련이며 특히는 지표 면에 가까운 부분들의 매장량이 먼저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리 하여 일반적으로 채취 공업에서는 심부 채굴이 점차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막장이 깊어지며 수직갱 및 사갱 건설을 긴절한 문제로 제기한다.

심부 채굴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나라 지하 부원의 분포 상태로 볼 때에도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하 부원은 심부에 들어 갈수록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기로 특징 지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오늘 우리 나라의 많은 탄광, 광산들에서 수직갱 및 사갱 건설을 촉진하며 그의 굴하 속도를 월 평균 50 메터 이상 보장할 데 대하여 그처럼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는 석탄과 광석에 대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비 채탄장과 채광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부 채굴 대상의 비중이 높아 가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충분한 예비 채탄장 및 채광장의 확보는 수직갱 및 사갱 건설의 촉진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 갱도들을 잘 꾸려야 한다.

생산량의 급격한 증대는 운반 계통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는바 이것은 기본 갱도를 잘 꾸린 데 기초하여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부 채굴 대상이 증대되는 조건 하에서 석탄과 광석에 대한 장성하는 인민 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본 갱도를 잘 꾸리고 굴진을 선행시키며 특히 수직갱 및 사갱 건설을 촉진시키자면 굴진 부문에 더 많은 로력을 배치하고 자재,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매개 기업소의 생산 성과는 우선 얼마나 많은 석탄 또는 광석들을 캐 내였는가에 의하여 평가된다. 그러니 만큼 굴진과 채굴에서의 력량 비률 관계는 반드시 매개 탄광, 광산들에 주어지는 력량을 가지고 굴진과 채굴의 량 부문에서 어느 한 측면에서도 공간이 없이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시기의 경험은 기본 굴진에서는 3 년 분, 생산 준비 굴진에서는 6 개월 분, 로천 탄광, 광산들에서는 박토를 6 개월 분 이상 선행시킬 수 있도록 력량 비률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생산의 정상화와 그의 부단한 증대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채취 공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상과 같은 현실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우리 당의 조치가 곧 굴진과 채굴 간의 력량 비률을 5 대 5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당이 제시한 이와 같은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는 것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그것은 우선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를 계속 높이며 금후 채취 공업 발전의 전망을 개척하는 결정적 고리로 된다는 데 있다.

당이 제시한 방침을 정확히 관철한다면 굴진 력량이 건전한 청장년들과 유능한 기술자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굴진 부문에서 설비들이 독자적으로 운영, 리용되며 자재들이 여기에 제때에 보장될 것이므로 채굴과 굴진이 동시에 진행되는 조건 하에서도 굴진을 항상 선행시킬 수 있게 된다.

굴진의 선행은 결국 확보 탄량과 확보 광량을 증대시키며 그의 예비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생산 장성의 기타 모든 요인들이 작용하여 로동 생산 능률이 제고되고 채탄, 채광량이 급격히 증대되는 조건 하에서도 채탄 및 채광장의 부족으로 인한 지장을 받지 않게 되며 따라서 생산을 계속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한다.

확보 탄량과 확보 광량의 증대는 또한 채취 공업의 발전 전망을 열어 준다.

왜냐 하면 탄광, 광산들은 그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석탄과 광석들을 생산할 수 있겠는가에 따라 유망하고 유망하지 못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실은 채취 공업 부문 일'군들이 당의 요구대로 갱 건설과 굴진을 생산 조직 사업의 첫 자리에 놓고 이에 력량을 집중한다면 더 많은 석탄 및 광석을 확보하고 생산을 계속 장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성천 광산에서는 지난해 4.4 분기부터 굴진 부문에 절반 이상의 로력을 배치하고 전체 막장 설비의 53%를 돌리도록 하였다. 특히 자재 공급의 민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에 굴진과 채광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공급하던 현상을 퇴치하고 굴진 부문에 전체 자재 공급량의 60% 이상을 배정하는 동시에 굴진 막장에 자재 공급원을 배치하고 현장에까지 내려다 주는 자재 공급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리 하여 이 광산에서 설비비, 자재

비, 로임을 포함한 자금 투자 비률은 굴진 부문이 55% 이상을 차지하게 되였다.

굴진 부문에 력량을 집중한 결과 이 광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굴진 속도는 근 2 배로 장성하게 되였으며 굴진이 결정적으로 선행됨으로써 지난해 4.4 분기부터 생산이 정상화되여 4.4 분기 광물 생산량은 3.4 분기에 비하여 월평균 163%로 장성되였으며 계획 과제를 훨씬 초과 수행하게 되였다.

성천 광산 뿐만 아니라 덕천 광산의 경험도 교훈적이다.

이 광산에서는 로력과 설비 배치 및 자재 공급에서 5 대 5로 보장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자들을 선발하여 굴진 막장에 파견하고 굴진 작업반 자체 성원들로써 능히 배관, 뽐프, 권양기 이설, 기계 설비들의 수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굴진 력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작업반 조직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설비, 자재들을 굴진 부문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도 일군들이 직접 갱 막장에 내려 가 굴진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고무 격려하여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걸리는 문제들은 제때 제때에 풀어 나갔다.

굴진 력량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함으로써 이 광산에서는 이미 1963년 말까지 3 년 동안 캘 수 있는 광량을 확보하고 6 개월 분 이상의 준비 굴진을 선행할 수 있게 되였으며 금년 1월 20일까지에만도 기본 굴진은 135%, 채굴 준비 굴진은 127%로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굴진이 선행된 결과 이 광산은 지난해에 생산을 정상화하고 년간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비하여 훨씬 증가된 금년도 계획 과제도 매일 지표 별로 초과 수행하고 있다.

당이 제시한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는 의의는 또한 채취 공업 부문에서 기술 혁신의 전제를 조성한다는 데 있다.

왜냐 하면 갱내 작업의 기계화, 선진적인 채굴 방법의 도입,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등을 위한 제반 문제가 오직 갱 건설과 굴진이 선행된 조건 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반 계통에서의 기술 혁신은 채취 공업에서 생산 증대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운반 계통을 단일화하고 운반 작업과 적재 적하 작업을 기계화하며 자동화하고 그를 점차 대규모화하는 문제는 우선 기본 갱도, 수직갱을 잘 꾸린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굴진 및 채굴에서 선진적인 작업 방법을 도입하고 착암기 대당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있어서도 굴진을 선행하고 기본 갱도와 수직갱을 잘 건설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원 탄광의 경험은 이것을 잘 말해 준다.

고원 탄광에서는 기본 갱도를 잘 꾸리고 압축기를 막장의 300~400 메터 구간 내에 이설함으로써 압축 공기의 기압을 3 기압으로부터 5 기압 이상으로 제고하여 굴진공들로 하여금 더 많은 착암기를 돌리면서 선진적인 작업 방법

을 도입하고 작업 능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이 기업소가 굴진 계획은 물론 생산 계획도 기한 전에 초과 완수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이와 같이 생산에서 기계화를 도입하며 선진적인 작업 방법을 도입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등 기술 혁신의 모든 문제들이 갱을 잘 건설하고 굴진을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굴진과 채굴에서 5 대 5의 력량 비률을 보장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당의 방침을 매개 탄광, 광산들의 구체적 실정에 결부시켜 정확히 관철한다면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를 부단히 높임으로써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힘 있게 촉진할 것이며 또한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갱도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그의 수명을 연장케 함으로써 생산물의 원가를 낮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경제적 유리성을 전망적 견지에서 옳게 타산하지 못하고 눈 앞에 부닥친 생산 과제 수행에만 치중하여 굴진을 선행하지 못 함으로써 충분한 예비 채탄장 또는 채광장이 없어 생산을 중단시키거나 갱도를 잘 꾸리지 못 하여 운반 체계에 혼란을 조성하게 된다면 생산에서의 파동성이 불가피하게 일어 날 것이며 따라서 총적 생산량을 결코 증가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탄광, 광산들에서는 굴진 부문에 우수한 일'군들을 배치하며 자재와 설비를 선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굴진과 채굴 간의 력량 비률을 5 대 5로 보장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편 광 성

근로자 제 4 호 (루계 242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2월 17일 발 행 • 1964년 2월 20일

ㄱ—430110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 호 3 월 5 일

평 양 근 로 자 사 1 9 6 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5 호 (243)

1964 년 3월 (상)

차 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김 일 성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농민 문제, 농업 문제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이 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특히 레닌은 농민 문제를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적 문제로 제기하였으며 농촌 문제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인정하였다. 레닌은 농민 문제의 정확한 해결과 로농 동맹의 강화가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농촌 문제 해결의 명확한 방도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제시하였다.

농촌 문제는 과거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 하에 있었거나 아직도 그 예속 하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들에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성과적 해결 여부는 혁명의 승패와 사회적 진보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로 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해결에서 력사적 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농촌 문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한다.

농민은 로동 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력량이다.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로농 동맹을 부단히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힘 있게 추진시킬 수 있다.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 경제의 2 대 부문의 하나이며 그것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공급한다.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농촌 경리를 공업의 발전에 따라 세워야만 전체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할 수 있다.

농민 문제, 농업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농민들을 공산주의 사회까지 이끌고 가는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숭고한 임무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후 혁명을 계속하며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기 위하여 농촌 문제의 해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1.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

농촌 문제는 혁명 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각이하게 제기된다.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는 농촌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며 농업 생산력을 봉건적 생산 관계의 질곡에서 해방하는 데 있었다. 우리는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는 원칙에서 토지 개혁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는 농촌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청산하고 개인 농민 경리를 사회주의적 집단 경리로 개조함으로써 농민들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농업 생산력을 사적 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데 있었다. 우리는 실물 교육과 자원성의 원칙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방조에 의거하여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실현함으로써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는 개인 농민 경리에 비해서나 자본주의 농촌 경리 제도에 비하여 결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 주며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 준다.

문제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농촌 사업을 어떻게 하며 농촌 경리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후에 있어서는 농촌 문제가 그 이전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제기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부단히 공고화하는 기초 우에서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며 착취 사회가 남겨 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데 있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는 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장기간의 꾸준한 투쟁과 노력에 의해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이 과업은 이미 제기되였다.

우리의 농촌 사업은 응당 이 과업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 사업에서 반드시 세 개의 기본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로,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수준에 부단히 접근시키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

1.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후에도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남아 있고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명을 계속해야 하며 특히 농촌에서 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만일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실현되였다고 하여 혁명을 중단한다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앙양된 농민들의 열성을 계속 견지할 수 없으며 그것을 더욱 높일 수 없다.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고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킬 수 없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없다.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이것은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이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우선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 기술적 토대가 약하며 농촌 주민들의 문화 수준이 도시 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이 로동자들보다 사상 의식이 뒤떨어져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락후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이며 사회주의 하에서 그것이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은 공업 및 도시의 발전 수준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바로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전 인민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 경리에서는 협동적 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 있게 되며 따라서 또한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며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업과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세 가지 혁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농촌의 락후성

을 퇴치하여야 한다.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 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 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사상 혁명은 모든 사업에 선행시켜야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 과업이다.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에만 치우치고 사상 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엄중한 착오로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도 계급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주의 농촌에서의 계급 투쟁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대 분자들과 전복된 착취 계급 잔여 분자들의 파괴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표현되며 또한 농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사상 투쟁에서 표현된다.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고 그들 속에서 사상 투쟁을 강화하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이 제도를 수호할 수도 없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사회주의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제도 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자각적으로 열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는 데 있다.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이 본질적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농업 생산과 기술, 농촌 문화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없다.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고 생활이 향상된다고 하여 농민들의 사상 의식이 저절로 개조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회주의 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 기초를 청산하며 농민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소진을 지어 준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도 농민들의 의식 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 특히 소소유자적 근성이 오래 동안 남아 있게 되며 사상 사업이 약화될 때에는 그것이 되살아 날 수도 있고 더욱 조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직 장기간에 걸치는 인내성 있는 교양과 부단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완전히 개조할 수 있다.

사상 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소홀히 하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 수준을 요구하며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 수준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그들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더욱더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없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수 없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데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상 혁명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도 역시 잘못이다.

우리는 사상 혁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이리 하여 농민들의 사상도 개조하며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도 강화하며 농촌 주민들의 문화 수준도 높여야 한다.

2.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 방조는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제도의 발생과 공고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농민은 오직 로동 계급의 령도와 방조 하에서만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설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에로 넘어 갈 수 있다.

로동자와 농민은 동일한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는 동맹자이며 다 같이 사회주의적 근로자이다.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호상 밀접한 련계 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개 형태이며 다 같이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책임지며 전 인민적 소유의 발전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책임진다. 개인 농민 경리 때에는 주로 매개 농민이 자기의 경리와 생활에 대하여 책임을 졌지만 협동화된 후에는 당과 국가가 협동 농장들의 경리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공업은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이며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농촌에 비하여 앞서 나아가고 있다. 지도적 부문인 공업이 농업을 방조하여야만 농촌 경리를 공업과 같이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있으며 선진적인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여야만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 나라와 같이 과거에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나라에서는 혁명이 승리한 후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하여 농촌에서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현대적 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농민들의 자금 지출은 전 사회의 리익을 위한 것이며 농촌 경리의 장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를 축성한 다음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 데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 때부터는 농촌을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력히 지원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은 농민을 정치 사상적으로 지도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도와 주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농민들의 부담

을 덜어 주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농촌 사업을 소홀히 하고 농촌을 도와 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농업을 희생으로 하여 공업만 발전시키고 농촌을 희생으로 하여 도시만 꾸린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없어지지 않을 뿐아니라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농민들의 적극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 수 없고 농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다. 이것은 결국 공업 자체와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심중한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다.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은 자본주의 사상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며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뒤떨어지는 것이 법칙으로 되여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을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주권을 장악하는 첫날부터 자본주의가 남겨 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도와 주며 락후하던 농촌이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수준에 더욱더 접근하여 가는 것이 합법칙적이다.

우리는 로동 계급의 힘을 증대시키고 공업과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부단히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한 걸음 한 걸음 축소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농민들의 적극성을 계속 발양시킬 수 있으며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고 농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공업 자체와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을 더욱 추동하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3.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관계

사회주의 하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것으로 하여 소유 관계에서 뒤떨어져 있으며 경제 관리의 수준에서도 뒤떨어져 있다. 소유 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는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 차이이다.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도 역시 중요한 차이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려면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는 동시에 소유 관계와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도시에 비한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퇴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락후성과 관련되여 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모든 차이를 없앨 수 있고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도 없앨 수 있다.

경제 관리 수준과 소유 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

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농촌 경리의 지도 관리를 개선하여야 하며 협동적 소유를 점차적으로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 끌어 올려야 한다. 다른 편으로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키고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정확한 호상 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전반적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 방향은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에 부단히 접근시키는 것이다.

농업 협동 경리는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경리이며 그것은 현대적 기술로 급속히 장비되고 있다. 농업의 경영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 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접근하여 가는 만큼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방법도 응당 공업의 기업 관리 방법에 더욱더 접근시켜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농업 협동 경리를 반드시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기업적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모든 경영 활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은 공업에 비하여 기술 장비가 약할 뿐 아니라 기술 지도에서는 더욱 뒤떨어져 있다. 개인 농민 경리의 협동화와 함께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도 계획화되고 조직화되였으나 이 면에서도 공업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기술 지도의 강화, 모든 경영 활동의 가일층의 계획화와 조직화 —바로 이것이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을 개선하는 기본 방향이며 경제 관리에서의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퇴치하는 기본 방향이다.

기업적 방법에 의한 농업 협동 경리의 지도와 관리는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며 농업 관리에서의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퇴치하고 토지, 농기계 기타 생산 수단들과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 문화를 높일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농업 생산의 장성과 협동 경리의 공고화,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전 인민적 소유(공업)와 협동적 소유(농촌 경리)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본 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농민의 사회 경제적 처지, 로동계급과 농민의 호상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적 문제이다.

농업에서 지배적인 협동 경리 제도는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적응하며 농민들의 의식 발전 정도에 적합한 것이다. 농업 협동 경리 제도는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면서 생산력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한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협동 경리 제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 하에서 농업 협동 경리 제도가 고정 불변한 것

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동적 소유도 발전하며, 변화한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강화, 농민들의 문화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의 제고에 따라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키고 더욱더 완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호상 관계,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들—농기계 작업소, 관개 관리소, 채종 농장과 종자 처리장, 농사 시험장, 종축장과 수의 방역소 등—을 강화하고 이 기업소들로 하여금 협동 경리의 농업 생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 기업소들을 물질 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모범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농업 협동 경리 발전에서의 그 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국가 기업소들을 계속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전 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 기술적 수단들이 농업 생산에서 점차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밀접히 결합시켜 나아가야만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공업의 기계 기술, 선진적 기업 관리와 생산 문화를 농촌 경리에 더 잘 보급할 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만 협동적 소유를 공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전 인민적 소유에 더욱더 접근시킬 수 있으며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점차적 전환 과정을 순조롭게 할 수 있으며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길이다.

만일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며 두 소유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영향이 약화될 것이며 공업의 기계 기술, 선진적인 기업 관리와 생산 문화를 농촌 경리에 잘 보급할 수 없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킬 수 없으며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점차적 전환도 순조롭게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저하시키고 로농 동맹을 약화시키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난관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와 반면에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협동적 소유를 조급하게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도 안 된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약하고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간에 큰 차이가 남아 있고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이 로동 계급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조건 하에서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개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면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적 소유를 더욱더 전 인민적 소유에 접근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조성하면서 협동적 소유를 점차적으로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기본 과업

우리 당은 농촌 문제의 해결에서 항상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 왔으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우리는 농업 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은 빠른 속도로 계속 장성하였다. 우리의 협동 농장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급속히 향상되고 그들의 정치적, 로력적 열성은 더욱더 높아 가고 있다. 농촌의 면모가 달라졌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생활은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농촌 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증명하여 준다.

오늘 우리 앞에는 농촌 경리를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을 더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당의 농촌 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더한층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촌 기술 혁명

농촌 기술 혁명은 농촌 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 과학의 성과를 광범히 도입하여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하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우리 당은 농촌에서 협동화를 실현하는 한편 곧 기술 혁명의 수행에 착수하였다. 우리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농촌 기술 혁명의 기본 과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거대한 힘을 돌렸다.

수리화는 농촌 기술 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자연 지리적 조건, 특히 기후 조건에 많이 의존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기후 변동이나 기타 우연적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생산 토대를 축성하며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 조건을 지어 주는 것이다. 수리화의 실시는 수재와 한재를 극복하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며 농업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담보로 된다.

논 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해마다 한재와 수재가 심한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 수리화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부터 수리화에 힘을 돌렸으며 특히 농업 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전개하였다. 우리는 수리화에서 이미 기본적인 것은 해결하였으며 흉년을 모르는 공고한 농업 생산 토대를 닦아 놓았다.

우리의 앞으로의 과업은 어떠한 가물이 드나 홍수가 져도 항상 풍작을 이룩할 수 있도록 수리화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더욱 확대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벼의 생산을 증가시키며 안곡 총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2~3 년 내에 논 면적을 70만 정보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규모의 관개 공사들을 빨리 완공하며 새로운 관개 공사를 더 많이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 관개 시설들을 정비하고 보강하여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치산 치수 사업,특히 중소 하천 정리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농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농민들의 로동을 쉽게 하여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천 년 동안 락후한 농기구를 가지고 온갖 고역에 시달려 온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부과된 영예로운 력사적 임무이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강력히 추진시켜 농업 로동의 생산 능률을 급속히 높이는 동시에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 주며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휴식할 뿐 아니라 학습과 문화 생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는 농업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의 과업은 밭갈이로부터 수확과 탈곡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 작업을 기계화하며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선 가장 고되고 품이 많이 드는 밭갈이와 김매기, 수송 작업의 기계화에 힘을 집중하여 가까운 년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위하여서는 앞으로 뜨락또르 대수를 7만~8만 대(15 마력 환산으로), 자동차는 3만~3만 5,000 대에 이르게 하며 기타 각종 농기계들을 결정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자연 지리적 조건에서나 작물 구성과 경종 체계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농업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농기계들을 광범

히 창안 제작하여야 하며 동시에 토지를 정리하고, 경종 체계를 개선하는 등으로 기계화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기화는 농촌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촌을 전기화하지 않고는 수리화와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문화적인 농촌 건설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전체 농촌 리의 93.3%, 전체 농가의 71%에 전기가 들어 갔다.

나라의 전기화를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건설을 병행하여 추진시키며 동시에 중소 규모의 발전소들을 전국 각지에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당의 전기화 방침을 계속 관철하여 2~3 년 내에 모든 농촌과 모든 농가에 다 전기가 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에 전기 동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탈곡, 양수, 사료의 분쇄와 절단 등 류동하지 않고 진행되는 작업들은 모두 전기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개 농가들에서 라지오 또는 유선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하며 각종 전기 용품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화는 농작물의 단위 당 수확고를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농촌 경리에서의 화학의 적용은 토양을 개량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며 농작물의 생장과 결실을 촉진하며 병해충과 잡초를 없앨 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화학 공업이 급속히 발전한 결과 1963년에 농경지 정보 당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300 키로 그람에 달하였으며 그 품종 구성은 더욱 개선되였다. 농촌에 대한 농약의 공급량도 현저히 증가되였다.

화학화에서의 과업은 우리 나라의 토양과 농작물에 적합한 다종 다양한 화학 비료를 충분히 보장하며 각종 살충제와 살초제의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농경지 정보 당 화학 비료의 시비량을 가까운 년간에 500 키로 그람에 이르게 하며 장차로는 1 톤 이상의 수준에 올려야 한다. 과학적 시비 체계를 확립하여 화학 비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는 농촌 기술 혁명의 네 가지 기본 구성 부분이다. 기계화, 전기화에만 치우치고 수리화, 화학화를 소홀히 한다면 농사에서 수확고를 부단히 높일 수 없다. 반대로 수리화, 화학화에만 힘을 넣고 기계화, 전기화를 하지 않는다면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없고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 줄 수 없다.

공업의 발전 정도와 농촌의 구체적 형편에 따라 선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참말로 튼튼히 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 기술 혁명의 네 가지 기본 과업—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면서 농업 과학의 성과와 선진 영농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며 집약적인 영농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 경리의 집약화—이것은 영농 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이다. 현대적 과학, 기술에 기초한 집약 농법은 가장 선진적인 영농 방법이며 그것은 농사에서 다수확의 기본으로 된다.

집약적 영농 방법에서 이미 얻은 풍부한 경험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농작물의 단위 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토지를 정리하고 개량하며 가능한 모든 곳에서 2모작 체계를 도입하며 간작, 혼작 등을 더 광범히 실시하여야 한다. 육종 사업을 강화하여 종자를 개량하며 자급 비료를 더 많이 내며 모든 영농 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하고 논밭을 알뜰하게 가꾸어야 한다.

농촌 기술 혁명을 수행하는 기초 우에서 농업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켜야 한다.

농업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곡 생산이다. 알곡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주민들에게 식량을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농촌 경리의 다른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알곡 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이미 식량을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였다.

알곡 생산에서의 당면 과업은 벼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알곡 총 수확고를 훨씬 더 높여 전체 인민이 이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며 축산업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기타 부문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는 것이다.

알곡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공예 작물의 재배, 축산업, 과수업, 잠업 등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농촌 기술 혁명을 수행하여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을 공고한 식량, 원료 기지로 전변시키며 우리 농민들을 유족하게 잘 살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농촌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농민들의 로동을 쉽게 하여 주고 농촌에서도 기본적으로 8 시간 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할 것이다.

2. 농촌 문화 혁명

농촌 문화 혁명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 기술 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락후한 생활 양식과 인습을 청산하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농촌 문화 혁명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농민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실천할 수 없으며 농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1958년부터는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 하여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다 7 년제까지의 일반 지식을 소유하게 되였다. 농촌에 기술 학교가 광범히 설치되여 수 많은 농촌 청소년들이 기술 교육을 받고 있다.

이제 문제는 후대들에게 전반적으로 기술 교육을 주는 것이다. 가까운 시일에

9~10 년제 기술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성인 교육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 전체 농민들이 초급 중학교 이상의 일반 지식과 영농 사업에 필요한 기술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적 기계 기술에 기초한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은 더욱더 많은 농촌 기술 간부를 요구한다.

앞으로 수년 내에 매개 협동 농장에 5 명 이상의 기사, 매개 작업반에 2 명의 기수 또는 기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대학, 고등 기술 학교들을 통하여 농촌 청년들 속에서 농업에 필요한 각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길러 내야 한다. 농촌 기술 간부의 대렬을 급속히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질적 구성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문화 혁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농촌 보건 위생 사업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문화 생활 조건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다.

농업 협동화가 실현된 후 우리 농민들의 문화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매개 농촌 리에 진료소가 설치되고 농민들에게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무상 치료제가 실시되고 있다. 농촌에서 각종 로질병과 전염병들은 이미 퇴치되였다. 모든 농촌 리에서 공동 비용으로 탁아소,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 수 많은 문화 주택들과 문화 후생 시설들이 건설되였다. 각종 출판물들이 다량으로 농촌에 배포되며 광범한 농민들이 군중적 문예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과거에 침체하고 불결하던 우리 농촌이 오늘은 활기 있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새 농촌으로 꾸려지고 있다.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완강한 투쟁이 요구된다.

농촌 진료소들을 확장하고 완비하며 농민들에 대한 의료 봉사를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농촌 녀성들의 로동 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이 사회적 로동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어 주어야 한다. 녀성들에게 로력 보수를 계속 주면서 산전, 산후 휴가를 완전히 보장하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건설된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잘 꾸리고 더 잘 운영하여 녀성들이 마음 놓고 생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을 훌륭히 양육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주택 건설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 전체 농민들이 아름답고 아담하고 편리한 문화 주택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 각종 문화 후생 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더 잘 도모하여야 한다.

농촌에 신문, 잡지, 도서들을 더 많이 공급하며 모든 농촌 리에 구락부를 건설하며 농민들 속에서 군중 문화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에서 온갖 락후한 생활 양식과 생활 관습을 완전히 청산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촌 문화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로동자와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하며 전체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점차 기사, 기수의

수준에 끌어 올리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 보건, 주택 조건, 문화 후생 시설 기타 모든 문화 생활 조건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더욱더 축소시키며 그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할 것이다.

3. 농촌에서의 사상 혁명

농촌에서 사상 혁명을 진행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선진적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농업 협동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의 각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그들의 사상 의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로동당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였으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무한히 귀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수호하며 더욱 공고 발전시키려는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농민들 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을 사랑하고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 도덕의 미풍이 더욱 발양되고 있다. 농민들의 로력적 열성과 창발성은 고도로 앙양되고 있다.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농촌에서 급속히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농촌에서 사상 혁명이 농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농민들이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 개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바로 여기에 농촌에서의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과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농촌 사업에서 사상 혁명을 선행시키는 원칙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고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교양에서 기본은 계급 교양이다. 농민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증오하는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착취 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견결한 혁명 정신으로, 자기의 향토와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 정신으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에게 남아 있는 개인 리기주의와 소소유자적 근성을 퇴치하고 그들을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남아 있는 리기주의 사상은 수세기에 걸쳐 대대손손으로 계승되여 온 뿌리 깊은 사상이다. 농민들 속에서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공동 재산을 애호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농민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집단주의 사상을 가지고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농

민들로 하여금 로동을 즐기고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며 그것을 착취 계급의 사상으로서 증오하고 배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농민들이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공동 로동에 더욱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 속에서 낡은 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지향하는 정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여야 하며 그들을 혁명적 락관주의로 무장시켜야 한다. 농민들 속에 남아 있는 씨족 관념과 문벌주의를 반대하며 그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더 훌륭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렬한 지향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며 계속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은 반드시 당 정책 교양 및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군중 교양의 기본 방법은 사람들을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의 경험은 이 방법이 군중 교양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긍정적 모범을 보급하며 사람들을 성의껏 도와 주고 꾸준하게 설복하여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농민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은 주로 그들의 실천 활동, 집단 로동을 통하여, 생산 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계속 확대하고 심화시켜 농민들의 집단적 생산 혁신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며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의식 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농업 생산과 기술, 농촌 문화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 혁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로동자와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에서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할 것이다.

4. 농촌에 대한 지원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와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은 로농 동맹을 강화하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도시 및 로동자구와 함께 사회주의 농촌을 튼튼히 꾸리며 점차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 토지 개혁을 실시할 때부터 농촌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특히 농업 협동화를 실시하면서부터 모든 분야에 걸쳐 농촌에 대한 지원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 농민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는 당과 로동 계급의 령도,

사회주의적 국영 공업의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우리의 협동 농장들은 당의 정확한 지도와 국가의 막대한 물질 기술적 방조와 전체 인민의 지원에 의하여 그리고 이에 무한히 고무된 협동 농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급속히 공고화되였다.

우리 당은 농촌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부단히 강화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농촌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 주도록 하였다.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는 방대한 규모에 달한다. 1959년부터 1963년까지의 5년 간에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 중 15.8%가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촌 문화 건설에 돌려졌다. 국가는 또한 협동 농장들에 막대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은 상환을 면제하여 주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 건설 투자와 재정적 방조에 의하여 방대한 관개 공사들과 치산 치수 사업이 진행되고 농촌 경리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촉진되였으며 농촌 문화 건설이 광범히 실시되였다.

우리의 공업은 해마다 더 많은 농기계, 화학 비료, 농약, 건설 재료와 각종 소비품을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였다. 우리는 농촌에 방대한 로력적 방조도 주었다.

국가는 농업 현물세를 감면하며 공예 작물 수매 가격을 높이며 농기계 작업료, 관개 사용료와 농기구의 가격을 낮추며 농촌 어린이들에게 의복을 무료로 공급하는 등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대책을 취하였다.

농촌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협동 농장들을 공고히 하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오늘 농촌 경리 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과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리익은 농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이미 축성된 조건 하에서 농촌에 능히 더 많은 방조를 줄 수 있게 되였으며 또 응당 주어야 한다.

농촌에 대한 국가 투자를 증가시키며 물질 기술적 방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에 복무하는 공업 부문들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켜 농촌에 현대적 농기계, 화학 비료, 건설 재료 등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의 부담으로 각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 농촌에 파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은 고도로 집약화되여 있으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장시일을 요한다. 우리의 농촌 로력에서는 아직도 로인들과 녀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에 청장년 로력을 더욱 보충하여 주며 농촌에 대한 사회적 로력 방조를 더 계획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 주고 그들의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농민들에게 각종 공업 상품을 다량으로 공급하며 농촌에서의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의 발전에도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한다.

농촌에 로동자, 제대 군인들을 더 많이 파견하고 혁명가 유가족, 피살자 가족들

을 고착시키며 핵심 대렬을 계속 확대하여 농촌 진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모든 당 조직; 국가 기관, 사회 단체들과 그 일'군들이 농촌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농촌에 더 큰 방조를 주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농촌을 더 힘 있게 도와 줌으로써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고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을 더욱 추진할 것이며 사회주의 도시와 사회주의 농촌을 다 같이 튼튼히 꾸리고 더욱더 번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하여 나아감으로써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 주며 장차로는 농민들에게도 로동자들과 같이 모든 생산 조건과 생활 조건을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보장하여 주도록 할 것이다.

5. 협동 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

농업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 체계와 지도 방법은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농업 협동화를 실현하는 첫날부터 협동 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개선 강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 왔으며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지도 체계와 방법을 개편하였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 사업 방법, 당의 군중 로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에 구현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의 보급은 우리의 모든 당 및 국가 기관들의 사업에서 전변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협동화된 농촌의 새 환경에 적응하게 농촌 지도 사업을 개편하게 하였다. 특히 당은 청산리 방법을 침투시키면서 당시 협동 농장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 기능을 수행하던 군 인민 위원회의 일'군들로 하여금 현지에 내려 가 사람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농장의 모든 사업을 직접 조직하여 주며 구체적으로 도와 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협동 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는 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농촌 현실의 급속한 변화는 농촌 경리에 대한 새로운 더 높은 수준의 지도를 요구하게 되였다. 협동 농장들의 규모가 커지고 농업 기술이 더욱 발전하였으며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는 급격히 증대되였다.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농촌 사업은 그 범위가 확대되고 훨씬 더 복잡하여졌으며 농촌 경리 앞에는 더욱더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행정 기관으로서의 군 인민 위원회는 이미 농촌 경리를 원만히 지도할 수 없게 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1962년 초에 새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도 농촌 경리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동시에 농업성을 농업 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도 농촌 경리 위원회의 창설은 농촌의 변화된 현실에 적합하게 농업 지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획기적 조치였으며 농촌 경리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결합시킨 창조적인 대책이였다.

우리 나라에 창설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농업 기술자들과 농기계 작업소, 농기구 공장, 관개 관리소 등 농촌 경리에 봉사하는 국가 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협동 농장들의 경영 활동을 현지에서 직접 조직하며 지도한다.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인 농업 지도 기관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경영 위원회는 과거와 같은 행정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 방법에 의하여 농촌 경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특히 농업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경영 위원회가 조직된 결과 매개 협동 농장들의 관리 운영이 개선되였을 뿐 아니라 군내 협동 농장들의 련계도 강화되였다.

경영 위원회는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공업과 농업 간의 생산적 련계를 강화한다. 경영 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전 인민적 소유가 협동적 소유에 더 넓게, 더 깊이 침투하게 되였으며 기술, 문화, 사상의 각 방면에 걸쳐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였다. 경영 위원회의 창설은 농업 협동 경리에 대한 사회주의적 국영 공업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강화하고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이러한 방조를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킨다.

우리의 과업은 경영 위원회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농촌 경리를 능숙하게 지도하며 협동 농장들에 더 효과적인 방조를 주는 데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경영 위원회 일'군들의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경영 위원회 일'군들은 낡은 행정식 사업 방법을 완전히 퇴치하고 경영 위원회의 본래의 사명에 부합되게 협동 농장들을 반드시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계획 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 조직, 토지와 농기계 및 관개 시설의 리용, 기술 발전, 자재의 보장, 로동력의 배치와 조직, 생산물의 분배, 재정 관리 등 협동 농장들의 모든 경영 활동을 직접 조직하여 주며 구체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기업적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이다. 농업 생산도 공업 생산과 같이 하나의 기술 공정이다. 농촌 경리에서 기술의 역할은 더욱 높아 가며 생산 과정은 기술적으로 더욱 복잡하여지고 있다. 지금은 기술을 떠나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기술을 모르고는 농사를 지도할 수 없다. 경영 위원회는 일'군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기술자들을 옳게 동원하여 농촌 경리에 대한 기술

적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농촌 기술 혁명을 더욱 촉진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생산이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주인은 사람이다. 농업에서 주인은 농민이다. 농민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동원하지 않고는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 수 없다. 농민들과 사업하지 않고는 농촌 현실을 충분히 료해할 수 없으며 농촌 경리를 옳게 지도할 수 없다. 경영 위원회 일'군들은 청산리 방법에 립각하여 항상 현지에 나가 사람과의 사업을 선행시키고 현실을 깊이 료해하는 기초 우에서 협동 농장들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경영 위원회는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농업 생산에 복무하는 국가의 모든 물질 기술적 수단들과 자재들은 경영 위원회의 직접적 관할 하에 있거나 또는 경영 위원회를 통하여 농촌에 들어 간다.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가 효과 있게 실현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경영 위원회의 활동 여하에 달려 있다.

경영 위원회는 군내 농촌 경리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적합하게 관개 시설, 농기계, 화학 비료 등 설비와 자재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 위원회는 자기 관할 하에 있는 국가 기업소들과 국가의 기술 수단 및 물자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옳게 관리하여 그것들이 농촌 경리에 더 잘 복무하며 협동 농장들에 더 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경영 위원회는 군내의 모든 협동 농장들을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하고 다각적으로 발전되고 수익성이 높은 사회주의 경리로 만들어야 한다.

군 경영 위원회와 함께 도 농촌 경리 위원회 및 중앙 농업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야 한다.

도 농촌 경리 위원회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과 국영 농목장들을 직접 지도하고 방조하면서 도내 농촌 경리의 발전을 전반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도 농촌 경리 위원회는 군에 농기계와 비료, 농약 등 영농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며 작물 배치, 종자 선정, 시비 체계의 수립 등 기술적 지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중앙 농업 위원회는 농촌 경리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면서 주로는 농업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농촌 경리의 전망적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중앙 농업 위원회는 농업 부문의 과학 연구 사업과 간부 양성 사업, 대규모의 자연 개조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이 사업들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 지도 체계는 농업의 경영 관리를 선진적 공업 관리의 수준에 더욱 접근시키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농촌 경리 발전의 당면한 문제들과 전망적 문제들의 해결을 옳게 배합시키는 우월한 체계이다.

우리의 모든 농업 지도 기관들, 특히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이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발전은 비상히 촉진될 것이다.

3.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의 군의 역할과 임무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촌 사업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사업의 하나이다. 농촌 사업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의 락후성, 농민 구성의 복잡성, 농촌 경리의 자연적 계절적 제약성 등과 관련되여 있으며 또한 중요하게 농촌의 분산성과 관련되여 있다.

농촌 사업의 대상은 전국 각지에 분산되여 있는 농촌 마을들이며 넓은 지역에 분산되여 있는 작업장들이며 소집단으로 분산되여 일하며 살고 있는 농민들이다. 농촌 경리가 협동화된 결과 농촌의 분산성이 현저히 퇴치되였으나 그것은 의연히 도시 및 로동자구와 구별되는 농촌의 중요한 특징으로, 공업과 구별되는 농업의 특징으로 남아 있으며 장차로도 계속 그러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농촌에서의 모든 사업은 언제나 이 특징을 고려하여 거기에 적합하게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 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 지역 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는 그 크기가 적절하여야 하며 그 단위의 범위 내에서는 자연 지리적 조건 기타 조건들에서 심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거점은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 기관들, 물질 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이 농촌 사업과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 단위로 되고 있으며 거점으로 되고 있다. 우리의 군들은 그 크기에 있어서나 간부와 지도 기관들, 물질 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단위로서 가장 적합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은 실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농촌과 로동자구를 직접 지도하는 당과 행정의 말단 지도 단위이다. 당과 정부의 모든 정책이 군을 통하여 직접 농촌과 로동자구에 들어 간다. 군 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농촌과 로동자구에 내려 가 근로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모든 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조직하고 집행한다.

군은 지방의 경제 문화 발전의 종합적 단위로 되고 있다. 지방 공업이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며 농촌 경리의 발전도 군이 직접 지도한다. 군 소재지와 농촌 건설도 군 단위로 진행되며 지방에서의 공급 사업, 교육 문화 보건 사업도 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다.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다. 농민들은 군을 거쳐서 당의 정책을 받아 들이며 군을 거쳐서 로동 계급과의 생산적, 경제적 련계를 맺으며 도시의 문화와 생활 풍습을 배운다.

진보적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군의 거대한 역할은 곧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에서 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군은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되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된다.

우리 당은 나라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의 위치와 역할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이 방향에서 군 사업을 부단히 개선 강화하여 왔다.

당은 군당 위원회를 비롯한 군 기관들을 유능한 간부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었다. 군에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지방 공업 경영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 산업 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학교, 병원, 도서관, 영화관 등 많은 문화 후생 시설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1962년에 소집되였던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는 창성군의 사업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군들 앞에 나선 과업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군 사업을 새로운 더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울 수 있게 하였다.

군을 튼튼히 꾸리며 군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우리의 과업은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과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는 데 있다.

농촌 경리에 대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군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1. 군내 지방 공업의 역할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매개 시, 군에 직물 또는 편직물 공장, 장유 공장, 가구 공장 등 평균 10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건설되여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방에 공장을 광범히 건설한다는 것은 공업을 농업에 더욱 접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군들에 건설된 지방 산업 공장들은 주로 지방 원료를 가공하여 소비품을 생산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여러 가지 소비 상품을 생산하여 군내의 농촌에 공급하는 동시에 도시에도 공급함으로써 근

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각종 농산물과 부업 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며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더욱 추동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과 생산 문화, 기술을 농촌에 보급하며 농민들에게 로동 계급의 정치적, 사상적 영향을 주는 데서도 큰 작용을 한다.

모든 군들에서는 이미 축성한 토대에 의거하여 지방 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지방의 원료 원천을 광범히 동원하여 가공하며 특히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과 부업 산물을 가공하는 데 더욱 주력하여야 한다. 모든 지방 산업 공장들은 군내의 농촌 경리와 기타 부문들에 대하여 새 기술을 보급하는 기지로 되여야 하며 높은 생산 문화와 선진적 기업 관리의 모범으로 되여야 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과 기타 지방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공업과 농업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서 지방 공업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규모의 중앙 공업 기업소들도 지방에 널리 분포되여 있다. 거의 모든 군들에 한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중앙 공업 기업소들이 있다. 이것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큰 힘으로 되며 또한 공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지방에 있는 중앙 공업 기업소들은 주변의 협동 농장들을 물질 기술적으로, 정치 사상적으로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협동 농장들은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채소, 축산물 등 식료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군은 군내의 중앙 공업 기업소들과 협동 농장들 간에 밀접한 련계를 지어 주며 호상 방조를 강화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서의 군

사회주의 농촌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여야만 농촌에 공업 상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업 상품에 대한 농촌의 수요를 장성시키고 상품의 실현을 촉진하여 공업 발전을 더욱 추동할 수 있다. 또한 이 련계를 강화하여야만 농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도시 주민들과 공업의 식량 및 원료 수요를 보장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수입을 장성시키고 농촌 경리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군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맺어 주는 거점으로 되며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 된다. 농촌에서 나는 생산물은 군을 거쳐서 도시에 공급되며 도시에서 생산되는 공업 제품은 군을 거쳐서 농촌에 공급된다. 군이 공급 기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 한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으며 이것은 결국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나 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전진하면 할수록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는 더욱더 밀접하여지며 따라서 이 련계를 지어 주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제고되여야 한다.

농촌 경리가 발전하고 농민들의 수입이 장성함에 따라 농민들은 질 좋고 다양한 공업 상품을 더 많이 요구한다. 군은 자체의 공급 기지를 강화하고 농촌 상점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상품 배정을 잘 하여 농민들에게 공업 상품을 제때에 원만히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 상업 기관들은 공업 기업소들이 농촌의 수요에 적합하게 제품을 더 훌륭하게, 더 많이 생산하도록 생산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다른 편으로 농업 생산이 장성하고 농촌 경리가 다각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농촌에서의 상품 생산물이 급속히 증가된다. 군은 자체의 수매 기지를 강화하고 수매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농촌의 상품 생산물을 제때에 사 들임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도록 하는 동시에 도시 주민들과 공업에 대한 식량 및 농산 원료의 공급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상업은 본질 상 인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이다. 농촌 상업은 농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이다. 군 상업 기관과 수매 기관 일'군들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립장에서 자기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군은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과 함께 농민들을 위한 생활 봉사를 개선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매개 농촌 리에 상점은 물론 리발소, 목욕탕, 세탁소, 의복 및 가구 수리소, 합숙 등 각종 편의 봉사 시설들을 완비하고 그것들을 잘 운영하여 농민들의 모든 생활 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우리의 농촌 리들을 농업의 튼튼한 생산 세포로 만들 뿐 아니라 농민들을 위한 훌륭한 공급 세포로, 훌륭한 봉사 세포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3. 농촌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

군은 농촌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도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군 소재지에는 학교, 병원, 영화관, 서점, 도서관 등 각종 문화 후생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군 소재지와 군내 농촌 주민들을 위하여 복무한다. 군은 농촌 학교, 진료소들을 직접 관리하며 군내 농촌의 전반적 문화 위생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농촌의 당 간부들과 관리 기술 간부들도 주로는 군 교육 기관들

을 통하여 양성된다. 농촌 주택들과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 사업은 군에 소속된 농촌 건설대에 의하여 진행된다.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군은 농촌 학교들을 잘 꾸리고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여 농촌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군은 군내의 농촌 청소년들에게 다 기술 교육을 줄 수 있도록 기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군은 자체의 고등 기술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을 통하여 농촌 간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군은 군 병원과 농촌 진료소들을 잘 꾸리고 농촌 보건망을 확장하여 농촌에서의 보건 위생 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의 전반적 문화 사업에 대한 군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 소재지는 도시의 선진적인 문화와 생활 풍습을 농촌에 보급하는 기지로 된다. 군 소재지를 아름답게, 아담하게,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려 농촌이 이를 따라 오도록 하여야 한다. 군 소재지는 농촌에 대하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범으로 되여야 하며 새로운 사회주의 생활 양식의 표본으로 되여야 한다.

군은 농촌 건설대의 력량을 동원하여 군 소재지와 군내 농촌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농촌 건설대는 군내 농촌의 주택들과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 사업을 책임적으로 담당 수행하여야 한다.

군이 이 모든 사업을 원만히 집행할 때 군내 농촌 문화 혁명은 더욱더 촉진될 것이다.

4. 농촌 사업에 대한 군당 위원회의 지도

군당 위원회는 우리 당의 말단 지도 기관이며 군 사업의 참모부이다. 군당 위원회는 군내 모든 당 조직들을 직접 지도하며 군내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한다.

농촌 사업에 대한 지도는 군당 위원회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군당 위원회의 주되는 사업 대상은 농촌이다. 군당 위원회는 군내의 농촌 당 조직들을 직접 지도하며 농촌에서의 모든 경제 문화 사업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군당 위원회가 지도하는 다른 부문들의 사업도 다 농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여 있다.

농촌 사업에 대한 군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지 않고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의 군의 역할을 높일 수 없으며 따라서 농촌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당 위원회의 농촌 사업 지도를 계속 개선 강화하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첫째로, 군당 위원회는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촌 문화 건설에서 키잡이의 역

할을 잘 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과 기술, 농촌 건설, 농촌 문화 사업 등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군 인민 위원회 기타 군내 행정 경제 기관들이 직접 조직하며 집행한다. 군당 위원회는 경제 문화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적으로 지도하며 통제한다.

군당 위원회는 군내 행정 경제 기관들이 당 정책에 립각하여 농촌에서의 경제 문화 사업을 옳게 수행하게끔 방향을 제시하여 주며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군당 위원회는 행정 경제 기관들의 사업 집행 정형을 수시로 검열하고 통제하며 잘못되는 것은 제때에 고쳐 주어야 한다.

농촌 경제 문화 사업에 대한 군당 위원회의 지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해당 시기의 주되는 사업에 힘을 집중하는 동시에 모든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농촌 사업은 다른 부문의 사업보다도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군당 위원회는 반드시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부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해결하면서 농촌에서의 모든 경제 문화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로, 군당 위원회는 농촌에서의 당 사업과 정치 사상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군당 위원회는 농촌 당 조직들과 사업하며 농촌 간부들과 사업하며 농촌 당원들과 사업하며 농민 군중과 사업하여야 한다. 농촌 당 세포들과 리당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방조하여 농촌의 모든 당 조직들이 자기의 당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간부 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도와 주고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농촌 간부들이 당 정책에 립각하여 자기 사업을 옳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전체 농촌 당원들이 농민 군중 속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전체 농민들이 당의 농촌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당 위원회는 당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의 모든 당 조직들이 다 움직이도록 하며 모든 간부들, 모든 당원들, 모든 농민들이 다 움직이며 다 자각적으로 일하며 다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당 위원회는 농민들의 사상 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군당 위원회는 농촌에서의 사상 혁명의 직접적 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군당은 농촌 당 조직들을 발동시키고 농촌 당원들과 천리마 기수들, 열성 농민들을 발동시켜 농민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군당 위원회들이 농촌 경제 문화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고 농촌 당 정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군내의 전반적 농촌 사업에서 참모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4.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당면한 몇 가지 대책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 제도의 우월성과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는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따라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였다.

전쟁의 페허 우에서, 농기계도 없고 로력과 축력도 부족한 비상히 어려운 형편에서 조직된 우리 나라 협동 농장들이 오늘에 와서는 생산을 계속 확대하며 농장원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고한 사회주의적 경리로 자라 났다. 전쟁으로 인하여 주택과 가재 도구를 거의 다 잃어 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부족하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 중농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서 일어 난 위대한 전변이다.

우리의 과업은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는 것이다.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가 급속히 강화되였으나 원래 우리 농장들이 너무나 빈약한 토대에서 조직되였기 때문에 아직도 부유한 농장으로 되지는 못 하였다. 농민들의 생활이 급속히 향상되였으나 원래 우리 농민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 왔기 때문에 아직도 유족하게 잘 살지는 못 하고 있다. 해방 후 특히 농업 협동화가 실현된 후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현저히 축소되였으나 과거에 우리 농촌이 너무나 락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져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만 못 하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모든 협동 농장들을 부유한 농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모든 농민들을 유족하게 잘 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더욱 축소시키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여기에 접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업 생산을 훨씬 더 장성시키는 동시에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 주어야 한다.

오늘 공업의 위력이 장성하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가 더욱 튼튼히 축성된 조건 하에서 우리는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며 그들에게 더 큰 국가적 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취할 수 있게 되였다.

그러한 대책으로서는:

첫째로, 농업 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며;

둘째로, 농촌 기본 건설에서 지금까지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하던 것도 앞으로는 국가 자금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세째로, 국가의 부담으로 농민들에게 문화 주택을 지어 주는 것 등이다.

1.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현물세제는 해방 직후인 1946년에 토지 개혁의 실시에 뒤'이어 도입되였다.

해방 전에 우리 농민들은 소작료, 강제 공출 기타 가렴 잡세로 수확의 대부분을 지주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략탈 당하였다. 토지 개혁이 실시되고 단일한 현물세제가 도입됨으로써 농민들은 이러한 착취와 략탈에서 해방되였으며 다만 수확고의 25%만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당시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혁명적인 변혁이였다.

농민들이 국가에 바치는 현물세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을 보장하며 공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사회주의적 국영 공업이 발전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축성되어 감에 따라 국가는 농민들의 현물세 부담을 점차적으로 덜어 주었다. 수확고의 25%이던 현물세률을 전후에 와서는 평균 20.1%로 낮추고 1959년부터는 그것을 또다시 8.4%로 낮추었다. 그 뿐 아니라 많은 협동 농장들에 대하여 현물세를 감면하여 주었으며 일부 농장들에 대하여서는 현물세의 납부를 완전히 면제하여 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3,700여 개의 협동 농장들 중 1963년 말까지 현물세의 납부를 완전히 면제 받은 협동 농장 수는 1,331 개에 달한다.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7 개년 계획 기간에 농업 현물세제를 전반적으로 폐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제는 이 결정을 집행할 때가 되였다.

우리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의 3 년 간에 걸쳐 농업 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현물세를 이미 면제 받은 협동 농장들을 제외하고 2,400여 개의 농장들이 현물세를 바치고 있다. 우리는 금년에 이 가운데서 800여 개의 협동 농장들에 대하여 현물세를 면제하여 주고 1965년에 또 약 800 개의 농장들을 면제하여 주며 마지막 해인 1966년에 가서는 나머지 농장들까지 다 면제하여 주어 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물세의 면제는 매개 협동 농장들의 경제 형편을 충분히 참작하여 뒤떨어진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첫해에는 경제 토대가 비교적 약한 농장들을 면제하여 주고 다음 해에는 중간 수준의 농장들을 면제하여 주고 비교적 부유한 농장들은 마지막 해에 면제하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는 협동 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대책으로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농민들을 온갖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력사적 사변으로 될 것이다.

2. 국가 부담에 의한 모든 농촌 기본 건설의 실시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방대한 기본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 기본 건설에서 대규모의 대상들은 모두 국가 투자에 의하여 실시하고 중소 규모의 대상들은 주로 협동 농장들의 자체 투자에 의하여 실시하여 왔다. 지난 5년 간에 농촌 기본 건설 총투자액 중 국가 투자가 60% 이상, 협동 농장들의 자체 투자는 약 40%를 차지하였다.

우리는 종전에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실시하던 기본 건설도 금년부터는 국가 자금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기구, 중소 농기계, 역축 등은 앞으로도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중소 관개 공사, 하천 정리, 양수 시설, 탈곡장, 축사, 창고, 농촌 발전소의 건설과 전기 가설 등 기본 건설은 다 국가 자금으로 채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농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국가가 방대한 추가적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책의 실시는 협동 농장들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덜어 줌으로써 농장들로 하여금 영농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리면서도 농장원들에 대한 분배 몫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농업에 대한 전반적 기본 건설 투자액을 장성시키고 농촌 기본 건설을 더 계획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질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급속히 강화하게 될 것이다.

3. 국가 부담에 의한 농촌 문화 주택의 건설

우리 나라 농민들은 수천 년 동안 허물어져 가는 오막살이에서 살아 왔다. 해방 후 농촌 주택 문제는 농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혹심한 전쟁 피해는 도시와 함께 농촌에서의 주택 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였다.

우리 농민들은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방조 밑에 수많은 새 주택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농촌 건설대가 조직된 후 농촌 주택 건설은 더욱 광범히 전개되였다. 농촌에서의 주택 사정은 이미 결정적으로 개선되였다.

농촌 주택 문제를 더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국가 부담에 의하여 농민들에게 문화 주택을 지어 주어야 한다. 모든 농민들에게 다 훌륭한 문화 주택이 차례지도록 하려면 앞으로도 농촌 주택 건설 사업을 계속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 로력을 국가가 부담할 뿐 아니라 이미 농촌 건설대가 지어 준 문화 주택들의 건설비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농민들에게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국가가 주택을 보장하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전체 인민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는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만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이 이와 같은

인민적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의 부담으로 농촌 문화 주택 건설을 더욱 힘 있게 추진시킴으로써 가까운 년간에 농촌의 면모를 완전히 개변하도록 할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대책 외에도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도를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위한 방대한 국가적 대책들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로동 계급이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농촌에 더 많은 방조를 줄 수 있으며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다. 로동자들은 나라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촌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 운수, 건설 등 모든 부문에서 부단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농민을 도와 주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로동 계급의 신성한 의무이며 그것은 전 국가적, 전 사회적 리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농민들을 백방으로 방조하여 그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지을수록 도시 주민들과 공업을 위하여 더욱 튼튼한 식량, 원료 기지가 축성될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더 촉진될 것이다.

우리의 농민들은 농촌 경리 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와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농민들은 로동 계급의 적극적인 지원에 호응하여 증산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로동자들과 도시 주민들에게 식량, 축산물, 채소, 과실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이 장성하면 할수록 공업 발전이 촉진되고 나라의 경제 토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가는 농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로동자, 농민이 굳게 단결하고 협조하며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훌륭히, 더 빨리 건설하여야 한다.

* * *

농촌 문제를 계속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숭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임무이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위한 투쟁은 과거에 락후하고 빈곤하던 우리 농촌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우리의 혁명 기지를 반석 같이 다지며 남조선 농민들과 인민들을 더 힘 있게 성원하며 조국 통일 위업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농촌 문제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에게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과 로동 계급의 강력한 주권이 있고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와 위력한 자립적 경제 토대가 있으며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인민이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나아가는 이상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자로 될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와 같이 농촌 전선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관한 창조적 맑스-레닌주의 문헌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채택하였다.

테제는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나라 농촌에서 승리하고 생활에 구현된 로정을 심오하게 분석하였으며 우리 당이 축적한 거대한 업적과 경험을 총화한 기초 우에서 작성된 것이다.

우리 당은 농촌 문제 해결에서 항상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치고히 고수하고 그것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올렸다.

우리 당은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단계에서 토지 개혁을 가장 선차적이고 중심적 과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우리 당은 전후의 어려운 형편에서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제기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훌륭히 실현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였으며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부단히 개선하고 가장 선진적인 지도 체계와 관리 형태를 창조하였다.

생활은 우리 당 농촌 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와 경험을 리론적으로 개괄하고 농촌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들을 천명하였다.

테제는 또한 이러한 원칙들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당면한 과업들과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이 테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 문헌이다.

테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해명한 탁월한 맑스-레닌주의 문헌이다.

1

농촌 문제는 맑스-레닌주의에서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농민 문제, 농업 문제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농촌 문제를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 문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농민은 인구, 생산 및 정치적 세력의 극히 본질적인 요인이다》(맑스 엥겔스 저작 선집 제 2 권 2 분책, 170 페지) 로동 계급은 혁명의 중요한 력량인 농민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킴이 없이는, 인민 경제의 2 대 부문의 하나인 농업을 공업의 발전에 따라 세우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고 농업 생산력을 봉건적 생산 관계의 질곡에서 해방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는 협동화를 통하여 농민들을 집단 경리에 인입하고 농업 생산력을 사'적 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또한 협동화가 끝난 이후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앨 데 대한 원칙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개조하고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야 하며, 농업 생산 관계를 부단히 개선 완성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끌어 올려야 하며, 문화 혁명을 수행하여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사상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토지 혁명,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협동화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리론은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생활에 구현되였으며 그 정당성이 검증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협동화 이후에 농민 문제, 농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어떤 방도로 종국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개 나라의 구체적 실천 행정에서 해명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제시한 일반적 원칙에 기초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자들에게 부과된 력사적 임무로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우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이후의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내용을 명백히 하였다.

테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후에 있어서는 농촌 문제가 그 이전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제기된다.

그 이전 시기에 있어서는 농민과 농업 생산력을 낡은 생산 관계의 질곡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사회주의 하에서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 관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농촌을 모든 령역에서 급속히 발전시키며 도시와 공업에 비한 농촌과 농업의 상대적 락후성을 없애는 것이 문제로 된다.

이전에는 주로 농민들의 사회적 해방이 문제였다면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후에는 그들을 고된 로동으로부터 해방하며 문화적 및 사상적 락후성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부단히 공고화하는 기초 우에서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며 착취 사회가 남겨 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데 있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내용에 대한 이러한 정식화로부터 출발하여 김 일성 동지는 농촌 문제가 어느 때에 가서 종국적으로 해결되는가 하는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주었다.

착취 사회에서 물려 받은 농촌의 력사적 락후성은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도 농민들은 로동 계급보다 기술 문화 수준이 낮고 사상 의식이 뒤떨어져 있으며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공업에 비하여 약한 채로 남아 있다. 또한 이것으로 하여 농촌은 소유 관계에서도 뒤떨어져 있게 되며 경제 관리의 수준에서도 뒤떨어져 있다.

농촌의 이러한 락후성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없으며 농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농민 문제, 농업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테제)

다음으로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농촌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방도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앨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 일반 리론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이룩된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에 관한 기본 문제들을 설정하고 해명하였다.

그것은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할 데 대한 문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태도 문제,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의 지역적 거점에 대한 문제들이다.

이 모든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이후 농촌에서 제기되는 혁명 과업들을 완수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

테제는 먼저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이후 혁명을 계속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였다고 하여 혁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그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적 락후성의 완전한 청산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그의 청산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 주는 것일 따름이다.

이러한 락후성을 그 대로 가지고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으며 더구나 공산주의에로 들어 간다는 것은 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테제는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제는 농촌 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사상 의식과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을 단순한 경제 건설 과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고된 로동으로부터 해방하며 낡은 사상 잔재와 문화적 락후성으로부터 해방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력사적 임무로 인정하고 협동화가 끝나면 즉시 이 혁명 과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데 있다.

테제는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이것은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이다》(방점은 인용자의 것)라고 규정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수행할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기초하여 농촌에서 이 세 가지 혁명을 어떻게 수행하며 그들의 호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명확한 답변을 주었다.

협동화가 끝난 후 당은 농민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켰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들의 혁명적 의식이 계속 높아지고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장성하고 있으며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남김 없이 발양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테제는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호상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 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 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우리는 사상 혁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농촌에서 사상 혁명을 다른 혁명들에 선행시켜야 할 필요성은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농촌에서 장기간 계급 투쟁이 계속되기 때문이며, 농촌에서 생산과 기술,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화함에 있어서 농민들의 사상 의식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에만 치우치고 사상 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엄중한 착오로 된다.

사상 혁명이 중요하다고 하여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소홀히 하여서도 안 된다.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없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수 없다.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추진시키는 것은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데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협동화 이후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확한 길을 제시한 테제의 명제들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의 새로운 발전으로 된다.

다음으로 테제에서는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태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관계를 정확히 설정할 데 대한 문제가 제시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오직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서만 농민이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설 수 있고 공산주의에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로동 계급은 농민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농촌에 대한 그릇된 관점, 도시와 공업만을 중요시하고 농촌을 홀시하는 습성이 오래 동안 남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로동 계급이 농촌을 지도하고 지원할 데 대한 원칙은 엄밀히 관철되지 못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태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관계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은 오늘 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협동화가 끝난 후에는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태도가 그 전과는 응당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협동화된 농민은 로동 계급과 같이 사회주의적 근로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력량이며 로농 동맹은 새로운 기초 우에 서게 된다.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밀접한 호상 련관 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개 형태이며 다같이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책임 지며 전 인민적 소유의 발전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책임 진다.》(테제)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우리 당은 사회주의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하여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공업의 토대를 튼튼히 축성한 다음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 농촌에 대한 지원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우리의 공업은 해마다 더 많은 농기계, 화학 비료, 각종 건설 자재와 소비품을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였다. 우리는 농촌에 방대한 로력적 방조도 주었다.

국가는 농업 현물세를 감면하며 농산물 수매 가격을 조절하며 농기계와 농기구의 가격을 낮추는 등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다.

농촌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협동 농장들을 공고히 하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테제는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일단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를 축성한 다음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 데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 때부터는 농촌을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력히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촌을 책임 지는 립장에서 백방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제반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로동 계급의 당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의 하나이다.

로동 계급이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처지와 생활을 관심하고 그에 부단히 배려를 돌리는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 군중 관점, 군중 로선의 산 표현이다.

농민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로동 계급이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가장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인 태도인 것이다.

로동 계급이 농민을 각 방면으로 적극 도와 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동맹자의 립장을 강화하여 로동 계급 자체의 립장, 전체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다른 편으로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결국 공업 자체와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을 더욱 추동하는 것으로 된다.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은 농민을 로동 계급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과정을 촉진시킨다.

로동 계급이 농민을 적극 지원하여야만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다.

농촌 사업을 소홀히 하고 농민들을 도와 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농업을 희생으로 하여 공업만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농민들의 적극성을 발양시킬 수 없을 것이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테제에는 또한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지도 관리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과학적으로 해명되여 있다.

농업 협동화가 완성된 다음에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생산 관계를 부단히 완성하면서 특히 관리 운영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관리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발휘시키는 기본 문제이다.

우리 당은 이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

우리 당은 협동화가 완성된 직후에 군중 로선을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지도에 구현한 청산리 방법을 창조하였으며 이 방법을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에 적용하고 기업적 방법을 실현하는 새로운 관리 형태—새 농업 지도 체계를 창설하였다.

새 농업 지도 체계는 국가가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가지고 우로부터 아래에 내려 가 농업 생산을 지도하는 체계이다.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인 농업 지도 기관이다.》(테제)

이것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에 적응한 체계이며 군중 로선에 기초한 체계이다.

테제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관리 지도를 완성하는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 방향은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에 부단히 접근시키는 것이다.》

농촌 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공업에 대한 지도와 같이 농업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며

협동 농장의 모든 경영 활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농업의 경영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 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접근하여 가는 만큼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도 응당 공업 관리에 있어서와 같이 기업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새 농업 지도 체계는 기업적 방법으로 농업 협동 경리를 지도함으로써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며 농업 관리에서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퇴치하고 토지, 농기계 기타 생산 수단들과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것은 농업 생산을 장성시키며 협동 경리 제도를 공고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생활력을 보여 주고 있다.

테제에는 또한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에 관한 문제, 협동적 소유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끌어 올리는 방도에 대한 문제가 해명되여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대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기본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후 소유 관계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 차이다.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 소유 간의 차이를 없애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 농촌에서 생산력이 발전하고 농민들의 사상 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게 생산 관계를 부단히 개선하고 점차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두 소유 간의 련계, 특히 공업과 농업 간의 생산적 련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테제는 새 농업 지도 체계 하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 소유와 전 인민적 소유 간의 밀접한 련계를 실현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에 기초하여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끌어 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제시하였다.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호상 관계,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 문제를 옳게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테제—방점은 인용자의 것)

이 명제는 두 소유 간의 련계를 강화하고 그들 간의 차이를 없앰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을 고수하고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는 국가적 소유의 현대적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농업 생산에 직접 참가하고 있으며 농업 로동에서 차지하는 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리 하여 농업 생산에서 로동의 사회화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고 협동적 소유가 전 인민적 소유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를테면 보다 선진적이고 보다 강력한 전 인민적 소유가 협동적 소유에 수혈을 해 줌으로써 협동적 소유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접근시키고 있는 것이다.

테제는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들을 계속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전 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 기술적 수단들이 농업 생산에서 점차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리 하여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조성하면서 협동적 소유를 점차적으로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부단히 접근시키고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하며 촉진시키는 길이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가장 정당한 길이다.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저하시키며 두 소유를 분리시키거나 공업과 농업 간의 생산적 련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저하시키고 로농 동맹을 약화시키며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에 난관을 조성하게 할 것이다. 반면에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함이 없이 협동적 소유를 조급하게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도 안 된다.

김 일성 동지의 테제에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의 지역적 거점,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의 지역적 거점에 관한 명제가 제기되여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가 놀고 있는 역할을 리론적으로 개괄함으로써 얻어진 결론이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 되여 있다.

농민들은 군을 거쳐서 당의 정책을 받아 들이며 군을 거쳐서 로동 계급과의 생산적 경제적 련계를 맺으며 도시의 문화와 생활 풍습을 받아 들이고 있다.

우리 당은 나라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군 사업을 부단히 개선 강화하여 왔다.

우리 당의 이러한 방침은 좋은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군의 역할이 제고됨에 따라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더욱 촉진되고 농촌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방조가 훌륭히 실현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미 1962년 창성 련석 회의에서 제기되고 실천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이번 테제에서 전면적으로 정식화되였으며 리론적으로 상세하게 해명되였다.

테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 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 지역 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는 그 크기가 적절하여야 하며 그 단위의 범위 내에서는 자연 지리적 조건 기타 조건들에서 심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거점은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 기관들, 물질 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지역적 거점을 설정할 필요성은 중요하게 농촌의

분산성과 관련되여 있다.

농촌은 전국 각지에 분산되여 있으며 한 개의 협동 농장 안에서도 작업장들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여 있으며 농민들은 소집단으로 분산되여 일하며 살고 있다.

농촌의 이러한 분산성은 협동화 이후 현저히 퇴치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바로 공업과 구별되는 농업의 이러한 특징이 일정한 지역적 단위를 설정하며 그것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 거점을 요구한다.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도시와 농촌 간, 중앙과 지방 간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이러한 사정이 또한 지역적 거점을 요구한다.

지역적 거점을 옳게 설정하고 그의 역할을 높일 때 지방 도시를 중앙 도시의 수준에로, 농촌을 지방 도시의 수준에로, 모든 지방을 중앙의 수준에로 급속히 끌어 올릴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의 지역적 거점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명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테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더욱 추진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업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당면한 대책적 문제들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기본 과업은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농촌을 더욱 힘 있게 지원하며, 경영 위원회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농촌 경리를 보다 능숙하게 지도하는 것이다.

이 과업들의 해결은 당의 농촌 진지를 강화하여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더 한층 추진할 것이다.

테제에는 3 년 내에 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하며, 농촌의 모든 기본 건설 사업을 국가의 자금으로 진행하며, 국가의 부담으로 농민들에게 문화 주택을 지어 주는 전례 없는 대책들이 제기되였다.

이것은 공업의 위력이 강성하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가 더욱 튼튼히 축성된 조건에서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며 그들에게 더 큰 국가적 혜택을 주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다.

그것은 우리 농민들을 온갖 세금의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할 것이며 우리 나라의 모든 협동 농장들을 부유한 농장으로 만들고, 모든 농민들을 유족하게 살도록 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진전을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과업들과 당면한 대책들은 테제가 천명한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들에 튼튼히 기초하여 제시된 것이며 우리 당이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커다란 관심과 진지한 노력을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테제가 이러한 과업들과 당면한 대책들을 제기한 것은 농촌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은 단계에 올라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테제의 리론 실천적 의의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 과업들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을 더욱 급속히 변모시키고 농촌을 모든 면에서 도시의 수준에 시급히 끌어 올릴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더욱 축소시켜 나아갈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킨 데 대한 웅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 주었다.

테제는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으며 모든 일'군들에게 명백한 사업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협동 농민들에게 행복하고 부유한 미래를 똑똑히 내다 볼 수 있게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힘과 용기를 한없이 북돋아 주고 있다.

실로 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휘황하게 비쳐 주는 홰'불이며 우리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위력한 리론 실천적 무기이다.

테제가 밝혀 준 길을 따라 전진하며 그에 제시된 원칙과 방도를 철저히 실현해 나갈 때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모든 과업은 훌륭히 해결될 것이며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또한 테제는 남반부의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 대중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조국 통일을 추진시키는 강력한 작용을 놀 것이다.

그것은 남반부 농민 군중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을 더욱 크게 할 것이며 북반부 농민들처럼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 그들을 더욱더 고무하여 줄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생동한 사실과 경험으로 과시하고 그의 광휘한 전도를 보여 줌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비방 중상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최근 제국주의자들은 마치도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가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없는듯이 비방하면서 이를 《반공 깜빠니야》에 리용하고 있다.

테제는 맑스-레닌주의 농촌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증하고 공산주의자들만이 진정으로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써 보여 줌으로써 적들의 《반공 깜빠니야》에 타격을 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인민들을 크게 고무할 것이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시종일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여 온 우리 당의 농촌 정책을 집대성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농촌 문제 해결에서의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그릇된 립장을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실로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혁명의 구체적 조건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구현하는 행정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달성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　*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당의 자랑이며 우리 인민의 영예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한 맑스-레닌주의 문헌이 우리 당에 의하여 작성된 것은 우리의 커다란 공지로 된다.

우리에게는 테제에서 제시된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밑천이 있다.

우리는 농촌 기술 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튼튼한 공업 토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믿음직한 력량이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가장 훌륭히 지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농촌 사업을 직접적으로 훌륭히 지도할 수 있는 군을 튼튼히 꾸려 놓았다.

우리의 전망은 휘황하며 찬란하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과업은 명백하며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이제 테제가 제시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투쟁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는 김 일성 동지의 테제의 정신과 테제가 제시한 혁명 과업을 깊이 연구 파악하고 그를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은 전 당적, 전 인민적 사업이다.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이 농촌을 적극 지원하며 모든 것을 다하여 농촌 건설 사업을 도와 주어야 한다.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와 맑스-레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자.

조국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혁명 력량을 더욱 결속하자

오늘 조선 인민 앞에는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과업이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정세는 조국 통일에 더욱더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공고히 되였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 체계는 전면적으로 뒤흔들리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날로 장성 강화되고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의 불'길은 세차게 타오르고 있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조국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다.

제국주의 반동 세력의 괴수이며, 국제 헌병이며, 인민들의 해방 투쟁의 교살자인 미 제국주의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우리 혁명은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이다.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첫째로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둘째로 남조선에서의 혁명의 주체적 세력을 튼튼히 꾸려야 하며, 세째로 국제적 혁명 력량의 결속을 촉진하여야 한다.

우리의 과업은 이 세 가지 혁명 력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1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의 통일과 조선 혁명의 승리적 수행에서 근본적인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

당은 해방 직후부터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을 제기하였으며 그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왔다.

당의 령도 하에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북반부의 혁명 기지는 천웅성 같이 강화되였으며 조선 혁명의 강력한 력량이 꾸려졌다.

조국의 통일과 조선 혁명 승리의 결정적 고리는 우리가 이 력량을 어떻게 더욱 강화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계속 조선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각 계층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하여 혁명 기지의 정치적 력량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여 혁명 기지의 물질적 지반을 더욱 튼튼히 축성하며, 인민 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전체 인민이 무장하여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조국을 통일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체적 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의 사업이지만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무엇보다도 남조선 인민들 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다.

혁명은 인민들 자신이 각성되여 자체로 투쟁에 일떠서야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혁명의 객관적 정세는 점차 성숙되여 가고 있다.

경제는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민생은 막다른 골목에 빠졌으며 정치적 혼란은 갈수록 우심해지고 있다.

인민들은 더는 그 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며 통치 계급은 종전대로써도 더는 그 대로 다스리기 힘든 그런 정세가 조성되여 가고 있다.

그러나 혁명의 주관적 요인은 이에 상응하게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의 혁명 력량은 아직 강력하게 조직화되지 못하였으며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과 계급 의식은 매우 미약한 형편에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현 사회 제도에 대하여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그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 어데 있는가를 똑똑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혁명적 구호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당면한 경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반제 반봉건 투쟁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혁명의 객관적 정세는 성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변혁을 가져 올 새로운 국면을 주동적으로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 통일을 실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약점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객관적 정세와 주관적 조건 간의 현존하는 간격을 시급히 극복하여야 한다.

이 간격은 시련과 곡절을 겪으면서 점차 극복될 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이 행정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우리는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다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과 계급 의식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남조선의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바로 미제 침략자들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도록 하며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지 않는 한 사내는 조금도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힘을 믿으며 투쟁과 불굴의 혁명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생활고에 시달린 주민들이 《팔자》를 한탄하면서 자기 손으로 제 목숨을 끊는 자살 행위는 그들이 각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죽음을 각오한다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죽을 바에야 왜 미국놈이나 그 주구들을 한두 놈이라도 죽이고 죽을 것이지 자기만 고스란히 죽겠는가!

우리는 남조선 인민들을 원쑤들에 대한 반항과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켜야 하며 그들에게 투쟁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을 조직화하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혁명적인 당을 가져야 하고 강력한 지도 세력이 있어야 한다.

오직 혁명적인 당, 지도 세력이 있을 때에만 인민들의 불만을 통치자들에 대한 반항에로 이끌 수 있고 경제 투쟁을 정치 투쟁에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각계 각층 군중을 반미 구국 투쟁에로 조직 동원할 수 있다.

지금 남조선 사회는 진정한 인민의 지도자를 요구하며 맑스-레닌주의적인 혁명적 당의 령도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 혁명 발전의 이 요구는 반드시 충족되여야 한다.

조국 통일은 국제 혁명 력량의 강화와도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반미 구국 투쟁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미제를 고립시키고 전 세계가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날 미 제국주의는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피압박 민족과 진보적 인류의 흉악한 원쑤로 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제를 증오하고 그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각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고 단결된 이 력량이 적극적인 반제 투쟁을 전개하며 중립 국

가들과 신생 독립 국가들도 반제 반식민주의 기치 하에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며 제국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호상간의 모순과 알륵이 강화되여 미제가 고립되도록 작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제적 규모에서 모든 반미 세력과 련합 전선을 형성하고 도처에서 각방으로 미제를 타격함으로써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쫓겨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아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

2

조성된 정세는 조국 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며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명에서 결정적 력량은 주체적 력량이며 그것은 당이 대중을 얼마나 전취하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의 승패는 결국 누가 대중을 더 많이 전취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당의 모든 활동은 대중을 결속하며 대중을 혁명에 인입시키는 데 돌려져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며 조선 혁명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문제는 우리가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어떻게 꾸리며 각계 각층 군중을 우리 당의 영향 하에 얼마나 묶어 세우는가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우리 당은 군중을 쟁취하며 전체 인민을 당 주위에 결속시키는 사업에 항상 주되는 관심을 돌렸다.

해방 후 당은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하에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혁명의 기지 북반부를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꾸리는 사업을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내세웠다.

당은 혁명의 매 단계에서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우기 위한 통일 전선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당을 따라 오려는 모든 계층의 군중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적극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방침을 견지하였다.

당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항상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으며 선차적으로 핵심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에 의거하여 각계 각층 군중을 묶어 세우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은 새롭고 고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그것은 우선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모든 사업을 사람들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여 당 주위에 튼튼히 집결시키고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한 것이다.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간부들이 직접 군중 속에 들어가 생산 현장에서 사람들을 교양하고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하는 사업 기풍이 수립되고 있으며 당원들이 다 움직이고 각계 각층 군중을 교양 개조하는 데 의식적으로 달라붙고 있으며 군중 교양은 점차 군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다.

다음으로 그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한 것이다.

공산주의 교양이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합됨으로써 군중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은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각계 각층 군중 속에서는 항일 투사들처럼 살며 일하려는 혁명 정신과 공산주의적 품성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또 하나의 고귀한 경험은 긍정적 모범을 통하여 감화하는 방법으로 군중을 교양한 것이다.

우리 당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사람들을 아량 있게 포섭하고 교양을 위주로 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그의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도로서 긍정적 모범으로 군중을 감화 교양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은 현실에서 그의 위대한 생활력이 확증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의 실천적 투쟁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면서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도록 부단히 고무하며 꾸준히 도와 주는 것이 사회주의 하에서 사람을 개조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하였다.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은 공산주의 교양의 위대한 학교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심화 발전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하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뒤떨어진 사람을 교양 개조하고 있다. 사회와 집단에는 신뢰와 화목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은 이미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누가 누구를》 하는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판가리 싸움이 목전에 다가 오고 있다.

앞으로 남북 간에 서신 거래와 인사 래왕이 실현되고 남북 조선에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 이 투쟁은 고도로 첨예화될 것이다.

금번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는 이 투쟁에 대처하여 우리의 혁명 력량을 더욱 굳게 결속하며 앞으로 남반부의 각계 각층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묶어 세울 수 있도록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혁명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정세 발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견성 있게 활동하며 주동적 립장에서 혁명 발전을 촉진시켜 나아가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세련된 령도를 다시금 보게 된다.

전원 회의는 해방 후 우리 당이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혁명 정세의 요구에 적응하게 모든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우리 당 주위에 한 사람같이 묶어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각계 각층 군중을 아량 있게 포섭하고 교양 개조하는 것은 비단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튼튼히 꾸리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남반부의 각계 각층 군중을 우리 당의 영향 하에 묶어 세우며 조선 혁명을 승리적으로 결속함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우선 우리 나라에서 주민 구성이 복잡하게 된 사회적 조건과 각계 각층 군중에 대한 우리 당의 관점, 립장, 지도 방침을 철저히 인식하고 각계 각층 군중 속에 의식적으로 들어 가 그들을 인내성 있게 교양 개조하여야 한다.

특히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등 핵심 군중에게 복잡한 계층의 군중을 교양하여 당 주위에 묶어 세우는 사업이 우리의 혁명 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복잡한 계층의 군중을 아량 있게 포섭하고 교양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은 복잡한 계층의 군중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가지고 그들을 계급적으로 구분하여 보며 그들의 예민한 심리 상태와 정서에 알맞게 교양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아파하고 곤난해 하는 문제들을 따뜻하게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더욱 고무하며 그들의 사업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주며 특히 복잡한 계층의 자녀들의 교육 교양에 심중한 관심을 돌림으로써 그들이 장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활기 있게 일하며 명랑 하게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계 각층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 우는 사업에서 간부들과 당원들의 군중 공작 방법과 사업 작풍이 중요한 역할 을 놀고 있다.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각계 각 층 군중에 대한 당의 정책은 정당하고 그의 집행을 위한 방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철저히 관철되지 못하 는 것은 우리 일'군들, 특히 초급 일'군들 과 당원들이 혁명적 군중 공작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지 못한 것 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 명적 군중 공작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 풍을 체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로 나서고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군중을 교양하고 설복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 공 작 방법을 체득하며 모든 사업을 항상 대중과 진지하게 의논하며 그들의 창조 적 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군중을 아량 있게 대하며 항상 걸린 문 제를 풀어 주고 도와 주는 품성을 소 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작풍에서 항상 겸 손하고 생활에서 소박하며 부드럽고 소 탈하고 례절이 밝아야 하며 항상 군중 의 모범이 되고 모든 면에서 이신작칙 하여야 한다.

혁명 동지들과 군중을 굳게 믿고 자 기의 친 혈육과 같이 사랑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깊은 우애로써 동지들과 군중 을 따뜻하게 보살피며 그들과 생사고락 을 같이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 한 품성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풍부한 인간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군중의 아픔을 자기 의 아픔으로 여기고 성심성의 도와 주 는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인간성과 함께 문화성을 부단히 높여 야 한다. 높은 문화적 소양은 일'군들로 하여금 인정미와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며 락천적으로 생활 하고 군중과 함께 휩쓸리게 하며 말과 행동에서 공산주의적 도덕 규범을 옳게 준수하도록 하여 준다.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는 것 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다. 그 것은 일'군들의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확 립하며 사상 관점을 바로잡는 심각한 사상 단련 과정이다.

당 조직들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타 나는 결함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사 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용화 묵과하지 말고 강력한 사상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할 줄 모르며 인민 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일' 군은 사실 상 지도적 역할을 옳게 수 행할 수 없다.

간부들은 정치 실무적으로 충분히 준 비되는 동시에 특별히 군중 사업에 능 숙해야 하며 군중 속에서 신망이 높고 위신이 있어야 한다.

각계 각층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며 조국 통일 위업을 준비 있 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 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야 한다.

혁명 군중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킴이 없이는 혁명 력량을 공고히 할 수 없으 며 이것이 없이는 혁명 운동에서의 승 리를 생각할 수 없다.

혁명 군중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근본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그 들을 공산주의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 는 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적 세 계관을 확립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공산 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 성을 확신하고 우리 혁명 전도에 대하 여 항상 락관을 가지며 적아를 옳게 식 별하고 계급적 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어떠한 곤난과 풍파 속에서도

계급적 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굳건히 고수하며 아무리 복잡한 환경 하에서도 사태 발전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고 자립적으로 사고하며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당 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를 증오하고 착취 제도를 반대하는 계급 의식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파악시키며 혁명 전통 교양을 계속 꾸준히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반동적인 부르죠아 사상과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맑스주의적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며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 뽑고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며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상 교양 사업에서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전체 당원들을 능숙한 정치 활동가로 육성하는 것이다.

우리 당원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여도 그를 설복하고 교양할 수 있도록 정치 리론적 준비를 갖추며 어떤 부문, 어떤 문제에 부닥치더라도 그것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며 자기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매개 당원이 장차 남조선 사람을 100 명 이상 맡아서 교양 개조할 수 있도록 《일당 백》으로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원들이 남북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자유 래왕이 실현될 때 북반부에 들어 오는 사람은 들어 오는 족족 몽땅 교양 개조하여 소화하며 남반부에 나가서도 군중을 교양하여 설복하며 동요하거나 주저하는 사람은 물론 의식이 부족하여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교양 개조함으로써 남북 조선의 전체 군중이 우리 당을 지지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로 오늘 우리 당 앞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의 기능을 부단히 높이며 사람들과의 사업을 짜고 들어 더욱 심속 있게 조직 진행하며 당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초급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며 근로 단체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일층 공고히 할 수 있다.

3

남반부를 해방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혁명 과업이다.

《우리가 지금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지만 우리 조국이 아직 분렬되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천만 이상이나 되는 남조선 인민들을 아직 해방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민족적 자주 독립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북반부에서만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그만큼 잘 지내리며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자기 민족을 잊어 버리며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용서할 수 없는 태도이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민족 해방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김 일성)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고통과 비참한 생활 처지를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북반부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가 맛 있는 음식을 먹을 때 멀리 타향에 나간 아들 생각을 하듯이 헤매이는 남반부 동포들을 육친의 정으로 생각해야

하며 문화 주택에 이사할 때면 의례히 로상에서 헤매는 남반부 동포들을 생각하게 하며 국가에서 교복을 타 입는 학생, 어린이들이 헐벗은 남조선 어린이들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정은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파악함으로써만 더 강해질 수 있다.

당 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미제의 침략 정책과 야수적 만행을 계통적으로 폭로하며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으로 초래된 남반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면적 파산과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 처지, 폭정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 형편을 체계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사업, 모든 사상 교양 사업을 남조선 해방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며 전체 근로자들에게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조국을 통일하며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리 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남반부를 하루 속히 해방하며 조국이 통일된 후 남반부의 파괴된 경제를 시급히 복구하고 도탄 속에 빠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하여 도처에서 증산과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 오르게 하며 더 잘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속 혁명의 사상으로,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조선 인민 앞에는 남반부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 의연히 남아 있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 빨찌산들처럼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 정신을 가지고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극복하여 나아가며 당과 혁명의 요구라면 어느 때, 어느 곳, 어떤 조건을 막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일과 부화를 배격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며 해이성과 권태증을 반대하고 항상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며 노래를 불러도 혁명적인 노래를 부르며 혁명적으로 일하고 혁명적으로 생활하며 모든 부문, 모든 직장,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 열의가 들끓게 하며 혁명적 분위기가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기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조국 강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남반부를 해방하며 우리 혁명 위업이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그 날까지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 로 자 제 5 호 (루계 243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3월 3일 발 행 • 1964년 3월 5일

7－430163 값 40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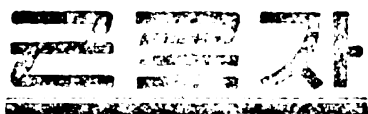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 호

3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제 6 호 (244)
1964년 3월 (하)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연구를 위하여 —

농촌에서의 사상 혁명

리 양 훈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강령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 전반에서 중요한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문헌이다.

테제에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우리 당이 달성한 위대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이 과학적으로 총화되였으며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 행정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천명되였다.

금번 테제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할 데 대한 문제이다.

테제는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도시와 농촌 간,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로 제시하고 그의 중심적인 과업 방도를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이라고 규정하였다: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고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킬 수 없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엘 수 없다.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 이것은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이다.》(테제)

이것은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본질로 그 해결 방도에 대한 '가장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 해명이며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들어 가는 전 로정에 걸쳐 혁명을 계속할 데 대한 리론의 심오한 해명으로 된다.

테제는 또한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후 계속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들의 호상 련계를 밝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사상 혁명을 다른 혁명 과업들에 선행시켜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호상 관계와 그 발전 법칙의 과학적인 해명이며 사회 발전에서 선진적 사상이 노는 역할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다.

테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고 있다: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 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 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사상 혁명은 모든 사업에 선행시켜야 할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 과업이다.》

사상 혁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켜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은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의 성과적 수행에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상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면 착취의

근원을 없애 버리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도 튼튼히 축성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의식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가 완전히 건설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례를 들어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만 하여 놓고 기술도 발전시키지 않으며 조합원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사업도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사회주의적 경리로 될 수 없다.》(선집 제 4 권, 423 페지)

그러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착취의 근원을 청산하고 물질 기술적 토대를 닦을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가 낳은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도 씻어 버려야 한다.

사람들의 의식은 사회적 존재보다 뒤떨어지는 까닭에 농촌 경리 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 이후에도 농민들의 의식 속에는 봉건적, 자본주의적 낡은 사상 잔재들이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위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된다. 따라서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혁명의 전진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사상 혁명의 수행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며 이를 모든 사업에 선행시킴으로써만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 협동 경리 제도를 성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하에서도 계급 투쟁은 계속된다. 전복된 계급들의 음모와 낡은 사상 잔재가 존재하고 외부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 기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근로자들을 계급 의식, 공산주의 의식으로 부단히 무장시키지 않는다면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우리는 사상 혁명을 선행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케 함으로써만 그의 각 방면에 걸친 발전—기술적, 문화적 발전에 대하여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상 혁명을 선행시켜야 하는 것은 또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해서이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예 제도나 봉건 제도 하에서는 근로자들의 생산 활동이 채찍의 규률에 의하여 강요되였고 자본주의 하에서는 기아의 규률에 의하여 강요되였다. 그리고 이 사회들에서는 착취자들의 손에서 모든 생산은 순전히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서 진행되였다. 오직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로동이자 곧 사회를 위한 로동으로 되는 새로운 생산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였고 그리하여 자각적인 규률과 호상 협조적인 관계에서 일하게 되였다. 이것이 바로 이 제도가 과거의 그 어떠한 사회 제도도 달성하지 못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 속도와 높은 수준을 달성케 하는 이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이다.

우리는 사상 혁명을 적극 추진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제도의 요구에 상응하게 더욱더 자각적으로, 창조적으로, 호상 협조적으로 일하게 함으로써만 이 제도의 우월성을 성과 있게 발양시키며 이 제도를 공고 발전시킬 수 있다. 또 그래야만 기술 혁명, 문화 혁명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으며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만일 사상 혁명을 소홀히 하고 기술 혁명에만 힘을 돌리거나 이와 반대로 사상 혁명에만 치중하고 기술 혁명을 소홀히 한다면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성과적으로 높일 수 없으며 기술과 문화도 빨리 발전시킬 수 없고 따라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도 성과 있게 추진시킬 수 없다.

사상 혁명을 소홀히 하거나 사상 사업을 약화시킬 때에는 개인 리기주의, 자유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가 조장되

여 사람들이 안일 부화해지고 혁명을 포기하려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상 혁명은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며, 혁명의 승패와 관련되는 기본 문제이며, 혁명의 전도 문제와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적 경험은 사회주의 사상이 대중 속에 침투되고 그들의 의식을 파악했을 때에 얼마나 큰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농촌 사상 혁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켜 강력적으로 추진시켰기 때문에 농민들의 열성을 계속 높일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류례 없는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사상 혁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이에 병행하여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데 대한 당의 이 방침은 현실에서 그 정당성이 전면적으로 확증되였다.

테제에서는 농촌 사상 혁명이 가장 어려운 혁명 과업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변혁의 기본 과업 즉 지주나 자본가 등 착취자들을 타승하고 전복하는 과업은 폭력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수백만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개조하는 사상 혁명은 폭력이나 강제적인 방법으로 일조일석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오직 장기간에 걸친 교양 사업이 필요하며 또한 그 교양 사업에는 개별성, 구체성, 세밀성, 더 많은 인내성이 요구된다.

레닌은 농민들의 사상 의식 개조 사업의 간고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농민은 특별한 계급인 것이다…그들의 심리를 개조한다는 것은 급속하게는 되지 않으며 그것은 오랜 어려운 투쟁 과정을 거쳐야 한다.》(전집 제 29 권, 435~436 페지)

농촌 사상 혁명이 다른 혁명 과업들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농촌의 기술과 문화와 사상의 세기적인 락후성, 농민 구성의 복잡성, 농민들의 사회-경제적 환경, 생활 조건의 특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의 매개 계급들은 그들이 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그 생활 조건에 따라 각각 독특한 사상, 견해, 습관, 감정들을 형성하게 된다.

농민은 원시 공동체 사회가 붕괴되고 인류 사회에서 계급의 발생과 함께 나온 가부장제 시대의 계급으로서 노예 사회,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착취 사회의 온갖 낡은 유물을 물려받은 계급이며 세기적으로 착취와 압박, 무지와 몽매에서 시달려 온 계급이다.

소소유자로서의, 근로자로서의 농민은 수천 년 동안 조그마한 땅뙈기에서, 락후한 로동 도구를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부단한 몰락과 파산의 위협 속에서 자기의 지위를 고수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농민들의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처지는 리기주의, 소소유자적 근성, 동요성, 침체성과 보수성,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산생케 하였다.

오늘에도 농민들은 각지에 분산된 마을에서 살고 있으며 분산된 작업장에서 소집단으로 일하고 있다.

농촌이 처한 이 모든 조건들은 농민들 속에서의 사상 개조 사업을 도시와 공장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은 오랜 세기에 걸쳐 형성되고 유지되여 온 것으로서 그의 사회-력사적 근원이 매우 깊다. 장기간에 걸친 봉건 통치 계급의 혹심한 착취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적 략탈과 착취로 말미암아 우리 농촌의 락후성은 더욱

우심하였으며 우리 농민의 다수는 대규모적 혁명 투쟁에서 단련되지 못 하였다.

과거 착취 사회에서 물려 받은 이와 같은 농촌의 락후성은 우리 로동당 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퇴치되기 시작하였고 발전의 길로를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 하여 오늘 우리의 도시와 농촌 간에는 차이가 적지 않게 축소되였다. 그러나 농촌은 너무나 뒤떨어졌던 탓으로 하여, 또 우리 시대에 와서도 도시 공업에 우선적인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였던 일정한 불가피성으로 하여 아직도 도시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뒤떨어져 있고 본질적 차이가 있다.

공업에 비하여 농촌 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매우 약하며 생산의 사회화 정도도 낮으며 도시와 로동자구에 비하여 농촌 주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이 뒤떨어져 있으며 사상이 뒤떨어져 있다.

우리는 사상 혁명을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이에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옳게 배합함으로써만 농촌의 락후성을 성과적으로 퇴치해 나갈 수 있다.

* *

테제는 농촌 사상 혁명에서 달성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사상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 과업과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 투쟁과 사회 발전에서 사상 의식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에 시종일관 깊은 주목을 돌려 왔으며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 제기된 과업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사상 사업의 내용과 방침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철저히 집행하여 왔다.

당은 해방 직후에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을 전개하여 일제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애국주의 사상으로 농민들을 무장시켰다.

전후 농업 협동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당은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특히 농촌 경리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자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강력히 추진시켰다.

결과 농민들의 정치-도덕적 풍모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났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당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여 있으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위한 투쟁에 모든 정력과 재능을 바쳐 투쟁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 속에서는 공산주의적인 새로운 기풍이 더욱 발양되고 있으며 위대한 공산주의의 학교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급속히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농민들을 낡은 사상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적인 새 인간으로 개조하는 력사적 위업이 성과적으로 해결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지난 기간 농촌 사상 혁명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들은 공산주의 교양에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하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달성된 성과에 기초하여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선진적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로동자와 농민 간의 사상 의식 수준에서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할 력사적인 과업을 제시하였다.

농민들을 선진적인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테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증오하는 사상으로 교양하며, 착취

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상으로 교양하며,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계속 혁명의 사상으로, 그리고 혁명적 락관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계급 교양을 계속 철저히 진행하는 동시에 과학적 세계관 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산주의 교양의 목적은 사람들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한 열렬한 혁명 투사로,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는 데 있다.

혁명은 착취 계급을 전복 타승하는 가장 간고하고 결사적인 계급 투쟁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착취와 그 제도, 그 계급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도록 교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을 가질 수 없으며 원쑤들과의 판가리 싸움에서 용감성과 희생성, 창발성을 발휘할 수 없다. 사람들이 확고한 계급적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국내외 정세를 똑똑히 볼 수 없고 당 정책의 본질을 체득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제도의 우월성과 자본주의 제도의 반동성, 자기 투쟁의 목적과 의의를 잘 모를 수 있다. 따라서 혁명하는 사람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착취의 본질과 착취 사회 제도의 반동성을 똑똑히 깨닫으며, 계급적 관점에 철저히 서며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을 옳게 소유하는 것이다.

계급 교양 문제가 성과 있게 해결되어야만 농민들 속에서 집단주의 사상을 확립하는 문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확립하는 문제, 국가 사회 재산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확립하는 문제를 비롯한 공산주의 교양의 제 과업들을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급 교양은 공산주의 교양의 초석이며 기본이다.

농민들에 대한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현 시기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이 사업을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과 밀접히 배합시켜 그것이 과학적 세계관의 수준에까지 오르도록 하는 문제이다.

우리 농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주와 자본가 및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체험하였고 또 사회주의 제도 하의 보람찬 생활 속에서 부단히 계급 교양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계급적 사상 잔재들을 적지 않게 발로시키고 있는 것은 과거 낡은 사회에서 물며 받은 사상적 여독의 집요성과 더불어 교양 사업이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의 주입 문제를 잘 안받침하지 못 하고 진행된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한 계단 심화시키기 위하여서는 계급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 당 정책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킬 뿐만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기본 핵심은 계급 투쟁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의 관점과 립장,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 그리고 로동 계급의 리해 관계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급 교양 사업을 맑스-레닌주의 원리 및 그의 산 구현으로 되는 당의 전략 전술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그에 더욱 목적 지향성과 의식성을 부여할 수 있다.

계급 교양이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과 결합되고 과학적 세계관으로 안받침될 때에 그것은 참으로 확고한 것으로 될 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이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계속 강력하게 진행하여

온 토대가 있고 농민들의 정치 수준과 일반 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조건 하에서 이 문제는 가능한 문제이며 또 성숙된 문제이다.

다음으로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개인 리기주의와 소소유자적 근성을 청산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공산주의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 공산주의적 개조에서 커다란 장애로 되는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반대하는 문제이다.

……

…우리의 종국적 목적인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협동 경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인민적 소유에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사회의 이러한 개조 과정은 낡은 자본주의 사상 잔재인 리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다.

사회주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와의 투쟁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선집 제 6 권, 135 페지)

개인 리기주의는 지난 기간 농민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와 관련하여 뿌리가 깊고 집요하며 사회 생활에 미치는 범위와 후과가 매우 크다.

개인 리기주의는 우선 국가와 사회 재산에 대한 태도에서, 로동에 대한 태도에서, 국가적 의무에 대한 태도에서 불충실성으로 나타나며 또한 일부 일'군들의 출세주의, 공명주의, 허풍치기 등 낡은 사업 작풍에서와 부정적 현상들에 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이 없는 융화 묵과와 보신주의 등 생활의 넓은 범위에서 나타난다.

개인 리기주의를 그냥 남겨 두고서는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 집단주의 교양, 로동 애호 교양, 애국주의 교양을 비롯한 공산주의 사상의 주입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낡은 사상 잔재의 극복 문제는 새로운 사상의 주입과 아울러 공산주의 교양의 불가분의 구성 부분으로 된다.

개인 리기주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고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는 공산주의적 집단주의 원칙이 실현될 수 없다.

개인 리기주의는 농민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뿌리 깊은 고리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기 위한 투쟁에서 개인 리기주의를 가장 중요한 투쟁 대상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를 반대하는 교양과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농민들 속에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의 교양이 또한 중요하다.

《공산주의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 것이다.

로동을 싫어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될 수 없다》라고 김 일성 동지는 교시하였다.(《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로동은 사회의 물질 문화적 부를 창조하는 담보이다. 우리의 종국적 목적인 공산주의 사회도 오직 사람들의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다. 사람은 로동 과정에서 사회를 건설 변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변혁 개조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로동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집단주의 정신, 조직성과 규률성, 국가 사회 재산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비롯한 공산주의적 품성을 배양하며 유능하고 견실한 공산주의자로 육성된다.

로동과 교양은 불가분리적인 통일적 과정의 두 개 측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농민들이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며 로동에 더욱 적극하게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그들이 성

과적으로 자신들을 개조하도록 방조하여야 한다.

✻ ✻

우리에게는 농촌 사상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들이 있다: 지난 기간 공산주의 교양 사업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이 있고 농촌 사상 혁명 수행을 위한 당의 정확한 방침과 지도가 있으며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과 국가의 강력한 정치적 및 물질적 지원이 있다. 또한 우리 농민들의 높은 정치적 열성과 자신들을 새 인간으로 개조하려는 혁명적 의욕이 있다.

문제는 농촌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농촌 사상 혁명 수행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 있다.

농촌 사상 혁명을 성과 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사상 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 생산 현장을 거점으로 하는 군중 교양 사업은 당 사상 사업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훌륭히 구현된 것으로서 그 생활력이 전면적으로 발휘되고 있다.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생동하고 구체적인 교양적 표본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하는 산 방도와 깊은 감동을 주는, 군중 교양에서의 가장 효과적이고 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새것에 대한 민감성이 적은 농민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촌 사상 혁명에서 더 큰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긍정적 모범으로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 조직들과 사회 단체 조직들의 조직 지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긍정적 모범을 제때에 발견하고 지지해 주며 그를 적극 일반화하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매 사람들의 사상, 성격, 취미,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내성 있게 성심성의로 교양하는 것이 요구된다.

오래 동안에 걸쳐 형성되고 유지되여 온 사람들의 사상, 습관, 심리를 개조하는 사업은 복잡하고 간고한 사업이다. 여기에서는 진실성, 구체성, 체계성, 인내성이 더 많이 요구된다. 열 번 해서 안 되면 백 번, 백 번 해서 안 되면 천 번, 교양 개조될 때까지 해설과 설복을 계속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전 집단이 달라 붙어서 교양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호상 교양하며 조직과 집단이 사람을 교양하고 전 당이 달라 붙어 사람을 교양 개조하여 전체 농촌을 붉은 일색으로 꾸려야 한다.

생산 현장을 거점으로 하는 대중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양의 거점을 생산 현장으로 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은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적 실천과 유기적으로 통일시킬 데 대한 방침으로서 사상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는 생동한 모범이다. 이 방침은 또한 사상 교양, 기술 교양, 문화 교양, 사회의 관리 운영에 대한 교육의 통일을 체현한 것으로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다.

생산 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군중 교양을 진행할 데 대한 이 방침의 정당성과 위력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빛나게 발현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달성된 성과들에 기초하면서 이 운동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농민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

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농촌 당 조직들과 사회 단체 조직들은 생산 현장을 거점으로 하는 사상 사업에서 창조된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광범히 일반화하며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각종 교양망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학습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사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며 농민들의 자체 수양과 자체 학습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농촌 사상 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과 공업의 지원 방조 사업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테제는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 공업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웠다. 로동 계급과 공업의 지원을 계속 강화하여 농촌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와 문화 수준을 더욱 높이며 농민들의 로동 조건과 생활 조건을 로동자들의 조건에 더욱 접근시키는 것은 그들의 사상 의식 개조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농민들보다 혁명성도 강하고 기술 문화 수준도 높은, 로동 계급 기술자들이 농촌에 더 많이 나가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사상 혁명 수행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농촌 사상 혁명 수행에서 군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으로서의 군이 농촌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적 지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농촌 사상 혁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군급 기관들 특히 군당 위원회 앞에는, 농촌 사상 혁명 수행에 보다 깊은 주목을 돌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조직 지도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농촌 계급 진지와 초급 정치 일'군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 사상 혁명 과업 수행에 이악하게 달라붙어 농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의식 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농업 생산과 기술, 농촌 문화 혁명에서도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

김 송 기

김일성 동지가 제기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나라 혁명 실천에 기초하여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명백한 전망과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테제는 농촌에서 협동화 이후 혁명을 계속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의 해결을 위한 제 원칙들을 과학 리론적으로 천명하였다.

테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의 하나는 문화 혁명에 관한 문제이다.

테제에서는 농촌의 문화적 락후성을 퇴치하며 이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앨 것을 문화 혁명 앞에 제기하고 있다.

문화 령역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접근시키며 점차 없애는 것은 농촌에서 문화적 대립이 청산된 조건에서, 사회주의적 문화의 기초가 마련된 조건에서 진행되는 문화 혁명의 내용이다.

테제에서는 금후 진행되는 농촌 문화 혁명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였다:

《농촌 문화 혁명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 기술 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락후한 생활 양식과 인습을 청산하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이것은 농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문화를 건설하며, 농촌 주민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형성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문화 혁명은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후 전면적으로 제기된다.

레닌은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후 농촌 문제 해결에서 문화 혁명이 중심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전에는 우리가 중심을 정치적 투쟁에, 혁명에, 정권 쟁취 등등에 두었었고 또 두지 않을 수 없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지금은 중심이 바뀌여 평화적, 조직적 〈문화적〉인 사업에로 넘어 가게 되였다. 만일 국제적 관계를 도외시한다면, 국제적 규모에서 우리들의 진지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할 의무를 도외시한다면 중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문화 사업에로 넘어 가야 한다고 나는 감히 말할 것이다. 만일 이것을 젖혀 놓고 국내 경제 관계에만 국한한다면 이제 우리들의 사업 중심은 사실 문화 사업에 귀착되는 것이다.》(전집 제 33 권, 592 페지)

농촌 문제 해결의 전반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정치 투쟁이다. 협동화 전에는 문화 혁명이 농촌 문제에서 전면에 제기될 수 없다.

또 문화 혁명은 생산 방식에 의존되니 만큼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일정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마련된 조건에서만 성과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여기로부터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협동화가 끝났고 또 자립적 경제 토대가 마련된 조건에서 문화 혁명을 농촌 문제 해결의 중심 과업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테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이것은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이다.》

협동화 후 전면적으로 전개되는 문화 혁명의 과업은 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한 투쟁이다. 협동화 후 지속되는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테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낡은 사회의 유물이며 사회주의하에서 그것이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은 공업 및 도시의 발전 수준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계급 사회에서는 농촌은 정치,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도시에 예속된다. 그리 하여 농촌은 문화적으로 락후하게 되며 농촌 주민들은 몽매하게 된다.

해방 전 우리 나라 농민은 실로 현대 문화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 하고 살았다. 농촌 주민들은 《촌바우》라는 별명으로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다.

우리 당은 해방 후 농촌 문화 혁명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착취 계급이 독점하고 있던 문화적 재부를 인민의 소유로 만들었으며 문화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지배를 확립하였다. 또한 농민들을 무지와 문맹으로부터 해방하며 낡은 생활 인습과 생활 양식을 극복하는 계몽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결과 우리 나라 농촌에서 문화적 대렵이 청산되고 낡은 사회의 유물이 적지 않게 청산되였다.

그러나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은 장기간의 투쟁을 요구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농업의 발전이 공업의 발전 보다 뒤떨어진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협동화 후 문화 혁명 앞에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 락후성을 극복하는 투쟁이다.

농촌의 문화적 락후성을 극복하는 투쟁은 협동화 후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며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농촌 문제는 테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앰으로써 해결된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차이의 하나는 바로 문화적 수준의 락후성이다.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면 문화 령역에서도 농촌 주민들이 도시 주민들과 같은 정도와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되여야 한다.

그것은 테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그들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더욱더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농촌의 문화적 락후성을 퇴치하며 이 부문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소멸하는 문제는 협동화 후 농민들을 부단히 혁명에로 불러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농민들이 현대 문명을 향유하며 위생 문화적으로 생활하는 문제는 그들의 세기적인 숙망이다. 더우기 협동화 후 농업 생산이 급속히 발전되고 수입이 제고됨에 따라 문화적 수요는 더욱더 제고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 주민들은 더욱더 문화 위생적인 생활을

요구하며 더 좋고 더 많은 문화 용품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높은 정신 문화를 향유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적 요구는 문화 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문화 혁명은 또한 협동화 후 농촌 문제의 종국적 해결에서 기본 과업들로 제기되고 있는 사상,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의 인식 교양적 역할은 그것이 사람들의 지(智), 덕(德), 체(体)를 겸비하는 데 복무함으로써 결국 농촌의 기술, 사상 혁명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문화 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농촌의 기술 혁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수 없다.

협동화 후 농촌 건설에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문화 혁명을 통하여 농민 대중에게 일반 및 기술 지식을 습득시키며 과학적인 영농 체계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술 혁명은 문화 혁명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문화 혁명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때에야만 기술 혁명도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개변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육성함에 있어서도 문화 혁명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농민 대중의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고 공산주의적인 새 인간을 형성하려면 사회 및 자연 전반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과 교양이 요구된다.

이것은 문화의 교양 수단들인 학교, 출판물, 문학 예술 등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더욱더 문화적 수단들에 의거하게 된다.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후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며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출판물을 비롯한 문화 수단들을 보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문화 혁명은 농촌의 사상 혁명, 기술 혁명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테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 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 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 혁명은 사상 혁명, 기술 혁명과 함께 협동화 후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며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 *

금번 테제에서는 농촌 문화 혁명의 금후 과업과 그 수행 방도에 있어서도 지난 기간 달성한 성과들과 경험들에 기초하여 일련의 중요한 결론들을 주고 있다.

문화 혁명 앞에 나선 과업들의 일관된 사상은 그것이 금후 농촌 경리 발전의 추동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접근시키기 위한 과업으로서 되고 있다.

테제에서는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한 계단 높이고 이 면에서 로동 계급과의 차이를 접근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기하고 있다.

농촌 문화 혁명의 기본 과업으로서 우선 농민들의 일반 지식과 기술 수준을 높일 것을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테제에서는 우리가 지난 기간 해 온 토대에 기초하여 농촌의 당면 문제와 전망을 예견하는 과학적인 과업을 내놓았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 주민들의 일반 지식과 기술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농촌에 진출한 새 세내들은

모두가 7 년제의 의무 교육을 받았으며 또 적지 않은 청년들이 기술 학교들도 다녔다. 성인들도 모두 근로자 학교, 근로자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러한 데 기초하여 테제에서는 후대들에게 전반적으로 기술 교육을 줄 것을 계획하고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에 9~10 년제 기술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 하도록 하여야 한다.》

9~10 년제의 교육을 받게 되면 모든 청년들이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능히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지식에 기초하여 장차는 모두가 기수, 기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테제에서는 성인들에 대한 일반 지식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농촌에는 성인들이 적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일반 지식, 기술 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는 문제는 당면한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테제에서는 성인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전체 농민들의 수준을 초급 중학교 이상의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농민 대중은 모두가 다 당면한 기술 혁명의 역군으로서 충분히 복무할 수 있을 것이다.

테제에서는 기본 생산자인 농민 대중의 일반 및 기술 수준을 높여 주는 대책과 함께 현대 과학 기술을 소유한 기사, 전문가들을 대량 양성하여 농촌에 파견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농촌에는 당의 현명한 교육 정책으로 하여 농촌에 기술 간부들이 상당한 정도로 들어 갔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는 아직 기술 혁명의 요구에 비하여 해당 부문의 기술자도 적으며 기계, 전기 등 여러 부문의 기술자는 더욱 적다.

당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수년 내에 매개 협동 농장에 5 명 이상의 기사, 매개 작업반에 2 명의 기수 또는 기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과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의 농민들은 기술 문화 수준에서 멀지 않아 로동 계급의 수준에 현저히 접근될 것이며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훌륭히 준비될 것이다.

문화 혁명 과업으로서 제기된 다른 하나는 우리 나라 농촌을 보다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적 문화 농촌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농업 협동화가 실현된 후 우리 농민들의 문화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났다. 매개 농촌 리에 진료소가 설치되고 농민들에게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무상 치료제가 실시되고 있다. 농촌에서 각종 토질병과 전염병들은 이미 퇴치되였다. 모든 농촌 리에서 공동 비용으로 탁아소, 유치원이 설치되여 운영되고 있다. 농촌에 수 많은 문화 주택들과 문화 시설들이 건설되었다. 각종 출판물들이 농촌에 배포되며 광범한 농민들이 군중적 문예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과거에 침체하고 불결하던 우리 농촌이 오늘은 활기 있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새 농촌으로 꾸려지고 있다.

그러나 농촌 주민들의 생활은 아직도 도시 로동자들의 생활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는 면이 많다. 우선 도시에 비하여 농민들에 대한 봉사 시설이 잘 마련되여 있지 못하며 기타 생활 조건에서도 불리한 것이 해결 못 되고 있다.

테제에서는 농촌의 생활 조건을 더욱 개선하며 그들로 하여금 문화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접근시키고 점차없애는 방향에서 문화 건설의 과업을 내놓고 있다.

테제에서는 농촌 진료소들을 완비하

며 농민들에 대한 의료 봉사를 개선할 것을 제기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을 강력히 전개하여 전체 농민이 문화 주택에서 살도록 하며 농촌에 각종 문화 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 줄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테제에서는 농촌에 출판물을 더 많이 배포 공급하며 모든 농촌에 구락부를 건설하고 농민들 속에서 군중 문화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리하여 농촌에서 문화 생활 즉 교육, 보건, 주택 조건, 문화 후생 시설 기타 문화 생활 조건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더욱더 축소시키고 점차 없앨 것을 예견하고 있다.

특히 테제에서는 녀성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돌려지고 있다. 테제는 녀성들의 로동 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이 사회적 로동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지어 주며 녀성들에게 로력 보수를 주면서 산전, 산후 휴가를 완전히 보장하도록 하여 주며, 녀성들이 마음 놓고 생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을 훌륭히 양육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오래 동안 내려 오던 낡은 사회의 가정적인 구속과 인습을 종국적으로 뿌리 뽑아 버리는 중요한 대책이다.

금번 테제에서는 문화 혁명에 대한 과업들을 수행하는 방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내놓았다.

테제는 농촌 문제 해결에서 다른 부문들과 함께 농촌 문화 건설에서도 국가와 로동 계급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 농촌 문화 혁명이 그렇게 빨리 추진될 수 있은 것은 국가와 로동 계급의 꾸준한 지원의 결과이다.

테제에서는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앞으로 문화 주택, 후생 시설들을 비롯한 농촌 문화 건설을 국가적 자금으로 직접 건설하여 주며 교육, 문화, 보건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농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고 농촌의 문화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로동 계급이 농민을 지원하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농촌 문화 혁명도 농촌의 다른 문제의 해결과 마찬가지로 오직 로동 계급의 령도와 방조 하에서만 성과 있게 수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문화 혁명에 있어서도 낡은 사회의 잔재인 농촌을 착취하여 도시 문화를 건설하던 그런 사상으로부터 해방되여 농촌 문화 혁명에 대한 옳은 립장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촌 문화 혁명과 관계되는 부문: 교육, 문화, 보건, 과학 일'군들이 농촌 문화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당의 립장에 정확히 설 때 농촌 문화 혁명은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테제에서는 또한 농촌 문화 혁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도로서 군을 거점으로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농촌 문화 혁명에서 거점을 설정하는 문제는 실천적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 문화 혁명은 기술 문화 수준의 락후성, 농민 구성의 복잡성, 자연 계절적 제약성, 분산성 등으로 하여 매우 어렵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일정한 지방마다 지역적으로 통일성을 보장하는 거점을 창설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조치이다.

당은 지난 기간의 농촌 혁명 수행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군을 정치적, 경제적 거점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문

화 혁명의 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군이 문화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테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군 소재지에는 학교, 병원, 영화관, 서점, 도서관 등 각종 문화 후생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군 소재지와 군내 농촌 주민들을 위하여 복무한다. 군은 농촌 학교, 진료소들을 직접 관리하며 군내 농촌의 전반적 문화 위생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농촌의 당 간부들과 관리 기술 간부들도 주로는 군 교육 기관들을 통하여 양성된다. 농촌 주택들과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 사업은 군에 소속된 농촌 건설대에 의하여 진행된다.》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 군의 역할을 높이려면 군 인민 위원회의 문화 교양자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 사실 오늘 우리 군 인민 위원회의 기능의 주되는 하나가 문화 교양적 기능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 인민 위원회는 군내 문화 교양 수단들을 효과 있게 조직 동원하여 농촌 문화 혁명의 성과적 수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군의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를 잘 꾸리는 것이다. 농촌에서 문화의 보급은 학교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군이 농촌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군당 위원회와 군내 해당 기관의 당 조직들이 이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군당 위원회는 군의 참모부로서 응당 문화 혁명에 대한 키잡이의 역할을 잘 하여야 한다. 군당은 농촌 당 단체들의 문화 혁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수시로 검열 통제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험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도 진행해야 한다.

농촌 당 조직들은 문화 혁명 수행에서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여야 하며, 민청, 녀맹 등 근로 단체들을 조직 동원하여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다.

* *

테제에서 천명한 농촌 문제 해결의 다른 조치와 함께 농촌 문화 혁명에 대한 방도들은 우리들을 무한히 새로운 투쟁에로 고무한다.

멀지 않은 미래의 우리 나라 농촌은 옛 전설에 나오는 무릉 도원에 못지 않게 문화 농촌으로 전변될 것이다. 사람들은 문명해지고 생활은 문화적으로 될 것이다. 현대적인 문명이 농촌에 보급될 것이고 농민 대중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마음껏 향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 하여 우리 나라 농촌은 락후한 처지로부터 영원히 벗어 날 뿐만 아니라 도시와 같은 수준에, 농민은 로동 계급과 같은 처지에 도달할 것이며, 로동 계급과 같이 공산주의 문어구에 도달할 것이다.

사회주의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

박 병 묵

우리 당은 사회주의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실현하는 데서 거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

김 일성 동지의 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그 성과와 경험이 과학적으로 일반화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의 테제를 심오히 연구하기 위하여 또한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지원에 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창조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로동 계급이 자기의 동맹자인 농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립장을 취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 당은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에는 국가가 농촌 사업과 농민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립장을 취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책임지며 전 인민적 소유의 발전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책임 진다. 개인 농민 경리 때에는 주로 매개 농민이 자기의 경리와 생활에 대하여 책임을 졌지만 협동화된 후에는 당과 국가가 협동 농장들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 지고 돌보아야 한다.》(테제)

김 일성 동지의 이 명제는 우선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과 그 수행 과정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공업과 농업을 모두 국가 계획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리로 전변시켰으며 로동 계급과 농민을 다 착취에서 해방된 사회주의 근로자로 전환시켰다.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로 말미암아 공업과 농업, 로동 계급과 농민은 공동의 목적과 지향으로 결합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은 이들 간의 차이를 제거하지 못 하였으며 또 제거할 수도 없었다.

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농업은 소유의 사회화 수준에서, 경리의 기술적 장비에서 공업에 뒤떨어져 있으며 농민은 사상 의식에서, 문화 기술 수준에서 로동 계급에 뒤떨어져 있다.

그런데 로동 계급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농업 생산력과 농업 생산 관계 분야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사회 생활과 문화 생활 분야에 남아 있는 차이들을 소멸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이 력사적 사명의 실현을 위하여 로동 계급이 농민을, 공업이 농업을, 도시가 농촌을 더욱 강력히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을 산생시켰다.

농촌 지원의 필요성은 더우기 사회주의 하에서 이 차이가 저절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만약 동지적 협조 관계에 있는 로동 계급이 농민을 돕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으로 하여 자체의 힘 만으로는 낡은 사회에서 물려 받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지도적 인민 경제 부문인 공업이 농업을 돕지 않는다면 농업은, 공업에 비할 때 아직 미숙한 생산 관계와 락후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정으로부터 자체의 힘 만으로 로동 생산 능률과 기술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간격은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로동 계급 측으로 부터의 농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될수록 이 량자 간의 공통점은 그 만큼 급속히 확대될 것이며 그 차이의 소멸은 그 만큼 빨리 앞당겨 질 것이다.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이것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생산 방식의 발생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농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완전히 책임 지는 우리 당의 태도와 립장은 또한 모든 사업을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적극성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본질적 요구로부터 흘러 나온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모든 사업에서 고도의 열성과 적극성을 발휘한다는 데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열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승리하였고 또 승리하고 있다.

그런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로 말미암아 농민도 로동 계급과 같은 사회주의 근로자로 진출된 오늘 국가가 만약 농민을 차별 대우한다면 그들은 사업에서 창조적 열의와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은 명백한 일이다.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에 농촌 문제를 완전히 책임 지는 태도는 또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 군중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사람에 대한 배려는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이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들, 모든 시책들은 이를 떠나서는 리해할 수 없다.

농업 협동화와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우리 농촌의 면모는 개변되였고 농민들의 생활은 급속히 향상되였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농민들의 생활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의 생활 수준은 높지 못 하며 과거에 우리 농촌이 너무나 락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도시와 농촌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자기의 력사적 임무로 하고 있는 우리 당은 이러한 차이를 남겨 둘 수 없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이러한 처지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

농촌 문제를 중요시하며 농촌 사업, 농민 생활을 완전히 책임 지는 우리 당의 태도와 립장은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특수적으로는 국가적 지원을 실현하는

데서 그 출발점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농촌 문제를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들 속에 남아 있는 그릇된 사상—농촌을 홀시하고 도시만 꾸리려는 나쁜 사상을 결정적으로 배격하였다.

물론 과거에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기간까지 일정한 자금이 농촌에서 흘러 들어 와야 한다.

왜냐 하면 미약한 공업 부문에서의 축적만 가지고서는 공업화를 빨리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가 축성된 다음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 데로 방향을 돌리여야 한다.

우리 당은 농촌 문제를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농촌 지원의 형태와 방법들을 찾았고 또 그 립장에 서서 농촌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 　　*

우리 당은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각 방면에서 농촌 지원을 진행하였다.

우선 우리 당은 방대한 규모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농촌에 주었다.

협동화 운동의 초기부터 협동 경리에 큰 투자를 실시하여 온 우리 당은 나라의 경제적 위력이 강화됨에 따라 농촌에 대한 투자를 결정적으로 증대시켰다.

례컨대 생산적 건설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에서 농촌 경리에 대한 투자는 1954~1956년의 3 년 간에는 평균 12.6%였는데 1963년에 와서 그것은 19%로 장성되였다.

농촌 경리에 복무하는 중공업 부문이 급격히 발전하여 그 생산 구조가 다양해지고 그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당은 농촌에 대한 물질 기술적 지원의 현물적 구성을 변경시켰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증가시켰다.

최근 4~5 년 간에 국가는 약 1만 대의 뜨락또르와 많은 각종 련결 농기계들을 농촌에 보냈다.

지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1만 8,000 대(15 마력으로 환산)의 뜨락또르가 전야 작업에 참가하고 있고 경지 100 정보 당 뜨락또르 대수는 0.9 대에 달하고 있다.

국가는 또한 화학 비료, 농약, 살초제 등 화학 제품의 공급량을 급속히 증대시켰으며 그 품종 구성을 변경시켰다.

공업화의 기초 축성 단계에 있어서 물질 기술적 지원의 현물 구성은 주로 관개 수리 시설, 각종 중 소 농기계, 화학 비료 기타 영농 자재들이였는데 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축성된 후에는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 농기계들, 다양한 화학 비료들과 각종 농약들로 그 구성이 변화되였다.

우리 당과 국가는 농촌에 방대한 로력적 지원도 주었다.

국가는 농촌 로력을 고착시켰으며 공업 부문에서 기술 혁명의 촉진에 의하여 나오는 로력 예비를 동원하여 농촌에 파견하였고 매 영농 시기마다 전 인민적인 로력적 지원을 주었다.

국가의 재정적, 기술적, 물질적, 로력적 방조에 의하여 방대한 관개 공사들과 치산 치수 사업들이 진행되고 농촌 경리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촉진되였으며 농촌 문화 건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당과 국가는 또한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막대한 방조를 주었다.

당은 로동자, 농민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침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에 농업을 따라 세우게 하는 한편 농업 부문에서의 국민 소득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각 방면에 걸쳐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될수록 더 많은 분배 몫이 농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였다.

당과 국가는 농업 현물세률을 계통적으로 인하하고 그를 면제하며 식량, 종곡, 영농 자금을 대부하고 그 상환을 면제하며 농산물 수매 가격을 조절하고 관개 사용료, 농기계 작업료와 농기구의 가격을 낮추며 농촌 어린이들에게 의복을 무료로 공급하는 등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주었다.

또한 당은 국가 부담으로 수 많은 농촌 문화 주택을 건설하여 주었으며 교육, 문화 후생 시설들의 건설을 적극 방조하여 줌으로써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농촌에 막대한 물질 기술적, 로력적 및 재정적 지원을 주면서 이에 정치 사상적 지도를 선행시켰다.

당은 농촌 핵심을 고착시키는 한편 도시에서 우수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을 뽑아서 농촌에 보냈다.

이것은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로력적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적 지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일환이였다.

우리 당은 농촌 지원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의거하면서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적합하게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실현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에 의하여 실시된 농촌 지원에서는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농촌 지원이 전면적이였다는 것이다.

국가적 지원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자는 데 있다.

우리 당은 로동 계급의 이 력사적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전면적인 지원을 주었다.

우리 당은 또한 농촌에 대한 이러한 지원에 의거하여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호상 밀접히 결부하여 통일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전면적으로 추진시켰다.

농촌에서의 세 혁명을 통일적으로 실현하면서 우리 당은 사상 혁명을 다른 두 혁명에 선행시켰다. 그것은 사회주의 농촌에서도 계급 투쟁이 계속된다는 사정과 함께 사상 혁명의 전개가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제고시켜 그들의 높은 열성과 적극성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협동화가 실현되자 즉시 농촌 기술 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당은 농촌 기술 혁명의 기본 과업—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및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촉진하면서 수리화를 이에 앞세웠다.

기술 혁명의 기본 과업 해결에서의 이러한 순차는 우리 농업에서 기본이는 농사이고 강우량의 시기 별 편차가 심하며 농업의 집약화 수준이 높다는 사정에 기초하고 있다.

농촌에서의 사상 혁명, 기술 혁명은 그것이 농민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문화 기술 수준의 제고를 요구한다는 사정으로 하여 문화 혁명의 수행과 동반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하나의 통일적 과정으로 추진시키면서 사상 혁명을 선행시

켰다.

이것은 협동화가 완성된 후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경험이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실천을 통한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기술 혁명만 강조하고 사상 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엄중한 착오이며 사상 혁명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등한히 하는 것도 역시 잘못이라고 확신한다.

다음으로 농촌 지원에서의 특성은 그것이 농업 생산의 실정과 농민들의 요구에 맞게 실시된 것이다.

지원이라 하여 시기 및 지대에 대한 심중한 고려 없이 또 수요에 따르는 선후차를 가리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 그것은 응분의 효과를 거두지 못 한다.

우리 당은 농촌 지원에서 시기 별, 지대 별로 심중히 따지고 수요와 선후차를 잘 가림으로써 항상 농민들의 요구와 농업 생산의 실정에 맞게 그것을 실시하였다. 례컨대 우리 당은 평지대에는 뜨락또르, 자동차를 보다 많이 보냈고 산지대에는 중 소 농기계들을 더 많이 공급하였으며, 지대에 따라 관개 사용료, 농기계 작업료에서 차이를 두었고 또 현물세, 수매 가격 등으로 소득을 적절히 조절하였다.

또한 그 특성은 농촌 지원이 주로 상품 류통 체계나 기타 간접적인 길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실현된 그것이다.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들의 강화(례컨대 최근 4~5년 간에 농기계 작업소가 70개나 증설되였다), 중요 고정 생산 수단들과 많은 소비재들의 무상 공급, 국가 부담에 의한 농촌 기본 건설의 실시와 농촌 문화 주택의 건설,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과 그의 기업적 지도, 군당 위원회 및 군 인민 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을 통하여 지금 농촌 지원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농촌 지원은 농업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놀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역할과 의의가 더욱더 제고될 것이다.

우리 당은 협동화를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농촌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지원의 효과성을 결정적으로 제고시켰다.

❀ ❀

모든 사업이 그러한 바와 같이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도도 일정한 체계 속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된다.

만약 그 체계가 제반 조건에 잘 부합되지 않게 설정되였거나 불합리한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응당한 효과를 거두지 못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우리 당은 농촌 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 지는 립장을 체현하였고 국가가 주는 지원을 몽땅 농촌에 들어 박히게 하는 그러한 체계와 방법을 탐구해 냈다.

우리 당은 우선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 특히는 기업적 지도를 실시하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우리 당은 협동화가 완성된 첫날부터 농촌에서의 국가적 관리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1960년 2월에 있은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 지도 행정에서는 사회주의 경리를 지도하는 새로운 체계와 방법이 창조되였다.

이 과정에서 창조된 지도 방법, 청산리 방법은 사회주의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 요구—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는 요구를 체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리 방법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국가의 지원, 농민들의 힘을 농업 생산의 장성을 위하여 성과 있게 결합시킬 수 있었다.

우리 당은 1962년 초에 기업적 방법에 의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새로 조성된 현실적 조건에 적응하게 청산리 방법을 구현한 것이며 연장한 것이다.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에 대한 지도의 기능과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의 기능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적인 국가 농업 지도 기관이다.

경영 위원회는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공업과 농업 간의 생산적 련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생활은 경영 위원회가 국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며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훌륭한 농업 지도 형태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우리는 오직 경영 위원회 류형의 국가 농업 지도 기관만이 사회주의 협동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농업 생산을 급속히 앙양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만일 공업과 농업 간의 생산적 련계를 상업적 형식에만 국한시키거나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며 두 소유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저해하고 협동 경리의 산만성을 조장하며 불가피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서 난관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당은 군을 국가적 지도와 방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 지도의 단위로 선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지역내 모든 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군을 그러한 지역적 단위로, 해당 지역 내의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거점으로 설정하였다.

군을 국가적 지도의 지역적 단위로, 지도의 거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우리 나라 자연 지리적 조건에서 뿐만 아니라 물질 기술적 준비, 간부들의 수준에 완전히 부합되는 조치이다.

우리 나라에서 매개 군의 규모는 거의 류사하며 군 범위 내에서의 자연 지리적 조건은 대체로 균일하다. 우리 군들에서 농업 생산 규모는 경지 면적에서 대체로 1만 정보 내외이며 매개 시, 군에는 평균 10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있다. 그리고 군에는 기술 간부들과 관리 간부들이 적지 않게 있으며 농촌 경리에 봉사하는 국가 기업소들과 학교, 병원, 영화관 등 문화 혁명의 수단들이 구비되여 있다.

거점 설정의 정당성은 또한 공산주의하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의 거점이 필요하며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국가적 지도의 거점으로서의 군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거대한 역할을 담당 수행하고 있다. 오늘 군은 농촌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수행을 촉진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성과 있게 실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농촌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 지는 립장에 서서 우리 나라의 조건에 적합한 지원의 제 형식들을 찾았다.

이것들은 국가적 지원의 효과성을 높임에 있어서나 농업 생산의 장성을 촉진함에 있어서 커다란 추동적 역할을 놀았다.

우리 당은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태도에 관한 문제, 국가적 지원의 실현을 위한 체계와 방법에 관한 문제, 거점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청산할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가일층 완성하였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앨 필요성과 그의 기본 방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이 농민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어디를 거점으로 하여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완전히 책임 지는 립장으로부터 협동 경리의 창설 시기만 아니라 공고 발전의 전 시기에 걸쳐 전면적인 지원을 주었으며 군을 거점으로, 전문적인 국가 농업 지도 기관인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통한 직접적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위한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서 맑스-레닌주의 보물고를 풍부화시킨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협동화가 끝난 후 농업 생산은 해마다 장성하였다. 알곡 생산 수준만 보아도 협동화 전보다 지금은 70~80%나 더 높아졌다.

농업 생산의 장성과 함께 농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문화 수준이 높아졌다.

농촌 진지도 튼튼히 꾸며지고 농촌의 면모도 전혀 달라졌다.

한 마디로 말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촌 사업은 잘 되고 있으며 농촌 경리는 확고하게 발전하고 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변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제는 그에 대하여 긴 설명이 필요 없게 되였다.

농촌 문제를 완전히 책임 지는 우리 당의 립장, 그로부터 출발한 국가의 막대한 지원,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영웅적 투쟁—이것이 우리에게 전변을 가져다 주었다.

농촌 문제의 해결과 공업, 농업 간의 균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윤 편 성

김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들과 그 실현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였다.

테제에 제시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기본 원칙들과 과업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동시에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 전체 과정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테제에서 김일성 동지는 로동 계급의 동맹자인 농민들을 모든 면에서 로동 계급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며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원칙들과 구체적 방도들을 제시하였는바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 동력을 반석 같이 꾸리며 나라의 전반적 생산력 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함에 있어서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것들이다.

특히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 즉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수행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농업에 대한 공업의 전면적 지원을 강화하며,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할 데 대한 문제들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담보로 된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문제는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에 농촌 경리를 따라 세우게 하기 위한 결정적 대책으로 된다. 또한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강화하며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할 데 대한 문제들은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며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테제에 제시된 농업 생산력 발전과 관련된 일련의 명제들은 바로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 경리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은 무엇이며,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며, 어떤 형식, 어떤 방법으로 공업, 농업 간의 련계를 보장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준것으로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공업과 농업의 균형에 관한 문제는 테제에 제시된 중요한 사상의 하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테제에 제시된 사회주의 하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균형에 관한 문제를 옳게 리해하는 것은 테제에 담긴 심오한 명제들과 사상을 철저히 파악하며 그것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김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의 수행 원칙을 전면적으로 명시하면서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급속히 확대 발전하는 공업의 수준에로 부단히 접근시킬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공업과 농업의 균형을 보장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고 농업에 대한 그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다른 편으로는 농업을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에 부단히 따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에 선진적인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 강화하여야 하며 공업에 농업을 따라 세우기 위해서는 공업의 발전에 의거하면서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결정적 수단으로 되며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기 위한 결정적 대책으로 된다.

그런데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그것은 공업에 비하여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심히 뒤떨어져 있다는 사정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은 매개 나라의 구체적 자연 지리 조건과 영농 체계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사정과도 중요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은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목을 돌려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로 된다.

테제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의 기본 내용과 그의 수행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테제는 사회주의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의 기본 과업은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규정하였으며 이 과업들은 공업의 발전 정도와 농촌 경리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호상 결합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공업의 발전 정도와 농촌의 구체적 형편에 따라 선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참말로 튼튼히 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 기술 혁명의 네 가지 기본 과업—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여야 한다.》(테제)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이란 결국 농촌 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 과학의 성과를 광범히 도입함으로써 농업 생산을 기후 변동이나 기타 우연적 요인에서 해방시키며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 만큼 그것은 어느 일면에 치우쳐도 안 된다.

기계화, 전기화에만 치우치고 수리화, 화학화를 소홀히 한다면 농업 생산을 기후 변동이나 자연 재해에서 해방할 수 없고 수확고를 부단히 높일 수 없으며 또한 수리화, 화학화에만 힘을 넣고 기계화, 전기화를 하지 않는다면 농업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없고 농민들의 고된 로동을 덜어 줄 수 없다.

유일하게 정당한 것은 이 네 가지 과업들을 통일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농업에서의 기술 혁명의 과업은 농촌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실현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는 공업의 발전 수준에 상응하게 그 선후차와 호상 관계가 규정되여야 한다.

그것은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위한 모든 수단들이 공업에 의하여 제공되며 공업의 자립적 토대의 축성 정도와 그 발전 수준에 결정적으로 의존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공업을 발전시키며 특히 자립적 중공업 토대를 축성함에 있어서 항상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에 복무할 수 있는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심중한 주목을 돌리는 한

편 공업의 발전 성과에 튼튼히 의거하여 농촌 기술 혁명을 실천하여 나가는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협동화를 실현하면서 곧 농촌 기술 혁명의 이 네 가지 과업을 제기하고 우리 나라의 자연 지리적 조건과 영농 체계에 적합하게 특히는 우리 공업의 발전 수준에 상응하게 그것들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왔다.

당은 아직 공업화의 토대가 축성되지 못 하였던 조건에서 진행된 농촌 기술 혁명의 첫 시기에는 우리 나라에서 논 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해마다 한재와 수재가 있다는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리화를 농촌 기술 혁명의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왔으며 그에 결합시켜 전기화를 강력히 추진시켰다. 이와 함께 중 소 농기계, 축력 농기계, 화학 비료 등의 공급량을 증대시킴으로써 당시에 이미 도달된 공업 발전 수준에 적합하게 기계화, 화학화도 추진하여 나갔다.

그러나 자립적 공업 토대가 축성되고 공업이 농업에 필요한 현대적 기술 수단과 영농 자재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은 현대적 과학 기술 수단에 의거하는 기계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추진시켰으며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된 수리화와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화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에 복무하는 공업 부문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한 농촌 기술 혁명의 전면적 추진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급속히 강화하였으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이미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수리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전체 농촌 리의 93.3%, 전체 농가의 71%에 전기가 들어 갔으며 작년말 현재 경지 100 정보 당 뜨락또르 대수는 0.9 대 (15 마력 환산), 경지 정보당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300 키로 그람에 달하였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이와 같은 급격한 발전은 영농 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 방침—집약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게하였으며 알곡을 위주로 하는 농촌 경리의 다각적 발전을 촉진시켰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한 농업 생산의 부단한 장성은 전후 시기 아주 높은 속도로 공업이 발전하는 조건에서도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테제에서는 앞으로 사회주의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초하여 농촌 경리에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완성할 명백한 전망과 과업들이 규정되고 있다.

당은 앞으로도 계속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적응하게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 것이다.

* *

테제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김 일성 동지는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성과 그의 원칙들을 명시하면서 특히 공업의 농업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해결할 데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를 옳게 설정하는 것은 매 시기 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 앞에 제기되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공업, 농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확고히 보장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업과 농업은 호상 제약되는 인민 경제의 2 대 부문이다. 공업은 농업에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공급해 주며 농

업은 공업 발전에 필요한 식량과 원료를 제공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을 옳게 련결시킴으로써만 농업 뿐만 아니라 공업 자체도 성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공업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농촌 경리가 공업 발전을 따라 가지 못한다면 공업도 한자리에서 답보하게 될 것이며 자기의 지도적 역할도 옳게 할 수 없다… 공업 발전에 적응하게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며 공업과 농업을 유기적으로 옳게 련결시켜야만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선집 제 5 권, 1 페지)

공업과 농업 간의 관계는 사회주의 건설의 매 시기 당 앞에 나서는 긴절한 과업과 공업 및 농업의 발전 수준에 의하여 서로 다른 일련의 특징들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공업과 농업의 호상 관계에서 공업이 항상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의 발전 수준이 낮을 때에는 농업에 대한 그의 지도적 역할에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 때에는 공업 발전에 있어서 농업이 노는 역할도 다른 것이다.

공업의 토대가 없는 락후한 농업 국가들에서의 첫 시기 공업과 농업 간의 관계는 농업이 공업의 식량 원료 기지로서의 역할을 벗어 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으로써 특징지을 수 있다. 이때의 농업은 공업 발전을 위한 식량 원료 기지일 뿐만 아니라 자금 원천지로도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전 사회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 자체를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가 축성된 조건에서는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단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를 축성한 다음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 데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 때부터는 농촌을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상력히 지원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의 이 명제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이후 로동 계급과 그 당이 자기의 동맹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해답으로 되는 동시에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가 축성된 후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명백히 하여 준다.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 데로 방향을 돌리는 것은 공업에 비한 농업의 상대적 락후성을 제거함으로써 공업 자체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공업과 농업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여 나라의 전반적 생산력 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무엇보다도 물질 기술적 토대가 낮은 데서 표현되는 공업에 비한 농업의 상대적 락후성은 농업 자체로서는 극복할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과학 기술로 장비할 수 있는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발전된 중공업과 도시의 방조,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공업의 기초가 축성된 이후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업 발전의 기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공업의 발전, 무엇보다도 중공업의 발전은 그 어떤 자체 목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포함한 인민 경제 전체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단 축성된 중공업의 토대에 의거하여 농촌 경리에 대한 공업의 물질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공업과 농업의 호상 관계,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업이 자기의 기초를 축성

한 다음에도 농업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공업이 자기의 모든 가능한 물질 기술적 수단들로써 농업을 방조하지 않는다면 농촌 경리가 발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업의 기초 그 자체의 발전도 막히고 말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일단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를 축성한 다음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 데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김 일성 동지의 명제는 결코 공업의 발전 속도를 늦추고 농업 생산력의 발전 수준에로 그것을 끌어 내림으로써가 아니라 농업의 급속한 발전과의 련계 하에서 공업 장체의 보다 확고한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공업과 농업 간의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공업의 가장 적극적이고도 전면적인 지원을 실현하였으며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공업이 락후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 극히 령락되고 새 사회 건설에서 식량 문제의 해결이 가장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첫 시기부터 농촌 경리의 발전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당은 해방 직후 토지 개혁을 실시할 때부터 농촌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특히 협동화를 실시하면서부터 모든 분야에 걸쳐 농촌에 대한 지원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 농민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사회주의 공업의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나라의 자립적 공업 토대가 축성되지 못하였던 시기의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은 제한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공업의 토대를 축성하는 일정한 시기에는 농업이 공업 발전을 위한 일정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공업의 자립적 토대가 확고히 구축된 이후 시기부터 당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전면적 지원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으며 공업이 농촌 경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그를 급속히 추켜 세우는 데로 방향을 돌렸다.

당은 1959년부터 1963년까지의 5 년간에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15.8%를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촌 문화 건설에 돌렸으며 협동 경리에 막대한 자금을 대여하고 그 중 많은 부분의 상환을 면제하였다.

또한 공업의 토대가 축성된 이후 시기부터 당은 농촌 경리의 발전에 더욱더 증대되는 규모로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우리의 공업은 해마다 더 많은 현대적 농기계, 각종 화학 비료, 농약, 건설 재료를 농업에 공급하였다.

공업은 기술 혁명의 성과에 의거하면서 자체 내에서 로력을 절약하여 농업에 막대한 로력적 방조도 주었다.

공업의 기초가 축성된 이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물질 기술적, 재정적 지원의 강화는 우리 나라에서 공업과 농업의 확고한 균형을 보장하고 이 두 부문을 다같이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앞으로 농촌 경리 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과업과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적 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이미 축성된 사회주의 공업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더욱더 증대되는 규모로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며 그의 련계를 강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공업과 농업의 균형, 이 두 부문의 매우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다.

* *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어떤 형식

을 통하여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농촌 기술 혁명의 추진과 특히는 공업이 농업에 주는 지원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며 따라서 공업과 농업의 균형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호상 관계,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옳게 해결하는 문제가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면서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동시에 특히는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는 것은 농촌 기술 혁명을 급속히 촉진하며 특히는 공업이 농업에 주는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는 공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현대적 물질 기술 수단들이 상품 류통 체계를 거치지 않고 농업 생산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련계 형태이다. 이러한 련계는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도적 역할이 농업 생산 과정에서 직접 실현되는 형태이다.

그것은 농촌 기술 혁명의 수행에 그 수단들을 생산하는 공업이 직접 참가하는 것으로 되며 농업 생산을 협동 농민들과 함께 로동 계급이 직접 진행하는 과정으로 된다.

따라서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는 공업의 발전 정도와 공업에서 조성되는 가능성들을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게 한다.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는 공업에서 생산되는 현대적 농기계를 비롯한 물질 기술적 수단들이 농업 생산에 참가하는 체계와 그의 운영 체계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응한 농업에 대한 국가의 관리 지도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에 의하여 창설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관리 형태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인 국가 농업 지도 기관이다.

그의 중요한 특징은 농촌 경리에 봉사하는 국가 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협동 농장들의 경영 활동을 현지에서 직접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한다는 데 있다.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테제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모든 경영 활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에서 기업적 방법을 전면적으로 실현한 우리 당의 조치는 우선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 나라 농업 생산에서 현대적 기술 수단들이 대대적으로 리용됨에 따라 농업 생산도 공업과 마찬가지로 기술 공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였으며 기술을 모르고서는 농사를 잘 지을 수도, 지도할 수도 없게 되였다. 이러한 농촌 경리는 공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계획 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 조직, 기술 발전, 자재의 보장, 로동력의 배치와 조직, 재정 활동 등 모든 경영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도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성과적 해결은 농민들 자신의 힘만으로써는 불가능하며 오직 전문적인 국가 농업 지도 기

관으로서의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지도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기업적 방법에 의한 지도는 로동 계급이 기술 수단들을 가지고 농촌에 내려 가 농민들과 함께 더욱더 기술 공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농업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그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경영 활동에 대한 지도를 통일적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농업 생산 과정을 통하여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실현하며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의 본질적 요구인 농업에 제공되는 물질 기술적 수단들의 가장 합리적인 리용을 보장한다.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의 강화는 우리 나라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켜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공업에 그것을 따라 세움으로써 공업과 농업 간의 정확한 균형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의 강화는 또한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다. 그것은 농업 협동 경리에 대한 사회주의적 국영 공업의 물질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이러한 방조를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협동 경리의 공고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전 인민적 소유가 협동적 소유에 더 넓게, 더 깊이 침투할 수 있게 한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국가 기업소들—농기계 작업소, 관개 관리소, 채종 농장과 종자 처리장, 농사 시험장, 종축장과 수의 방역소 등이 확대 강화되고 또 그들이 농업 생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됨에 따라 농업 생산에 참가하는 로동 계급과 공업 로동의 비중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촉진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국가 기업소들을 계속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전 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 기술적 수단들이 농업 생산에서 점차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테제)

농업 생산에서의 이러한 과정이 완전히 실현되면 농업은 공업에 류사한 부문으로 더욱더 전화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 관계는 공업 내부 부문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균형 관계에로 점차 접근되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촉진은 또한 공업과 농업의 균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으로 되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농업 로동 자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농업 로동을 공업 로동화할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공업과 농업 간의 생산적 련계를 통하여 인민 경제의 2 대 부문 간의 균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계속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업과 농업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여 나갈 것이며 두 소유 형태 간의 차이를 점차 소멸시킬 것이다.

* *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과 농업 간에 정확한 균형이 보장되여 왔다.

전후 3 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이 2.9 배로 장성하였는데 농업 총생산액은 1.4 배로 장성하였으며 5 개년 계획의 4 년 간에도 공업이 3.5 배로 장성하였는데 농업 총생산액은 1.4 배로 장성하였다. 1961~1963 년 간에는 매해 혹

심한 자연 재해가 있었으나 우리의 농촌 경리는 이러한 자연 재해의 엄혹한 시련을 이겨 내고 해마다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공업에 뒤떨어지지 않고 균형성 있게 발전할 수 있었다.

공업과 농업 간의 정확한 균형의 보장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로 된다.

공업과 농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축적과 소비를 옳게 련결시키며 사회주의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계획적,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기본 고리이다. 공업과 농업의 균형이 확고히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만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부단하고 높은 속도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요구하는 높은 생산력 및 문화 발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공업과 농업의 균형을 보장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일련의 원칙적 문제들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더욱 전망성 있게 급속히 추진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는 테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 운동에서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문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 인민 혁명군 조직 30 주년

김 술 천

오늘 우리 인민은 일제 식민지 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에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긴 조선 인민 혁명군 조직 30 주년을 뜻깊게 맞이한다.

조선 인민 혁명군은 1934년 3월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조직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15 성상을 싸워 이긴 조선 인민 혁명군의 불멸의 업적과 이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튼튼한 담보로, 우리 인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 *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일제의 조선 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끊임없이 전개되여 왔다.

10월 혁명의 영향 하에 로동자, 농민들의 반일 투쟁은 계속 앙양되였으며 1920 년대 말 1930 년대 초에 이르러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였다. 이 시기 일제 략탈자들의 탄압이 극도로 격화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로동자, 농민들의 폭동적 진출은 더욱 앙양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온 강토와 중국 동북 지방의 광활한 지역은 혁명 투쟁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포악한 일제 야수들의 파쑈적 탄압으로 모든 합법적 활동의 가능성이 말살된 조건 하에서 오직 무장 투쟁에 의해서만 일제를 전복하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무장 투쟁을 우리 나라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주되는 투쟁 형태로 규정하였다.

이 무장 투쟁의 로선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고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을 당시 조선 혁명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였다.

이 로선에 근거하여 1932년 4월 25일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 속에서 선진적 로동자, 농민 및 애국적 청년들로써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무력인 진정한 인민의 군대, 항일 유격대를 창건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한 항일 유격대의 창건은 조국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조선 인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었으며 조선의 수 많은 아들딸들을 영웅적 항전의 길로 불러 일으킴으로써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무장 투쟁의 단계로 발전시켰다.

항일 유격대는 수량 상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가장 포악하고 야랄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간고한 무장 투쟁을 통하여 성장 강화되였다.

실로 1930 년대 조선 혁명을 반대하는 일제의 전 력량은 항일 유격대에 집중되였다.

항일 유격대는 주권도, 공고한 후방도 없었으며 무기, 탄약, 식량, 피복 등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력사 상 류례 드문 간고한 조건에

서 유격 근거지에 의거하여 인민 대중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무장 투쟁이 전개된 조시기이 투쟁의 기지로 된 동만 일대를 불바다로 만듦으로써 혁명을 압살하려던 일제 야수들의 횡포한 발악도, 그들의 회유와 기만, 교수대와 감옥도 항일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혁명 사상을 꺾지 못 하였다. 그들은 하루에도 수십 차씩 밀려 드는 적의 《토벌》 앞에도 굴함 없이 《억천 만 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원쑤와 용감히 싸웠다.

이러한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어떠한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동요와 실망을 모르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교양되였다. 이리하여 항일 유격대는 수천 명의 강의한 혁명가들을 가진 혁명적 무장 대오로 확대 강화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원쑤들에게서 한두 자루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 투쟁을 준비하던 때와는 달리 항일 유격대는 풍부한 전투 경험을 소유한 우수한 군사, 정치 간부들로 꾸려졌으며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군사 규률과 질서가 확립된 강력한 혁명군으로 장성하였다. 이와 함께 항일 유격대의 주위에는 생산을 떠나지 않는 로동자, 농민들로써 구성된 수 많은 보조적인 무력이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유격대 내에서 당 조직 사업과·공청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유격대원들을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혁명의 원쑤, 계급의 원쑤를 증오하고 그와 무자비하게 투쟁하는 혁명 투사로 교양하였다.

항일 유격대는 언제나 인민에게 의거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았다. 그리 하여 유격대는 인민들의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였으며 인민 대중과 혼연일치가 되였다. 항일 유격대는 질량적으로 강화되였으며 대부대로 활동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갖추었다.

이와 같이 항일 유격대의 자체 력량의 급속한 발전과 적들의 공격이 대규모적으로 전개되는 조건에서 계속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광활한 지역에서 혁명적 영향력을 강화하며 유격전을 더욱 발전시켜 조선 혁명의 최후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항일 유격대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였다. 이것은 당시 혁명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던 종파주의, 좌경 기회주의와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게 되는 조선 혁명 운동 발전의 전반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를 분석하고 군사 전략 상 문제와 근거지 내 주권 문제의 정확한 해결, 반《민생단》 투쟁에서 발로된 엄중한 후과의 청산 등 종파주의와 좌경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조선 혁명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하여 1934년 3월에 항일 유격대를 조선 인민 혁명군으로 편성하였다.

* *

조선 인민 혁명군의 결성은 조선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각 지방의 유격대를 통합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으로 재편한 것은 투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게 하였으며 유격부대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은 근거지 내의 지방 당의 령도를 받던 체계로부터 부대 내에 조직된 각급 당 조직들의 유일적인 령도를 받게 되였다. 또한 조선 인민 혁명군은 이때로부터 부대 내에 조직된 참모부를 통한 통일적인 군사 지휘 체

계과 부대 내의 후방 부서들을 통한 유일적인 후방 보장 체계를 확립하였다.

군사 전선 상에서의 이와 같은 새로운 발전은 청소한 항일 유격대를 질량적으로 급속히 장성시켜 앞으로 강력한 군사적 력량을 가진 조선 혁명의 무력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적 군사 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열어 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는 만주 일대의 광활한 지역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확대 강화하여야 하며 점차로 력량을 축적하면서 앞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 국경 지대와 나아가서는 조선 국내에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다. 그래야만 우리는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제 1 권, 14 페지)

조선 인민 혁명군은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전략 전술, 매 시기 적아 간의 력량 관계의 변화에 알맞는 정확한 투쟁 방침에 근거하여 명활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1930 년대 후반기에는 북부 국경 지구와 국내에 주타격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북만과 남만 등 광활한 지역에서 대규모적인 유격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40 년대에 들어 와서는 민족 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기 위한 소부대 유격 활동과 지하 투쟁을 강화하여 일본 제국주의 침략군을 계속 격파하였다.

특히 보천보 전투와 무산지구 전투를 비롯한 수 많은 대규모적 전투에서의 조선 인민 혁명군의 빛나는 승리는 조선에 대한 일제 식민지 노예화 정책에 심대한 군사, 정치, 도덕적 패배를 주었다.

조선 인민 혁명군의 혁명적 활동은 조국의 운명이 비운에 처해 있던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인민들에게 조선 인민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앞으로 반드시 싸워 승리한다는 혁명의 서광을 밝혀 주었고 그들을 반일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켰다.

조선 인민 혁명군은 단지 적과 싸우는 전사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였으며 인민을 조직 동원하는 정치 활동가들이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은 적들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주면서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여야 조국의 광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상으로 대중을 교양하였으며 동시에 첫 로동자, 농민의 국가인 쏘련을 소개하며 조 중 인민에 대한 일제의 간교한 리간 정책을 폭로하는 등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전체 인민들이 항일에 궐기하도록 광활한 지역에 혁명의 씨앗을 뿌렸다.

특히 조국 광복회 조직은 조선 인민 혁명군의 강화 발전과 혁명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왔다.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를 밝혀 준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은 조선 인민 혁명군을 조선 혁명 수행을 위한 과학적인 전략 전술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켰으며 조국 광복회 운동의 발전에 따라 조선 인민 혁명군은 인민들 속에 더욱 깊이 뿌리 박게 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은 조선과 동북의 광활한 지역의 대중 속에서 조국 광복회 강령을 해석 침투하고 그들을 조직에 결속시켰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항전에로 불러 일으켰다.

이와 같이 조선 인민 혁명군은 15 성상 그 영웅한 투쟁으로써 일제 식민지 통치 체계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실로 김 일성 동지 령도 하의 조선 인민 혁명군은 조선에서 야만적인 일제 식민지 통치 제도를 전복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예속이 없는 새 사회, 전체 인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면서 피 흘려 싸운 조선 혁명의 무력이였다.

항일 무장 투쟁의 피 어린 투쟁 속에서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령도 핵심이

형성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이 이룩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의 형성, 인민 정권 정부 로선의 수립, 인민 혁명 무력의 조직과 그의 건설 문제 등에서 빛나는 혁명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또한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혁명적 군중 로선, 혁명적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 등의 우리 당과 인민의 빛나는 혁명 전통이 이룩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은 조선 혁명은 조선 사람 자신이 끝까지 완수하여야 한다는 높은 자각으로부터 자력 갱생의 공산주의적 혁명 기풍을 항일 투쟁의 전 과정에 견지하여 왔다.

바로 이러한 백절불굴의 혁명 사상이 있었음으로 하여 그 어떠한 역경도, 준엄한 시련도 극복하고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은 항일 무장 투쟁의 전 과정에 민족적 임무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맑스의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국제주의 임무도 빛나게 수행하였다. 그들은 세계 로동 계급의 위대한 전취물인 첫 사회주의 국가,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였으며 형제적 중국 인민과 어깨 겯고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풍부한 투쟁 경험과 업적들,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 혁명적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 이 모든 귀중한 혁명 전통은 조선 인민의 혁명적 재산이며 후손 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우리 당의 굳고 깊은 뿌리로 되고 있다.

⁂ ⁂

조선 인민 혁명군이 15 성상에 걸치는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은 해방 후 우리 당과 인민이 새 력사를 창조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해방 후 창건된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항일 무장 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령도 핵심이 있음으로 하여 130만의 당원을 망라한 혁명의 참모부로, 그 주위에 전체 인민을 결속한 불패의 전투 대오로 장성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혁명 전통의 뿌리에서 자라난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며 그를 우리 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였다.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조직된 인민 군대는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이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 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되였다.

영웅적 조선 인민군의 전신은 바로 항일 유격대, 조선 인민 혁명군이다.

조선 인민군은 맑스-레닌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하면서 조선 인민 혁명군의 철저한 반제 사상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백절불굴의 투지와 애국주의 사상, 군민 일치, 관병 일치의 미풍 등을 계승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의 계급적 리익을 옹호하여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 조선 로동당의 무력으로 강화 발전하였다.

오직 이러한 혁명 전통을 계승한 두력이기 때문에 비록 창건된 지 2 년밖에 안 되는 조선 인민군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백여 년의 침략 력사를 가진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침략군을 비롯한 16 개국 무력 침공자들을 격멸 소탕하고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수호하여 극동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책동을 로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나라의 방위력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은 전 당적, 전 인민적 사업이다.

국방력을 강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관철된 결과 인민 군대를 핵심으로 하면서 전체 인민들이 한 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사회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면서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조국을 보위함으로써 전 인민적 방위 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였다.

오늘 인민 군대는 어떠한 원쑤들의 침공도 분쇄하고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간부 군대로, 《일당백》의 불패의 혁명 대오로 자라났다.

만일 원쑤들이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수치스러운 패배에서 쓰라린 교훈을 찾지 못하고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을 도발한다면 영웅적 인민 군대는 전체 인민과 함께 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완전히 소멸하고야 말 것이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는 당의 세련된 령도 밑에 번영하는 사회주의 락원이 건설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완전히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적 공업과 농업, 찬란한 과학 문화를 가진 강력한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였다.

사람들은 모두가 새 생활의 기쁨과 긍지로 충만되여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 현명한 령도, 당의 군중 로선의 철저한 관철은 대중들 속에서 비상한 열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8 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무한히 고무되여 보다 휘황한 래일을 확신하면서 계속 천리마를 탄 기세로 전진하고 있다.

실로 공화국 북반부에는 혁명 선렬들이 그것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운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였다.

그러나 조선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으로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은 죽음의 생지옥으로 되였으며 아직 조국은 통일되지 못 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기아와 빈궁, 실업과 굶주림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제 3 공화국》을 꾸며 내였으며 조선 인민의 추악한 반역자 박 정희 도당은 미제의 남조선 장기 강점과 미국의 침략적 《원조》에 매달리고 있다. 지어 이들은 우리 민족의 불구 대천의 원쑤 일본 군국주의자들까지 남조선에 끌어 들이는 망국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미제를 남조선에서 하루 속히 몰아 내고 야만적 식민지 통치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숭고한 민족적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된 국내외 정세는 우리들에게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공산주의자들이 추켜 든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 혁명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피 흘려 싸운 혁명 선렬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 인민 혁명군 조직 후 30 년 간의 력사적 경험은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강대한 병력과 발전된 군사 기술로 장비한다 하더라도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자기의 조국과 인민의 혁명 위업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한 사람 같이 궐기한 인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지난날에 승리하였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쳐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 위업 수행에서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농민 시장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

리 효 혁

최근 우리 나라의 주요 도시 및 로동자 지구들과 농촌의 각 지역들에서는 농민 시장 상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농민 시장에서 류통되는 상품의 량과 품종은 날을 따라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 시장을 찾아 오는 고객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 가고 있다.

평양시 선교 구역 률곡 농민 시장에서 류통되는 상품의 량만 보아도 지난해 11월 한 달 사이에 그 전해 동기에 비하여 289%나 장성하였으며 현재 이 시장의 하루 상품 류통량은 중구역의 17 개 큰 식료품 상점들에서 류통되고 있는 상품의 량과 거의 맞먹고 있다.

또한 상원군 상원읍 협동 농장에서는 농민 시장에 설치한 자기의 직매점을 통하여 최근 두달 동안에만도 매 농호 당 50 원씩 차례질 수 있는 현금 수입을 얻었다.

오늘 농민 시장은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망들에서 미처 손을 뻗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충 해결하면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농민 시장이 흥성하고 활기를 띠게 된 이것은 인민들의 장성하는 생활 상 요구에 적응하게 주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농민 시장 상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조치가 현실을 통하여 이미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게 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김 일성 동지는 가까운 년간에 농촌 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휘황한 전망을 열어 주시였다. 테제에 무한히 고무된 농민들의 앙양된 기세와 농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의 강화는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함으로써 장차 농촌에 더 많은 상품 원천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 시기 나라의 경제 생활에서 농민 시장이 노는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금후 이 시장이 더욱 활발히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우리 나라에서 농민 시장 상업을 가일층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은 현 시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우리 앞에 나선 중심 과업과 우리의 농촌 경리 내부에 조성된 구체적인 실정으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최근 1~2 년내에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당이 제시한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축성한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공업과 농업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

품 류통 령역의 온갖 통로들을 최대한 동원 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망을 통한 공업 상품 공급 사업을 계속 강화함과 함께 농민 시장 상업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농민 시장이 농촌 지역에 잠재하고 있는 추가적인 상품 원천을 광범히 동원함으로써 도시 및 로동자 지구 근로자들의 생활 상 편의를 도모하는 데 적극 복무하는 상품 공급의 보충적 통로로 되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 전에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일적으로 확립되였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리해 관계의 대립, 농촌에 대한 도시 측으로부터의 착취 등이 완전히 청산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 시장은 농촌 지역의 여유 농산물과 축산물을 비롯한 각종 부업 생산물의 교류를 실현시켜 줌으로써 도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농민 시장은 국가 상업망들에서 손이 덜 미치는 각종 세소 상품에 이르기까지 농촌의 여유 상품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년중 계속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농민 시장은 상품 공급에서 중간 환절을 제거하고 직접 협동 농장들과 농장원들로 하여금 자기의 여유 생산물을 도시 근로자들에게 보다 민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농민 시장에 대하여 더욱 흥미를 가지게 한다.

또한 농민 시장은 막대한 상품 원천을 동원하며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추가적인 수송 수단, 판매 로력 등을 보충 받지 않고 사회적 류통비를 절약하면서 상품 교류를 실현시키므로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현 시기 나라의 경제 생활에서 농민 시장이 노는 역할은 비단 여기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를 강화하고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다같이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제거하며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적극 기여한다.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하에서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여 치부하는 것과는 반대로 사회주의 하에서 도시는 농촌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원하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시키는 데 적극 복무한다.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가 도시의 로동자들과 사회주의적 협동 농민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조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제도 하에서 농민 시장을 통한 상품 교류는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들 호상간에 직접 이루어진다.

농민 시장에서 협동 농장과 농장원들은 자기의 상품을 도시 주민들에게 직접 실현하여 얻은 화폐 수입으로 다시 로동자들이 생산한 일용 필수품과 각가지 공업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농민 시장은 또한 주로 우리 나라의 주요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주민 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협동 농장과 농장원들의 여유 농산물과 축산물을 제때에 실현시켜 줌으로써 년중을 통하여 그들의 화폐 수입을 일상적으로 보장하여 준다.

농민 시장은 농산물의 수매 및 교류의 중심지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농산물의 수매, 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농촌 시장의 발전에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다. 농촌 시장은 농산물의 집산지로, 농산물 수매, 교류의 중심지로 되여야 한다.》(선집 제 5 권, 45 페지)

오늘 농산물의 집산지이며 농산물의 수매, 교류의 중심지인 농민 시장을 강화하는 것은 도시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을 더욱 원활히 하고 농민들의 현금 수입을 높이며 농업 생산을 보다 증대시킴에 있어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농민 시장 상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농

촌 경리 부문에 조성된 구체적인 실정과 직접 관련되여 있다.

농촌 경리에 대한 우리 당의 올바른 정책과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의 물질 기술적 및 로력적 지원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 생산이 더욱더 다각화되고 집약화되면서 해마다 계속 대풍작을 이룩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각종 가축, 가금을 비롯한 축산물 생산도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더우기 우리 당은 최근 년간 1, 300여 개의 협동 농장들에 대한 농업 현물세의 납부를 면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대부금 상환의 면제, 농촌 건설에 대한 국가 투자의 증대 등 추가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농장원들에게 차례지는 분배 몫은 현저히 장성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의 협동 농장들과 농장원들에게는 많은 여유 농산물과 축산물이 조성되게 되였다.

바로 농민 시장을 활발히 운영하는 것은 자기 수중에 더 많은 상품 생산물을 가지게 된 협동 농장들과 개별적 농장원 자신들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시켜 주며 그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자극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대책으로도 된다.

이 모든 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농민 시장 상업을 개선 강화하여 그로 하여금 생산의 증대와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나라의 경제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실증하여 주고 있다.

실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민 시장의 활발한 운영은 농업 생산의 장성을 촉진시키며 도시 근로자들에게 닭, 오리, 토끼를 비롯한 생가축과 고기, 계란, 우유와 채소 및 조미료 등 각가지 식료품과 부식물을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동시에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 수행하고 있다.

⁂ ⁂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상응하게 농민 시장 상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 시장에 대한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나라의 경제 생활에서 농민 시장이 노는 거대한 역할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농민 시장에 대한 지도와 관리 운영을 부단히 개선할 것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현 시기 농민 시장에 대한 관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중요한 것은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서 이 시장을 더욱 확대하며 그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농민 시장이 없는 곳에서는 그를 새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이 불비한 데서는 그것을 보강하여야 한다.

농민 시장의 운영을 정상화함에 있어서는 그의 위치와 장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농민 시장의 위치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그를 리용하기 편리하고 교통 운수 및 위생 조건이 구비되여 있으며 상업 질서를 유지하기에 유리한 지점이여야 한다.

그리고 주요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는 매일 시장을, 군 소재지를 비롯한 농촌 지역에는 정기 시장을 조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군 소재지들과 농촌의 각 지역들에서는 정기 시장을 조직함에 있어서 매개 지방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농장원들의 문화 휴식일이나 일요일을 리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농촌 지역에 잠재하고 있는 여유 농산물은 물론 군 내의 모든 상품 원

칙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그의 정기적인 교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서는 시장을 매일 운영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느 때든지 필요한 것을 마음 대로 팔고 살 수 있게 하며 더 많은 상품 자원을 시장에 흡수하여 부식물의 집중적 소비지인 이 곳 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와 신선한 채소, 육류 등 식료품에 대한 일상적 요구를 제때에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농민 시장을 이와 같이 조직하고 운영함으로써만 도시 및 로동자 지구의 주변 협동 농장들과 개별적 농장원들이 자기의 여유 농산물과 축산물을 그의 생산 시기와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주민들에게 년중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

농민 시장 상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식료품 수매원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매원들은 농촌 지역에 더욱 접근하여 수매 원천을 부단히 탐구하며 조미료와 같은 세소 상품에 이르기까지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순회 수매, 이동 수매, 위탁 수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매 사업을 조직 전개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농산물과 축산 부산물들을 시장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민 시장 내에는 식료품 수매 상점을 설치하고 그들이 수매한 상품을 마음 대로 판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장에 대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집중적 교류의 거점으로 되는 직매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농민 시장에서 류통되는 상품의 절대적인 비중이 협동 농장들의 공동 생산물로 구성되여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따라서 농민 시장에는 가능한한 협동 농장 직매점과 군(구역) 협동 농장 런합 직매점들을 많이 설치하고 그들을 통하여 협동 농장들이 국가 재회 수매를 하고 남는 일체 여유 농산물과 축산물을 대대적으로 반출할 수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식료품 수매 상점과 협동 농장 직매점을 위주로 하여 식료품 공급 기지로서의 농민 시장을 보다 조직화하면서 여유 농산물과 부업 생산물을 대대적으로 흡수하여 더욱 흥성거리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민 시장에서 류통되는 상품의 구성 중 대부분이 채소류, 조미료, 산채류, 과실류 등 채과류들과 돼지, 개, 토끼, 염소, 닭, 오리, 게사니, 육류, 란류, 수산물, 초물류 및 그 부산물로 되고 있는 조건에서 매개 협동 농장들의 실정에 맞게 전문 직매점(매대)을 광범히 설치하고 식료품과 부식물을 더 많이 더 잘 공급할 수 있도록 매대 조직을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농민 시장의 운영을 조직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 농장원들의 농산물 및 축산물의 판매 조직을 잘 하는 것이다. 그것은 농장원들의 수중에 더 많은 상품 원천이 조성됨에 따라 그들과 관련하는 문제가 협동 농민들의 일상적 요구로서 농사철에는 물론 년중 계속 제기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만일 개별적 농장원들이 자기의 여유 농산물을 어느 때든지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도록 협동 농장과 작업반 측으로부터의 조직적인 협조가 돌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과 많은 로력과 시간의 랑비를 가져 오게 할 것이며 더우기 농사일이 바쁜 계절에는 여유 농산물의 반출이 정상화될 수 없고 농민 시장은 흥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협동 농장들과 작업반들에서는 농민 시장에 반출하는 농장의 공동 생산물뿐만 아니라 개별적 농장원들의 여유 농산물에 대하여서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돌리여야 하며 그의 판매와 협동 농장 직매점을 통한 위탁 판매 등 농장원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각종 형식과 방법을 리용하여야 한다.

농민 시장에 대한 협동 농장원들의 상품 생산물 반출을 이와 같이 조직화하는 것은 비단 로력과 시간의 절약을 가져 오게 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질에 대한 통제도 용이하게 보장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상품을 반출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시장의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농민 시장에 대한 운영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시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림으로써 협동 농장과 농장원들의 판매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다.

우선 농민 시장 내 설비가 불충분한 데는 그것을 보충 완비하여 시장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는 문제가 중요하다.

협동 농장 직매점들에는 고기, 채소, 계란 등을 팔 수 있는 전문 매대와 혼합 매대, 개별적 농장원들의 위탁 상품 매대 등을 배합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도량 형기들과 상품 보관 창고, 움 기타 간단한 랭장 및 저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서는 협동 농장의 공동 생산물 뿐만 아니라 개별적 농장원들이 자기의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려 할 때 그들의 판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매대, 상업 도구, 도량 형기 등을 대여해 줄 수도 없다.

특히 이 시장에는 가축들이 많이 반입되고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넣을 수 있는 우리를 마련함으로써 협동 농장과 농장원들이 생가축이나 가금 등을 일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 내에서는 생가축과 그 부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 사업과 수의 검진 사업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도, 시, 군(구역) 인민 위원회들에서는 필요한 검사 및 실험 기구들과 위생 수의 일'군들을 동원하여 철저한 검사 검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 도시 및 로동자 지구 농민 시장 내에는 잡화 상점을 적당히 포치하여 협동 농장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필요한 일용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며 식당, 리발소, 숙박소 등 편의 봉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협동 농장들과 개별적 농장원들이 육류를 비롯한 축산물과 농부산물, 식료품들을 제때에 판매하지 못하여 애로를 느낄 때에는 국가 수매 기관, 기업소들과 국영 상업망들에서 그것을 수매하여 주며 그들이 팔고 남은 상품을 보관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보관 및 저장 시설들을 대여해 줌으로써 귀중한 식료 상품들이 부패 변질되여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 시기 농민 시장에 대한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함에 있어서 지방 당 조직들과 정권 기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일'군들의 농민 시장에 대한 지도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과는 달리 농민 시장은 물론 비조직 시장이기는 하지만 오늘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그가 노는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만일 일'군들이 농민 시장의 '비조직적 측면만을 일면적으로 보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그에 대하여 행정적 방법으로 제한하거나 그를 자연 발생성에 방임하는 현상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농민 시장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리용할 수 없게 하며 그의 활발한 운영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오늘 주민들에 대한 식료품 공급 사업에서 농민 시장이 담당 수행하는 역할과 나라의 경제 생활에서 그가 가지는 의의, 이 시장의 운영을 개선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의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농민 시장에 대하여 일면적으로 대하는 현상이 발로되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함과 동

시에 농민 시장 상업을 계통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연구와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모든 일'군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와 근로자들의 후방 공급 사업에 대하여 책임 지는 립장에서 이 시장 상업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 시장 상업에 대한 지도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시장 관리 운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관리 성원들을 좋은 사람들로 꾸려 주며 그들을 당적 사상 체계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시장 관리 성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 정책의 선전자로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충복으로서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영예감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을 관리하는 모든 일'군들이 장성하는 주민들의 각이한 수요를 계통적으로 깊이 연구하도록 하며 상품 주문 및 안내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여 도시와 로동자 지구 주민들의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 주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 제정된 질서와 제도를 준수하며 상업 문화와 위생, 공중 도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일상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농민 시장에 대한 지도가 약화될 때에는 시장에서 투기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또한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하며 그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다같이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지방 당 조직들과 인민 위원회 및 농촌 경리 부문 지도 일'군들은 농민 시장 상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며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이 시장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식료품의 공급 기지로서 더욱 활기를 띠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와 착취 구조

윤 상 우

남조선 농민들을 봉건적 생산 관계와 제국주의 기반으로부터 해방하고 남조선 농업 생산력을 복구 발전시키는 문제는 조선 인민의 절박한 혁명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 농촌의 파국적 사태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의 직접적 후과이다.

미제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남조선 농촌에서의 봉건적 지주 제도의 지배와 제국주의적 착취와 압박은 농업 생산력을 전면적으로 파탄시켰으며 농민 생활을 극도로 령락시켰다.

농업 생산의 파탄은 민족 공업, 나아가서는 전반적 경제 발전을 저애하는 요인으로 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 농촌에 유지되고 있는 봉건적 및 제국주의적 제 관계가 남조선 사회 발전의 질곡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와 착취 구조를 해명하는 것은 우리 인민들이 남조선 농촌의 모순들과 그 해결 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혁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1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는 기본적으로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착취 관계와 소상품 경제 형태에 상응하는 농민들의 호상 관계로 형성되여 있다.

특히 봉건적 제 관계는 남조선 농촌 생산 관계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 봉건적 제 관계가 지배적인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정치 경제적 목적과 관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들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보존하는 데 리해 관계를 갖는다.

제국주의자들이 봉건적 관계를 보존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식민지에 대한 정치적 예속과 경제적 지배를 보다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봉건적 제 관계를 계속 보존하고 있는 목적은 정치적으로 식민지 통치의 정치적 지주를 마련하며 경제적으로는 제국주의적 착취와 략탈의 물질적 조건을 조성하려는 데 있다.

이것은 남조선 농촌에서의 봉건적 제 관계가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 예속과 식민지 초과 리윤 획득의 유리한 지반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과거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토지-농업 정책과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가 감행하고 있는 농촌 정책은 공통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미제는 남조선에서의 지주적 토지 소유 제도를 과거 일제가 조선에서 하던 방식 그 대로 존속시키지 않고 있다.

미제는 일제의 대지주 육성 정책과는 달리 주로 중소 지주들을 보호 육성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정책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국제 정세의 발전에 의한 계급

대당 관계의 변동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대전 후 급속히 장성 발전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영향력에 의하여 세계의 피압박 민족 및 인민들의 각성은 비상히 제고되였다. 특히 아세아 지역 나라들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는 토지를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앙양시켰다.

미제는 변천된 정세 하에서 과거와 같이 대지주들에게 토지를 집중시키고 토지를 공공연히 소작 주어 농민들로부터 고률의 봉건적인 소작료를 착취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 대지주에 의한 토지의 집중은 미제에 대한 정치 경제적 위협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대지주에게 토지가 집중된다면 대지주의 세력이 강화되며 특히 그들이 남조선 농산물을 독점케 될 것이다.

이것은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잉여 농산물의 판매에 직접적인 장애로 되며 나아가서는 식민지 초과 리윤 획득에 저애로 된다.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미제는 남조선의 대지주들을 예속 자본가로 전환시키고 주로 중소 지주 대열을 보호 육성하게 되였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한 기만적 《농지 개혁》이 그의 직접적 반영으로 된다.

《농지 개혁》 이후 농민들에 대한 추가적 수탈이 강화됨으로써 농민 경리의 령락 과정이 촉진되고 지주들의 수중에로의 토지의 집중이 또다시 강화되고 있기는 하나 미제의 중소 지주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소 지주 대렬이 확대되고 있다.

남조선의 지주들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비호 하에 반공개적 및 은폐된 형식의 소작제를 농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현재 남조선 농민의 절대 다수는 1 정보 이하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 농민이며 1~2 정보의 경작 규모를 가진 중농 계층들도 적지 않은 부분이 자작지 외의 소작지를 경작하고 있다.

순 소작 농가 및 소작과 자작을 겸하고 있는 농가는 남조선 농가 총수의 76.3%에 달하며 이들의 소작지 면적은 남조선 경지 총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이 소작지 면적 중 적지 않은 토지가 《고지 제도》, 《통고지 제도》, 《전방납》, 《품의 곡식》, 《청부식 소작제》의 대상으로서 사실 상 소작지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봉건적 농노제적 영농 체계로부터 자본주의적 영농 체계에로의 과도적 형태이기는 하나 본질 상 봉건적 영농 체계에 속하는 것이다.

지주들은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식량 또는 현금을 전대하고 그 대'가로 자기 토지의 일정한 부분에 대한 경작 의무를 지우고 수확고의 거의 전량을 빼앗아 가고 있다.

《농지 개혁》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가해진 과중한 착취는 농가 부채를 미증유의 규모로 증가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되였다.

남조선 출판물까지도 《농촌 고리채는 실로 이 농지 개혁의 엄중한 부담에서 성장한 농민 가계의 적자 부분》이라고 쓰고 있다.

농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는 농민들로 하여금 《분배》 농지조차 방매하고 다시 소작살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분배》 농지를 형식 상 자기의 소유로 만든 농민들의 경우에도 그 소유권은 사실 상 누적된 고리 부채에 상응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지주들은 농민들의 소작지 면적의 감소에 의하여 산생되는 지대 수입의 상대적 감소를 고리대 착취로써 보충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자본주의적 착취 관계는 부농들의 고용 농민들에 대한

착취와 미국 독점 자본 및 예속 자본에 의한 농민 착취를 포함하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인 남조선 괴뢰 정권이 강요하는 각종 조세, 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의 신용 체계, 독점 시장 가격 정책을 통한 농민 수탈은 일제 때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미제는 《농지 개혁》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했다는 구실 밑에 종래의 지주들이 부담하던 조세의 몫까지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한편 농업 생산에 대한 자금 투하를 억제하고 소위 《원조》를 통하여 농민 경리를 압박하고 있다.

결과 남조선에서의 각종 조세, 신용 체계, 독점 시장 가격 정책을 통한 농민 수탈의 규모는 일제 시기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농촌에 대한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착취가 강화됨으로써 남조선 농업 경영은 단순 재생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였다.

미국 독점 자본의 억압 하에 일부 부유한 농민들까지도 축적된 자금을 농사에 돌릴 대신 토지를 구입하여 기생적 지주로 변생하거나 고리대 자금으로 리용하고 있다.

남조선 농가 총수 중 2 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부농의 비중은 1960년에 6.3%였으며 현재 그들의 경지 면적은 남조선 총경지 면적의 18.4%에 불과하다.

이리 하여 남조선 농촌에서의 자본주의적 착취 관계는 주로 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의 농민들에 대한 착취 관계로 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소상품 경제 형태에는 기본적으로 자작농 즉 중농 계층이 속한다.

남조선에서 토지 1~2 정보 내외의 영농 규모를 가진 중농은 남조선 농가 총수의 18.2%이며 그들은 총경지 면적의 약 37%를 경작하고 있다.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착취가 강화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중농 계층 농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착취의 대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리 하여 이 계층 농민들은 부단히 몰락되여 소작농으로 전락되고 있다.

중농들의 자작지는 남조선 총경지 면적의 약 22.9%에 불과하며 그것마저도 자영 농민의 자유로운 토지 소유가 아니라 다만 형식 상의 《농민적》 토지 소유이다. 적지 않은 중농 계층의 농민들이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고 있다.

중농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로력 및 농민 호상간의 품앗이를 통하여 영농 활동을 한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남조선 농촌의 생산 관계에서의 기본적이며 주되는 모순이 지주, 미국 독점 자본 및 예속 자본을 한편으로 하고 광범한 농민 대중을 다른 편으로 하는 량자 간의 모순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일반적으로 착취 형태는 사회에서 지배하고 있는 생산 관계의 성격에 의존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주들의 사'적 소유와 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의 압박은 남조선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 및 제국주의적 략탈의 기초이다.

남조선 농민들은 생산 과정에서 지주에게 봉건적 지대와 기타 생산 수단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부농에게 고용 로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착취 당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이 지주에게 납부하는 지대는 일제 시기와 같이 봉건적 지대의 력사적 발전 형태들인 로력 지대와 생산물 지대 및 화폐 지대로 구분된다.

이 봉건적 지대들 중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산물 지대이며 로력 지대와 화폐 지대는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로력 지대는 농민들이 지주의 《머슴

답》, 《행랑답》, 《위토》, 《산지기답》을 부치는 대'가로 지주의 머슴 또는 행랑살이를 하거나 지주의 묘지와 산림을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지주들이 《위토》를 구실로 하여 토지를 집중함으로써 로력 지대의 비중이 일정한 정도로 증가되고 있다.

화폐 지대는 괴뢰 정부와 그 산하 기관들이 소작료 착취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 외에 거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생산물 지대가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며 그것이 화폐 지대로 전화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관련된다.

원래 생산물 지대가 화폐 지대로 전화되자면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경제적 관계가 조성되여야 한다.

맑스는 생산물 지대의 화폐 지대에로의 전화는 《화폐 류통의 보다 현저한 발전…생산물의 시장 가격과 생산물이 다소간에 그것의 가치에 근사하게 판매되는 것…사회적 로동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자본론》 제 3 권, 제 2 분책, 456 페지)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에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조건이 조성되지 못 하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군사 기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사회 생산력은 전반적으로 감퇴하고 있다.

또한 미국 잉여 농산물의 압박에 의한 농업과 민족 공업 간의 련계의 파탄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농가들의 상품화률은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 가계비 중 현금 비중이 심히 저하되였다. 1960년 남조선 농가들의 년간 평균 가계비 중 현금 비중은 1931년 경상 남도내 농가들의 수준의 87.5%에 불과하다. (《현대 조선 경제론》 172~174 페지,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2년 제 5 호, 111 페지)

농촌에서의 상품 화폐 관계 발전의 정체와 함께 농산물의 시장 가격도 미제와 괴뢰 도당의 농산물 가격 인하 정책으로 말미암아 매우 낮다. 미곡 1 석당 시장 가격은 생산비의 58.6~69.7%에 불과하다.

이상과 같이 오늘 남조선 농촌은 사회 생산력과 상품 화폐 관계에 있어서, 농산물 가격과 가치 간의 배리 관계에 있어서 생산물 지대의 화폐 지대로의 전화의 조건이 조성되지 못 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소작료 착취 방법에는 지주가 수확고에 대한 소작료 비률만 정하고 매년 실수확고에 따라 소작료를 착취하는 《타조법》(打租法), 《집조법》(執租法) 등 불고정 소작료와 수확고와는 관계 없이 일정한 량을 착취하는 《정조법》(定租法) 소작료가 있다.

소작 관계의 명칭은 지방에 따라 각이하나 대체로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분작 제도》, 《병작 제도》, 《뭇갈림》, 《내소작 제도》 등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 《도지세》 등으로 불리고 있다.

소작료 착취의 두 가지 방법 중 전자의 방법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남조선 농촌에서 소작료의 규모를 형식 상 년 수확고의 3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각종 방법에 의한 착취로 인하여 일제 통치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년 실수확고의 50~70% 이상에 달한다.

이것은 남조선 농민들이 소작료를 통하여 잉여 로동 생산물 부문만이 아니라 필요 로동 생산물까지 략탈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남조선에서 지주들의 《고지》, 《몽고지》, 《청부식 소작》 등 소위 과도적인 농업 경영 형태를 통한 착취는 더욱 가혹하다.

남조선 지주들은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수확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소작료에 의한 착취만이 아니라 부농 경리에서의 로력 고용과 관개 시설 및 축력과 농기구를 통한 착취도 받고 있다.

1960년에 농촌 고용 로력은 재적 인원으로 환산하여 년간 약 57만 명으로 추산되며 농촌 잠재 실업의 규모는 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지주, 미국 독점 자본, 예속 자본의 더욱 강화되는 착취로 말미암아 고농 대렬과 함께 명세농 대렬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이 실업 및 반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남조선 농촌의 대량적인 잠재 실업의 존재는 농업 고용 로동자들의 로임을 저하시키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또한 고률의 관개 시설 사용료와 과중한 관개 공사비를 통한 착취를 강요 당하고 있다.

이러한 착취는 《토지 개량 조합》 및 지주와 부농들의 공동 수리 시설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현재 《토지 개량 조합》에는 58만 1,000여 호의 농가가 망라되고 있다. 이들은 1정보당 8,500원 이상의 관개 시설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부산 일보》, 1960년 12월 1일)

지주들의 지배 하에 있는 공동 수리 시설 구역 내의 관개 면적은 약 36만 정보에 달하는데 여기에 망라된 농민들의 관개 시설 사용료도 《토지 개량 조합》의 경우와 거의 같다.

농민들이 부담하는 관개 시설 사용료는 본질 상 봉건적 지대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관개 시설 사용료가 높다는 데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농민들이 관개 시설 소유자들로부터 경제 외'적 강제를 당하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관개 구역내 농민들은 관개 공사에 강제 부역을 해야 하며 관개 공사비까지 부담하게 된다. 관개 시설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관개 구역》 내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은 그 관개수를 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개 시설 사용료를 물어야만 한다. 지주들의 지배 하에 있는 공동 수리 시설을 리용하는 농민들은 사실 상 《물 소작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농가 총수의 70% 이상에 달하는 164만 7,000 호의 농가들은 축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원시적인 농기구조차 없는 농호가 적지 않다.

농민들은 이런 형편에서 지주와 부농들로부터 또한 축력과 농기구의 차용을 통한 착취를 받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조세 체계를 통하여 더욱 가혹하게 략탈 당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 조세 체계를 통한 농민 수탈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직접세에는 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가 포함되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토지세를 통한 농민 수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활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수차에 걸쳐 토지세의 형태를 개편하였는데 1951년 9월 종래의 금납제인 지세를 비롯한 수종의 세금을 물납세인 《토지 수득세》로 개편하였다.

그것은 미제가 북반부에 대한 침략 전쟁 도발과 관련하여 급격히 증대된 군량미 수요를 충족시키며 《농지 개혁》 후 조성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켜 착취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였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토지 수득세》 수탈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무마하고 농민들의 량곡을 헐값으로 략탈하기 위하여 1960년 말 물납세 형태인 《토지 수득세》를 금납세 형태인 《농지세》로 또다시 개편하였다.

물가 등귀를 고려하여 계산한 데 의하더라도 1917～1958 년 간에 토지세는 75 배 이상 높아졌으며 기타 《지방세》를 비롯한 수십 종의 잡부금 수탈은 그 규모에 있어서 《농지세》의 규모를 현저히 릉가하고 있다.

괴뢰 정부의 조세 체계에서 간접세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근로 대중에 대한 세금 수탈을 강화하며 착취 계급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 밑에 직접

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였다. 괴뢰 정부의 조세 수입 중 간접세 비중은 1955년의 61.1%로부터 1962년 이후에는 70% 이상으로 제고되였으며 간접세 총액 중 65% 이상을 농민이 부담하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신용 체계를 통한 농민 수탈은 은행 자본과 고리대 자본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정전 이후 10여 년간에 남조선 농가 부채 총액은 20 배 이상 증가되였는데 부채 총액 중 은행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1.1~30%에 달한다.

현재 남조선 농촌 융자는 《농업 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대출금의 재원별 구성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충 자금》을 비롯한 미제와 괴뢰 정부의 재정 자금이다.

《농업 조합》의 년간 대출액은 남조선 금융 기관의 년간 대출 총액의 18%에 불과하다.

《농업 조합》의 융자는 그 액에 있어서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융자 내용에 있어서 략탈적이다. 《농업 조합》은 농업 생산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과잉 상품의 강매와 남조선 농산물의 수탈에 복무하고 있다.

《농업 조합》 대부 총액 중 《비료 자금》을 위주로 한 《영농 자금》과 《량곡 담보 융자금》이 54.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일례로 된다.

《농업 조합》 융자의 략탈적 성격은 또한 리자률이 매우 높은 데서 표현되고 있다. 현재 리자률은 년 10.5~17.5%나 된다.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2년 제 9 호 통계편 34 페지)

리자와 관련되는 《교제비》, 《보험료》 등 제 비용까지 포함시켜 계산한다면 실지 리자률은 《법정》 리자의 수배에 달한다.

오늘 남조선 농가의 90% 이상이 살인적인 고리채에 얽매여 있으며 그 부채액은 농호 당 1만 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농가 고리채는 현금 또는 현물 고리채로 구분되는데 농민들의 식량 부채가 농가 고리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고리채 리자률은 정전 직후 월 7~17%로부터 현재 10~20%로 높아졌으며 현물 고리채 리자률은 현금 고리채 리자률보다 더 높다. (《한국 일보》, 1961년 1월 8일 및 기타)

남조선 농촌에 창궐하는 고리대 자본은 남조선 농업 생산력을 마비시키며 지주에 의한 농민의 반노예적 예속을 보존하기 위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상품 류통 체계에 의한 착취는 괴뢰 통치 기구와 자유 시장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미제는 자국의 과잉 농산물을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투입하여 남조선 농산물 생산을 압박하는 한편 군 수요의 현지 조달을 위하여 농산물을 략탈하고 있다.

괴뢰 정부 기구를 통한 략탈에서 지배적인 것은 미곡 략탈이다.

미제는 1957~1960년에 년 평균 300만 석의 미곡을 헐값으로 략탈하였다.

남조선 농민들은 미국의 잉여 량곡을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반면에 생산비의 50%도 못 되는 《출혈》 가격으로 미곡을 강제 매상 당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자유 시장을 통하여서도 농산물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략탈 당한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의 대량적인 투입과 남조선의 분산적 농민 경리에 의한 농산물 생산 간의 모순으로 인하여 자유 시장에서의 농민들의 농산물 가치는 매우 낮다. 추수기에 자유 시장에서 판매되는 남조선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비의 70% 정도에 불과하다. 공예 작물과 축산물 가격도 역시 낮다.

미제는 농산물을 원가도 못 되는 헐값으로 략탈하는 동시에 공업 제품을 높은 독점 가격으로 강매하고 있다. 그들은 비료와 농약 등 잡다한 미국의 과잉 공업 제품들을 국제 시장 가격보다

헐값 비싼 가격으로 남조선 농촌에 강제 판매하며 그 가격에다 예속 자본가들의 고률 리윤까지 첨가하여 판매한다. 결과 남조선에서 공농 협상 가격의 차는 더욱 심하여지고 있다. 1955~1961년 기간에 남조선 농가들이 판매한 미곡의 도매 가격 지수는 192로 등귀하였는데 농민들이 구입한 화학 비료의 도매 가격 지수는 456으로 등귀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남조선 농민들은 생산, 분배, 류통의 전 령역에 걸쳐 가혹한 봉건적 및 제국주의적 착취를 강요 당하고 있다.

남조선의 몇 개 지방의 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농가들이 착취 당하는 총량 중 금융 기관과 상품 류통 부문을 제외한 미제와 괴뢰 도당의 우로부터의 착취량과 소작료 및 고리채 리자에 의한 착취량이 거의 같다.

* *

남조선 농촌에서의 봉건적 지주 제도의 지배와 미국 독점 자본 및 예속 자본의 추가적 수탈의 강화는 남조선 농업 생산력을 전면적으로 파탄시켰다.

오늘 남조선의 경지 면적은 일제 말기에 비하여 약 8%나 감소되였다. 파종 면적은 60만 정보가 축소되였다.

경지의 질적 상태도 악화되였다. 남조선 경지 총 면적 중 63% 이상이 황폐화되였다. 관개 시설이 파괴되고 치산 치수 사업을 하지 않은 결과 남조선 농촌은 《만년 한재, 만년 홍수》의 참담한 지대로 전변되였다.

남조선 농업 생산에 리용되는 농기구들은 의연히 중세기적인 락후한 것들이며 그 수는 일제 강점 시기보다도 현저히 감소된 형편이다.

이 모든 것은 미제가 유지 보존하고 있는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와 제국주의적 착취 압박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그러므로 파국에 처한 남조선 농업을 복구 재건하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남조선 농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남조선 농민들은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 수 없으며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오늘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에 의하여 부식되고 있는 봉건적 및 제국주의적 제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전체 인민의 절박한 투쟁 과업이다.

근 로 자 제 6 호 (루계 244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3월 17일 발 행 • 1964년 3월 20일

ㄱ—430185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7 호 4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 7 호 (245)
1964년 4월 (상)

차 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자

박 기 선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된 자각적인 혁명 투사로, 높은 기술과 문화를 소유한 새 사회의 건설자로 육성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3 차 전원 회의 결정과 얼마 전에 있은 전국 근로자 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 강사 열성자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이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문화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혁명적 방법으로,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그들의 수준을 최단 기간 내에 중학 졸업 정도에까지 끌어 올릴 데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함으로써만 당 사상 사업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게 더 심화시키며 기술, 문화 혁명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대중 자신의 사업이며 대중의 자각성과 높은 과학 기술 수준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전체 근로자들을 새 사회를 훌륭히 움직여 나가며 발전된 경제와 문화를 운영할 줄 아는 자각적이며 문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 교양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당 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 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47 폐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심화 발전은 근로 대중의 의식성과 능동적 활동의 의의를 증대시킨다. 따라서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면 될수록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수준, 문화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서게 된다.

지금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매우 높은 단계에 도달하였다.

인민 경제의 규모는 전례 없이 방대하여졌으며 그의 기술적 장비 정도는 더욱 높아졌고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과학 기술의 성과들이 광범히 도입되고 있다. 이리 하여 대중의 생산 활동에서는 보다 높은 조직성과 과학성이 요구되게 되였다.

오늘에 와서 모든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지 않고서는 현대적 과학 기술로 장비한 발전된 우리의 인민 경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 걸쳐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과업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오늘 이 문제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김 일성 동지는 전국 근로자 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 강사 열성자 회의에서…기술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 혁명을 하여야 하며 사상 혁명도 문화 혁명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문화 혁명은 사상 혁명,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들을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의 인간—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공산주의 건설 과업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도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는 것은 다가 오는 조국 통일을 준비 있게 맞이하기 위한 문제와도 직접 관련되여 있다.

조국 통일의 기운은 날로 성숙되여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유능한 정치 활동가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유식하고 문화적인 일'군으로 육성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남반부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과 각계 각층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우리 당 주위에 단결시켜야 할 어렵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러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정치, 사상 의식과 문화 수준의 전반적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하여야만 그들은 어떠한 복잡한 환경에서도 사물을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자립적으로 활동할 줄 알며 어떤 사람과 접촉하여도 그를 능숙히 설복 교양하여 당 주위에 굳게 묶어 세울 줄 아는 사상적, 리론적, 문화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정치 교양자로 될 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는 것은 또한 당 사상 사업의 자체 발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다.

당이 제시한 공산주의 교양의 명확한 방향과 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대중을 교양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 선배들, 공산주의자들의 산 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며 그들 속에서 일어 나는 긍정적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천리마 기수들을 육성하였으며 뒤떨어진 사람들을 성과 있게 교양 개조하였다.

그리 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되였으며 그들의 정치 도덕적 풍모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 났다. 근로자들 속에서는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공산주의적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거둔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당은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심화 발전시킬 것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중심 문제로 나서는 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맑스-레닌주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 속에서 과학적 세계관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근로자들 속에서 꽃 피고 있는 공산주의적 기풍, 아름다운 풍모들은 그것이 과학적 세계관에서 흘러 나오는 것일 때에만 공고한 것으로, 지속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과학이다. 과학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기초 지식이 요구된다. 이것이 없이는 맑스-레닌주의의 진수를 옳게 리해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 세

계관을 철저히 확립할 수 없다.

당 정책 교양을 심화시키기 위하여서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자기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특수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를 구체화하고 풍부화하며 발전시키고 있다.

당 정책에는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므로 당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일정한 리론적 준비가 요구되며 정치, 경제, 기술, 문화 등 각 방면에 대한 일정한 지식이 요구된다.

특히 오늘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됨과 관련하여 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과 과업들의 리론적 내용이 더욱 심오하여지고 있는 사정은 당 정책 교양의 리론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일 것을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에 와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의 리론적 수준과 일반 지식 수준을 더 높이지 않고서는 당의 의도를 옳게 받아 물 수 없으며 당이 제기하는 과업들을 정확히 해결할 수 없게 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 발전이 요구하는 가장 절박한 과업의 하나이다.

2

전반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인다는 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 리론 및 사상 의식 수준, 기술 문화 수준, 일반 지식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초급 중학교 졸업 정도로, 정치 리론 수준은 맑스-레닌주의 원리와 당 정책을 자체로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우수한 선동원, 강사의 수준으로, 경제 기술 지식은 기술 학교 또는 고등 기술 학교 졸업 정도로 높이며 모든 사람들의 사상 의식과 문화적 소양을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 생활에 상응하게 높인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뒤로 미룰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그리고 수년 내에 해결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다.

이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동시에 대상하는 일인 것 만큼 상설적인 교육 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기본으로 될 수 없으며 주로는 일하면서 배우는 체계를 통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태산같으며 모든 일이 시간적으로 긴장되여 있다. 학습 과제는 방대하며 본신 사업도 매우 바쁘다. 그렇다 하여 학습을 안 할 수 없으며 학습을 위하여 사업을 희생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요구되는 학습 시간을 충분히 짜낼 수 없으며 일반적인 강조나 단순한 조치만으로는 이 과업을 성과 있게 보장할 수 없다.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이와 같이 긴절하면서도 매우 힘든 사업이므로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머리를 쓰며 이악하게 달라붙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우리 당 조직들, 매개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학습의 량과 시간 간의 모순을 어떻게 풀며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이 과업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로 나서

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모든 사업에서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 방도를 바로 대중들, 우리의 많은 당 조직들의 실천적 경험들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또 거기에서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의 꾸준한 노력과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특히 모든 부문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행정을 통하여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사업은 점차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대중은 이것을 절박한 생활 상 요구로 접수하고 자기의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이미 그의 해결을 위한 명확한 방도들을 찾아 내고 있으며 새로운 경험들을 창조하고 있다.

황해 남도 옹진군 념불리 국사봉 세포, 함경 남도 덕성군 니망지리, 자강도 동신군 문화리, 평안 남도 숙천군 소은리 당 위원회, 함경 북도 어랑군 룡평 협동 농장 제 4 당 분세포, 흥남 비료 공장 변류 직장 당 위원회 등 일련의 당 조직들에서 창조된 경험들은 학습에서 낡은 틀을 완전히 마스고 그것을 혁명적인 방법으로 전환시킨다면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학습을 낡은 틀에서 완전히 벗어 나게 하고 혁명적 방법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학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진행하며 학습 강사만이 아니라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선생이 되여 구체적으로 짜고 들어 당원들과 군중을 인내성 있게 가르치며 학습을 자습의 방법으로 철저히 전환시키면서 그것이 근로자들 속에서 완전히 생활화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에서 이러한 방법은 가렬한 전투마당에서도, 고난에 찬 행군의 길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서로 배우고 가르쳐 주며 한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학습을 한 항일 투사들의 혁명적 학습 방법을 오늘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구현한 것이며 심화시킨 것이다.

당은 바로 이 학습 방법을 전 당에 일반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기 위한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해결하려 한다.

당의 이 요구를 옳게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이 이미 창조한 구체적 경험들을 연구하며 그것을 적극 일반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면 대중 속에서 창조된 경험이란 어떤 것인가? 이 경험들을 개괄하여 특징 짓는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학습을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당면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매개 근로자들로 하여금 학습에서 뚜렷한 목표와 전망 계획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학습에 대한 그들의 자각성과 열성을 높이며 전반적 수준 제고를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추동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어떤 사업을 막론하고 그것이 반드시 일정한 목표와 계획을 가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학습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누구든지 자신의 목표와 전망을 정확히 알며 앞날에 대한 희망과 궁지를 가질 때에는 학습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열의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매개 사람들에게 그들의 준비 정도, 장래의 희망,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 우에서 정치 지식, 일반 지식, 기술 문화 지식 등 전반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망을 안겨 줄 때 그들은 사업에서 무한한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더 많이 배우기 위하여 머리를 쓰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중 자신이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문제의 성과적 해결을 보장하는 선결 조건으로 된다.

학습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게 하는 것은 또한 개별적 대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지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개별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지도는 그의 수준, 전공, 취미, 희망 등에 대한 세밀한 료해 장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전망적인 목표와 학습 계획의 수립, 그 행정에 대한 정확한 지도는 바로 개별적 대상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료해를 가능하게 한다.

당 조직들은 개별적 대상들의 실정에 정통함으로써만 그들에 대한 전망적인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세워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택하도록 도와 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

함경 남도 덕성군 니망지리 당 위원회의 경험은 매우 긍정적이다.

리당 위원회는 농장원들의 전반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을 계획화하며 체계적으로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는 데 착안하였다.

물론 애로와 난관은 있었으나 리당 위원회의 끈기찬 노력과 구체적인 지도에 의하여 1,300 명 전체 농장원들의 전망적인 자체 학습 계획이 작성되였다.

이에 의하면 1965년까지의 기간에 농장원 41 명은 공산 대학 졸업 정도에, 150 명은 군당 학교 졸업 정도에 도달시키며 160 명은 근로자 중학교를, 200 명은 근로자 학교를, 200 명은 기술 학교를 각각 졸업시키며 35 명의 기사와 150 명의 기수를 양성하게 되여 있다.

이러한 목표에 의하여 이 리 내에서는 우선 정치 리론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 체계로서 공산 대학급의 학습반과 군당 학교급의 학습반이 조직되였다. 또한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 체계로서는 근로자 학교와 근로자 중학교 그리고 기술 지식 습득을 위한 것으로는 기술 대학과 고등 농업 전문 학교 통신반 및 기사 기수 검정 시험 응시반과 기술 기능 전습반이 조직되였고 매 체계마다에는 호조반이 조직되고 지도자가 선출되였다.

리당 위원회는 이 모든 체계들을 통일적으로 틀어 쥐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전망 계획에 예견된 자체 목표에 따라 년간, 월간, 주간 계획을 어김 없이 수행하게 되였으며 자기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였다.

둘째로, 학습을 정기적인 학습회를 통하여서만 진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집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하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즉 정기적인 학습을 준비 있게 잘 조직 진행하는 한편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포전에서도, 집에서도, 오가는 길'가에서도, 가능한 모든 시간과 조건들을 다 리용하여 학습 토론을 진행하며 또 각이한 실정과 수준에 맞게 담화, 해설, 론쟁, 발표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학습에서 격식을 마스고 그를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용해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우선 가장 긴장되고 풀기 어려운 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우점이 있다.

제한된 학습 시간만으로는 전반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많은 량의 학습을 보장할 수 없으며 여유 시간을 더 많이 내기 힘든 조건 하에서 이것은 가장 효

과 있고 힘 있는 방법이다. 사실 상 시간과 장소와 격식에 구애뫼이 없이 어데서나 학습하고 토론하며 론쟁할 때에는 학습 시간을 따로 더 설정하지 않고도 더 많은 것을 효과 있게 배울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또한 매개 단위의 구체적 실정과 개별적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학습을 다양하게, 실속 있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학습 내용을 끝까지 리해하도록 하며 창조적인 토론과 론쟁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더 높일 수 있게 한다.

평안 남도 숙천군 소은리 당 위원회의 경험이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리당 위원회는 우선 현실 생활과 대중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적용하며 온갖 시간과 장소를 리용하여 학습을 활발히 조직 진행하고 있다.

리당 위원회는 일정한 장소에서 집체 학습을 집중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호조반에서의 토론을 주로 표전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와 시간을 다 리용하여 활발히 조직하였다. 이 토론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으며 료해 정도를 검증할 수 있었다. 호조반에서의 토론을 통하여서도 아직 리해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당적 분공에 의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담당하여 그들이 완전히 학습 내용을 리해할 때까지 가르쳐 주었다. 이리 하여 소은리 당 위원회는 정치 리론 문제는 물론 일반 지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일정한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었다.

세째로, 학습 강사만이 아니라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선생이 되여 구체적으로 짜고 들어 당원들과 군중들을 인내성 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강사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전체 당원들과 군중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없다는 데로부터 나오는 응당한 결론이며 또 최단 기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다. 교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하며 수준이 한 계단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담당하여 교양함으로써만 강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시에 교양할 수 있다.

많은 당 조직들에서 당적 분공에 의하여 간부들과 수준이 높은 당원들은 수준이 어린 당원들을, 당원들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수의 비당원들을 책임지고 교양하게 됨으로써 지금 이 사업은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여 가고 있다.

이 방법의 생활력은 광범한 선전 핵심에 의거하여 군중 교양을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며 모든 사람을 그들 담당 지도하는 사람들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도록 함으로써 이 사업을 보다 대중화하고 조직화한다는 데 있다.

근로자들은 구체적인 개별 지도를 받게 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더 쉽게, 더 공고하게 습득할 수 있으며 개별 지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과 사업 경험들까지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리 하여 모든 당원들은 간부들과 수준 높은 당원들의 수준에까지, 군중은 당원들의 수준에까지 급속히 접근해 가게 될 것이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만큼 군중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은 또한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자기가 맡은 사람들의 수준을 높일 데 대한 당적 책임감을 높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치 신무적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자극을 부단히 받게 하며 또 군중을 교양하는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그의 교양자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게 한다.

실지 군중 교양에 부닥쳤을 때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부족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

자신이 더 많이, 더 깊이 배워야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자질을 더욱 높이게 하는 훌륭한 자극으로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당원들을 움직이게 하며 그들을 정치 활동가로 육성한다는 데 또한 의의가 있다.

네째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독서 기풍을 확립하고 학습을 자습의 방법으로 철저히 전환시키며 이것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우선 매개 사람들이 자체로 시간을 짜내며 학습을 자신이 책임 지고 조직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제기되는 방대한 학습 과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자신의 사상을 단련하며 정치 지식, 기술 문화 지식, 일반 지식 등 많은 지식을 소유하자면 학습 강사의 지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학습 강사의 지도는 극히 필요한 리론과 지식을 주며 그것도 기본 사상을 리해할 수 있게 하는 데 불과하다.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배우며 알기 위하여 애쓰며 자체로 학습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많은 학습을 도저히 다할 수도 없으며 소화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가르쳐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습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 지며 자체로 노력해야 한다.

이 방법은 또한 지식을 더 깊이 있게 폭 넓게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진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자체로 사고해야 하며 그것을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자신이 깊이 연구하고 사고한 기초 우에서 얻어진 지식만이 쓸모 있고 훌륭한 지식으로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 받은 지식, 이것저것 주어 들은 지식만 가지고서는 리론의 진수를 파악할 수 없고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실천에 정확히 구현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에서는 어디까지나 자습이 기본으로 되여야 한다.

만일 남이 가르쳐 주기만을 기다리고 자습을 게을리한다면 학습한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자신의 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일 수 없게 될 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독서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며 자립적으로 연구하고 부단히 사고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은 학습을 심화시키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

대중이 창조한 이상과 같은 우수한 경험들에서 우리는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 제고의 훌륭한 방도를 찾을 수 있다.

이 경험들은 당 조직들이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일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관철시킨 결과에 얻어진 것이며 또한 대중이 이것을 접수하고 여기에 적극 동원된 결과에 창조된 것이다.

모든 당 조직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반화하며 그를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3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기 위한 사업이 성과 있게 수행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 특히 지도 일군

들이 이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데 달려 있으며 매개 당 조직들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학습을 혁명적 방법으로 전환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들에서는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그의 수행 과정에서 창조된 혁명적 방법의 내용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그것을 담당한 일군들—초급 당 및 세포의 간부들과 학습 강사, 선동원들 속에 정확히 인식시키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사상 동원 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지 않고서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철저히 진행하며 매개 사람들의 년령, 의식 수준, 지식 정도, 사업 조건 등 개별적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당 위원회들은 부문 별로 한 단위에서 구체적 실정에 맞는 경험을 창조하고 이것을 통하여 실지 현지에서 실천적 모범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각이한 사업 조건에 적합한 실제적인 방도를 찾아 낼 수 있다.

만일 자기의 구체적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내용이 창조한 학습 경험을 기계적으로 도입한다면 그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응당 거둘 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 하게 될 것이다. 례하면 농촌과 공장의 경우를 들어 말할 수 있다.

농촌에서는 그의 특성에 비추어 호조반을 조직하고 토론을 일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포전에서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으나 공장에서는 그와 꼭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고도로 조직화된 생산 공정과 한시도 긴장성을 늦출 수 없는 작업 조건들, 그리고 주택이 한 곳에 집결되여 있지 못 한 조건들은 일률적으로 농촌과 같이 호조반을 조직할 수 없으며 작업을 진행하면서 학습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공장에서는 공장 대로 자기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이 방법을 도입하여야 하며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광산, 림산, 수산 등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는 각기 자기의 구체적 실정들에 맞게 이 방법들을 도입하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짜고 들어 새로운 경험들을 창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을 부단히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임에 있어서 선전 핵심들의 역할을 높이는 데 심중한 주목이 돌리져야 한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이 사업은 사람들의 의식과 수준을 높이는 가장 어려운 일인 것 만큼 선전 핵심 력량을 꾸리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 투쟁을 대중화하는 것도 바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이 사업의 선단에 서서 나갈 수 있는 선전 핵심들의 역할 여하에 달려 있으며 또 이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며 실속 있게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도 역시 매개 단위의 선전 핵심들이 얼마나 준비되여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은 선전 핵심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그들과의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며 일상적인 사업과 선전 투쟁 과정을 통하여 그의 대열을 최대 강화하여야 한다.

학습 자료를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 사업을 보다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전반적 수준 제고를 위한 투쟁

이 확대 발전되고 모든 사람들의 학습 열의가 높아지며 독서 운동이 광범히 전개될 때 학습 자료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과 도로부터 학습에 소요되는 각종 학습 자료들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업을 잘 조직하여야 한다. 동시에 시, 군당 특히 초급당 조직들에서 교양 자료를 정확히 배포하며 자체 내에 보유하고 있는(학교, 도서실, 민주 선전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 모든 자료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도록 조직 사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모든 사업을 잘 하자면 무엇보다도 당 조직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특히 당원들과 군중을 직접 대상하며 이 사업을 직접 조직 집행하는 초급 당 및 세포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당 위원회들은 자기 산하 초급 당 및 세포들이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짜고 들어 인내성 있게 진행하도록 구체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어야 한다.

세포, 초급 당 조직들에서 사상 동원 사업을 옳게 조직하며 자체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데 기초하여 매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망 학습 목표를 정확히 세우게 하며 그의 보장 대책을 옳게 강구하고 경험을 제때에 일반화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기 위한 사업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크다.

당 조직들과 전체 당원들은 전력을 다하여 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자!

현실의 요구에 맞게 수매 사업을 개선하자

한 대 영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과 구체적 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한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광활한 앞길을 밝혀 준 강령적 문헌이다.

우리의 전체 로동 계급과 농민들은 테제가 제시한 휘황한 전망을 무한한 감격과 흥분 속에서 내다 보면서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결 같이 일떠서고 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 앞에는 김 일성 동지의 테제를 계속 심오히 연구하여 그의 내용과 사상을 완전히 파악하는 동시에 각자의 위치에서 테제가 제기한 요구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테제는 우리 수매 부문의 활동에서도 일대 전변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매는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공고화하는 데 직접 복무하는 부문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근로자들의 수요의 장성은 공업과 농업, 생산과 소비 간의 더욱 밀접한 결합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업은 식량 및 원료의 공급자인 농업의 급속한 발전이 없이는 부단히 장성할 수 없으며 반면에 농업의 급속한 발전은 공업이 자기의 지도적 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이러한 호상 관계는 적지 않은 경우 상품 류통 체계, 특히는 수매를 통하여 실현된다.

또한 수매는 일반적으로는 인민 경제 체계에서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는 공간이며 특수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사회주의 농업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는 상품 류통의 한 형태이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는 수매를 통하여 부단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사회주의 공업에 자기의 생산물을 공급하며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필수품을 판매 공급한다.

뿐만 아니라 수매를 거쳐서 협동 농장 및 농장원들의 리익과 국가 및 사회적 리익의 결합이 이루어지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이 더욱 강화된다.

우리 당은 수매가 노는 이러한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시종 일관 그를 부단히 강화하는 데 신중한 주목을 돌려

왔다.

당은 우리 나라 공업과 농촌 경리의 각이한 발전 단계에 따라 수매가 놀아야 할 기본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매개 경제 발전 단계의 구체적 요구에 적응하게 그의 성과적 실현을 보장하여 왔다.

아직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진행되기 전 시기 수매 사업은 주로 생산 수단의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공업과 분산된 소규모 개인농 경리 간의 련계 형태로 진개되였었다.

이 시기에 수매는 무엇보다도 량곡, 육류, 면화 등 일련의 중요 농산물 류통에서 사자본주의적 요소의 영향을 배제하면서 분산된 소농 경리를 국가와 직접 련결시키며, 개인 농민들이 생산한 중요 농산물 특히 량곡을 국가 수중에 집중하는 한편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주민 지대에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데서 큰 역할을 놀았다. 이리 하여 당은 우리 농촌에서 개인농 경리가 지배적이였던 시기에도 공업 원료와 주민들의 식량 및 농산물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전후 시기 수매 부문 앞에는 한편으로는 인민 경제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령락된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위하여 방대한 원료와 농산물을 가일층 계획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추동하여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섰다.

당은 전후 인민 경제의 발전과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수매가 놀아야 할 역할을 명백히 규정하고 수매 사업을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적응하게 개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특히 농촌 경리에서 협동화가 급격히 추진됨에 따라 당은 과거 분산된 개인농 경리를 대상으로 하던 자유 수매 방법 대신에 예약 수매 형태를 광범히 적용하게 하였다.

예약 수매는 공업이 새로 탄생한 농업 협동 경리들에 재정적, 생산적 방조를 더욱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줄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였다.

당은 예약 수매 형태를 통하여 아직 협동 경리에 망라되지 못 한 개인 농민들을 협동 경리에 적극적으로 단합시키며 새로 조직된 협동 경리들에 많은 지원을 주었다. 례컨대 1955년에만 하여도 당은 협동 경리들에 1,200만 원(신화폐로)에 달하는 영농 자금을 예약금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주었으며 일부 산간 지대의 협동 경리들에는 잠견 수매 가격의 일부를 량곡으로 지불하여 줌으로써 당시 식량 사정이 어려웠던 이 지대 농민들의 생활 조건을 해결하는 데 방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은 수매 행정에서의 농민들의 로력적 부담을 각종 방법으로 덜어 주며 육류를 비롯한 일부 농산물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하고 그들의 현금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

이 모든 것은 아직 경제 토대가 미약하였던 우리의 협동 경리들로 하여금 확대 재생산을 성과 있게 보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최단 기간 내에 협동 경리의 경제 토대를 급속히 강화하고 령락된 농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이와 같이 국가 수매는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하는 중요한 추동력으로서, 전후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과 인민 생활의 급격한 향상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당은 농촌 경리에서 사회주의가 전일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수매 활동을 협동 농장과 농민들 속에서 더욱 심화시키며 수매 방법에서 나타난 일체 부족점들을 철저히 청산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에 확립된 사회주의적 경리들 간의 생산물의 교류를 성과 있게 보장하였다.

사회주의의 승리 이후 우리 나라에서의 공업 특히 중앙과 지방의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바로 수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조치들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당은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농촌 경리의 부단한 앙양에 따라 수매 체계와 방법들을 더욱더 개선하였다.

특히 1960년 4월에 당은 수매 기업소들을 전문화하는 방향에서 수매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량곡 수매에서는 예약 수매 형태를 폐지하고 그것을 계획 수매 방법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담배와 면화를 비롯한 일련의 농산물에서는 현물세를 폐지하고 그를 수매 체계를 통하여 국가 수중에 집중시키게 하였으며 육류, 공예 작물, 유지 작물의 수매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더욱 제고하고 협동 농장들의 현금 수입을 가일층 증대시키게 하였다.

수매 체계와 수매 방법의 이러한 개선은 생산에 대한 그의 반작용을 강화하고 수매량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왔다.

	1959	1960	1961	1962
총수매량	100	150	206	273
계획수매	100	125	173	271
자유수매	100	226	310	200

이리 하여 우리 수매 부문은 도시와 농촌, 사회주의적 공업과 사회주의적 농업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 인민 경제의 급격한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붉은 수매 일'군 대렬이 꾸려져 있으며 농촌의 방방곡곡마다, 각 기업소들과 직장, 모든 거리와 인민반 단위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수매 체계가 확립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수매 부문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들은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요구에 상응하게 앞으로 수매 사업을 더욱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 ⁂

오늘 우리 인민은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7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나가고 있다.

금년도에 당이 내세운 과업을 실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수매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수매 부문 앞에는 작년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농산물과 각종 부업 생산물, 교자재들을 수매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에 원료를 제공하며 주민

들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각종 농산물을 원만히 공급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특히 금년에 수매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이 바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수매 부문이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총량적으로 뿐만 아니라 품종 별로 정확히 실행함으로써만 생활 필수품 생산의 일대 전환을 위한 원료들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며 또한 농업 생산의 발전에 더 큰 작용을 주고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주민들의 장성하는 농산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매 사업의 강화는 인민 경제의 더욱 급속한 발전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나라의 축적을 부단히 증대하며 외화 원천을 확대함에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한 조각의 파철, 낡은 직물이라 할지라도 모으고 모으면 곧 거대한 국가의 재부로 되며 한 키로 그람의 잎담배도, 한 그람의 역삼씨도 모두 다 귀중한 외화 원천으로 되는 것이다.

더우기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제시된 당면한 대책들의 실천은 우리의 농촌 경리 발전을 더욱 급속히 촉진하게 될 것이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를 새로운 관계에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현물세의 페지를 비롯한 당면한 대책들의 실현은 농촌 내부에서 상품 농산물의 량을 격증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 수매 사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금년도 수매 부문 앞에 제기된 이러한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수매 일'군들 속에서 교양 사업을 일층 심화시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연하게 수립된 수매 체계가 있으며 당의 배려에 의하여 튼튼히 꾸려진 수매 일'군 대렬이 있다. 특히 최근 수매 일'군 대렬은 애국 렬사 가족, 피살자 가족 등을 비롯한 당에 충실하고 열성이 높은 많은 일'군들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제 문제로 되는 것은 모든 수매 일'군들을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살림살이와 인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온갖 정열을 바치도록 하는 데 있다.

일'군들을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수매 사업 개선에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황해 남도 배천군 수매 사업소 일'군들의 경험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곳 붉은 집단은 항상 농민들의 충실한 복무자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농민들의 생활을 책임 지는 립장에서 농사일에는 일'손도 도와 주며 개별적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적극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오봉 협동 농장에 나간 일'군들은 22 세대의 애국 렬사 가족, 후방 가족들의 집을 수리해 주고 장판도 해 주고 생활에서 요구되는 공업 상품도 알선해 주었다. 또한 그들은 자체의 부업 경리에서 생산한 새끼돼지 18 마리나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기르게 하였고 무감자, 호박밭도 적지 않게 조성해 줌으로써 사료 문제 해결까지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농민들을 진정으로 도와 주는 립장에서 그들과의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배천군 수매소 일'군들은 매 분기, 매년 수매 과제를 지표 별로 초과 수행하였으며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수매 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높은 자각과 헌신성을 발휘할 때 수매 사업에서 혁신이 이룩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수매 일'군들에 대한 교양 사업에서 중요한 주목을 돌려야 할 문제는 그들을 당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수매원들은 항상 인민 대중 속에 들어 가 많은 경우에 단독으로 사업하고 있다.

그들은 한 조각의 낡은 직물, 한 그람의 닭털을 수매하기 위하여서도 항상 대중 속에서 당 정책에 대한 해설 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또한 그들은 협동 농장들에서의 육류, 공예 유지 작물 등의 생산의 부단한 증가와 그의 단위당 수확고의 제고를 적극 자극하기 위해서도, 수매품의 질을 계통적으로 높이게 하기 위해서도 항상 그에 대한 당의 방침과 기술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선전 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매원들은 단순한 실무 일'군이 아니라 당의 선전원이며, 당 정책의 해설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매 일'군들이 인민들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붉은 마음으로 사업하는가, 국가의 리익과 농민들의 리익을 옳게 결합하는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 그들이 우선 당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했는가, 못 했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과 인민 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수매원들이 분산되여 단독적으로 사업하며 항상 당 정책을 해설 선전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 대한 개별 교양, 단기 강습 등 필요한 교양 대책을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함으로써 모든 수매원들이 다같이 당의 의지로 숨을 쉬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수매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그의 계획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수매 사업에서 계획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공업 기업소들을 위한 원료와 류통 기관들을 위한 상품 원천을 계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협동 농장 생산물의 판로를 계획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협동 경리에서의 생산 계획과 그 품종 구성에 대한 확고한 담보를 준다.

오늘 우리 나라 농업은 계획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주의 경리이다. 농업에서 생산 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판매도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수매의 계획화를 정확히 실행하지 않는다면 농촌 경리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물론 수매의 계획화는 비교적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나 수매 기관 일'군들이 직접 협동 농장에 침투하여 계획화 방도를 대중과 의논하며 수매 원천을 의식적으로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시킨다면 능히 그의 계획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수매 계획화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 장악하는 것이다. 수요의 정확한 장

악은 정확한 계획 작성의 선결 조건이다. 따라서 수매 기관들은 공업 기업소들과 상업 기관들에서의 수요를 계절 별로, 품종 별로 정확히 장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수매 기관들은 수요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자료에 기초하여 협동 농장 및 국가 목장 별로 계절에 따르는 상품 농산물 생산 계획과 맞물려서 매개 품종에 이르기까지 수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수매 계획의 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공업의 수요가 농업 생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농업 생산 계획 작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수매 사업의 계획화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지대 간 교류 계획의 정확한 수립과 이에 기초한 교류 사업을 민속히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수매품에 대한 지역 간의 편차를 제거하며 비조직 시장에서의 농산물 가격의 비정상적 현상을 조절하는 중요 조건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수매품에 대한 지역 간 교류의 원만한 보장은 매개 지역들에서의 농업 생산을 확대시키며 생산 조직의 전문화를 촉진시키는 조건으로도 되는 것이다.

수매 계획화에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수매 원천을 광범히 탐구 동원하는 방향에서 계획 자체를 동원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수매 계획을 동원성 있게 작성하고 그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매 일'군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많은 일'군들의 경험이 그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강원도 세포군 내 수매 일'군들은 과거 있는 것만 가지고 소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던 낡은 방법에서 벗어나 작년에는 직접 현지에 나가서 7만 3,000여 정보의 산림 지대를 답사하여 각종 야생 섬유, 약초류, 산채류, 산과실밤 등 의식적으로 조성하고 그의 생산을 조직하는 한편 가축 부업을 조직함으로써 그 전해에 비하여 훨씬 장성된 수매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훌륭히 초과 수행하였다.

평안 남도 안주군 수매 사업소 일'군들은 군내 리별 매 농호의 돼지 사육 상태를 완전히 료해한 데 기초하여 매월 별 수매 계획을 동원성 있게 작성하는 한편 돼지를 수매할 때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새끼돼지를 알선 보장해 줌으로써 군내 무축 농가 퇴치에 적극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류 수매량을 체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수매 일'군들이 청산리 방법으로 사업하는 조건에서만 계획을 동원성 있게 작성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어김 없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수매 계획화에서 류의하여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농산물의 질을 적극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매 기관들은 협동 농장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파종, 중경, 제초, 수확, 수매 준비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을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그 사업이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우량 종자도 알선해 주고 선진 경험도 소개하며 각종 기술 실무 강습회도 조직하고 표준 규격과 그에 따르는 표본품을 사전에

협동 농장들에 제시하는 등으로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농산물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도를 친절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잎담배, 누에고치, 면화 등 질 좋은 경공업 원료를 계획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며 협동 농장원들의 수입을 추가적으로 제고케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에서 수매품의 질적 및 량적 지표와 수매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생산자들로 하여금 그 실행을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게 하는 동시에 수매 장소, 수매 절차와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사전에 알려 줌으로써 협동 농장들에서 로력 랑비 현상을 근절하며 협동 농장들에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수매를 시끄러운 것으로 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리하여 수매 기관들은 항상 당과 국가 앞에서 지닌 계약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매 기관들이 공업 기업소나 상업 기관들과 약정한 수매 계획을 리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국가 수매 계획을 책임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한편 매개 협동 농장들과 협동 농장원들 속에 수매 계획을 자각적으로 리행하도록 해설 선전 사업과 방조 사업을 부단히 진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당과 정부의 시급되는 배려에 더 많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보답하게 하여야 한다.

수매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리익과 농민들의 리익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수매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수매 가격은 협동 농장들과 농장원들의 개별적 리익과 국가적인 리익, 그리고 도시 근로자들의 리해 관계를 직접적으로 결합시키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 공간이다.

수매 가격은 매개 수매 형태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제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농장원들의 생산 열의를 제고하며 수매 사업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

농산물의 수매 가격 수준은 협동 농장 및 농장원들의 수입과 재생산을 위한 축적의 규모를 설정하는 척도로 되는 동시에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공업 제품과 전반적 시장 원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 당이 농산물 수매 가격의 옳바른 설정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당의 수매 가격 제정 원칙에 확고히 립각하면서 농산물의 생산비를 정당히 보상하며 농산물 호상간의 균형 특히 공업 상품과 농산물 가격 수준간의 균형을 옳게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인민 위원회들과 수매 기관, 기업소들은 수매 가격을 제정함에 있어서 자연 조건에 적응한 농작물의 배치와 지역 별 전문화를 촉진시켜 생산의 확대를 자극하는 방향에서, 도시와 농촌과의 리해 관계의 유기적인 통일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원칙은 자유 수매품에 대한 가격에서도 적용해야 하며 특히 비생산

적 고자재류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수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수매품에 대한 수송 조직을 기동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송 조직의 기동성은 현존 수송 수단의 합리적 리용과 소운반으로부터 기업소에 대한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수송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칙, 치밀한 조직, 적극적인 조직과 체계성으로써만 가능하다.

현지 수매가 강화되고 품종 구성이 다양해지며 매해 수매량이 현저히 장성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자동차, 우마차 등 수매 기관, 기업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송 수단만으로는 장성하는 수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수송 전문 기관과 군 농기계 작업소와의 긴밀한 련계 밑에 각종 운수 수단들의 합리적 리용을 위한 방도를 계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능률적인 적재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수송 수단의 리용률을 높이며 수매품의 체화 현상을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오늘 수매 사업을 변천된 현실에 적응하게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매 사업에 대한 당 조직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수매 일'군들 속에 남아 있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격렬한 투쟁을 조직 전개하며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 농촌을 위하여 진심으로 복무하는 옳은 군중 관점을 확립하도록 하는 문제가 극히 중요하다.

수매 부문에서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수매 일'군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동시에 수매를 상업적 방법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야 한다.

수매를 상업적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수매 부문에서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다. 당 조직들은 수매 일'군들로 하여금 주민들 속에 들어 가서 현지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수매 활동을 전개하게 하여야 한다.

즉 농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가지고 교환도 하며 그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여 봉사성을 각 방면으로 높임으로써 수매 사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 조직들은 협동 농장들이 상품 농산물 생산과 부업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수매 기지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며 모든 농민들이 수매 원천 탐구 사업에 의식적으로 참가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급 당 조직들은 현 시기 수매 사업이 나라의 경제 생활에서 노는 역할과 특히 농촌 경리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서 노는 거대한 역할을 옳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모든 수매 부문 일'군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심오히 연구 체득하고 테제가 가리키는 바를 따라 당이 수매 부문 앞에 제시한 금년도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자.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의 지역적 거점

김 양 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지난 시기 우리 당이 농촌 건설 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들을 과학적으로 분석 총화하고 이 분야에서 계속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과 그 해결의 기본 원칙,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였다.

테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의 극복 문제를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종국적 과업으로 규정하고 이 과업의 성과적 해결을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로서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을 어떠한 지역적 단위와 거점을 통하여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1962년,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에서 정식화된 원칙을 발전시켜 재천명한 것이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에서 지역적 거점이 가지는 의의와 역할은 이미 실천 행정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1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가 지역적 거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주로는 농촌의 분산성과 관련되여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농촌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하나이며 그것은 국가가 각지에 분산된 마을과 작업장,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도와 지원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극복할 데 대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과업은 과거 착취 계급을 타도하고 낡은 사회 제도를 청산하던 과업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다.

그것은 우선 과거 농촌 사회 발전의 력사적 특수성과 관련되여 있다.

농촌은 공업과 농업의 분업이 형성된 오랜 옛날부터 전 력사적 기간에 걸쳐 지배 계급의 경제적 착취와 억압의 주요한 대상으로 있으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비렵을 받아 왔다. 이것은 농민들의 생활을 령락과 빈궁에로 몰아 넣었으며 농촌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게 한 기본 요인으로 되였다. 계급 사회가 출현한 때로부터 농민은 무지와 몽매 속에서 좁은 땅떼기를 다루는 자로서 고립된 생활을 하여 왔으며 그 어느 때에도 력사 발전의 기본 력량으로 되여 본 일이 없으며 계급 투쟁의 선두에 서 본 일도 없다.

오늘 농민 계급이 사상, 기술, 문화면에서 로동 계급에 비하여 뒤떨어져

없는 것은 이러한 과거 농촌 사회 발전의 조건, 농촌 사회 발전의 력사와 중요하게 관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락후성은 력사적인, 세기적인 산물인 것 만큼 그의 극복을 위한 투쟁도 장구한 시일과 복잡한 과정을 요구한다.

농촌 사업이 복잡하고 어려운 다른 중요한 원인은 농업의 자연-기후적 제약성이다.

농업은 다른 모든 생산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연을 정복하는 투쟁이지만 특히 다른 생산 분야와는 비할 바 없이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생산 분야이다. 농업은, 불리한 자연-기후적 조건들을 부단히 극복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촌 사업이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되는 것은 농촌의 분산성 때문이다.

농촌은 농업 생산의 기본 수단인 농토 자체가 널리 분포되여 있기 때문에 그의 분산적 성격을 면할 수 없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 혁명의 성과적 추진으로 하여 농업의 자연적 제약성이 상당한 정도로 극복되였고 농촌의 분산성도 협동화의 완성으로 하여 현저히 극복되였다.

그러나 농촌의 분산성은 여전히 도시 및 로동자구와 농촌을 구별케 하는 기본 징표의 하나로 되며 이것은 미래 사회에 있어서도 일정한 정도로는 계속 남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하에서도 농촌 지도 사업의 기본은 분산된 농촌 마을과 분산된 작업장에서 소집단으로 살며 일하는 농민들과의 사업으로 되며, 로동 계급에 비하여 아직 기술, 문화, 사상-의식 수준에서 뒤떨어져 있는 농민들과의 사업으로 된다.

농촌의 모든 사업은 이러한 사정에 부합되게 조직 진행되여야 하는바 여기에는 불가피적으로 지도의 통일성과 구체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 요구를 해결하자면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 발전의 지역적 특수성, 자연-기후적 특수성을 고려한 일정한 지역적 지도 단위를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 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 지역 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다.》(해제)

이러한 지역적 단위의 설정은 대규모의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급격히 실현되게 되였으며 영농 기술도 급속히 발전되게 되였다.

기술을 도입한 대규모의 농업 생산은 본질에 있어서 기술 공정으로 된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는 기술 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공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술 공정으로 되는 로정을 걷고 있다.

농업 생산이 기술 공정으로 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지도와 관리 운영도 과거의 행정적 방법 대신에 새로운 방법—기업적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동시에 《어떤 규모를 한 개 단위로 하여 기업적 관리 운영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 한다. (김 일성,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하여》) 주 농업에 대한 기업적 지도는 일정한 단위의 거점을 가짐이 없이 진행될 수 없다. 공업과는 달리 전국 각지에 분산되여 진행되는 농업 생산을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위의 지역적 거점이 설정되여야 한다.

농촌 사업의 지도에서 지역적 거점의 필요성은 또한 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종합적인 경제 문화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할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도 관련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이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이것은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경제 문화적인 종합적 발전을 보장함이 없이는, 도시와 농촌을 골고루 발전시킴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공업 생산력을 전국 각지에 골고루 배치하고 모든 농촌 지역에서 경제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자면 불가피적으로 각지의 일정한 단위들에 정치, 경제, 문화 발전의 종합적 거점들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거점들을 통하여 그러한 요구를 실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지역적 거점의 설정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 맑스-레닌주의당과 사회주의 국가의 목적에도 부합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는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근로자로서의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책임 지며 그들의 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린다.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촌에 공업 상품을 원활히 보장하며 농촌의 농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주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이러한 련계의 결정적 공간은 사회주의 국가의 공급 및 수매 체계이다. 그러나 국가는 공급 및 수매 사업을 일정한 기지도 없이 분산된 농촌들을 전체적으로 대상하여 막연하게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일정한 지역적 단위의 기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지—지역적 거점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농촌에 대한 공급 및 수매 사업, 그것을 통한 농민들의 생활 문제 해결이 크게 좌우된다.

김 일성 동지는 력사적인 창성 련석 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지역적 거점이 가지는 의의를 분석하면서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시키는 데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도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맑스-레닌주의의 창시자들은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조화롭게 발전된 일정한 지역적, 경제 문화적 생활 단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러한 단위가 경제적, 문화적 발전의 거점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하나의 통일적 과정이며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공산주의적 요소들이 발생하며 준비된다. 사회주의 하에는 당대적인 성격을 띠는 것과 함께 공산주의 하에서까지 남아 있게 될 항구적인 것이 맹아적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여기로부터 맑스-레닌주의당은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벌써 공산주의의 맹아적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창설하고 발전시켜 점차 완성시켜야

할 과업을 제기한다. 《프로레타리아 국가 주권의 지원 하에서 공산주의의 싹은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자라서 완전한 공산주의로 성장할 것이다.》(레닌 전집 제 29 권, 317 페지)

미래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거점의 원형은 물론 맹아적 형태로서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공산주의적인 것으로 발전 완성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앞으로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 다른 국가 기구들은 다 없어져도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경제적 거점》,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서의 지역적 거점은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농촌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에로의 이행을 준비함에 있어서 지역적 거점을 창설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사상은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맑스-레닌주의적 사업 방법의 제 원칙들에 근거하여 내려진 결론으로서 그것은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2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해결에서와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의 지역적 거점의 설정은 매개 나라의 자연 경제적 및 기타 특수성에 따라서, 또한 매개 나라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 각이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적 거점을 설정하는 징표도 일정하게 각이한 것들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요구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역적 거점은 그 단위의 전체 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 만한 지도 력량과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거점이 지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일정한 크기를 가져야 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자연-지리적 차이와 경제 문화적 발전에서의 차이가 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지도 단위의 크기가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거나 그 단위에서의 자연-지리적 조건들이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면 구비하고 있는 물질적, 문화적 수단들과 자원을 해당 단위 내에서 또는 전국적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없으며 지도의 통일성과 구체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지역적 거점의 설정에서 기본 문제는 여기에 있다.

거점은 바로 어느 정도로 큰 지역의 범위를 포괄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즉 리적 단위냐, 혹은 군, 도적 단위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의의와 역할이 전적으로 달라진다. 지역적 단위의 포괄 정도는 바로 그 활동 중심에 놓여질 거점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량과 복잡성, 련계의 정도를 표시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일정한 지역적 단위 내에서도 생산력의 발전 수준, 문화 발전 수준 등에 따라서 그 범위가 포괄하는 사업 량과 내용, 복잡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거점의 기능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가 구비하는 제반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의 장성 확장에 따라서 변화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호상 상대적 성격을 띠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고찰될 수는 없다. 즉 일정한 지역적 단위에서의 사업 량의 장성만 생각하여 그 단위가 좁게 설정되여야 지도와 지원을 옳게 보장할 수 있다거나 또는 거점의 역할이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여 그가 포괄하는 단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다는 식으로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역적 단위와 그의 거점의 설정 문제는 그 량자의 위치와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기초 우에서, 또 그것이 전국적인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과 련계를 옳게 고려한 기초 우에서 설정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단위가 군 범위로, 그 거점은 군급 지도 기관들과 경제, 문화 기관들 및 그것들이 집중된 군 소재지로 설정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이 농촌 사업과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 단위로 되고 있으며 거점으로 되고 있다. 우리의 군들은 그 크기에 있어서나 간부와 지도 기관들, 물질 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단위로서 가장 적합하다.》(테제)

만일 리에 대해서 문제를 설정해 본다면 리는 농촌 건설의 지역적 거점으로서는 너무 작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리는 그 실정으로 보아 자체에 도시를 건설하고 공업 기지와 수매 공급 거지, 문화적 기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구비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단위이다. 우리의 리는 아마도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 간 다음에도 농촌의 마을로 남아 있을 것이며 다만 그것이 고도로 문명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마을로, 훌륭한 생산 공급 봉사 세포로 꾸려질 마을일 것이다.

반면에 군보다 더 큰 도를 생각해 볼 때에도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거점으로서는 리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도는 간단히 고찰해 보아도 너무나 넓은 범위의 지역과 발전된 수다한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고 있다. 범위가 넓음으로 하여 자연 지리적 차이가 심하며 많은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고 있음으로 하여 경제, 문화적 련계가 매우 복잡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벌써 농촌을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기가 곤난하다. 또 여기서는 농촌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서 불가피하게 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니 만큼 그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여야 한다는 지역적 거점의 요구를 실현하기도 곤난하다.

결국 군이 농촌 건설의 거점으로서는 가장 적당하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가 수행하는 역할은 실로 거대하다. 우리 나라의 군은 직접 농촌과 로동자구를 지도하며 농민들과 로동자구 주민들의 살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행정 말단 지도 단위이며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의 거점으로 되고 있다.

당은 군의 이와 같은 위치와 역할로 보아 그의 발전에 항상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다.

3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새 환경의 요구에 맞게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국가 관리 기구와 국가의 행정 구획을 정비하고 사업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왔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을 강화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

끝 가지는 조치였다.

특히 당은 행정적 단위들을 정비함에 있어서 지방적 특성들을 충분히 타산하여 그것이 장차 정치, 경제, 문화적 발전의 종합적 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당은 일찌기 군과 리 사이의 행정 단위였던 면을 없애고 군과 리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군으로 하여금 농촌 리에 더욱 접근할 수 있게 하였고 당과 정부의 시책이 신속히 하부에 침투될 수 있게 하였다. 당은 또한 지방 정권 기관의 조직에서 주권 기관과 집행 기관의 기능, 사업 한계를 명백히 하여 놓음으로써 지방 인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새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게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당은 협동화가 끝난 후 협동 농장들을 리 단위로 통합하고 리를 기본 생산 단위-생산 세포로 전환시킴으로써 군이 하부 말단 지도 기관의 역할을 담당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군은 농촌과 로동자구를 직접 지도하는 정치적 거점으로 되였다.

군을 통하여 당과 정부의 모든 정책과 방침이 군중 속에 침투되며 군이 직접 당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대중을 그 관철에로 조직 동원한다. 군이 직접 군내 주민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을 조직 집행하며 각계 각층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워 농촌 진지를 공고히 하는 사업을 담당 수행한다.

총체적으로 말하여 군의 역할 여하는 농촌의 전반적 사업의 성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은 군을 갈 꾸리는 데 시종일관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는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함께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군을 단위로 지방 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방침을 취하였다. 이 결정이 관철된 결과 매개 군에는 평균 10여 개의 공장들이 창설되여 과거에는 적지 않게 도시와 공업으로부터 고립되여 있던 농촌 지대가 도시에 접근되고 공업과 농업이 더욱 밀접히 결합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였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지방의 농산물을 비롯한 지방 자원에 의거하여 운영됨으로써 농업 생산의 발전을 크게 자극하며 농촌 경리를 다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고 있다.

이리하여 지방 공업의 발전은 군을 공업과 농업 발전의 종합적인 경제 단위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오늘 우리의 군들은 농촌 경리와 지방 공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그 생산물로 군내 주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단위로 되고 있다.

군은 자기의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도시 및 농촌 지역과의 경제적 련계를 보장 강화하고 있다. 군은 중앙 공업과 도시에서 생산되는 생산 수단, 기술 생산물, 생활 필수품을 농촌에 공급하며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각종 원료를 도시로 공급한다.

공업과 농업의 모든 경제적 련계,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를 실현하는 공간들을 군이 직접 장악하고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은 지방 경제 발전의 종합적 단위일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경제적 거점이며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이다.

지방 공업의 발전은 농민들의 생활 향상과 공업과 농업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 공장 로동자들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더욱 강화하며 기술과 공업 생산 문화를 배워 줌으로써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추진하며 로농 동맹을 강화하는 데서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군은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 수행할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며 이 두 소유 형태들 간의 유기적 련계를 보장하는 공간으로 되고 있다. 국가는 군을 단위로 하여 협동 경리의 농업 생산에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들에 전 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군은 문화 발전의 종합적 기지로서 농촌 문화 혁명을 지원하며 도시 문화를 농촌에 들여 보내는 거점이다. 군에는 수 개의 농업 부문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들이 있어서 군내에 소요되는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군에 있는 수백 명의 교원 집단과 의료, 문화 일'군들은 농촌 문화 혁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매개 농업 부문 학교들에 있는 과학 기술 집단과 실습 농목장, 각종 연구 시설과 기구들은 농촌에 새로운 영농 과학 기술을 보급 일반화하는 믿음직한 힘으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의 군들은 문화 혁명 수행과 문화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다. 군이 직접 군내의 모든 교육, 보건, 문화 기관들을 지도 운영한다. 군은 농민들 속에서 군중 문화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진행한다. 군을 통하여 신문, 잡지, 도서들이 농촌에 들어 가며 도시 문화가 들어 간다. 이리 하여 군은 농촌에서 뒤떨어진 봉건 잔재와 낡은 생활 풍습을 없애고 농민들의 사상 의식과 문화 수준을 높이며 그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 문화 혁명에서 군 소재지를 꾸릴 데 대한 당의 방침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농민들이 수도나 도 소재지에 수시로 래왕할 수 없는 조건에서 농촌에 린접한 군 소재지를 잘 꾸리고 그것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도시 문화와 생활 풍습을 직접 보여 주어 배우게 하는 것은 농촌의 문화 혁명을 더욱 빨리 촉진시키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이 방침은 당이 사회주의 하에서 긍정적 모범이 가지는 의의와 농민의 심리적 특성을 잘 타산한 기초에서 제기한 것의 하나이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농민들에게 남아 있는 낡은 제도의 유산과 습관을 극복하는 것은 세대적 투쟁을 요하는 사업이며 최대의 인내성과 체계성, 그리고 더 많은 조직자적 예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농민들의 교양 개조에 적용되는 기본 방법은 평범한 일상적인 실례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되여야 하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진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산 구체적인 행동으로써, 모범으로써 설복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 방법은 우리 당이 농민에 대한 교양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였고 또 견지하고 있는 기본 방법이다. 당은 신물 교육과 자원성의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소농 경리를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

로 개조하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당은 또한 농촌의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끝난 후에는 농민들의 생활에서 낡은 인습과 그리고 이와 련결된 타성의 힘을 극복하는 어려운 사업을 모범의 힘에 의한 감화 교양의 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군 소재지를 농촌에 대하여 새로운 생활 양식의 표본으로 꾸리는 것은 당의 이러한 방침의 계속이며 농촌에서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려는 목적에 완전히 부합된다.

당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군내 기관들의 조직 체계와 사업 방법을 고치는 사업에도 큰 관심을 돌렸다. 이에 있어서 력사적 사변으로 되는 것은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과 청산리에 대한 지도 사업이였다.

모든 기관들의 사업에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이 관철됨으로써 당시 아직 하부 말단 지도 기관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새 환경의 요구 수준에 잘 적응시키지 못하던 군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켰다. 군내 일'군들은 낡은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농장과 작업반에 대담하게 내려가 농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그 집행을 구체적으로 도와 주는 사업 방법을 구현함으로써 군의 사업을 새 환경의 요구의 수준에로 추켜세웠다.

농촌 사업의 규모가 넓어지고 복잡하여져서 군 인민 위원회가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요구에 순응할 수 있게 되자 당은 또한 전문적 농업 지도 기관인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조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경리 발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였다. 경영 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전 인민적 소유가 협동적 소유에 더 넓게, 더 깊게 침투하게 되였으며 기술, 문화, 사상의 각 방면에 걸쳐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당은 군당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였으며 군 인민 위원회로 하여금 상업, 류통, 교육, 문화, 보건, 국토 관리 등 사업에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군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결실을 가져 왔다. 그것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로 된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하며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와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더욱 증대하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부단히 접근시킴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계속 높일 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와 명백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에게는 이 과업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조건들이 마련되여 있다. 문제는 특히 군내의 모든 지도 기관들과 일'군들이 부과된 임무 수행에 충실하며 우리 당의 혁명적 사업 방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지도적 조직자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있다.

우리 나라 협동 농장들에서의 축적과 소비

리 용 덕, 전 대 영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과 방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그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당면 대책들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여 있다.

테제에서는 그러한 당면 대책들로서 앞으로 3년 동안에 농업 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며 모든 농촌 기본 건설과 농촌 문화 주택의 건설을 국가 투자에 의하여 진행할 것을 규정하였다.

테제가 제시한 이 모든 대책들은 협동 농장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며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또 하나의 인민적 시책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현 시기 협동 농장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여 농업 생산의 앙양을 가져 오게 하며 농촌 경리의 전반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조치이다.

실로 테제에서 제시된 당면 대책들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발전과 우리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추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되며 우리 당이 오늘 농촌 문제 해결에서 얼마나 멀리 전진하였는가를 보여 주는 뚜렷한 리정표로 된다.

테제에서 제시된 당면 대책들의 실현은 우리 나라 농업 협동 경리에서의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 문제 전반을 더욱 합리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 줄 것이다.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 국가 부담에 의한 모든 농촌 기본 건설과 농촌 문화 주택 건설의 진행 등 제반 조치들의 실현은 협동 농장들에서의 축적 폰드와 소비 폰드의 기본 원천인 총수입의 량적 규모를 급속히 증대시킬 것이며, 협동 농장 공동 경리의 발전을 촉진시키면서도 소비 폰드를 보다 빨리 장성시킬 것이며, 협동 경리에서 축적의 구성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 하여 이 조치들의 실현은 협동 경리에서의 축적과 소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방침을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적응하게 보다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협동 경리에서의 축적과 소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의 관철 과정을 잘 알며 테제에서 제시된 당면 대책의 실현이 그에 주게 될 거대한 영향을 정확히 리해하는 것은 테제의 내용을 깊이 있게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 ※

김 일성 동지의 테제에서 제시된 당면 대책들은 무엇보다 먼저 협동 농장들에서의 축적과 소비의 기본 원천인 총수입의 량적 규모를 급속히 증대시킬 수 있게 하는 획기적 조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협동 경리에서의 축적과 소비의 규모, 그의 장성 속도는 협동 농장 총수입의 규모와 장성 속도에 의존한다.

협동 농장 총수입을 장성시키자면 협동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농업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켜야 하며 협동 농장의 총생산물 중 국가의 수중에로 들어 가는 몫을 계통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이것은 협동 농장의 총수입을 증대시킴에 있어서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 경리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지원은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킬 수 있게 하며, 협동 농장 총생산물 중 국가 수중에로 들어 가는 몫의 크기를 체계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게 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협동 경리에서의 축적과 소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침의 하나로서 시종일관 협동 농장의 총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금번 테제에서 제시된 당면 대책들의 실시는 바로 우리 당의 이 방침을 사회주의 농업의 위력이 강화되고 자립 경제의 토대가 더욱 강력하여진 새로운 환경에서 보다 폭 넓고 깊이 있게 관철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우선 농업 현물세제를 폐지할 데 대한 당의 조치는 국가가 해마다 거액의 추가적인 수입을 협동 농장들에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된다. 이로 인하여 협동 농장들은 그 만큼 축적과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총수입의 규모를 장성시키게 될 것이다. 초보적인 타산에 의하더라도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로 하여 협동 농장들이 얻게 되는 추가적인 소득은 매년 1억 원 이상에 달하게 된다.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와 함께 모든 농촌 기본 건설을 국가 부담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한 당면 대책의 실현이 또한 협동 농장 총수입의 급격한 장성을 가져 오게 할 것이다.

그것은 당의 이 조치로 하여 우리 나라 협동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국가 투자의 참가 밑에서 빠른 기간 내에 공고화될 것이며 그에 기초하여 농업 생산은 보다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조치들 이외에도 금년부터 협동 농장들에 탈곡기, 사료 분쇄기, 전동기, 양수기, 분무기, 가마니 직조기 등 모든 농기계들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국가 부담에 의하여 농기계의 수리를 실시하며, 농촌에 공급하는 중 소 농기구의 가격을 인하하는 등 제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농장의 총수입 규모를 더욱더 증대시킬 것이다.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제반 조치들에 의하여 금년에 우리 나라의 협동 농민들은 농촌에서 진행되는 대규모적인 기본 건설비를 제외하고도 지난해의 2 배에 달하는 5억 324만여 원의 막대한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계속 협동 농장과 농장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며 농장의 총수입을 장성시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책들을 강구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협동 농장 총수입의 량적 규모를 증대시키는 우리 당의 방침은 물론 오늘에 와서 비로소 제기된 것은 아니다.

당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국영 공업이 발전하고 농업 내부의 축적이 증대됨에 따라 협동 농장과 농장원들의 현물세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 주었으며 고정 현물세제의 실시와 지방 자치세의 감면, 지대 별 수매 가격의 제정, 대부금의 면제, 농기계 작업료와 관개 사용료의 인하 등 각종 재정, 신용 및 가격 공간들을 리용하여 협동 농장 총생산물 중 국가 수중에로 들어 가는 몫의 크기를 부단히 감소시켜 주었으며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강화를 통

하여 협동 농장 총수입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여 왔다.

1963년 한 해 동안에만도 우리 당은 목화, 담배 등 수매 가격을 높이고 농업 생산용 자재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약 8천 만 원의 수입을 더 얻게 하였으며 협동 농장들에 대하여 3천 600만 원의 은행 대부금을 면제하여 주었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3,700여 개의 협동 농장들 중 3 분의 1에 해당하는 1,331 개의 협동 농장들이 작년 말까지 현물세의 납부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였다.

실로 지난 한 해 사이에만도 국가가 협동 농장과 농민들에게 준 국가적 혜택은 2억 4천 952만 원에 해당하였다.

지난 시기 우리 당이 취한 이러한 제반 조치는 원래 미약한 경제 토대 우에서 조직되였던 우리의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최단 기간 내에 축적과 소비의 기본 원천으로 되는 총수입의 규모를 급속히 증대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그것은 경제 토대도 강화하고 농민 생활도 향상시켜야 했던 어려운 과업을 동시에 성과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게 한 주요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그런데 우리 당은 이제 협동 농장과 농민들로부터 받던 농업 현물세를 완전히 면제하여 주며 종전에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실시하던 것까지 포함한 모든 농촌 기본 건설과 농촌 문화 주택의 건설을 전적으로 국가가 담당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 준 문화 주택들의 건설비까지도 모두 부담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종전까지는 나라의 자금 형편이 허락되는 한 수시로 협동 농장과 농민들에게 방조를 주어 왔다면 앞으로는 협동 농장의 자체 축적에 의하여 진행되던 확대 재생산 과정까지 국가 축적으로 보장하게 하며 따라서 국가적 방조의 성격 자체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 농촌에 대한 도시의 방조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러한 시책의 실시는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새로운 보다 적극적인 형태이며, 지금까지 우리 당이 협동 경리에서의 축적과 소비의 균형 문제 전반의 해결을 위하여 견지하여 온 방침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으로 된다.

사실 상 오늘 우리 당은 공업 내부에서 형성되는 축적만 가지고서도 능히 공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협동 농장들로부터 농업 현물세를 받지 않고도 식량과 원료에 대한 도시와 공업의 증대되는 수요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협동 농장과 농민들을 현물세의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수 있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각 방면에 걸친 지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게 되였다.

따라서 금번의 이 조치의 실현은 협동 농장들에서 축적과 소비의 량적 규모를 급속히 증대시킬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

이것은 최단 기간 내에 모든 협동 농장들을 부유한 농장으로 전변시키며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 올려야 할 현 단계의 과업 수행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게 될 것이다.

* *

협동 농장들에서의 축적과 소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그의 기본 원천인 총수입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것과 함께 그들 량자 간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조성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협동 농장들에서 총수입이 아무리 빨리 장성하는 경우에도 그를 축적과 소비에로 잘 배분하지 못 한다면 농장의 장래 발전과 농장원들의 당면한 리익을 옳게 결합시킬 수 없으며 공동 경리의 토대 강화와 농장원들의 생활

향상 문제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협동 경리에서의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 그들 간의 **호상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축적과 **소비**의 **어느** 일면에도 치우쳐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하여** 동시에 다같이 고려**를** 돌려야 할 일반적 원칙이 흘러 **나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일반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시종일관 협동 농장들에서 축적과 소비의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치는 것을 부단히 경계하여 왔다.

당은 축적과 소비에 다 같이 고려를 돌리되 농장원들의 생활이 향상되는 데 **따라** 점차적으로 축적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방침을 계속 견지하였으며, 그들 **매 시기** 사회주의 건설과 협동 경리 발**전의** 구체적 실정을 타산하여 진행되는 **국가의** 물질적 및 재정적 지원과 결합시**킴으로써** 성과적으로 관철시켜 나갔다.

금번 테제에서 제시된 당면 대책들의 **실시는** 지금까지 우리 당이 협동 경리 **지도**에서 견지하여 온 축적과 소비 간의 **이러한** 균형 관계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현 단계에 상응하게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와 함께 모든 **농촌 기본** 건설과 문화 주택 건설을 국**가 부담**에 의하여 진행할 데 대한 금번 **조치**의 실시는 이 때까지 그와 관련하여 협동 농장들에서 형성하여야 했던 **축적**의 많은 부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며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생산적 및 비생산적 기본 건설의 부담에서 벗어 **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협동 농장들이 자체의 총수입 분배에서 공동 경리의 발전을 위한 **영농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리면서**도 소비** 폰드, 그 중에서도 농장원들에**게 직접** 차례지는 분배 몫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우리 당의 금번 조치들은 협동 농장들에서 총수입의 분배를 이와 같이 하**게** 하면서도 협동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급속히 공고화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협동 **농장**들**이** 축적에 **비하여** 소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 **설정하**는 경우에도 협동 경리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는 조건에서**는 능히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공고**화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의 가일층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협동화 운동의 첫 **시기부터 이미** 협동 농장들에서 축적 폰드를 **지나치게** 높이 **설정**하지 **말며** 일정한 기간은 **축적**보다 소비를 더 빨리 **장성시키도록 지도**하여 왔다.

당의 이 방침은 **아직** 많은 협동 농장**들이** 전쟁의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 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낮았던 **당시**에 협동 농장의 경제 형편을 개선하고 생활 토대를 **공고히 합**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우리 당은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가** 현저히 개선되였으며 **우리** 농민들의 생활 형편이 상당히 높아진 오늘에 **와**서도 이 방침을 계속 견지함으로써 **협**동 경리의 물질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모든 면에서 유족하게 만들 데 대한 과업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금번 테제에서 제시된 당면 조치들의 실현은 또한 우리 당이 협동 경리에서의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를 각이한 지대 농민들 간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문제와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는 방침을 보다 잘 관철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사회가 남긴 후과와 자연 경제적 조건의 차이로 하여 산간 지대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와 농민 생활 수준이 평지대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이한 지대 협동 농장들에서의 축적과 소비의 비률을 일률적으로 설정한다면 필연코 공동 경리의 발전과 농민 생활 수준에서 더욱 심한 차

이를 가져 오게 할 것이였다.

우리 당은 지난 시기 산간 지대에서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온갖 지원을 강화하면서 이 지대 협동 농장들에서의 축적에 비한 소비의 비률을 평지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총 수입을 급속히 장성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당의 이러한 방침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지대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큰 차이 없이 고르롭게 향상되고 있으며 이 지대 농민들간의 생활 상 차이도 현저히 접근되여 가고 있다. 다음의 자료는 그것을 단적으로 실증하여 주고 있다.

지대 별 협동 농장들의 농호 당 평균 분배 몫의 대비 (1962년)

(%)

	공화국 평균	그 중		
		평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알 곡	100	105	99	92
서 류	100	45	89	193
현 금	100	68	91	116

보는 바와 같이 과거에 생활 형편이 극히 어려웠던 산간 지대와 중간 지대 농민들의 알곡 분배량은 전국의 평균 수준에 거의 접근하여 가고 있으며 서류와 현금의 분배 몫에 있어서는 이미 전국의 평균 수준을 릉가하였거나 따라 잡고 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협동 농장들이 생산을 계속 확대하면서 농장원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고한 사회주의 경리로 자라났으며, 우리의 농민들이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 중농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우리 당이 각이한 지대 협동 농장들에서의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 그들 호상간의 관계를 정확히 조절케 한 거기에 있다.

금번 세제에서는 농업 현물세제를 폐지함에 있어서 협동 농장들의 경제 형편을 충분히 참작하여 경제 토대가 비교적 약한 협동 농장들로부터 계단별로 점차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농촌 기본 건설과 문화 주택 건설의 진행은 경제 토대의 차이에 관계 없이 모든 지대, 모든 협동 농장들에 다같이 적용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뒤떨어진 협동 농장들을 급속히 추켜 세우며 각이한 지대 농민들 간의 생활 상 차이를 보다 빨리 접근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현물세제의 폐지와 농촌 기본 건설 및 문화 주택 건설 과정을 통하여서도 관철되게 된다. 이것은 아직 경제 토대가 비교적 미약한 산간 지대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평지대의 농장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급속한 기간 내에 부유한 협동 농장들을 따라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취한 당면 조치들의 실현이 협동 농장들에서 공동 경리의 발전과 농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협동 경리에서 조성되는 순 소득 중 소비에로 돌려지는 부분을 더욱 급속히 증대시키면서도 공동 경리의 발전과 농장원들의 생활 향상 문제를 동시에 다같이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조성하여 줄 것이다.

※　　　※

김 일성 동지의 테제에서 제시된 당면 대책들의 실현은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총수입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공동 경리의 발전에 유리하도록 축적 폰드 자체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모든 농촌 기본 건설과 문화 주택 건설을 국가 부담에 의하여 진행하며 모든 농기계를 무상으로 공급할

데 대한 금번 조치로 하여 국가는 과거 협동 농장 축적 폰드의 주요 부분을 이루었던 생산적 및 비생산적 고정 폰드의 최대 재생산 령역에까지 투자를 심화시키게 되였기 때문이다.

협동 농장들에서의 축적 폰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은 그 리용의 경제적 효과성을 규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로 된다.

만일 협동 농장 축적 폰드 중 많은 부분이 투자 규모가 크고 단기간 내에 보상될 수 없는 분야에 배당된다면 축적 폰드 리용의 경제적 효과는 높아질 수 없으며 선행 축적의 결과는 빠른 기간 내에 소비에로 전환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협동 농장 자체의 경제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공동 경리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일정한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농촌 경리 전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공고화하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농촌 기본 건설에서 대규모적인 대상들은 모두 국가 투자에 의하여 진행하고 협동 농장의 축적으로는 비교적 투자 규모가 작고 보상 기간이 짧은 중 소 규모의 대상들만을 담당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수행에 요구되는 방대한 기본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으며 협동 농장 축적 폰드 리용의 경제적 효과성도 제고시킬 수 있게 하였다. 당은 협동 농장들이 자체로 기본 건설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의 압도적 부분을 국가의 융자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대부금 상환의 많은 부분을 면제하여 주었다.

동시에 우리 당은 국가 투자를 통하여 협동 농장 공동 재산 중에서 전인민적 소유의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생산적 건설과 각종 시설의 건설에 많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동 경리의 사회화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도 큰 관심을 돌리여 왔다.

최근 5 년 간에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총투자액 중 농촌 건설에 돌려진 부분은 상환을 면제한 국가 대부금을 포함하여 21.7%에 달하였다.

농촌 기본 건설에 대한 당의 이러한 방침이 관철된 결과 지난 시기 우리 나라 협동 농장들의 축적 폰드 구성에서는 토지 건설, 중 소 관개 공사, 생산용 건물과 구축물의 건설 및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 등에 적지 않은 비중이 돌려지면서도 역축, 중 소 농기계 및 농기구와 류동 폰드, 이를테면 비료, 농약, 종자, 사료 등과 같은 것의 비중이 보다 급속히 장성하게 되였다.

협동 경리에서의 축적 폰드 구성에서 일어 난 이와 같은 변화 과정은 협동 농장들의 공동 재산 구성과 그의 장성에서 표현되고 있다.

례컨대 평양시 조선-규바 친선 협동 농장에서의 공동 재산 구성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규바 친선 협동 농장의 공동 재산 구성

(%)

		1959년	1963년
총 계		100	100
고정 재산	소 계	90.6	87.6
	생산용 건물 및 구축물	42.9	4.8
	역축 및 생산용 가축	20.0	6.0
	중소 농기계 및 농기구	5.3	8.0
	운 수 수 단	8.2	0.9
	문화주택 및 공공건물	8.1	63.2
	과수원 및 뽕밭	2.9	3.0
	보조 및 경영 시설	3.2	1.7
류 동 재 산		9.4	12.4

보는 바와 같이 1959년까지 조선-규바 친선 협동 농장의 공동 재산 구성에서는 고정 재산, 그 중에서도 생산용 건물과 구축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963년에 와서는 그의 비중이 결정적으로 감소되고 그 대신 중 소 농기계와 농기구, 과수원과 뽕밭, 문화 주택과 공공 건물 및 류동 재산 등의 비중이 급격히 장성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 등 현대적 농기계들을 소유하고 관개 시설, 전력 시설 등을 광범히 진행하는 조건에서 협동 농장의 축

적 폰드는 주로 투자의 경제적 효과가 높고 신행 축적이 보다 빨리 소비에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런데 우리 당은 금번 테제에서 지난 시기 협동 농장들의 자체 축적으로 진행하던 것까지 포함한 모든 농촌 기본 건설과 농촌 문화 주택 건설을 국가 자금에 의하여 진행하며 모든 농기계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협동 농장 축적 폰드 구성의 이와 같은 변화 과정을 보다 더 촉진시킬 수 있게 하였다.

즉 협동 농장 축적 폰드 구성 중 생산적 건설 및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과 관련되여 형성되던 부분들은 없어지게 되는 반면에 공동 축적금을 영농 사업에 더 많이 돌릴 수 있게 할 것이며 농기구의 구입, 역축 및 생산용 가축의 형성, 과수원과 뽕밭의 조성 등 고정 재산과 류동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대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협동 농장들은 국가의 방대한 재정적 지원 하에 자체의 축적 폰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건설 투자액은 보다 급속히 장성하게 된다.

결과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급속히 강화되고 농업의 집약화 수준은 결정적으로 제고되여 농업 생산의 발전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국가 자금에 의한 농촌 기본 건설의 실시는 또한 그것을 국가의 강력한 건설 력량과 건설 기자재들을 가지고 통일적인 계획 밑에 더욱 합리적으로, 더욱 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 기본 건설 사업 자체를 개선하는 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국가가 모든 농촌 기본 건설을 담당하는 것은 협동 농장들의 생산 조건의 더욱더 많은 부분을 국가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협동 경리의 발전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 역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영향을 증대시키며 농업 생산에서 전 인민적 소유의 생산 수단들이 참가하는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로 접근시킴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의 테제가 제시한 당면 대책들의 실시는 우리 당이 협동 경리에서의 축적과 소비 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방침의 새로운 단계에로의 연장이며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현 단계에서의 그의 심화 발전으로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시기마다 조성된 형편과 제기된 과업에 적응하게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사회 전체의 리익과 근로자들의 개인적 리익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합시켜 나아가는 우리 당의 방침이 협동 경리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구현된 것이며 풍부화된 것이다.

테제가 제시한 당면 대책들의 실현은 협동 농장들에서 축적과 소비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고 협동 농장의 경제 토대 강화와 농민 생활 향상을 가일층 촉진시킬 것이며, 각이한 지대 농민들의 생활 상 차이를 더욱 접근시키고 그들의 생활 수준을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수준에로 끌어 올리는 과정을 단축시킬 것이며, 협동 경리의 사회화 수준을 제고하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보다 제고시킬 것이다.

그것은 결국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근본적 문제들을 더욱 잘 풀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며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시키는 힘 있는 추동력으로 될 것이다.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와 그 의의

김 춘 점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천명하면서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며 그들에게 더 큰 국가적 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들을 명시하였다.

테제에서 제기된 모든 조치들의 실시는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우리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업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전진 운동을 강력히 촉진할 것이다.

농업 현물세제를 폐지할 데 대한 문제는 이러한 과업 수행의 일환으로, 그를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제기되였다.

테제에 명시되여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1964~1966년의 3 년 간에 걸쳐 협동 농장들이 국가에 납부하던 농업 현물세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는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함에 있어서나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또한 우리 농민들을 온갖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 나게 하는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 이것은 농민들에게 항상 큰 국가적 혜택을 베풀어 주는 우리 당 정책의 명백한 구현이다.

⁂ ⁂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현물세제는 해방 후 토지 개혁과 함께 농촌 문제 해결의 첫 조치로서 출현하였다.

인민 주권 하에서 농업 현물세제는 다른 모든 조세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 경제적 본질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착취 사회에서 대중을 수탈하는 도구였던 세금제가 새 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전환되였다.

우리의 농민들은 일제 통치 하에서 강요 당하였던 고율의 소작료와 략탈적인 가렴 잡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력사 상 처음으로 진보적인 세법- 농업 현물세제를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단일하고 공정한 세납 제도를 실시할 데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구상과 농민들의 세기적 념원이 해방 후 비로소 우리 당에 의하여 실현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민들은 농업 현물세제의 실시로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 중 극히 적은 부분만을 국가에 납부하고 남은 많은 농산물을 마음 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였다.

농업 현물세제의 실시는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였으며 농업 생산을 급속히 촉진하였다.

농업 현물세제의 실시는 비단 농민들

의 세납 부담을 량적으로 덜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주민들과 공업에 식량과 원료를 제공하고 공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공업 발전을 촉진시키였으며 로동 계급으로 하여금 값눅고 질 좋은 상품을 농촌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지난 시기 농업 현물세제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농업 현물세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코 항구적인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조세 제도 일반이 그러한 것처럼 그의 존재를 제약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들이 사라짐에 따라 없어지게 된다.

사회주의 건설의 첫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조성되여 있지 않았다. 사회주의 공업에서 축적이 크지 못하였던 지난 시기 현물세제가 국가에 식량과 원료를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또한 나라의 자연 경제적 조건의 차이로부터 조성되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흡수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수행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였다.

그러나 이제와서 사정은 전혀 달라졌다.

사회주의 건설이 촉진되고 나라의 경제 토대가 튼튼하여진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들로부터 농업 현물세를 받지 않고도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현물세제의 폐지는 완전히 성숙된 문제로 되였다.

우선 현 시기 농업 현물세제 폐지의 중요 조건은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가 축적이 비상히 증대된 그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과거에 농업 국가였던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한 후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하여서는 농촌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시기 농업 현물세제는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나라의 경제적 위력의 강화와 화폐 축적의 증대에 의하여 국가 경제 생활에서 농업 현물세의 지위와 역할은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저하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 공업이 발전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축성되여 감에 따라 농업 현물세를 체계적으로 경감하였다. 전후에만 하여도 당은 농업 현물세 법을 2 차나 개정하여 수확고의 25%였던 세률을 1959년에는 8.4%로 감하하였다.

당의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국가 예산 수입에서 농업 현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의 6%로부터 벌써 1959년에는 0.8%로 낮아졌으며 그 후 그것은 계속 저하되였다.

이것은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공업화를 위한 자금을 농업 현물세 없이도 능히 해결할 수 있게 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만일 국가가 현물세로 받는 량이 적으면 농민들에게서 제 값으로 사면 된다.

…공업에서 막대한 축적이 이루어지게 된 오늘에 와서는 국가가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앞으로 농산물 수확이 자꾸 장성하면 12%가 8%, 6% 등으로 더욱 떨어질 것이며 멀지 않아 현물세 자체를 폐지할 날이 올 것이다.》 (《강서군 당 사업 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다음으로 농업 현물세제 폐지의 중요 조건은 각이한 자연 경제적 조건에서 조성되는 소득 수준에서의 차이가 농업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결정적

으로 줍아진 그것이다.

농업'협동화는 각이한 지대적 조건에서 생기는 추가적 소득의 조절을 농장적인 범위에서 해결하였다.

그러나 협동화는 농장들 간에서 형성되는 소득의 차이는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또 극복할 수도 없었다.

우리 당은 협동화 후 고정 현물세제—지대 별로 차이를 둔 세율을 규정하고 그것을 일정한 기간 고정시키는 세제를 도입하여 차액 지대 I 즉 농장들의 사업 여하에 직접·의존하지 않는 추가적 소득을 적절히 조절하여 왔다.

농업 현물세제 특히 고정 현물세제는 농장 별, 지대 별 소득을 조절하는 중요한 경제적 공간이였다.

그러나 오늘 사정은 달라졌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업에서 창조된 물질 기술적 힘과 우리 농민들의 높은 열성에 의거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장성시켰다. 특히 당은 토지가 척박한 산지대에서의 영농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무궁무진한 부의 원천인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이 지대 농업 생산을 전면적으로 앙양시켰다.

산지대, 평지대 할 것 없이 나라의 모든 곳에서 생산이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농장원들의 생활이 향상된 오늘에 와서 현물세제를 통한 지대 별 소득을 조절할 필요성은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농업 현물세제 폐지의 중요 조건은 현 시기 국가가 그를 리용함이 없이도 도시와 공업에 필요한 식량과 원료를 자기 수중에 집중할 수 있게 되였다는 데 있다.

농업이 매우 락후하였고 식량 사정이 극히 어려웠던 우리 나라에서 지난 시기 농업세를 계속 현물 형태로 유지하여 온 것은 증대되는 원료와 식량에 대한 공업과 도시 주민들의 수요를 해결함에 있어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그러나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공업 상품 자원이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통로로서의 농업 현물세제의 의의는 점차 감소되였다.

오늘 증대되는 농산물 중 농촌 경리의 자체 수요를 충당하고 남는 잉여 농산물은 상업-수매 체계를 통하여 성과적으로 국가 수중에 집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충분히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농업 현물세제가 현 단계에 와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실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더는 수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끝으로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는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와서 국가가 과거와 같이 농업 현물세의 징수를 통하여 농촌 경리의 운영을 통제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 된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업 현물세제는 과거 농촌 경리의 운영을 통제하고 그 발전을 자극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리용되였다.

물론 그것은 재정-세금적 측면에서 실시된 간접적인 통제 수단이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국가는 이러한 간접적인 통제 수단 없이도 농촌 경리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그것은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기초하여 오늘 우리 나라 농업 부문에는 국가의 전면적이며 직접적인 지도 형태, 농업에 대한 가장 선진적인 지도 형태인 기업적 지도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는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일어 난 근본적인 변화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실현할 수 있게 되였다.

일반적으로 세금제, 특수적으로 농업 현물세제는 일정한 사회 제도의 산물이며 객관적 경제 범주이다. 그것은 그 존재를 불가피하게 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 없어지지 않는 한 폐지

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시기 일부 사람들은 현물세 폐지의 조건을 물질적 관계에서, 례하면 국가 예산 수입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 일면에서만 찾았다.

물론 이것은 현물세 폐지를 위한 중요 조건인 것만은 틀림 없다.

그러나 세금이란 일정한 제도의 산물인 만큼 그의 폐지도 응당 사회 경제 생활의 전반에 걸친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 *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는 첫째로, 농업의 발전과 농민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큰 도움으로 된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의 축적과 소비를 고려하여 앞으로 3년 간에 농업 현물세를 완전히 없애기로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국가는 전쟁 전 최고 수준을 차지하였던 1949년 국가 예산 지출 총액과 거의 같은 방대한 금액을 농촌 경리 발전과 농민 생활 향상에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된다. 이것은 농촌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다. 더우기 그것이 농업 문제, 농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의 생산적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농촌에 공급하는 영농 자재의 가격을 인하하며 종래 협동 농장 자체가 부담하던 기본 건설 투자와 주택 건설을 직접 국가 자금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건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재정적 지원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농촌 사업과 농민 생활에 대하여 항상 큰 혜택과 배려를 돌리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을 잘 보여 주는 뚜렷한 표현이다.

농업 현물세 폐지가 농촌 경리 발전과 농민 생활 향상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그것이 농민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의의는 또한 농장원들의 집단적인 물질적 관심성과 개인적 관심성을 옳게 결합시키고 농민들의 열성과 지혜를 국가와 협동 농장의 번영을 위한 공동적 위업 수행에로 추동한다는 데 있다.

농업 현물세의 폐지는 국가의 다른 지원 형태들과 함께 농촌에서 협동화 후에도 혁명을 계속하며 그리 하여 농민들의 열성을 더한층 높이기 위한 중요 조건으로 된다.

농업 현물세의 폐지는 둘째로, 공업의 지도적 역할 하에 공업과 농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 경제 전반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은 농촌 경리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수행에 요구되는 선진적 농기계를 비롯한 각종 생산 수단을 공급하는 공업의 발전 수준에 의존한다. 그런데 한편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 없이는 공업의 발전도, 인민 경제의 급속한 확대 재생산도 생각할 수 없다. 왜냐 하면 농업은 공업에 식량과 원료를 공급하는 인민 경제 부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민 경제 전반에서 높은 발전 속도를 견지하자면 우선 도시와 공업에 식량과 원료를 보장하는 농촌 경리의 부단한 발전이 요구된다.

농업 현물세를 폐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열성을 제고하며 농업 생산을 장성시키는 것은 공업과 도시에 더 많은 식량과 원료를 보장하는 한편 광범한 농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증대하여 도시 공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것은 농업 현물세의 폐지가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의 균형적이며 높은 발전 속도를 보장

하는 중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농업 현물세제의 페지는 세째로, 농민들 속에서 형성되여 가고 있는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조장 발전시킴에 있어서 큰 기여로 된다.

농촌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그의 중요 부분으로 되는 농업 현물세의 페지는 로동 계급의 당이 광범한 농민들을 책임 지고 공산주의 사회로 이끌고 나갈 데 대한 원칙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도의 하나이다.

종전에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하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였던 협동 농장으로부터의 세금이 페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업적 지도, 방대한 생산적 및 재정적 방조 하에 일하게 된 우리의 협동 농민들은 국가적 소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처지와 다름 없게 되였다.

이것은 광범한 농민 대중으로 하여금 오직 로동 계급과 굳게 손을 잡고 나아감으로써만 자기들의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려는 그들의 자각적 열의를 더욱 조장하게 된다.

끝으로 농업 현물세제의 페지는 생존과 민족적 권리를 위하여 일떠선 남반부 인민들과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미제의 식민지 군사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전면적 파탄과 만성적 기아의 나락에 깊이 굴러 떨어지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지금 살인적인 세금이 들씌워지고 있는 형편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농업 현물세제의 페지는 미제를 비롯한 남조선의 위정자들에게 있어서는 청천 벽력으로 되는 동시에 광범한 근로 대중에게 있어서는 삶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는 강력한 힘으로 된다.

또한 농업 현물세의 페지는 민족적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일떠선 세계 모든 인민들을 크게 고무할 것이다.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락후한 농업 국가였고 가렬한 전쟁의 시련을 겪은 나라에서 사회주의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이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것을 세계 모든 인민들에게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현물세의 페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농업 현물세제 페지의 내용과 그 의의를 깊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잘 알 때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당 방침의 창조성과 정당성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관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르죠아 반동 문학 조류들의 독소를 반대하여

김 해 균

어떤 시기에 있어서나 문학 예술의 이러저러한 조류들은 그를 산생시킨 시대와 사회적 계급의 지향을 반영한다. 그런 것 만큼 위대한 변혁의 시대는 언제나 위대한 문학 예술을 산생시키는 것과 결부되였으며 사회 발전에서 선진적 역할을 수행한 계급들은 진보적 문학 예술의 발전과 관련되였었다. 반면에 력사에서 보수주의적 립장에 섰던 계급들은 각종의 반동적 문학 예술 조류들을 조작하여 인류 사회의 발전과 문학 예술의 전진 도상에 큰 장애를 조성하군 하였다.

현 시기의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이러한 의미에서 어느 시기의 보수주의적 계급보다도 더 악랄하고 반동적인 계급이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하여 자본주의 여러 나라에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각가지의 문학 예술 조류들이 창궐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같이 자기 운명의 막끝을 내다 보면서 력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워 보려 하는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절망적 기분과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이런 반동적 문학 조류들을 저들의 략탈과 침략의 사상적 도구로 리용하면서 그것을 이르는 곳마다에 광범히 류포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며 현 시기의 절실한 사회 정치적 문제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딴데로 돌리려 하고 있다.

특히 오늘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렇게 책동하고 있다. 미제와 매국 도당들은 남조선 인민의 생활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각종 퇴폐적인 문예 조류들을 광범히 류포시킴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며 인민들 속에서의 민족적 의식과 계급 의식의 장성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소위 《전인류적 성격》의 창조라는 구실 밑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레닌적 당성 원칙을 외곡하고 퇴폐적인 부르죠아 반동 문학에서 그 어떤 것을 배우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맑스주의자들이 부르죠아 반동 문학 조류들의 온갖 독소를 반대하여 계속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류포하고 있는 잡다한 문학 조류들 가운데서 가장 반동적인 것들은 실용주의, 프로이드주의, 실존주의, 모더니즘 등의 문학 조류이다. 이것들은 서로 구별되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은 것들이며 서로 뒤섞이고 얽히여 하나의 같은 목적을 노리고 있다. 이런 문학 조류들은 대체로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로 넘어 가던 시기에 사회의 계급적 모순이 격화되고 자체의 파산을 감촉하기 시작한 부르죠아지의 요구와 지향, 감정을 반영하여 형성되였다. 례컨대 실용주의 미학은 당시 미국 부르죠아지의 철저한 리기주의와 침략성을 반영하였으며 실존주의 미학은 부르죠아지의 불안과 비애를, 프로이드주의는 부르죠아지의 도덕적 부패와 성적 방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자들의 사상적 머슴'군들에 의하여 날조되었다. 또한 오늘 모더니즘이 직접 그 대'줄로 변신되어 있는 상징주의를 비롯한 기타의 형식주의 문학 류파들이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비속한 향락과 몰취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산생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이런 문학 조류들과 아울러 《의식의 흐름》파, 주지주의, 초현실주의 등 잡다한 모더니즘의 변종들이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변덕과 침략성을 반영하여 출현하였다. 그 후 제 2 차 대전이 종결되면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가일층 심화되고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공포와 불안, 타락은 극도에 달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의 반영으로서 부르죠아 반동 문학 조류들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고 호상 보충하면서 그 반인민적, 반동적 본질이 더욱 악랄화되였다.

부르죠아 문학 조류들의 반동적 본질은 우선 그들의 미학적 견해에서 잘 나타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학의 기본 문제는 현실에 대한 예술의 관계이다. 왜냐 하면 기타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이 문제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 미학은 인간이 객관 세계와 그 합법칙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인간 의식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객관 세계를 옳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정신 생활의 특수한 분야이며 사회적 의식 형태의 하나인 문학 예술은 객관적 현실을 구체적인 감성적 형식 즉 형상을 통하여 인식하며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문학 예술은 객관 현실의 형상적 반영 형태이며 문학 예술의 원천은 곧 현실이다.

그러나 부르죠아 반동 문학 조류들은 객관적 현실을 파악하는 특수한 형태로서의 문학 예술의 인식적 기능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문학 예술이 객관적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르죠아 반동 미학의 이런 황당한 주장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잡다한 주관적 관념론 철학의 그릇된 견해에서 나오는 것이다. 례컨대 실용주의는 《진리는 유용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듀이)고 하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용주의는 진리의 객관성을 거부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마음 대로 꾸며낼 수 있는듯이 선포한다. 또한 실존주의는 《객관적인 것은 결코 본래적인 것이 아니다》(케르케골)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것을 부정한다.

객관적인 현실과 생활의 합법칙성을 부정하며 그에 대한 인간의 인식 능력을 부인하는 관념론 철학에 뿌리를 박고 있는 부르죠아 문학 조류들이 문학 예술에 의한 객관 세계의 인식과 반영을 부정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례를 들어 미국의 반동 문학 평론에서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신평론》파는 《예술은 아무 것도 증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문학 예술의 인식적 기능을 부인하고 있다. 프로이드주의 미학은 세계의 유명한 작가들을 《리성 상실자》, 《반 미치광이》, 《주정뱅이》, 《정신 분렬자》 등 몇 개의 미치광이 계렬로 나누면서 객관적 현실을 인식하며 반영할 수 있는 작가들의 지성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부르죠아 반동 문학이 이와 같이 객관적 현실과 그것을 반영하는 문학 예술의 기능을 부정하고 예술가의 지성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제국주의 부르죠아들이 문학 예술을 통하여 객관적 현실과 생활 발전의 합법칙성이 반영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문학 예술을 통한 현실의 반영은 거울이 물건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수동적 과정이 아니다. 문학 예술에 의한 세계의 반영은 세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진보적

문학 예술은 이렇게 생활 현상을 예술적 화폭 속에 반영하면서 생활의 본질과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며 작품에 포괄된 생활 현상들에 대한 작가의 평가를 통하여 선진적인 사상과 고상한 미학적 리상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며 인류의 진보를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불러 일으킨다. 문학 예술은 이와 같이 자기의 예술적 화폭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위 세계를 해명해 주며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가리키며 그들의 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의 활동을 고무 추동하는 강력한 사회 교양적 기능을 수행한다.

문학 예술을 통하여 인민 대중이 이렇게 각성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예술의 인식적 기능과 함께 그 교양적 기능을 말살하기 위하여 갖은 획책을 다한다. 모더니즘의 대표자의 한 사람인 티. 엣스. 엘리오트(미국)는 《시인은 자기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또는 그것을 리해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불란서 《반 소설》파의 대표적 인물인 로브그리에는 《새 소설, 새 인간》이라는 글에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모욕이며 침해》라고 말하고 있다.

부르죠아 반동 문학 조류들이 이렇게 문학의 인식 교양적 기능을 부정하면서 그 대신에 문학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들은 문학이 현실로부터 유리된 《주관》, 《본능》, 《비극 의식》 등과 같은 무의미한 추상적 개념 만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례컨대 《의식의 흐름》파 소설가들은 《아무리 조리가 없고 불명료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 의식 속에서 찰나적인 신호를 발하면서 깜빡이는 원자의 순간적인 인상》을 재현하는 것이 문학의 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불란서의 《반 소설》파 작가들은 《무수한 심리적 물거품》을 묘사하는 것이 소설이라고 말하면서 객관적 생활 현상이 의식 속에 반영되지 않도록 《방수벽》을 쌓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일부 반동 문학 조류들은 잠재의식 또는 본능을 문학의 묘사 대상으로 들고 나온다. 오늘 모더니즘의 주요 류파의 하나이며 《의식의 추상파》라고 불리는 초현실주의는 의식을 파고 들어 가면 그 이상 더 나갈 수 없는 《의식의 밑바닥》, 《본질 세계》가 나온다고 하면서 이것을 해방하는 것이 문학의 사명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또한 실용주의 미학은 본능을 《아동 본능》, 《수집 본능》, 《살해 본능》 등으로 나누고 그러한 본능들을 표현할 것을 문학에 강요하고 있으며 프로이드주의 미학은 본능 중에서도 특히 《아동 본능》에 포함되여 있다고 하는 성적 본능을 강조하면서 문학은 《현실에서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성적 욕망을 창조적 환상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병적 의식을 고취하는 부르죠아 반동 문학 조류로서의 실존주의 미학은 《생명의 밑바닥에 숨어 있는 절대적인 것》을, 모더니즘은 《현대 인간의 의식 속에 조성된 공허》 즉 《비극 의식》을 문학의 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르죠아 반동 문학 조류들은 문학의 사회적 내용을 거부하고 문학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각기 한 마디씩 황당한 주장들을 내여 놓고 있으나 그들의 본질은 동일하다. 즉 그들은 인간을 사회 력사적 환경에서 떼여 내여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로만 보며 무의미한 주관적 표상과 추잡하고 저열한 동물적 본능을 례찬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미학적 견해는 부르죠아 반동 문학 작품들에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프로이드주의, 초현실주의를 비롯하여 모든 부르죠아 미학 류파들이 추구하고 있는 관능적 향락, 추잡한 색정, 패덕과 란륜에 대한 례찬은 부르죠아

문학 작품의 중요한 주제로 되고 있다.

프로이드주의 미학을 가장 철저하게 구현하고 있는 데, 예컨대, 로렌스(영국)의 소설 《채털리 부인의 애인》은 색정주의 작품의 대표적인 례로 된다.

소설은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여 불구자가 된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우울하게 지내던 채털리 부인이 자기 집 산양터를 지키는 머슴'군과 치정 관계를 맺는 데서 다시 《희망》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늘어 놓으면서 동물적인 장면들을 로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작가는 인간 행동의 원천이 다만 성적 본능의 만족에만 있다고 설교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르죠아지의 도덕적 타락과 성적 방종을 정당화하며 다른 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개별적 인간들 사이의 성적 갈등으로 호도하고 있다. 오늘 서구라파 부르죠아 문학에 이런 색정주의 작품들이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부르죠아 평론가들까지도 저들의 문학 작품을 가리켜 《매음굴 천장에 걸어 놓은 거울》이라고 말한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부르죠아 반동 문학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불안과 공포, 절망과 죽음에 대한 설교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부르죠아 반동 문학 사상 조류 가운데서도 특히 실존주의와 보니니즘을 사상 미학적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 행동을 《교수대와 무덤으로 가는 발'길음》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무능력과 도덕적 파산의 불가피성을 떠들며 《다가올 재난》에 대한 공포로 사람들을 위협한다. 반동 작가 올더스 헉슬레이(영국)는 미래의 22 세기를 환상적으로 그린 소설 《원숭이와 본질》에서 《제 3 차 세계 대전》의 결과 인류는 거의 전멸되고 살아 남은 소수 종족의 비참하고 동물적인 생활을 묘사하면서 《세계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절망과 공포를 표현하면서 마치도 전 인류가 절망과 공포에 떨고 있는듯이 묘사하고 있다.

부르죠아 반동 작가들은 《세계의 종말》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출로로서 종교적 신비주의와 몽매주의, 범죄 행동을 설교한다. 까뮤의 희곡 《깔리귤라》의 주인공 깔리귤라 황제는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살인, 간음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다가 마침내 자기 처의 목을 눌러 죽인 다음 《나는 아직도 살아 있다》고 웨치면서 너털웃음을 웃는 것으로 되여 있다. 이와 같이 부르죠아 반동 문학의 허무주의는 색정주의, 패덕주의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부르죠아 반동 문학의 반인민적, 반동적 본질은 그것이 악랄하게 선전하고 있는 《반공》 사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우에서 본 색정, 패덕, 허무를 설교하는 작품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주제의 작품들은 《반공》 사상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 특히 실용주의를 사상 미학적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동 작가들은 실용주의의 《소유 본능》, 《수집 본능》, 《살해 본능》으로 사유 재산 제도와 자본주의 사회의 《영원성》을 증명하려 하면서 가장 악랄하게 《반공》 선전을 하고 있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탁월한 풍자 작가》로 추켜 세우고 있는 반동 작가 죠지 오웰(영국)은 소설 《동물 농장》에서 각종 허위와 입에 담지 못할 독설로 사회주의 제도를 중상 비방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시기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날로 장성하는 사회주의 위력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공포가 절정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에서 본 바와 같이 문학의 사회적 내용을 거부하고 이른바 《순수 문학》을 부르짖는 자들이 빚어 내고 있는 작품들은 바로 이러하다. 그들은 말끝마다 사회 정치로부터의 문학 예술의 《독립성》이니, 《예술의 무당파성》이니 하고 지껄인다. 그러나 온갖 제국주의 반동

사상은 선전하면서 사회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또는 《무당파성》을 운운하는 부르죠아 작가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허위이다. 작가는 그가 처해 있는 사회 계급적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없으며 이러저러하게 일정한 계급의 사상 감정을 반영하면서 그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지 않을수 없다. 부르죠아 작가들이 들고 나오는《순수 문학》은 반인민적 부르죠아 당성을 은폐하기 위한 허울 좋은 탈에 불과하다. 그들은 근로 대중을 부패 타락시킴으로써 력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워 보려는 저들의 반인민적,반동적 책동을 감히 공공연하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이다. 부르죠아 반동 문학은 한편으로는 진보적 문학이 체현하고 있는 선진적이며 인민적 사상을 반대하며 다른 편으로는 저들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을 《순수 문학》의 탈을 쓰고 설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문학》의 밑바닥이 드러나 더는 사람들을 기만할 수 없게 된 오늘에 와서는 부르죠아 반동 작가들이 많은 경우에 《순수 문학》의 탈마저 벗어 던지고 로골적으로 《반공》 문학을 들고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 *

일찌기 체르늬쉡스끼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작품의 근저에 놓여 있는 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만일 사상이 허위적인 것이라면 예술성에 대하여서는 론의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다.

문학 예술의 인식 교양적 기능과 사회적 내용을 거부하고 온갖 허위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을 설교하고 있는 부르죠아 문학은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표현 방법의 측면에서 자연주의와 형식주의에 매여 달리지 않을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학에서의 자연주의적 수법은 생활 현상 중에서 가장 우발적이며 무의미한 것들을 확대하여 복사 라렬하는 것으로 특징적이다. 례를 들어 《의식의 흐름》파 소설의 선구자인 반동 작가 프루스트(불란서)는 소설 《잃어 버린 때를 찾아서》에서 주인공이 과자 한 개를 먹는 장면을 모든 기억과 련상을 뒤섞어 가면서 무려 20 페지에 걸쳐 늘어 놓고 있다. 또한 제임스 죠이스(영국)는 소설 《율리시스》에서 주인공의 단 하루의 행동, 생각, 말, 감정들을 빼여 놓지 않고 모조리 기록함으로써 자연주의 수법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주의적 수법은 색정주의를 고취하기 위한 추잡한 장면 묘사에 많이 리용되고 있다.

사실이라는 것은 아직 진실 자체가 아니며 진실을 뽑아 내기 위한 원료일 따름이다. 사실 속에는 본질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이 뒤섞여 있으므로 작가는 고상한 미학적 리상에 비추어 사실 가운데서 우연적인 군더더기를 골라 버림으로써만 사실을 예술적 진실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주의 수법은 창작에서의 작가의 사상과 미학적 리상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작가가 사진기와 같이 주로 어지러운 곳을 복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형식주의에서는 문학의 내용을 무시하고 형식 만을 절대화하면서 《형식의 미》와 《기교주의》를 내세운다. 상징주의를 비롯한 각종 형식주의 류파들과 모더니즘은 《절대 순수 세계》 또는 《신비 세계》는 오직 상징적이며 은유적인 암호와 같은 언어로써만 표현될 수 있다고 하면서 언어의 형상적 기능을 혹심하게 파괴하고 그 누구도, 심지어 작가 자신도 리해할 수 없는 미치광이의 잠꼬대를 늘어 놓고 있다. 형식주의 문학은 공허한 내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언어의 마술을 부리며 허위적이며 반인민적 본질이 단꺼번에 드러나지 않도록 사기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무릇 문학 예술 작품은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통일이며 형식은 내용의 구체적인 발현이다. 그런데 형식주의 문학은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고 형식을

기형화함으로써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다같이 파괴한다.

원래 형식주의는 불란서 퇴폐파 시인들에 의하여 발생된 이래 반동 시 분야에서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모더니즘 문학에 와서 극도에 달하여 부르죠아 반동 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소설 분야에서도 점차 지배적인 조류로 되여 가고 있다. 례컨대 《의식의 흐름》파 소설가들은 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순간적인 인상들을 《내부 독백》 즉 마음 속에서 혼자 말하는 형식으로 표현한다 하여 아무런 련계와 조리도 없는 미치광이의 넋두리를 늘어 놓고 있다. 《반소설》파 작가들은 작품의 가치가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있다고 하면서 소설의 체계, 줄거리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소설 자체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오늘 형식주의와 자연주의는 밀접하게 결합됨으로써 그것들의 반사실주의적 특성은 더욱 혹심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부르죠아 문학의 퇴폐상이 극도에 달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우에서 본 바와 같이 부르죠아 반동 문학의 잡다한 조류들은 일치하게 문학의 인식 교양적 기능과 사회적 내용을 거부하고 퇴폐주의, 허무주의, 《반공》 사상 등 온갖 추악한 것을 설교하면서 결국은 근로 인민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제국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은폐하며 사멸하여 가는 저들의 운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해 보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저들의 이런 반동적 내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학의 형식을 극도로 기형화하고 파괴하면서 그 자체를 헤여날 수 없는 자멸의 파국에로 몰아 넣고 있다.

오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의 투쟁이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고 식민지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계속 세차게 타오르는 것과 더불어 부르죠아 반동 문학에서 울려 오는 제국주의자들의 절망과 공포의 신음 소리는 더욱 음산하고 거칠어지고 있다.

부르죠아 반동 문학 조류들의 본질이 이상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부르죠아 문학에 각별한 매력을 느끼면서 그 뒤꼬리를 따라 가고 있다. 그들은 형식주의의 추악한 변종인 모더니즘을 《사실주의에 가깝다》느니, 《인도주의에 대한 지향》이라느니 하면서 부르죠아 반동 문학을 통하여 울려 나오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음 소리에서 《정서적 풍부성》을 찾고 있다. 문학 예술의 사회 계급적 본질과 당성의 원칙을 거부하고 《전 인류적인 것》에 대하여 떠드는 자들이 부르죠아 반동 문학을 찬양하는 데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응당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활짝 꽃 피고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이 거둔 빛나는 성과는 문학 예술 분야에서 온갖 부르죠아 반동 문예 사상을 반대하는 꾸준하고 정력적인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에게는 혁명에 배치되고 인민의 전진 운동을 저애하는 부르죠아 문학 예술이 발 붙일 곳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르죠아 반동 문예 사상의 온갖 독소를 반대하여 단호하게 투쟁하며 더욱 전투적이고 사상 예술적으로 풍부한 문학 예술을 창작하기 위하여 모든 재능과 열정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답 학습

《창가 학회》의 정체

《한 일 회담》을 기회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와 함께 사상, 문화적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는 일본 종교의 탈을 쓴 《창가 학회》(創價學會)가 침습하여 그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 남조선에서 《창가 학회》는 큰 세력을 이루지 못 하고 있으나 왜색 풍조가 실어 가는 환경에서 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인민들의 각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창가 학회》는 신흥 종교 정치 단체로서 그의 전신은 1930년에 창설된 《창가 교육 학회》였다.

그의 창시자는 실용주의, 신 칸트주의 등 서방 문명의 영향을 받은 마끼구찌 쯔사부로(牧口常三郞)라는 일본 소학교 교장이였다.

마끼구찌는 실용주의, 신 칸트의 가치 철학, 사회학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관념 철학 류파인 미(美), 리(利), 선(善) 등 3 개의 《가치론》을 제기하면서 《교육은 형식과 관념인 것이 아니라 실리적(實利的)으로 유익한 것으로 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실생활의 행복》에 대하여 론하면서 《행복》의 력사적, 계급적 조건을 보지 못 하였으며 또 볼 수 없었다. 이것이 그의 주장의 근본적 제한성이였다.

그 후 《창가 학회》는 마끼구찌가 그것을 《니찌렌교》(日蓮敎)와 결합시김으로써 더욱 반동화되였다.

《니찌렌교》란 1253년에 일본 불교 승려 니찌렌이 중국의 《묘법 련화경》(妙法 蓮華經)이라는 불교 서적에 의거하여 만든 종교이다.

니찌렌은 사기가 저작한 《호게교》(法華經)야 말로 불교의 《유일한 진수》이며 기타의 모든 종교는 사교(邪敎)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항상 자기의 국토와 민족을 그 어떤 특수한 지위에 올려 놓으려는 국수주의(야마도 다마시)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국수주의자들은 자기의 국토를 신국(神國), 자기의 왕을 신황(神皇), 자기의 군대를 신병(神兵)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상 다른 민족에 대한 정복을 망상하여 왔다.

《니찌렌교》의 국수주의적 바탕은 《야마도 다마시》를 신봉하고 있는 일본 《사무라이》와 유착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 하여 《니찌렌교》는 국수주의적인 종교로 변생하였다.

일본 《사무라이》는 일찍부터 《니찌렌교》를 침접 국가 정복에 리용하였다.

임진 조국 전쟁 시기 왜적들은 《남무호렌게교》(南無法蓮華經)라고 쓴 장기(將旗)를 들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2 차 세계 대전 당시에도 《니찌렌교》를 기본 교리로 삼고 있는 《창가 교육 학회》는 일제의 해외 팽창의 선도적 역할을 놀았다.

당시 《창가 교육 학회》는 자기의 활동 목적을 《일본의 대리익을 위하여》, 《세계 정복을 공상하지만 우선은 그 당면한 활동 분야를 동 및 동남 아세아로 정한다》라고 로골적으로 선포하였다.

전후 《창가 학회》가 일본의 신흥 종교로 대두하게 된 것은 패전과 동시에 거세된 황도 정신을 재건하려는 군국주의 잔재 세력의 소생과 밀접히 련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창가 학회》에는 330만 세대가

망라되고 있는바 그의 상층에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온상이였던 륙군 사관 학교, 륙군 항공 사관 학교, 해군 병학교, 륙군 유년 학교 졸업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창가 학회》의 하층에는 중 소 기업체의 비조직 로동자와 실업자, 령세 상인 등 도시 빈민층이 다수 망라되고 있다. 그들은 《니찌렌교》를 골똘히 믿으며 《숙명을 전환한다》, 《행복을 얻는다》 등의 《창가 학회》의 기만적 구호에 현혹되여 그의 신자가 되였던 것이다.

《창가 학회》의 조직 체계는 군대식으로 부대, 분대, 반, 조로 되여 있으며 조직의 운영도 철두철미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창가 학회》의 《핵심 부대》인 《청년 부대》에는 《참모실》과 《특공대》들이 있는데 그의 명칭도 일본 군대식으로 《모리다 부다이》, 《이시다 부다이》 등으로 부르고 있다.

집회 같은 때 사기를 돋우기 위하여 부르는 《학회가》는 그 곡조나 가사가 과거 《황군》이 부르던 군가(軍歌) 그대로 되여 있다.

오늘 《창가 학회》는 《니찌렌교》를 현대 과학과 철학으로 더욱 《완성》하려 애쓰고 있으며 일반 종교와는 달리 죽은 후 저승에 가서나 행복을 찾는다는 식으로 인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척》을 운운하며 현 세대에서 행복을 찾을 것을 설교하고 있다. 즉 《니찌렌교》를 신봉하는 《창가 학회》만이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정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황당한 론리에 기초하여 《창가 학회》는 2 차 대전 후 일본에 조성되였던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리용하여 교묘하게 정치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일본에서 《창가 학회》는 산하 정치 단체로서 《공명(公明) 정치 련맹》을 조직하고 국회 및 지방 의회 선거에 진출하여 《자유 민주당》, 《사회당》 다음 가는 제 3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창가 학회》는 국회 상원인 《참의원》에서 15 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 부, 현 의회에서 56 석, 시, 구 의회에서 무려 721 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창가 학회》는 발행 부수 200만 부에 달하는 《성교 신문》을 비롯하여 《성교 구락부》 등 출판물까지 발행하며 적극 정계에 진출하고 있다.

《창가 학회》의 정치 활동의 근저에는 보수주의적이며 국수주의적인 성격과 함께 친미 《반공》 로선이 놓여 있다.

대내 정책 면에서 《창가 학회》는 종교적 신앙으로 사회악을 제거할 수 있는 듯이 설교하면서 일본 인민들의 사회적 고통과 불행의 화근인 미 일 독점 자본과의 투쟁을 무마하고 있다.

《창가 학회》 출신 대의원들은 국회에서 일본 인민의 평화와 독립의 념원에 편승하여 《핵 무기 반대》, 《오끼나와의 귀속》 등을 주장하면서도 《미 일 안보 조약》의 개악, 미제 침략군의 비법적 주둔, 일본 군국주의 부활 등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선거 때마다 《창가 학회》는 《자유 민주당》의 로선을 적극 지지해 나서고 있으며 그의 《청년 부대》는 《별동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공산당에 대하여 악랄한 비방 중상을 하고 있다.

《창가 학회》 회장은 미국 고위 정객과의 회담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것이라면 맡겨 달라》고 장담하였으며 1962 년 일본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 시에 《창가 학회》는 일본 공산당 립후보자를 락선시키려고 종교적 계률을 정치에 끌어 들여 립후보자들의 이름을 불단에 놓고 빌게까지 하는 추태를 부림으로써 일본 인민의 규탄을 받은 일까지 있었다. 실로 《창가 학회》의 정치 로선은 《전체적으로 반쏘, 반공의 반동적 기조에 서 있다.》(1962. 10.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 총회 보고)

대외 정책 면에서 《창가 학회》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대동아 공영권》에 대한 옛꿈을 실현해 보려는 망상에 대한 정신적 방조자로 나서고 있으며 아세아 침략의 척후병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은 《아세아의 지도자는 일본 민족》이라느니, 《동남 아세아는 지도적인 기술 인민으로서 일본 청년들을 기대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인민들에게 해외 팽창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모든 사실에서 《창가 학회》는 허황한 교리와 기만적인 정책으로써 각성되지 못한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며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해외 팽창 정책에 적극 복무하고 있는 친미 반공적이며 국수주의적인 종교 정치 단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혁명화를 억제하며 해외 팽창을 위한 목적에 이 《창가 학회》를 적극 리용하고 있다.

오늘 《창가 학회》는 해외 팽창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동남 아세아 제국 즉 비률빈, 인도네시아, 남부 윁남, 대만 등에 총지부를 설치하였으며 남조선에도 그 조직망을 확대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창가 학회》의 세력 확장은 《경제 협조》라는 미명 하에 남조선에 기여 든 일본 《창가 학회》 회원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활동 경비는 남조선에 침투하고 있는 일본 무역 회사나 상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현재 남조선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순천 등 도시에 《창가 학회》 지부가 설치되고 있으며 또한 지부 조직과는 별개로 《학생회》, 《청년회》, 《부인회》가 조직되여 있다. 현재 신자 수는 약 3만 명에 달한다. 서울에는 약 400 명, 대구에는 무려 1만 명의 신자가 있다.

남조선 《창가 학회》의 상층부는 친일적인 괴뢰군, 경찰 제대자들이며 일반 신자들은 지식 정도가 낮고 각성되지 못한 40~60 세의 도시 빈민, 농민, 어민들이다.

남조선에서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일본 《창가 학회》는 그의 《해외국》 소속 성원들과 《한국 총지부장》, 《부지부장》 등 10여 명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중요 도시들에서 《만회》를 개최하고 그의 조직을 더욱 확장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오늘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창가 학회》를 침투시키기 위하여 그처럼 발광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들은 《창가 학회》를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 속에 《한일 친화》(韓日 親和)를 설교함으로써 인민들의 격렬한 반일 감정을 무마하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침략을 쉽게 하려한다.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함에 있어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수법 그대로 일본 군국주의자들도 남조선 재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가 학회》를 그의 앞장에 내세우고 있다. 대구에서 발간되는 《매일 신문》도 《일본 〈가미가제〉 래습》이라는 표제 하의 사설에서 《창가 학회》가 남조선에 급격히 전파되고 있는 것은 《한국을 일본 독점 자본의 지배 하에 몰아 넣기 위한 전초 작전으로서의 〈정신 공세〉》(1964. 1. 19)라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이러한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가 학회》는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가미다나》와 같은 신주함에 《아마데라스 오미가미》(天照大神)라는 신주를 써 붙이고 일본을 향하여 《동방 요배》를 하고 《남무묘호렌게교》라는 독경을 일본말로 외우게 하고 있으며 《회원이 되면 일본에 갈 수 있다》, 《행복을 얻는다》,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설교하고 있다.

이러한 설교는 과거 일제가 조선 인민에게 궁성 요배, 신사 참배, 소위 황국 신민 서사의 랑송, 창씨 개명, 조선어 사용 금지 등으로 우리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려던 그 악랄한 만행을 방불케 한다.

결국 허무맹랑한 설교를 일삼고 있는 《창가 학회》는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그들에게 황도 정신을 주입하려 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창가 학회》가 광범히 침투하게 된 것은 일제의 손때 묻은 주

구 박 정희의 집권과도 관련된다.

《제 2 리 완용이 되더라도 한 일 교섭은 타결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망발을 한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적인 《한 일 회담》 추진에 편승하여 《창가 학회》의 침투가 본격화된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위정자들은 신문에 보도되기 전까지 《창가 학회》의 침투 정형을 전혀 모른듯이 발뺌을 하고 있었다.

《중앙 정보부》를 통하여 첩보 모략 통치를 하고 있는 남조선 위정자들이 일본 황도 정신을 설교하는 《창가 학회》의 침투를 탐지하지 못했을 리 만무하다.

《창가 학회가 한국에 신앙의 령토를 개척하게 된 것은 군사 정권이 아무 고려 없이 베풀어 놓은 친일 외교 정책에 그 계기가 있는 것》이라고 남조선 출판물까지 론평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에게 있어서 《창가 학회》는 상전이 파견한 좋은 응원 부대로 되는 것이다.

그들이 《창가 학회》의 침습을 묵인 조장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창가 학회》의 침투를 묵인 조장하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의 처사를 항의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경향 신문》은 《창가 학회》의 침략성을 폭로하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일본 정신을 받아들게 하여 마침내는 정치적으로 일본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1964.1. 18)이라고 썼다. 《한국 일보》도 《창가 학회는 불교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교라는 탈을 쓴 일본 군국주의 팽창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폭로하고 《창가 학회는 완전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다. 총칼만이 아직은 없다. 그러나 이 군대가 총칼을 쥐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주문을 일본 말로 외게 하고 동방 요배를 강요하는 행위 등 이 단체의 몇가지 무장과 생활 방식만 보아도 그 정체는 뻔하다. 정부는 이런 기풍이 조성된 원인을 심각히 반성해야 하며 이와 같은 실질적 침략 행위에 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1964. 1. 15)라고 썼다.

《창가 학회》의 침투를 반대 배격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박 정희 도당은 표면으로는 《창가 학회》의 침투를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편 《한 일 국교 정상화에 유감이 없도록 선도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그를 은밀히 조장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정책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창가 학회》의 교세 확장은 앞으로 비합법적 혹은 반합법적 형태로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괴뢰 정부 치안국이 《창가 학회》가 앞으로 《지하 조직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고 시사한 데서도 그것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정희 도당의 이러한 책동은 결국 남조선 인민들의 반일 감정을 더욱 격발시킬 것이며 친미, 친일 괴뢰 정권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김 현

근로자 제 7 호(루계 245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4월 3일   발 행 • 1964년 4월 5일

ㄱ—430207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8 호   4 월 20 일

평 양 근 로 자 사 1 9 6 4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 8 호 (246)
1 9 6 4 년 4월 (하)

차 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분렬하려는 책동을 지지시키자

오늘 전반적인 정세는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광범한 대중의 반제 혁명 투쟁은 앙양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진지는 계속 붕괴되고 있다.

그런데 수정주의의 길로 굴러 떨어진 일부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커다란 저애를 받고 있다.

이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이 수 주일 간 일부 사람들은 당 전원 회의들을 통하여, 연설과 출판물들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형제 당들을 공격하는 대대적인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지방 당 조직들의 회의를 열고 매일과 같이 형제 당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모든 선전 수단을 동원하여 련속 중상과 비방을 일삼고 있다.

그들은 나아가서 형제 당과 형제 나라를 사회주의 진영에서 배제하기 위한 《집단적 조치》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려는 로골적인 책동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적들의 면전에서 의견 상이를 로출시키고 형제 당들을 중상 비방하고도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남이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교조주의》요 《종파 행위》요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먼저 공개적인 론쟁을 시작하였으며 또한 말로는 공개적인 론쟁을 중지하자고 하고는 계속 형제 당들을 공격하고 있으면서도 남이 이에 대답하는 것은 도전이라고 하며 《결정적인 반격》에 대하여 떠들면서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불을 지른 자가 불이야 하는 격이며 저들의 분렬 행위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위이다.

바로 분렬 행동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며 통일과 단결에 대한 위선적인 말로 자신을 분장하고 분렬을 위한 동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이 전개하고 있는 깜빠니야의 진정한 내용이다.

이 사람들의 분별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기뻐 날뛰면서 여기에 키질을 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분렬 책동을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분렬을 반대하며 통일을 진심으로 념원한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동일한 사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기초를 가지고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모든 형제 당들의 행동의 지침으로 된다.

또한 선언과 성명은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 존중, 내정 불간섭, 동지적 협조 등을 포함한 형제 당 및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을 규정하였다.

이 규범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의 장구한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력사적 경험을 총화하여 형제 당들이 일치하게 내린 결론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위하여서는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다같이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준수하며 다같이 호상 관계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였다.

만일 일부 사람들이 맑스-레닌주의와 공동으로 작성한 선언 및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함부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만일 그들이 형제 당들과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들을 유린하지 않았다면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는 오늘과 같은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 당은 당초부터 형제 당들 간의 의견 상이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내부 문제로 동지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론쟁을 개시하였을 때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형제 당들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려는 분렬 행동을 반대하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참기 어려운 문제도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위하여 참으면서 내부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만일 일부 사람들이 평등한 립장에서 의견 상이를 동지적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며 진실 앞에 허심하게 대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표리 부동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조성된 사태는 이미 수습되였을 것이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더 큰 승리를 달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와 선언 및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그릇된 견해와 주장을 류포하였으며 유해로운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형제 당들의 정당한 의견에 대하여서는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그릇된 견해를 남에게 강요하며 저들을 추종하지 않고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는 계급적 형제들에 대하여 각방으로 타격을 가하며 고립시키며 배제하려고 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몇몇 나라를 떼여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듯이 행동하면서 의견 상이를 국가적 관계에까지 확대시켜 형제 국가들 간의 협정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형제 국가와 국교를 단절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혁명적 동지와 계급적 원쑤들을 분별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제국주의를 미화 분식하고 그들에게 무원칙하게 양보하고 순응하며 《친선》과 《호의》를 표시하면서도 도리여 계급적 형제와 혁명적 동지들에게는 원쑤처럼 대하는 참을 수 없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세계의 로동 계급은 이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심중한 해독을 입은 데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은 장구한 기간에 걸친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근로 대중의 피어린 투쟁의 위대한 결실이다.

사회주의 진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며 세계 평화의 불패의 성새이며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이 고귀한 승리의 결실을 어떠한 당이나 한 나라가 절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제로 전변된 오늘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가 세계 혁명의 기지로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한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나 일부 사회주의 국가만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그 통일과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장성 발전에 의하여 강화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할 것 없이 다 혁명적 립장에서 견결히 노력한다면 자기들이 차지한 위치에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큰 나라라 하여 결코 사회주의 진영을 대신할 수 없다. 더우기 크고 혁명한 지 오랜 나라라 하여 맑스-레닌주의 원칙에서 리탈하며 공동의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제멋대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없다.

큰 나라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더욱 더 큰 후과를 미친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치고 하나의 진일체로서 굳게 단합됨으로써만,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치하게 행동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영은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한다는 것은 그 누구를 무원칙하게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며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계급적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하여야만 진정으로 통일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며 그 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세계 혁명의 기지를 옹호하는 것이며 평화와 제 인민의 진보를 위한 기본 진지를 고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파

괴하는 행위는 국제 로동 계급의 리익을 저버리는 것이며 매개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의 리익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오늘과 같은 사태를 조성시킨 사람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계급의 리익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 행위와 단결을 파괴하는 대국 배타주의적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즉시 그만 두어야 할 것이며 사태를 랭정하게 고찰하고 진정한 통일을 위한 길로 돌아 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반중국 깜빠니야와 이른바 《집단적 조치》에 대한 소란스러운 행동은 이 사람들이 분렬주의의 길로 더욱더 깊이 빠져 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중화 인민 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으며 세계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과 국제 반동 세력은 극도의 증오감을 품고 중국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에 맞장단을 치면서 《호전 분자》요, 《뜨로쯔끼주의》요, 《분렬주의》요 하면서 중국을 중상하며 공격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과 같이 중국을 맹렬히 공격하며 고립시키고 배제하려는 것은 실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사실 상 사회주의 진영 인구의 3 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의미한다. 중국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려 하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그 어떠한 통일에 대하여도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비단 큰 나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어느 한 특정된 나라의 혁명의 성과만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성과가 다 같이 귀중하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어제 한 나라를, 또 오늘은 다른 한 나라를, 또 래일에는 그 어떤 다른 나라를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결국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사분오렬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다.

더우기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강요하면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형제 당들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려는 것은 세계 혁명의 기지인 사회주의 진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말아 먹으려는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운명에 관계되며 세계 혁명의 운명에 관계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분렬 책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 의사를 강요하면서 한 나라의 당 대회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새로운 단계》의 개시로 묘사하며 누구나 다 그 결정을 떠받들고 거기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한 나라 당 결정에 옳은 것이 있건 그른 것이 있건 넘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들이여야 하며 그래야 국제주의라고 떠들고 있다.

형제 당들은 호상 경험을 배워야 하

며 남의 좋은 것과 자기 실정에 부합되는 것은 섭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개 당이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내부 문제이다.

남의 좋은 것이라도 자기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교조주의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리롭지 못하며 더우기 그릇된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자기 나라 혁명 위업에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서도 유해로울 뿐이다.

최근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수 많은 교훈들은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말하여 주고 있다.

최근 년간 일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을 절대화하는 것을 비롯한 그릇된 방침들을 남에게 강요한 까닭에 일련의 나라에서의 혁명은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철저한 《교조주의》의 반대자로 묘사하며 말로는 《평등》을 운운하면서도 한 당의 정책과 결정을 다른 형제 당들에 의무적으로 내리먹이려 하고있다. 나아가서는 형제 당의 내부 문제와 형제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며 파괴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당 결정을 남에게 강요하려고 계속 시도하면서 저들과 형제 당들 간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자기 당 대회의 결정을 형제 당이 접수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서슴없이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의 형제 당들의 자주성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는 너무나 명백하다.

더우기 그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엄중한 후과를 미친 소위 《개인 미신 반대 운동》을 계속 떠들어 대고 있다.

지난 기간 이 사람들은 소위 《개인 미신》에 대한 딱지를 들고 다니면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모해하고 공격하며 형제 당과 형제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그 나라 반당 종파 분자들을 조종하면서 형제 당을 분렬시키고 형제 나라의 당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국제 종파의 가장 추악한 행위이다. 소위 《개인 미신》에 대한 딱지는 그들이 저들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악명 높은 방패로 되고 있다. 그들은 이 배신적인 행위에 대하여 반성할 대신에 계속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개인 미신 반대》의 《신선한 바람》과 《새로운 정신》이 가 닿지 않은 《교조주의자》니 뭐니 하며 공격하고 있으며 이 딱지를 형제 당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하고 있다.

바로 《개인 미신 반대》의 소동으로 하여 수 많은 형제 당들이 《열병》을 겪었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커다란 손실을 당하였다.

바로 이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촉을 받은 변절자들이 반혁명 폭동을 일으켰으며 국제적으로 반공 깜빠니야를 전개하였으며 오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공격하는 자본으로 삼고 있다.

만약 이러한 《개인 미신 반대》 소동이 《신선한 바람》이고 《새로운 정신》이라면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진영을 와해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떠벌리고 있는 《자유의 신선한 바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사실 상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바람》에 대하여 극구 찬양하기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이와 같이 험악한 국제적인 종파 활동과 파괴 책동을 감행하고도 파렴치하게 남은 《분렬 행위》를 한다거나 하면서 사실을 전도하여 모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공산주의자의 량심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수법과 행위는 결국 그들 자신의 정치적 도덕적 파산을 보여 줄 따름이다.

그들은 또한 형제 나라 당과 인민이 자기 힘으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의 자립적인 경제를 강화하여야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개 사회주의 국가가 자기의 내부 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협조를 더 효과적으로 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담보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형제 나라들이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민족주의》요, 《고립주의》요 하는 황당한 소리로 비난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비난하는 진정한 목적은 딴 데 있는 것이다.

그들은 소위 《통합 경제》를 운운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 건설 사업까지 통제하며 지배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남의 자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진영 전반의 리익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혼자서 독판을 치며 다른 나라 경제를 저들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전형적인 민족 리기주의의 표현이다.

사회주의 진영을 약화시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와해시키려는 이 모든 책동은 단호히 배격되여야 한다.

분렬 책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제주의적 립장에서 더욱더 멀리 떨어져 나가 로동 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단결을 방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맑스-레닌주의당들과 로동 계급은 계급적 련대성에 의하여 굳게 련결되고 있으며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 전선에 결합되여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피부 색갈이나 인종 및 지역 별이나 나라의 발전 수준 등 표징들에 관계 없이 오직 계급적 친우로서 호상 존중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극도의 거만을 부리면서 아세아 당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듯이 말하며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혁명 투사들을 《정치에 미숙》하고 《발전심한 자》들이라고 비방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기의 혁명 전통과 경험만 내세우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로동 계급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당이 혁명을 옳게 령도할 수 없으며 혁명이 승리하여도 진행하기 곤난하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다 남을 멸시하고 모욕하며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는 대국 배타주의적 행동이다.

우리는 형제 당의 혁명 전통과 경험을 존경한다.

그러나 주요한 것은 과거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 누가 혁명을 위하여 옳게 투쟁하는가 하는 데 있다.

현재 혁명적 립장에서 리탈하고도 혁

명 전통을 자랑하는 것으로는 자신을 변명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어느 특정된 지역의 혁명 투쟁만이 주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지역에서 진행되는 혁명 투쟁이든 다 같이 귀중하며 이것을 공동의 위업으로서 지지하고 성원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국제주의의 초보적인 원칙마저 위반하면서 마치 구라파의 혁명 투쟁만 큰 것이고 세계 다른 지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은 보잘 것 없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 인민들의 반제 혁명 투쟁을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방으로 훼방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그 어떤 《모험주의적》인 《소부르죠아 운동》이라고 중상하고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거세찬 반제 혁명 투쟁의 불길이 타 오르고 있다. 이 혁명 투쟁은 제국주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전반적인 세계 혁명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평화를 수호하는 거대한 력량으로 되고 있다.

오직 혁명적 립장을 떠난 자들만이 이 투쟁을 외면하며 이 투쟁의 의의를 훼방하려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각성된 농민들이 혁명에 진출하고 있으며 일련의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였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 인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구라파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방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들 속에서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취하고 반목을 조성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을 분렬시키려고 책동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떠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 소리를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 이러한 그릇된 행동들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청산되여야 한다.

국제 로동 계급과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그들이 피로써 쟁취하였으며 사수하여 온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인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와해시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이 위험에 처한 이 때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국제 로동 계급 앞에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통일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전개할 신성한 임무가 나서고 있다.

조성된 사태는 모든 공산당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리익을 위하여,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위업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정확한 립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일부 사람들의 분렬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개별적 당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관계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공산주의자들 자신이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의 사태는 결코 몇몇 당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타개될 수는 없다. 세계의 모든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서만 분렬은 저지되고 통일은 보장될 수 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운동의 리익을 위한 공명 정대한 립장에 서며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로동 계급의 숭고한 위업 앞에서 지니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를 랭정하게 고찰하며 사실에 기초하여 시비를 가리며 심사 숙고하여 자기의 정확한 립장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공정하고 자주적인 립장에 확고히 섬으로써만 사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 지고 있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책임 지고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의 량심으로 어느 길이 로동 계급의 위업을 위한 길인가를 재삼 생각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립장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조성된 사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당의 기성된 권위를 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분렬주의적 행동의 뒤를 따를 것을 강요하며 지지자들을 급히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들은 남에게 그릇된 행동을 강요하며 자기 의사에 복종하지 않는 당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수와 다수에 대하여 떠들면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중앙 집권적 원칙과 규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 어떤 조직 형태를 꾸며 낼 대책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은 형제 당들의 회의에서 이미 배격되고 파산 당한 것이다.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는 상급과 하급의 관계란 있을 수 없으며 누구는 그 어떤 중앙적 위치에서 명령하고 통제하며 누구는 그 밑에서 복종하며 집행하는 관계란 있을 수 없으며 기계적 다수의 의사를 강요할 수 없다.

중앙 집권적 원칙은 개별적 당들의 내부 생활에서 적용되는 규범이다. 이 원칙을 형제 당들 간의 관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중앙 집권적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의견 상이를 조직적인 분렬에까지 이끌자는 것이며 자신을 중앙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자처하면서 대국주의적 오만과 전횡이 지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진정한 단결은 모든 공산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그 누구도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좌지우지 못 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어떤 개인이나 한 당의 롱락물이 아니다. 더욱더 많은 공산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일부 사람들의 전횡을 반대하여 투쟁한다면 그것은 저지될 것이다.

통일을 원하는 모든 당들과 모든 공

산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투쟁한다면 분렬 책동은 파산되고야 말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자기의 원칙적인 립장을 굽혀서는 안 되며 항상 독자적인 립장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통일이 귀중하고 사회주의의 위업이 귀중하다면 외부의 압력에 눌리여 독자성을 상실하고 다른 당에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의 주체성도 없이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며 남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은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며 국제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자기 인민과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사업에 손실을 가져 오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진정한 국제주의적 단결을 약화시키게 된다.

공산주의자는 오직 혁명의 위업을 위하여 온갖 박해와 회유와 기만을 박차고 투쟁하는 투사이다. 공산주의자의 영예와 그들에 대한 대중의 신임은 오직 진리와 혁명적 신념을 위하여 불굴의 의지로 투쟁하는 거기에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야 한다. 통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 및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에 기초하여야 한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운명과 관련된 원칙적인 의견 상이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단순한 투쟁 방법 상 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근본 문제와 관련되여 있으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위한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 계속 혼란을 조성하고 분렬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의 망신을 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신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로동 계급이 장기간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위대한 진지를 허물어 뜨리려 하고 있다.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진정한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남에게 수정주의를 강요하며 전횡을 일삼는 대국 배타주의를 견결히 배격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국 배타주의는 단결과 통일을 파괴하는 위험한 독소이다. 대국 배타주의를 제거하여야 자각적인 단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진정한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 진지한 비판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한다.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립장에서 자유롭게 진행되여야 하며 어디까지나 원칙적이며 동지적인 립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론쟁하며 무근거하게 남을 공격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그를 고립시키고 배제하려는 것과 같은 부당한 행동은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

광범한 비판이 전개될 때 누가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여질 것이며 그릇된 것은 파산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자기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건전한 토대 우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의 의견 상이를 해결하기 위한 형제 당들의 국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형제 당들의 국제 회의는 자주성과 호상 평등과 동지적인 협의의 원칙을 준수하며 충분한 준비를 한 토대에서 진행되여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만일 지금 일부 사람들이 그 누구를 배격하기 위한 《필요한 방도와 수단》을 취하겠다고 미리부터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국제 회의로 된다면 그것은 분렬의 도구로만 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의 길에서 물러나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만일 국제 로동 계급 앞에서의 배신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더 높이 들어야 한다.

모든 맑스-레닌주의당들이 단결하여야 하며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단결하여야 한다. 전 세계 로동 계급이 굳게 단결하며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이 단결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위업, 로동 계급의 혁명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수정주의자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맑스-레닌주의당들과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경우에 부닥쳐도 모든 시련을 극복할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할 것이며 혁명의 위업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다. 어떠한 힘도 혁명의 전진 운동을 가로막지는 못 한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복잡한 환경에서도 항상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에 충실할 것이며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할 것이다.

분렬 책동을 물리치고 통일을 수호하자.

전 세계 로동 계급은 단결하라!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단결하라!

현대 부르죠아 《사회층》론의 본질

신 언 갑

자본주의 발전의 제국주의적 시대는 로자 간의 모순, 투쟁을 극도로 첨예화시켰다. 각국의 각성한 프로레타리아트와 혁명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존망에 위협을 주면서 혁명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인민 대중과 제국주의와의 날로 첨예화되는 사회 계급적 모순, 민족적 모순들은 전 세계를 투쟁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어제'날의 그 어느 때에도 오늘처럼 반제 투쟁, 혁명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 거세찬 투쟁과 이 투쟁 행정에서 더욱더 각성하고 있는 인민 대중의 위력은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를 전률케 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 독점체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연장해 보려고 인민 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무마시키는 데 력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록펠러, 모르간, 포드 재벌들은 수천만 딸라의 돈을 써가면서 소위 사회 과학 연구 기관들을 꾸려 놓고 거기에 수십 명의 고용 인테리들을 인입 육성하면서 자기들을 찬미하는 각종 사상, 교리들을 꾸며 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나온 부르죠아 사회학 리론 중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이른바 《사회층》론이다.

그러므로 부르죠아 《사회층》론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 분쇄하고 그들을 고립시키며 인민 대중을 더욱 각성시켜 혁명 투쟁에로 불러 일으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부르죠아 《사회층》론과의 투쟁은 현대 수정주의-개량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현대 수정주의-개량주의자들이 떠드는 반맑스주의적인 《계급 협조》론, 각종 《구조 개혁》론, 의회주의 리론들은 모두가 다름 아닌 《사회층》론을 비롯한 부르죠아 사회학, 철학 리론의 병참고에서 그 밑천을 얻어 낸 것들이다.

따라서 현대 부르죠아 《사회층》론을 반대하는 투쟁은 우리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독소를 류포시키는 현대 수정주의를 배격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함에 있어서도 긴요한 문제로 된다.

현대 부르죠아 《사회층》론에는 여러 가지 조류가 있는바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층》론과 그의 변종들로 되는 《계급 소멸》론, 《계급 류동성》론, 《중류 계급화》론 등을 비판하려고 한다.

1

현대 부르죠아 《사회층》론은 사회의 구조를 기본으로 연구하고 있다.

《사회층》론에 의하면 사회 성원들의

구성 즉 《사회층》, 《사회 집단》, 《계급 구조》 등은 우선 사람들의 사상과 심리, 교육, 정신 문화, 생활 양식, 행동 등의 차이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론거들》로 사회의 구조를 설명하도록 고등 교육 기관들에 권고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를 물질적 관계에서가 아니라 정신적 관계에서 설명하려는 관념론의 립장이다.

물론 사상 의식도 그것이 일정한 물질적 관계를 반영해 나오는 것 만큼 각 계급들의 물질-생활적 처지에 따라서 공통성과 차이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는 사회 성원들의 계급적 구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계급은 그에 속하는 사람들이 의식하건 않 하건 간에 관계 없이 우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 사상 의식, 심리, 생활 양식 등은 계급들의 경제적 처지를 반영한 2 차적이며 파생적인 것이다.

사람들의 사상 의식은 경제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프로레타리아트가 자신을 부르죠아로 생각해 보는 것으로써는 결코 자신을 부르죠아로 만들 수 없다.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레타리아트는 그가 어떤 사상, 심리, 생활 양식을 가지는가에 관계 없이 살음 위해서는 자기의 로동력을 생산 수단의 소유자에게 즉 부르죠아지에게 팔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그는 프로레타리아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의식의 차이에서 계급 구분의 징표를 보는 것은 파생적이며 부차적인 징표로서 계급 존재의 기본 징표인 경제적 기초를 은폐하려는 것이다.

《사회층》론에서는 또한 사회 계급 구분의 기초를 《수입》 원천에서 찾는 견해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리론의 주창자들은 《수입》에 따라서, 《수입 별로 본 계급》, 《수입의 계급》 등을 말하고 있다.

이는 계급 구분의 기준을 생산의 령역에서가 아니라 분배의 령역에서 보는 견해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분배에서는 물론 심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주의자들은 분배를 계급 구분의 주요한 요소의 하나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문제를 그릇된 데로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이다.

분배가 계급 구분에서 주요하다고 하여 단순히 분배가 적으면 로동 계급이고 많으면 자본가 계급이라는 결론은 떨어지지 않는다. 우선 많고 적고 하는 것 자체가 극히 상대적인 것이다. 물론 한 자본가와 그에게 고용된 로동자 간의 분배 상 차이란 명백한 것이지만 전 사회적 견지에서 볼 때 자본가와 로동자 사이의 넓은 공간에서 중간 분배 몫을 차지하는 수다한 사람들의 계급적 기초 문제는 결코 이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

분배는 사회의 일정한 계급에 따라 공통성을 띠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상대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부르죠아 사회에서 분배는 부단히 오르내리고 있으며 또 국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례컨대 제국주의 국가의 로동자와 식민지 국가의 로동자,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와 식민지 국가의 민족 부르죠아지 간에는 분배에 있어서 대비가 곤난할 정도의 심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동 계급과 부르죠아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띠는 것이다.

문제는 이 분배 상 차이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그래야 계

급의 본질을 밝힐 수 있다. 즉 자본가가 리윤을 얻고 로동자가 로임을 받는 분배상에 대한 그들의 관계, 사회적 생산에서의 그들의 위치, 역할과 관련된다.

수입에서 계급의 기초를 보는 견해는 원인과 결과를 슬쩍 바꾸어 놓고 첫자리에 부차적이며 파생적인 것을 놓고 본질적이며 결정적인 것을 뒤로 밀어 놓는 것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수입》에 따라서 계급을 구분하는 견해와 함께 《직종 별》, 《직업 별》 차이들에서 사회의 계급적 구분의 기초를 보는 《리론》도 부르죠아 《사회층》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르는 사람들의 일정한 무리는 구체적인 《직업 그루빠》 혹은 《직종 그루빠》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계급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계급 자체를 《직종 별로 본 계급》, 《직업의 계급》으로 부른다.

사람들의 직업과 직종은 사회 계급적 구분의 기초로는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동 계급의 직업에 대한 권리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에게 있다. 자본가는 자기의 경제적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로동자들에게 일정한 직업과 직종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 로동자는 살아가기 위하여 일정한 직업과 직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르죠아지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로동자는, 직업 선택의 일정한 희망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은 극도로 제한된 의의 밖에 가질 수 없다. 부르죠아 사회에서 일'자리를 위한 경쟁은 그들의 선택의 《자유》에 무서운 독재자로 등장한다.

결국 직업은 사람들의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를 반영하는 파생적인 것에 불과하다.

부르죠아 《사회층》론은 사회 구성과 계급 규정에서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징표들로서 본질적인 징표들을 가리우는데 힘을 집중함으로써 계급 관계의 존재 자체를 거부해 보려고 한다.

2

《사회층》론의 중요한 변종의 하나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계급이 점차 《소멸되여 간다》는 《리론》이다.

현대 부르죠아 사회학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은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동 계급이 《자본가화》, 《비프로레타리아트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자본가와 로동자 계급은 서로 《균등화》되고 점차적으로 《소멸되여 간다》고 주장한다.

이 《계급 소멸》론은 《사회층》론에서 계급 구분의 기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상 의식, 수입 분배, 직업 직종 등 분야에서의 차이가 소멸되여 간다는 《론거》에 의거하고 있다.

펜실바니야 종합 대학 사회학 교수 제시 비나드는 말하기를 《공업화된 사회에서 수입, 교양, 직종 및 소비 분야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점점 더 적어져 간다》고 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그는 계급적 차이의 《균등화》와 계급의 점차적 《소멸》에 관한 《결론》을 짓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로동자와 자본가의 계선을 없애려는 《공동 주주》론이다.

이 리론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기업소의 로동자들 가운데는 주권이 널리 보급되여 로동자들이 자본가들과 더불어 《공동의 주주》로 되였으며 따라서 자본가와 로동자 사이의 차이가 《소멸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론들은 날로 커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적대 관계를 숨기

는 데 돌려지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이 경제 투쟁으로 약간의 물질 생활 상 개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주권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경제적 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계급적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는 될 수 없다. 계급적 불평등의 근원은 생산 수단에 대한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것 만큼 근로자들의 경제적 처지의 개선도 포함하여 그들의 모든 자유와 해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생산 수단에 대한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사회의 수입, 직종, 교육, 생활 양식 등의 차이도 소멸될 수 있으며 계급도 청산될 수 있다.

또한 현실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프로레타리아 계급과 부르죠아 계급 간의 차이가 《소멸》, 《균등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줄 따름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립적 주민들 속에서 고용 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늘어 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국제 로동 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자립적 주민들 속에서의 고용 로동자의 비중은 계속 장성하고 있다.

나　　라	기 간 (년대)	자립적 주민들 중의 고용 로동자의 장성 비률 (%)
미　　국	1940~1950	78.3~82.2
불 란 서	1851~1954	54.6~64.9
서　　독	1882~1956	64.7~75.4
이 태 리	1936~1954	51.0~60.4
카 나 다	1931~1951	65.5~77.3

도표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대렬을 증대시킬 뿐 그들은 《자본가화》, 《비프로레타리아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부르죠아 사회학은 마치 로동자들의 수입이 《장성》되여 자본가와 로동자 간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는듯이 말하고 있으나 현실은 수입에서 차이가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 줄 따름이다.

얼마 전에 미국 상무성은 1960년과 1955년의 미국 가정들의 수입 분배를 대비하는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사회적 계제(階梯)의 최하단에 있는 미국 가정의 20%는 1955년에 가정 총수입액의 5.2%를 받았는데 1960년에는 4.9%를 받았다. 다른 20%의 미국 가정의 몫은 같은 기간에 11.9%에서 11.5%로 떨어졌다. 또 다른 20%의 미국 가정의 몫은 같은 기간에 17%에서 16.8%로 떨어졌다. 그러나 사회적 계제의 최상단에 있는 가정의 5분의 2는 총수입액의 보다 많은 부분을 받았다. 례컨대 최상단에 있는 20%의 가정의 몫은 같은 기간에 가정 총수입액의 43.2%에서 43.8%로 장성하였으며 피라미트의 꼭대기에 있는 미국 가정의 5분의 1의 몫은 22.7%에서 23%로 장성하였다. 기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상태도 역시 이와 비슷하다.

이 모든 사실은 자본주의가 발전됨에 따라 수입에서의 차이가 없어지거나, 계급이 《균등화되고》, 《없어진다》는 부르죠아 《사회층》론의 허위성을 폭로해 준다.

한두 장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로동자, 사무원들이 있는 것으로써는 결코 자본가와 로동자 간의 《균등화》, 계급적 차이의 《소멸》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미시간 대학 통계부의 계산에 의하면 미국 가족의 약 1%를 차지하는 큰 주주들은 주권 총수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의 주권의 대부

분도 역시 가족수의 1% 밖에 되지 않는 중류 주권 소유자들의 소유로 되여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약 2%에 해당하는 소수의 가족이 자기 손안에 주권의 거의 전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로동자들이 몇 장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써 그들이 《기업소 공동의 소유자》로, 《자본가》로 될 수는 없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로동자가 자본가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자본가는 주권을 무효로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은 주권을 가진 로동자들의 기업소에 대한 전적인 무권리를 말해 준다.

자본가들이 주권을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파는 것은 자본을 세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들의 조그마한 저축까지도 마음 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하면서 대자본가들의 립장을 강화해 줄 뿐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차이가 《소멸된다》느니 호상 《균등화된다》느니 하는 따위의 주장들이 모두 근거 없는 거짓임을 보여 준다.

3

현대 부르죠아 사회학은 미국을 비롯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계급 투쟁이 사회 성원들의 《류동성》으로 인하여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류동성》을 가지는듯이 즉 《수평선적 류동》으로 또는 《수직선적 류동》으로 한 사회층으로부터 다른 사회층으로 부단히 옮겨 가고 있는듯이 주장한다.

미국 철학자 체이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에서는 《계급들이 항상 변동하고 있다.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관들에 있는 승강기처럼,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한다.》

부르죠아 사회학은 《류동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개방된 사회》로, 또 그러한 계급을 《개방된 계급》으로 묘사하며 과거 사회와 계급을 《폐쇄된 사회》, 《폐쇄된 계급》으로 묘사한다. 그들에 의하면 《개방된 사회》에서는 《수직선적 류동》이 경제 기구, 정치 기구, 군대, 교회와 그리고 교육, 결혼 등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이며 이리 하여 가난뱅이도 백만장자로 《류동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개방된 사회》에서 사람들의 《류동성》이 《사회 발전의 기본 동력》으로 또는 《기본적인 추진력》으로 된다고 함으로써 계급 사회 발전의 기본 동력인 계급 투쟁을 무미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류동성》으로 인하여 사회 계급적 모순과 갈등이 없어지고 《…계급 갈등은 일정한 의견 충돌의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투쟁을 은폐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기구, 정치 기구는 독점 부르죠아지의 수중에서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지 가난뱅이를 백만장자로 만들거나 근로자들의 빈궁과 실업을 청산할 수는 없다.

미국을 비롯한 독점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는 독점 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 기구도 그들을 위하여 복무한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경제를 장악한 독점은 정치 기구도 장악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특징은 경제를 장악한 독점 재벌들이 직접 국가 기구와 정치 기구를 장악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들은 국가 기구와 정치 기구를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기구, 정치 기구와 군대

동을 통하여 빈궁한 사람들이 백만장자로 《류동된다》는 것은 거짓이며 따라서 이는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에게 환상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단결과 투쟁을 저지하려는 음흉한 마술에 불과하다.

교육을 통하여 로동자들과 빈궁한 사람들이 백만장자로 된다는 것도 거짓이다.

최근 미국 대통령 존슨은 미국에 400만 명의 실업자들이 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기아와 빈궁 속에서 살고 있음을 자인하면서 빈궁과 실업의 《뿌리를 빼는》 대책을 소위 자기의 《교서》로서 국회에 내놓았다. 대통령의 《교서》에 의하면 실업과 빈궁의 《뿌리》는 로동자들과 청년들에 대한 교육의 제한성에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실업과 빈궁을 없애자면 이 제한성을 극복하고 기술 숙련과 교육을 강화하면 된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르조아 사회에서 교육이란 결코 근로자들의 희망 여하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에 대한 교육의 제한성은 이 사회 제도 하에서의 불가피적 현상이며 극복될 수 없는 고질병의 하나이다. 결코 교육에다 빈궁의 죄과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

부르조아 사회에서는 교육이 극도로 제한성을 띨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의 일정한 발전과 새로운 과학 기술의 생산에의 도입 등은 실업자 대열을 축소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일'자리를 위한 경쟁을 더욱 심각화한다.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와 생산에의 과학 기술의 도입이 근로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로동 시간을 단축하는 데로 돌리지지 않는 부르조아 사회에서 이것은 응당한 현상이다.

문제는 이 사회의 경제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데 있다.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은 혁명 투쟁으로써 이 사회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경제 관계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킴으로써만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

4

오늘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다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부르조아 사회학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은 또한 《중류 계급》이 증대됨에 따라 자본주의가 《무계급 사회》에로 간다는 《중류 계급》론을 퍼뜨리고 있다.

《중류 계급》론자들은 《중류 계급》이 장성하여 점차 《무계급 사회》에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주요 특징으로 되고 있는듯이, 또 이 《중류 계급》이 자본가 계급도 로동 계급도 모두 흡수함으로써 사회는 《무계급 사회》에로 가고 있는듯이 선전한다.

이 《중류 계급》에 대한 리론은 자본주의로부터 무계급 사회에로의 이행이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맑스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부르조아 사회학자 제시 버나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계급〉 사회를 향하여 발전하고 있는듯이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맑스가 예언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 …〈무계급〉 사회는 과도적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계급들을 흡수할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중류 계급의 거대한 확대를 거쳐서 도래하는 것이다.》

또 이 리론은 자본주의 하에서 혁명적 로동 계급 당의 령도적 역할과 중간 계급에 대한 동맹을 반대하는 개량주의 리론에 복무한다.

그들은 로동 계급의 당이 광범한 군중을 령도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로동 계급이 《중류 계급》 속

에 《용해》되는 과정을 겪고 있으므로 자립적이고 확고한 계급이 못 되고 동요하는 계급이며 분화되는 계급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기로부터 그들은 광범한 주민층의 리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이 아니라 《중류 계급》과 그를 대변하는 소부르죠아 개량주의 당이라는 것이다.

부르죠아 사회학자 코욘의 말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기업주(대기업주들을 제외하고), 사무원, 관리인, 기사, 자유 직업자, 관리, 대 중 상인, 학생, 서기, 타자수, 점원, 하급 기술 감독들이 《중류 계급》에 속한다.

물론 중류 계급에 대하여 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어떤 공고한 위치에 있는, 더우기나 다른 계급을 흡수하는 계급으로는 될 수 없다. 그들은 다만 생산 수단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그 소유 정도에 있어서 큰 자본가들과 겨룰 수 없는 계급, 따라서 큰 자본가들과 로동 계급 사이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중간층의 계급일 뿐이다.

사무원, 점원, 기술자, 인테리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들은 생산 수단을 잃고 고용 로동을 하는 층일 뿐이다. 이들은 계급을 형성하지 못 하는 하나의 계층이다.

엥겔스의 표현에 의하면 자본주의 시대의 중류 계급이란 소기업가, 소상인, 수공업자, 농민 등 소부르죠아들이다. 제국주의 시대의 중류 계급도 제국주의 이전의 중간 계급이였던 소기업주, 소상인, 수공업자, 농민들로 구성되여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됨에 따라 모든 계급들이 중류 계급에로 《용해》, 《합류》되여 사회가 《무계급 사회》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류 계급은 분화되여 더욱더 적어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의 많지 않은 부분은 대부르죠아로 되고 많은 부분은 령락되여 반프로레타리아 혹은 프로레타리아의 처지로 떨어진다.

이는 자유 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소규모 생산에 대한 대규모 생산의 우월성으로 인한 것이며, 자본주의적 집적과 집중의 법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불가피적 현상인 것이다. 례컨대 80 년 간에 걸친 미국에서의 소부르죠아지의 변동 정형을 보면 1870년의 38.5%로부터 1910년에는 26%로, 그리고 1954년에는 11.9%로 각각 축소되였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시기의 중류 계급은 독점 자본가에 의한 국가 기구의 종속, 기술 과학 혁명, 군비 경쟁, 대자본가의 세금 정책, 주식 시장에서의 협상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경제적 파산과 계급적인 몰락을 당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의 소부르죠아지의 파산과 몰락도 촉진시키고 있다. 부르죠아 출판물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농업 공황과 농촌에로의 자본과 기술의 침투는 수백만의 중 소 농민들을 파산시키며 주민들을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는 자본주의가 봉건 사회에 비하여 사회의 계급적 구조를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의 2대 계급으로 단순화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자본주의가 중간 계급을 몽땅 없애 치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그들은 재생되기도 한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허다한 〈중간층〉이 불가피적으로 자본주의에 의하여 새로이 산출된다. (례컨대 자전거 및 자동차 등

업과 같은 대공업의 요구에 따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부속 공장, 가내 로동, 소제작소 등등) 이들 새로운 소생산자들은 역시 불가피적으로 또다시 프로레타리아트의 대렬에로 전락한다.》

(전집 제 15 권, 31 페지)

독점 자본가는 어떤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리윤 획득을 위하여 불리할 수도 있다. 독점체들은 이러한 기능을 소생산자, 소기업가의 활동 분야로 남겨 준다. 례컨대 급유소, 자동차 수리 공장, 가정용 전기 기구 수리소 등등과 같은 편의 시설들이 그것이다. 아직 남아 있거나 재생된 중류 계급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독점체의 공세, 경제의 군사화와 세금 정책, 자본의 농촌에로의 침투에 의하여 보잘 것 없는 상태에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점 자본주의의 발전은 비단 로동자와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소부르죠아지와도 대립된다. 자본주의가 발전되면 될수록 대립은 심화되며 계급적 모순은 가일층 첨예화된다. 따라서 독점체들은 근로자들을 반대하여 새로운 공세를 취하며 파쑈화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중간 계급의 몰락과 로동 계급 대렬의 장성, 이 계급들의 사회 생활 처지의 악화는 로동 계급이 반독점 투쟁에 있어서 광범한 중간 계급들과 통일 전선을 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는 로동 계급이 중간 계급에 《용해》, 《흡수》되기 때문에 개량주의 당이 광범한 대중을 령도할 수 있다는 개량주의 리론의 허위성을 보여 준다.

현대 산업,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장성 발전하는 계급은 로동 계급 뿐이다. 따라서 로동 계급만이 유일하게 장래성 있는 공고한 계급이다.

오직 이 계급, 로동 계급과 그의 당만이 독점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농민과 중 소 부르죠아지의 진출을 적극 지지할 수 있으며 그들과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적, 사상적 투쟁에서 튼튼한 동맹자로 될 수 있다.

물론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은 농민 계급과 기타 동맹할 수 있는 각계 각층이 자기를 따라 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주면서 그들과의 동맹을 의식적으로 맺어야 한다.

그리하여 독점 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집어 엎기 위한 혁명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이 길만이 참으로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농민과 모든 중류 계급까지도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는 길이다.

⁂ ⁂

현대 부르죠아 《사회층》론은 그 《리론》의 온갖 각양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르죠아 사회와 전 세계에서의 적대적 계급 관계의 존재와 그 간의 모순, 투쟁을 은폐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리론》은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반대하며 각국의 로동 계급과 피착취 근로 대중으로 하여금 부르죠아지와 반動당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일떠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의 역할을 놀고 있다.

또한 《사회층》론은 적대적 계급 관계와 계급 투쟁을 거부함으로써 다른 편으로 부르죠아 사회에 있어서의 초계급적인 《민주주의》와 《자유》의 구호를 합리화하며 소위 《인민적 자본주의》론을 리론적으로 《뒤받침하는》 역할을 놀고 있다.

이 《리론》은 현대 수정주의-개량주의

자들에게 사상 리론적 무기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수정주의-개량주의자들은 《사회층》 론에서 《리론적 론거》를 얻어 《계급 협조》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으며 계급 투쟁이 없고 고도의 《민주주의》가 발양되는 이른바 《리성적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하여 떠들며, 이 사회의 민주주의 《구조 개혁》을 고창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 자본 집단의 착취적이며 침략적이며, 반동적인 정책과 그의 부단한 강화는 부르죠아 《사회층》론자들과 현대 수정주의-개량주의 리론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여지 없이 폭로해 주고 있다.

반동적인 《사회층》론은 현 시기 날로 심화되는 각국의 로동 계급과 혁명적 인민들의 계급 투쟁, 혁명 투쟁의 거치를 꺾을 수 없으며 그들의 혁명적 의지를 마비시킬 수 없다.

동시에 그들의 《리론》은 각국에서의 혁명 발전과 시대의 전진에 의하여 더욱더 그 진리성이 확고하게 실증되는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결코 훼손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극복되고야 말 것이다.

기업적 지도와 협동적 소유의 공고 발전

김 균 홍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 접근시킬 데 대한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해명되여 있다.

협동적 소유를 공고 발전시키며 그것을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 끌어 올리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기본 문제의 하나로 된다.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로동 계급의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가는가 하는 것은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 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우리 나라에서의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과 방도를 천명하였다.

그것은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문화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초하여 협동적 소유 제도를 부단히 개선 완성하며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는 우리 나라 농업 생산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할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를 공고화하고 그것을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로 접근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협동 경리에 대한 지도에 기업적 방법을 적용한 우리의 경험은 기업적 지도가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발전시키고 협동 농장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협동적 소유를 공고히 하며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끌어 올리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된 이후 농촌에 확립된 협동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협동적 소유를 물질 기술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공고화하여야 한다. 협동적 소유를 공고화하는 기초 우에서만 농업 생산을 부단히 앙양시킬 수 있으며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다.

농촌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는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공고화와 협동 경리의 조직 경제적, 정치 사상적 공고화를 추진시킨다.

기업적 지도는 농촌 경리에 봉사하는 국가 기업소들의 물질 기술적 수단들과 기술 경제 일'군들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기술 경제적 방조를 결정적으로 강화한다.

이것은 협동적 소유의 물질 기술적으로 더 급속히 공고 발전시킨다.

국가가 현대적인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농업 생산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는 사업을 직접 책임 지고 조직 지도하는 것은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과학화 등 농촌 기술 혁명을 더욱 큰 규모에서 효과적으로 수행시킬 수 있게 한다.

동시에 그것은 기술 일'군들과 농민 대중 간의 협조를 강화하며, 농업 생산에서 분업을 발전시키며, 농장 내부에서와 농장들 호상간에 전문화와 협동화를 합리적으로 조직케 하여 기술 변혁, 신신 영농 방법의 도입을 적극 추진시킨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적 지도가 도입된 후 벼를 비롯한 다수확 작물의 재배 면적이 급속히 확장되였으며 토양 개량, 우량 종자의 선정, 경종 체계의 개선, 3 경 체계와 과학적 시비 체계 등 선진 농법이 광범히 도입되게 되였다.

기업적 지도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게 하였으며 협동 농장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급속히 강화하게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농촌은 1만 4,000여 개의 수원 시설, 15만 개의 각종 관개 구조물, 3만 1,300 키로 메터에 달하는 수로로 이루어진 조밀한 관개망으로 덮여 있다.

그리고 지난 5 년 간에(1959~1963년) 뜨락또르는 1만 5,000여 대(15마력 환산), 각종 련결 농기계는 4만 4,000 대, 전기 동력 기계는 8만여 대, 중 소 농기계는 근 50만 대가 더 증가하였다.

이 기간에 기계화 작업량은 연경 면적으로 환산하여 145만 정보로부터 1천 200만 정보로 확장되였으며 기계화 작업의 종류는 2 배로 불었다.

화학 비료의 시비량도 1963년에 논에는 정당 420 키로 그람, 밭에는 272 키로 그람 이상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1958년에 비하여 1.7 배로 장성한 것으로 된다.

현재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에는 800여 개에 달하는 직속 기업소들이 망라되여 있으며 현대적 기술을 소유한 기술자, 전문가의 집단이 있다.

이렇게 강력한 력량을 가진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의 기업적 지도 기능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협동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보다 강화될 것이다.

농업 생산에 대한 기업적 지도는 협동 경리를 조직 경제적으로, 정치 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공고화하는 데 적극 기여한다.

경영 위원회를 통한 기업적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에 대한 기술 지도 체계, 자재 공급 체계 등 정연한 국가적 지도 체계가 확립되

게 되었다.

이것은 농업 생산에서 산만성과 자연 발생성의 잔재를 제거하고 협동 경리 제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또한 기업적 지도는 협동 농장들의 관리 운영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협동 경리 제도를 조직 경제적으로 공고히 한다.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들의 관리 운영 사업을 공업 기업소의 관리 운영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농장 관리 일'군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리 하여 오늘 우리 나라 협동 농장들에서는 계획 작성과 로동 행정, 자금 지출에 대한 통제, 재산 관리 및 농장 재정 활동에 대한 제도와 규률의 강화, 합리적인 부기 계산 체계의 도입 등 사업에서 중요한 개선이 이룩되고 있다.

기업적 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선진적 관리 운영 체계와 계산 체계가 확립되면 협동 농장들에서 생산 활동과 그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영 기업소에서와 같이 독립 채산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기업적 지도의 실현은 협동 경리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그의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초하여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급속히 강화 발전시킨다.

기업적 지도에 의한 농업 생산의 부단한 앙양은 협동 농장들의 총수입과 축적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농민들에 대한 분배 몫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한다.

례컨대 기업적 지도가 확립된 이후 평안 남도 문덕군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의 장성 정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1961년	1963년
총수입	100	117
공동 축적 폰드	100	125
총분배 폰드	100	119

(※ 알곡에만 국한시켜 계산한 것임)

농촌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는 사회주의 협동 경리 제도를 정치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농촌의 사회주의 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도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지도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도, 로동 계급의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을 촉진시키고 있다.

기업적 지도가 농촌 경리에 현대적 기계 기술을 더욱 훌륭히 도입하고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정치적 각성과 의식 수준을 급속히 높이고 있으며 당의 농업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 그들을 더욱 힘있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기업적 지도가 협동적 소유를 물질 기술적으로, 조직 경제적으로, 정치 사상적으로 공고 발전시키며 농촌에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놓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2

농업 협동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는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 같이 올리는 과정을 추진한다. 기업적 지도는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접근시키는 가장 정당한 길이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야 한다. 문제는 이 련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데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생산물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상업적 련계는 공업, 농업 생산 발전을 자극하며 로농 동맹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보장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그들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로동 계급은 농촌 경리 발전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그러한 수단들을 자기의 수중에 틀어 쥐고 농촌에 설정된 거점을 통하여 농민들을 도와 주어야 하며 농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할 때에만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공업의 기계 기술, 선진적 생산 문화를 농촌 경리에 더 잘 보급할 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약화시키거나 거부하면서 상업적 련계에만 치중한다면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며 협동 농장들 간의 경제적 토대와 농민들의 생활 상 차이를 심하게 하여 모든 농장을 다 같이 발전시키는 데 난관을 조성한다.

그것은 협동적 소유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통한 두 소유 간의 결합에 있어서도 농촌 경리에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들이 개별적으로, 분산적으로 사업할 때에는 농업 생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며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고도로 높일 수 없다.

오직 국가적 소유의 물질, 기술적 력량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협동 농장들을 전면적으로, 책임적으로 지도하는 기업적 방법만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생산적 방조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로동 계급과 국가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 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 소유 간의 결합은 국가 기업소들과 협동 농장들 간의 개별적인 결합인 것이 아니라 유일적 지휘 체세에 의한 통일적이고 전면적인 결합이며, 전 인민적 소유가 협동적 소유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의 모든 령역에 뿌리 깊이 혈관을 뻗치고 강력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결합이다.

기업적 지도는 국가가 현대적 농기계들과 설비 자재들, 기술 일'군들을 튼튼히 틀어 쥐고 협동적 소유에 폭 넓게, 그리고 깊이 침투하여 생산을 직접 지

도한다. 이러 하여 직접적인 농업 생산 과정에서 국가적 소유의 생산 수단, 로동력은 협동적 소유의 그것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국가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농촌 기술 혁명이 촉진되면 될수록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국가적 소유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면서도 협동적 소유를 강화한다.

숙천군에서의 다음과 같은 자료는 이러한 일반적 경향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년도 / 지표 (%)	1961	1962	1963
국가적 소유의 비중	39.1	41.6	43.2
협동적 소유의 비중	60.9	58.4	56.8
국가적 소유의 몫의 장성	100	113.2	127.6
협동적 소유의 몫의 장성	100	101.9	107.5

(국가적 소유의 비중은 농업 생산에 투하된 총체적 가치 중에서 국가적 소유에 속한 생산 수단의 마모 가치와 로력의 지출이 포함된 것이다. —숙천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임)

이와 같이 기업적 지도 밑에서의 두 소유의 련계는 협동적 소유를 다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히 하고 공고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협동적 소유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생산 수단의 리용 과정, 생산 과정에서 국가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고 농업 생산에서 국가적 소유의 몫을 점차 크게 하며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 수준을 높이게 한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전 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 기술적 수단들이 농업 생산에서 점차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협동적 소유는 전 인민적 소유에로 더욱더 접근하게 될 것이다.

실로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지도는 《협동적 소유에 대한 국가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이 두 소유 형태의 련계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부단히 접근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김 일성,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하여》)이다.

직접적인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밀접한 결합은 동시에 생산 과정에서 《사람들의 활동의 호상 교환》 관계를 변화시킨다.

기업적 지도를 실현하는 경영 위원회는 군 내의 기술적 거점들 및 기술 경제적 력량들과 협동 농장들의 활동을 유일한 계획화 체계에 망라시키고 통일적으로 지도함으로써 농업 생산 행정에서 맺어지는 로동 계급과 농민 간, 농민들 호상간의 협조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고 있다.

농기계 작업소, 관개 관리소, 농기구 공장 등 국가 기업소들이 제각기 자체의 기술 수단들을 가지고 농촌 경리에 복무할 때에는 그의 효과를 원만히 발양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맺어지는 농민과 로동 계급 간의 관계가 분산적이며 따라서 협조 관계가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될 수 없다.

기업적 지도는 국가 기업소들과 협동 농장들을 유일적인 지휘 체계에 망라시키고 그들의 모든 활동이 전면적으로 맞물리도록 련계를 계획적으로 맺게 한다.

이것은 국가 기업소 로동자들 속에서 협동 농장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주인다운 립장을 강화하며 또한 농민들을 로동 계급에 더욱 의거하게 하고 로동 계급의 지원을 더욱 원만히 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적 지도가 실현된 이후 농업 생산 행정에서의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협조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되였다.

례하면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지도 밑에 협동 농장들에 고착되게 된 뜨락또르 운전수들은 농기계의 가동률을 더욱 높이고 기계화 작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여 작업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농민들의 일을 헐하게 하여 주면서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힘을 바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농민들은 자기의 힘과 기자재들을 제공하여 뜨락또르 운전수들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애로들을 풀어 주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기업적 지도는 농민들 호상간의 협조 관계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

이것은 군 내의 모든 협동 농장들을 하나의 경영 활동 단위와 같이 지도함으로써 여러 농장들의 힘을 단합하여 생산과 건설을 조직하는 데서, 협동 농장들 간의 호상 방조를 강화하는 데서, 지대적 조건에 맞게 군내 농장들 간의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례컨대 기업적 지도 밑에서는 관개 공사, 중 소 발전소의 건설, 토지 관리와 개간 등 한 개 농장의 힘만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개 농장의 공동의 힘으로 해결되고 있다.

또한 적지적작 원칙에 의한 농업 생산의 전문화와 다각화가 전 군적 범위에서 광범히 조직되고 농장들이 서로 협력하여 전반적 앙양을 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농민들 호상간의 협조 관계가 농장과 농장 간에서, 작업반 간에서와 작업반 내부에서 날로 더욱 강화 발전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적 지도는 농업 협동 경리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더욱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분배 관계를 개선한다.

농업 협동 경리에서는 공업과는 달리 자연 지리적 조건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지대 간, 협동 농장 간에서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서도 분배 몫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기업적 지도는 모든 협동 농장들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도록 보장하고 생산 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농업 로동의 생산 능률을 더욱 높이며 모든 농장원들이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동일한 분배를 받게 하는 과정을 촉진시킨다.

특히 경영 위원회는 조건이 불리한 지대와 농장들에 대하여 지도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며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에서는 부유한 농장에 비하여 소비의 몫을 보다 크게 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분배에서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있다.

기업적 지도는 농업 로동과 공업 로동의 차이를 축소시키는 데 적극 기여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적 지도는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

로 개선하고 농업 생산을 급속히 반전시킬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를 부단히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시키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 *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전 과정, 특히 새 농업 지도 체계가 수립된 이후의 현실은 협동적 소유를 공고 발전시키며 그것을 전 인민적 소유로 끌어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한 테제의 명제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또한 기업적 지도가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의 가장 훌륭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두 소유 간의 이러한 결합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월한 지도 방법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농촌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가 더욱 완성되고 그의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 없이 구현될 때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농촌 문제는 더욱 성과적으로 해결되여 나갈 것이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경리 발전에서의 집약화

김 철 영

김 일성 동지의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맑스-레닌주의 농업 리론과 농촌 경리 지도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하에서 농업 생산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면적인 대답을 주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농촌 경리의 집약화 수준을 제고할 데 대한 문제이다.

집약화는 사회주의 하에서 농업 생산 조직의 기본이며 농업 생산의 앙양을 위한 담보이다.

우리 당은 농업 발전의 력사적 경향성과 사회주의 농업 경영의 본질,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의 특성에 대한 심중한 고려에 기초하여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영농 사업에서의 기본 방침으로 규정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농촌 경리의 집약화—이것은 영농 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이다. 현대적 과학, 기술에 기초한 집약 농법은 가장 선진적인 영농 방법이며 그것은 농사에서 다수확의 기본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 당이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영농 사업에서의 기본 방침으로 규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선 농촌 경리 발전의 력사적 경향성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서 출발한 것이다.

농업 생산은 그 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부단히 집약화되여 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경향성은 농업에서 기본 생산 수단인 토지의 특성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함으로써 불모지를 리용이 가능한 땅으로, 나아가서는 옥토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새로운 토지를 만들 수는 없다. 파종 면적의 확장에는 어쨌든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정은 새 토지를 계속 쟁취하는 방식에 의한 생산의 무한한 증대는 결국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집약화에 의하여 농업 생산을 증대시킬 수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게 된다.

농업에서의 기본 생산 수단인 토지는 또한 다른 생산 수단과는 달리 잘만 관리한다면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부단히 제고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비옥도는, 그것이 토지의 객관적 속성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언제나 일정한 관계 즉 농업 화학 및 농업 기계학의

소여 발전 수준에 대한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발전 수준에 따라 변화한다.》(《자본론》 제 3 권, 2 분책, 260 페지)

이것은 토지의 비옥도가 그의 고유한 속성이기는 하지만 생산력의 장성, 과학과 기술의 도입에 의하여 부단히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파종 면적의 확장에는 한도가 있지만 토지의 생산성은 무한히 제고될 수 있다.

토지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은 집약화에 기초하여 농업 생산을 계속 증대시킬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우리 당이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영농 사업에서의 기본 방침으로 규정한 것은 또한 사회주의 농업 경영의 근본 요구로부터 흘러 나온 것이다.

집약화는 농업 생산의 중요 요소들인 토지, 기술, 로동의 결합 과정을 말한다. 즉 그것은 단위 생산물에 대한 로동의 지출을 감소시키면서 단위 면적에서 최대한의 생산물을 내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에 생산 수단과 로동을 추가적으로 투하하는 것이다.

집약화의 목적과 내용은, 단위 면적에 대한 최소한의 지출로써 최대한의 수확을 얻는 것을 과업으로 하는 사회주의 농업 경영의 근본 요구와 전적으로 합치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기계제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그 강력한 지원 하에 이 과업 수행이 훌륭히 보장된다.

우리 당이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영농 사업에서의 기본 방침으로 규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의 특성과 농업 부문의 제반 조건에 대한 심중한 타산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토지 면적이 량적으로 아주 제한되여 있고 그것조차도 척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앞으로 개간할 수 있는 땅도 우리 나라에는 많지 못하다.

우리 농업에서는 간혼작과 2모작 체계가 광범히 도입되여 있고 전형적인 관수 농법에 의존하는 논'벼 재배가 지배적이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공업 발전 속도는 비상히 빠르며 우리 나라의 인구 밀도는 퍽 높다.

이 모든 자연 지리적, 사회 경제적 조건들은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 발전의 출로를 농촌 경리의 집약화에서 찾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영농 사업에서의 기본 방침으로 규정하고 해방 직후부터 특히는 협동화를 진행하면서부터 그 수준 제고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과 현명한 령도, 농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집약화 수준은 결정적으로 제고되였다.

그것은 관개 면적의 급격한 확대, 농업 생산에서 기계화 수준의 제고, 단위 면적 당 자급 비료와 화학 비료 시비량의 증대, 토지 리용률의 장성, 농업 생산의 부문 별 구조의 변화 등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다음 통계표는 농촌 경리의 집약화 수준이 제고된 정형을 뚜렷이 보여 준다.

농촌 경리 집약화 수준의 제고

	총경지 면적 중 뜨락또르에 의한 기경 몫(추경)(%)	경지 정당 뜨락또르 작업량(연경정보)	논 정당 관개 면적(정보)	경지정당 화학비료 시비량(kg)
1956년	10.5	0.36	0.74	113
1960년	36.0	3.59	0.93	160
1963년	—	—	1.00	300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의 집약화 수준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 집약화의 경제적 효과성도 급속히 높아졌다.

그것은 경지 정당 생산액의 급격한 장성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례컨대 1959년에 비하여 1961년에 그것은 벌써 1.3 배로 제고되였다.

농촌 경리 집약화 수준의 제고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가져 왔다.

협동화 이후 5 년 간에만 하더라도 알곡 총수확고는 1.5 배로 장성되였다. 그리하여 전후 계속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남아 있었던 식량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였다.

농경지가 국토의 16% 밖에 안 되며 그것조차 척박한 땅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작물이 해마다 한해, 수해, 랭해를 받던 우리 나라에서 또한 과거에 농업 기술이 매우 락후하였으며 더우기 전쟁으로 인하여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파괴되고 로력과 축력이 심히 부족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그것은 사회주의 농업 발전을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길은 집약화의 길이며 오직 농촌 경리의 집약화에 의거할 때만 농업 생산의 부단한 앙양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 *

우리 당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집약화하는 행정에서 거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농촌 경리의 집약화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경험은 그의 중요 방도인 농촌 기술 혁명의 내용과 그 순차를 정확하게 설정한 것이다.

우리 당은 농업 생산의 특성, 영농 체계 및 공업 발전 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농촌 기술 혁명의 내용을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로 규정하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결합시켜 전면적으로 실현하였다.

농촌 기술 혁명은 집약화 수준 제고를 위한 중요 방도이다. 기술 혁명은 집약화가 제기하는 과업—생산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면서 단위 면적에서의 수확고를 장성시키는 과업 수행에 철저히 복무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촌 경리 집약화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기술 혁명의 모든 측면들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 기술 혁명의 중요 측면인 기계화, 전기화는 주로 생산에의 기계의 적용을 통하여 로력을 절약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기술 혁명의 다른 측면인 화학화, 수리화는 비료와 물의 작용을 통하여 토지의 비옥도를 증가시켜 단위 면적 당 생산성을 제고케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농촌 기술 혁

명의 내용을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의 네 가지로 규정하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결합시켜 전면적으로 실현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

또한 우리 당은 농촌 기술 혁명의 순차를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수리화를 선행시키면서 나라의 제반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추진시켰다.

우리 나라에서는 년중 강우량의 시기별 분포가 몹시 고르지 못 하며 관수 농법에 의존하는 논 농사가 농업에서 기본이며 수리화에서 기본 자재로 되는 세멘트 생산이 기계 생산보다는 비교적 용이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수리화를 선행시켰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에 복무하는 중공업의 급격한 발전에 의거하여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들과 각종의 화학 비료들, 다양한 농약들을 농촌에 생산 공급하고 그에 기초하여 농촌 경리의 기계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추진시켰다.

이와 같이 우리는 농촌 기술 혁명에서 수리화를 선행시키면서 조건이 조성됨에 따라 이여의 모든 측면을 곧 따라 세웠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농촌 기술 혁명은 하나의 명백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농촌 경리의 집약화가 제기하는 두 가지 과업—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단위 면적 당 수확고의 장성이 동시에 고려되면서도 그의 중점이 우선 수확고의 장성에 떨어진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나라에서 토지가 제한되여 있고 인구 밀도가 높다는 사정과 식량을 자급 자족해야 할 사정에 의하여 규정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농촌 기술 혁명 수행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였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는 농촌 기술 혁명의 네 가지 기본 구성 부분이다. 기계화, 전기화에만 치우치고 수리화, 화학화를 소홀히 한다면 농사에서 수확고를 부단히 높일 수 없다. 반대로 수리화, 화학화에만 힘을 넣고 기계화, 전기화를 하지 않는다면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없고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 줄 수 없다.

공업의 발전 정도와 농촌의 구체적 형편에 따라 선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참말로 튼튼히 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 기술 혁명의 네 가지 기본 과업—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여야 한다.》(테제)

농촌 기술 혁명의 내용과 그 순차에 대한 규정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실천에서 우리가 얻은 귀중한 경험이다.

이것은 우리와 류사한 조건에서 민족 경제 건설에 들어 서는 많은 나라들에 대한 모범으로 된다.

농촌 경리의 집약화는 합리적인 영농 체계를 전제로 한다.

만약 집약화가 생산의 옳은 배치와 전문화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않을 때 그것은 응당한 경제적 효과성을 나타내지 못 한다.

우리 당은 농업을 직접 지도하게 된 그 초시기부터 농업 생산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에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우리 당은 알곡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공예 작물, 축산업, 과실 생산, 잠업 등 부문들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농업 발전 방향에 근거하여 생산의 배치와 전문화를 계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불합리한 농업 생산 구조를 우리 사회의 요구에 맞게 진정적으로 개선하였다.

농촌 기술 혁명과 합리적인 영농 체계에 기초하여 집약 농법이 더욱더 발전되였다.

집약 농법의 도입에서 우리 당은 토지의 효과적인 리용에 제 1 차적인 주의를 돌렸다. 우리는 토지를 개량하였으며 3정 체계와 급수 및 과학적 시비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벼를 비롯한 다수확 작물의 재배 면적을 현저히 확장하였다.

우리 당은 농민들의 경험과 기술자들의 협조를 강화하여 현지의 자연 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영농 방법들을 탐색케 하며 보급시키도록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집약 농법의 기본 내용은, 토지를 적극 개량하며 육종 및 채종 사업을 강화하며 과학적인 기경 체계와 시비 체계 및 급수 체계를 확립하며 2모작과 간혼작을 광범히 실시하며 고산 지대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농촌 기술 혁명의 촉진, 농업 생산 구조의 개선 그에 기초한 집약 농법의 가일층의 발전,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 집약화 수준의 제고를 가져 온 요인들이다.

농업 생산 발전의 기본 담보인 농촌 경리 집약화 수준의 제고—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인 현상이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농촌 경리 집약화의 과정은 사이비 과학적인 《토지 수확 체감의 법칙》의 부당성을 립증하였다.

레닌은 이 《법칙》을 설교하는 자들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상대적으로 (때로는 절대적으로까지) 감소되는 농촌 인구로 하여금 증대하는 주민 대중을 위한 증대하는 농작물 량을 생산할》(레닌 전집 제 5 권 1 분책, 163 페지) 가능성을 준다.

1916～1960 년 간에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은 221%로 장성되였는데 인구는 그간 117%로 증가하였고 경지 면적은 102.9%로 확장되였다.

인구의 장성 및 파종 면적의 확장과 농업 생산 발전 간의 이러한 호상 관계는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집약화 수준이 결정적으로 제고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로동 생산 능률과 정당 수확고가 비상히 장성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농촌 경리 집약화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농업—토지 리론에서의 기본 명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지의 생산성은 무한히 제고된다는 명제의 정당성을 보여 주었다.

농촌 경리의 집약화 행정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또한 집약화의 촉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경리의 규모를 설정하였고 가장 선진적인 지도 방법, 지도 단위를 규정한 그것이다.

농촌 기술 혁명의 촉진은 농촌 경리의 집약화, 즉 단위 면적에의 투자의 집적을 가져 온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일정한 생산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농업의 집약화는 지도 체계, 경영 조직이 어떠한가에 따라 촉진 또는 저

에 딩한다.

레닌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리론적으로는 임의의 토지 면적에의 임의의 규모의 자본의 임의의 투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존하는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및 기타 제 조건에 〈의존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는 바로 소여의 나라에서 소여의 시기에 어떠한 조건이 현존하는가에 있는 것이다.》(레닌 전집 제 22 권, 84~85 페지)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경리 규모를 설정하는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그것은 경리 규모가 토지의 합리적 리용, 로력 조직의 개선, 경리의 다각적 발전, 농업 기계화 및 농촌 건설 사업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협동화가 끝난 이후 리 행정구역 단위로 협동 농장들을 통합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리 규모는 농호수에서 평균 300 호 이상이며 농경지에서 500여 정보로 되고 있다.

우리 농장 관리 간부들의 수준, 그들의 경리 운영의 경험과 농장원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이러한 정도의 규모가 농업 집약화의 촉진을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생활은 잘 보여 주었다.

또한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실현하는 데서 군을 지도 단위로 선정하였고 공업을 지도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농업을 지도하는 데 적용하였다.

오늘 우리의 군은 농촌 기술 혁명의 수행과 농촌 경리 집약화의 실현을 위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군에는 평균 1만 정보 내외의 토지와 6,000 호의 농호가 있으며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적지 않은 간부들이 있다.

또한 군에는 농촌 기술 혁명의 거점인 농기계 작업소를 비롯한 국가 기업소들이 있으며 많은 기술 수단들이 집중되여 있다.

군에 있는 토지, 기술, 로동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우리의 현 조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또한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왜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 거기에 오늘 집약화를 위한 가장 큰 예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군을 지도 단위로 하면서 협동 농장에 대한 지도에 기업적 방법을 적용하여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급속히 촉진하였다.

농업의 경리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 장비가 현대화되는 조건에서 농업에 대한 관리 방법이 공업의 선진적인 관리 방법에 접근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기업적 방법에 의한 지도는 농촌 경리의 집약화에서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였다.

그것은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켰으며 토지, 농기계 기타 생산 수단들과 로동력의 합리적인 결합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리를 농업의 경리 규모로 하고 군을 지도 단위로 하면서 공업을 지도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인 기업적 방법을 농업 생산 지도에 적용하여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성과 있게 실현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집약화하는 행정에서 우리가 얻은 또 하나의 경험이다.

우리 당은 합리적인 경리 운영 체계와 방법을 수립하고 그에 의거하여 농촌 기술 혁명을 수행하며 농업 생산 구조를 개선하며 집약 농법을 광범히 실

시합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집약화에서 전례 없는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고 또 달성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집약화 과정은 사회주의가 소농 경리나 자본주의 경리보다 집약화를 위한 훨씬 커다란 가능성을 지어 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생산 규모가 작고 기술 토대가 약한 소농 경리는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실시할 수 없다. 그것은 기껏하여 한 가족 및 역축의 힘에 의거하여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집약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규모의 자본주의적 경리는 소농 경리보다는 집약화를 위하여 기술 경제적 면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리도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 주기적으로 래습하는 경제 위기, 도시와 농촌 간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농업의 집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지 못 한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실현한 우리의 경험은 농업에서의 생산의 집적을 의미하는 집약화가 공업에서의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가장 훌륭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우리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집약화에서 실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얻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이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농촌 경리의 집약화를 더욱 전진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집약적 영농 방법에서 이미 얻은 풍부한 경험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농작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토지를 정리하고 개량하며 가능한 모든 곳에서 2모작 체계를 도입하며 간작, 혼작 등을 더 광범히 실시하여야 한다. 육종 사업을 강화하여 종자를 개량하며 자급 비료를 더 많이 내며 모든 영농 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하고 논밭을 알뜰하게 가꾸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테제가 제시한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례컨대 우리 나라 모든 지역의 집약화 정도는 동일하지 않으며 그의 효과성도 각이한 수준에 있다. 1961년 현재 집약화 수준과 경제적 효과성이 제일 높은 도는 낮은 도에 비하여 뜨락또르 작업량은 12 배 이상, 화학 비료 시비량은 3 배 이상, 경지 정당 생산액은 2 배 이상 각각 높다.

우리는 이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모조리 동원하여 농촌 경리를 부단히 집약화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가일층의 앙양을 보장하여야 한다.

《3.24 데모》에 대하여

전 웅 현

범죄적인 《한 일 회담》을 반대하여 일어난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3.24 데모》는 현 시기 남조선 사회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반영한 매우 중대한 사변이다.

오늘 남조선에는 미제의 조종에 의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 책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위협이 드리우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한 일 회담》의 막 뒤에서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적 침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박 정희 일당은 그들을 적극 맞아 들이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미 일 제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 노예로 전락되게 될 엄중한 사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범죄적인 《한 일 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3.24 데모》는 미제의 조종하에 감행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박 정희 도당의 음모 책동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정의롭고 애국적인 투쟁이다.

지난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에서 채택된 범죄적 《한 일 회담》을 분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한 호소문은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애국의 불'길

지난 3월 24일부터 1 주일 간에 걸쳐 남조선에서는 범죄적인 《한 일 회담》을 반대하는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항쟁이 폭발되였다.

남조선의 도시와 마을들은 항쟁의 거센 불'길에 휩싸였고 시위자들의 웨침소리는 천지를 진감하였다.

분노에 찬 남조선 학생 청년들은 4.19 항쟁의 피가 어린 거리와 광장에 떨쳐 나섰으며 괴뢰 《국회 의사당》, 《중앙청》, 《청와대》, 《뉴코리아 호텔》로 육박하였다.

괴뢰 경찰과 경비대들의 곤봉도, 바리케트도, 최루탄도 노한 파도처럼 일어난 항쟁의 불'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이 《3.24 데모》는 일련의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 주고 있다.

《3.24 데모》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점차 높아 가고 있는 사실이다.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은 시위에 돌입한 첫날부터 일본 군국주의와 남조선 반동 계층들에게 투쟁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시위에 떨쳐 나선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은 《한 일 회담을 즉시 중지하라》는 구호와 함께 《일본 군국주의를 박살하라》, 《쪽발이 물러 가라》, 《일제의 척후병인 일본 상사를 몰아 내자》 등 일제의 재침을 규탄하는 구호를 웨쳤다.

다른 한편 시위자들은 《제 2의 리 완용은 물러 가라》, 《박 정희 정권을 타도하라》, 《박 정희와 김 종필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제기하였다.

금번 시위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서울, 대구, 부산 등 도시에서 학생들이 일본의 수급 전범자인 도죠 히데끼와 현 일본 수상 이께다 그리고 매국 역적 박 정희를 비유한 가장물을 만들어 《화형》에 처한 것이다.

이것은 《3.24 데모》가 남조선을 재침하려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반항과 박 정희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항거의 표시이다.

동시에 시위자들은 미 제국주의에 대하여 투쟁의 화살을 돌리고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시위에서는 《미국은 한 일 회담에 관여 말라》, 《한 일 회담만이 현 정권의 출로가 아님을 알라》, 《자립 경제는 한 일 회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 구호가 제기되였으며 또한 시위자들은 《한 일 회담》을 조기 타결하려는 박 정희를 지지한 남조선 주재 미국 《뉴욕 타임스》지 기자를 추방하라고 요구하였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외세 의존을 반대하고 남북 조선 인민들의 민족 주체 력량에 의하여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지향의 발현이다.

항쟁에서 제기된 명백한 정치적 구호는 더욱 광범한 학생 청년들을 투쟁에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금번 항쟁에서 표현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항쟁이 대규모적이고 련대성이 강화된 것이다.

서울 대학교, 고려 대학교, 연세 대학교 및 대광 고등 학교 등 서울시내 몇 '개 학교 학생들이 처음 올린 투쟁의 불' 길은 삽시에 남조선 전 지역에 확대되였다.

남조선의 중요 도시는 물론 적지 않은 어촌에서도 항쟁이 폭발되였다.

항쟁에는 대학생들과 함께 중 고등 학교 학생들이 망라되였으며 많은 녀학생들까지 참가하였다.

이리 하여 금번 항쟁에 참가한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시민들의 수는 20여만 명에 달하며 23 개의 도시와 어촌을 포괄하고 있다.

서울시내 각 대학생 대표들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보조를 맞출 데 대한 회합을 가졌으며 지방들에서도 학교 단위로 집회 또는 회합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 매개 지방, 매개 학교들에서 시간 상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형태의 항쟁을 전개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3.24 데모》가 그의 규모와 련대성에 있어서 4.19 봉기에 못지 않는 항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 통신들까지도 금번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항쟁에 대하여 《류혈을 동반한 이와 같은 대시위는 리 승만 정권을 타도한 1960년의 4.19 학생 시위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론평하고 있다.

금번 항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또한 새 정치, 새 제도에 대한 지향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항쟁에 궐기한 남조선 학생 청년들은 여당과 함께 야당을 반대하는 구호도 제기하고 있다.

남조선의 적지 않은 도시들에서 시위자들이 제기한 구호에는 《야당들은 우리를 리용하지 말라》고 지적되여 있다.

바로 이러한 구호가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 위원회》의 간판 밑에 인민들의 반일 감정을 정권욕 실현에 리용하려는 구 정치인들의 책동이 로골화되고 있던 시기와 때를 같이 하여 제기되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리 승만을 비롯한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의 학정을 겪은 남조선 인민들은 그 누구도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 줄 수 없으며 여당이나 야당이나를 막론하고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리 하여 금번 항쟁은 박 정희 도당과 함께 야당의 음흉한 책동을 폭로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서 미 일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나라의 자주 통일을 위한 혁명의 객관적 정세가 점차적이나마 성숙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금번 남조선에서 폭발된 《3.24 데모》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3.24 데모》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큰 타격을 가하였으며 박 정희 통치 지반을 뒤흔들어 놓았다.

미제는 저들의 뜻대로 침략과 략탈 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박 정희 도당은 반인민적 정책을 더는 계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특히 금번 항쟁은 《한 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파탄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본래 미제의 조종 하에 박 정희 도당은 《한 일 회담》을 4월 중에 끝내고 5월에는 남조선 괴뢰 《국회》에서 비준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금번 항쟁에 질겁한 박 정희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한 일 회담》의 타결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출판물들도 《한 일 회담》에는 《봄 방학》이 도래했다고 쓰고 있다.

금번 항쟁은 남조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투쟁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번 시위는 남조선 괴뢰 정권의 법 질서를 여지 없이 무너뜨렸다.

박 정희 괴뢰 정권의 《시위법》에 의하면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최하 10년의 징역, 최고 사형에 처하게 되여 있으며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에는 《중앙청》이나 《국회 의사당》 또는 《대통령 관저》, 《외국 대사관저》로부터 300 메터 이내 지역에서의 시위를 엄금한다는 것이 규정되여 있다.

그러나 금번 항쟁에서는 시위자들이 이러한 전쟁에 육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는 감히 가로막지 못하였다.

그는 금번 시위와 관련한 《담화》에서 《평화적인 시위》에 대하여는 《허락》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변호한 바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박 정희가 앞으로는 그 어떤 시위도 과거처럼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스스로 취소해 버린 것으로 된다.

이것은 항쟁이 거둔 큰 승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항쟁은 지도적 력량의 결여, 조직성과 의식성의 미약으로 말미암아 일련의 약점과 제한성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 못 하였다.

항쟁은 주로 앉아 버티기, 가두 시위, 담판 등에 머물렀다.

문제는 오늘 남조선 인민의 모든 불행의 화근인 미제와 일제를 몰아 내고 매국 배족 행위를 일삼고 있는 박 정희 정권과 온갖 반동 세력을 분쇄하는 데 돌려졌어야 했다.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투쟁에서의 이러한 약점과 제한성은 앞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점차 극복될 것이다. 이것은 투쟁 발전의 합법칙성이다.

폭발의 원인

오늘 남조선 학생 청년들이 애국적인 투쟁에 궐기하게 된 것은 단순한 동기에서가 아니다.

그것은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박 정희의 매국 책동에 대한 쌓이고 쌓인 울분의 폭발이다.

미제는 오래 전부터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를 결탁시키기 위한 음모로 《한 일 회담》을 추진시켜 왔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한 일 회담》은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에서 위기에 직면한 식민지 통치를 수습하며 나아가서는 극동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의 조작을 실현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의 산물이다.

미제는 조선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하던 1951년 10월부터 《한 일 회담》을 조작하고 그 후 직접 이것을 지휘하고 조종하여 왔다.

《아세아에서 일본이 지도적 역할을 놀아야 한다》느니,《한국의 장기적 안정과 경제적 리익은 불가피하게 일본과 련결되여 있다》느니 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을 결탁시키려고 서둘렀다.

그러나 장 면 정권 시기까지 5 차에 걸쳐 조작된 《한 일 회담》은 조 일 량국 인민의 완강한 배격과 항의에 의하여 파탄되였고 좌절되여 왔다.

최근 미제는 남조선에서 저들의 식민지 통치가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이 전면적인 파탄에 직면하게 되자 종전의 배후 조종자의 가면마저 벗어 던지고 자기의 정체를 전면에 드러내 놓으면서 6 차 회담의 속결을 위하여 발광하게 되였다.

미제는 한편으로는 이께다를 비롯한 일본 당국자들과 박 정희를 워싱톤에 초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 국무 장관 러스크, 법무 장관 로버트 케네디 등을 일본과 남조선에 파견하여 밀담을 거듭하면서 《한 일 회담》을 최종적인 결속에로 이끌기 위하여 로골적으로 책동하여 왔다.

이것을 기화로 교활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들어 와 식민지 략탈자로서의 옛 지위를 회복해 보려고 망상하였다.

이미 남조선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

에 손을 뻗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최근 박 정희를 길잡이로 하여 급속히 남조선에 밀려 들어 왔다.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최근 2년 간 차관과 직접 투자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각종 계약 액수는 괴뢰 정부의 총 외화 보유고의 5 배인 5억 딸라에 달하고 있으며 이미 침투한 일본 독점체들은 무역, 《기술 협조》, 《보세 가공》 등의 형태를 통하여 남조선 무역의 주요 부문과 중 소 기업의 대부분을 손아귀에 넣었다.

경제적 침투와 병행하여 사상, 문화적 침투도 또한 로골화되였다.

지금 남조선에는 일본 상품과 함께 퇴폐적인 일본의 노래, 영화, 소설들이 쓸어 들고 지어 종교의 탈을 쓴 《창가학회》까지 침투하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악독한 독소를 퍼뜨리고 있다.

특히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한 일 회담》을 통로로 남조선에의 군사적 침투도 계획하여 왔다.

일제는 《한국과 분리된 일본 방위는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한 일 회담》을 속히 결속하려 할 뿐만 아니라 《공동 방위》라는 구실 하에 《한 일 국교 정상화》 전에 《한 일 군사 협력 계획》을 작성하여 놓고 대기 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 군인들에게 조선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대 파견 준비까지 서둘러 왔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는 남조선을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철저히 예속시켜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자기들의 처지를 구원하고 잔명을 부지하여 보려하고 있다.

박 정희는 《제 2의 리 완용이가 되더라도》, 《나라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한 일 회담》을 속히 성취시키겠다고 하면서 로골적으로 매국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수십억 딸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대일 배상권 문제를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단 몇 억 딸라에 팔아 넘기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 어민들의 어업권,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 민족 권리도 팔아 먹고 있으며 심지어 몇 푼의 어업 자금을 차관으로 받기 위하여 조국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팔아 먹는 것까지도 꺼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만일 《한 일 회담》이 타결된다면 남조선 인민들은 불피코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2중의 노예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실로 남조선에는 《한 일 합병》의 전야를 방불케 하는 새로운 엄중한 위협이 닥쳐 왔다.

특히 《한 일 회담》의 일괄 타결을 목적으로 한 김 종필의 일본 행각은 정세의 추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던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김 종필의 매국 행각을 계기로 《3.24 데모》는 폭발되였던 것이다.

《3.24 데모》를 폭발시킨 근저에는 《굴욕 외교》에 대한 반항과 함께 남조선 인민들의 참을 수 없는 민생고에 대한 불만이 놓여 있다.

박 정희 통치의 3 년 간은 남조선을 더욱더 헤어 날 수 없는 파국과 도탄 속에 몰아 넣었다. 박 정희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그들은 체험을 통하여 박 정희 통치가 계속되는

한 자기들의 처지 개선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감이 강한 청년 학생들은 마침내 들고 일어 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방 통신까지도 《박 정회를 반대하는 학생 및 시민 시위들을 촉발시킨 것은 높은 생활비, 날로 낮아지고 있는 임금 및 광범한 실업이다》라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1964. 3. 30 《에이피》)

투쟁을 멈춰 세울 힘은 없다

《3.24 데모》에 극도로 질겁한 박 정회는 자기의 여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학생 청년들에 대한 폭압을 강화하면서 다른편으로는 회유와 기만의 간교한 술책에 매여 달리였다.

그들은 학생 청년들의 애국적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괴뢰군 제 30 사단, 제 33 사단, 제 1 공수간(수도 경비 사단), 6 개의 헌병 중대, 수만 명의 지방 경찰까지 동원하였다.

원쑤들은 시위에 궐기한 학생 청년들을 마구 체포 구금하며 도처에서 적수공권의 군중들을 란타하고 지어 최루탄을 발사하며 위협 사격을 하는 등 만행을 감행하였다.

한편 박 정회는 학생 청년들의 투쟁을 회유 무마할 목적 밑에 3월 26일에는 라지오를 통하여 《특별 담화》를 발표하였다.

《특별 담화》에서 박 정회는 자신을 소위 《애국자》로, 《한 일 회담》을 《애국하는 길》로, 굴욕 외교를 《평등 외교》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박 정회는 《특별 담화》에서 《승공 통일》을 이룩할 날이 수년 내에 박두했다》느니, 《한 일 회담》이 《승공 통일과 직결되여 있다》느니 하면서 《한 일 국교 정상화의 긴급성》을 력설하였다.

현실은 이러한 《론리》를 조소하고 있다.

《한 일 회담》이 범죄적이며 매국적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더우기 박 정회가 《승공 통일》이니, 뭐니 하는 것은 《한 일 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투쟁을 무마하며 그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승공 통일》이란 영원히 실현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이를 부르짖는 자는 《북진 통일》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웠다가 파멸한 리 승만의 운명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박 정회의 《특별 담화》는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는 학생 청년들의 투쟁을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진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어떠한 탄압도, 회유도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투쟁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

박 정회의 《특별 담화》가 발표되자 남조선 학생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민의가 반영되여 있지 않다》고 반대 배격하면서 더욱더 대규모적으로 《한 일 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결국 박 정회는 일본으로부터 김 종필을 소환하고 《한 일 회담》의 속결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박 정회의 이런 조치는 결코 《한 일 회담》을 중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한 일 회담》을 끝까지 성사시켜

보려고 학생들과 직접 《회담》을 진행하며 자기의 졸개들을 강사로 대학에 파견하여 《한 일 회담》의 조기 타결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회담》으로도, 《강연》으로도 각성된 학생 청년들을 기만할 수는 없다.

박 정희와 직접 《회담》한 학생 대표는 《회담이 만족스럽지 못 했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요구 조건과 실행 목표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1964. 3. 30. 《동양 통신》)

지금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은 정세 발전을 관망하면서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남조선 학생은 일본 기자와의 담화에서 자기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정부도, 일본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24일의 시위 이상으로 전체 학생들이 들고 일어 날 것이다.》(1964. 4. 2 《아사히 신문》)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투쟁은 남조선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고려 대학교 학생들의 《3. 24 데모》시에 서울 세종로에서는 5,000여 명의 군중들이 학생 대렬에 합류하여 시위에 참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은 데모에 참가한 학생 대표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향하여 돌을 던졌으며 경찰에 추격 당하는 학생을 숨겨 주기도 하였고 시위자들에게 음식물도 공급하였다.

특히 《3. 24 데모》 직후에 단행된 남조선 1만 3,000여 명 운수 로동자들의 파업 결의, 경인 지구 미군 부대에 고용된 2,000 명의 로동자들의 해고 반대 투쟁 위원회 조직과 시위의 전개 등 이 모든 것은 학생 청년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외롭지 않다.

오늘 북반부에는 나라의 부강 발전과 조국 통일을 담보하는 강력한 혁명 기지가 축성되였으며 북반부 전체 인민들이 싸우는 남조선 인민들과 함께 있다.

《한 일 회담》을 분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한 금번 최고 인민 회의의 제안들은 항쟁에 궐기한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최고 인민 회의는 남조선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며 조국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의 애국적 력량이 굳게 단합하며 반미, 반일•구국 대책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의 련석 회의를 소집할 것을 남조선 인민들과 정계 및 사회계 인사들에게 제의하였다.

또한 경제적 난관을 겪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매년 200만 석(30만 톤)의 쌀, 10만 톤의 강재, 10억 키로 와트시의 전기, 1만 톤의 화학 섬유를 비롯하여 세멘트, 목재, 기계류 등을 남조선에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 밖에도 남조선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실업자들을 공화국 북반부에 받아 들여 그들에게 기능에 맞는 직업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줄 것도 제의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의 이 제안들은 남조선 인민들 앞에 엄중한 재난이 닥쳐 오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조국의 장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된다.

오늘 국제 정세도 우리의 투쟁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혁명적 인민들과 진보적 인사들은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인민들 속에서는 범죄적인 《한 일 회담》을 분쇄하고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 조작 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이 더욱 치열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2월 16일 《한 일 회담》과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 조작 음모를 반대하여 무려 100여 만의 인민들이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4월 5일에는 도쿄에서 《한 일 회담》의 즉시 중지를 요구하여 10만여 군중이 집회, 시위를 진행하였다.

일본 공산당은 《남조선 인민의 애국 투쟁을 지지한다. 정의는 일 조 량국 인민의 편에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까지 발표하였다.

성명은 일본의 애국적 력량이 단결을 강화하며 일 조 량국 인민이 단결을 강화하며 《일 한 회담》을 분쇄할 것을 호소하였다.

중국, 월남, 알바니야를 비롯한 형제나라 인민들도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있다.

국제, 국내적으로 우리의 혁명 력량은 강대하며 우리 인민의 위업은 정당하다.

어떠한 원쑤도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된 하나의 대가정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는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을 수 없다.

지난 투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 인민들이 단결하여 거족적으로 투쟁한다면 원쑤들의 어떠한 아성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경험이 실증하였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 력량은 반미, 반일 구국 투쟁의 기치 하에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은 힘을 십 배, 백 배로 강화한다. 단결하여 미 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모든 책동을 분쇄하며 침략자들이 이 땅에서 배겨 나지 못 하도록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투쟁만이 승리의 길이다.

범죄적인 《한 일 회담》을 분쇄하고 민족의 자유와 영예를 찾기 위한 남조선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정의롭고 애국적인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남부 월남에서 미제는 패배를 수습할 수 없다

고 현 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발을 붙이고 있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그들의 침략의 마수를 꺾어 버리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아세아에서 미제는 인민들의 강력한 《집중 포화》에 걸려 들어 녹아 나고 있다. 아세아는 오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도발을 감행하면 할수록 더욱더 만회할 수 없는 참패를 거듭하고 있으며 더욱더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오늘의 남부 월남의 정세 발전이다.

미국 잡지 《네이슌》은 《남부 월남에서의 우리(미국)의 형편은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으며 우리는 곤경에 빠지고 있다》고 쓰고 있다.

미국의 극우 분자인 골드워터까지도 미제가 남부 월남에서 《또 하나의 조선》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들의 《굴욕적인 패배》에 대하여 통탄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실 오늘 남부 월남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당한 패배 이래 최대의 참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제는 1954년 인도지나 문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성립되고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이 쫓겨나자 그들은 대신하여 이 지역에 침투하여 자기의 괴뢰 정권을 조작하기 시작하였다.

미제는 처음부터 제네바 협정에 조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면서 1955년 10월에는 제네바 협정에서 규정된 남북 월남 총선거를 거부하고 남부 월남에서의 《국민 투표》를 통하여 친미 괴뢰인 노고 딘 디엠 정권을 조작하였다.

미제는 남부 월남에 침투하면서 이 지역을 우선 중근동으로부터 극동 지역에 이르는,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포위선》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 지대로 전변시키며 남부 월남에서 급격히 장성하는 혁명 력량을 탄압 말살하며 나아가서 동남 아세아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의 발전을 막아 보려 하였다.

이러한 기도 밑에 미제는 남부 월남 괴뢰들에게 막대한 딸라를 제공하고 군사 고문들과 전투 기재들을 투입하는 한편 괴뢰군을 동원하여 인민들을 반대하는 《소탕 작전》에 내몰았으며 적절적

인 무력 간섭을 감행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에서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감행하여 나선 지난 기간에 남부 월남 괴뢰들에게 무려 30억 딸라의 군사 《원조》를 주었다.

1961년 5월 당시 미국 부대통령이였던 존슨이 남부 월남에 가여 든 뒤를 이어 작성된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은 남부 월남에서의 애국 력량과 인민 무장대를 소멸하기 위한 그들의 중요한 전략적 반공세를 의미하는 것이였다.

미제는 이 계획에 매달려 《속전 속결》의 방법으로 8개월 이내에 남부 월남에서 혁명적 애국 력량의 주력을 소멸하고 전쟁의 승리를 달성할 것을 꿈꾸었다.

인민 무장대와 애국 력량을 고립시키고 《소탕》할 것을 목적한 《전략촌》 계획과 《공수 (空輸) 작전》 전술은 그들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 전략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제의 주구 느고 딘 누가 《전략촌》 계획을 최후의 작전이라고 하면서 이 계획이 실시되고 있는 한 실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까지 호언장담한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략촌》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였는가를 말하여 준다.

미제는 저들의 《속전 속결》 전술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이공에 미 군사 원조 사령부를 설치하고 미군 전투 부대들과 막대한 군사 기재들을 《소탕 작전》에 투입하였다.

지난 2년 간에만 하여도 미제는 남부 월남에 2만 5,000 명의 미군과 700 대의 비행기, 수많은 전투 함선과 수천 대의 장갑차를 비롯하여 신형 살륙 무기와 수만 톤의 탄약을 끌어 들였다.

그들은 심지어 유독성 화학 무기까지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애국 력량에 대한 《소탕 작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미제가 하루에 150만~200만 딸라의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써도 그들의 무력 간섭의 규모와 침략적 발악 상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의 혁명 력량을 소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이미 부러진 다리를 끌면서 진퇴량난의 궁지에 빠져 허덕이고 있으며, 인민 무장대는 밀림 지대에서 벗어나 활동 범위를 남부 월남의 전 지역에 확대하고 있다. 저들의 소굴인 사이공에서도 미제는 빈번히 폭탄 세례를 받고 있으며 시시로 위협하는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다.

미국의 한 기자는 남부 월남의 사태에 대하여 말하면서 《남부 월남 인민의 해방 투쟁은 밀림을 벗어 났다. 인민 무장대는 수용소와 〈전략촌〉의 철조망을 뚫고 사이공의 대문을 두드리고 있다…서부 고원의 무연한 밀림을 〈초토화〉하기 위한 미군 장군 하킨스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한 채 오늘까지 종이장으로 남아 있다…지금 그 누구도 미국의 괴뢰들이 남부 월남 전쟁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미국 신문들의 사설과 완고한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들의 보도들까지도 절망적인 비관에 완전히 빠지고 있다》(미국 기자 비체트 남부 월남 방문기)라고 썼다.

남부 월남 인민과 인민 무장대는 미제와 그 괴뢰들을 반대하는 전투에서 지난 3년 간에 1,500여 명의 미군을 포함한 25만 5,000여 명의 적들을 소멸하였으며, 900 대의 비행기를 격추, 격상시켰

으며, 수 많은 전투 기재들을 파괴 또는 로획하였다.

미제 침략자들이 애국 력량에 대한 《소탕 작전》의 기둥으로 삼았던 《전략촌》도 그의 8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였고 《직승 비행기에 의한 수송 전술》도 마비되여 쓸모 없는 것으로 되였다.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는 메콩강 삼각주를 포함하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전 령토의 3 분의 2 이상 지역을 해방하였다.

남부 월남 해방 전선의 주위에는 일부 극반동들을 제외한 전체 인민이 집결되여 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남부 월남에서의 미제의 악명높은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에 의한 공격 작전이 완전히 파괴되였으며 군사 전략적으로 그들이 위기에 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도덕적으로도 파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남부 월남에서의 혁명과 반혁명 간의 전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무력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미제와 그 괴뢰들은 완전히 수세에 빠졌고 초기에 적수공권으로 투쟁에 궐기한 유격대는 투쟁 행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힘으로 장성하였으며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외견 상 아무리 강하고 또 갖은 방법으로 발악한다 해도 자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력량은 소멸할 수 없으며 전체 인민들이 손에 무장을 들고 끝까지 투쟁에 궐기한다면 그 어떠한 적들도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말하여 준다.

그것은 또한 인민들이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는 길이 제국주의 앞잡이들이 운운하는 《계급 협조》나 원쑤들과의 《평화적 공존》이 아니라 그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확증하여 주고 있다.

남부 월남 인민과 무장대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의 파산은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남부 월남에서의 미제의 군사 전략적, 정치 도덕적 패배는 동남 아세아에서 민족 해방 운동을 말살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을 《봉쇄》하며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전략 계획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남부 월남 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미제의 침략 정책의 《척추》를 부러뜨려 놓음으로써 동남 아세아 인민들 뿐만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커다란 고무적 힘을 주고 있다.

남부 월남 인민과 그 무장대가 달성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미제의 《전략촌》 계획과 《공수 작전》 전술을 마비시킴으로써 앞으로 그 어떠한 적들의 작전 계획도 능히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 *

남부 월남에서의 패배에 극도로 당황한 워싱톤의 지배층들은 곤경에서 벗어 날 그 어떤 《새 정책》 작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괴뢰 정권의 무능력과 병사들의 사기 저락에서 찾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농품적》인 괴뢰 정권과 미국의 《인내성》과 《최대한의 원조》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부 월남에서의 저들의 군사적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특수 전쟁》의 확대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민 무장대의 《공세의 근원》을 공격하며 민주 월남에 《제 2 전선》을 형성하려는 모험적인 책동까지 꾸미고 있다.

미제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이러한 소동은 그들이 얼마나 당황망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며 더욱더 모험적인 전쟁 정책에 매여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제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불과 3 개월 동안에 두 번이나 괴뢰들을 교체하는 연극을 꾸미였다.

그러나 그들이 괴뢰들을 교체할 때마다 남부 월남 정세는 더욱더 미제에 불리하게 전변되였으며 인민 무장대는 그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였다.

미제는 또한 남부 월남 주재 미군 사령부 참모장을 파면시켰으며 월남 문제의 《권위자》의 하나인 극동 담당 미 국무 차관 힐즈맨을 국무성에서 내쫓고 새로운 호전 분자들로 교체하였다. 불과 두 달 전에 남부 월남 《시찰》 려행에서 돌아 갔던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베트콩을 반대하는 전쟁의 실태와 사태 발전을 평가》하며 《반베트콩 작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 수준 및 성격을 개선》할 방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3월 8일에 또다시 남부 월남에 기여 들었다.

미제 호전 장군의 빈번한 남부 월남 방문이 《척추》가 꺾이진 저들의 침략 정책을 재검토하며 전쟁 확대 준비를 강화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는 남부 월남에 기여 들기 바쁘게 괴뢰들을 고무할 목적 밑에 《최대한의 무제한한, 무조건적인 원조》를 약속하였으며 괴뢰들과 련일 《회담》을 벌려 놓고 그 무슨 《전략 행동 계획》을 검토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 괴뢰들에 대한 군사 장비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깜빠니야를 벌려 놓고 있는데 서방 출판물들은 《제 2 차 대전과 조선 전쟁 시를 상기시킨다》고 쓰고 있다.

승산 없는 《특수 전쟁》을 확대하려고 발악하면서 미제는 저들의 딸라의 힘과 무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미제가 남부 월남의 《선전 포고 없는》 전쟁에 아무리 많은 딸라와 군사 장비를 투입한다 해도 곤경에서 벗어 날 《담보》란 없으며 그들이 발을 들이 밀면 밀수록 진흙탕 속에 더욱더 깊이 빠져 들어 가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미제와 그 괴뢰들이 남부 월남의 애국 력량을 반대하는 《선전 포고 없는》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들의 군사적 장비나 《원조》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군사 장비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제는 남부 월남에 비행기, 함선 등 신형 무기들을 무제한 투입하였는바 이것은 인민 무장대의 장비에 비하여 우세한 것이였다.

《원조》에 있어서도 미제는 남부 월남에 실로 매년 5억 딸라 이상을 투입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련속 패배

를 당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미제와 그 괴뢰들이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여 있으며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부정의의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인민 무장대는 원시적 무기와 적은 력량으로써도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고도 영웅주의와 애국주의를 발휘하고 능숙한 유격 전술을 적용함으로써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으며 오늘은 강대한 력량으로 장성하였다.

인민 무장대의 영웅주의와 애국주의, 이것은 지난 년간 가렬한 전투에서 미제 침략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가장 세련된 《무기》였으며 승리의 담보였다. 적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도 유격대의 이 영웅주의와 애국주의이며 적들이 타산하지 못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막대한 무기와 딸라를 투입하여 진행한 《특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담보》란 없다.

미제가 남부 월남에서 전쟁 확대에 광분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제와 그 괴뢰들을 반대하는 남부 월남 인민의 투쟁은 보다 간고성을 띠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에서 영웅적인 남부 월남 인민은 반드시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할 것이며 미제 침략자들이 마침내 전쟁에서 매장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 되고 있다.

미제는 조선 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를 오늘 또 남부 월남에서 거듭하고 있다. 그들이 남부 월남에서 뿐만 아니라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제 3의 조선》, 《제 4의 조선》…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오늘 인민 무장대는 전체 남부 월남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고 있는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의 정확한 령도를 받고 있다.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은 남부 월남 혁명의 지주로 되고 있으며 민족적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위한 반침략 전쟁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뿐만 아니라 남부 월남 인민들은 민주 월남 인민들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무한한 고무적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인민 무장대는 적들의 어떠한 공격도 격파할 수 있는 현대적 무기로 장비한 강력한 력량으로 장성되였으며 전국의 3 분의 2에 달하는 광활한 혁명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들의 몸심 량면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은 장기간의 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고도의 영웅주의와 애국주의를 소유하고 있는 인민 무장대는 미제와 괴뢰들의 어떠한 공격도 격파하고 승리할 것이며 이제 제 2, 3…의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이 나온다 해도 그것이 맥을 쓰지 못 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미제와 결탁하고 있는 괴뢰 정권도 역시 더욱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남부 월남 괴뢰 정권은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여 있다. 괴뢰 정권은 미제의 《원조》 없이는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문'자 그대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남부 월남 문제를 둘러 싼 제국주의 진영 내부의 모순도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의 《중립화》 안을 들고 나옴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잃었던 남부 월남에서의 옛지위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확대 정책은 《나토》의 성원국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남부 월남에서의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정책은 미국의 진보적 인민을 포함한 전 세계 인민들의 규탄을 받고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세계의 모든 곳에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국제 헌병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남부 월남 인민들의 반미 민족 해방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평화 련락 위원회 시기국은 성명을 발표하고 싸우는 남부 월남 인민을 지지할 것과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에 더욱 큰 타격을 가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로동조합 중앙 련맹은 300여만 명 맹원들의 이름으로 남부 월남에서의 미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만행을 규탄하고 남부 월남 인민들에 대한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 모든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참패의 운명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잘 말하여 준다.

현실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침략 전쟁을 북부 월남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얼마나 승산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 *

오늘 남부 월남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더 세차게 진행되고 있다.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남부 월남 인민들의 전진을 막을 힘은 없다.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부 월남에 대한 침략 및 간섭을 중지하고 모든 침략 군대와 무기를 철수하며 1954년 제네바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만이 남부 월남에서의 저들의 위기를 면하는 길로 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며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시종일관 싸우는 남부 월남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이다. 《우리 인민은 외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월남 인민을 적극적으로 지지》(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하고 있다.

남부 월남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미 제국주의자들은 종국적인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근 로 자 제 8 호(루계 246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4월 17일　　발 행 • 1964년 4월 20일

ㄱ—430243　　값 40 전